국립국어원 2018-01-06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710-01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 연구

-언어 예절을 중심으로-

연구 책임자 : 박철우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 연구-언어 예절을 중심으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업 기간】

2018년 4월 13일 ~ 2018년 11월 2일

연구 책임자: 박철우(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구 기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박철우

공동 연구원: 나은미, 신호철, 이현희, 박미영

연구 보조원: 신희성

보조원: 유슬기

담당자: 박미영(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연구 책임자	박철우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나은미	한성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신호철	청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이현희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박미영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학예연구사
연구 보조원	신희성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보조원	유슬기	안양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강사
국립국어원 담당자	박미영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학예연구사

【국문초록】

이 연구는 시대 변화에 따라,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 정책 방안을 새로이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이란 주로 공적인 상황에서의 호칭·지칭, 높임법, 인사말 등과 같이 대화의 상대나 대화 중 가리킴의 대상의 체면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접하여 말하는 표현 방식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우선적으로 호칭·지칭으로 한정하였다.

기존에 수립되었던 언어 예절 정책 방안으로는 국립국어원에 의해 발간된 1992년의 『표준화법 해설』과 2011년의 『표준 언어 예절』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방안들은 기본적으로 가족 관계에서 남성 쪽 집안을 중심으로 삼고, 직계와 방계의 친족, 외척, 인척 등의 관계를 가급적 명확히 구별하여 가리키는 호칭과 지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방안의 준거를 전통적 제도에서 찾아 규범적으로 답습하면서 그것을 표준으로 제정하는 방식의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표준 언어 예절』 이전까지만 해도 전통이 곧 표준이라는 생각에 대한 문제제기가 두드러지지 않았고, 혼인 등으로 인해 관계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미 제정되어 있는 규범을 따라 호칭과 지칭을 조정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한 실태 조사와 그 무렵을 전후해서 언론을 통해 제기되기 시작한 쟁점들 가운데에는, 남성과 여성의 가족 호칭 가운데 존재하는 높임 등급에서의 비대칭성과 어원에 반영된 남성 중심 문화의 흔적이 불편하다는 지적들이 많았고, 사회적 관계에서의 호칭들 가운데에도 듣거나 부르기에 거리끼는 예들이 관찰되곤 하여, 이제는 국민들의 사용 실태와 의식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새로운 언어 예절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2017)에 나타난 언어 예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세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심층 설문을 설계하여 다양한 사회적 변인을 고려한 피험자 30여 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학술대회 정책 포럼, 전문가 자문, 여성계 자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국민생각함과 네이버의 설문조사, 성균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표준 언어 예절』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정책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수립된 정책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호칭과 지칭을 최대한 실태대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일부 사회집단에서라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호칭이나 지칭이 있다면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렇게 수립된 정비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남녀 간 대칭적 호칭어 지칭어 체계를 갖추어 제시한다. 둘째, 호칭어나 지칭어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제시하되, 다소 잉여적이더라도 체계상 빠져 있는 부분은 보완하여 제시한다. 셋째, 기본적으로 모든 지칭은 호칭으로 통용될 수 있다. 넷째, 지역을 구별 표지로 하는 호칭이나

지칭, 자녀를 매개로 한 호칭이나 지칭, 제3자와의 관계를 활용한 호칭이나 지칭의 사용을 폭넓게 허용한다. 다섯째, 각 가정이나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필요나 목적에 따라 호칭어나 지칭어를 자유롭게 정해서 쓸 수도 있다. 특히 상황이나 장면, 친소 관계 등의 변화에 따라 호칭어나 지칭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하는 호칭어나 지칭어를 기준으로 삼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정비 내용의 활용 방안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 그것은 가족 관계와 사회관계를 집단의 관점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개인은 그 집단 속 관계의 좌표 속에서만 존재 가치를 가진다는 관점에서 언어 예절을 집단의 질서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언어 예절은 보다 다양화된 가족과 사회집단의 유형에 따라 그러한 집단에 속한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소통 전략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 변화를 전제한다면, 본 연구의 정비 내용은 기존에 규범적으로 좁게만 제시했던 호칭어와 지칭어의 범위를 보다 전략적으로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열어놓았고 그에 따라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은 표현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높임말, 인사말 등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 전반에 대한 보다 전략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

1. 서론 ····· 003

2. 연구 개관 ····· 009

2.1. 연구의 기본 방향 ····· 009

2.2. 연구 개요 ····· 010

2.2.1. 필요성 및 목적 ····· 011

2.2.2. 내용 및 방법 ····· 014

3. 『표준 언어 예절』(2011) 정비를 위한 토대 연구 ····· 020

3.1. 선행 연구 검토 ····· 025

3.1.1. 연구 논문 ····· 025

3.1.2. 언론 동향(신문기사) ····· 030

3.2. 학술대회, 자문 회의 및 좌담회,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 039

3.2.1. 학술대회 ····· 031

3.2.2. 여성단체 좌담회 ····· 033

3.2.3. 사회언어학 전문가 자문회의 ····· 038

3.2.4.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 · 네이버) 설문조사 ····· 045

3.2.5. 성균관 전례위원회 질의 응답 ····· 66

3.3. 심층 면담 내용 및 결과 분석 ····· 68

4. 『표준 언어 예절』(2011) 정비 방향 및 내용 ····· 92

4.1. 가족관계 호칭 및 지칭 ····· 135

4.2. 사회관계 호칭 및 지칭 ····· 327

5. 『표준 언어 예절』(2011) 정비안 홍보 및 확산 방안 ····· 383

6. 결론 ····· 385

참고문헌 ····· 389

<부록> ····· 401

1. 심층 면담 질문지 ····· 403

2. 전문가 자문회의 질문지 ····· 432

3. 여성 단체 좌담회 질문지 ····· 440



1. 서 론

1. 서론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리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가리켜지는 대상이 변하면 말도 변한다. 또한 말이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가리켜지는 대상의 가치가 달라지면 그 말의 가치도 달라진다. 사람들이 원형적이라고 인식하는 대상과 그 대상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변해 왔지만 그 변하는 속도와 방향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다양해졌다. 우리 한국 사회의 가족제도의 원형과 그 관계망 속 특정 구성원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인식도, 2018년 오늘의 현실은 2011년 <표준 언어 예절>이 공표된 시기의 그것들과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언론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쉽사리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표준 언어 예절』 발간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 가족제도의 원형은, 조선시대까지 존재했던 신분사회의 기준으로 양반 가문에다가, 남성을 중심으로 하여 직계로 적어도 3대가 골고루 갖추어진 관계망의 형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의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과거 시험을 통해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겨져서 벼슬을 하게 되면 성 뒤에 벼슬 이름을 붙여서 호칭하거나 지칭하였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적어도 소과(小科)를 통과하여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진사나 생원으로 불렀지만, 공부는 하였으되 특별히 붙일 만한 벼슬 칭호가 없을 때 '서방(書房)'으로 불린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것이 결혼한 남자의 일반적 칭호로 자리잡혔다. 반면 여성은 자신이 속했던 대가족을 벗어나 배우자의 대가족 속에 편입되어 그 집안의 질서에 따라,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따라서만 구별될 뿐, 남성의 '서방'에 대응할 만한 독립적인 칭호가 없다. '서방'은 특별히 대접하는 말이 아니지만 남성은 적어도 사회적 위상을 가지는 존재로 인식된 반면, 여성은 누군가에 의존적인 존재로만 인식된 것이다. 같은 여성이라도 출가하기 전에는 그 올케로부터 '아가씨'라 높여 불리지만 이것은 그녀 자신의 집안에서의 위상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올케의 남편인 오빠의 동생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것이어서 여전히 남성이 더 존중받는 가치관에 기인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남편은 아내의 여동생을 '아가씨' 등의 호칭으로 높여 부르지 않고 본래 지칭어였던 평칭의 '처제'를 호칭어로 사용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족제도 속에서 항렬, 나이, 서열, 성별 등의 차이는 거스를 수 없는 질서로 이해되어, 상대적으로 위상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높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위상이 낮은 사람은 당연히 낮잡아 불림을 감수해야 한다.

『표준 언어 예절』의 머리말에서도 가족 제도의 변화 등을 언급하면서, 전통적인 언어 예절과 규범을 계승하는 한편, 변화한 현실을 수용하여 보완된 표준 화법(언어 예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고 언급하고 있고, 그러한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 조사와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던 것인데, 2018년 오늘의 여론은 그러한 지난 표준안의 재개정을 또다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 언어 예절』 이후 다시 6-7년의 시간이 흘렀으므로

그 사이에 한층 거세어진 변화에 대한 요구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번 단계에서는 제한된 여건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호칭어와 지칭어에 한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지난 세대의 가족제도의 원형(여기서는 '전통적 가족제도'라고 부르기로 한다)이 어떻게 변화한 것인지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언론의 기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호칭어 및 지칭어에 대한 개선 요구와 최근에 이루어진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국립국어원, 2017) 등을 참작할 때, 지난 세대의 한국 가족제도의 원형은 몇 가지 점에서 분명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먼저, 오늘의 가족은 3대 이상의 대가족이 모여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3세대 이상의 대가족이 함께 모일 기회가 있다 해도 그런 행사가 1년에 두 번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통적 가족제도를 지금의 가족제도의 원형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살거나 3대가 자주 만나는 가족이라도 그 구성은 잘 갖추어진 형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구별을 중시한 복잡하고 어려운 호칭어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오늘날의 가족제도는 남성 중심의 집안 질서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는 남편과 남편 쪽의 가족들이 아내나 아내 쪽의 가족들보다 더 존중받았지만 오늘날에는 부부관계에도 상하가 없고 서로의 가족이 대칭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치관이 우세하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제도와 가치관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한 호칭어와 지칭어 체계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이어서 함께 고려해야 할 점은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 연구가 주로 가족 사이의 호칭어, 지칭어의 표준화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이다.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소통은 사적인 영역보다는 공적인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당연히 가족 간의 호칭어와 지칭어에 국한된 연구만으로는 연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관계에서의 호칭어와 지칭어를 충분히 다룰 것이다. 직장 사람들, 지인뿐 아니라 서비스 국면에서의 일회적 만남까지 아울러 사회적 장면에서 호칭어와 지칭어를 검토할 것이다. 다만, 한국 사회의 인간관계는 전통적 가족관계를 원형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소통을 위해서는 전통적 가족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오늘날은 가족의 구성이 핵가족인 경우가 많아서 부부가 중심이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밀한 사적인 인간관계가 가족관계의 원형이 되어 가고 있지만 전통적인 가족관계는 개인보다는 집단 속에서의 관계와 질서가 우선시되어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게 되는 공적인 소통의 장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라 해도 격식적 상황과 비격식적 상황을 구분하여 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조화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호칭어와 지칭어 체계의

1) 1992년 『표준 화법 해설』이 나온 지 약 20년 후 2011년 『표준 언어 예절』이 나왔다. 그런데 호칭과 지칭에 관한 한 『표준 화법 해설』(1992)와 『표준 언어 예절』(2011) 간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표와 해설의 내용이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비슷하다. 1992년 당시에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표준 화법 해설』(1992)이 실상은 2018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확립을 시도하며, 가족관계 중심의 호칭 체계가 사회관계로 확장될 수 있는 범위의 적정선을 제시하여 서로 존중받아야 할 사회적 관계의 공적 영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답해야 할 점으로, 과연 개인과 개인의 언어 예절 문제를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언어 예절이 지향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만일 언어 정책이 질서 유지와 같은 적극적인 목적을 담고 국민을 통제하고자 한다면 언어 예절의 표준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 예절은 본질적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조화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언어폭력이나 차별적으로 강요받고 있는 언어생활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편에 서서 누구라도 쓰기에 편안하고 합리적인 표현과 방향, 전통적인 표현과 언중이 새롭게 만들어 가는 표현을 아우르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되 전통 속에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다면 오늘날의 언어 실태를 반영하여 새 시대의 새로운 인식에 맞는 바람직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표준'을 강제하기보다는 '조화로운 언어생활'을 지향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은 개인이나 민간단체, 혹은 언론이 주도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영리적인 일이 아니어서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다면 정부가 나서는 것도 충분히 바람직한 일이 될 것으로 본다.



2. 연구 개관

2. 연구 개관

2.1. 연구의 기본 방향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언어 예절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 역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이 중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호칭이나 지칭에 대한 개선의 요구도 적지 않다.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호칭과 지칭에 드러난 나이나 성별 간 차이로 인한 비대칭성과 그에 대한 수정 요구, 대가족을 기준으로 마련된 복잡한 호칭과 지칭의 간소화에 대한 요구,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생기는 관계들에서 사용되어야 할 새로운 호칭과 지칭의 마련 등이 그것이다.

현대에 들어 가족의 단위가 축소되면서 가족보다는 오히려 이웃이나 친구, 지인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그러다 보니 먼 친족에게 쓰던 호칭이나 지칭은 과거의 것이 되어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호칭과 지칭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 유교 문화에서 뿌리 깊게 이어져 온 수직적 문화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수평적 문화로 전환되고 있고 나이나 서열보다는 상황이나 관계에서 비롯된 격식성, 친밀성, 담화 상의 전략 등이 호칭과 지칭의 사용에 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매체의 다변화로 인해 면대면 대화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로 바뀌게 되었다. 이처럼 변화는 빠르고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우리는 1992년의 『표준 화법 해설』과 2011년의 『표준 언어 예절』의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다기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고 이는 전통적인 호칭과 지칭의 체계에 일정 정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2)]

『표준 화법 해설』(1992)과 『표준 언어 예절』(2011)은 언중의 언어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을 모두 담기는 어렵다. 여기에 지속적인 표준 언어 예절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이전의 '표준 언어 예절'을 유지하되 현재 사용되지 않는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우리 사회에 적절한 언어 예절의 내용 및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가족과 사회에서 사용되는 호칭과 지칭을 정비하는 것에 집중하는데 화자와 청자 간 '관계'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 등 좀 더 다양하고 정밀한 변인을 설정하여 표준적인 언어 사용의 세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호칭과 지칭 중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바탕으로 하되 시대에 맞지 않는 호칭과 지칭을 현재의 실생활에 맞게 정비한다.

이를 위해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와 함께 『표준 화법 해설』(1992)과 『표준 언어 예절』(2011),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2017)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2017 실태조사가 4지선다형 객관식 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언어 사용과 언중의 요구에 대해

2) 이하 지면 관계상 『표준 화법 해설』(1992)는 '1992'로 『표준 언어 예절』(2011)은 '2011'로 약칭하여 기술한다.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30명 내외의 집단별 응답자를 선정하여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가 검증되고 언중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공청회, 전문가 자문회의, 학회 발표 등을 하였다.

2.2. 연구 개요

이 연구는 현재 언중이 사용하고 있는 호칭어와 지칭어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호칭어와 지칭어와 실제 사용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언중이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사용에서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관련된 선행 연구를 통해 언어 예절 세부안 마련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 내용을 활용하여 성별,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심층 면담 조사를 수행하고, 학술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 기간은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로 7개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연구 전체 내용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1) 연구의 전체 개요

업무 단계	주요 업무 내용
자료 수집 및 분석	-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분석 -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2017) 분석 - 호칭어, 지칭어 관련 선행 연구 조사 및 분석 - 호칭어, 지칭어 관련 언론 기사 수집 및 분석
심층 면담 수행 및 결과 분석	- 예비조사(7월 1일 - 7월 25일) - 심층 면담 문항지 수정 보완(7월 26일 - 7월 30일) - 심층 면담 수행(8월 1일 - 9월 15일)
자문 회의와 설문 조사	- 여성 단체 좌담회(8월 13일) - 사회언어학 전문가 자문 회의(8월 21일) - 성균관 전례위원회 자문(10월 21일) - 국민권익위원회 네이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1차: 8월 16일 - 8월 30일 2차: 9월 3일 - 9월 21일
호칭어 지칭어 수정	-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의 표와 해설 수정 -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가칭) 표와 해설 작성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논문 발표	- 2018 국어학회 주제발표 - 2019 한말학회 주제발표(예정) - 2018 사회언어학 논문 투고
결과보고서 작성	-1차 검토: 연구진 내용 검토 -2차 검토: 교정 교열 검토 3인, 내용 검토 2인

2.2.1.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언중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호칭과 지칭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호칭과 지칭 중 가족과 사회에서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는 일부 호칭이나 지칭을 정비하고 간소화하면서도 두루 사용될 수 있는 호칭과 지칭의 체계를 정리하여 제시할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거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가 반영된 언중의 실제 언어 사용을 포착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표준 언어 예절』(2011)의 정비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를 언중에게 홍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도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과 필요성은 국립국어원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으로 살펴볼 수 있다.

(2-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시대 변화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적 소통의 기반이 되는 언어예절의 재정립 필요 ▪ 호칭어·지칭어, 인사말, 존대법 등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새 언어예절에 대한 국가 정책 방향 수립 ▪ 2017년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 연구 결과를 활용한 심층 연구 확대 필요 - 『표준 언어 예절』(2011) 정비, 표현 체계 개발, 교육 및 홍보 방안 수립, 협력 체계 구축 등 각계 전문가 의견 및 여론 수렴

위의 사업 계획에 기술된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과업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재해석하여 제시한다.

1 필요성

① 『표준 언어 예절』(2011)의 수정 및 보완 필요

『표준 언어 예절』(2011)은 『표준 화법 해설』(1992)의 수정·보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2018년 현재 우리는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 제시한 호칭과 지칭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급격하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표준 언어 예절』(2011)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표준 화법 해설』(1992)과 『표준 언어 예절』(2011)의 표에 제시된 호칭과 지칭, 이에 대한 해설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표준 화법 해설』(1992)과 『표준 언어 예절』(2011)의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기술을 고치고 현재 잘 사용되지 않거나 비대칭성이

드러나는 호칭과 지칭 등을 정비하면서 현재 언중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호칭과 지칭이 새롭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호칭어·지칭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반영의 필요

가족관계의 호칭어·지칭어에 대해 『표준 언어 예절』은 '생질서'나 '사돈도령' 등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현실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3대로 가족의 범위를 확장하더라도 조부모의 형제나 부모의 사촌형제까지 포함하지 않은 채로 '조부모-부모-자녀'의 3대로 가족의 범위가 한정되거나 심지어는 1인 가구 등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에서 사용되는 호칭어·지칭어 체계의 정리가 시급하다. 또한 어린아이 중심의 호칭보다 직접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으며(예: 새아가⇒○○(손주 이름)어미⇒△△야(며느리의 이름)), 이에 대한 언중들의 인식 또한 달라지고 있다.[3)]

또한 최근 성별이나 연령의 차이에 따른 차별 등을 극복하려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 역시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언어 예절에 대한 연구 없이는 이러한 변화를 모두 파악하여 반영할 수 없다. 성별의 차이에 따른 비대칭적 어휘, 나이나 직급의 상하 관계에 따른 차별적인 어휘 등은 앞으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고 이번 과업을 통해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다.[4)]

구어와 문어, 격식적인 화법과 비격식적인 화법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고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라 할 만큼 의사소통의 매체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언중들의 언어 사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표준 언어 예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언중의 표준적인 언어 예절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과거 사용되었던 표현에 대한 보존도 필요하지만 새롭게 사용되는 표현에 대한 수용도 필요할 것이다.

③ 2017년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에 대한 보강 및 심층 연구 필요

2017년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의 경우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물이다. 『표준 언어 예절』(2011)을 바탕으로 언중의 사용 실태와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그 결과가 대체로 유의미하나 일부 보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온라인 객관식 설문 조사이기 때문에 응답자는 제시된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설문 항목이 『표준 언어 예절』(2011)에 포함된 것을 벗어나기 어렵다. 또 '기타'로 처리된 부분의 결과가

3) '시부모'에 대해 젊은 층에서는 관계의 친밀함을 기준으로 '아버님', '어머님' 대신 '아버지', '어머니' 심지어는 '아빠', '엄마'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에서는 '샵지', '셤니' 등의 지칭어도 쓰이고 있다. 추후 이들에 대한 허용 또는 교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4) 우리는 '여성 차별적인 호칭과 지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성별의 차이에 따른 비대칭적인 호칭과 지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2018년 6월 국어학회 주제발표 중 이정복 선생님의 표현을 따른 것이다.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3) 본 연구의 필요성

가.『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의 수정 및 보완 나. 호칭어·지칭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반영 다. 2017년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에 대한 보강 및 심층 연구

2 목적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번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 수행, 둘째 호칭과 지칭에 대한 심층 연구 수행, 셋째, 호칭어와 지칭어 정비안 제안이다.

① 호칭어·지칭어의 이론적인 연구

『표준 언어 예절』(2011)이 나온 전후로 약 10여 년의 기간 동안 가족관계의 변화(육아에 도움을 주는 부모 세대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 가족 단위의 변화(한두 자녀, 사촌 이내), 가정 내 남녀의 역할이나 비중의 변화(남성의 가사 담당) 등 사회적인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고정적이었던 성 역할이나 위계질서는 매우 유동적이며 평등한 것이 되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수용하여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언어 예절에도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호칭어·지칭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② 언어 예절에 대한 심층 연구 수행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응답자를 소수로 제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심층 면담 연구를 수행한다. 곧 2017년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 연구가 대규모 양적 연구 수행이라면 본 연구는 소규모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라 할 수 있다.

③ 언어 예절 세부안 제안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의 세부적이고 표준

적인 언어 예절의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그동안 국립국어원에서는 1992년 『표준 화법 해설』, 2011년 『표준 언어 예절』 등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다 격식 있고 품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노력해 왔다. 본 연구도 이러한 연구의 맥을 잇는 것으로 2018년 현재 우리 사회의 가치와 맥락에 부합하는 언어 예절에 대한 세부 방안을 연구해서 제안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4) 본 연구의 목적

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호칭어·지칭어에 대한 새로운 연구 수행 나. 언어 예절에 대한 심층 연구 수행 다. 호칭과 지칭을 중심으로 한 언어 예절 세부안 제안

2.2.2. 내용 및 방법

이번 과업에 대해 국어원의 사업 계획은 아래와 같다.

(2-5) <과업의 세부 내용>

■한국 사회 내 호칭어·지칭어, 인사말, 높임법의 기능 등에 대한 심층 연구[5] -현재 언어 예절 실태와 원인에 대한 심층 조사 수행 -의사소통에서 언어 예절(호칭어·지칭어, 인사말, 높임법 포함, 이하 '언어 예절')의 중요도 고찰 -한국 사회에서 언어 예절이 갖는 의미 고찰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호칭어·지칭어, 높임법, 인사말 개선의 세부 내용 마련 -현재 실제 언어 예절에 대한 수용 타당성 고찰(잘못된 표현, 영어식 인사말의 수용 범위 점검 등) -한국 사회에 적절한 언어 예절 내용 및 체계 마련 *2017년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 전국 17개 시도 남녀 총 4,000명 대상 호칭어·지칭어 등 실태, 갈등 요소 온라인 조사, 개선 방향 등 의견 수렴(국립국어원 누리집-자료 찾기-연구결과-결과보고서-게시번호 782 참고)

5) 연구의 시작 전 단계에서 연구 기간을 고려하여 인사말, 높임법 등을 모두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고 국립국어원과 협의 하여 이번 연구는 호칭어와 지칭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업무 범위를 한정하였다.

■한국 사회의 언어 예절에 대한 언어 정책 방안 수립 및 여론 수렴
−표준 언어 예절 정비 및 개선안 마련, 표현 체계 개발, 교육 및 홍보 방안 수립, 협력 체계 구축 등 분야별 각계 전문가 의견 및 여론 수렴 진행 후, 언어 정책 마련
−언어 예절 해당 대상자별 집단 면담과 심층 인터뷰(1시간 내외의 심층 면담으로 최소 30명 내외 구성),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또는 학술회의, 자문 회의 개최 등 포함(각 1회 이상 다음과 같이 구성(예정))

심층인터뷰/면담	공청회 또는 학술회의	자문회의
5월~8월 중	7월~8월	9월

*국어원과 세부 행사 내용 및 일정 조정·협의 후 진행토록 함.
−언어 예절 재정립을 위한 국가와 관련 기관의 기능 연구
■범국민언어문화개선 운동의 일환으로 언론(종합정보사이트, 신문 등)과 논의 공유 및 시민 단체, 언론사, 학계 전문가 집단 등을 홍보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 제언

위에 제시된 내용을 기초로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기초 연구, 둘째, 실태 조사 보강 및 심층 면담 실시, 셋째, 전문가 및 사회단체 자문회의, 학회 발표 등을 통한 검증, 넷째, 언어 예절 세부안 제안 등이다.[6)]

1 기초 연구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발간된 논문,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 다양한 연구 결과물을 대상으로 호칭어・지칭어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들을 수집・정리하였다. 대체적으로 호칭어・지칭어에 대한 개념, 통시적 변화 양상, 호칭어・지칭어 사용과 관련된 화청자 관계나 장면 등에 대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소논문으로는 특정 호칭어·지칭어의 사용에 대한 연구, 중국이나 일본 등의 호칭어·지칭어와의 비교 연구 등이 이루어졌고 국어교육에서는 화법 교육(말하기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정책적으로는 『표준 화법 해설』(1992)과 『표준 언어 예절』(2011)의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및 비판적 연구가 상당히 깊은 수준에서 논의되었다.

본 연구의 기본 방향이 2017년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 연구의 심층 연구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선행 연구 중 2017년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 작업과 함께, 본 연구의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는 2011년 『표준 언어 예절』에 대한 집중 탐구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유형화하면서 언어 예절 세부안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 등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대화의 공식/비공식 상황(장면)이나 친밀도의 변화에 따른 화청자 간 관계 유동성 등을 좀 더 정밀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을 모색해 보았다. 『표준 언어 예절』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안'에 대한 부담

6) 본 과업의 본래 사업 계획에는 『표준 언어 예절』 수록 내용 중 '호칭어·지칭어'뿐 아니라 '인사말, 경어법'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기술 협상 등의 과정에서 사회의 개선 요구가 가장 큰 현안으로 '호칭어·지칭어'가 꼽혔고, 그 결과 인적·물적 자원 등을 고려하여 본 과업에서는 호칭어 및 지칭어만을 과업 대상으로 삼기로 하였다.

을 덜기 위해 다양한 등급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또한 '표준'이 가지는 국립국어원과 연구진의 부담과 일반 언중들에게 다가가는 심리적 압박감에서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등급 용어를 제시하였다. 곧 '전통'-'가능'의 이원 체계로 언어 예절 표현의 등급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에 단일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언어 예절 표현을 표현의 정도 차이를 인정하고 단계를 구분하여 전통적인 표현을 지키면서 실제 언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표현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7)]

이는 특히 거시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한 것이다. 예컨데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친인척 관계)의 단순화, 가부장적인 전통과 육아로 인한 여성 중심 가정 형태의 충돌, 여성의 가정 내 역할 확대 등을 고려하였다. 직장에서는 수직적 서열 중심의 관계에서 수평적이고 업무 중심적인 관계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학교에서는 교사-학생-학부모 등의 관계를 고려하였다. 공공생활(관공서)이나 사적인 모임 등에서의 언어 예절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새로운 매체(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언어 예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⑵ 실태 조사 결과 검토 및 심층 면담 실시

2017년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4,000명의 설문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분석한 연구 결과이다. 이 실태 조사는 『표준 언어 예절』(2011)을 바탕으로 언중의 사용 실태와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들을 담고 있다. 다만 대단위의 양적 연구인 동시에 『표준 언어 예절』의 전반적 내용을 조사해야 했기에 심층 연구 등을 통해 질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과업에서는 사업 계획에서부터 심층 면담을 연구 방법으로 구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30명의 응답자를 선정,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에 예비 조사를 거쳐 심층 면담 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심층 면담을 위한 질문 문항은 학회, 학계 전문가와 사회단체의 자문을 받아 구성하였고, 가능한 많은 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의 언어 예절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국립국어원과 연구진, 국민권익위원회, 네이버가 공동으로 '네이버'와 <국민생각함>에 10여 개의 핵심 질문을 통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였다.[8)]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심층 면담 조사 과정을 선조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조사에 앞서 예비 심층 면담 조사를 통해 심층 면담 조사 방법을 점검하였다. 예비 심층 면담 조사 진행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6) 예비 심층 면담 조사 개요

---

7) 예를 들어 '자기'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대명사이기 때문에 남녀 사이에서 혹은 부부 사이에서 쓰는 것이 표준적이지 않지만 실제로 언중은 매우 자연스럽게 많이 쓰고 있다. 이를 기존의 '표준'이나 본 연구의 '전통' 범주에 넣을 수는 없더라도 '가능' 범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8) '네이버-국민생각함'에서 조사한 자료는 본 연구의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관계로 국민권익위원회, 네이버와 함께 추가로 조사한 것이다.

예비 조사 기간	2018년 7월 1일(일) ~ 7월 25일(토)
예비 조사 인원	25명
예비 조사 방법	각 연구 참여자들이 세대별, 연령별만 고려하여 임의로 5명씩 선정하여 심층 면담 조사

2018년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심층 면담 질문지 초안을 바탕으로 예비 심층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인원은 5명의 연구 참여자가 연령과 성별, 직업군만을 고려하여 임의로 5명씩 선정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에서의 주안점은 첫째, 심층 면담 소요 시간의 측정, 둘째, 질문지에 대한 응답자의 부담감 정도, 셋째, 응답자 대상 선정 조건의 적확성에 대한 검토였다.

첫째, 예비 조사 결과 심층 면담 소요 시간은 1시간에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응답자의 답변이 자세할수록 문항의 수가 많기 때문에 소요 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면담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답변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심층 면담의 시간은 3시간을 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둘째, 질문지의 분량이 30쪽이 넘고 질문 문항 수도 많아서 질문자의 부담감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예비 조사를 통해 이를 점검하였다. 그래서 응답자가 부담감을 갖지 않고 심층 면담에 보다 충실하게 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심층 면담에 대한 보상 조건을 올리자는 의견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응답자 선정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이다. 곧 누구를 응답자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조사이다. 예비 조사 과정에서 10대와 20대 연령층의 응답자들은 본 연구의 설문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젊은 연령층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잘 모르고 또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설문지에 대한 질문 중 상당수에 대하여 답변할 수가 없었다. 또한 결혼을 한 응답자와 결혼을 하지 않은 응답자 중 호칭어와 지칭어 사용의 경험이 있거나 사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해 본 응답자로 기혼자가 응답자로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성별 분포 문제에서는 호칭어·지칭어를 경험한 응답자 중 성별은 동등하게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직업군에서는 크게 서비스직과 비서비스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유는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되는 호칭어·지칭어의 사용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령대로는 우리 사회 활동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세대가 20-30대와 40-50대이기 때문에 이 연령대의 응답자들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위의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사를 위한 응답자 선정 세부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다. 우선 심층 면담 조사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그리고 심층 면담의

응답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불한다. 세 번째 응답자 선정 기준으로 연령(20대~60대), 성별, 결혼 유무, 자식 유무, 직업군(서비스직, 비서비스직)의 다섯 가지 기준을 설정한다.

이러한 예비 심층 면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찾고, 30명의 응답자를 적정하게 배분·선정하여, 본 심층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심층 면담 조사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7) 심층 면담 조사 개요

조사 기간	2018년 8월 1일(수) ~ 9월 15일(토)	
조사 인원	30명	
조사 대상 선정 기준 및 배분	세대	20대~30대: 12명, 40~50대: 12명, 60대 이상: 6명
	결혼	결혼: 20명, 비혼: 10명
	자식	무자녀: 4명, 유자녀: 16명(결혼한 20명 응답자 대상)
	성별	남성: 15명, 여성: 15명
	직업	서비스직: 14명, 비서비스직: 14명, 무직: 2명
조사 방법	연구 참여자 5명이 각각 응답자 6명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심층 면담 실시	

심층 면담 조사는 2018년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45일간 진행하였다. 본래 8월 한 달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응답자의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조사 기간을 15일 더 연장하였다. 조사 대상 인원을 세대별로 보면 20~30대와 40~50대는 각각 12명이고 60대 이상은 6명인데, 이는 사회 참여도를 고려하여 배분한 것이다. 곧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와 사회생활에서 은퇴하고 휴직기에 접어든 세대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또한 결혼한 응답자를 20명, 결혼을 하지 않은 응답자를 10명으로 배분한 것은 호칭어와 지칭어를 가족관계 내에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비혼자보다는 결혼자가 호칭어와 지칭어 사용 환경에 자주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자녀 유무 기준에서도 호칭어와 지칭어 사용 환경에 자주 노출될 수 있는 응답자 집단을 많이 배분한 것이다. 그리고 성별과 직업군에서는 동등한 응답자를 배분하였다. 다만 계획 시기부터 무직 응답자 2명을 배분한 것이 아니다. 응답자 선정 과정에서 조사 대상 응답자를 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무직이지만 과거에 서비스직과 비서비스직의 직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협의한 것이다.

심층 면담 질문지는 연구진의 협의 하에 초안을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학회에 발표하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 검토한 후, 예비 심층 조사를 통한 검토를 통하여 최종안이 완성되었다. 추가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여성단체 좌담회를 거치면서 부분적 수정·보완 작업을 거쳤다. 질문지의 구성을 보면 총 25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질문은 크게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곧 응답자 기본 정보에 대한 질문, 응답자 개인의 공적·사적 관계에 대한 질문, 가족관계 관련 질문, 사회관계 관련 질문, 종합 의견 관련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질문지의 영역 아래에 소항목별로 질문 후에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메모 칸을 두었다. 이를 통해 면담자가 면담 과정 중에서 발생한 특이점이나 응답자의 의견 중 특기할 만한 내용을 적을 수 있고, 면담 중간 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9)]

(2-8) 심층 면담 질문 구성

	질문 영역	개수
1	응답자 기본 정보(선정 기준 등)	9
2	응답자 개인 정보(사적, 공적 관계 등)	11
3	가족관계 관련 질문	137
4	사회관계 관련 질문	70
5	종합 의견 관련 질문	8
	합계	255

3 전문가 및 사회단체 자문회의, 학회 발표 등 운영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 내용들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다. 학회 발표, 전문가 및 사회단체 자문회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본래 사업 계획에는 공청회 개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청회의 경우 연구 기간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를 대체할 방안으로 유관 학회의 학술 발표를 통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그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하였다. 다만 학술 발표의 경우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정된 학술 발표 외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2018년 6월 21일 경북대학교에서 개최한 2018년 국어학회 여름학술대회 국어 정책 포럼을 통하여 학술 발표를 수행하였다. 이는 국어학회에서 언어 예절에 대한 주제로 국어 정책 포럼을 하나의 섹션으로 발표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 발표에 연구 참여자 전원이 참가하여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발표 내용은 심층 면담 조사 질문 내용에 대한 문항 검토이다. 질문과 토론에서 다양하고 유익한 의견이 제안되어 심층 면담의 질문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문회의 수행 내용이다. 자문회의는 총 2차례 실시하였다. 하나는 여성단체 임원들

9) 심층 면담 조사에 있어 질문지에 대한 내용은 심층 면담 결과 분석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다루는 3장에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부록 2>에서 심층 면담 질문지 전문을 제시한다.

을 초빙해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였고, 다른 하나는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표준 언어 예절』의 호칭어·지칭어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점 등에 대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회의의 경우 학회 발표와 달리 언어 예절 세부안 마련을 위한 자문 회의로 기획하여 시행하였다. 심층 면담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심층 면담 질문에 대한 문항 검토보다는 향후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언어 예절 세부안 마련에 초점을 두어 준비하였다. 물론 자문회의 진행 과정 중에서 심층 면담 관련 중요 내용이 언급된다면 이를 심층 면담에 충실히 반영할 목적도 있었다. 각 자문회의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9) 여성단체 좌담회 개요

일시	2018년 8월 13일 오후 2~4시
장소	국립국어원
참석자	■ 자문위원 4명 변인경 교수님(여성단체연합회 출판공보이사, 글로벌 융합학문연구소장) 고상숙 교수님(단국대 수학교육과, 16대 전국여교수연합회 회장) 이원아 님(모자익 대표, 성균관대 조경학과 겸임교수) 박영순 님((주)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사장, 한국여성건축사협회장) ■ 연구진 5명 (박철우, 나은미, 신호철, 이현희, 신희성) ■ 국립국어원 2명 (김문오, 박미영)
주요 내용	1. 성별 간 비대칭적 표현의 사례 2. 남성에게 긍정적, 여성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표현의 사례 3. 본래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거나 의미가 변화한 표현의 사례 4. 사회적 관계의 다양화, 직장 문화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표현이 필요한 사례 5. 한국어의 언어 예절에서 연구•제안되어야 할 부분

(2-10)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일시	2018년 8월 21일 오후 2~4시
장소	국립국어원
참석자	■자문위원 4명 김하수 명예교수(연세대학교) 이정복 교수(대구대학교) 강희숙 교수(조선대학교) 전은주 교수(부산대학교) ■연구진 5명 (박철우, 나은미, 신호철, 이현희, 신희성) ■국립국어원 4명 (송철의, 정희원, 김문오, 박미영)
주요 내용	1. '표준'을 유지하는 것의 타당성 검토 2.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과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의 분량 문제 3. 성별 간 비대칭적 표현의 정비 4. 현재의 실정과 맞지 않는 기술이나 호칭어 지칭어의 삭제 5. 《표준 언어 예절》 -호칭어와 지칭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

여성단체 좌담회와 전문가 자문회의의 위원 선정은 국립국어원과 협의를 통하여 여러 후보자군을 준비하고 그 속에서 세부 전공과 그동안 수행했던 연구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한 것이다.[10]

④ 호칭과 지칭을 중심으로 한 언어 예절 세부안 제안

이번 과업의 가장 큰 목표는 호칭어·지칭어 등 언어 예절의 현실적인 세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표준 언어 예절』의 경우 시대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과 보완을 거친 세부 내용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부안은 정비의 원칙과 기술 원칙을 세워 작성하되 현재 언중들이 충분히 사용할 만한 수준에서 마련될 것이다. 특히 복잡하게 제시되어 있던 호칭어나 지칭어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현재 사용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삭제한다. 남녀 간에 비대칭적으로 제시된 경우는 대칭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을 낮추는 표현에 대해서는 남녀가 대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대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 어휘가 포함된 호칭어나 지칭어는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되 관계에 기댄 표현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0) 여성단체 좌담회와 전문가 자문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분석은 3장에서 기술되어 있고, 각 질문 내용에 대한 자료는 <부록 3>과 <부록 4>에 제시되어 있다.



3. 『표준 언어 예절』(2011) 정비를 위한 토대 연구

3.『표준 언어 예절』(2011) 정비를 위한 토대 연구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 연구’는 실질적으로 『표준 언어 예절』(2011) 중 ‘가족관계 호칭어 및 지칭어’와 ‘사회관계 호칭어 및 지칭어’를 정비하기 위한 과업이다. 이를 위해 본 과업에서 수행한 토대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과 2017년 수행된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표준 언어 예절』(2011)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호칭어와 지칭어를 다룬 연구 논문과 최근 언론 동향(신문 기사 등)을 검토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심층 면담이나 자문회의 등을 진행하였고 해당 연구 결과는 2018년 6월 국어학회에서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 연구 심층 면담 문항 설계 – 쟁점 도출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수행하였다.

둘째, 전문가와 여성 단체, 성균관 전례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표준 언어 예절』(2011)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남녀 간의 비대칭적인 호칭과 지칭,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 호칭이나 지칭, 기술 상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학계의 의견과 함께 여성 단체나 성균관 등의 의견을 함께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전문가 자문회의, 여성단체 관계자 자문회의, 유학자 인터뷰 등을 차례로 진행하여 본 과업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방향과 구체적인 수정 내용 등에 대해 토의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총 30명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은 2017년 대규모 실태조사의 결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그 답을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문항 설계를 위해 예비 설문조사는 물론 학회 발표를 통한 쟁점 확인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심층 면담의 경우 문항의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1인당 면담 시간이 3-4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심층 면담은 『표준 언어 예절』(2011) 정비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중요한 작업이므로 문항별 답변 결과를 모두 제시한다. 3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다수의 질문을 통해 깊이 있는 답변을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층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기술할 것이다.

3.1. 선행 연구 검토

3.1.1. 연구 논문

호칭어나 지칭어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가 가능하겠으나, 여기에서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유의미하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특히 본 과업이

사회적으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 『표준 언어 예절』(2011)의 개선 방향을 고민하는 바 이러한 내용을 다룬 연구들이 주된 검토 대상이 된다. 호칭어와 지칭어를 별도로 한 연구들과 둘을 함께 다룬 연구들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를 크게 구분하지 않겠다.

호칭어의 유형 분류를 보인 연구로 박갑수(1989), 이익섭(1994), 박정운(1997, 2005), 이선화(2002), 한윤정(2003), 손춘섭(2010) 등이 있다. 손춘섭(2010:101)에서는 앞선 연구들이 '호출어'를 포함하거나 일관성 있는 분류를 보이지 못했음을 비판하였다.[11] 특히 "'명사(지명)+댁'형"이나 "'명사(자명)+-네'형"과 같이 그 구성 방식을 바탕으로 현대 국어에 쓰이는 호칭어들의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12] 손춘섭(2010)에서는 각 호칭어들이 상대 높임 화계에 어울리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이들의 화계도 분류하고자 하였다. 이는 본 과업의 맥락이 단순히 국어학적 연구가 아닌 '사회적 소통'을 위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후 참고가 될 만한 연구이다. 다만 연구자 스스로 언급하고 있듯 연구자 직관에만 의존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최근 호칭어 및 지칭어의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개선 방향에 대해 살핀 연구들이 있다.[13]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별 비대칭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정복(2018:71-72)은 친족 호칭어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같은 유교 문화권의 중국어, 일본어 등을 비교한 결과 한국어 친족 호칭어가 성별 비대칭성이 강하고 여성차별적임을 지적하였다. 그에 앞서 조태린(2011ㄱ)에서는 부부간 호칭어 및 높임법 사용의 불평등한 측면을 조사한 바 있다. 홍민표(1999), 김혜숙(2004), 김덕호(2006), 한국 여성민우회(2007), 이창덕 외(2009) 등의 선행 연구를 살피면서 사회언어학적 관점과 여성주의적 관점을 함께 견지하고자 했다. 조태린(2011)은 연구 결과에서 당시 대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여러 측면에서 불평등한 측면이 잘 드러나고 있지만 앞으로 부부 관계를 형성할 대학생들의 경우 보다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임을 언급했다. 이필영·김태경(2018:304-306)에서는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표준 언어 예절』(2011)과 괴리가 있는 지점들을 언급하였다.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아들, 딸'이라고 호칭하는 비율이 높아진 점이나 부부간에 '자기(야)'라는 호칭이 보편화된 점, 손아래 시누이 남편을 부를 때 '서방님' 대신 '고모부'가 많이 쓰이는 점이

---

11) 손춘섭(2010:102)이 제안한 국어의 호칭어 체계의 전체는 아래와 같다.

1. 일반 호칭어
   A. '명사+접사/의존명사'형
      가. '명사+-님'형 / 나. '명사+씨'형 / 다. '명사+군/양'형 / 라. '명사(지명)+댁'형 / 마. '명사(자명)+-네'형
   B. '명사'형
      가. '성명/이름'형 / 나. '성/이름/성명+직함'형 / 다. '지명/부서명+직함/친족어'형 / 라. '자명+친족어'형 / 마. '친족어'형
   C. '대명사'형
      가. '너' / 나. '당신' / 다. '자기' / 라. '자네'
2. 친족 호칭어(명사형)
   A. 직계 혈족 호칭어
   B. 방계 혈족 호칭어
   C. 배우자의 혈족 호칭어

12) 이들을 각각 종지명 호칭어(geononymy)와 종자명 호칭어(teknonymy)라 칭하였다.

13) 이현희·박미영(2018)은 『표준 언어 예절』(2011)의 검토를 바탕으로 가정에서의 호칭어 및 지칭어의 개선 방향을 다룬 연구이다. 다만 이는 본 과업의 수행 과정 중에 산출된 연구물로 관련한 논의가 본 과업의 결과 보고서에서도 중심적으로 다루어지기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여기에 해당한다. 또 '도련님, 아가씨'와 '처남, 처제'의 불균형적인 관행의 개선 요구에 대해 언급하였다. 전은주(2009:67-68)는 서울·경기, 영남권, 호남권의 세 거주 지역 성인 652명을 대상으로 그간 호칭어 및 지칭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왔던 부분들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이필영·김태경(2018)과 유사하게 부부 간 호칭어에서 '자기'의 적절도가 높게 평가된 점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또 형의 아내를 부르는 호칭어로 '아주머님'이 비교적 부적절한 호칭어로 평가 받게 된 점 등 『표준 화법 해설』(1992)과 다른 방향으로 변화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 참고가 된다. 이수연(2010)은 지칭어에 한정하여 말뭉치 연구를 통해 배우자 간 지칭어 체계의 비대칭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사모님'에 대비되는 '사부님'의 뜻풀이는 존재하지 않거나 '남에 대하여 자기 아내를 겸손하게 이르는' '집사람'에 대비되는 지칭어는 없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14)]

이상의 연구들이 주로 가족관계 호칭어 및 지칭어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강희숙(2002)처럼 사회관계의 호칭어 및 지칭어 실태를 조사한 연구도 있었다. 강희숙(2002:22-23)에서는 광주광역시 거주민들 중 성인 화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였는데 '언니, 이모, 삼촌' 등 친족어가 사회관계를 호칭 및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라 손님의 경우 40대 이하는 '고객님'보다 '손님'을 선호하고 그 이상 연령층에서는 '어르신, 사모님, 어머님' 등의 호칭이 선호됨을 밝혔다.

그 외 조태린(2018)은 대학교수 간 호칭어 사용 양상에 대해 살피면서 이학 계열, 공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인문학 계열에 따라 '선생, 선생님, 교수님' 등의 호칭 선택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사회관계의 호칭어 및 지칭어 연구 중 박은하(2013)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박은하(2013)는 '직함 호칭어'에서 확장되어 '통칭적 호칭어'로도 역할하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이다. '선생님'의 본래 의미기능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제 사용 양상을 분석한 연구로 가치가 있다. 다만 자료나 연구 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실제 사용 양상에서 '선생님'의 사용역 확장을 '교회에서의 선생님', '학원에서의 선생님' 정도를 확인하는 데에 그쳤고, 설문 조사도 대학 내에서 실시하여 보다 다양한 관계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양상을 확인하기는 어렵다.[15)]

호칭어를 성별 변인과 관련하여 분석한 연구 중 조남민(2009)은 사회관계에서의 호칭어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조남민(2009:498)에서는 '아주머니'와 '아줌마'가 중세국어 어휘 형태 '아ᄌᆞ미'와 '아ᄌᆞ마'로부터 왔으며, 이들이 친족 호칭어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다가 경쟁에서 밀려난 '아줌마'가 비칭화된 일반 여성 호칭어로 부정적 함의를 갖게 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조남민(2009:522-523)에서는 그 결과 '떡볶이 아줌마, 중매쟁이 아줌마, 보험 아줌마 등'의 지칭어를 통해 여성의 직업이나 직함을 나타내는 예들을 보이고 있다. 특정 호칭어가 부정적 의미를 획득

14) 호칭어 및 지칭어를 함께 연구한 경우를 제외하면 호칭어 연구물에 비해 지칭어 연구물의 수가 훨씬 적은데 앞으로는 지칭어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상황이나 청자를 고려하여 좀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 박은하(2013)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뜻풀이 중 '남자 어른을 높여 부르는 말'로 성별을 한정하여 기술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타당한 지적이며, 현재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나이가 어지간히 든 사람을 대접하여 이르는 말.'로 수정되어 있다.

하게 되면 대안이 활성화되기 마련인데 식당 종업원 등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이모', '언니' 등의 호칭어가 활성화되기도 한다.

왕한석 외(2005)나 손춘섭(2010)에서는 '저기요, 여보세요' 따위의 호출어를 호칭어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손춘섭(2010:99)에서는 호칭어를 '상대방을 직접 부르는 말'로 호출어를 '상대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부르는 표현'로 구별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대화에서 다른 사람을 가리켜 부르는 데 쓰는 말'인 지칭어와 호칭어의 구별도 엄격히 하고 있다. 이는 학술적으로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하지만 본 과업에서는 실용적인 맥락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2017년의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국립국어원, 2017:47)에서는 낯선 사람을 부를 때 '저기요'라는 말을 쓴다는 응답 비율이 62.5%라는 결과를 제시하여 본래 호출어였던 '저기요'가 호칭어로서의 기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인 바 있다. 더하여 본 과업의 심층 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자들이 상점이나 식당에서 '저기요'라는 호칭어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여서 이들이 별도 호칭어로 인정될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호칭어와 관련해서는 '의사 친족어'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영희 엄마'처럼 '자명+친족어'가 쓰이거나 '언니, 오빠, 아줌마, 아저씨, 어머니' 등 "친족이 아니지만 선후배간이나 직장 내에서 친근해진 상대에게, 혹은 상행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친족어를 쓰는 일이 자주 있"음을 언급하고 이들을 '의사 친족 호칭어'로 분류하면서 이들이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친족과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전략적 목적으로 쓰인다고 기술하였다(손춘섭, 2010:117-118). 김광순(2015) 역시 '형, 누나, 오빠, 언니'를 중심으로 친족어가 사용의 범위를 확장시킨 양상을 연구한 바 있다.

그 외 지엽적인 관계들의 호칭어 사용 양상을 살핀 연구들이 있다. 강병륜(2001)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부·모 호칭어의 정립을 위해 '아빠/아버지·엄마/어머니'에 대해 살폈다. 사용 양상 조사등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父에 대한 호칭어로는 '아버지', 母에 대한 호칭어로는 '어머니'가 적절하지만 '엄마'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가급적 양성의 대칭적 체계를 지향하는 본 과업의 방향과는 다르다. 김혜숙(2004)은 부부 교사라는 특수한 관계를 바탕으로 처음 만나서부터 결혼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시기 변화에 따른 호칭어 사용의 변화 양상을 사회언어학적으로 살폈다. 박용한(2008)은 '사모님'과 '선배님'을 중심으로 해군 장교 부인들 상호 간의 호칭어 사용 양상을 살폈다. 유송영(2001), 박은하(2010), 최정은(2012)는 드라마 자료를 바탕으로 남녀 관계의 호칭어 및 지칭어 사용 양상을 살폈다. 유정정(2010)은 대학가 여학생들이 남자 선배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어 '선배'와 '오빠' 사이의 관계를 살폈다. 대학가와 관련해 서진숙(2009)은 학부 유학생들이라는 특수 집단을 바탕으로 '언니, 누나, 오빠, 형, 선배' 등의 호칭어 사용에 대해 살핀 바 있다. 이정복(2017ㄴ)은 트위터라는 인터넷 공간을 대상으로 2017년 한국 대선 기간 유명 정치인들에 대한 누리꾼들의 호칭어 및 경어법 사용 양상을 밝혔다. 인터넷에서의 언어 사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호칭어 및 지칭어 연구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16]

16) 보다 이른 연구로 이정복(2000)에서는 통신 언어에서 쓰이는 '님'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또 방언학의 관점에서 호칭어를 살핀 연구로 전남 방언의 여성 호칭어의 변이와 변화를 살핀 강희숙·손춘섭·양영희(2009)와 전남의 기혼자 호칭어를 연구한 정성경(2010), 평안도 서해안 방언의 지칭어 및 호칭어를 살핀 양오진·황대화·김현주(2008) 등이 있다.

다양한 국가 및 언어를 대상으로 호칭어 및 지칭어의 대조언어학적인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유원호·채서영, 2011; 강병주, 2011; 박상택, 2013; 한현희, 2016; 고태진·스리잔 꾸마르, 2017; 백이연·박효경, 2017 등). 다만 이는 본 과업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최근 한국어 교육 분야가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차후 『표준 언어 예절』의 지향점은 이러한 배경까지도 아우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17]

호칭어 및 지칭어 연구의 활성화는 관련 단행본 출간이 활발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왕한석(2005)은 호칭어와 관련한 여러 연구들을 엮은 서적이며, 양영희(2015)는 국어 호칭어를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살핀 연구이다.[18] 혹은 최석재(2008)나 이정복(2008)처럼 대우법(경어법)의 전체 체계를 다루면서 호칭어와 지칭어를 논하는 경우도 있다.

단행본 중에는 특정 사용역을 기반으로 화법에 대해 살피면서 호칭어나 지칭어를 다루는 경우가 있다. 방송 언어에서의 호칭어, 지칭어를 다룬 것으로 장소원(2007)은 방송화법을 소개하면서 '지명도 차이에 따른 호칭어와 지칭어 사용, 연령에 따른 호칭어와 지칭어 사용, 외국인에 대한 호칭어와 지칭어, 범죄자나 용의자의 경우'를 구분하여 호칭어 및 지칭어를 제시한 바 있다. 또 근간 중 하나인 이정복(2017)에서는 트위터를 중심으로 사회적 소통망(SNS)의 호칭어 사용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본 과업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사회적 소통망의 사용이 활발한 만큼 국립국어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나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비교언어학적으로 호칭어 및 지칭어에 접근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앞서 살핀 소논문들의 검토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었다. 량홍(2014)은 연변 지역 친족 호칭어를 연구했으며, 高陸洋(2007)은 한국과 중국어의 호칭어를 대조 연구했다. 혹은 안귀남(2007)이나 황대화(2009)는 특정 지역의 방언에 초점을 맞추면서 호칭어와 지칭어를 다루기도 했다. 전자는 경북 방언을 후자는 서북 방언을 다루었다. 조오현(2005)은 북한의 언어문화 전반을 다루면서 호칭어 및 지칭어에 대해서도 일부 기술하였다. 한길(2011)은 외국인을 위한 내용으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기술한 책이다. 조성문(2009)이나 우형식(2009) 역시 맥을 같이 한다.

그 외에 호칭어 및 지칭어와 관련한 단행본들 중 다수는 언어생활 전반에 대한 지침서를 기획하면서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표준 화법 해설』(1992)와 『표준 언어 예절』(2011)에 기반하여 이를 해설하듯이 기술한 것이다. 혹은 이에 기반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체계와 내용을 보이는 것들로 대개 기술적이기(descriptive)보다 규범적이고 처방적인(prescriptive)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 서적의 목표는 언중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있다. 이은정(1995)의 『(표준 화법을 적용한) 고운 말 바른 표현』, 조선일보사(1996)의 『우리 말의 예절: 화법의 실제와 표준

17) 제효봉(2011)이나 박은하(2011), 최경희(2011), 강소산·전은주(2013) 등 한국어 교육 내용으로서 호칭어에 대한 연구들 역시 여기서는 특별히 검토하지 않는다.

18) 정달영(1999)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형/언니, 동생, 누나, 오빠'에 한하여 통시적 변화를 고찰한 바 있다.

상·하』, 신흥대학. 문학과 언어 교수실(1998)의 『생활과 언어』, 성환갑(2001)의 『(삶을 함께 하는) 국어 화법』, 이주행(2006)의 『한국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원리』, 김광희(2010)의 『(실무자를 위한) 정서법과 바른 국어생활』, 서덕주(2013)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부해야 할) 한글 맞춤법과 어법』, 임칠성(2013)의 『공공화법: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현대인의 화법』, 최태연(2013)의 『우리 언어 예절』 등이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국립국어연구원(2001)에서 발행된 『국어연구원에 물어보았어요 2001 : 국어 생활 질의응답 자료집 : 일반용』의 경우에도 호칭어와 지칭어와 관련한 질의응답에 지면을 일부 할애하고 있다.

3.1.2. 언론 동향(신문 기사)

본 과업의 연구 대상이 되는 호칭어 및 지칭어는 특히 성별 비대칭성을 중심으로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본 과업의 목적이 원활한 사회적 소통에 있기 때문에 대중(언중)들의 요구와 동향을 민감하게 살필 필요 역시 있다. 이에 본 과업에서는 2011-2018년 동안의 호칭어 및 지칭어 관련 언론 보도 자료 역시 선행 연구 검토의 일환으로 다루었다. 신문 기사 자료 추출은 인터넷 검색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조사된 것들 중 2011년 『표준 언어 예절』(2011)의 발간에 대한 보도 자료 등과 단순히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쓰인 기사문은 제외하고 살펴보겠다.[19)20)]

먼저 언론 경향의 경우 가장 활발히 다루어지는 것이 성(性) 관련 문제였다. 세계일보 2016년 2월 7일 기사 "헷갈리는 가족 호칭…시대 변했는데 성차별 '여전'"에서는 다양한 관계자 인터뷰를 활용하여 '시댁:처가'나 '아가씨, 서방님' 같은 표현들이 성차별적임을 지적하였다.[21)] 특히 본 과업이 수행된 2018년에는 노컷뉴스 2018년 11월 1일 기사 "국민 86.8%, '도련님', '아가씨' 호칭 바꿔야"[22)], 한국일보 11월 1일 기사 "남편 가족 높이는 '도련님·서방님'... 남성 57% "호칭 바꿔야" 공감"[23)] 등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의 공동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의 표현에 대한 언중의 거부감과 개선 요구를 전하고 있다.

---

19) 특히 명절이 가까운 시기에 처가, 시가와 관련한 호칭어 및 지칭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쟁점이 될 만한 사항들이나 불편한 점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20) 『표준 언어 예절』(2011) 발간과 관련한 보도 자료들은 일부 개정 사항들을 소개했는데 대체로 남편 누나의 남편을 호칭하거나 지칭할 때 '아주버님'과 '서방님' 중 전자만 사용해야 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일보, 2012.03.13., "남편 누나의 남편 호칭은? 아주버님 (O) 서방님 (×)…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 발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5912671>
머니투데이, 2012.03.13.,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뭐가 맞지?"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31313394608399&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아시아경제, 2012.03.14., "남편 누나의 남편 호칭은 '서방님'이 아닌 '아주버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31406305698074>

21) http://www.segye.com/newsView/20160207000574

22) http://www.nocutnews.co.kr/news/5054065

23)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011714773484?did=NA&dtype=&dtypecode=

혹은 일반 언중의 불편함을 짚으면서 더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들도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2017년 10월 5일 기사 “남의 남편을 ‘서방님’이라 부르는 이유”[24]에서는 여성이 결혼한 시동생이나 손아래 시누이의 남편을 부르는 말로 ‘서방님’을 사용하는 것을 어색해 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표준 언어 예절』(2011)에서 남편을 부르는 말로는 ‘서방님’을 제외했음을 언급하였다.

친족 호칭어의 확대 사용에 대한 부분도 언론에서 여러 차례 다루어졌다. 파이낸셜뉴스 2014년 8월 14일 기사 “엄마·아빠 친구가 ‘삼촌’ ‘이모’?”[25]에서는 친족 호칭어인 ‘이모, 삼촌’ 등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친구나 지인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논란’이라 칭하고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효’ 사상과 문화가 혈연관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호칭 남발을 바로잡아 호칭체계나 가족관계를 둘러싼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라고 언급했다. 경남일보 2014년 12월 7일 기사 “고모보다 이모가 더 가까운 현실”[26] 역시 유사한 논조를 보이며 어린 아이들이 실제 친족에 대한 호칭어와 헷갈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사회관계에서의 표현과 관련한 기사들도 있는데 한겨레 2017년 12월 26일 기사 “까다로운 우리말 호칭, “○○님” 부르면 어때?”[27]에서는 한겨레말글연구소의 연구발표회 결과를 전하면서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가 “직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함 뒤에 ‘님’을, 직함 없는 사람에게는 나이와 무관하게 이름 뒤에 ‘님’을 붙이”자고 제시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이데일리의 2018년 7월 9일 기사 “식당 직원 호칭 애매할때…'아줌마' 대신 '종업원님' 어때요”[28]는 2017년 국립국어원의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식당 직원에 대한 호칭어로 성별이나 나이가 드러나는 ‘아줌마’ 같은 표현보다 ‘종업원님’과 같이 객관적·직무적 호칭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3.2. 학술대회, 자문회의 및 좌담회,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3.2.1. 학술대회

2018 국어학회 여름학술대회는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관에서 개최되었고 주제발표의 제목은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 연구 심층 면담 문항 설계–쟁점 도출을 중심으로’였다. 다음은 2018 국어학회 여름학술대회의 주제발표 발표 제목과 발표자이다.

24) http://www.fnnews.com/news/201709271603157994
25) http://www.fnnews.com/news/201408141430486931?t=y
26)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784
27)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25154.html
28)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8726619272880&mediaCodeNo=257&OutLnkChk=Y

이필영(한양대)	실태 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언어 예절
이정복(대구대)	가정 내 친인척 간 언어 예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강희숙(조선대)	직장 내, 사회적 관계에서의 언어 예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조태린(연세대)	언어 예절에 대한 언어 정책적 개입의 의미와 한계
박철우(안양대) 외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 연구의 심층 조사 문항 설계

국어학회에서 우리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은 『표준 언어 예절』(2011)의 정비를 위해 우선 『표준 언어 예절』(2011)에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2017 실태조사의 미비한 부분을 찾아 심층 면담의 문항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발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표준 언어 예절』(2011)의 기술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언중이 다양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기술 부분의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

가. 전통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경칭인 '아버님'을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했고, 지금도 시아버지는 예의를 갖추어 불러야 할 대상이므로 '아버님'이 시아버지를 부르는 바른 호칭이다.(19쪽)

가'. 전통적으로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경칭인 '어머님'을 호칭으로 사용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머니'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이 배인 '어머니'라는 호칭이 예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나. ~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을 원칙으로 하고 ~을 쓸 수 있으며 ~처럼 부를 수도 있다.

~이라는 전제 아래 ~라고 부를 수 있다.

~는 듣기에 정겨운 말이지만 보편성이 없으므로 권장할 만하지 않다.

~는 신혼 초에는 쓸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어 호칭어와 지칭어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한데 문제가 되는 호칭어나 지칭어를 가려내기 위한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호칭어와 지칭어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하였다.

◎ 기술 부분의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

①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로 성별이나 상하관계의 구분이 드러나는 경우
② 관계의 변화(공적→사적) 또는 관계와 나이의 역전이 발생할 경우
③ 호칭어•지칭어 사용에서 감정적으로 불편함이나 불쾌함,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④ 적당한 호칭어•지칭어의 부재로 어휘적 공백이 발생한 경우

⑤ 호칭어•지칭어 사용에서 화자와 청자 외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고려
⑥ 식당, 구청, 병원 등 다양한 사회적 장면 추가 및 힘의 차이에 따른 분류

◎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호칭어와 지칭어의 구체적인 사례
① 미스/미스터, 총각, 아가씨, 김 군, 김 양 등의 사용에 대한 검토
② 김 형, 김 씨, 철수 씨, 김철수 씨 등 '씨'의 사용에 대한 검토
③ 선생님, 여사님, 사모님의 사용 범위 및 장면 검토
④ 형, 누나, 언니, 오빠, 이모, 삼촌, 아저씨,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친족 어휘를 사회적 관계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검토
<예> 친구의 자녀가 '이모' 또는 '삼촌'이라고 부르는 경우
<예> 식당에서 종업원을 '이모', '언니'로 부르는 경우
⑤ '과장'으로 통일하여 제시된 직함. 직함의 사용 검토. CF. 2017 실태조사 '프로', '주무관' 등의 직함을 제시함
⑥ 『표준 언어 예절』(2011)에서 새롭게 수용한 것 <예> 제부, 사모님, 삼촌 등
⑦ 고려되지 않았던 사회적 관계 <예> 경비아저씨, 주차요원, 청원경찰 등
⑧ 잘 쓰지 않거나 모르는 것: <예> 陳外, 外外, 從祖, 伯父, 姑叔, 姨叔, 甥姪壻, 妻姨姪壻, 妻姨姪女 등
⑨ '바깥어른', '바깥양반' 등의 사용

이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심층 면담에 사용할 문항 작성에 관한 의견을 학회에서 여러 연구자들로부터 듣고 이를 반영하여 심층면담 문항지를 작성하였다.

3.2.2. 여성 단체 좌담회

일시: 2018년 8월 13일, 14시 - 16시
장소: 국립국어원
참석자:

○ 자문위원	변인경 교수님(여성단체연합회 출판공보이사, 글로벌 융합학문연구소장)
	고상숙 교수님(단국대 수학교육과, 16대 전국여교수연합회 회장)
	이원아 님(모자익 대표, 성균관대 조경학과 겸임교수)
	박영순 님((주)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사장, 한국여성건축사협회장)
○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철우 교수(안양대 국어국문학과)
	공동연구원 나은미 교수(한성대 교양교육원)
	공동연구원 신호철 교수(청주대 국어교육과)
	공동연구원 이현희 교수(안양대 국어국문학과)
	연구보조원 신희성 (고려대)
○ 국립국어원	김문오 공공언어과 과장
	박미영 공공언어과 학예연구사

■ 인사말

김문오: 사회 변화에 따라 호칭어·지칭어에 대한 시각도 조금씩 변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김.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함.

■ 사업 설명

박미영: 11년 발표된 『표준 언어 예절』이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개선 요구가 많음. 애초에 해당 자료는 정리의 목적이었으나 현실에서 기준점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여러 논의가 발생함. 특히 호칭어·지칭어와 관련한 문제가 성차별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긴 하나 최근 첨예한 사안으로 작용하고 있음. 여러 국면에 대해 심층 조사를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데 이에 대한 여성 단체의 의견이 필요함.

■ 좌담회 개요 설명

박철우: 2017년에 이루어진 실태 조사는 실태 파악에 한정되고 개선에 대한 답을 도출하지는 않음. 대규모 조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찾고자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기존의 것들을 수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반면 무작정 바꾸기 어려운 지점들도 있음. 이들에 대해 쟁점별로 의견을 듣고자 함.

■ 좌담회 진행[29)]

1.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의 변화와 《표준 언어 예절》(2011)의 구성 등 개괄적 문제

박철우: 《표준 언어 예절》(2011)의 전체 구성과 관련하여 최근 가족관계에 나타난 큰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필요한 호칭과 지칭은 무엇이 있을까요?

변인경: 전통적인 사회에 비해 수입 구조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권력 관계나 역할에 변화가 생겼고, 이를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육아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등 권력 불균형이 있음. 이런 상황에서 호칭어, 지칭어의 불균형이 개선되기 어려움. 권력 관계 재편이 먼저 해결되어야 함.

박영순: 최근 직장 내 결혼을 하지 않는 인원이 늘고 있음.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다르

29) 한 명의 논의에 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논의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로 표시.

게 여성이 남성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늘고 있어 남편의 형의 부인이 4살 어린 식으로 관계가 얽히는 경우가 발생함. 그럼에도 본인의 경우 '형님'이라는 관계의 서열화를 인식하고 있는데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은 점차 이런 관계에 있어 단절되어 가는 느낌임. 즉, 가족관계 자체가 달라지니 호칭어와 지칭어가 변할 수밖에 없고,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니 그러한 관계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임.

이원아: 가족 구성 유형이 전통적인 양부모 가정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 이혼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호칭어, 지칭어에서 양가가 나뉘는 경우(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아이들이 결손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통합시켰으면 함.

→ 나은미: 원래의 취지는 차별이 아니라 변별이었을 것. 다만 그것이 하필 남편 쪽은 높이고 아내 쪽은 낮추다 보니 문제가 생기게 됨.

→ 박철우: 결국 편견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

∴ 가족관계의 변화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대와 결혼의 감소, 가족 유형의 다양화 등을 들 수 있음. 호칭어·지칭어의 문제에 앞서 차별적인 의식 자체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박미영: 사회적 장면에서 비대칭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때 문제 제기된 경우가 있었는지?

이원아: 시부모, 처부모보다도 남편을 이전에 부르던 대로 '형'이라 호칭했을 때 시어머니가 나무라는 경우가 있었음. 자식들이 혼란스러워하기도 함. 문제라고 인식하고 인위적인 노력을 들여 호칭을 '여보'로 바꿨으며 편해지고 좋았음.

→ 박영순: 딸이 남편을 여전히 '오빠'라 부르는데 친오빠가 있어 헷갈리는 경우가 있음. 연애 때 '오빠'라고 부르던 것을 결혼과 동시에 바로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것은 낯설고 모르고 어려운 것의 문제이므로 젊은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부모되기', '결혼하기' 교육 프로그램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야 함.

→ 나은미: 호칭어, 지칭어는 관계를 설정하는 것인데 결혼은 관계의 재구성이므로 그 관계 안에서 적절한 호칭어와 지칭어 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교육이 필요함.

∴ 결혼 등의 관계 재편이 있을 때 호칭어, 지칭어 변경이 자연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인위적인 교육이 필요함.

박미영: 《표준 언어 예절》(2011)의 현재 구성에는 문제가 없는가?

→ 이원아: 가족관계에서 사촌을 넘어가면 설명하기도 복잡하므로 사촌 이내가 적절한 듯함.

→ 박영순: 영역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 『표준 언어 예절』(2011)의 현재 구성은 크게 문제가 없음.

박철우: 사회적 관계에서의 변화는 어떠한지?

→ 변인경: 명함이 있는 경우, 즉 직함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음. 그렇지 않은 경우 첫 대면 시에 동성 관계에서의 '형, 언니'에 비해 이성 관계에서의 '오빠, 누나'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음.

→ 박영순: 직함이 없을 때 윗사람을 부를 때는 '선배'라고 하고 아랫사람을 부를 때는 '○○ 씨'라고 부름.

→ 나은미: 유사 친족어의 사용은 친밀감 형성에 도움이 되지만 공적 관계에서는 자제하는 것이 좋음. 그렇다면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 씨'를 선호함.

→ 이원아: '선배, 후배'는 어떨지?

→ 나은미: 그것 역시 서열이 전제됨.

→ 박영순: 가장 순수한 것은 '○○ 씨'라고 생각함. 다만 사적인 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을 듯함. 공적 관계에서는 친족어를 호칭어로 쓰지 않으며 쓰이는 장면은 이미 사적으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해야 함. 개인적으로 사회 초년 때 '박 양'이라고 불리던 것이 시간이 지나서도 고착화된 것에 스트레스가 있었음. '○○ 씨'가 적절히 거리를 두고 존중하는 호칭어로 적절하다고 생각함.

→ 변인경: 모든 사람이 직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호칭어, 지칭어 마련이나 기술에 있어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박영순: 상사의 아내는 '사모님'인데 상사의 남편을 가리킬 말이 마땅하지 않음. 사회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지칭어도 필요한데 적당한 것이 없음. '사부님'은 어색하게 느껴짐.

신호철: '직장 사람들의 가족'을 다룰 필요가 있을까?

→ 변인경: 만들어 두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따르게 되므로 기준점이 필요하긴 함.

∴ 사회적 관계에서는 '○○ 씨'라는 호칭이 가장 중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가 증대되었는데 상사의 아내에 대한 지칭어에 비해 상사의 남편에 대한 적절한 지칭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2. 성별 간 비대칭적 표현의 사례

박철우: 시아버지는 '아버님 ○ / 아버지 X'이지만 시어머니는 '어머님 ○ / 어머니 ○'인데 그 이유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 친근"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기술되어 있음. 성 역할을 고정할 수 있는 이런 기술 등에 대해서 의견이 필요함.

→ 박영순: 항목에 대한 수정 필요함.

→ 이원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함.

→ 변인경: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 등 대칭적일 수 있게 통일해야 함.

→ 박영순: '엄마, 아빠'는 적절하지 않은 듯함. 거리감을 조절할 필요는 있음.

→ 박철우: 어려서부터 보아오지 않았다면 이상할 수 있음.

→ 나은미: 시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을 때 시아버지나 남편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도 시어머니 시누이는 불쾌하게 들을 수도 있는 등 상황 자체가 복잡하기도 함.

→ 이원아: 그렇다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일 수 있음.

→ 신호철: 시부모, 처부모에 대한 구별 자체가 필요 없을 수 있음.

∴ 시부모, 처부모에 대한 호칭어, 지칭어가 대칭적이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음. 혹은 아예 이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음.

박철우: 나이가 더 많은 남편의 여동생을 언니라고 하는 등 관계와 나이가 충돌할 때 나이를 따라가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박영순: 조금 불편하더라도 관계대로가 적절하다고 생각함.

→ 나은미: 전통적으로 남성이 나이가 많고 여성이 나이가 적은 쌍이 결혼을 하던 것과 달리 반대의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예를 들어, 오빠의 부인이 나보다 나이가 너무 어리다면 '올케'나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어려움.

→ 박영순·변인경·이원아: 그래도 나이와 관계가 충돌한다면 관계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현희: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 쪽에 대해 관계를 따르는데 남성이 결혼하면 아내 쪽에 대해 나이를 따르는 경향도 보임.

→ 이원아: 양가 모두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함. 사적인 자리에서는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는 관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함.

∴ 나이 변인과 관계 변인의 충돌에서는 후자를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함.

박철우: 남편과 아내에 대한 호칭과 관련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호철: '집사람'은 삭제해야 할 듯함.

→ 박영순·변인경·이원아: '집사람'뿐 아니라 '안'이나 '바깥'이 결합하여 성 역할을 고정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삭제해야 함.

→ 박영순: 남편도 육아 휴직을 쓰는데 안팎 구분은 무의미함.

→ 이원아: 상호 호칭은 '여보'가 좋음.

→ 변인경: 그렇게 부르지 않던 사람은 부르기 어려운 지점이 있음.

→ 박영순: 무조건 자연스러운 것만 선호하기보다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음.

박철우: 부부 간에 '자기, 오빠'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

→ 이원아: 둘만 있을 땐 상관없으나 여럿이 있을 땐 문제가 될 수 있음.

∴ '집사람, 안사람, 바깥양반' 등 성 역할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표현들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함.

3. 남성에게 긍정적, 여성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표현의 사례

박철우: 자녀에 대한 호칭어 및 지칭어와 관련한 기술에서 아들은 직함을 허용하고 딸은 그러지 않는 등 편파적인 기술이 있음.

→ 이원아: 애초에 자녀에 대한 호칭어, 지칭어에서 직함 문제가 개입할 필요가 없음. 빠져야 함.

→ 고상숙: 직함에 관한 것은 아마 유교 문화의 잔재일 텐데 개선해야 함.

→ 나은미: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음.

∴ 자녀에 대한 호칭어 및 지칭어에서 직함과 관련한 문제는 삭제하고 남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박철우: 사위 및 며느리와 관련한 문제에서도 불균형적인 부분이 있음.

이현희: "며느리를 낮추는 것이 예의"라고 기술하면서 사위는 '자네'로 높이기도 함.

→ 변인경: 일본에서는 '나'의 주변 인물은 모두 낮추고 상대 주변 인물은 모두 높이는 식으로 일관되게 처리하기도 함.

→ 고상숙: 일본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개 그러할 듯함.

→ 나은미: 당연히 평등하게 바꾸어야 할 문제임.

→ 이원아: 그냥 '사위, 며느리' 두 가지만 쓰면 됨.

→ 나은미: 지칭은 괜찮지만 호칭은 또 다름.

→ 신호철: 성별 구분 없이 둘 모두 '자네'라고 부르는 것도 한 방안일 듯함.

→ 변인경: 둘 모두 '자네'라고 부르는 것 좋다고 생각함.

→ 이원아: 동의함.

→ 박영순: 며느리를 '자네'라고 부르는 것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기는 함.

→ 변인경: 익숙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교육을 통해 바꿔 나갈 필요가 있음.

→ 나은미: '자네'가 듣기 좋기는 하지만 무표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 텐데 '자네'는 다소 높이는 말이지 않은가?

→ 박미영: 거리감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함.

→ 박영순: 사위, 며느리 구분 없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함. 다만 '며늘애' 같은 표현은 잘 쓰이지도 않는 듯함.

→ 박철우: 며느리가 없는 자리에서 겸양을 위해 '며늘애'를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사위애'는 없다는 점이 걸림.

→ 고상숙: 예전에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체통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통념이 있어서 그랬겠으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단순해졌으면 좋겠음.

∴ 사위 및 며느리와 관련한 호칭어 및 지칭어도 균형을 맞추어야 함. 지칭의 경우 둘 모두 '사위, 며느리'만 쓰고 호칭의 경우에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음.

4. 본래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거나 의미가 변화한 표현의 사례

박철우: 배우자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이 문제가 됨. 예컨대,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하였을 때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남편을 높이는 말과 같이 쓰여 혼란이 있음.

→ 변인경: 60대가 되어서도 '아가씨'라 불림. 존중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는 불평등한 것이므로 바뀌어야 함.

→ 박철우: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고통스러운 문제임.

박철우: 아내 쪽은 처형, 처제로 간단한데 이에 맞춰 부형, 부제로 말을 만드는 것은 어떤지?

→ 변인경: 균형을 논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함.

→ 이원아: 어떤 식이든 개선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

→ 박미영: 하지만 국립국어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단어를 발표하는 것이 조심스러움.

→ 나은미: 안 쓰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대체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음.

→ 박미영: 2017년 연구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대안으로 꼽음.

∴ 배우자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 중 '아가씨, 도련님, 서방님' 등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이 좋은 취지라는 데 동의하나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음.

박철우: 사돈 가족에 대한 호칭과 지칭의 문제에 대해.

→ 박영순: '안사돈, 바깥사돈'은 모두 없애고 '사돈'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을 듯함.

→ 박철우: '사돈처녀'라는 표현이 있는데 결혼했을 때 부를 마땅한 호칭은 없음.

→ 나은미: 결혼 여부에 대한 표지도 없애야 함.

→ 변인경: 동의함.

→ 변인경: 사돈여동생, 사돈남동생, 사돈오빠, 사돈누나 등의 식으로 붙이는 것은 어떨지?

→ 박철우: 누구를 기준으로 '오빠'로 삼을지도 문제가 됨. '사돈총각, 사돈도령, 사돈처녀, 사돈아가씨'는 각각 높여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 있어서 불균형적인 것은 아니니 그냥 두어도 되지 않을지.

→ 변인경: 결혼 여부는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이원아: 대안을 내기는 어렵지만 없애는 데에는 동의함.

→ 나은미: 위아래만 구분해서 '사돈어른/사돈'으로만 해도 좋을 듯함.

∴ 사돈 가족에 대한 호칭어, 지칭어 중 결혼 여부에 대한 표지로 작용하는 표현들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듯함. 결혼의 여부가 호칭이나 지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박철우: 부부 간의 호칭 중 '임자'나 '영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박영순: 어르신들이 쓰는 것이야 그냥 두어도 문제없을 듯함.

→ 변인경: 그냥 두어도 사용이 줄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봄.

∴ '임자, 영감'처럼 잘 쓰이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들은 두어도 괜찮을 듯함.

5. 사회적 관계의 다양화, 직장 문화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표현이 필요한 사례

박철우: 친족 관계의 어휘가 사회적 관계의 어휘로 쓰임이 확대되고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변인경: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고착화되어 해당 어휘에 불쾌감이 생길 수 있음. 전반적으로 확대를 금지해야 하지 않을지.

→ 박영순: '이모'를 친근감 있는 표현으로 썼는데 오히려 '아주머니'를 표준으로 제시한다니 놀라움.

→ 나은미: '아줌마'가 부정적인 의미를 획득하면서 '이모'라는 호칭이 사용된 것임.

→ 박영순: 할아버지가 종업원을 '언니'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짐.

→ 나은미: 이런 경우 본래 친족 관계를 나타내던 말이 사회로 전이되면서 특정 무리를 지칭하는 말이 되어버림. 특정한 업종을 지칭하는 식으로.

→ 박철우: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친밀감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임.

→ 변인경: 아주 금지는 못해도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원아: 이들을 표준으로 다룰 필요는 없음.

→ 변인경: '종업원님' 같은 표준이 먼저 정해진다면 '이모, 삼촌' 등으로 불러도 괜찮을 수도 있음.

→ 나은미: '종업원님'이 4음절이고 발음이 편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음.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여기요/저기요'를 호칭어로 많이 쓰게 됨.

→ 변인경: 듣는 입장에서 대우 받는다는 느낌이 필요하므로 그에 걸맞은 표준이 정해져야 함.

→ 나은미: 부르고 싶은 것과 불리고 싶은 것이 다르므로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박미영: 젊은 직원일수록 '여기요/여보세요'를 선호하며, '아줌마'라는 호칭어를 유독 불쾌

하게 느낌.

→ 나은미: 표준을 정하게 되더라도 현상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해 줄 필요는 있을 듯함.

→ 박철우: 결국 가장 중립적인 것을 정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할 듯함.

→ 신호철: 대체로 '기사님'처럼 직종 자체를 높이는 호칭이 있음. 이에 균형을 맞춘 대안이 필요함.

→ 변인경: 특정 직업군에 대해 높이는 호칭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직업에 대한 차별의식의 반영임.

∴ 특정 직업군에 친족 어휘가 사용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게 느껴짐. 차별 의식이 반영되지 않은 중립적인 어휘들을 마련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기사님, 종업원님' 등. 다만 이때 어휘에 대한 접근성도 고려해야 함.

박철우: 친구의 아내를 '제수씨'라고 하는 현상은 어떤지?

→ 박영순: 해당 부분은 공적이기보다 사적인 장면으로 느껴지는데 이를 굳이 논해야 하는지?

→ 박미영: 나의 동성 친구에게 아이들이 '이모'라고 부르는 것이 괜찮게 느껴지는 식으로 확장되었다는 기술은 필요할 듯함.

→ 나은미: 꼭 친족 관계가 아니어도 나이든 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친족어의 확장이라고 봐야 함.

∴ 다만 친족 어휘의 확장 중 사적인 사회관계에서 확대된 것들은 어느 정도 허용이 가능함.

나은미: 여성끼리 '자기야'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 신호철: 강사가 조교를 처음 보면서도 '자기야'라고 부르기도 함.

→ 나은미: 연인 사이에 쓰이던 말인 만큼 친밀감을 내재하고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사용이 확장되고 있는 것. 이러한 친밀감 표지가 되레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음.

→ 박영순: 사적 영역 아닌지? 신입 사원의 이름을 모를 때 "자기 이리 와 봐"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는 남들이 듣지 않을 때 그러함. 여기서 논의할 사항인지 의문스러움.

→ 박미영: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문제이긴 함.

박철우: 직장에서의 호칭과 지칭에 대해서는 사회관계의 변화 부분에서 대개 다룸.

나은미: 청소하는 분들이 서로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음.

→ 변인경: 서로 간에는 그리 부를 수 있겠으나 그 외에는 역시나 직종을 드러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음.

박철우: 관공서에서는 어떠한지?

→ 박영순·변인경·이원아·고상숙: 관공서 직원을 부를 때는 명찰이 있으면 '○○ 씨'라고 부르거나 명패를 보고 '과장님'이라고 하거나 '담당자님'이라고 함. 그들이 부를 때는 대개 '○○번 고객님', '○○ 씨', '민원인님' 등으로 부름. '아버님', '어머님'과 같은 호칭어는 지양되어야 함. 공적 관계는 대체로 직함이나 이름만 중심으로 해야 함.

∴ 관공서 등에서 '아버님, 어머님'과 같은 표현은 지양하고 공적인 관계는 직함이나 이름 중심으로만 호칭어, 지칭어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6. 마무리 및 기타 제언

변인경: 직업이 교사가 아닌데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음. 정리되었으면 함.

→ 박철우: 마땅히 부를 호칭이 없을 때 중립적인 호칭으로 다소 권장되었던 것임.

→ 박영순: 일시적인 프로젝트 만남 등 '박 선생님'이나 '선생님'과 같은 표현이 필요한 장면들이 있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며 무난하다고 생각함.

→ 고상숙: '선생님'이란 단어도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로 잘 통용됨.

고상숙: 계몽하는 차원에서 '아줌마'야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도 '아주머니'는 아무 문제없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여 줬으면 좋겠음. 또 성별에 따른 차별 의식이 점차 없어지고 있으니 호칭어, 지칭어도 이에 맞춰 갔으면 좋겠음.

3.2.3. 사회언어학 전문가 자문회의

일시: 2018년 8월 21일, 14시 - 16시
장소: 국립국어원
참석자:

○ 자문위원	김하수 명예교수님(연세대학교)
	이정복 교수님(대구대학교)
	강희숙 교수님(조선대학교)
	전은주 교수님(부산대학교)
○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철우 교수(안양대학교)
	공동연구원 나은미 교수(한성대학교)
	공동연구원 신호철 교수(청주대학교)
	공동연구원 이현희 교수(안양대학교)
	연구보조원 신희성 (고려대학교)
○ 국립국어원	정희원 어문연구실장
	김문오 공공언어과장
	박미영 공공언어과 학예연구사

■ **인사말**

정희원: 언어 예절, 그 중에서도 호칭어 및 지칭어와 관련해 차별적인 부분에 젊은 세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자문위원 선생님들께서 이미 국립국어원에 언중의 소통과 관련된 자문을 많이 해 주셨던 바 있으므로 다양한 이야기를 기대함.

김문오: 사회의 변화로 기존의 언어 사용에 불편을 느끼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음. 국민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음.

■ **사업 설명**

박철우: 11년 발표된 『표준 언어 예절』의 전통을 고수하기 어려운 면들이 많으며, 간소화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음. 이에 맞춰 국립국어원에서는 2017년에 실태 조사를 했으며, 이제는 '표준'의 기준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다변화할 것인지 답을 찾는 과정에 있음.

■ **좌담회 진행**[30)]

1. 《표준 언어 예절》(2011)에서 '표준'을 유지하는 것의 타당성 검토

박철우: '표준'이라는 기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해당 용어의 사용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게 됨으로써 다소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음. 이를 유지하거나 다른 방식을 택하는 것('권장', '허용', '전통' 등)에 대한 의견이 필요함.

→ 김하수: '언어 예절'이라는 개념부터가 문법적이지 않으며 노후화된 개념이라 할 수 있음. 전통적으로 손윗사람이기만 하면 지켜야 했던 것이 예절임. 그보다는 '언어 교양'의 개념을 취하게 되면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됨. '표준'이나 '규범'을 떠나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교양 있는 형태를 적절한 맥락에서 잘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표준'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부담스러움

→ 전은주: '표준'이라는 용어는 바뀌었으면 함. 보통 변화가 적은 것들이 '표준'의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호칭어, 지칭어 등은 가변성이 크므로 유연한 접근을 위해 '표준'의 개념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다만 '예절'이라는 말은 교육의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함. 수직적인 의미보다는 상호 존중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음. 그 외 '권장, 인정, 허용'과 관련해서 '권장'은 모르는 사람은 배워서라도 사용하라는 정도의 의미로 괜찮은데 '인정'과 '허용'은 서로 변별이 잘 되지 않음. 보다 다양한 기준을 촘촘하게 모아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 '전통'이라는 용어는 그 안에 계승할 수 있는 것도 지양할 것도 모두 들어가므로 적절하지 않음. '권장'과 '지양' 사이의 3-4단계 정도성으로 접근하면 좋을 듯함.

→ 강희숙: '표준'에 대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함.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습득할 때를 위한 기준 정도는 필요함. '전통'과 관련해서는 전은주 선생님과 같은 입장임. '권장'과 '지양'의 단계를 어떻게 정할까에 대해서는 개념 정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나가야 함.

→ 이정복: 언어 예절은 집안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양하므로 '표준'은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권장' 혹은 '추천'을 기본형으로 하고 그 아래의 등급은 '사용 가능' 정도가 적절해 보임. '허용'은 의미가 너무 강함.

→ 박철우: 학술대회에서 백두현 선생님은 '알맞은 언어 예절'을 추천하기도 하였음.

∴ 개인에 따라 집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가변성이 큰 호칭어·지칭어에 '표준'을 정해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전체적으로 동의함. '권장'과 '사용 가능', '지양' 등의 층위를 두

30) 한 명의 논의에 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논의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로 표시.

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보다 유연한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

2.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과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의 분량 문제 및 사회관계의 전반적 문제

박철우: 체계에서 가정과 사회의 분량이 지나치게 불균등함. 사회적인 관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지 않을지.

→ 전은주: 직장의 경우 개별 직장에 따라 다양한 문화가 존재함. 수직적 문화가 강한 곳에서는 직급에 따른 호지칭이 강하게 요구되는 반면 수평적 문화가 있는 곳은 또 다름. 각 직장 나름의 문화가 있는데 이를 일관되게 정하는 것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음.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직장 문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음. 불편을 호소하는 소수의 의견을 따라가다가 그렇지 않은 다수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강희숙: 직장과 달리 '직원과 손님'의 경우 식당은 '손님',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고객님', 관공서는 '선생님' 정도를 적절하게 보고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음. 사업장 내지는 직종의 유형, 규모를 고려해서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음. 특히 관공서는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 이정복: 사회 활동으로 인한 관계가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사회에 더 중점을 둘 필요는 분명히 있음. 직원이 손님에게, 그리고 손님이 직원에게의 경우를 업종별로 따져보면 다양한 변인이 발생함. 따라서 두루 높임 호칭 '선생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성별/연령 구분 없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김하수: 규모가 큰 업종일수록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잘 씀. 어느 하나하나를 정하는 것에 골몰하기보다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큰 조직들이 보이고 있는 선도적 문화를 충분히 잘 살릴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모 회사에서는 '마이클'과 같은 닉네임을 사용해서 평등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며 또 어떤 회사에서는 '김 프로, 박 프로'와 같은 호칭을 사용함. 특정 집단이 선호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어떤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가를 잘 고민해야 함.

→ 강희숙: 직급 파괴 현상, '님' 호칭 현상 등 모두 이전부터 있었던 현상인데 최근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회사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는데 직급이 없는 경우 '○○ 씨'를 쓰는 경향이 보이고 있음. 호출어(여기요/저기요) 문제에 대해 국립국어원이 다소 보수적인 듯한데 보편적인 호칭은 호출어인 듯함. 언중이 적절한 대안이 없을 경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정희원: 나름의 질서가 있는 직장은 괜찮겠으나 그렇지 않은 곳을 위해 두루 쓰는 호칭이 필요한데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듯함.

→ 나은미: 직장 내부의 고유 문화를 건드리기는 어려운데 통칭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선생님'은 성별/결혼여부/연령 표지가 없어서 적절해 보임. 요즘 사람들은 이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 표지를 꺼려 함.

→ 이정복: 예전의 경우 낯선 사람에게 길을 물을 때에도 "아저씨,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괜찮았는데 최근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 상대도 훨씬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자영업의 경우 예전에도 '사장님'이라는 호칭 선호했으나 최근 '선생님'이라는 호칭 선호함. 여러모로 우리 정서에도 맞고 적절한 문화가 될 수 있을 듯함.

∴ 사회관계에 다양한 변화가 있고 이에 대한 안내가 보다 자세하게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함.

∴ 직장 내 동료 간의 호칭 및 지칭에 대해서는 직장들이 나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그렇지 못한 직장이나 혹은 직급이 없는 경우 등 두루 쓰이는 호칭(통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선생님'이 성별/연령 무관하게 적절히 쓸 수 있는 호칭으로 보임. 그 외에 '○○ 씨'도 쓰일 수 있음.

∴ 직원-손님 사이 관계가 업장의 규모나 유형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므로 기준의 다변화가 필요함.

3. 성별 간 비대칭적 표현

박철우: 언론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어려운 지점임. 어떤 방향으로 정비를 해야 할지. 예를 들어, '시댁/처가'의 문제나 '바깥양반/안사람' 문제 등.

→ 김하수: '시댁'을 '시가'로 변경하면 된다고 생각함. '친정'도 여성 전용 표현이므로 성별 구분 없이 '친가'로 통일시키면 불균형을 없앨 수 있음. 비대칭적 표현은 지속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함.

→ 이정복: '바깥-'이 붙는 표현들은 시대적으로 너무 안 맞는 내용. '남편'과 '아내' 두 말만 써도 문제없음. '시댁/처가' 역시 단순하게 '본가 ↔ 시가/처가'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동안 관심이 부족했음. 이들을 기본형으로 두고 더 높이고 싶은 경우는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하면 됨.

∴ '시댁/처가'의 문제는 '시댁'을 '시가'로 조정해서 불균형을 없앨 필요가 있음.

박철우: 아내 쪽 가족을 '처형, 처제, 처남' 등으로 칭하면서 남편 쪽 가족을 '아가씨, 도련님, 서방님' 등으로 칭하는 부분도 문제가 큼.

→ 김하수: 해당 표현들은 단호하게 버릴 때가 되었음.

→ 강희숙: 매개 친족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지. 자녀에게 고모이면 '고모'라고 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함.

→ 전은주: ‘아가씨’라는 용어 사용은 존중의 의미로 쓸 수도 있지 않은지. 물론 대칭이 맞지 않는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됨.

→ 이정복: 경상도에서는 ‘아가씨’를 보다 일상적으로 씀. 다만 국민 청원 등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개선이 필요함. 북한이나 중국 일본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고모, 삼촌’ 없는 경우 이름을 부름. 우리나라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강희숙: 마찬가지로 결혼해서 자녀가 있다면 ‘고모/삼촌’ 없다면 ‘○○ 씨’가 적절하다고 생각함.

→ 이정복: 본인이 형수인데 시동생이 나이가 많다면 ○○ 씨가 적절하다고 생각함.

→ 전은주: 시동생에게 ‘서방님’을 호지칭으로 쓰고 있지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음. ‘씨’를 활용할 경우 성을 붙여서 ‘○○○ 씨’인지와 성을 빼서 ‘○○ 씨’인지도 차이가 있을 듯함.

→ 나은미: 바람직하다는 당위론적 생각은 있으나 새언니가 ‘은미씨’라고 한다면 불편함이 없을지 의문이기는 함. 선도적인 역할, 혁신적인 면 등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역할은 대다수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하지 않을까.

→ 이정복: 새로운 표현들이 처음부터 편할 수는 없음. ‘형수님’이라는 호칭도 초면에는 불편할 수 있음. ‘○○ 씨’도 점차 익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함.

→ 김문오: 자녀에 기대는 ‘고모/삼촌’은 전통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하는데 국립국어원에서 이들을 지지해도 될지 걱정스러움.

→ 이정복: 전통이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함. 너무 옛날 관습의 ‘맞다, 틀리다’에 얽매이면 문제들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임.

→ 정희원: ‘삼촌/고모’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여기서 결정하기보다 풍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할 듯함.

∴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음. 개선한다면 자녀가 있는 경우 ‘고모/삼촌’의 매개 친족 호칭어가, 자녀가 없는 경우 ‘○○ 씨’가 적절할 듯함. 초기의 불편함은 사용에 따라 극복할 수도 있음. 다만 그 결정은 조심스러워야 하며 여러 풍부한 대안들을 더 제시할 필요가 있음.

강희숙: 세대 간 문제에서 ‘○○ 아범, ○○ 어미’ 등이 다소 부적절하게 느껴짐.

→ 이정복: ‘애미, 애비’가 욕처럼 되어 버렸고, ‘아범, 어멈’은 시대에 동떨어짐.

→ 김하수: 이북 출신으로서 ‘애비, 애미’를 오히려 높게 느꼈음. ‘아범, 어멈’도 괜찮게 느꼈으나 ‘행랑아범’을 떠올리며 기분 나빠하기도 함.

4. 현재의 실정과 맞지 않는 기술이나 호칭어 지칭어의 삭제

박철우: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기술 중 아들에게만 직함이나 학위로 지칭하는 등 맞지 않는 표현이 있고, 시부모에 대한 호칭도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와 같이 성 역할을 고정적으로 보는 기술들이 있음.

∴ 해당 기술들은 모두 지양(삭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박철우: 직원이 손님을 부를 때 '어머님'이 듣기 불편하거나 '여사님'이 과한 경우들이 있음.

→ 김하수: 병원 간병인이 서로를 '여사님'이라 칭하고 환자 가족들에게 이러한 호지칭을 유도하기도 함.

→ 나은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도 서로를 '여사님'이라 부름. 특정 직종을 가리키면서 연령과 연관됨.

→ 전은주: 노인 학교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여사님'이라 부르기도 함.

→ 이정복: 남자는 '사장님' 여자는 '여사님'으로 높여 부르는 구분이 이어진 것으로 보임.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는 '선생님'이라고 쓰는데 이들을 확대하면 해당 표현들은 줄어들지 않을까.

전은주: 나이 있는 분들을 '어르신'이라고 하는 경우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음.

→ 강희숙: 나이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 함. 역시나 '선생님'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반대로 젊은 경우에도 '아가씨'라 불리는 것을 싫어하기도 함. '선생님'뿐 아니라 호출어 역시 대안이 될수 있을 듯함.

→ 박철우: 호출어는 서로 관계를 맺을 필요 없는 경우에 쓸 수 있을 듯함.

→ 나은미: 20대 학생들은 낯선 사람이 '저기요/여기요'라 불러 주길 원하는 경우가 많음.

→ 이정복: 호출어를 부정적으로 보는 논의가 있는데 부부 사이의 '여보'도 호출어에서 출발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듯함. 실제 언중이 개발해서 불편함 없이 쓰는 것이므로 너무 기존에 얽매일 필요는 없음.

∴ 사회관계에서 연령이 드러나는 호칭이거나 서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때 '선생님'과 같은 중립적 호지칭이나 '저기요/여기요' 같은 호출어를 사용할 수 있음.

박철우: 통칭이나 중립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다가도 관계가 두세 번 중첩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해짐. 그에 따라 가족 호칭을 사회적 관계에 가져다 쓰는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강희숙: 대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어머니의 친구를 '아줌마'보다야 '이모'라고 부르는 것이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함.

→ 박철우: 권장하기보다는 '사적' 장면이라는 단서 속에서 허용되어야 하지 않을지.

∴ 친족 호칭어가 사회관계로 확대되는 것은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음.

5. 마무리 및 기타 제언

이정복: 『표준 언어 예절』이 기존에는 너무 전통에 기반한 경향이 강했음. 하지만 호지칭은 관계를 정해 주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서로가 부르고 듣기에 편해야 함. 일반 언중들이 나름의 전략으로 편하게 쓰고 있는 것들이 정답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실용적 대안들을 국가 기관에서 너무 배제하기보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허용해 줘야 함. 그러면 봉건적이고 차별적인 표현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

김하수: 프랑스 대혁명 때 귀족 중심의 호칭을 금지한 사례 등에서 언어가 권력을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단순히 언어의 일면이 아니라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제가 되어야 함.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고치기보다 성평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에너지가 많이 축적되었으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개선하면 좋을 듯함.

강희숙: 본인에게 상처가 되었던 호칭이나 불리고 싶은 호칭을 살핀 바 있는데 호칭의 문제는 결국 감정적 소모나 비용을 줄이고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성평등 문제 등도 생각하면서 대안에 대한 언어의식 등도 추적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함.

전은주: 전체적 연구 방향에 동의함. 다만 기존의 것에 권장, 허용 등의 단계를 매기는 상황이 올 때 그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전문가 평정을 하거나 언중의 실태를 표집할 수 있을 텐데 후자는 변인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전자는 '전문가'라는 집단 자체가 특정 속성에 한정될 수 있음. 전문가도 젊은 전문가도 있고 하니 표준 대신 다른 용어를 붙이고 경계를 짓는다면 다양한 변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3.2.4.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 · 네이버) 설문조사

당초 연구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연구가 진행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으로 2회에 걸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의 주제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국민생각함> 설문 주요 내용

국민생각함 · NAVER 언어예절 실태조사 결과 안내

'18.10.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추진 개요]

◇ 추진목적 : 국민생각함과 국내 최대 민간포털 NAVER 가 협업하여 정책개선과 관련한 각계 각층의 아이디어 수렴

◇ 설문주제 : 일상생활 및 가족관계 간 언어예절 실태(국립국어원 설문 작성)
- 1차 : **손님-종업원** 관계 및 **직장** 생활 속 언어예절 개선방안
- 2차 : **가족·친지** 간 언어예절 개선방안

※ 네이버 측 요청에 따라 두 차례로 나누어 설문 진행

◇ 참여방법 : NAVER 핵심설문(1개) 참여 → 국민생각함에서 세부설문 참여

◎ <국민생각함> 설문 일정 및 참여 인원

□ (1차) **손님-종업원** 관계 및 **직장** 생활 속 언어예절 개선방안

조사기간 : 8.16.~8.30.(15일)

참여인원 : NAVER : 18,269명(설문17,790, 댓글479)

국민생각함 : 1,986명(설문1,734, 댓글252)

□ (2차) **가족·친지** 간 언어예절 개선방안

조사기간 : 9.3.~9.21.(19일), 생각함은 9.26.까지 기간 연장

참여인원 : NAVER : 21,146명(설문20,837, 댓글309)

국민생각함 : 6,268명(설문5,700, 댓글568)

위와 같이 2차에 걸쳐 진행된 설문의 문항은 심층면담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설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몇 가지 문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의 문항을 되도록 간단하게 구성하되 호칭어나 지칭어 정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언중의 선호도를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선별하였다. 설문의 문항과 각 문항별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국민생각함> 1, 2차 설문 문항

구분	1차 사회관계	2차 가족관계
네이버	호칭어, 지칭어 높임법 인사말과 같은 표준 언어 예절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친척 간 언어예절(호칭어, 지칭어, 높임법, 인사말)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끼거나 곤란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국민생각함	1. 친구의 아내나 친한 직장 동료의 배우자를 '제수씨, 형수(님)'로 불러도 될까요? 2. 친구의 자녀가 나에게 '이모'나 '삼촌'과 같은 친족 호칭어로 불러도 될까요? 3. 식당이나 마트 등의 서비스 기관과 주민 센터, 병원 등의 공공기관에서 손님이나 방문객을 이르거나 부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식당이나 마트 등의 서비스 기관과 주민 센터, 병원 등의 공공기관에서 손님이나 방문객이 기관 직원을 부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직장에서 '○○ 군, ○○ 양', 혹은 '미스터 ○, 미스 ○'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1. 전통적으로 배우자의 부모님은 '아버님, 어머님'으로만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친부모처럼 양가 부모님 모두를 서로 '아버지, 어머니'로 불러도 될까요? 2. 남편이나 아내를 서로 '자기'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편적인 호칭어는 아니었는데, 부르는 말로 써도 될까요? 3. 남편의 아래 동기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로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이나 '아가씨(미혼·기혼)'를 쓰고 있는데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바꿔야 할까요? 4. 남편의 아래 동기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5. '시집, 시가'를 높여서 '시댁'으로 씁니다. '처가'를 높이는 말은 '처가댁'만 있고 '처댁'이라는 말은 없는데, '처댁'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쓰면 어떨까요?

- **NAVER** 핵심 설문

• 호칭어, 지칭어 높임법 인사말과 같은 표준 언어 예절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매우 그렇다	8,160	45.9
② 조금 그렇다	6,720	37.8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161	12.1
④ 전혀 그렇지 않다	749	4.2
계	17,790	100

- 국민생각함 세부 설문

1. 친구의 아내나 친한 직장 동료의 배우자를 '제수씨, 형수(님)'로 불러도 될까요?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된다	1,111	64.1
② 안 된다	623	35.9
계	1,734	100

2. 친구의 자녀가 나에게 '이모'나 '삼촌'과 같은 친족 호칭어로 불러도 될까요?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된다	1,311	75.6
② 안 된다	423	24.4
계	1,734	100

3. 식당이나 마트 등의 서비스 기관과 주민 센터, 병원 등의 공공기관에서 손님이나 방문객을 이르거나 부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복수 응답** 가능)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OO 씨(이름 씨)	418	12.4
② OO 님(이름 님)	1,091	32.5
③ 선생님	368	10.9
④ 손님/고객님/회원님/환자분 등	1,246	37.6
⑤ 아주머니/아저씨	33	1.0
⑥ 어머님/아버님	72	2.1
⑦ 이모/삼촌	30	0.9
⑧ 사모님/사장님	86	2.6
계	1,734	

4. 식당이나 마트 등의 서비스 기관과 주민 센터, 병원 등의 공공기관에서 손님이나 방문객이 기관 직원을 부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복수 응답** 가능)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OO 씨(이름 씨)	342	10.4
② OO 님(이름 님)	567	17.3
③ 선생님	636	19.4
④ 직함(o 과장, o 주임)	987	30.1
⑤ 여기요/저기요	381	11.6
⑥ 아주머니/아저씨	68	2.1
⑦ 어머님/아버님	27	0.8
⑧ 이모/삼촌	71	2.2
⑨ 사모님/사장님	205	6.2
계	1,734	

5. 직장에서 '○○ 군, ○○ 양', 혹은 '미스터 ○, 미스 ○'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된다	353	20.4
② 안 된다	1,381	79.6
계	1,734	100

[응답자 정보]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여자	988	57.0
② 남자	746	43.0
계	1,734	100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10대	147	8.5
② 20대	449	25.9
③ 30대	454	26.2
④ 40대	376	21.7
⑤ 50대	211	12.2
⑥ 60대 이상	97	5.6
계	1,734	100

- NAVER 핵심 설문

• 가족·친척 간 언어예절(호칭어, 지칭어, 높임법, 인사말)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끼거나 곤란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매우 그렇다	5.617	27.0
② 조금 그렇다	7,631	36.6
③ 별로 그렇지 않다	4,523	21.7
④ 전혀 그렇지 않다	3,066	14.7
계	20,837	100

- 국민생각함 세부 설문

1. 전통적으로 배우자의 부모님은 '아버님, 어머님'으로만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친부모처럼 양가 부모님 모두를 서로 '아버지, 어머니'로 불러도 될까요?

답변	응답자			비율(%)
	여자	남자	합계(명)	
① 된다	4,203	903	5,106	89.6
② 안 된다	434	160	594	10.4
계	4,637	1,063	5,700	100

2. 남편이나 아내를 서로 '자기'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편적인 호칭어는 아니었는데, 부르는 말로 써도 될까요?

답변	응답자			비율(%)
	여자	남자	합계(명)	
① 된다	4,379	904	5,283	92.7
② 안 된다	258	159	417	7.3
계	4,637	1,063	5,700	100

3. 남편의 아래 동기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로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이나 '아가씨(미혼·기혼)'를 쓰고 있는데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바꿔야 할까요?

답변	응답자			비율(%)
	여자	남자	합계(명)	
① 계속 유지한다(지금처럼 쓴다)	296	459	755	13.2
② 바꾼다(4번 질문에서 상세 응답)	4,341	604	4,945	86.8
계	4,637	1,063	5,700	100

4. 남편의 아래 동기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복수 응답** 가능)

답변	응답자			비율(%)
	여자	남자	합계(명)	
① OO 씨(이름 씨)	2,343	322	2,665	41.7
② 동생 또는 동생분	693	164	857	13.4
③ 부남, 부제('처남', '처제' 대응)	2,633	242	2,875	44.9
무응답	307	461	768	13.4
계	4,637	1,063	5,700	

5. '시집, 시가'를 높여서 '시댁'으로 씁니다. '처가'를 높이는 말은 '처가댁'만 있고 '처댁'이라는 말은 없는데, '처댁'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쓰면 어떨까요?

답변	응답자			비율(%)
	여자	남자	합계(명)	
① 된다	4,261	718	4,979	87.4
② 안 된다	376	345	721	12.6
계	4,637	1,063	5,700	100

[응답자 정보]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여자	4,637	81.4
② 남자	1,063	18.6
계	5,700	100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10대	239	4.2
② 20대	3,216	56.4
③ 30대	1,325	23.2
④ 40대	556	9.8
⑤ 50대	296	5.2
⑥ 60대 이상	68	1.2
계	5,700	100

3.2.5. 성균관 전례위원회 서면 인터뷰 내용

지난 10월 성균관 전례위원회에 우리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 내용 등을 소개하고 몇 가지 첨예한 쟁점들에 대해 성균관의 의견을 듣고자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답변은 10월 31일에 받았고 총 12개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 내용을 받을 수 있었다. 답변은 성균관 전례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광수 선생님이 대표로 보내주셨다.[31]

1. 최근 시어머니를 '엄마', 시누이나 올케를 '언니'라고 부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시어머니'를 '엄마', '시누이'나 '올케'를 언니라고 부른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君君臣臣(군군신신) 인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父父子子(부부자자)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명분과 실리가 살아있지만 실리가 우선이 되는 사회가 아닌 명분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명분'이라는 것은 바로 '이름'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다운 말씀을 하셔야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다운 담화를 하듯이 '시어머님'은 '어머님'이고, '시아버님'은 '아버님'입니다. 명분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성이 있는 인간으로 깨어있습니다. 모두 편하다고 아무것이나 쉽게 가져다 사용한다면 현재는 모르겠지만 세월이 흘러 어느 단계까지가면 시어머니가 누구인지 친엄마가 누구인지, 진짜 시누이가 누구인지 또 올케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시누이와 함께 시장엘 갔습니다. 그곳에서 시누이를 "아가씨"라고 불렀더니 시누이와 점원 아가씨가 함께 "예"하고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란 말은 현재 친척이 아닌 남의 처녀를 부를 때 쓰이고 있습니다. 또 본래의 시누이의 호칭은 '아가씨'가 아닌 '작은 아씨'입니다. 시장에서 '작은 아씨'라고 불렀더라면 점원이 대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엄마'는 '엄마'이어야 하고 '시어머님'은 '시어머님'이어야 하고, '시누이'는 '작은 아씨'이어야 합니다. 현재 시어머니가 엄마처럼 가깝고 친하다고 호칭을 바꿔 부르면 원래의 사이가 그렇게 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도(호칭)는 좋다고 함부로 막 바꾸면 그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최근 부부 간 호칭으로 '여보' 외에 '자기', '오빠' 등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부 간 호칭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부 간의 호칭을 오빠라고 라고 쓰면 안 됩니다. 오빠는 여성 본가의 나이가 많은 남자 자매의 호칭입니다. 지금 시집을 간 여성이 오빠와 한 방을 씁니까? 말도 안 되는 호

31) 띄어쓰기, 문장부호 등 일부 수정하였음을 밝혀둔다.

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말 방송을 이용하든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든, 그러다 보니 현재의 대한민국에 인성이 부족하니,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인성교육법을 만들었습니다.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이런 잘못을 인정하는 쪽으로 남녀의 사이를 왜곡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빠는 친정에 있는 오빠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시부모님에게 남편을 제대로 말 하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부부간에는 거처로 말하니까 사랑방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른에게 아내를 말할 때는 "제댁"이라 말하면 됩니다. 저의 집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보', '當身(당신)'이 우리의 夫婦(부부) 呼稱(호칭)입니다. 婚姻(혼인)하기 前(전)에는 '○○씨'라고 서로 불렀습니다. 막상 婚姻(혼인)을 하고 나니까 呼稱(호칭)이 궁색합니다. 한국인이 한국인의 호칭을 놔두고 무슨 호칭을 달리 해야 합니까. 직접 부를 때는 "여보"이고 대화 중의 지칭에는 "당신"이라고 우리 조상대대로 불러왔습니다. 더 점잖케 부르려면 아내를 "부인"이라고 하면 됩니다. "여보"는 '여기보세요'의 준말이고 "당신"은 그대 본인이란 뜻입니다. 젊은 부부가 어른스럽게 "여보", "당신"이란 말로 부르려니까 부끄럽다고도 합니다만, 당연한 호칭을 쓰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3. 사위나 며느리에 대해 아들이나 딸과 같이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우리 문화에 관례(계례)라 하는 성인의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인식이라고 5월 초에 방송에서 조금 전합니다만 아주 중요한 우리 고유의 '관, 혼, 상, 제' 사례(四禮)에서도 가장 먼저 '관례'인 것입니다. 예전에 스승님도 관례를 치르기 전에는 반말로 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례의식을 마치고나면 관례의식에서 또 다른 이름인 字(자)를 지어주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를 부릅니다. 이렇게 좋은 의식인 관례(계례)를 활성화해야 하고, 성인이 되면 성인식 즉, 관례를 학교나 성균관에서 치르도록 홍보하고, 사회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잊혀져가는 우리 관례의식을 되찾아야 합니다. 해야 할 것을 먼저 잊고 나니 사위나 며느리에 대해 가깝다는 뜻으로 이름을 부르는 몰상식한 부모님들. 이 나라의 국회에서 인성교육법을 만들게까지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치입니까? 우리네 부모입니까? 무조건 쉽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려워도 지킬 것은 지킵시다. 요즘도 사위는 백년손님 이란 말씀들을 쉽게들 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손님에게 반말로 이름을 부릅니까! 그것도 백 년 동안 손님이라는 백년손님 사위에게 말씀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기본을 지켜나가서 이 나라의 인성교육 없는 인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합

시다. 모든 교육은 각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부터 시작입니다. 학교는 그다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교육하는 부모님은 어른이니까 사위에게 이름을 부르고 무식한 선생님 노릇을 해야 합니까? 부모님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은 우리들, 부모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4.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을 사용하면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된다는 여성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이름] 삼촌', '○○[자녀이름] 이모'처럼 자녀와의 관계를 활용해 부르거나 남편의 형, 누나, 동생인 것을 고려하여 '형님', '누님', '동생' 등으로 부르도록 하면 어떨까요?

「답변」

남녀 간에 자기를 낳으신 부모를 말할 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합니다. '님'은 상대를 높여 부르는 禮(예)스러움인 바 父子(부자)間(간)에는 禮(예) 보다 親(친)함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님'을 붙이는 것은 親(친)함보다 禮(예)가 앞서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부모 앞에서 친정부모를 말할 때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무난한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형님은 '시아주버님', 남편의 여동생은 '작은아씨', 남편의 동생은 '서방님'이 맞고, 이 나라의 기본을 이어가는 기본인 것입니다.

주제가 남녀 간의 차별이다, 시댁과 친정의 차별이다, 이런 차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남녀 간의 관계를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남녀 차별로 이해를 해서 이런 발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음, 양, 오행에 의해서 남자는 양이요, 여자는 음이라는 것에 기본해서 남녀 간의 차별이 아닌 우주의 법칙을 먼저 이해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시집을 가면 남편의 성을 따라서 씁니다. 여성이 혼인을 하면 성씨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을 해도 성씨를 그냥 사용하고 또한 예를 들어 혼인 전에 용인에 살다가 시집을 왔다면 '용인댁'이라고 모든 여성의 존재감을 인정하면서 지금은 가정의 경제권까지 거의 모든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인정을 하면서 우선 반성하고 고쳐야 할 문제는 반려동물에게 아들, 딸 하는 것이 문제이지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나온 호칭을 바꿔야한다는 생각의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이고, 반려동물에게 엄마니 아빠니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어져 내려오는 호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반려동물의 팔자에 없던 인간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을 더 먼저 고쳐야 하고 더 이상 이런 비인간적인 호칭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5. '아저씨', '아주머니' 등의 친족 호칭어가 친족이 아닌 경우에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오히려 친족에게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친구에게 '이모'나 '삼촌'으로 부르거나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이모', '어머니(님)' 등으로 부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친구의 배우자에게는 '제수씨', 나이가 많은 지인의 배우자에게 '형수'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친족 관계에서 쓰이던 호칭어를 가족 외의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만 옛부터 우리 인간은 포유류로써 태어나서부터 '꺄르륵' 하면서 상대에게 웃음을 보이면서 생존의 방법을 알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식당에 가면 이모, 삼촌, 또한 이 사회의 모든 남성은 '사장님', '회장님'이시고 여성은 '사모님' 등등입니다. 식당의 주방장도 실장, 과장, 혹, 숯불도 부장님이 피웁니다.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라면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만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영원한 가족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회성의 호칭이니 별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6. 직장 내 동료들 간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형', '누나', '오빠', '언니' 등으로 부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회사나 직장마다 호칭에 관한 법칙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개인적 호칭이 허용되는 곳은 자유로운 호칭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하면 될 것입니다. 요즈음 직장은 복장도 노타이, 반바지 하면서 자유로워진 것처럼 말입니다.

7. 친구의 자녀가 나에게 '이모'나 '삼촌'과 같은 친족 호칭어로 불러도 될까요?

「답변」

5항의 질문과 같은 뜻 아닌가요? 일단 기본적인 호칭은 가족관계의 촌수에 따른 호칭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자녀와 나는 촌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뭐라고 불러야 한다는 정해진 사회의 호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생긴 호칭입니다. 아직 이 호칭이 사회에 이슈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듣는 이가 '이모'라고 들으면 이모의 역할을 해야 하고, '삼촌'이라 들으면 삼촌의 역할을 해야 하기에 듣는 이가 부르는 이에게 듣고 싶은 호칭을 별도로 정해서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8. 전통적으로 배우자의 부모님은 '아버님, 어머님'으로만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친부모처럼 양가 부모님 모두를 서로 '아버지, 어머니'로 불러도 될까요?

「답변」

親(친)과 禮(예)를 구분해야합니다. 남녀 간에 자기를 낳으신 부모를 말할 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합니다. '님'은 상대를 높여 부르는 예스러움인 바 부자 간에는 禮(예)보다 親(친)함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님'을 붙이는 것은 親(친)함 보다 禮(예)가 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부모 앞에서 친정부모를 말할 때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무난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랬었답니다. 친정은 '본곁'이라 하고 아버지는 '밖어른', 어머니는 '안어른'이라 말했다 합니다. '본곁의 밖어른'께서, '본곁의 안어른'께서 이렇게 말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한결 편해진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9. 여성의 결혼 전 집은 '친정'으로 부르는데 남성에게는 이에 해당하는 말이 없습니다. 결혼 전 부모의 집을 남성과 여성이 모두 '본가'로 부르는 것은 괜찮을까요?

「답변」

'친정'과 '본가'는 왜 그랬을까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의 생활이 아닙니다. 친정은 친정의 가계와 계통이 있습니다. 본가는 본가의 가계와 계통이 있습니다. 현재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왜 통합해서 본가로 사용해야하나요? 그것도 남녀차별인가요? 그럼 반려견은 어떻게 하나요? 엄연히 반려견의 '에미'가 따로 있는데 데려와서(사와서) 인간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안 해야 될 것부터 고쳐 나가고 정말 친정과 본가가 남녀차별이라면 처라는 말도 사용하지 말며, 처가의 덕도 보지 말며, '장인', '장모'의 호칭도 바꿔 그냥 모두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야 하지 않나요. 가족관계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를 바꾸면 무척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10. 아래의 말은 현재 잘 쓰이지 않거나 모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래의 말을 써서 가족을 부르거나 가리키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예> 陳外, 外外, 從祖, 伯父, 姑叔, 姨叔, 甥姪壻, 妻姨姪壻, 妻姨姪女 등

「답변」

陳外(진외) ; 할머니의 친정

外外(외외) ; 처외가

從祖(종조) ; 종조부의 준말

伯父(백부) ; 큰아버지

姑叔(고숙) ; 고모부

姨叔(이숙) ; 이모부,

甥姪壻(생질서) ; 누이네 조카사위

妻姨姪婿(처이질서) ; 처 조카사위

妻姨姪女(처이질녀) ; 처 자매간의 딸

위의 말은 누가 사용하나요? 전공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켜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을 해도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쓰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입니다. 지금도 촌수를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존재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앞번호도 019. 011. 016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없애라 해야 할까요. 쓰지 않아도 함부로 없앨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11. 호칭어나 지칭어를 사용하면서 서열과 나이, 친분의 정도 중 어느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서열과 나이가 역전되었을 때 여성은 남편의 서열을 따르고 남성은 아내의 서열과 관계없이 나이를 따라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를 동등하게 바꾸면 어떨까요?

「답변」

세대와 나이를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종중 사회에서도 행렬이 높고 나이가 어리면 행렬을 대접하고, 행렬이 낮고 나이가 많으면 나이를 대접해야 합니다. 호칭어나 지칭어를 사용할 때에도 서열과 나이를 서로 존중하여야 하며 친분의 정도 중 어느 한쪽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서열과 나이를 모두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인성이 살아나고 사회의 질서가 정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편의 서열을 너무 차별이라 생각하지 말고 서로 윈윈하고 존경,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등하다는 것을 너무 대립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기초 질서는 그나마도 살아있다고 생각합시다.

12.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호칭어나 지칭어의 사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고쳐가야 할까요? 자유롭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이 모든 것은 이 나라의 어른들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목표를 멀리 두고 어려서부터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가정의 교육이 먼저이며 가정의 선생님은 부모님이구요, 그 다음으로 학교이고 선생님입니다. 부모님도 공부하여 이 나라 제대로 된 인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합니다. 지역의 주민센터를 활용하고 이 나라의 예절 인성을 강의할 수 있는 인원이 구석구석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아무에게나 이모, 삼촌, 오빠 등등으로 호칭하는 이 사회의 어른이라는 사람들의 잘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고 매스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3. 심층 면담 내용 및 결과 분석

앞에서 심층 면담 연구에 대하여 응답자 선정과 면담 질문지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기술하였다. 본 절은 심층 면담 질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는 장으로서, 결과 분석에 앞서 질문지에 대한 보다 추가적인 정보를 기술한다. 우선 응답자 선정 기준에 대한 기술은 이전 장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기술하지 않고 각 문항 질문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기술한다.

모든 질문 내용에 코드 번호를 부여하였다. 응답자 기본 정보 관련 질문에는 'SQ' 코드, 응답자의 개인 정보 관련 질문에는 'A' 코드,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에서 호칭어・지칭어 사용 관련 질문에는 'B' 코드, 호칭어・지칭어 사용 종합 의견 관련 질문에는 'C' 코드를 부여하고 그 하위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다시 호칭어와 지칭어로 구분하기 위해 '호칭', '지칭'을 표시하여 구분하고 그 하위에 질문 항목이 달라지면 다시 'a'와 'b'로 세분하였다. 그리하여 응답자와 장소, 일시 등에 대한 정보 문항에는 'SQ11~SQ13'(3개), 응답자의 기본 정보에 대한 문항에는 'SQ01~SQ06'(6개)까지 부여되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개인 정보 중 가족관계 문항에는 'A1-1~A1-6'(6개), 응답자의 개인 정보 중 사회관계 문항에는 'A2-1~A2-5'(5개)까지 코드 번호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호칭어・지칭어 사용 양상에 대한 문항에는 기본적으로 'B' 코드를 부여하고, 가족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4개)-(B1)',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7개)-(B2)', '처부모와 사위 사이(6개)-(B3)', '남편에 대하여-(B4)', '아내에 대하여-(B5)'[32],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22개)-(B6)',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16개: 여성 응답자용)-(B7)',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16개: 남성 응답자용)-(B8)', '조부모와 손주 사이(25개)-(B9)', '숙질 사이(28개)-(B10)', '사촌 사이(4개)-(B11)', '사돈 사이(4개)-(B12)' 코드를 부여하였다.

또한 사회관계에서 '직장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하여(35개)-(B13)', '지인에 대하여(22개)-(B14)', '직원과 손님 사이(13개)-(B15)' 코드를 부여하였다. 여기에 각각 다시 호칭어와 지칭어에 따라 '호칭'과 '지칭' 코드, 그리고 세부 질문 항목에 따라 'a'와 'b' 코드를 부여하여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B1-1-호칭-a'와 같이 각 질문 문항에 코드 번호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호칭어・지칭어 사용 전반에 걸친 종합적 의견을 묻는 문항에는 'C' 코드 번호를 부여하고 하위 질문마다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여 'C1~C8'까지 8개의 코드 번호를 부여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3-1) 심층 면담 질문지 코드 번호

32) '남편에 대하여(B4)'와 '아내에 대하여(B5)'에 대한 질문은 '배우자' 하나로 통일하면 질문 문항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질문을 묶어서 질문지를 작성하여 이들을 합쳐 질문 수는 2개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남편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B7)'와 '아내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B8)'도 그에 해당하는 성별만 응답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여 '여성 응답자용'과 '남성 응답자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16개 질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들 모두 코드번호는 각각 부여하였다.

번호	질문 영역	세부 영역	코드 번호	설문 개수
1	면담자 정보	면담자	SQ11 ~ SQ13	3
	응답자 기본 정보	응답자 정보	SQ01 ~ SQ06	6
2	응답자 개인 정보	가족관계	A1-1 ~ A1-6	6
		사회관계	A2-1 ~ A2-5	5
3	가족관계에서 호칭어·지칭어 사용 관련 질문	부모-자녀	B1-호칭-a ~ B1-지칭-b	4
		시부모-며느리	B2-호칭-a ~ B2-지칭-b	7
		처부모-사위	B3-호칭-a ~ B3-지칭-b	6
		남편-아내	B4/5-호칭 ~ B4/5-지칭	2
		동기-배우자	B6-1-호칭-a ~ B6-11-지칭-b	22
		남편 동기-그 배우자(여성용)	B7-1-호칭-a ~ B7-4-지칭-b	16
		아내 동기-그 배우자(남성용)	B8-1-호칭-a ~ B8-4-지칭-b	16
		조부모-손주	B9-1-호칭 ~ B9-9-지칭	25
		숙질 간	B10-1-호칭 ~ B10-14-지칭	28
		사촌 간	B11-호칭-a ~ B11-지칭-b	4
		사돈 간	B12-호칭-a ~ B12-지칭-b	4
		'그 밖의 것'	'코드 번호 없음'[33]	3
4	사회 관계에서 호칭어·지칭어 사용 관련 질문	직장 사람-그 가족	B13-1-호칭-a ~ B13-14-지칭	34
		'직원들 간 호칭'	'코드 번호 없음'	1
		지인 간	B14-1-호칭 ~ B14-12-지칭	22
		직원-손님	B15-1-호칭 ~ B15-6	11
		'기타 사항'	'코드 번호 없음'	2
5	호칭어·지칭어 사용 종합 의견 관련 질문		C1 ~ C8	8
	합계			235

33) '그 밖의 것'은 가족관계에 대한 항목별 문항이 끝나고 가족관계와 관련되는 추가 문항 3개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좌담회와 자문회의를 결과 이후 개인적이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문항을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문항지가 결정된 이후에 추가하여 따로 코드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가족관계에서 호칭어·지칭어 사용 관련 질문' 이후에 추가로 제시만 하였다. 이하 '코드 번호 없음'으로 표시한 것은 유사한 이유이다.

3.3.1. 가족관계에서 호칭어・지칭어 사용 양상 분석

심층 면담 결과 분석 기술 방식은 코드 번호를 제목(또는 세부 영역)으로 제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질문 문항을 제시한 후에 그 심층 면담 결과에 대한 성별, 연령별, 직업별, 결혼별 등을 기준으로 관련 내용 등을 분석・기술한다.

3.3.1.1. 부모와 자녀 사이(B1)

(1) B1-호칭-a, b

☞ **a. 자녀를 이름 대신 '아들'이나 '딸'로 부르기도 합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 자녀의 미혼/기혼 여부를 생각하여 응답
☞ **b. 부모님을 '엄마', '아빠'로 부릅니까? 이렇게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 결혼 전후, 자녀가 생긴 후로 달라진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여 응답

위의 질문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호칭어로 '아들, 딸'과 '엄마, 아빠'로 부르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a에 대하여 조사한 모든 연령층에서 자녀를 이름 대신 '아들, 딸'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특히 20~30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는데, 사용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정겹고 괜찮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20~30대에서 답변하지 않은 응답자들은 모두 비혼(非婚)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여성 응답자 중에서 엄마가 딸에게는 이름을 부르고 아들에게만 '아들'이라는 호칭어를 사용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이유로 엄마와 아들 간의 관계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응답을 보였다. 그리고 60대 이상보다 40~50대에서 부정적으로 답변하였음에 주목할 수 있다. 그 이유로 듣기에 다소 거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60대 이상에서도 항상 그러한 호칭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가끔 그렇게 부르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b에 대하여 조사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모님을 '엄마, 아빠'로 호칭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20~30대에서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호칭어가 딱딱하다고 느껴지며, 결혼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40~50대의 경우 용인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결혼 전에는 가능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러한 호칭어가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60대 이상에서 반대 의견이 제일 많았는데, 그 이유는 듣기에 거북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모든 연령층에서 특기할 점은 남성 응답자는 어머니의 경우 '엄마'가 자연스럽지만, 아버지의 경우 '아빠'보다는 '아버지'가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부자간의 친밀성보다 모자간의 친밀성이 더 밀접하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⑵ **B1-지칭-a, b**

☞ **a.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들'이나 '딸'로 지칭하기도 합니까? 자녀의 혼인 여부에 따라 바뀐 점이 있습니까?** <주의>대상에 따라 지칭을 다르게 사용하는지 응답
☞ **b. 부모님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호칭이나 지칭의 변화가 있는지 응답('아빠', '엄마'라고 불렀던 것을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는지 응답)

위의 질문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지칭어로 '아들, 딸'과 '엄마, 아빠'로 부르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a에 대하여 조사한 모든 연령층에서 '아들, 딸'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20~30대에서는 해당 없는 경우가 많아 지배적인 의견은 없어 보이지만 결혼 후 지칭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아들, 딸'과 '이름'으로 지칭한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고, 친근감을 표시하는 지칭이 '이름'이라는 답변도 나왔다. 특히 40~50대에서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결혼 유무에 따라 '아들, 딸'에 대한 지칭이 변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모두 '아들, 딸'로 지칭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가끔 '이름'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b에 대하여 조사한 모든 연령층에서 '엄마, 아빠'보다는 '어머니, 아버지'를 지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윗세대로 갈수록 이러한 의견이 더욱 많았다. 20~30대 연령층에서는 '엄마, 아빠'와 '어머니, 아버지' 지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비슷하였지만 결혼 후에 '어머니, 아버지'로 바뀌며, 부모가 사망한 후에도 변화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아버지의 경우 친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로 지칭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체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모두 사용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40~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어머니, 아버지' 지칭어가 지배적이었다. 부모와 친한 정도에 따라 '엄마, 아버지'로 지칭한다고 하며, 아버지의 경우 '아빠, 아버지'를 혼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30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친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모 사망 후에 지칭이 변화한다는 의견과 변화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60대 이상에서는 부모 사망 후에 부모에 대한 지칭어가 변화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3.3.1.2.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B2)

⑴ **B2-호칭-a~e**

☞ a. 시부모를 '아버지/아빠', '어머니/엄마'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아빠'나 '엄마'로 부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까?
☞ b.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거나 '야', '너'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며느리는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까?
☞ c. 며느리가 자신과 배우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 d. 시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부릅니까? 시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 e. '새아가', '며늘애' 등이 며느리를 아이처럼 취급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위의 질문은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호칭어에 대한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무응답의 의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양자 간 대답하기 까다로운 관계임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

a의 경우 시부모에 대한 호칭어로 '엄마/아빠', '어머니/아버지'의 경우보다는 '어머님/아버님'으로 호칭하는 경우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그 이유로 친정 부모와의 혼동, 어색함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60대 이상에서는 '어머님/아버님' 호칭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40~50대에서는 '엄마/아빠'가 아닌 '어머니/아버지' 호칭어로 부른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친밀한 집안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엄마/아빠'가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20~30대에서는 이러한 시부모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의견이 더 많은데 예의에 어긋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며, 상호 합의하면 어떤 호칭이든 좋다는 의견이다.

b의 경우, 며느리를 '야, 너' 등으로 호칭하는 경우는 모든 연령층에서 거의 드물었다. 며느리가 불리고 싶은 호칭어로 '이름, 며느리, ○○ 엄마/○○ 에미, 에미' 등이 제시되었는데, 이 중에서 '이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c의 경우,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어머님/아버님'으로 불리기를 가장 선호하였다. 40~50대의 경우 '아버지/어머니, 어머님/아버님, 어머니/어르신, 정식 호칭, 시부모님' 등 다양한 호칭어들을 답하였음에도 이 가운데 '어머님/아버님'이 가장 우세하다. 특이한 호칭어로 '어르신'이란 호칭으로 불리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경우 그만큼 며느리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d의 경우,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 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젊은 연령대로 내려갈수록 '이름'으로 불리기를 더욱 선호하였다. 20~30대에서는 이름 외에도 '아가, ○○ 에미, 에미' 등의 의견이 나왔다. 40~50대에서도 이름으로 불리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 외에도 '○○ 에미, 새아가, ○○ 엄마 아가, 며느리' 등의 의견이 나왔다. 60대 이상에서는 대부분이 무응답이었고, 특이한 호칭어로 '막내야'가 있었다. 그 이유로 '막내'가 더 정겹고 가족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며느리에 대한 호칭어를 실제 사용하는 연령층이 60대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무반응이 많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며느리를 부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관계의 소원함, 친밀하지 않음 등의 부정적인 관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e의 경우 시부모가 며느리에 대하여 '새아가, 며늘애'라고 부르는 호칭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이 절반씩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연령층에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더 소중히 여기는 표현' 대 '아이 취급 받는 느낌'의 대립(20~30대)과 '사랑받는 느낌' 대 '바람직하지 못함'의 대립(60대 이상)이 엇갈리고 있다. 40~50대의 의견으로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다는 의견만 있다.

⑵ B2-지칭-a, b

☞ **a. 시부모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가리키는 말이 다릅니까? 왜 다르게 씁니까?**
☞ **b. 며느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가리키는 말이 다릅니까? 왜 다르게 씁니까?**

위의 질문은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지칭어에 대한 내용이다. 모든 연령층에서 고르게 무응답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의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호칭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보다 무응답의 분포가 더 넓음을 볼 수 있다.

a의 경우, 시부모를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경우의 질문인데, '시아버지/시어머니'나 '시아버님/시어머님'으로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 '저희'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상대방에 따라 지칭어가 달라지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대체적으로 같지만 3분의 1정도가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이유로 20~30대층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다르게 지칭한다고 응답하여 소통의 명확성을 위해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0~50대에서는 시부모와의 친밀 관계에 따라 지칭어가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곧 '시아버님/시어머님'에서 '아버지/어머니'로 지칭어가 바뀐다는 것이다.

b의 경우 며느리를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경우의 질문인데,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며느리'란 지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새아가, ○○ 엄마' 등으로 가리키기도 하였다. 상대방에 따라 며느리에 대한 지칭어가 달라지는 경우도 a의 경우와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이 역시 며느리와의 친밀한 관계 정도에 따라 다르게 가리킨다고 응답하였는데, '우리 며느리'라고 하거나 '새아가' 등을 사용하여 다르게 가리킨다고 응답하였다.

3.3.1.3. 처부모와 사위 사이(B3)

(1) B3-호칭-a~d

☞ **a. 처부모를 '장인(어른)', '장모(님)' 외에 '아버지/아빠', '어머니/엄마'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아버지/아빠', '어머니/엄마' 등으로 부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까?**
☞ **b. 사위를 '자네', '○ 서방' 외에 이름을 부르거나 '야', '너'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사위는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까?**
☞ **c. 사위가 자신과 배우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사위가 자신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 **d. 처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부릅니까? 처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위의 질문은 처부모와 사위 사이의 호칭에 대한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처부모에 대한 호칭으로 '장모님/장인어른'을, 사위에 대한 호칭으로 '○ 서방'을 많이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20~30대 응답자들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40~50대 응답자들은 무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a의 경우, 처부모에 대한 호칭어로 '아버지/아빠', '어머니/엄마'에 대한 질문이다. 이 호칭어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연령층은 40~50대 응답자이다. 오히려 20~30대 응답자들은 어색하고, 좋지 않고, 낯설다는 의견이 많았다. 60대 이상의 응답자의 경우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는 반응과 함께 '장모님/장인어른'과 같이 존칭을 사용해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b의 경우, 사위에 대한 호칭어로 '야, 너' 등으로 부르는 것에 대한 질문이다.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이러한 호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호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도 '야, 너' 보다는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위에 대한 호칭어로 '○ 서방, 사위' 등의 호칭어가 연령대별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윗세대로 갈수록 '자네'란 호칭어로 사위를 더 존중해 주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사위를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존중의 의미를 담아 구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동일한 성씨를 가진 사람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c의 경우, 사위가 처부모를 부르는 것에 대한 질문이다. 모든 연령층에서 '장인(어른)/장모(님)'이란 호칭어가 지배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여기에 '아버님/어머님'이나 '아버지/어머니' 등의 호칭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특이하게 20~30대 응답자보다도 40~50대가 더 많이 선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d의 경우, 처부모가 사위를 부르는 호칭에 대한 질문이다. 대체적으로 '○ 서방'이 많이 쓰이고 선호도도 높은 것을 응답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사위'란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20~30대 응답자 중에는 '아들'이라고 불렸으면 좋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는 젊은 층에서 본가와 처가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아이들 이름을 따서 '○○ 아빠'로 부르거나, '자네',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도 있다.

(2) B3-지칭-a, b

> ☞ **a. 처부모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가리키는 말이 다릅니까? 왜 다르게 씁니까?**
>
> ☞ **b. 사위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가리키는 말이 다릅니까? 왜 다르게 씁니까?**

위의 질문은 처부모와 사위 사이의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대체적으로 처부모를 가리키는 지칭어로는 '장인(어른)/장모님'이 가장 많이 쓰이고, 사위를 가리키는 지칭어로는 '○ 서방'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의 경우는 사위가 처부모를 가리키는 지칭어에 대한 질문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장인(어른)/장모님'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처부'에 대해서는 '장인'과 '장인어른'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데 비해 '처모'에 대해서는 '장모님'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처부모와 사위의 친밀 관계 중 사위와 처부의 관계보다 사위와 처모의 관계가 더 친밀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대방에 따라 처부모에 대한 지칭어가 동일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20~30대 응답자의 경우 동일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40~50대 응답자는 다름과 같음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친밀 관계나 상대방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의 경우는 처부모가 사위를 가리키는 지칭어에 대한 질문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 서방, 사위'가 고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응답자 중에서는 사위의 이름을 불러도 좋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고, 60대 이상의 응답자 중에서는 사위의 이름을 직접 부른다고 답변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상대방에 따라 사위를 다르게 부르는 경우는 처부모를 상대방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경우보다 많음을 볼 수 있다. 특히 60대 이상의 응답자 중에 사위의 직함을 부르는 경우가 있음을 볼 때, 사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지위도 높아짐에 따라 대화 상황에 어울리는 지칭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심리적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3.1.4. 남편/아내에 대하여(B4/B5)

(1) B4/B5-호칭/지칭

☞ **배우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오빠', '누나', '형', '선배', '자기'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상대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떤 요인에 가장 영향을 받습니까?**
<주의> '자기'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

☞ **배우자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바깥양반/바깥사람', '안사람/집사람', '와이프' 등으로 지칭하기도 합니까? 상대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떤 요인에 가장 영향을 받습니까?**
<주의>다른 사람(부모님 또는 웃어른)과 함께 있는 경우 고려
<주의> 배우자가 나를 '바깥양반', '집사람', '안사람', '와이프' 등으로 가리키는 것을 들었을 때 불편한지 답변

위의 질문은 남편/아내에 대한 호칭·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남편/아내에 대한 호칭어와 지칭어의 수가 많고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답변이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윗세대로 갈수록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어나 지칭어 수가 줄어들면서 주변 상황이나 청자가 달라지더라도 호칭이나 지칭을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결혼생활이 지속되면서 호칭과 지칭이 특정한 것으로 고정되어 가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자기'의 사용에 대해 모든 연령층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으로 남성은 '집사람, 와이프' 등을 사용하는데 반해, 여성은 '집사람, 안사람, 와이프'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고, '아내'를 선호하였다.

남편과 아내에게 사용하는 호칭이나 지칭에 대하여 젊은 세대일수록 관심이 더 많았는데, 20~30대 응답자 중 미혼인 응답자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아내의 호칭과 지칭에 대한 질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응답하였다. 20~30대 응답자들은 '자기'란 호칭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외에도 상대방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 호칭이나 지칭을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여보, 오빠, 이름, 신랑, 남편' 등의 다양한 호칭 지칭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집사람, 안사람, 바깥양반'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였는데, 성 역할을 고정하는 것 같아 개선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그리고 '와이프'에 대해서 역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와이프'는 정이 없거나 거북하고 마치 식당에서 '웨이터'를 부르는 느낌으로 '아내'로 순화해야 할 대상으로까지 응답하였다.

40~50대 응답자는 대체로 '여보, 자기, ○○ 아빠/○○ 엄마'를 선호하며, 일부 '오빠'나 배우

자의 '이름'을 호칭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기'에 대하여 대부분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호칭과 지칭이 자연스럽게 어느 하나로 굳어지고 있었고, 젊은 세대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집사람, 안사람, 바깥사람, 와이프' 등에 대하여 불편하지 않고 괜찮다는 반응도 많았다.

60대 이상으로 가면 '여보, 당신, ○○ 아빠/○○ 엄마' 등의 호칭이나 지칭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는 부부간 호칭이나 지칭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변 상황이나 상대방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을 다르게 쓰지 않고 동일하게 쓰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바깥양반, 집사람, 안사람, 와이프'에 대하여 40~50대보다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었다.

3.3.1.5.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B6)

⑴ B6-1-호칭/지칭

☞ **형의 배우자(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예시> 형수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주의> 친족 관계에서 '아주머니' 계열이 사용되는지, 응답자가 알고 있는지 확인
☞ **형의 배우자(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 형, 자녀, 부모, 다른 사람 <예시> 형수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큰어머니(큰어머님)

위의 질문은 형의 배우자(아내)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형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와 지칭어로 모든 연령층에서 '형수님'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형의 배우자(아내)의 호칭에서 모든 연령층에서 '형수님'이라는 호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형수님'에서 '님'을 빼고 '형수'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는 두 사람의 나이가 동갑이거나 편한 상대인 경우이다. 또한 형의 배우자에 대해 '아주머니'란 호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지칭의 경우도 전 연령층에서 '형수님'을 고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큰어머니, 형수, 아주머니' 등의 지칭어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⑵ B6-2-호칭/지칭

☞ **남동생의 배우자(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예시> 제수씨(弟嫂氏), 계수씨(季嫂氏)

☞ **남동생의 배우자(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남동생, 자녀, 부모, 다른 사람
<예시>제수씨(弟嫂氏), 계수씨(季嫂氏), 작은어머니, 숙모

위의 질문은 남동생의 배우자(아내)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남동생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와 지칭어로 모든 연령층에서 '제수씨'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남동생의 배우자(아내)의 호칭에서 모든 연령층에서 '제수씨'란 호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형수님'과 마찬가지로 '제수씨'에서 '씨'을 빼고 '제수'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도 역시 두 사람의 나이가 동갑이거나 편한 상대이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지만 반대로 서로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지칭의 경우도 전 연령층에서 '제수씨'를 고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작은어머니, 작은엄마' 등의 지칭어도 사용하고 있었다.

⑶ B6-3-호칭/지칭

☞ **누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예시>매형, 자형, 매부

☞ **누나의 배우자(남편)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 누나, 자녀, 부모, 다른 사람
<예시> 매형, 자형, 매부, 고모부(님)

위의 질문은 누나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누나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와 지칭어로 모든 연령층에서 '매형'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특히 40~50대 응답자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매형'이란 호칭어와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20~30대 응답자 중에서는 '자형'이란 호칭어도 나타나고 있음에 반해, 40대 이상의 응답자 중에서는 오히려 '자형'이란 호칭어로 부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응답자에서도 '매형'으로 일관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누나의 배우자에 대한 지칭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호칭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지칭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칭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특히 자녀에게 본인의 누나의 배우자를 지칭할 때 자녀를 기준으로 한 친족 관계로 지칭함을 볼 수 있었다.

⑷ B6-4-호칭/지칭

☞ **여동생의 배우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예시> ○ 서방, 매부, 매제,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지, 이름으로 불렀을 때 문제는 없었는지 답변

☞ **여동생의 배우자(남편)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 여동생, 자녀, 부모, 다른 사람
<예시> ○ 서방, 매부, 매제, 고모부

위의 질문은 여동생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여동생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와 지칭어로 모든 연령층에서 '매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호칭의 경우, 20~30대 응답자들은 호칭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매부, ○ 서방, 매제' 등을 사용하고 있었고, 여동생의 배우자와 친분이 있으면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40~50대 응답자들 대부분이 '매제'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 서방, 매부'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매제'보다는 '제부, ○ 서방'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동생의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강한 불만[34]을 표시하였다.

지칭의 경우, '매부, ○ 서방, 매제, 제부, 고모부/이모부' 등 호칭보다 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입장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⑸ B6-5-호칭/지칭

☞ **오빠의 배우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예시> 새언니, 언니

☞ **오빠의 배우자(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 오빠, 자녀, 부모, 다른 사람
<예시> 새언니, 언니, 올케, 올케언니, 외숙모(님)

위의 질문은 오빠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오빠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와 지칭어로 모든 연령층에서 '새언니'와 '언니'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호칭의 경우, 20~30대 응답자의 경우 '언니'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40~50대 응답자의 경우 '새언니'에 대한 사용이 월등히 높이 나타났다. 결혼 시기가 대략 20~30대라 가정한다면 오히려 20~30대가 '새언니'를 사용하고, 40~50대가 '언니'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34) 이 응답자는 친족관계의 호칭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의에 상당히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와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젊은 세대에서 다른 집에서 새로 들어온 식구라고 인정하지 않고 같은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강한 의식 속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해 보았다. 60대 이상 응답자에서는 다시 '언니'란 호칭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오랜 기간을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새로움의 느낌이 떨어져서 '언니'란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지칭의 경우, 역시 호칭어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상대방의 입장에서 지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올케언니'의 경우 둘 중 하나만 사용해도 잘못된 것이 아닌데, 굳이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은 오빠의 배우자를 더 높이기 위한 인식에서 나온 지칭어로 파악해 볼 수 있다.

⑹ B6-6-호칭/지칭

☞ **남동생의 배우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예시> 올케, 이름
<주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않는지 확인

☞ **남동생의 배우자(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 남동생, 자녀, 부모, 다른 사람
<예시> 올케, 외숙모

위의 질문은 남동생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남동생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와 지칭어는 '올케'가 월등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호칭의 경우, 20~50대 응답자는 '올케'를 많이 사용하며 남동생의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름을 부르는 경우에는 본인보다 나이가 어릴 때가 대부분이었다. 20~30대 응답자 중 '○○ 씨'란 호칭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아직 서로 친하지 않은 젊은 세대에서 존중의 의미로 상대방에서 '-씨'를 붙여 부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60대 이상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없었다.

지칭의 경우, 이 역시 상대방의 입장에서 특히 자녀에게 남동생의 배우자를 지칭할 때 자녀의 기준으로 지칭하는 예들이 많았다. 그래서 '큰/작은외숙모' 등의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⑺ B6-7-호칭/지칭

☞ **언니의 배우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예시> 형부

☞ **언니의 배우자(남편)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 언니, 자녀, 부모, 다른 사람
<예시> 형부, 이모부

위의 질문은 언니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언니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와 지칭어로 모든 연령층에서 '형부'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호칭의 경우, 언니의 배우자의 호칭어로 '형부' 이외의 다른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 응답자 중에서 '동서/형님'이란 호칭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질문의 내용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남성 본인의 입장에서 호칭하여 응답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칭의 경우, '형부' 이외의 '이모부'란 지칭어들을 사용하는데, 이 또한 자녀를 중심으로 한 상대방의 기준으로 지칭하는 예이다.

(8) B6-8-호칭/지칭

☞ **여동생의 배우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예시> ○ 서방, 제부

☞ **여동생의 배우자(남편)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 여동생, 자녀, 부모, 다른 사람
<예시> ○ 서방, 제부, 이모부, 동생의 남편

위의 질문은 여동생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여동생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와 지칭어로 모든 연령층에서 '제부'가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호칭의 경우, 60대 이상은 모든 응답자가 '제부'라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20~50대 응답자들은 '○ 서방'이란 호칭어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20~30대 응답자 중에는 여동생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아는 젊은 세대의 경우 가족 호칭어가 익숙하지 않고 결혼 전부터 친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칭의 경우, 상대방 기준의 친족 관계 명칭 사용이 두드러지나, 특이하게 '동생(의) 남편'이란 지칭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20~30대와 60대 이상 응답자에서 이러한 지칭어를 사용한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자신의 여동생을 중심으로 지칭하고 있어 여동생의 배우자와 친분 관계가 약하거나 거리감을 표시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⑼ B6-9-호칭/지칭

☞ **윗동기의 배우자이나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 아랫동기의 배우자이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부릅니까? 부를 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 **윗동기의 배우자이나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 아랫동기의 배우자이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가리킵니까? 가리킬 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위의 질문은 나이와 서열이 역전된 동기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곧 윗동기의 배우자이지만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나, 아랫동기의 배우자이지만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 호칭과 지칭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 경우에 호칭어와 지칭어를 사용하는 데에 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호칭어나 지칭어 속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거나 하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와 서열이 뒤바뀐 경우에도 관계없이 전통적인 호칭과 지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호칭과 지칭의 경우, 20~30대 응답자가 40~50대 응답자보다 불편하지 않고 나이와 서열의 역전에 관계없이 상호 존중하면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나이 차이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이것은 젊은 세대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이가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히려 40~50대 응답자가 다른 연령대 응답자보다 불편함이 더 많다는 답변이 나왔다. 한편 60대 이상에서는 친척 관계에서 나이보다 서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⑽ B6-10-호칭/지칭

☞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동생', '아우', '누이', '누이동생'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동생', '아우', '누이', '누이동생'으로 가리키기도 합니까?**

위의 질문은 동생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동생', '아우', '누이', '누이동생' 등으로 부르거나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호칭과 지칭이 다르

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30대 응답자의 경우 호칭에서는 동생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지칭에서는 '동생'으로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다.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인지 호칭에서 이름 외에도 '야, 별명' 등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40~50대, 60대 이상의 응답자의 경우 '동생', '아우', '누이', '누이동생', '이름'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40~50대 응답자의 동생 지칭어는 '(누이)동생'을 지칭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60대 이상에서는 동생의 지칭으로 '동생'과 '이름'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⑾ B6-11-호칭/지칭

☞ **고모부(이모부)가 여럿일 경우 '큰고모부(이모부)', '작은고모부', '첫째고모부', '둘째고모부' 등으로 위아래나 순서를 구분하여 부르기도 합니까? 그냥 '고모부', '이모부'로 부릅니까?**
☞ **고모부(이모부)가 여럿일 경우 '큰고모부(이모부)', '작은고모부', '첫째고모부', '둘째고모부' 등으로 위아래나 순서를 구분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리키기도 합니까? 그냥 '고모부', '이모부'로 다른 사람에게 가리킵니까?**

위의 질문은 고모부/이모부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여러 명의 고모부/이모부가 있을 경우 이들을 구분해서 부르거나 가리키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구분해서 호칭과 지칭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그런데 호칭과 지칭의 경우에 차이가 있었다. 호칭에서는 고모부/이모부 당사자만 있을 경우에는 순서를 구분하는 호칭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지칭에서는 이와 관계없이 순서를 구분해서 지칭한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혼동되는 경우에 한해서 순서를 구분하여 호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순서를 구분하는 표현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첫째/둘째'보다는 '큰/작은'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20~30대 응답자 중에서는 고모부/이모부가 사는 지역 이름을 앞에 붙여서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다.

3.3.1.6.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여성 응답자용(B7)

⑴ B7-1-호칭-a, b, B7-1-지칭-a, b

☞ **a. 남편의 여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가씨'라고 부르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시>아가씨, 고모 <주의>다른 사람(부모님 또는 웃어른)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부르는지도 고려
☞ **b. 남편 여동생의 남편을 어떻게 부릅니까? '서방님'으로 부르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시>서방님, 고모부 <주의>다른 사람(부모님 또는 웃어른)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부르는지도 고려

☞ **a. 남편의 여동생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에 따라 가리키는 말을 다르게 씁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시>아가씨, 시누이, ○○ 고모 <대상>시부모, 친정부모, 웃어른, 지인, 자녀 등
☞ **b. 남편 여동생의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에 따라 가리키는 말을 다르게 씁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시>서방님, 아주버님, ○○ 고모부 <대상>시부모, 친정부모, 웃어른, 지인, 자녀 등

위의 질문은 여성 응답자용으로 남편의 여동생과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대체적으로 '아가씨, 서방님'이란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20~30대에서는 부를 말이 없어서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르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아가씨'란 호칭어는 자신이 하녀 같이 느껴지고, '서방님'이라는 호칭어는 남편과 혼동되거나 안 쓰고, 또 불평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40~50대 이상에서는 '고모/고모부' 호칭이 가장 맞는 표현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외에도 '아가씨'란 호칭은 좋지 않다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만 부른다는 답변도 나왔다. 그리고 '서방님' 역시 이상하거나 불편하다는 의견과 함께 극존칭에 대한 부담도 느낀다는 답변도 나왔다.

지칭에서는 20대~50대 응답자까지는 '아가씨, 서방님'이란 지칭을 사용하지만 60대 이상 응답자에서는 '아가씨'란 지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칭 대상이 나이가 많아진 탓으로 '아가씨'와 '서방님'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에서 멀어졌다는 인식에서 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20~30대 응답자들은 '아가씨/시누이'와 '서방님'과 같이 소수의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40~50대 응답자들은 '아가씨, 시누이, (○○) 고모', '(○○) 고모부, 도련님, 서방님' 등 다양한 지칭어를 구사하고 있었으며,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아가씨, 서방님'을 제외한 '시누이, (○○) 고모', '(○○) 고모부' 등의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 보

아 40~50대 중년의 응답자들이 다양한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B7-2-호칭-a, b, B7-2-지칭-a, b

☞ **a. 남편의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도련님'이나 '서방님'으로 부르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촌'이나 '○○ 작은아버지'로 부르면 어떨까요?**
☞ **b. 남편 남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혹시 이름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예시>동서, 작은동서 <주의>다른 사람(부모님 또는 웃어른)과 함께 있는 경우 고려

☞ **a. 남편의 남동생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에 따라 가리키는 말을 다르게 씁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시>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삼촌, 시동생, ○○ 작은아버지 <대상>시부모, 친정부모, 웃어른, 지인, 자녀 등
☞ **b. 남편 남동생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시부모, 친정부모, 웃어른, 지인, 자녀 등

위의 질문은 여성 응답자용으로 남편의 남동생과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곧 남편의 남동생과 남동생의 아내에 대하여 어떻게 부르고 가리키는가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남동생을 '도련님, 서방님', 남편의 남동생의 아내를 '동서'라고 부르고 가리키는 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호칭의 경우, 20~30대 응답자들은 '도련님'과 '동서'로 단일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40~50대 응답자의 경우 '삼촌, 작은아버지, 서방님, 도련님' 등의 호칭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가운데 '삼촌'과 '작은아버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서방님'이란 호칭어에 대하여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도련님'은 불편이 없거나 결혼 전의 호칭어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결혼 후에는 '삼촌, 작은아버지'란 호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60대 이상 응답자에서는 '삼촌, 작은아버지'를 호칭어로 많이 사용하고 '서방님'은 사용하지 않고 '도련님'은 이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로 보아 남편의 남동생에 대한 호칭어로 '삼촌, 작은아버지'를 많이 사용하고 '서방님'과 '도련님'이란 호칭어는 사용하지 않거나 몹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어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동서'란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이름'을 호칭어로 사용하는 것은 실례이거나 어렵다거나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지칭의 경우, 20~30대 응답자는 '도련님, 시동생'이라는 지칭어를 사용하고, 40~50대 응답자는 남편의 남동생이 미혼인 경우에만 '도련님'이란 지칭어를 사용하고, 결혼한 남편의 남동생에

게는 '(○○)작은아버지, 시동생'이란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주로 '삼촌'이란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역시 호칭어와 마찬가지로 40~50대 응답자들이 다양한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지칭어도 호칭어와 마찬가지로 '동서'가 모든 연령층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다른 용어로는 60대 이상 응답자만이 '작은엄마, 며느리' 등의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지칭어로 이름을 부르는 것 역시 실례라고 생각하거나 윗사람 앞에서 부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안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⑶ B7-3-호칭-a, b, B7-3-지칭-a, b

☞ **a. 남편의 누나를 어떻게 부릅니까? '언니'로 부르면 어떨까요?** <예시>형님 <주의>다른 사람(부모님 또는 웃어른)과 함께 있는 경우 고려하여 답변
☞ **b. 남편 누나의 남편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주버님'이나 '고모부' 중 어느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의>다른 사람(부모님 또는 웃어른)과 함께 있는 경우 고려하여 답변

☞ **a. 남편의 누나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에 따라 가리키는 말을 다르게 씁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시>형님, 시누이, ○○ 고모 <대상>시부모, 친정부모, 웃어른, 지인, 자녀 등
☞ **b. 남편 누나의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에 따라 가리키는 말을 다르게 씁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시>아주버님, ○○ 고모부 <대상>시부모, 친정부모, 웃어른, 지인, 자녀 등

위의 질문은 여성 응답자용으로 남편의 누나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대체적으로 남편의 누나를 '형님, 언니', '시누이, 고모' 등으로 부르거나 가리키고, 남편 누나의 배우자를 '아주버님, 고모부'로 부르거나 가리키고 있었다.

호칭의 경우, 남편의 누나에 대한 호칭어로 모든 연령층에서 '형님'이란 호칭어를 고르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20~30대 응답자는 친밀한 경우에 한해서 '언니'란 호칭어를 사용하고, 40~50대 응답자의 경우 '언니'보다 '형님'이란 호칭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언니'를 '괜찮다'고 하기보다는 '어색하거나 이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60대 이상 응답자 역시 '형님'을 선호하고 있지만, '언니, 고모' 등의 호칭어도 사용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남편 누나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로 '아주버님, 고모부'가 사용되고 있었다. 20~30대 응답자의 경우 '아주버님'만 사용하는 반면에 40대~50대 응답자들은 '고모부, 아주버님'을 모두 사용하지만 '고모부'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60대 이상에서는 '고모부'만이 사용되고 있었다.

지칭의 경우, 남편의 누나를 가리킬 때 '형님, 시누이, (○○) 고모, 언니' 등의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20~30대 응답자들은 '형님, 시누이, 고모' 등을 고르게 사용하고 있었고, 40~50대 응답자들은 '시누이, 형님, 고모, 언니' 등의 지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중에서 '시누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60대 이상 응답자는 '(○○) 고모, 형님, 언니' 등의 지칭어를 사용하였지만, 그 중 '(○○) 고모'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남편 누나의 배우자에 대한 지칭어로 주로 '아주버님, (○○) 고모부'가 사용되었는데, 20~30대 응답자는 '아주버님'을, 40~50대 응답자는 '(○○) 고모부'를, 60대 이상 응답자는 '고모부'를 가장 선호하였다. 또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40대 이상에서는 상대가 '웃어른, 지인, 자녀'인가에 따라 '○○ 고모부, 고모부'로 지칭하거나 모르는 이에게는 '제 남편 누나의 남편'이라고 구체적인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지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⑷ B7-4-호칭-a, b, B7-4-지칭-a, b

☞ **a. 남편의 형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시>아주버님
<주의>'시숙(님)'을 사용하는지 여부

☞ **b. 남편 형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어렵거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예시>형님
<주의>다른 사람(부모님 또는 웃어른)과 함께 있는 경우 고려

☞ **a. 남편의 형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주버님'과 '○○ 큰아버지' 중 어느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시>아주버님, 시아주버니, ○○ 큰아버지
<대상>부모, 웃어른, 자녀, 지인, 모르는 사람
<주의>'시숙(님)'을 사용하는지 여부

☞ **b. 남편 형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남편의 형제가 여럿일 경우 '첫째동서', '둘째동서'로 구분하거나 혹은 '큰동서', '작은동서'로 구분합니까?**
<예시>형님, 큰동서, ○○큰어머니
<대상>부모, 웃어른, 자녀, 지인, 모르는 사람

위의 질문은 여성 응답자용으로 남편의 형과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에 대한 내용이다. 대체적으로 남편의 형을 '아주버님'이라 부르거나 가리키고, 남편 형의 배우자를 '형님, 큰동서'로 부르거나 가리키고 있었다.

호칭의 경우, 20~30대 응답자는 '아주버님'의 단일 호칭어를 사용하며 '시숙'이란 호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40~50대 응답자 역시 대부분 '아주버님'을 사용하고 있었으니 일부 응답자가 '시아주버님'이란 호칭어를 사용하였다. 60대 이상 응답자도 '아주버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 명의 응답자가 '시숙님'을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남편의 형의 아내를 가리키는 호칭어로 모든 연령대 응답자가 '형님'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큰 불편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지칭의 경우, 20~30대 응답자는 '아주버님'만을 지칭어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큰 불편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40~50대 응답자는 '아주버님'이라는 지칭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시아주버님, 큰아빠, ○○큰아버지' 등의 지칭어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숙'이라는 지칭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답하였다. 60대 이상의 응답자들도 '아주버님, 시아주버님, ○○큰아버지'를 사용하였는데, 이 가운데 '아주버님'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남편의 형의 그 배우자에 대한 지칭으로 20~30대 응답자는 '형님'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40~50대 응답자는 '형님, 큰동서, ○○큰어머니' 등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중 '형님'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큰아버지'의 경우는 자식에게 설명하기 편리하여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60대 이상의 응답자는 '큰동서, 큰어머님'의 지칭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형제가 여럿일 경우 구분하여 지칭함을 알 수 있다.

3.3.1.7.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남성 응답자용(B8)

(1) B8-1-호칭-a, b, B8-1-지칭-a, b

☞ **a. 아내의 여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처제' 외에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는 내 여동생에게 '아가씨'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제' 대신 '아가씨'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 **b. 아내 여동생의 남편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시>동서, ○ 서방 <주의>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친하지 않을 경우 부르기 어려운 점은 없는지 고려하여 답변

☞ **a. 아내의 여동생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에 따라 다르게 가리켜 말합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시>처제, ○○ 이모, 이모(님), 이름 <대상>부모, 웃어른, 자녀, 지인, 모르는 사람
☞ **b. 아내 여동생의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부모, 웃어른, 자녀, 지인, 모르는 사람 <주의>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친하지 않을 경우 부르기 어려운 점은 없는지 답변

위의 질문은 남성 응답자용으로 아내의 여동생과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대체적으로 아내의 여동생을 '처제'로 부르거나 가리키고, 아내 언니의 남편을 '○ 서방, 동서'로 부르거나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칭의 경우, 모든 연령층의 응답자가 '처제'란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20~30대 경우 친해지면 '이름'을 부른다고 응답하였지만, 40~50대의 경우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갈렸고,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이름'을 부른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다. 젊은 연령일수록

이름을 호칭으로 사용하려는 인식이 강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내의 여동생을 '아가씨'로 부르는 것은 모든 연령층에서 이상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모든 연령대 응답자가 '동서, ○ 서방'을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고 있었다.

지칭의 경우, 호칭과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층의 응답자가 '처제'란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20~50대 응답자는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지칭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자녀를 기준으로 '○○이모'로 지칭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아내의 영동생의 남편에 대한 지칭어로 20~30대는 '동서, ○ 서방'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40~50대 응답자는 '동서, ○ 서방, ○○이모부' 등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60대 이상 응답자의 경우 '동서, 제부, ○ 서방, 처제남편, ○○이모부'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⑶ B8-2-호칭-a, b, B8-2-지칭-a, b

☞ **a. 아내의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처남'이나 '자네' 외에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는 내 남동생에게 '도련님', '서방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남' 대신 '도련님'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 **b. 아내 남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어렵거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예시>처남의 댁, 처남댁**

☞ **a. 아내의 남동생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에 따라 다르게 가리키는 말을 씁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시>처남, ○○ 외삼촌 <대상>부모, 웃어른, 자녀, 지인, 모르는 사람
☞ **b. 아내 남동생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처남의 댁'과 '처남댁' 중 어느 쪽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예시>처남의 댁, 처남댁 <대상>부모, 웃어른, 자녀, 지인, 모르는 사람

위의 질문은 남성 응답자용으로 아내의 남동생과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대체적으로 아내의 남동생을 '처남'으로 부르거나 가리키고 있다고 나타났다.

호칭의 경우, 아내의 남동생을 부르는 호칭어로 '처남'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의 남동생을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에 대해서도 모든 연령층에서 괜찮다고 하는 경우와 이상하고 좋지 않다고 한 경우로 나뉘었다. 그리고 아내의 남동생을 남편의 남동생을 부르는 호칭어인 '도련님'이나 '서방님'으로 부르는 것에는 이상하고 생소하고 어색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아내의 남동생의 아내를 부르는 호칭어로 모든 연령층에서 '처남댁'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불편하지 않다'와 '불편하다'의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지칭의 경우, 호칭의 경우와 유사한 응답이 나왔다. 다만 아내의 남동생을 대상에 따라 다르게

가리키는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대상과 관계없이 '처남'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아내의 남동생의 아내를 가리킬 때 대상에 따라 다르게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곧 자녀에게는 '○○숙모'로 지칭하고 그 외에는 '처남댁' 등으로 지칭하고 있다.

⑷ B8-3-호칭-a, b, B8-3-지칭-a, b

☞ **a. 아내의 언니를 어떻게 부릅니까? '처형'을 '처형님'으로 부르거나 (아내의 오빠를 부르는 것처럼) '형님'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 **b. 아내 언니의 남편을 어떻게 부릅니까? '형님' 대신 '동서'로 부르기도 합니까? '동서'로 부른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응답자와 상대방의 나이/ 다른 사람(부모님 또는 웃어른)과 함께 있는 경우 고려 <표준>아내 언니의 남편은 '형님', 단 나이가 나보다 적으면 '동서'

☞ **a. 아내의 언니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에 따라 가리키는 말을 다르게 씁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시>처형, ○○ 이모 <대상>부모, 웃어른, 자녀, 지인, 모르는 사람
☞ **b. 아내 언니의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에 따라 가리키는 말을 다르게 씁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시>형님, ○○ 이모부 <대상>부모, 웃어른, 자녀, 지인, 모르는 사람

위의 질문은 남성 응답자용으로 아내의 언니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대체로 아내의 언니를 '처형'으로 부르거나 가리키고, 그녀의 남편을 '형님'으로 부르거나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칭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아내의 언니를 '처형'으로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의 언니를 '처형님, 형님'으로 부르는 것에 대하여 혼동되고 이상하고 익숙하지 않으며 거북하다고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내 언니의 남편을 모든 연령층에서 '형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일부 '동서'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 '동서'로 부르는 것은 다 같은 사위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지칭의 경우, 역시 호칭과 대부분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20~50대 응답자 중에는 대상에 따라 '처형, 이모, ○○처형'처럼 다른 호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내 언니의 남편을 가리키는 경우도 호칭어와 유사한데, 이 역시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곧 '형님, 동서, 이모부, ○○형님'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자녀나 상대방 기준에 따른 관계를 표시하는 지칭어라 할 수 있다.

(7) B8-4-호칭-a, b, B8-4-지칭-a, b

☞ **a. 아내의 오빠를 어떻게 부릅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친하지 않을 때 '형님'으로 부르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시>형님
☞ **b. 아내 오빠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예시>아주머니

☞ **a. 아내의 오빠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어렵거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예시>형님, ○○ 외삼촌, 외숙부 <대상>부모, 웃어른, 자녀, 지인, 모르는 사람
☞ **b. 아내 오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어렵거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예시>처남의 댁, 처남댁 <대상>부모, 웃어른, 자녀, 지인, 모르는 사람

위의 질문은 남성 응답자용으로 아내의 오빠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대체적으로 아내의 오빠를 '형님'으로 부르거나 가리키고, 그의 아내를 '아주머니, 처남댁' 등으로 부르거나 가리킨다고 나타났다.

호칭의 경우, 아내의 오빠를 부르는 호칭어로 모든 연령층에서 '형님'으로 부르고 있었다. 나이가 어리거나 친하지 않은 아내의 오빠를 '형님'으로 부를 때 모든 연령층에서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친족 관계의 서열보다 나이가 호칭의 선 기준이 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내 오빠의 아내를 부를 때 20~30대 응답자는 '아주머니'라는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40~50대 응답자는 '아주머니, 처남댁'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 가운데에서 대부분은 '아주머니'를 사용하고 소수 응답자가 '처남댁'을 사용하고 있었다. 60대 이상 응답자도 '아주머니, 처형'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한 명의 응답자만이 '처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처형(妻兄)'의 의미를 잘못 알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칭의 경우, 아내의 오빠를 가리키는 지칭어로 '형님'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손위처남, ○○외삼촌, 처남, 아내의 오빠' 등의 지칭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 응답자는 '형님, 아내의 오빠, 손위처남'의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고, 40~50대 응답자는 '형님, 손위처남, ○○외삼촌, 처남'의 지칭어를 사용하였으며, 60대 이상 응답자는 '형님, ○○외삼촌'의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젊은 층에서 '○○외삼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직 자녀가 없거나 어려 자녀 이름을 지칭어로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인 듯하다. 또한 아내 오빠의 아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지칭어는 20~30대 응답자는 '아주머니, 손위처남댁'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40~50대 응답자는 '처남댁, 손위처남댁, 처남의 댁'이란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60대 이상 응답자는 '처남댁'이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에서 젊은 층에서만 '처남댁' 대신에 '손위처남댁'이란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내 오빠의 아내와의 관계가 그리 친하기 쉽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3.3.1.8. 조부모와 손주 사이(B9)

⑴ B9-1-호칭, 지칭, 지칭-a, b

☞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어떻게 부릅니까? 외조부모도 '할아버지', '할머니'로 부르면 어떨까요?**

☞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외조부모도 '할아버지', '할머니'로 가리켜 말합니까?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 할머니'로 부른다고 할 때 지역 외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주의>지역 이름을 넣어서 '안양할머니' 등으로 지칭하는지, 아파트 이름을 넣어서 '래미안 할머니', 직업에 따라 '교수 할머니' 등 무엇을 쓰는지 답변

☞ **a. [남자]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처가 쪽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 **b. [여자]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시가 쪽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여자는 '친정 할아버지'를 남자는 '할아버지'를 쓰는 것이 표준으로 되어 있음. 남자에는 '친정'에 대응하는 말이 없음.

위의 질문은 조부모와 외조부모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대체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할아버지/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외할머니'로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조부모를 '할아버지/할머니'로 부르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다만 60대 이상 응답자 중 한 명의 응답자만이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구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지칭의 경우, 호칭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대에서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할아버지/할머니', '외할아버지/외할머니'로 지칭하고 있었다.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구분해야 할 때에는 '친:외', '지역명', '○○○(이름)' 등을 붙여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누구인지 혼동되기 때문에 단지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남자는 처가에, 여자는 시가에 어떻게 가리키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공통적으로 '할아버지/할머니', '외할아버지/외할머니'로 가리키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 남자 응답자의 경우 처가에 그냥 '할아버지/할머니', '외할아버지/외할머니'라고 지칭하는 데 비해, 40~50대 여자 응답자는 '친, 친정'을 붙여 지칭하여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구분한다고 응답하였다.

⑵ B9-2/3-호칭/지칭

☞ **자녀(아들, 딸)가 나의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어떻게 부릅니까?** <주의> 명확한 호칭어가 없음
☞ **자녀(아들, 딸)가 나의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등이 표준이고 '증조(曾祖)-친가', '진외(陳外)-외가' 등을 추가 <주의>'증조', '진외', '외외' 등을 알고 있는지 또는 사용하는지 답변

위의 질문은 자녀가 나의 조부모와 외조부모에 대해 부르거나 가리키는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대체적으로 20~30대 응답자는 '할아버지/할머니', '외할아버지/외할머니', '증조할아버지/할머니'라고 혼용해서 부르고, 40대 이상 응답자는 친가 쪽 '할아버지/할머니'에 대해서는 '증조', '왕'을 붙여 부르는데 비해, 외가 쪽 '할아버지/할머니'에 대해서는 그냥 '외할아버지/외할머니'로 부르고 있었다.

지칭의 경우, 대체로 호칭어와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외가 쪽 '할아버지/할머니'에 대해 '진외(陳外)'를 붙이는 것을 모르거나 처음 들어 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⑶ B9-4-호칭-a, b, B9-4-지칭-a, b

☞ **a. 며느리가 시조부모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할아버님, 할머님/할머니
☞ **b. 시조부모가 손주며느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가'나 이름, '○○의 처' 중 무엇으로 부르는 것이 좋을까요?**

☞ **a. 며느리가 시조부모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시할아버지/시할머니, 시조부님/시조모님, 시조부/시조모, ○○(자녀) 증조할아버지/증조할머니
☞ **b. 시조부모가 손주며느리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가'나 이름, '○○의 처' 중 무엇으로 가리켜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위의 질문은 며느리가 시조부모에 대한 호칭과 지칭, 시조부모가 손주며느리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모든 연령대의 답변을 보면 며느리가 시조부모를 '할아버님/할머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60대 이상 응답자 중 '시할아버님/시할머니'로 부르는 경우가 하나 있었다.

또한 시조부모가 손주며느리를 다양한 호칭어로 부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가'를 가장 많이 호칭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가' 이외의 호칭어로는 '손주며느리, ○○의 처, ○○색시, ○○어미(에미, 애미)야, 이름' 등이 나타났다.

지칭의 경우, 며느리가 시조부모를 가리키는 지칭어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곧 '할아버님/할머님, '할아버님/할머니, 시할아버님/시할머님, 증조할아버지/증조할머니'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⑷ B9-5-호칭-a, b, B9-5-지칭-a, b

☞ **a. 며느리가 시외조부모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할아버님/외할아버님, 할머님/외할머님/할머니/외할머니
☞ **b. 시외조부모가 외손주며느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가'나 이름, '○○의 처' 중 무엇으로 부르는 것이 좋을까요?**

☞ **a. 며느리가 시외조부모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시할아버지/시할머니, 시조부님/시조모님, 시조부/시조모, ○○(자녀) 증조할아버지/증조할머니
☞ **b. 시외조부모가 외손주며느리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가'나 이름, '○○의 처' 중 가리켜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위의 질문은 며느리가 시외조부모에 대한 호칭과 지칭, 시외조부모가 외손주며느리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며느리가 시외조부모를 다양한 호칭어를 사용하여 부르고 있었다. 곧 '할아버님/할머님', '할아버님/할머니', '할아버지-할머니', '외할아버지-외할머니', '외할아버님-외할머니' 등인데, 어느 하나의 호칭어 사용이 우세하다고 볼 수 없이 다양한 호칭어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할아버님/할머니, 외할아버님/외할머니'와 같이 '할아버지'에 대하여는 '할아버님, 외할아버님'이라고 높여 부르는데 반해, '할머니'에 대하여는 '할머니, 외할머니'라고 평칭으로 부르고 있다. 또한 시외조부모가 외손주며느리를 부를 때에도 다양한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곧 '새아가, 아가, 이름, ○○의 처, 손주며느리, 외손주며느리'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아가'란 호칭어가 다른 호칭어에 비해 다소 많이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지칭의 경우, 며느리가 시외조부모를 다양한 지칭어를 사용하여 부르고 있었다. '외할아버지/외할머니, 시외할아버님-시외할머님, 시할아버님-시할머님, 시할아버지-시할머니, 시할아버님-시할머니, 증조할아버님-증조할머니'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60대 이상 응답자 6명 중 1명의 무응답자를 제외하면 5명의 응답자가 모두 다르게 가리키고 있었다. 이 여러 지칭어 중 '시할

아버지/시할머니'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외조부모가 외손주며느리를 가리킬 때에도 호칭어와 비슷한 어휘를 사용하여 가리키고 있었다. 곧 '새아가, 아가, 이름, ○○의 처, 손주며느리, 외손주며느리'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아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5) B9-6-호칭-a, b, B9-6-지칭-a, b

☞ **a. 사위가 처조부모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할아버님, 할머님
☞ **b. 처조부모가 손주사위를 어떻게 부릅니까? 이름으로 부르거나 '○ 서방'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 **a. 사위가 처조부모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할아버님/할머님, 처조부님/처조모님, 처조부/처조모, ○○(자녀) 외증조할아버(님)/외증조할머님, ○○ 외증조부(님)/외증조모님
☞ **b. 처조부모가 손주사위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 서방'이나 '○○(손녀 이름) 남편'으로 가리켜 말하면 어떨까요?**

위의 질문은 사위가 처조부모에 대한 호칭과 지칭, 처조부모가 손주사위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사위가 처조부모를 부를 때 주로 '할아버지/할머니, 할아버님/할머님'을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서 높임을 나타내는 '할아버님/할머님'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처조부모가 손주사위를 부를 때에는 '손주사위, ○ 서방, 자네, 이름' 등으로 부르고 있었다. 이 가운데 '○ 서방'이란 호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지칭의 경우, 사위가 처조부모를 가리킬 때 다양한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곧 '할아버지/할머니, 할아버님/할머님, 처할아버님/처할머님, 처조부님/처조모님' 등이다. 이 중에서 '할아버지/할머니, 할아버님/할머님'을 지칭어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처조부모가 손주사위를 가리킬 때 호칭어보다 더욱 다양한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곧 '이름, 손녀사위, ○○(손녀 이름)남편, ○○(손녀 이름) 서방, ○○(손녀 이름), ○ 서방, ○○의 남편' 등이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세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사용되고 있었다. 특이할 점은 손녀 이름만으로도 손주사위를 가리키고, 손녀 이름을 앞에 붙여 지칭어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손주사위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손녀의 이름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⑹ B9-7-호칭-a, b, B9-7-지칭-a, b

☞ **a. 사위가 처외조부모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할아버님/외할아버님, 할머님/외할머님/할머니/외할머니
☞ **b. 처외조부모가 외손주사위를 어떻게 부릅니까? 이름으로 부르거나 '○ 서방'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 **a. 사위가 처외조부모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할아버님/할머님, 외할아버님/외할머님, 처외조부(님)/처외조모(님) <주의> '○○(자녀) 외외증조할어버지/외외증조부', '○○(자녀) 외외증조할머니/외외증조모'를 쓸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사용 여부 확인
☞ **b. 처외조부모가 외손주사위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 서방'이나 '○○(손녀 이름) 남편'으로 가리켜 말하면 어떨까요?**

위의 질문은 사위가 처외조부모에 대한 호칭과 지칭, 처외조부모가 외손주사위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사위가 처외조부모를 부를 때 '할아버지/할머니, 할아버님/할머님, 외할아버님/외할머님'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세 호칭어가 모든 연령층의 응답자들이 고르게 사용하고 있었다. 처외조부모가 외손주사위를 부를 때에는 '○ 서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자네, 손주사위, 외손주사위, 이름, 손주 이름' 등의 호칭어를 사용하였다.

지칭의 경우, 사위가 처외조부모를 가리키는 지칭어로 '할아버지/할머니, 할아버님/할머님, 외할아버님/외할머님' 외에도 '처외조부님/처외조모님, 처외할아버님/처외할머님, 아내의 외할머니' 등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자녀) 외외증조할어버지/외외증조부', '○○(자녀) 외외증조할머니/외외증조모'란 지칭어는 대부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처외조부모가 외손주사위를 가리킬 때에도 다양한 지칭어를 사용하였는데, '○ 서방'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자네, ○○(손녀 이름)남편, 2손주사위, 외손주사위, 손녀 이름' 등이 지칭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 서방'이나 '○○(손녀 이름)남편'을 지칭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 지칭어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⑺ B9-8-호칭/지칭, B9-9-호칭/지칭

☞ **손주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이름, ○○(손주의 자녀) 아범/아비, ○○(손주의 자녀) 어멈/어미 <주의> 여러 손주가 있을 때 '첫째야', '둘째야', '막내야' 할 수 있는지 답변
☞ **손주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손주들과 구분해야 할 때는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표준>이름, 손자, 손녀 <예시> 둘째네 큰애, 안양 막내 등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

☞ **외손주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이름, ○○(외손주의 자녀) 아범/아비, ○○(외손주의 자녀) 어멈/어미
<주의> 여러 손주가 있을 때 '첫째야', '둘째야', '막내야' 할 수 있는지 답변

☞ **외손주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이름, 외손자, 외손녀
<주의> 둘째네 큰애, 안양 막내 등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

위의 질문은 손주와 외손주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대체적으로 손주와 외손주를 구분하지 않고 '이름'으로 부르거나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호칭의 경우, 특히 손주와 외손주를 부르는 호칭어로는 모든 연령층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름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름 외에 '손자, 첫째야'처럼 손주와 외손주를 구분하지 않고 부르는 호칭어를 사용한다거나 나이 순서로 손주와 외손주를 구분하지 않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

지칭의 경우, 호칭어와 크게 다르지 않게 손주와 외손주의 '이름'으로 지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도 '손자/손녀, ○○(자식이름)첫째딸(아들), 둘째네 큰애, 외손주'와 같이 가리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기 위한 방편이라 생각된다. 특이점은 40대 이상 응답자 중에서 호칭에서는 손주와 외손주를 구별하지 않음에 비해, 지칭에서는 손주와 외손주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는데, 이 역시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 구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3.3.1.9. 숙질 사이(B10)

(1) B10-1-호칭/지칭, B10-2-호칭/지칭

☞ **아버지의 형을 어떻게 부릅니까? '큰아버지' 대신 '큰아빠'를 쓰기도 합니까? 어린아이라면 또는 내 자녀가 나의 형에게 '큰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 **아버지의 형을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백부(伯父)'(맏형만 해당)나 '종조(從祖)'(종조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남자형제)를 알고 사용하는지 답변
<주의> 첫째, 둘째 등 순서를 붙여 사용하는지 답변
<대상> 부모님, 웃어른, 당사자, 자녀, 당사자의 자녀, 다른 사람

☞ **아버지 형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큰어머니' 대신 '큰엄마'를 쓰기도 합니까? 어린아이라면 또는 내 자녀가 나의 형에게 '큰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 **아버지 형의 아내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백모(伯母)'(맏형의 아내), '종조(從祖)'(종조할머니: 종조할아버지의 아내)를 쓰고 있는지 확인
<주의> 첫째, 둘째 등 순서를 붙이는지 확인
<대상> 부모님, 웃어른, 당사자, 자녀, 당사자의 자녀, 다른 사람

위의 질문은 아버지의 형과 그의 아내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대체적으로 '큰아버지, 큰아빠', '큰어머니, 큰엄마'로 부르거나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칭의 경우, 아버지의 형을 부르는 호칭어로 '큰아버지, 큰아빠'가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 '큰아버지'를 호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큰아빠'는 어릴 때나 친밀할 때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백부(伯父)'의 경우 알고는 있지만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답변과 '종조(從祖)'의 경우 대부분 모른다는 답변이 나왔다. 또한 아버지 형의 아내를 부르는 호칭어로 '큰어머니, 큰엄마'가 사용되었는데, 두 호칭어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20~30대 응답자는 '큰어머니'와 '큰엄마'를 사용하는 비율이 비슷하였는데, 40대 이상의 응답자는 '큰어머니'가 '큰엄마'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백모(伯母)' 역시 일부 일고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종조(從祖)'의 경우는 아예 모른다는 답변이 많았다.

지칭의 경우, 아버지의 형을 가리킬 때 '큰아버지, 큰아빠, 백부'가 사용되고 있었다. 20~30대 응답자의 경우 '큰아버지, 큰아빠'만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40~50대 응답자의 경우 '큰아버지'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큰아빠'보다 오히려 '백부(伯父)'가 오히려 더 많이 사용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버지 형의 아내를 가리킬 때 '큰어머니, 큰어머님, 큰엄마, 백모'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역시 '큰아버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백모(伯母)' 역시 40대 이상의 응답자 중에서 일부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큰아버지, 큰엄마'앞에 '지역명'이나 '순서' 등을 붙여 지칭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⑵ B10-3-호칭/지칭, B10-4-호칭/지칭

☞ **아버지의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작은아버지' 대신 '작은아빠'를 쓰기도 합니까? '삼촌'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기혼/미혼 여부에 상관 없이 '작은아버지, 아저씨, 삼촌'

☞ **아버지의 남동생을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숙부', '종조(從祖)'를 쓰고 있는지 확인
<대상> 부모님, 웃어른, 당사자, 자녀, 당사자의 자녀, 다른 사람

☞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작은어머니' 대신 '작은엄마'를 쓰기도 합니까? '숙모'로 부르기도 합니까?**

☞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숙모', '종조(從祖)'를 쓰고 있는지 확인
<대상> 부모님, 웃어른, 당사자, 자녀, 당사자의 자녀, 다른 사람

위의 질문은 아버지의 남동생과 그의 아내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아버지의 남동생을 부를 때 '작은아버지, 작은아빠, 삼촌' 등의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20~30대 응답자는 '작은아빠'가 가장 많았고, '작은아버지', '삼촌'의 순이지만 그 차이가 미미하였고, '삼촌'은 미혼인 경우에만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40~50대 응답자는 대부분 '작은아버지'를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 '삼촌'을 사용하였고 '작은아빠'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60대 이상 응답자는 '작은아버지'와 '삼촌'을 동수로 사용하고 있었고 '작은아빠'는 한 명의 응답자만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작은어머니, 작은엄마, 숙모'란 호칭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연령대별 사용 양상은 호칭어와 거의 동일하였다. '종조(從祖)'란 지칭어는 알지도 못하고 사용한 적도 없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지칭의 경우, 호칭어 사용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아버지의 남동생을 가리킬 때에 '작은아버지, 작은아빠, 삼촌'의 지칭어가 사용되었다. 모든 연령층에서 대체로 '작은아버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칭어였다. 20~30대 응답자는 '작은아버지', '작은아빠', '삼촌' 순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 역시 미미하다. 40~50대 응답자는 '작은아버지'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였고, 다음으로 '삼촌'을 지칭어로 많이 사용하였고, '작은아빠'는 한 명의 응답자만이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60대 이상 응답자는 '작은아버지'와 '삼촌'을 동수로 사용하고 있었고 '작은아빠'는 한 명의 응답자만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를 가리킬 때 '작은어머니, 작은엄마, 숙모'란 지칭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연령대별 사용 양상은 호칭어와 거의 동일하였다. '종조(從祖)'란 지칭어는 알지도 못하고 사용한 적도 없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⑶ B10-5-호칭/지칭, B10-6-호칭/지칭

☞ **아버지의 누이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 고모, 아주머니
☞ **아버지 누이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자녀의 위치에서 '대고모(님)', '왕고모(님)', '고모할머니(님)' <대상> 부모님, 웃어른, 당사자, 자녀, 당사자의 자녀, 다른 사람

☞ **아버지 누이의 남편을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 고모부, 아저씨
☞ **아버지 누이의 남편을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고숙'이라는 지칭을 쓰는지 확인 <대상> 부모님, 웃어른, 당사자, 자녀, 당사자의 자녀, 다른 사람

위의 질문은 아버지의 누이와 그의 남편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아버지의 누이를 부를 때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고모'란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에 순서를 나타내거나 지역명을 붙여 사용하고 있었다. 아버지 누이의 남편을 부를 때에도 모든 연령대에서 '고모부'란 호칭어를 사용하며, '고모'와 마찬가지로 순서나 지역명을 붙여

사용하고 있었다.

지칭의 경우, 호칭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고모'란 지칭어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아버지의 누이를 가리키는 지칭어로 '대고모, 왕고모'는 사용하지 않으나 '고모할머니'는 자녀 입장에서 사용한다고 40~50대 응답자들이 응답하였다. 또한 아버지 누이의 남편을 가리키는 지칭어도 호칭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고모부'만이 사용되고 있었다. '고숙'이란 지칭은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답하였다.

⑷B10-7-호칭/지칭, B10-8-호칭/지칭

☞ **어머니의 자매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이모, 아주머니**
☞ **어머니의 자매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 당사자, 자녀, 당사자의 자녀, 다른 사람

☞ **어머니 자매의 남편을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이모부, 아저씨
☞ **어머니 자매의 남편을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이숙'이라는 지칭을 알고 사용하는지 답변 <대상> 당사자, 자녀, 당사자의 자녀, 다른 사람

위의 질문은 어머니의 자매와 그녀의 남편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어머니의 자매를 부를 때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이모'란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60대 이상 응답자 중에 높임을 표현하기 위해 '이모님'도 사용한다고 하였다. 어머니 자매의 남편을 부를 때에도 모든 연령대에서 '이모부'란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지칭의 경우, 어머니의 자매를 가리킬 때에는 호칭할 때와 다르게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이모'를 중심으로 이모 이름이나, 자녀의 이름 등을 붙여 사용하였다. 곧 '이모, 이름+이모, 자녀이름+이모'란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 자매의 남편을 가리키는 지칭어도 호칭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모부'만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숙'이란 지칭은 거의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답하였다.

⑸ B10-9-호칭/지칭, B10-10-호칭/지칭

☞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외삼촌, 아저씨
☞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진외(陳外)'를 지칭을 알고 사용하는지 답변 (진외종조부, 진외할아버님 등)
<대상> 당사자, 자녀, 당사자의 자녀, 다른 사람

☞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외숙모, 아주머니
☞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진외(陳外)'를 지칭을 알고 사용하는지 답변 (진외종조모, 진외할머님 등)
<대상> 당사자, 자녀, 당사자의 자녀, 다른 사람

위의 질문은 어머니의 남자 형제와 그의 아내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부를 때 거의 '외삼촌'이란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20~30대 응답자의 경우가 다양한 호칭어를 사용하였는데, '외삼촌, 삼촌, ○○ 삼촌, 이름' 등을 사용하였는데, 이중 대부분 '외삼촌'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삼촌'을 사용하였으며' ○○ 삼촌'과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극소수였다. 40대 이상 응답자는 거의 대부분 '외삼촌'을 사용하였는데, 60대 이상 응답자 중 한 명은 '삼촌'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를 부를 때도 거의 '외숙모'를 사용하고 있었다. 20~30대 응답자만이 '외숙모'와 '숙모'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외숙모'가 월등히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지칭의 경우, 어머니 남자 형제를 가리킬 때도 호칭어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외삼촌', '삼촌', '이름' 순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외(陳外)'란 지칭은 거의 모른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를 가리킬 때도 호칭어 사용 양상과 동일하여 '외숙모'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였다. '진외(陳外)'란 지칭 역시 모른다는 응답이었다.

⑹ B10-11-호칭/지칭, B10-12-호칭/지칭

☞ **남자 조카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 이름(나이가 어릴 때), 조가(님)(성인), ○○ 아범(결혼 후)
☞ **남자 조카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생질(甥姪, 누이의 아들, 남편 누이의 아들), 이질(姨姪, 자매의 아들, 아내 자매의 아들), 처조카(아내의 조카) 등을 알고 사용하는지 답변

☞ **남자 조카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아가, 새아가, ○○ 어멈, 질부(姪婦), 생질부(甥姪婦), 이질부(姨姪婦)
☞ **남자 조카의 아내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 호칭 + 조카며느리, 처조카며느리, 처질부, 처이질부

위의 질문은 남자 조카와 그의 아내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남자 조카를 부를 때 모든 연령층에서 대부분 '이름'을 호칭어로 사용하고 있었다. 40~50대 응답자의 경우는 '이름, 조카, 조카님, ○○ 아빠, ○○ 아범' 등의 호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 '이름'을 사용한다고 답하였고, 남자 조카가 결혼 후에는 '조카님'을 결혼 후 자식을 낳으면 '○○ 아범'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60대 이상 응답자는 '이름'을 대부분 사용하고 '조카'라는 호칭어도 한 명이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남자 조카의 아내를 부를 때는 '조카며느리, 질부, 이름, 아가, ○○ 어멈, ○○ 엄마, 생질' 등 여러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20~30대 응답자는 '이름, 조카며느리, 질부'를 사용하며 이 중에서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40~50대 응답자는 '아가, 이름, 질부, ○○ 어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질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60대 이상 응답자는 '질부, ○○ 엄마, 아가, 생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질부'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남자 조카의 아내를 부를 때 젊은층에서는 주로 이름을 부르고, 중년층 이상에서는 이름 대신에 '질부'란 호칭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칭의 경우, 남자 조카를 가리킬 때에는 여러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곧 '조카, 이름, 형네아들, 생질, 이질, ○○ 아범, ○○의 아들' 등이다. 20~30대 응답자는 주로 '이름'을 지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40~50대 응답자는 '조카'란 지칭어를 사용하며, 60대 이상 응답자는 '생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질(甥姪), 이질(姨姪)' 등의 지칭어는 20~30대 응답자는 대부분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나, 40대 이상 응답자들은 이 지칭어들을 알고 직접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자 조카의 아내를 가리키는 지칭어로 '조카며느리, 이름, 질부, ○○ 어멈, 조카의 처'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20~30대 응답자는 '조카며느리'를, 40대 이상 응답자들은 '질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 나머지 사용 양상은 남자 조카의 지칭어 사용 양상과 동일하다.

(7) B10-13-호칭/지칭, B10-14-호칭/지칭

☞ **여자 조카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이름, 조카(님), ○○ 어멈

☞ **여자 조카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 호칭 + 조카딸, 질녀(姪女), 생질녀(甥姪女), 이질녀(姨姪女), 처조카, 처조카딸, 처이질녀(妻姨姪女)

☞ **여자 조카의 남편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름을 부르거나 여자 조카의 이름으로 부르거나 혹은 '조카사위'라고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 ○ 서방, ○○ 아범, ○○ 아비

☞ **여자 조카의 남편을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 남편', '○○네 사위' 등 관계를 활용하여 가리키기도 합니까?**
<표준> 호칭 + 조카사위, 질서(姪壻), 생질서(甥姪壻), 이질서(姨姪婿), 처조카사위, 처질서(妻姪壻), 처이질서(妻姨姪婿)

위의 질문은 여자 조카와 그녀의 남편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여자 조카를 부를 때 모든 연령대의 응답자들이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외에 '조카(님), ○○ 엄마'란 호칭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호칭어들은 여자 조카가 결혼 후에 사용하는 호칭어들로 파악된다. 또한 여자 조카의 남편을 부를 때 다양한 호칭어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곧 '이름, ○ 서방, 조카사위, ○○ 남편, ○○ 아범, ○○ 아빠' 등인데, 이 가운데에서 4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 서방'과 '조카사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지칭의 경우, 여자 조카를 가리키는 지칭어로 '이름, 조카, 처조카, 조카딸, 이질녀'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에서 모든 응답자들은 '이름'과 '조카딸', '조카'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질녀(姨姪女)'에 대하여 60대 이상의 응답자 중 일부가 알고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자 조카의 남편을 가리킬 때에도 호칭어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젊은층 응답자는 '조카사위'를, 40대 이상의 응답자는 '조카사위'와 '○ 서방'을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는데, '○○네 사위'란 지칭어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3.1.10. 사촌 사이(B11)

(1) B11-호칭, B11-지칭

☞ **a. 남자 사촌을 어떻게 부릅니까?**

☞ **b. 여자 사촌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의>응답자와 상대방의 나이/ 다른 사람(부모님 또는 웃어른)과 함께 있는 경우 고려하여 답변

☞ **a. 남자 사촌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 **b. 여자 사촌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위의 질문은 남자 사촌과 여자 사촌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이 질문은 면담 과정에서 질문을 수정하였다. 왜냐하면 사촌에 대한 호칭은 남자 여자의 구분보다는 손위 사촌과 손아래 사촌으로 구분하여 질문하는 것이 결과 산출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호칭의 경우, 20~30대 응답자는 손위 사촌을 부르는 호칭어로 '형(오빠), 누나(언니), 이름+형(오빠), 이름+누나(언니)'를 사용하고 있었고, 손아래 사촌을 부르는 호칭어로 '이름'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 응답자는 손위 사촌을 부르는 호칭어로 '형(오빠), 형님, 누나(언니), 이름+형(오빠), 이름+누나(언니)'을 사용하고, 손아래 사촌은 '이름', 동생, '○○ 아범(어멈)'을 사용하였다.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차이는 손위 사촌 호칭어로 '형님'이 추가되었고, 손아래 사촌 호칭어로는 '동생, ○○ 아범(어멈)'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칭의 경우, 20~30대 응답자는 손위 사촌을 가리키는 지칭어로 '형(오빠), 누나(언니), 사촌형(오빠), 사촌누나(언니), ○○ 형(오빠), ○○ 누나(언니), 이름+형(오빠), 이름+누나(언니)' 등이 사용되었고, 손아래 사촌을 가리키는 지칭어로 '이름, 사촌동생'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손위와 손아래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지칭어로 '사촌, 큰(작은)아빠네아들(딸)'이 사용되었다. 40대 이상 응답자는 손위 사촌을 가리키는 지칭어로 '사촌형(오빠), 사촌누나(언니)' 등이 사용되었고, 손아래 사촌을 가리키는 지칭어로 '이름, 사촌동생, ○○ 아범(어멈)' 등이 사용되었다. 60대 이상 응답자 중에 '사촌누이'를 사용하여 손위 여자 사촌을 가리키는 지칭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손위와 손아래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지칭어로 '사촌, 사촌형제, ○○의 첫째아들(딸)' 등이 사용되었다.

3.3.1.11. 사돈 사이(B12)

(1) B12-호칭, B12-지칭

☞ **a. 사돈 중 남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 **b. 사돈 중 여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주의>'밭사돈', '바깥사돈', '안사돈' 등을 쓰는지 구분 없이 '사돈(어른)'을 쓰는지 답변 <주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부르는지 답변

☞ **a. 사돈 중 남자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 **b. 사돈 중 여자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아들/딸 또는 사위/며느리, 지인, 모르는 사람 등) 다양하게 제시 <대상> 당사자, 자녀, 당사자의 자녀, 다른 사람

위의 질문은 사돈 중 남자와 여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사돈 중 남자를 부르는 호칭어로 모든 응답자사 '사돈, 바깥사돈, 사돈어른, 사돈총각'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돈 중 여자를 부르는 호칭어로 '사돈, 안사돈, 사돈어른, 사돈처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사돈, 사돈어른'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는 중립적인 호칭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지칭의 경우, 호칭어와 거의 동일한 사용 양상을 보였다.

3.3.1.12. 그 밖의 것

☞ **a. 사촌 사이 나이**
사촌 관계 중 나이가 동갑이지만 부모가 형 동생의 관계라면 자녀들도 형 동생으로 나눠 불러야 할까요?(한 달이라도 빠르면 사촌 관계까지는 형 동생을 나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동갑이니 서로 이름을 불러도 될까요? 각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정하면 될까요?

☞ **b. 배우자의 집안**
'시댁'과 견주어 '처가'라고 부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시집-시가-시댁'과 같이 '처집-처가-처가댁' 등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주의>시댁: 남편 본가, 부모님댁, 남편 집, 시집
처가: 아내 본가, 부모님댁, 아내 집, 처댁

☞ **c. 일부 어휘에 대한 태도**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을 사용하는 것이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전통적인 말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현재 사용하지 않는 말이니 다른 말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위의 질문은 가족관계에서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한 내용 중 기타 내용에 대한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사촌 사이의 출생 순서에 따라 형과 동생을 구분해야 하는 호칭의 문제를 묻는 내용이다. 20~30대 응답자는 한 달이라도 빨리 출생하면 형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이름을 불러도 된다는 의견이 월등히 우세하며, 가족 내 분위기에 따르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40~60대 이상 응답자는 형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과 이름을 불러도 된다는 의견, 그리고 가족 내 분위기에 따른다는 의견이 비슷하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같은 나이면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중장년 세대로 갈수록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평등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풍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시댁'과 '친가'의 비대칭 표현을 대칭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표현하자는 내용이다. 곧 '시집-시가-시댁'처럼 '처집-처가-처댁'으로 부르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이다. 대체적으로 모든 연령층의 응답자들이 시대 흐름에 맞게 고치는 것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 '시집-처집'의 경우를 제외한 '시가-처가, 시댁-처댁'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이었고, '처댁'보다

는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처가댁'처럼 '시댁'을 '시가댁'으로 부르자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질문은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전통적인 표현으로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말로 바꿔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이었다. 20~30대 응답자 12명 중에 차별적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7명이 제시하였고, 우리의 전통으로 차별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의견도 5명이 제시하였다. 40~50대 응답자 12명 중에는 차별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의견을 4명이 제시하였고, 60대 이상 응답자 6명 중에는 3명이 차별적 표현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의 목소리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호칭어와 지칭어가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혁 속에서 함께 변화되어야 함은 피할 수 없는 논리이다. 이러한 변화를 급진적으로 시행하느냐 점진적으로 시행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응답자들이 제시한 의견 중에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차분히 점진적 변화를 주장하는 의견도 엿볼 수 있었다.

3.3.2. 사회관계에서 호칭어·지칭어 사용 양상 분석

3.3.2.1. 직장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하여(B13)

(1) B13-1-호칭-a, b, B13-1-지칭-a, b

☞ **a. 직급이 높은 상대(남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 형' 또는 '○○ 형님'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 **b. 직급이 높은 상대(여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 여사(님)'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주의>공적인 회의와 사적인 식사시간 등 장면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지 고려하여 답변
<주의>나이가 어린 상사의 경우 어떻게 부르는지 고려하여 답변

☞ **a. 직급이 높은 상대(남자)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사의 나이가 나보다 어릴 경우,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가리키기도 합니까?**
<대상>상사, 동료 및 다른 직원 등

☞ **b. 직급이 높은 상대(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사의 나이가 나보다 어릴 경우,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가리키기도 합니까?**
<대상>상사, 동료 및 다른 직원 등

이후의 질문은 사회관계에서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한 사용 양상을 조사하기 위한 내용들이다. 위의 질문은 직급이 높은 상대(남자와 여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직급이 높은 남자를 부르는 호칭어로 '직함'을[35]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20~30대 응답자는 대부분이 '직함'을 사용한다고 답하였으며, 이 외에도 상대와 친분 관계가 있다면 '형(님)'으로 부르고, 직급이 없으면 '선배, 이름+님'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40대 이상의 응답자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우선적으로 공적인 호칭인 '직함'으로 부르자는 응답이 많았다. 이외에도 '형(님), ○○ 형님, 선배, 선생님' 등의 호칭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직급이 높은 여자를 부르는 호칭어로 '직함'을 사용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20~30대 응답자들은 '직함(님)'이란 호칭어를 가장 선호하였지만, 이외에도 '선배, 선생님, 언니'이란 호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여사님'이란 호칭어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40대 이상 응답자들 역시 '직함(님)'이란 호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선배, 여사(님)'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사(님)'이란 호칭어를 4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사용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지칭의 경우, 직급이 높은 남자를 가리키는 지칭어로 공적인 지칭인 '직함(님)'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20~30대 응답자는 직함(님) 외에도 '선생님, 선배, 직장 상사' 정도의 지칭어를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40대 이상의 응답자들 역시 공적인 지칭인 '직함(님)'을 선호하였다. 이 외에도 '선배, ○○ 상사, 선생님, 형님' 등의 지칭어를 사용하였다. 직급이 높은 여자를 가리키는 지칭어도 직급이 높은 남자를 가리키는 지칭어와 거의 동일한 사용 양상을 보였다. 40~50대에서 '언니'가 아닌 '여사(님)'을 사용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러나 '여사(님)'이란 지칭어는 40대 이상의 응답자 중에 사용한다는 답변과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동수로 나타났다.

(2) B13-2-호칭-a, b, (4) B13-2-지칭-a, b

☞ **a. 직급이 동일한 상대(남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 씨', '○ 과장(직함)', '선생(님)', 이름 등 무엇으로 부릅니까? '형(님)', '오빠'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 **b. 직급이 동일한 상대(여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 씨', '○ 과장(직함)', '선생(님)', 이름 등 무엇으로 부릅니까? '누나', '언니'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주의>공적인 회의와 사적인 식사시간 등 장면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지 고려하여 답변 <주의>나이가 많거나 적은 동료의 경우 어떻게 부르는지 고려하여 답변 <주의>친한 정도에 따라 부르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고려하여 답변 <주의>직함으로 '과장'이나 '부장' 외 '프로', '주무관', 담당 등을 사용하는지 답변

35) 응답자에 따라 '직급' 외에 '직책, 직위, 직함'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동일한 대상과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급, 직위를 부르거나 가리키기 위한 호칭어와 지칭어를 나타내는 용어로 '직함'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 **a. 직급이 동일한 상대(남자)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동료의 나이가 나보다 어릴 경우,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가리키기도 합니까?**

☞ **b. 직급이 동일한 상대(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동료의 나이가 나보다 어릴 경우,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가리키기도 합니까?**
<대상>상사, 동료 및 다른 직원 등

위의 질문은 직급이 동일한 상대(남자와 여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직급이 동일한 남자를 부르는 호칭어로 '직함'이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응답자들은 '직함'과 '이름'이 거의 같았다. '직함'이 들어가는 호칭어로 '이름+직함(님), 직함(님)'을 사용하였으며, '이름'이 들어가는 호칭어로 '이름(씨)'를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상대와 친한 관계이면 '형'이나 '이름'만으로 사용하였으며, '선생님'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4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직함'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곧 '이름+직함(님), 직함(님)' 등을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선생님, 이름(씨), 형(님), 오빠' 등도 사용하였다. 또한 직급이 동일한 여자를 부르는 호칭어는 직급이 동일한 남자를 부르는 호칭어의 사용 양상과 거의 동일하였다. 다만 상대방과 친한 관계이면 '언니, 누나' 등의 호칭어를 사용하였다.

지칭의 경우, 동일한 직급의 남자를 가리키는 지칭어로 '직함'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곧 '직함'이 들어가는 지칭어인 '이름+직함(님), 직함(님), 부서+직함' 등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이름(씨), 선생님, 회사직원, 동료'란 지칭어들이 사용되었다. 또한 동일한 직급의 여자를 가리키는 지칭어는 동일한 직급의 남자를 가리키는 지칭어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상대와 친한 관계이면 '언니'란 지칭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⑶ B13-3-호칭-a, b, B13-3-지칭-a, b

☞ **a. 직급이 아래인 상대(남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김철수 씨', '김철수 군', '김철수 과장', '김 과장', '철수(야)', '총각' 등으로 부릅니까?**

☞ **b. 직급이 아래인 상대(여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이영희 씨', '이영희 양', '이영희 과장', '이 과장', '영희(야)', '아가씨' 등으로 부릅니까?**
<주의>직급은 낮지만 나이가 많은 경우 '여사', '선생' 등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는지 답변
<주의>공적인 회의와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차이가 있는지 고려하여 답변
<주의>'미스/미스터', 총각, 아가씨 등의 사용 여부 답변

☞ **a. 직급이 아래인 상대(남자)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 **b. 직급이 아래인 상대(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상사, 동료 및 다른 직원 등 <주의>공적인 회의와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차이가 있는지 고려하여 답변

위의 질문은 직급이 아래인 상대(남자와 여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직급이 아래인 남자를 부르는 호칭어로 주로 '이름'을 많이 사용하였다. 20~30대 응답자는 '○○ 씨'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친한 관계이면 '이름, ○○야, 오빠' 등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직함'에 대한 사용도 많았다. 이 가운데 직급이 아래이지만 나이가 위인 경우는 '직함(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직급이 아래인 여자를 부르는 호칭어로 남자를 부르는 호칭어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친한 관계이면 '이름, 언니' 등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직급이 아래인 사람을 대상으로 '군, 양, 미스터, 미스, 여사(님)' 등은 모든 연령층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40~50대의 2명의 응답자가 나이가 많은 여자를 부를 때 '여사(님)'을 사용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지칭의 경우, 직급이 아내인 남자를 가리키는 지칭어로 주로 '직함'을 이용한 지칭어를 사용하고, 다음으로 '이름'을 활용한 지칭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곧 '직함, ○+직함, ○○○+직함'이나 '이름, ○○○ 씨, 후배, ○ 선생(님), 직원, 동료, 친구' 등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직급이 아래인 여자를 가리키는 지칭어 역시 직급이 아래인 남자를 가리키는 지칭어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나 거의 관계없이 위의 지칭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언니, 오빠, (○○)야' 등은 사적인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⑷ B13-4-호칭/지칭

☞ **직함이 없는 남자/여자 동료를 어떻게 부릅니까? '선생(님)'이나 '김철수 씨', '김 씨', '여기요'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주의>공적인 회의와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차이가 있는지 고려하여 답변 <주의>나이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지 답변 <주의>직함이 없는 경우 두루 부르는 호칭이나 지칭이 있는지 답변
☞ **직함이 없는 남자/여자 동료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나이나 친한 정도, 상대방 등에 따라 다르게 가리켜 말하기도 합니까? '그 직원', '김철수 씨', '걔' 등으로 가리켜 말하기도 합니까?** <주의>공적인 회의와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차이가 있는지 고려하여 답변

위의 질문은 직함이 없는 동료(남자와 여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직함이 없는 동료를 부르는 호칭어로 '○○○ 씨'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20~30대 응답자 중에서는 '선생님, 저기요' 등도 사용한다는 응답이 있었고, 친한 관계이거나 동

갑이면 '○○야'란 호칭어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40대 이상 응답자 중에서도 '선생님'을 사용하였고, 60대 이상 응답자도 '선생님'이란 호칭어를 사용하였다.

지칭의 경우, 직함이 없는 동료를 가리키는 지칭어로 호칭어와 마찬가지로 '○○○ 씨'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여기에 '회사직원, 선생님, 언니, 부서+이름' 등의 지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5) B13-5-호칭/지칭, B13-6-호칭/지칭, B13-7-호칭/지칭

☞ **나이에 따라 '○○형', '○○야'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상사는 '김형'으로 부를 수 없고 '선배님, 김선배님, 김철수 선배님' 등으로 호지칭 사용

☞ **나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형', '○○야' 등으로 말하기도 합니까?**
<표준>'형'은 가족관계에서는 윗사람을, 사회관계에서는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

☞ **나이에 따라 '○○언니', '○○야'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나이에 따라 '김여사, 김영희여사'로 호지칭, 단 '김언니, 미스김언니' 등은 부적절

☞ **나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언니', '○○야' 등으로 말하기도 합니까?**

☞ **나이에 따라 '○○오빠', '○○누나', '○○야'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 **나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오빠', '○○누나', '○○야' 등으로 말하기도 합니까?**

위의 질문은 나이에 따른 '○○형(오빠/누나/언니), ○○야'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강의 응답은 앞선 질문들에서 이미 다양하게 나타났다. 모든 연령층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형(오빠/누나/언니), ○○야'란 호칭어와 지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나이를 기준으로 '○○형(오빠/누나/언니), ○○야'를 사용한다기보다는 나이를 전제로 하여 분위기나 상황에 따르거나 상대방을 고려하여 부르기도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형(오빠/누나/언니), ○○야'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6) B13-8-호칭/지칭

☞ **직급을 잘 모르거나 서로 잘 모르는 직원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 **직급을 잘 모르거나 서로 잘 모르는 직원을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위의 질문은 직급을 잘 모르거나 서로 잘 모르는 직원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직급을 잘 모르거나 서로 잘 모르는 직원을 부를 때 20~30대 응답자들은 '저기(요), ○○ 씨, 선생님'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에서 '저기(요)'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40대 이상 응답자들은 '○○○ 씨'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이름, ○선생님'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⑺ 직장에서 직원들 간 호칭

> ☞ **직장에서 직원들이 서로 어떻게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직장에 있는 시간이 많고 직장 동료와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좋다면 '형', '언니' 등 가족관계 호칭을 써도 될까요? 아니면 공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격식을 갖춰(직함을 써서) 불러야 할까요?**

위의 질문은 직장에서 직원들 간에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곧 직장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형, 언니' 등과 같이 가족관계 호칭을 써도 좋은지, 아니면 격식을 갖춰 직함으로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20~50대 응답자들은 직장 내에서 격식을 갖추어 공식적인 '직함'으로 불러야 한다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 일부 응답자만이 가족관계 호칭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사적인 상황에서는 친밀하고 편안한 호칭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의견도 나왔다.

60대 이상 응답자의 경우 가족관계 호칭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의견과 공식적인 직함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직장 생활이 많은 젊은 세대와 중년 세대에서 오히려 공식적인 직함을 사용하여 격식적인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인식과 상대적으로 직장 생활이 적은 노년층에서는 오히려 가족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⑻ B13-9-호칭/지칭

> ☞ **직급이 높은 상대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여사님', '사모님'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 <표준>사모님, 아주머님/아주머니, ○ 과장님(아내가 직함이 있고 그것을 알 때), 여사님
>
> ☞ **직급이 높은 상대의 아내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 <표준>호칭어 +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 '과장님 부인', '과장님 사모님', '과장 부인', '과장 사모님' 등을 사용
> <대상>당사자, 해당 상사, 다른 사람

위의 질문은 직급이 높은 상대의 아내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직급이 높은 상대의 아내를 부르는 호칭어로 대체적으로 '사모님'이란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사모님, 직함+사모님'의 형태로 호칭어를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20~30대 응답자 중에서는 과장급 이상은 '사모님'을 대리급 이하는 '형수님'을 사용한다는 응답도 하였으며,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때에는 '사모님', 나이가 어릴 때에는 '형수님'을 사용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특이한 점은 40~50대 응답자 중 한 명만이 '여사님'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칭의 경우, 직급이 높은 상대의 아내를 가리킬 때 대체적으로 '사모님'을 지칭어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형수님, 직함(님)+부인, 직함(님)+아내분, 직함(님)+사모님'이란 지칭어들을 사용하였다.

⑼ B13-10-호칭/지칭

☞ **직급이 높은 상대의 남편을 어떻게 부릅니까? '사부님', '바깥어른', '바깥양반'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 선생님, ○ 과장님(남편이 직함이 있고 그것을 알 때)

☞ **직급이 높은 상대의 남편을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호칭어+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 '바깥어른', '과장님 바깥어른', '바깥양반'
<주의>'바깥어른'이라는 지칭어를 사용하는지 확인
<대상>당사자, 해당 상사, 다른 사람

위의 질문은 직급이 높은 상대의 남편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직급이 높은 상대의 남편을 부르는 호칭어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곧 '사장님, 남편분, 사부님, 선생님, 직함(님)+남편분, 부군, 바깥어른, 바깥분'의 호칭어를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우세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답변 중에 소수이기는 하지만 '사부님, 바깥분' 등의 호칭어가 나타났고, 오히려 중장년층 응답자들에게 이러한 호칭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칭의 경우, 직급이 높은 상대의 남편을 가리키는 지칭어가 호칭어보다 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곧 '직함(님)+남편분, 사부님, 직급(님)+남편분, 선생님, 사장님, 남편분, 부군, 바깥어른, 직함(님)+바깥어른' 등의 지칭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호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바깥어른'이 지칭을 나타낼 때에는 '직함(님)과 함께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⑽ B13-11-호칭/지칭

☞ **직급이 높은 상대의 자녀를 어떻게 부릅니까? 상대와 나의 친한 정도나 나이에 따라 다르게 부르기도 할까요?**
<표준>○○(이름), ○○○ 씨, 과장님(자녀가 직함이 있고 그것을 알 때), 선생님(동년배이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 **직급이 높은 상대의 자녀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과장님 아드님'이라고 말합니까? 만일 상대의 나이가 나보다 적다면 어떻게 가리켜 말하면 좋을까요?**
<표준>호칭+ 아드님, 따님, 자제분
<대상>당사자, 해당 상사, 다른 사람

위의 질문은 직급이 높은 상대의 자녀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직급이 높은 상대의 자녀를 부르는 호칭어로 '이름, ○○○ 씨, 자제분, 자녀분, 아드님(따님), 직함+아드님(따님)'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 모든 연령층에서 이 호칭어들을 고르게 사용하고 있었다. 상대와 친한 관계이거나 자녀와 나이 차이가 적을 때에는 '이름'을 부르고, 자녀와 나이 차이가 많거나 '○○○ 씨'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거나 당사자를 직접 부를 때에는 '아드님(따님), 직함(님)+아드님(따님)'을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지칭의 경우도 호칭어 사용 양상과 거의 유사하였다.

⑾ B13-12-호칭/지칭

☞ **직급이 같거나 아래인 상대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 씨/○○○ 씨, 아주머님/아주머니, ○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아내가 직함이 있고 그것을 알 때)
<주의>가정주부에게 '선생님'이나 직함을 부르기 어려울 수 있음

☞ **직급이 같거나 아래인 상대의 아내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 당사자, 해당 상사, 다른 사람
<표준>호칭어 +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 '과장님 부인', '과장 부인', '○○○(해당 동료) 부인' 등을 사용하는지 답변

위의 질문은 직급이 같거나 아래인 상대의 아내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직급이 같거나 아래인 상대의 아내를 부를 때 '제수씨, ○○○ 씨'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20~30대 응답자의 경우 '형수님, 제수씨, 아내분, 와이프분, 사모님' 등의 호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40대 이상의 응답자는 '○○○ 씨, ○○○ 씨 아주머니, 사모님, ○○○ 씨 부인, 직함님' 등의 호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젊은 세대 응답자는 '아주머니, ○○○ 씨' 등을 사용하지 않는데 반해, 중장년층 응답자들은 '와이프, 제수씨, 형수님' 등의 호칭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칭의 경우, 호칭어 사용 양상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중장년층 응답자일수록 '직함+아내분(부인), ○○○ 씨 부인(아내분)' 등의 지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⑿ B13-13-호칭/지칭

☞ **직급이 같거나 아래인 상대의 남편을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 씨/○○○ 씨, ○ 선생님, ○ 과장님(남편이 직함이 있고 그것을 알 때)

☞ **직급이 같거나 아래인 상대의 남편을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호칭어+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 '남편', '부군', '바깥양반'
<대상> 당사자, 해당 상사, 다른 사람

위의 질문은 직급이 같거나 아래인 상대의 남편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직급이 같거나 아래인 상대의 남편을 부를 때 대체적으로 '○○○ 씨'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20~30대 응답자의 경우 '○○○ 씨, ○○○의 신랑, ○○○ 남편분, 남편분, 부군, 선생님, 바깥분' 등의 호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40대 이상의 응답자는 '○○○ 씨, 직함, ○선생님, ○○○ 씨 남편, ○○ 씨, 선생님' 등의 호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칭의 경우, 호칭어 사용 양상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중장년층 응답자일수록 '바깥양반'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바깥양반, 직함+(남편, 부군), ○○○ 씨 남편분(바깥양반)' 등의 지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⑬ B13-14-호칭/지칭

☞ **직급이 같거나 아래인 상대의 자녀를 어떻게 부릅니까? '김철수 씨 아드님', '김철수 씨 따님' 혹은 '아드님', '따님'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자녀가 성인인지 아닌지, 동료와 친한지 친하지 않은지 등에 따라 부르는 것이 달라지기도 합니까?**
<표준>○○(이름), ○○○ 씨, 과장님(자녀가 직함이 있고 그것을 알 때), 선생님(동년배이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주의>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어릴 때

☞ **직급이 같거나 아래인 상대의 자녀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의 나이나 직급에 따라 '아드님'과 '아들' 중 선택하여 가리키기도 합니까?**
<표준>호칭+ 아드님, 따님, 자제분, 아들, 딸
<대상>당사자, 해당 상사, 다른 사람

위의 질문은 직급이 같거나 아래인 상대의 자녀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직급이 같거나 아래인 상대의 자녀를 부를 때 '이름, 애기(야), 아드님(따님), ○○○ 씨의 아드님(따님), 아들(딸), ○○○ 씨 아들(딸), ○○○ 씨, ○○○ 씨 자제분' 등의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나이가 어리거나 친할 때에는 '이름, 애기(야), 아들(딸)'을 부르고, 나이가 많을 때나 성인 경우에는 '○○○ 씨, 아드님(따님)'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칭의 경우, 직급이 같거나 아래인 상대의 자녀를 가리키는 지칭어도 호칭어와 유사한 사용 양상을 보였다. 이 외에도 상대의 직급이 높을 때에 '아드님(따님)'을, 상대의 직급이 낮을 때에

는 '아들(딸)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3.3.2.2. 지인에 대하여(B14)

(1) B14-1-호칭/지칭

☞ **친구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친한 친구의 아내일 경우 '제수씨'라고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아주머니, ○○ 씨, ○○○ 씨, ○○ 어머니/엄마, ○ 여사/여사님, ○ 과장님(직함이 있고 그것을 알 경우), ○ 선생/선생님

☞ **친구의 아내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친한 친구의 아내일 경우 '제수씨'라고 가리켜 말합니까?**
<표준>○○(친구 이름)+부인/집사람/안사람/처
○○(친구) 씨 부인, ○○(지역이름) 아주머니
<대상>해당 친구, 나의 아내, 다른 친구, 자녀

위의 질문은 친구의 아내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친구의 아내를 부르는 호칭어로 대체적으로 '제수씨'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30대 응답자는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 우선적으로 '제수씨'를 사용하고 다음으로 친한 관계라면 '이름'을 부른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수 응답자들 가운데 동생 아내도 아닌데 '제수씨'로 부르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하였다. 40~50대 응답자는 '○○○ 씨'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제수씨'가 많았고, 그 외에 '○○○ 어머니, 아주머니'란 호칭이 사용되었다. 60대 이상 응답자는 '제수씨, ○○○ 어머니(엄마)' 등의 호칭어가 사용되었다.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 '제수씨'는 젊은 세대가 많이 쓰고 중년 세대로 갈수록 그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젊었을 때 친구를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과 사회의 개념이 분리되어 가면서 호칭도 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칭의 경우, 친구의 아내를 가리키는 지칭어가 호칭어보다 훨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곧 '제수씨, 아주머니, ○○○(본인 이름) 씨, ○○○(친구 이름) 부인(아내, 안사람, 처, 와이프, 제수씨), ○○○ 친구 집사람, ○○○(자녀 이름) 어머니(엄마)' 등이다. 이 가운데에서 젊은 세대에서는 '제수씨'나 '제수씨'가 붙은 지칭어를 많이 사용하고, '와이프'도 젊은 세대에서만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⑵ B14-2-호칭/지칭

☞ **친구의 남편을 어떻게 부릅니까? 친할 경우 '제부'나 '형님'(나이가 많을 때), '동생'(나이가 적을 때) 등 가족처럼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 씨, ○○○ 씨, ○○ 아버지/아빠, ○ 과장님(직함이 있고 그것을 알 경우), ○ 선생/선생님

☞ **친구의 남편을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친할 경우 '제부'나 '형님'(나이가 많을 때), '동생'(나이가 적을 때) 등 가족처럼 가리키기도 합니까?**
<대상>해당 친구, 나의 아내, 다른 친구, 자녀
<표준>○○(친구 이름)+남편, 바깥양반
○○(친구) 씨 남편, ○○(지역이름) 아저씨

위의 질문은 친구의 남편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친구의 남편을 부를 때 대체적으로 '○○○ 씨'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제부, 형님(동생), 남편분, 바깥양반, ○○○(친구 이름) 남편(신랑), ○○○(자녀 이름) 아버지(아빠), ○○○ 선생님' 등의 다양한 호칭어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친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호칭어 '형님(동생)'이란 호칭어를 사용하고, 친구의 남편 이름을 모를 경우 '남편분'이란 호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칭의 경우, 친구의 남편을 가리키는 지칭어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곧 '○○○ 씨, 제부, 형부, 형님, 남편분, ○○○ 남편(신랑, ○○○ 씨 바깥양반, ○○○ 씨 아버지(아빠), ○○○ 선생님' 등이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친할 경우에 가족처럼 지칭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⑶ B14-3/4-호칭/지칭

☞ **남편/아내의 여자 친구를 어떻게 부릅니까?**
☞ **남편/아내의 남자 친구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여자친구: ○○ 씨, ○○○ 씨, ○○ 어머니, ○ 선생/선생님, ○과장님(직함이 있고 그것을 알 경우), ○여사/여사님, 아주머니
<추가>남자친구: ○○ 씨, ○○○ 씨, ○○ 아버지, ○과장님(직함이 있고 그것을 알 경우), ○ 선생님

☞ **남편/아내의 여자 친구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 **남편/아내의 남자 친구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여자친구: 호칭 + ○○(자녀) 어머니, ○○(지역이름) 아주머니
<추가>남자친구: 호칭 + ○○(자녀) 아버지, ○○(지역이름) 아저씨
<대상>나의 아내/남편, 다른 친구, 자녀

위의 질문은 남편/아내의 여자/남자 친구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 씨'와 같이 '이름+씨'이다. 이 외에도 '○○○ 언니/오빠, ○○○(친구 이름) 여자/남자친구, ○○○ 어머니/아버지(엄마/아빠) 등이 사용

되고 있었다.

지칭의 경우, 호칭어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였는데, 남편/아내의 여자/남자 친구를 부르는 호칭어 외에도 '아내', '남편의 친구', '당신 친구' 등이 더 사용되고 있었다.

⑷ B14-5/6-호칭/지칭

☞ **아버지/어머니의 친구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 아저씨, ○○(지역) 아저씨, ○○(친구이름) 아버지, 어르신, 선생님, 과장님(직함이 있고 그것을 알 때) <표준>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 ○○(친구이름) 어머니, 어르신, 선생님, 과장님(직함이 있고 그것을 알 때
☞ **아버지/어머니의 친구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 호지칭 동일 <대상> 아버지/어머니, 다른 사람

위의 질문은 아버지/어머니의 친구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아버지의 친구와 어머니의 친구를 부를 때 나타나는 양상이 조금 달랐다. 아버지의 친구를 부르는 호칭어로는 '아저씨'가 절대적 우세를 보이고 있었고, '○○○ 삼촌, 아버님, ○○○(자녀 이름) 아버지, 어르신'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 여기서 아버지 친구의 이름을 알 경우에는 '○○○ 아저씨'란 호칭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아버지의 친구를 거의 '아저씨'란 통일된 호칭으로 부르는 반면에 어머니의 친구는 '아주머니, 아줌마, 이모'를 고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에서 아버지/어머니 친구에게 '이모, 삼촌'란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칭의 경우, 기존 호칭어에 '지역명+아저씨/아줌마(아주머니, 이모), 아버지/어머니 친구'의 지칭어를 더 사용하고 있었다.

⑸ B14-7-호칭/지칭

☞ **친구의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 아저씨, ○○(지역) 아저씨, ○○(친구이름) 아버님/아버지, 어르신, ○○(친구 자녀) 할아버지
☞ **친구의 아버지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아버지', '철수네 아버지'로 가리키기도 합니까?** <표준>호칭 + 아버님, 아버지, 아빠, 어르신, 부친, 춘부장 <대상>해당 친구, 다른 사람

위의 질문은 친구의 아버지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친구의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어로 '아버님'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 외에 '아버지, 아저씨, 어르신, ○○○(친구 이름) 아버님(아버지)'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어릴 때에는 '아저씨'를 커서는 '아버님'을 사용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지칭의 경우, 친구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지칭어로는 다양한 지칭어들이 고르게 사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곧 '아버님, 아버지, 부친, 어르신, 아저씨, ○○○(친구 이름) 아버님(아버지), ○○○(이)네 아버지(아버님), 너희 아버지(아버님)' 등 다양한 지칭어가 나타났다.

⑹ B14-8-호칭/지칭

☞ **친구의 어머니를 어떻게 부릅니까? '엄마/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 아주머니, 아줌마, ○○(지역) 아주머니, ○○(친구이름) 어머님/어머니/엄마, 어르신, ○○(친구 자녀) 할머니

☞ **친구의 어머니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어머니', '철수네 어머니'로 가리키기도 합니까?**
<표준> 호칭 + 어머님, 어머니, 엄마, 어르신, 모친, 자당
<대상>해당 친구, 다른 사람

위의 질문은 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친구의 아버지의 호칭과 지칭에 대한 양상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호칭의 경우, 친구의 어머니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어로 '어머님'과 '어머니'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 외에 '아주머니, 어르신, ○○○(친구 이름) 어머님'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어릴 때에는 '아주머니'를 커서는 '어머님'을 사용한다는 답변도 나왔다.

지칭의 경우, 친구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지칭어로는 다양한 지칭어들이 고르게 사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곧 '어머님, 어머니, 모친, 어르신, 아주머니, ○○○(친구 이름) 어머님(어머니), ○○○(이)네 어머니(어머님), 너희 어머니(어머님, 엄마)' 등 다양한 지칭어가 나타났다.

⑺ B14-9-호칭/지칭

☞ **남자 선생님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지인의 아내를 '사모님' 외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사모님, ○ 선생님, ○ 과장님(직함이 있고 그 직함을 알 때)

☞ **남자 선생님의 아내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지인의 아내를 '사모님' 외 다르게 가리키기도 합니까?**
<표준> 호지칭 동일
<대상>남자 선생님, 다른 사람

위의 질문은 남자 선생님의 아내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남자 선생님의 아내를 부르는 호칭어는 거의 '사모님'으로 통일되어 사용되어 있었다. 40대~50대 응답자 중 한 명이 '선생님'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60대 이상 응답자 중 한 명이 친한 경우에 '형수님'이라고 부른다고 응답하였을 뿐이다.

지칭의 경우, 남자 선생님의 아내를 가리키는 지칭어도 거의 '사모님'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외에 '○○○ 사모님, ○○○선생님 사모님'이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8) B14-10-호칭/지칭

☞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지인의 남편을 '사부님' 외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 사부(師夫)님, ○ 선생님, ○ 과장님(직함이 있고 그 직함을 알 때)**
☞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지인의 남편을 '사부님' 외 다르게 가리키기도 합니까?** <표준>호칭 + 바깥어른 <대상>여자 선생님, 다른 사람

위의 질문은 여자 선생님의 남편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부르는 호칭어로 '사부님'을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선생님'도 자주 쓰이고 '○○○선생님 ○○○'의 형태로도 자주 쓰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곧 여자 선생님 남편에 대한 호칭어로 '사부님, 선생님, ○○○선생님 사부님(남편분, 바깥분)' 등이 쓰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호칭어는 주로 젊은 세대에서 사용하고 40대 이상 응답자들은 '사부님, 선생님'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칭의 경우,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가리키는 지칭어는 호칭어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곧 '사부님, 선생님' 외에 '남편분, 바깥어른, ○○○선생님 사부님(남편분, 바깥분, 바깥어른), 선생님 사부님(남편분, 바깥분, 바깥어른), 직함' 등을 사용하였다.

(9) B14-11-호칭/지칭

☞ **자녀가 나의 남자 친구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저씨' 외 '삼촌'이나 '큰(작은)아버지' 등 친족 호칭을 사용합니까?**
☞ **자녀가 나의 남자 친구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저씨'나 '삼촌'과 같이 가리켜 말합니까?** <대상> 나, 나의 배우자, 다른 사람

위의 질문은 자녀가 나의 남자 친구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자녀가 나의 남자 친구를 부르는 호칭어로 '아저씨'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아저씨, ○○○삼촌, 삼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서 '삼촌'은 친한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칭의 경우, 자녀가 나의 남자 친구를 가리키는 지칭어는 그에 대당하는 호칭어와 사용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고, 거기에 '아버지/엄마 친구, 지역명+아저씨(사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⑽ B14-12-호칭/지칭

☞ **자녀가 나의 여자 친구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주머니/아줌마' 외 '이모', '고모', '큰(작은)엄마' 등 친족 호칭을 사용합니까?**

☞ **자녀가 나의 여자 친구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줌마'나 '이모'와 같이 가리켜 말합니까?**
<대상> 나, 나의 배우자, 다른 사람

위의 질문은 자녀가 나의 여자 친구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자녀가 나의 여자 친구를 부르는 호칭어는 주로 '이모'와 '아줌마'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곧 '이모, 아줌마, 아주머니, ○○○이모, ○○○아줌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60대 이상 응답자 중에는 '큰엄마' 등의 친족 관계 호칭어를 사용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칭의 경우, 자녀가 나의 여자 친구를 가리키는 지칭어는 그에 대당하는 호칭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곧 '이모, 아줌마, 아주머니, ○○○이모, ○○○아줌마'가 사용되고, 이 외에 '지역명+아주머니(이모)'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

3.3.2.3. 직원과 손님 사이(B15)

⑴ B15-1-호칭

☞ **식당이나 상점의 직원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기요', '여보세요', '선생님'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아줌마', '언니', '이모'는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 단, 어린이는 '아줌마', '언니' 쓸 수 있음
<주의>직원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을 때 표현이 달라지는지 답변
<주의>식당, 백화점, 편의점, 옷가게, 카페, 등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지 답변

위의 질문은 식당이나 상점에서 직원에 대한 호칭에 대한 내용이다.

식당이나 상점에서 직원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어로 '여기요, 저기요'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응답자의 경우 '여기요, 저기요, 사장님'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모(님), 아주머니, 선생님' 등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4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여기요'를 가장 많이 쓰고, 이 외에 '저기요, 언니, 아줌마, 아주머니, 여보세요, 사장님, 이모'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주머니'의 경우는 '아줌마'로 부르면 낮추는 말 같아서 '아주머니'라고 부른다는 의견이 있었다.

⑵ B15-2-호칭/지칭

☞ **회사나 구청 같은 관공서 직원을 어떻게 부릅니까? 'ㅇㅇ 씨', 'ㅇㅇ과장(님)' 등으로 부릅니까? '여기요', '여보세요', '선생님'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주의>직원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을 때 표현이 달라지는지 답변

☞ **직원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지칭을 쓸 경우가 있는지 주의

위의 질문은 회사나 구청 같은 관공서 직원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관공서 직원을 부르는 호칭어로 대체로 '여기요, 저기요'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응답자는 '여기요, 저기요, 저기, 선생님, 직함(님), 이름+직함, 사장님' 등의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에서 '저기요'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40대 이상 응답자들은 '여기요, 저기요, 선생님, ○○○ 씨, ○○○ 직함(님), 직함(님), 언니, 여보세요, ○○○님' 등을 호칭어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여기요'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60대 이상 응답자 중에 '○○○님'이 좋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⑶ B15-3-호칭/지칭

☞ **의사나 간호사, 은행 직원, 학교 직원(교사 제외), 승무원 등을 어떻게 부릅니까?**
(교통기관-승무원: 지하철, 철도, 항공편, 배 등)
<주의>병원, 은행, 우체국, 학교 등 기관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지 답변
<주의> 경비나 주차요원 등의 호칭어 확인

☞ **직원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지칭을 쓸 경우가 있는지 확인

위의 질문은 의사, 간호사, 은행 직원, 학교 직원, 승무원 등에 대한 호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각 근무기관의 직원을 부르는 호칭어는 해당 근무기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선생님'은 주로 '의사, 간호사, 교직원' 등을 부를 때 사용하고, '직함'

은 '의사, 간호사, 은행직원' 등을 부를 때 사용한다. 또한 대체로 '여기요, 저기요'를 사용하여 호칭어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경비, 수위 업무를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는 '아저씨, 할아버지'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호칭어는 '직함'과 '여기요'로 파악된다. 그 외에 '담당자님, (급식) 아주머니, ○○○ 씨' 등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칭의 경우, 각 근무기관의 직원을 가리키는 지칭어도 해당 근무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담당명칭+직원(분), 직함, 아주머니, 아저씨, 할아버지, 선생님, 담당선생님, ○○○ 씨, ○○○ 직원'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⑷ B15-4-호칭/지칭

☞ **식당이나 상점에서 손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시> '손님', '○○○님', '직함-님'으로 부르는 것이 표준
<주의>높임표현의 사용이 과한 경우를 당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답변
예: 커피 나오셨습니다.
<주의>손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을 때 표현이 달라지는지 답변

☞ **손님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지칭어가 정해져있지 않은 관계

위의 질문은 식당이나 상점에서 손님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식당이나 상점에서 손님을 부르는 호칭어로 '손님'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20~30대 응답자는 '고객님'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40대 이상으로 가면 '고객님'은 상대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외에도 '주문번호, 학생, 사모님/사장님, 어머니, ○○○님(손님, 고객님)'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 중에서 대중교통에서 '아가씨'를 사용하여 불쾌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호칭들은 손님의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칭의 경우, 식당이나 상점에서 손님을 가리키는 지칭어는 예상 밖으로 그 수효가 적었다. '고객님, 손님, ○○○손님, ○○○님, 저분, 사장님/사모님, 선생님'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

⑸ B15-5-호칭/지칭

☞ **구청이나 시청에서 손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손님: 민원인, 업무 관련 방문자)
<예시>'손님', '○○○님', '직함-님'으로 부르는 것이 표준
<주의>손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을 때 표현이 달라지는지 답변

☞ **손님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지칭어가 정해져 있지 않은 관계

위의 질문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손님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호칭의 경우, 구청이나 시청에서 손님을 부르는 호칭어로 '○○○님'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손님의 나이에 따라서 '아버님/어머님, 할아버님/할머님, 어르신' 등의 호칭어를 사용하고, 이 외에 '손님, 고객님, 선생님, 민원인'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칭의 경우, 호칭어보다는 단순한 양상을 보였다. 곧 '○○○님, ○○○ 손님, ○○○ 고객님, 저분, 저 손님, 저 고객님, 선생님, 손님, 민원인분'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⑹ B15-6-호칭/지칭

☞ **손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손님: 병원-환자, 은행-고객, 학교-학부모, 교통기관-승객 등)
<주의> '교통기관'의 '승객'을 제외하고 표준 언어 예절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

☞ **손님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지칭어가 정해져있지 않은 관계

위의 질문은 손님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내용이다. 이 경우 호칭어와 지칭어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고, 각 근무기관의 속성이나 특성에 따라 호칭어와 지칭어가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의료기관에서는 손님을 '환자분, 보호자분'이라고 부르거나 가리키고 있고 이 외에도 '○○○님, ○○○ 환자분(보호자분)'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교육기관에서는 '어머니/아버지, 어머님/아버님, 학부모님' 등을 사용하였고, 교통기관에서는 '승객(님), 승객여러분, 손님' 등을 사용하였으며, 백화점과 같은 서비스기관에서는 '고객(님), 손님, 선생님' 등이 사용되었고, 금융기관에서는 '고객(님), 손님, ○번 고객님(손님), 선생님' 등이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에서 '손님, 고객님'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부르거나 가리키는 어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⑺ 식당, 상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

☞ **식당이나 상점에서 주로 '아저씨/아줌마', '언니/오빠', '아버님/어머님', '사장님/사모님', '선생님', '손님', '고객님' 등을 많이 사용합니까? 이 외에도 어떤 말을 사용해서 직원과 손님을 부를까요? 직원을 '총각', '아가씨' 등으로 부르면 좋을까요?**
<주의>자신이 손님의 입장에서 직원이 자신을 어떻게 불렀는지 혹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불렀는지 들었던 내용을 응답
<주의>직원/손님을 부를 때 나이의 차이, 관계(수직, 수평)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지 고려하여 응답

위의 질문은 식장이나 상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에 대한 내용이다.

20~30대 응답자는 상점이나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 '직함(님), 고객님, 손님, 사장님, 여기요, 저기요, 이모(님), 선생님, 언니' 등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가운데 '이모(님)'은 단골손님일 경우에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총각, 아가씨' 같은 표현은 어색하고, 존중하지 않고 높이지 않은 듯한 기분이 들어 나쁘고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나이에 관계없이 일관된 호칭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40~50대 응답자는 식당이나 상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 '고객(님), 손님, ○○○ 고객님, 사장님(사모님), 아저씨(아줌마), ○○○ 씨, 여기요, 이모님, 선생님' 등이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총각, 아가씨'는 이상하고 좋지 않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괜찮다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그리고 20~30대 응답자와 달리 나이에 따라 부르는 것이 괜찮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

60대 이상 응답자는 식당이나 상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 '아버님/어머님, 사장님/사모님, 고객님'이라고 응답하였고, '총각/아가씨'는 나이 차이를 고려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⑻ 관공서,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

☞ **관공서에서 민원인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선생님', '손님', '어르신', '학생', '할아버님/할머님', '아버님/어머님' 등을 많이 사용합니까? 이 외에 어떤 말을 사용해서 민원인을 부르면 좋을까요?**
<주의>자신이 손님의 입장에서 직원이 자신을 어떻게 불렀는지 혹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불렀는지 들었던 내용을 응답
<주의>직원/민원인을 부를 때 나이의 차이, 관계(수직, 수평)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지 고려하여 응답

위의 질문은 관공서나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에 대한 내용이다.

20~30대 응답자가 관공서나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은 '민원인(님), ○○○님, 주민님, 선생님, 고객님, 손님, 사장님/사모님, 학생, ○○○ 고객님, 어르신, 아버님/어머님, 할아버님'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아버님/어머님, 할아버님/할머님' 같은 친족 관계 용어는 긍정적 의견보다는 상황에 맞지 않고, 듣기 좋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그리고 '선생님'이란 말도 싫어하는 의견도 있었다. 젊은 세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일관된 호칭을 사용하는 인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40~50대 응답자가 관공서나 회사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은 '민원인(님), ○○○님, ○○○ 씨, 고객님, 어르신, 선생님, 학생, 아버님/어머님, 손님' 등이다. 이 가운데에 일부 의견 중에 '사모님'을 듣기 싫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60대 이상 응답자가 관공서나 회사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은 '○○님, ○○○ 씨, 선생님, 고객님, 손님, 어르신, 아버님/어머님' 등이다. 그런데 응답한 의견 중에 '할아버님/할머님'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응답자가 해당되는 연령대에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까지 듣고 싶지 않았던 심리가 작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60대 이상 응답자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바로 '이름'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곧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고 싶은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답변이라 할 수 있다.

3.3.3. 종합 의견 분석

(1) C1-가장 중요한 것

☞ **호칭어나 지칭어를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칭어나 지칭어를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나이, 직위, 상대와의 관계, 서열, 상황(장면)' 등이 나왔다. 이 가운데 응답이 많았던 '나이, 직위, 상대와의 관계'를 중요한 3요소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상대와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 혈연적 관계, 친분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호칭어와 지칭어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	의견
20~30대	• 상대와의 관계-사회적, 혈연적, 친밀 정도 • 나이 • 직위 • 상대가 누구인가의 명확성
40~50대	• 상대와의 관계 • 상황(장면) • 나이 • 직위 • 서열
60대 이상	• 나이 • 직위 • 상대와의 관계

⑵ C2-'표준' 제정 시 고려할 점

☞ **호칭어나 지칭어의 '표준'을 다시 정한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호칭어와 지칭어를 '표준'으로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여러 의견을 제안해 주었다. 그 중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호칭어, 지칭어의 정리이다. 특히 가족 관계 호칭어와 지칭어 중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전혀 알지도 사용하지도 않는 어휘들이 있는데 이들을 필수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차별적인 어휘의 정리이다. 성차별, 나이 차별, 직위 차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어휘들도 삭제하거나 개선의 대상이라는 의견을 많이 주었다.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	의견
20~30대	• 어려운 호칭(가족관계 호칭)이 많아 이를 간소화 • 잘 쓰이지 않는 어휘를 개선 • 차별적 어휘 개선 • 상호관계를 고려할 것 •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것 • 결혼 유무, 친가, 외가 구분 없이 동일한 호칭 •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확보 • 언어 변화 현실 고려-친족어 확대 사용 등 • 줄임말 사용 고려 • 복수 표준어와 같이 복수로 인정 • 표준을 제정할 때 권장, 예시 등도 제시 요망
40~50대	• 어려운 한자 호칭 개선- 가족관계 축소 원인 • 차별적인 어휘 • 하나의 호칭어와 지칭어로 통일 • 규정하거나 강권하지 말 것 •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제시할 것 • 부적절한 표현을 지적하는 방식
60대 이상	• 간소화 • 차별화 • 체계화 • 홍보 필요

⑶ C3-추가, 삭제, 변경할 것

> ☞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호칭어나 지칭어 중 추가, 삭제, 변경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호칭어와 지칭어 중 추가, 삭제, 변경할 대상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중 가장 많은 의견이 '시가-처가', '시댁-처댁'의 대응되는 표현으로 개선할 것에 대한 의견이다. '진외, 외외' 등 전혀 모르는 한자 어휘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도련님, 아가씨, 서방님'에 대한 대안 어휘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	의견
20~30대	• 남편을 '자기, 오빠'라고 부르는 것 추가 • 식당 직원을 '이모'로 부르는 것 추가 • '진외, 외외, 이종질, 외종질' 등 삭제. • 시가-처가, 시댁-처댁으로 변경 •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대안 표현 추가 • 인터넷 등에서 '님'이라고 부르는 것 추가 • 온라인상의 호칭어 지칭어도 추가 • '미망인' 지칭 삭제하고 '부인'으로 대체 • 생활 속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말 추가 • 식당에서 '이모' 삭제 • 종업원들에게 '언니, 아가씨' 삭제
40~50대	• 생활 속에서 나온 말이 좋음 • 어려운 용어 삭제 • '이름'이나 '○○씨'로 통일 • 진외, 외외 삭제. • 남동생을 '서방님'으로 부르는 것 삭제 • 사용하지 않는 용어 삭제 • 시가-처가, 시댁-처댁으로 변경 • 관공서 등에서 어머니로 불리는 것 거슬림-비혼이나 무자녀일 경우
60대 이상	• '진외/외외' 처음 들어보는 것으로 삭제 필요 • 남편을 '자기, 오빠'라고 부르는 것은 삭제 • '시댁'과 같이 '처가'를 '처댁'으로 변경 • 식당에서 '이모'도 불편함

⑷ C4-좋지 않은 경험

☞ **상대방이 나를 불렀을 때 혹시 기분이 좋지 않았거나 잘못 불렀다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불렀을 때 기분이 나쁘거나 잘못 불렀다고 생각했던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니, 아가씨' 등의 호칭어가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거슬리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	의견
20~30대	• '아저씨'-나이 들고 성년이라는 이유로 불리는 게 기분 나쁨 • '아가씨'-식당에서 기분 나쁨, 택시기사 • '언니'-백화점 등에서 엄마에게 표현하는 것이 거슬림 • 반말을 들었을 때 • '사모님'-공공기관에서 불렸을 때 • '아가, 새아가'라고 불렸을 때
40~50대	• 상황에 맞지 않는 호칭 • 없음. 이름이 좋음 • 음주 후 친하지 않은 사람이 이름을 부르거나 반말하면 기분 나쁨
60대 이상	• 별로 없음

⑸ C5-당황했던 경험

☞ **호칭어나 지칭어 중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지 몰라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호칭어나 지칭어를 사용하는 중에 그 사용 방법을 몰라서 당황했던 경험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나왔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의견으로는 '조리실무사'를 '어머님'으로 불렀던 경험이다. 곧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면 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한 정리 작업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 부르거나 가리켜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접

하게 된다. 이 외의 다른 의견을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	의견
20~30대	• 호칭이 생각 안 나서 당황 • 나이가 어린데 처가 형제의 배우자를 부를 때 어색함 • 조리실무사를 '어머님'이라 불렀을 때–정립이 안 됨 •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름 • 백화점 종업원에 대한 호칭 • 가족관계 호칭(당숙부를 큰아빠로 호칭하다 당숙부로 호칭하니 서운해 함) • 사촌 호칭명을 모름 • 상급자의 자제를 만날 때 호칭 모름
40~50대	• 호칭어를 몰라 '아, 저…'로 시작 • 시동생을 '서방님'으로 불러야 하는 것 •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의 남편을 '사부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 • 여자 직장상사의 남편에 대한 호칭이 어려움 • 식당에서 종업원에서 '사장님'이라 부름
60대 이상	• 조카사위가 본인보다 나이가 많아 서로 존대함 • 호칭어나 지칭어 어휘를 몰랐을 때

⑹ C6-잘못된 습관의 예

☞ **호칭어나 지칭어 중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습관이 되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호칭어나 지칭어 중에서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습관이 되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도 여러 의견을 주었다. 이를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	의견
20~30대	• 종업원에게 ‘여기요, 저기요’ 사용 • 결혼 후 남편을 ‘오빠’라고 칭하는데 의식적으로 ‘아빠’라 칭하려고 함 • 나이 드신 분께 ‘이모님’이라 칭하였는데 친근하여 계속 사용 • 종업원을 ‘이모’라 부름 • 남편 누나의 남편을 ‘아주버님’이라고 부르는 게 쑥스러움 • 나이 많은 사촌에 대한 호칭(10살 많은 형)
40~50대	• 남편을 ‘자기야, 오빠’로 부르는 것 • 시부모와 친정부모를 모두 ‘아버지, 어머니’로 부를 때 혼동된다.
60대 이상	•

(7) C7-모를 때 쓰는 호칭어나 지칭어

☞ **상대방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때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호칭이나 지칭할 대 그 사용 방법을 모를 때 사용하는 말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저기요, 여기요, 선생님, 사장님’ 등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이를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	의견
20~30대	• 여기요, 저기요, 저기, 저, 사장님, 계세요, 선생님, 아저씨, 아주머니, 기사님, 여사님
40~50대	• 여기요, 저기요, 선생님, 사장님, 아줌마, 이모님, 언니, 아주머니
60대 이상	• 여기요, 저기요, 아저씨, 아줌마

(8) C8-개선 방향

☞ **우리말의 호칭어나 지칭어가 복잡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우리말 호칭어와 지칭어가 복합한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그 개선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족관계 호칭어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간결하고 하나로 통일하여 정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	의견
20~30대	• 가족관계 호칭어를 간소화하여 정리할 필요 • 어려운 것 쉽게 수정 • 사용하지 않는 것 삭제 • 매장 직원들에 대한 호칭어 개선 • 성별 차이 두지 않고 통일해서 개선 • 간결하게 통일하여 개선
40~50대	• 시대를 반영해야 하나 기준점은 있어야 함 • 이름으로 부르면 좋을 듯 • 간결하게 통일하여 • 각종 서비스업 운영자에 대한 호칭어가 모호함 • 사회적 관계에 대한 호칭어 정립이 더 필요함(손님과 직원 사이) • 친족 호칭어 어려움 개선 필요
60대 이상	• 호칭어와 지칭어가 그나마 있어야지 가족관계와 직장 관계 등이 정립될 것 같다. • 쉬운 호칭어로 개선 • 쉽게 개정



4.『표준 언어 예절』(2011) 정비 방향 및 내용

4.『표준 언어 예절』(2011) 정비 방향 및 내용

『표준 언어 예절』(2011)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Ⅰ.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과 'Ⅱ.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다룬다. 정비의 가장 큰 원칙은 호칭과 지칭의 간소화이며 이와 함께 체계화, 성별 대칭성, 통용성 등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제안하는 호칭어와 지칭어는 규범이나 정답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유롭게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한 정비의 내용은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이하 2018)로 정리하고자 한다.

정비 내용은 크게 표와 기술로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인 호칭이나 지칭은 최대한 간단하게 제시하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설로 다룬다. 정비 원칙과 제시 방법은 아래와 같다.

Ⅰ. 정비 원칙

가. 호칭 · 지칭의 간소화

- 호칭이나 지칭을 최대한 간소화한다. 이를 위해 언중이 호칭과 지칭을 통용하는 것을 폭넓게 인정하고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 호칭이나 지칭은 표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 호칭이나 지칭의 제시 방식도 최대한 간소화하여 제시한다. 『표준 언어 예절』(2011)에서 지칭은 상대방(청자)에 따라 미세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각 관계에서 사용되는 지칭어는 모두 같은 경우가 많다. 청자를 따로 구분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통합하여 간소하게 제시한다.
- 다만 간소화하여 제시하되 다소 잉여적이더라도 체계상 빠져 있거나 남성과 여성 간 비대칭적인 부분은 보완하여 제시한다.

나. 호칭 · 지칭의 대칭적 체계 구축

-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호칭어나 지칭어는 경우에 따라 남성을 높이고 여성을 낮춰 부르는 경향이 있었다. 또 남성이 무표형으로 기준이 되고 여성에 특별한 표지를 붙여 나타내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남녀 간 대칭적인 호칭어와 지칭어를 사용하도록 정비한다.
- '시(媤)-', '외(外)-', '친(親)-'이나 '바깥', '안' 등 전통적인 남녀 구분 표지 역시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비한다.
- 같은 맥락에서 나이와 서열이 역전되었을 때 전통적으로는 서열만 우선하는 방식으로 호칭이나 지칭을 사용하였던 것을 나이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호칭 · 지칭의 통용

- 상대방(청자)의 입장에서 부르는 호칭을 지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칭의 대상을 상대방(청

자)이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하였던 『표준 언어 예절』(2011)의 지칭어 체계는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 호칭과 지칭의 통용이라는 원칙하에 상대방(청자)이 부르는 호칭을 지칭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굳이 표에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라. 자녀 또는 지역을 매개로 한 호칭 · 지칭의 확대

- 자녀를 매개로 한 호칭이나 지칭(teknonymy)뿐 아니라 살고 있는 지역이나 직업 등 다양한 구별 표지를 사용하는 호칭, 지칭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황에 따라, 화자와 청자의 관계나 친밀함에 따라, 제3자의 담화 참여 여부에 따라 전통적인 호칭이나 지칭을 선호하지 않거나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간접적인 호칭이나 지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었다.
- 구별 표지로 사용되는 '지역'은 단순히 '서울', '방화동' 등의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804호 할머니' 등과 같이 아파트의 호수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다. 즉 구별이 된다면 가정에서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 부를 수 있는 것을 '지역'으로 묶어 제시한 것이다.

마. 가정이나 사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호칭과 지칭의 사용

- 표에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각 가정이나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필요나 목적에 따라 호칭어나 지칭어는 자유롭게 정해 쓸 수 있다. 특히 상황이나 장면, 친소 관계 등의 변화에 따라 호칭어나 지칭어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하는 호칭어나 지칭어를 기준으로 삼아 자유롭게 쓰면 된다.
-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호칭어나 지칭어 중에서도 현재 사용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것들은 표에서 제외하고 반대로 새롭게 사용이 확장되고 있는 것들은 포함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하되 변화의 결과가 확실한 경우에 한해 반영하였다.

Ⅱ. 제시 방법

가. 본문은 표와 그 표에 대한 해설로 이루어진다.

(1) 정비 내용은 1992와 2011의 형식에 따라 표와 그에 대한 해설로 구성한다.

(2) 2018은 1992와 2011의 정비의 성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992와 2011의 표와 해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추가되는 부분을 해설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3) 각 관계마다 상황이 다르고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정비 원칙'에 따라 각 관계별 '정비 방향'을 따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관계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정비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나. 표는 크게 '전통'과 '가능'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1) '전통'에서는 『표준 화법 해설』(1992)와 『표준 언어 예절』(2011) 등에서 다뤄진 전통적인 호칭어나 지칭어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이와 함께 '가능'을 두어 새롭게 제안되는 호칭어나 지칭어,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호칭어나 지칭어 등을 제안한다.

(2) '전통'의 경우 이미 언중이 잘 사용하지 않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들은 삭제하되 그 이유를 밝힌다. 단, 사회관계의 호칭어나 지칭어의 경우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전통' 대신 '2011', '가능' 대신 '2018' 표시한다.

※ 기존에 사용해 온 호칭이나 지칭은 최대한 유지하되 언중이 새롭게 쓰고 있는 호칭이나 지칭은 '가능'을 두어 포함하였다. '전통'의 경우에도 다소 개선이 필요하더라도 사용하고 있는 언중이 있음을 고려하여 최대한 포함하였으나 시대에 지나치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전통'에서도 제외하였다.

(3) 지칭의 경우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양하게 분리되었던 것을 묶어서 지칭어의 유형별로 제시하는데 '격식'과 '비격식' 상황을 구분해야 할 경우 기술을 통해 보충하여 설명한다.

[비격식]

- 일상적 상황, 가족 간 친밀함이 있고 사적인 관계가 형성된 경우
- 사적인 가족관계 내에서 지칭의 사용은 대부분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가족끼리 사용하는 대부분의 지칭어는 비격식적인 사용으로 보고 친밀함, 서열(손위, 손아래), 성별, 나이, 결혼 여부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다양한 지칭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격식]

- 격식을 갖춰야 할 자리 또는 공적 상황, 가족 외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이더라도 공식적인 상황이 전제되는 경우 등
- 가족에 대한 지칭어 중에서 상대방이 나보다 손위거나 예의를 갖춰야 할 때, 공식적인 자리일 때, 가족 외 다른 사람들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등은 격식을 갖춰야 할 상황으로 본다.
- 직장은 격식적인 상황을 기본으로 하여 표를 정리하고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비격식적 상황은 기술을 통해 일부 밝히는 것으로 처리한다.
- 직장 외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상황들은 공적인 것부터 사적인 것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 담화 참여자의 관계, 사회적인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호칭과 지칭을 함께 제시한다.

※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나누었던 기존의 지칭 구분은 다소 잉여적인 부분이 있었다. 또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지칭 표현을 달리 제시하다보니 지나치게 복잡하게 보이기도 하였다. 지칭을 최대한 간결하게 제시하기 위해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만 괄호 안에 따로 밝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지칭의 선택에서 청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보다 상황이 어떠하냐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가정에서 지칭을 사용할 경우 대부분은 일상생활, 즉 비격식적인 상황일 것이나 제3자가 화자와 청자

보다 웃어른일 경우, 공식적인 상황일 경우에는 높임이 적용된 지칭어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다. 해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기술한다.

(1) 호칭이나 지칭에 대해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차별 또는 비대칭성이 드러나는 해설은 하지 않는다.

(2)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아 표에서 삭제한 호칭이나 지칭, 표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그 용법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호칭이나 지칭은 해설을 통해 그 용법과 의미를 기술하였다.

(3) 새롭게 포함되는 호칭어나 지칭어, 삭제된 호칭어나 지칭어의 포함 또는 삭제 이유를 자세히 밝히되 사전의 용례나 뜻풀이, 어휘들 간의 계열 관계, 설문조사나 심층 면담 등의 근거를 두루 활용한다.

(4) 『표준 화법 해설』(1992)나 『표준 언어 예절』(2011)의 기술 중 살려 써야 할 부분, 수정이 필요한 부분 등을 해설을 통해 밝힌다.

(5) 해설을 통해 『표준 화법 해설』(1992)나 『표준 언어 예절』(2011)로부터 삭제한 부분, 추가한 부분 등을 명확하게 밝힌다.

라. 정비 내용 중 사용된 약호는 다음과 같다.

(1) 이름과 성에 관한 약호는 (이름 글자의 수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성
- ○○: 이름
- ○○○: 성+이름

(2) 표에 사용된 괄호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 지칭에서 청자(상대방)의 구분이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
- [ ]: 이름 중 '자녀'나 '지역' 등 구분의 표지가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 등과 같이 앞이나 뒤에 동일한 어휘가 올 경우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예 ○○[자녀]: 자녀의 이름　　○○[지역]: 지역의 이름

○○[자녀] 아빠/아버지: '○○[자녀] 아빠'와 '○○[자녀] 아버지'를 아우름.

Ⅲ.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2018 정비안 주요 변경 사항

가. '안', '밭(바깥)' 등 성에 따른 구분 표지나 남녀 비대칭적인 구분 표지의 사용을 지양한다.

예 '안사람', '바깥양반' 등은 '아내'와 '남편'으로 사용

나. 남녀 비대칭적인 호칭과 지칭을 대칭적으로 맞춘다.

예 시부모에 대한 호칭 중 '시아버지'는 '아버님', '시어머님'은 '어머님, 어머니'를 모두 쓸 수

있도록 한 것을 시부모 모두에 대해 ‘아버지, 아버님’, ‘어머님, 어머니’를 쓸 수 있는 것으로 맞춘다.

다.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이지 않는 호칭이나 지칭은 표에서 제외한다

예 지칭 중 ‘처이질서’(妻姨姪壻)[아내 자매의 사위], ‘생질서’(甥姪壻)[누이의 사위, 남편 누이의 사위] 등은 표에서 제외한다.

라. 남자와 여자의 결혼 이전 친부모의 집을 이르는 말로 ‘본가’를 사용한다. 단 여자의 경우 ‘친정(親庭)’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자의 경우 이전에 ‘친정’에 붙여 썼던 지칭은 ‘본가’를 붙여 쓸 수 있다. 남자의 경우 구분이 필요할 경우 지칭에서 ‘본가’를 붙여 쓰면 된다.

예 남자: 본가 아버지, 본가 누나

예 여자: 본가/친정 아버지, 본가/친정 언니

<참조> 1992와 2011에 일부 관계에 대해서만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등의 지칭이 제시되었고 남자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지칭이 따로 없었다. 2018에서 모든 가족관계에 ‘본가’나 ‘친정’을 넣어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필요한 몇몇 경우에만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가 사촌 형님’과 같이 쓸 수 있다.

<참조> 1992와 2011의 해설에서 ‘시댁’과 ‘처가’로 기술하였던 것을 2018은 ‘시가’와 ‘처가’로 균형을 맞춰 기술하였다.

마. 가족관계에서 ‘-님’은 전통적으로 서열이 위인 사람에게 써 왔으나 서열과 나이가 역전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예 전통적인 용법으로 ‘형’을 ‘형님’, ‘누나’를 ‘누님’으로 부르거나 이른다.

예 2018에서는 서열은 아래지만 나이가 많은 경우 ‘-님’을 붙여 부르고 이르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남자가 나보다 서열이 낮은 여동생의 남편이 나보다 나이가 많을 경우 ‘매부님’, ‘매제님’, ‘○ 서방님’과 같이 부를 수 있다.

<참조> 1992나 2011은 서열과 나이가 역전되었을 때 서열을 우선으로 하였다. 또 결혼을 하였을 때 여자는 남자의 서열에 따라 서열이 결정되는 반면 남자는 나이를 기준으로 서열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나보다 서열이 아래이더라도 나이가 많다면 전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호칭에 ‘-님’을 붙여 쓰는 방식으로 정비하였다.

바. 가족관계에서 서열도 아래이고 나이도 어린 경우 친근한 가족관계에서 서로 양해가 되었다면 ‘○○ 씨’로 부르고 이를 수 있다. 대체로 내 손아래 형제자매의 배우자, 내 배우자의 손아래 형제자매, 내 배우자의 손아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에 해당한다.

예 남자의 경우 여동생의 남편이 나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 ‘○○ 씨’로 부를 수 있다.
예 여자의 경우 남편의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나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 ‘○○ 씨’로 부를 수 있다.
<참조> 단, 부부가 서로 ‘○○ 씨’로 부를 수 있으나 이는 사적인 영역의 문제이므로 이를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사. ‘아버지’에 대해 ‘아빠’, ‘어머니’에 대해 ‘엄마’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표시는 ‘아빠/아버지’, ‘엄마/어머니’로 하고 ‘아버님’, ‘어머님’이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아빠/아버지/아버님’, ‘엄마/어머니/어머님’으로 한다. 다만 ‘아빠’나 ‘엄마’가 앞에 있다는 것이 ‘아빠’나 ‘엄마’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 ‘작은아버지’는 ‘작은아빠’, ‘큰어머니’는 ‘큰엄마’로 대체하여 사용

아. 1992 지칭 중 ‘[그들이 부르는 대로]’에 해당하는 지칭은 2018 표에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가 복잡하여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설 중 간단한 표로 따로 제시한다.

4.1. 가족관계 호칭어 및 지칭어

가족관계는 크게 12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36]

(4-1) 가족관계 구성
1. 부모와 자녀 사이
2.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3. 처부모와 사위 사이
4. 남편에 대하여
5. 아내에 대하여
6.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7.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8.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9. 조부모와 손주 사이
10. 숙질 사이
11. 사촌에 대하여
12. 사돈 사이

이 목차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4-2) 수정 목차
1. 부모와 자녀
    1.1. 본가 부모와 배우자 부모
    1.2. 자녀와 그 배우자
2. 배우자와 형제자매
    2.1. 배우자
    2.2.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2.3.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3. 그 밖의 가족관계
    3.1. 조부모와 손주
    3.2. 숙질
    3.3. 사촌
    3.4. 사돈

목차에 위계를 두어 크게 셋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다시 나를 중심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하위분류를 한다. 기존에 사용된 '사이'나 '대하여' 등이 일관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아 관계만 드러내는 것으로 목차 수정이 필요하다. 단, 이 보고서 내에서는 『표준 언어 예절』(2011)과 비교가 필요하므로 우선 기술은 『표준 언어 예절』(2011)의 차례를 따라 작성하였다.

36)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사회관계'가 합성어 처리 되어 있는 반면 '가족관계'는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가족 관계'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여기서는 '사회관계'의 처리에 준해 '가족관계'로 합성어 처리한다.

4.1.1. 부모와 자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호칭과 지칭은 크게 아버지에 대한 것, 어머니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으로 구성된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가장 가까운 사이로 전통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던 것을 최근에는 나이가 많거나 결혼을 한 자녀도 '아빠', '엄마'로 부르고 지칭하는 일이 많아졌다. 특히 자녀의 수가 과거와 같이 많지 않고 또 아들과 딸을 대등하게 대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아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사용하던 호칭이나 지칭의 용법은 지양해야 할 것이 되었다. 이 외에도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본가아버지', '본가어머니' 등의 사용이 있다. 여기서는 『표준 언어 예절』(2011)의 목차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를 함께 다룬다.

O 정비 방향

가.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의 호칭과 지칭을 대칭적으로 구성한다.

나. 자녀 외 지역 등의 다른 구별 표지도 사용할 수 있다.

다. 화자의 나이나 결혼 여부보다는 사용되는 상황의 격식성, 비격식성을 우선으로 한다.

O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표 비교

[1] 부모

〔1992〕 부모에 대한 호칭•지칭어

			살아 계신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호칭어	어릴 때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	
	성장 후		어머니, 아버지	
지칭어	부모, 조부모에게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	어머니, 아버지
	친척에게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	어머니(님), 아버지(아버님)
	남편에게		친정(지역 이름) 어머니, 친정(지역 이름) 아버지	친정 어머니(님), 친정 아버지(아버님)
	아내, 형제, 자매, 처가 쪽 사람에게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님), 아버지(아버님)
	시댁 쪽 사람에게		친정(지역 이름) 어머니, ○○ 외할머니, 친정(지역 이름) 아버지, ○○ 외할아버지	친정(지역 이름) 어머니(님), ○○ 외할머니(님), 친정(지역 이름) 아버지(아버님), ○○ 외할아버지(외할아버님)
	타인에게	아들, 미혼의 딸이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님), 아버지(아버님)
		기혼의 딸이	친정(지역 이름) 어머니, ○○ 외할머니, 친정(지역 이름) 아버지, ○○ 외할아버지	친정(지역 이름) 어머니(님), ○○ 외할머니(님), 친정(지역 이름) 아버지(아버님), ○○ 외할아버지(외할아버님)

〔2011〕 [표 Ⅰ-1] 아버지에 대한 호칭, 지칭

	살아 계신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호칭	아버지, 아빠			
지칭	당사자에게		아버지, 아빠	
	어머니에게		아버지, 아빠	아버지
	조부모에게		아버지, 아빠	아버지
	형제, 자매, 친척에게		아버지, 아빠	아버님, 아버지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버지, 친정아버지, ○○[지역] 아버지	친정아버님, 친정아버지
		아내에게	아버지	아버님, 아버지
	배우자 가족에게	시댁 쪽 사람에게	친정아버지, ○○[지역] 아버지, ○○[자녀] 외할아버지	친정아버님, 친정아버지, ○○[자녀] 외할아버님, ○○[자녀] 외할아버지
		처가 쪽 사람에게	아버지	아버님, 아버지
	그 밖의 사람에게	아들이	아버지, ○○[자녀] 할아버지	아버님, 아버지, ○○[자녀] 할아버님, ○○[자녀] 할아버지
		딸이	아버지, 친정아버지, ○○[자녀] 외할아버지	아버님, 아버지, 친정아버님, 친정아버지, ○○[자녀] 외할아버님, ○○[자녀] 외할아버지

〔2011〕 [표 Ⅰ-2] 어머니에 대한 호칭, 지칭

	살아 계신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호칭	어머니, 엄마			
지칭	당사자에게		어머니, 엄마	
	아버지에게		어머니, 엄마	어머니
	조부모에게		어머니, 엄마	어머니
	형제, 자매, 친척에게		어머니, 엄마	어머님, 어머니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친정어머니, 어머니, 엄마, ○○[지역] 어머니	친정어머님, 친정어머니
		아내에게	어머니	어머님, 어머니
	배우자 가족에게	시댁 쪽 사람에게	친정어머니, ○○[지역] 어머니, ○○[자녀] 외할머니	친정어머님, 친정어머니, ○○[자녀] 외할머님, ○○[자녀] 외할머니
		처가 쪽 사람에게	어머니	어머님, 어머니
	그 밖의 사람에게	아들이	어머니, ○○[자녀] 할머니	어머님, 어머니, ○○[자녀] 할머님, ○○[자녀] 할머니
		딸이	어머니, 친정어머니, ○○[자녀] 외할머니	어머님, 어머니, 친정어머님, 친정어머니, ○○[자녀] 외할머님, ○○[자녀] 외할머니

〔2018〕 아버지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아빠, 아버지	=
지칭	아빠, 아버지, 아버님 ○○[지역] 아빠/아버지 친정아버지(님)[여자] ○○[자녀] 할아버지(님)/외할아버지(님)	= ○○[지역] 아버님 본가 아빠/아버지/아버님[남자/여자], 친정 아빠[여자] (자녀에게) 할아버지(님), 외할아버지(님)

※ '아버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 주로 사용

〔2018〕 어머니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엄마, 어머니	=
지칭	엄마, 어머니, 어머님 ○○[지역] 엄마/어머니 친정어머니[여자] ○○[자녀] 할머니(님)/외할머니(님)	= ○○[지역] 어머님 본가 엄마/어머니/어머님[남자/여자], 친정엄마[여자] (자녀에게) 할머니/할머님

※ '어머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에 주로 사용

1992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다루었던 것을 2011에서 분리하여 제시하였고 2018도 이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표로 제시하였다. 1992와 2011 모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 따로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돌아가시기 전과 후의 지칭은 큰 차이가 없다. 특히 1992에서는 어릴 때는 '아버지'와 '아빠', '어머니'와 '엄마'를 모두 써도 좋지만 성장 후에는 '아버지', '어머니'만 쓰도록 하여 '아빠'나 '엄마'가 어린아이의 말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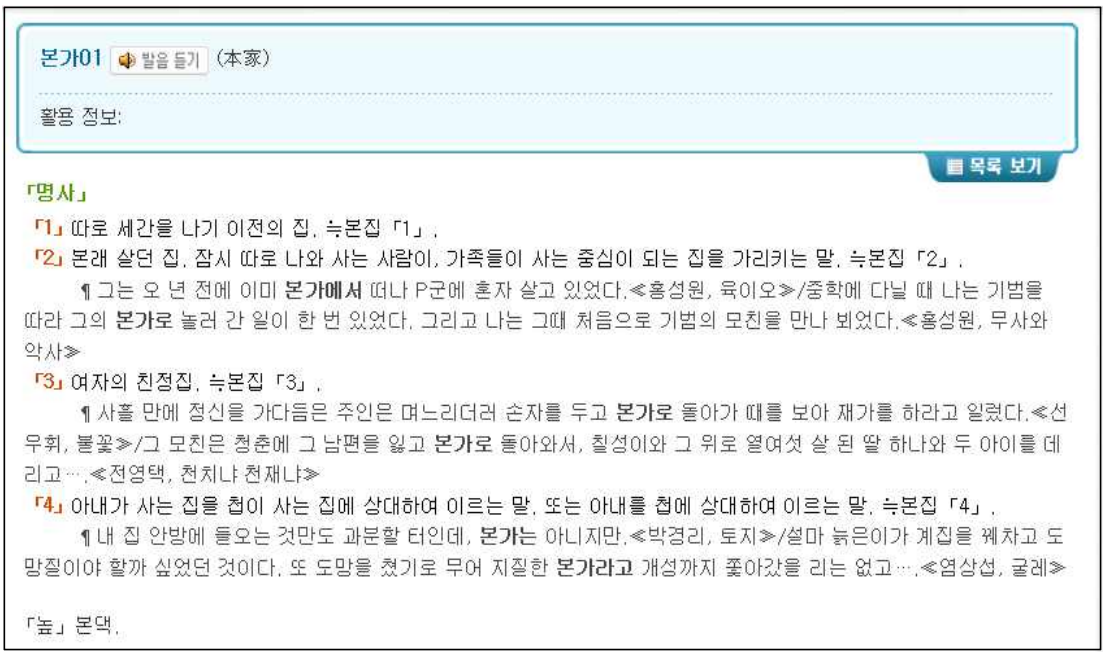
1992에서 '아빠'와 '엄마'는 어린아이의 말로, 2011에서는 '아버지'와 '아빠'를 모두 쓰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쓰는 것이 표준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비격식적인 자리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은 성인이 된 후 또는 결혼을 하여 자녀가 생긴 후에도 자신의 부모에 대해 '아빠'와 '엄마'로 부르는 경우가 많고 이와 반대로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어린아이도 교육을 통해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2018은 '아버지'와 '아빠', '어머니'와 '엄마'를 화자가 어린아이인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가풍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부르되 다만 공식적인 자리, 격식을 갖춰야 할 상황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칭▐

1992와 2011 모두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 지칭을 세밀하게 나누어 제시하였던 것을 2018에서 묶어 간소하게 제시하였다. 대부분은 '아버지', '어머니'를 기본으로 하되 나의 자녀에게 지칭할 경우 자녀의 입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 지칭한다. 이후 '조부모와 손주 사이'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도 (모두 한 자리에 있어)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할아버지', '할머니'로 써도 무방하다.

지칭에서도 '아빠'와 '아버지', '엄마'와 '어머니'를 사용하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아버님', '어머님' 등으로 높여 이를 수 있다. 자녀나 지역 등의 구분 표지를 사용하여 '○○[자녀] 아버지', '○○[자녀] 어머니' 등으로 이를 수 있는데 이때 구분 표지는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 쓸 수 있다.

한편 2018은 남자와 여자 모두 결혼 전 부모의 집을 이르는 말로 ‘본가’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전통적으로 여자의 경우 결혼 후에는 자신의 친부모를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등으로 이르도록 하였는데 남자의 경우는 이에 대응하는 말이 없다. 예전에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의 집이 기본이 되고 본래 친부모의 집을 떠나온 것이 되었기 때문에 친부모의 집을 이를 수 있는 말이 필요하였던 반면, 남자의 경우에는 그런 용법의 어휘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8에서는 ‘본가’를 남녀 모두 결혼 전 친부모나 친가를 나타낼 때 쓰는 말로 보았다. 현재 ‘본가’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 3에 따르면 ‘여자의 친정집’으로 되어 있어 ‘친정’과 그 뜻이 다르지 않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 사전의 뜻풀이를 수정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겠다. 아울러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등의 ‘친정’은 여전히 언중이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칭의 한 방식으로 두었다.


본가01 발음 듣기 (本家)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1」 따로 세간을 나기 이전의 집. 늑본집「1」.

「2」 본래 살던 집. 잠시 따로 나와 사는 사람이, 가족들이 사는 중심이 되는 집을 가리키는 말. 늑본집「2」.

¶그는 오 년 전에 이미 **본가에서** 떠나 P군에 혼자 살고 있었다.≪홍성원, 육이오≫/중학에 다닐 때 나는 기범을 따라 그의 **본가로** 놀러 간 일이 한 번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처음으로 기범의 모친을 만나 뵈었다.≪홍성원, 무사와 악사≫

「3」 여자의 친정집. 늑본집「3」.

¶사흘 만에 정신을 가다듬은 주인은 며느리더러 손자를 두고 **본가로** 돌아가 때를 보아 재가를 하라고 일렀다.≪선우휘, 불꽃≫/그 모친은 청춘에 그 남편을 잃고 **본가로** 돌아와서, 칠성이와 그 위로 열여섯 살 된 딸 하나와 두 아이를 데리고….≪전영택, 천치냐 천재냐≫

「4」 아내가 사는 집을 첩이 사는 집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또는 아내를 첩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늑본집「4」.

¶내 집 안방에 들오는 것만도 과분할 터인데, **본가는** 아니지만.≪박경리, 토지≫/설마 늙은이가 계집을 꿰차고 도망질이야 할까 싶었던 것이다. 또 도망을 쳤기로 무어 지질한 **본가라고** 개성까지 쫓아갔을 리는 없고….≪염상섭, 굴레≫

「높」 본댁.

1992와 2011 모두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 따로 칸을 두어 처리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런데 실제로 표에 제시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2018에서는 이를 굳이 따로 나누어 제시하지 않았다. 즉 ‘아빠’나 ‘아버지’로 지칭하던 것을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님’과 ‘선친’, ‘어머님’과 ‘선비(先妣)’ 등으로 지칭하게 되는데, 그 외의 경우는 돌아가시기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심층 면담의 결과 60대 이상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부모에 대한 지칭이 바뀌어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1992와 2011 모두 자녀에게 나의 부모를 이르는 경우, 즉 조부모에 대한 지칭이 빠져 있는데 이는 조부모와 손주 사이에서 다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가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를 지칭할 경우 역시 부모에 대한 지칭에 함께 있어야 한다고 보아 2018에서는 ‘가능’ 부분에 새롭게 포함하였다.

2 자녀

〔1992〕 자녀에 대한 호칭•지칭어

		혼인하지 않은 자녀	혼인한 자녀
호칭		○○[이름]	○○ 아비(아범), ○○ 어미(어멈), ○○[이름]
지칭	가족, 친척에게	○○[이름]	○○ 아비(아범), ○○ 어미(어멈), ○○[이름], [그들이 부르는 대로]
	자녀의 직장 사람들에게	○○○ 씨, ○ (○○) 직함(님)	
	타인에게	(우리) ○○[이름], (우리) 아들, (우리) 딸	
	손자, 손녀(해당 자녀의 자녀)에게	–	아버지(아빠, 아비, 아범), 어머니(엄마, 어미, 어멈)
	사돈 쪽 사람에게	–	○○ 아비(아범), ○○ 어미(어멈), [그들이 부르는 대로], ○○[이름]

〔2011〕 [표 Ⅰ-3]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혼인하지 않은 자녀	혼인한 자녀
호칭	○○[이름]		아범, ○○[손주] 아범, 아비, ○○[손주] 아비, 어멈, ○○[외손주] 어멈, 어미, ○○[외손주] 어미, ○○[이름]
지칭	당사자에게	○○[이름]	아범, ○○[손주] 아범, 아비, ○○[손주] 아비, 어멈, ○○[외손주] 어멈, 어미, ○○[외손주] 어미, ○○[이름]
	가족, 친척에게	○○[이름]	아범, ○○[손주] 아범, 아비, ○○[손주] 아비, 어멈, ○○[외손주] 어멈, 어미, ○○[외손주] 어미, ○○[이름]
	자녀의 직장 사람들에게	○○○ 씨, ○ 과장, ○○○ 과장, ○ 과장님, ○○○ 과장님	
	그 밖의 사람에게	○○[이름], 아들, 딸	
	손주(해당 자녀의 자녀)에게	–	아버지, 아빠, 아범, 아비, 어머니, 엄마, 어멈, 어미
	사돈 쪽 사람에게	–	아범, ○○[손주] 아범, 아비, ○○[손주] 아비, 어멈, ○○[외손주] 어멈, 어미, ○○[외손주] 어미, ○○[이름]

〔2018〕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이름], 아범/아비, 어멈/어미, ○○[손주] 아범/아비, ○○[손주] 어멈/어미	= 아들, 딸 ○○[손주] 아빠, ○○[손주] 엄마
지칭	○○[이름], 아범/아비, 어멈/어미 ○○[손주] 아범/아비, ○○[손주] 어멈/어미 (해당 손주에게) 아빠/아버지, 엄마/어머니 (우리) 아들, (우리) 딸 ○○○ 씨, ○ 과장(님), ○○○ 과장(님),	= ○○[손주] 아빠, ○○[손주] 엄마

1992와 2011 모두 자녀의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호칭과 지칭을 따로 제시하였다.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손주(자녀의 자녀)가 생겨 그 손주를 포함한 호칭이나 지칭을 쓸 수 있기 때문

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결혼 전과 같은 호칭이나 지칭을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2018에서는 혼인 여부를 따로 기준으로 정하지 않았다. 특히 요즘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호칭▐

2011에서 '아들, 딸'은 '그 밖의 사람에게(가족 외의 사람들에게)'만 쓰는 지칭어로 되어 있는데 심층 면담의 결과 호칭으로 '아들', '딸'을 쓴다는 응답,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전 연령층에 걸쳐 나왔고 다른 가족에게 지칭으로 쓰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를 반영하여 2018에서 '아들'과 '딸'을 호칭으로 추가하였고 이와 함께 '아범/아비'나 '어멈/어미'와 같은 위치에 '아빠'와 '엄마'를 쓸 수 있는 것도 인정하였다. 그 결과 '○○[손주] 아범/아비/아빠, ○○[손주] 어멈/어미/엄마'를 모두 호칭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37)]

한편 결혼 전에는 이름, 서열, 직함으로 부르다가 결혼 후에는 '아범', '어멈', 손주가 생긴 후에는 '○○[손주] 아범', '○○[손주] 어멈' 등으로 부르는 것으로 정리되었는데 실제로 결혼 후에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아범', '어멈' 등으로 부르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결혼 후에도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 만일 결혼 전에 서열이나 직함 등을 사용하여 불렀다면 가정마다의 형편에 따라 이름과 함께 서열이나 직함을 호칭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결혼 전 자녀를 '첫째야', '둘째야' 하고 불렀다면 결혼 후에도 이렇게 부를 수 있다. 또 자녀가 장성하여 직장을 얻은 후, 사회적 위치에 걸맞게 존중해 주고 싶다면 직함이나 직급을 활용하여 부를 수도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대부분의 경우 일상적이고 사적인 장면, 비격식적인 상황일 것이므로 가정에서 부르는 대로 자유롭게 부르면 될 것이다. 그러나 격식적인 자리나 제3자가 나의 자녀보다 한참 아랫사람일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의 나이가 많아졌을 경우 등 자녀를 대접하여 불러야 할 경우라면 서열이나 직함 등을 활용하여 부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칭▐

2018의 가장 큰 특징은 결혼 여부를 기준으로 자녀의 호칭과 지칭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1을 기준으로 작성한 아래의 표를 보면 혼인 여부와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호칭과 지칭을 다르게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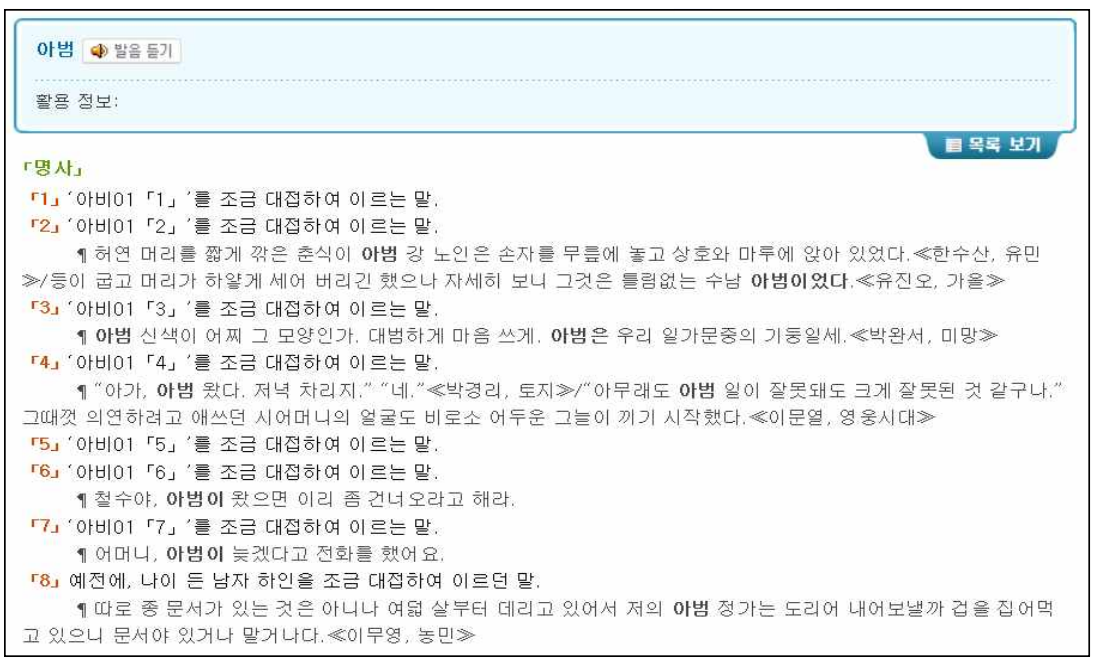
◎ 결혼 여부, 손주 유무를 기준으로 한 호칭과 지칭(2011 기준)

37)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아범'이나 '어멈', '아비'나 '어미' 등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어휘지만 시대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통적인 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두었지만 그 자리를 '○○[자녀] 아빠', '○○[자녀] 엄마'가 대신한다면 이후 사용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혼 전	자녀의 결혼 후 손주 없음	자녀의 결혼 후 손주 있음
이름, 서열, 직함	○	○	○ (손주가 그 자리에 없을 때)
아범/아비, 어멈/어미	x	○	○
○○ 아범, ○○ 어멈	x	x (기대어 부를 자녀가 없음)	○

위 표를 보면 혼인의 여부나 손주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름이나 서열, 직함을 호칭이나 지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1992나 2011은 결혼 전후를 기준으로만 나누었는데, 실제로 손주에 기댄 호칭이나 지칭은 손주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혼인'만 기준이 될 것이 아니라 '손주'의 유무도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결혼 여부'나 '손주 유무'를 모두 기준으로 하거나 반대로 모두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결혼한 자녀에 대한 지칭은 기본적으로 '아범', '어멈'을 기준으로 하는데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아범 발음 듣기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1」 '아비01 「1」'를 조금 대접하여 이르는 말.

「2」 '아비01 「2」'를 조금 대접하여 이르는 말.

¶ 허연 머리를 짧게 깎은 촌식이 **아범** 강 노인은 손자를 무릎에 놓고 상호와 마루에 앉아 있었다.≪한수산, 유민≫/등이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세어 버리긴 했으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틀림없는 수남 **아범이었다**.≪유진오, 가을≫

「3」 '아비01 「3」'를 조금 대접하여 이르는 말.

¶ **아범** 신색이 어찌 그 모양인가. 대범하게 마음 쓰게. **아범**은 우리 일가문중의 기둥일세.≪박완서, 미망≫

「4」 '아비01 「4」'를 조금 대접하여 이르는 말.

¶ "아가, **아범** 왔다. 저녁 차리지." "네."≪박경리, 토지≫/"아무래도 **아범** 일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같구나." 그때껏 의연하려고 애쓰던 시어머니의 얼굴도 비로소 어두운 그늘이 끼기 시작했다.≪이문열, 영웅시대≫

「5」 '아비01 「5」'를 조금 대접하여 이르는 말.

「6」 '아비01 「6」'를 조금 대접하여 이르는 말.

¶ 철수야, **아범이** 왔으면 이리 좀 건너오라고 해라.

「7」 '아비01 「7」'를 조금 대접하여 이르는 말.

¶ 어머니, **아범이** 늦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8」 예전에, 나이 든 남자 하인을 조금 대접하여 이르던 말.

¶ 따로 종 문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여덟 살부터 데리고 있어서 저의 **아범** 정가는 도리어 내어보낼까 겁을 집어먹고 있으니 문서야 있거나 말거나다.≪이무영, 농민≫



어멈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1」 '어미01 「1」'를 조금 대접하여 이르는 말.

¶ 순이 **어멈**/민기 **어멈이** 그런 말을 합디까?

「2」 '어미01 「2」'를 조금 대접하여 이르는 말.

「3」 '어미01 「3」'를 조금 대접하여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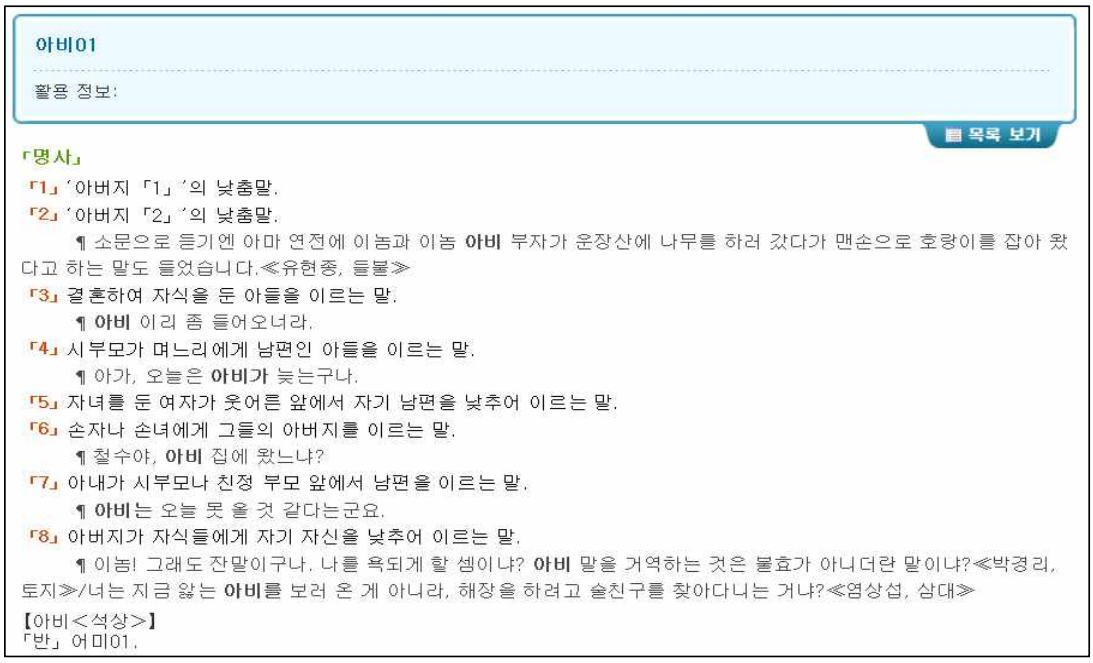
「4」 '어미01 「4」'를 조금 대접하여 이르는 말.

「5」 '어미01 「5」'를 조금 대접하여 이르는 말.

「6」 '어미01 「6」'를 조금 대접하여 이르는 말.

「7」 '어미01 「7」'를 조금 대접하여 이르는 말.

「8」 종이 아닌 신분으로 남의 집에 매이어 심부름하는 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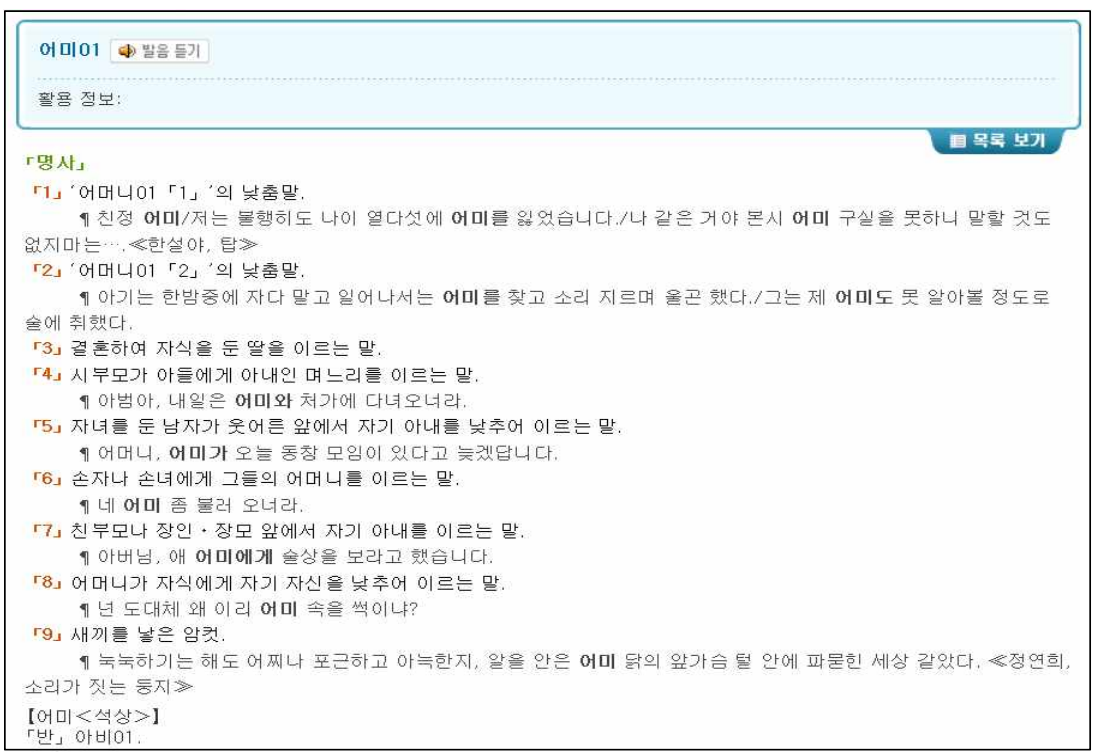
아비01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1」 '아버지「1」'의 낮춤말.
「2」 '아버지「2」'의 낮춤말.
¶ 소문으로 듣기엔 아마 연전에 이놈과 이놈 **아비** 부자가 운장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아 왔다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유현종, 들불≫
「3」 결혼하여 자식을 둔 아들을 이르는 말.
¶ **아비** 이리 좀 들어오너라.
「4」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남편인 아들을 이르는 말.
¶ 아가, 오늘은 **아비가** 늦는구나.
「5」 자녀를 둔 여자가 웃어른 앞에서 자기 남편을 낮추어 이르는 말.
「6」 손자나 손녀에게 그들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 철수야, **아비** 집에 왔느냐?
「7」 아내가 시부모나 친정 부모 앞에서 남편을 이르는 말.
¶ **아비**는 오늘 못 올 것 같다는군요.
「8」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 이놈! 그래도 잔말이구나. 나를 욕되게 할 셈이냐? **아비** 말을 거역하는 것은 불효가 아니더란 말이냐?≪박경리, 토지≫/너는 지금 앓는 **아비**를 보러 온 게 아니라, 해장을 하려고 술친구를 찾아다니는 거냐?≪염상섭, 삼대≫

【아비<석상>】
「반」 어미01.



어미01 발음 듣기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1」 '어머니01「1」'의 낮춤말.
¶ 친정 **어미**/저는 불행히도 나이 열다섯에 **어미**를 잃었습니다./나 같은 거야 본시 **어미** 구실을 못하니 말할 것도 없지마는….≪한설야, 탑≫
「2」 '어머니01「2」'의 낮춤말.
¶ 아기는 한밤중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는 **어미**를 찾고 소리 지르며 울곤 했다./그는 제 **어미도** 못 알아볼 정도로 술에 취했다.
「3」 결혼하여 자식을 둔 딸을 이르는 말.
「4」 시부모가 아들에게 아내인 며느리를 이르는 말.
¶ 아범아, 내일은 **어미와** 처가에 다녀오너라.
「5」 자녀를 둔 남자가 웃어른 앞에서 자기 아내를 낮추어 이르는 말.
¶ 어머니, **어미가** 오늘 동창 모임이 있다고 늦겠답니다.
「6」 손자나 손녀에게 그들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 네 **어미** 좀 불러 오너라.
「7」 친부모나 장인·장모 앞에서 자기 아내를 이르는 말.
¶ 아버님, 애 **어미에게** 술상을 보라고 했습니다.
「8」 어머니가 자식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 넌 도대체 왜 이리 **어미** 속을 썩이냐?
「9」 새끼를 낳은 암컷.
¶ 눅눅하기는 해도 어찌나 포근하고 아늑한지, 알을 안은 **어미** 닭의 앞가슴 털 안에 파묻힌 세상 같았다. ≪정연희, 소리가 짓는 둥지≫

【어미<석상>】
「반」 아비01.

'아범'이나 '어멈', '아비', '어미' 등은 사전의 뜻풀이 대부분이 '아버지', '어머니'와 관련된 것으로 '예전에, 나이 든 남자 하인을 조금 대접하여 이르던 말', '종이 아닌 신분으로 남의 집에 매이어 심부름하는 부인' 등의 뜻풀이는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다. '아가씨'나 '도련님/서방님'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에 비하면 '아범'이나 '어멈'에 대한 거부감은 방송이나 언론 매체 등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아가씨'나 '도련님/서방님'이 같은 서열의 형제들 간의 문제라면 '아

범', '어멈'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자문회의 등에서 '아범', '어멈' 등의 어휘가 시대의 흐름에 적절하지는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상대방이 나의 자녀보다 아랫사람일 경우 아랫사람이 부르는 호칭을 따라서 지칭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표로 제시하지 않는다. 1992에서는 이런 경우 '[그들이 부르는 대로]'와 같은 표시를 하여 호칭을 지칭으로 통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시하였다. 예를 들어 첫째 아들의 자녀가 결혼하지 않은 둘째 아들을 부르는 호칭인 '삼촌'을 써서 첫째 아들의 자녀에게 둘째 아들을 지칭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를 고려한다면 지칭이 매우 복잡해질 것인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1992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와 같은 표시를 둔 것이다. 2011에서는 이 부분이 모두 표에 함께 제시된 경우도 있고 아예 빠진 경우도 있어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2018은 1992를 따르되 앞서 정비의 원칙에 이미 호칭과 지칭을 통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기 때문에 이를 표에 따로 기술하는 것 역시 잉여적이라고 보아 표에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다만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관계가 복잡해진 경우에 한해 별도의 표로 만들어 제시한다.

한편 가족 외의 사람들에게는 나의 자녀를 굳이 낮춰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고 또 손주의 이름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아범', '어멈' 계열을 지칭어보다는 '아들', '딸', 또는 '우리 첫째 아들', '우리 둘째 딸' 등과 같이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녀의 직장동료에게 지칭할 때와 같이 공적인 상황에서는 이름이나 직함 등 중립적인 지칭을 사용한다. 자녀의 처가 또는 시가 사람들에게 나의 아들이나 딸을 지칭할 때 상대가 손윗사람이라면 '아범', '어멈'과 같이 지칭하고, 손아랫사람이라면 아랫사람이 부르는 호칭을 따라 지칭을 사용하면 된다.

o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해설 비교

1 부모

표준 화법 해설(1992)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부모님을 부르는 말이다.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높여 말하여야 할 분이 부모님이고, 가장 높은 말로 부르고 싶은 것이 자식들의 마음인데 이 부모님을 올바로 부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나의 부모님과 남의 부모님을 부르고 지칭하는 말이 다르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와 돌아가셨을 때의 지칭어가 다르다. 나의 어머니를 부르는 말은 '어머니'이다. 어릴 때는 '엄마'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도 장성해서는 '어머니'라고 고쳐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①어머니에게 편지를 할 때는 '어머니(엄마)'라고 쓸 수도 있지만 '님'을 넣어 '어머님께 올립니다.'와 같이 '어머님'을 쓰는 것이 전통적이며 바람직한 표현이다. 어머니를 가족과 친척, 처가 쪽 사람, 타인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어와 같은 말인 '어머니'라고 한다. 물론 어릴 때는 '엄마'라고 지칭할 수 있다. 어머니를 조부모에게 지칭할 때에 '어미'라고 지칭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에게 '어미'라고 할 수 있지만 손자, 손녀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 남편에게 지칭할 때는 '친정 어머니' 또는 '양지말 어머니'처럼 '양지말'과 같은 친정의

지역 이름을 넣어 말하고, 시댁 쪽 사람과 타인에게는 '친정(지역 이름) 어머니', '○○ 외할머니'로 지칭한다. 그러나 ②'○○ 외할머니'는 자녀가 장성하면 삼가야 할 표현이다.

③돌아가신 어머니를 아버지와 조부모에게 지칭할 때는 살아 계실 때와 같이 '어머니'로 지칭하고, 그 외는 '어머님' 혹은 '어머니'를 쓴다. 전통적으로 타인에게 '선비(先妣)'를 사용하기도 했다. 지방이나 축문에는 '어머님' 또는 '현비(顯妣)'를 쓴다.

아버지를 부르는 말은 '아버지'이다. 어릴 때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①아버지에게 편지를 할 때는 '아버님'이 전통적인 말인데 '아버지', '아빠'와 같이 써도 된다.

아버지를 가족과 친척, 처가 쪽 사람, 타인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어와 같은 말인 '아버지'로 지칭하는데 어릴 때는 '아빠'로 지칭할 수 있다. 남편에게 지칭할 때는 '친정(지역 이름) 아버지' 또는 '양지말 아버지'처럼 '양지말'과 같은 친정의 지역 이름을 넣어 말하고, 시댁 쪽 사람과 타인에게는 '친정(지역 이름) 아버지', '○○ 외할아버지'로 지칭한다. 그러나 ②'○○ 외할아버지'도 '○○ 외할머니'처럼 자녀가 어릴 때만 쓰도록 한다.

③돌아가신 아버지를 어머니와 조부모에게 지칭할 때는 살아 계실 때와 같이 '아버지'로 지칭하고, 그 외는 '아버님'으로 지칭하는데 '아버지(아빠)'를 쓸 수 있다.

살아 계신 아버지를 '선친(先親)'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남의 아버지를 '선친(先親)'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선친(先親)'은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남에게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지방이나 축문에는 '아버님' 또는 '현고(顯考)'를 쓴다.

<13-15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아버지를 부르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이다. 격식을 갖추어야 할 상황,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아버지'를 쓰는 것이 표준이다.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가리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빠'라고 할 수도 있다. ①아버지에게 편지를 쓸 때는 '아버님'이 전통적인 말인데 '아버지'나 '아빠'를 써도 된다.

아버지를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형제, 자매, 친척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동일하게 '아버지', '아빠'로 지칭할 수 있다. 남편에게 지칭할 때는 '아버지'와 함께 '친정아버지'라고 하거나 '부산 아버지'처럼 친정의 지역 이름을 넣어 말하고, 시댁 쪽 사람에게는 '친정아버지', '○○[지역] 아버지', '○○[자녀] 외할아버지'로 지칭한다.

아내와 처가 쪽 사람에게는 '아버지'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 아버지를 지칭할 때도 '아버지'로 지칭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할아버지'로 가리킬 수 있다. 말하는 이가 여성이면 '아버지', '친정아버지', '○○[자녀] 외할아버지'로 지칭한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어머니와 조부모에게 지칭할 때는 살아 계실 때와 같이 '아버지'로 지칭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아버님'으로 지칭하는데 '아버지'를 쓸 수도 있다. 살아 계신 아버지를 '선친(先親)'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남의 아버지를 '선친(先親)'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③그러나 '선친(先親)'은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남에게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11-12쪽>

나의 어머니를 부르는 말은 '어머니', '엄마'이다. 격식을 갖추어야 할 상황,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머니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어머니'를 쓰는 것이 표준이다.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부르거나 가리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엄마'라고 할 수도 있다. ①어머니에게 편지를 쓸 때는 '어머니', '엄마'라고 쓸 수도 있지만 '-님'을 넣어서 '어머님께 올립니다.'와 같이 쓰는 것이 전통적인 표현이다.

> 어머니를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 형제, 자매, 친척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동일하게 ‘어머니’, ‘엄마’라고 한다. 어머니를 조부모에게 지칭할 때에 ‘어미’라고 지칭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에게 ‘어미’라고 할 수 있지만 손주는 자신의 어머니를 가리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
>
> 남편에게 지칭할 때는 ‘어머니’, ‘엄마’와 함께 ‘친정어머니’라고 하거나 ‘부산 어머니’처럼 친정의 지역 이름을 넣어 말하고, 시댁 쪽 사람에게는 ‘친정어머니’, ‘○○[지역] 어머니’, ‘○○[자녀] 외할머니’로 지칭한다.
>
> 아내와 처가 쪽 사람에게는 ‘어머니’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 어머니를 지칭할 때는 ‘어머니’로 지칭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할머니’로 가리킬 수 있다. 말하는 이가 여성이면 ‘어머니’, ‘친정어머니’와 함께 ‘○○[자녀] 외할머니’로 지칭한다.
>
> ③돌아가신 어머니를 아버지와 조부모에게 지칭할 때는 살아 계실 때와 같이 ‘어머니’로 지칭하고 ‘선비(先妣)’를 사용하기도 했다.
>
> <13쪽>

1992와 2011의 해설 부분은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논의가 필요한 해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①에서는 편지를 쓸 때 ‘아버님’, ‘어머님’으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전통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요즘은 부모님에게 손편지를 쓰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그대로 두는 것이 다소 잉여적일 수도 있어서 유지해야 한다면 편지나 전화, 전자우편 등 다양한 장면으로 확장해서 기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

다음으로 ②는 1992에서 자녀를 매개로 한 ‘○○ 할아버지/할머니’, ‘○○ 외할아버지/외할머니’ 등은 자녀가 어릴 때만 쓰도록 하였는데 2011에는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자녀가 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 자녀에 대한 호칭이나 지칭을 손주의 이름에 기대 ‘○○[손주] 아범/어멈’ 등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나의 부모에 대해 장성한 자녀의 이름을 써서 지칭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요즘은 장성한 자녀도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어 장성한 후에도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 할아버지/할머니’, ‘○○ 외할아버지/외할머니’ 등을 쓰지 못할 것은 아니다. 다만 직접 관계를 보여줄 지칭이 있다면 굳이 자녀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지칭을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1992와 2011 모두 살아 계신 부모님과 돌아가신 부모님의 호칭과 지칭을 따로 나누어 표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을 부를 일이 없으므로 ‘호칭’은 비어 있고 지칭만 제시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살아 계셨을 때 이르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 ‘아빠’, ‘엄마’를 쓰지 않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를 고려하여 2018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호칭과 지칭을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선친(先親)’, ‘선비(先妣)’ 등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한자어들에 대해서는 기술을 통해 어떤 어휘들이 사용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아래는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를 참고하여 ‘아버지’와 관련된 어휘를 추린 것이다.

◎ <표준국어대사전> ‘아버지’ 관련 표제어와 뜻풀이

가부(家父)	집안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
가친(家親)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고비(考妣)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내부(乃父)	‘네 아비’, ‘이 아비’라는 뜻으로, 주로 편지글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기를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내조(乃祖)	‘네 할아비’, ‘이 할아비’라는 뜻으로, 주로 편지글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자기를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노대인(老大人)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노부(老父)	윗사람에게 자기의 늙은 아버지를 낮추어 이르는 말.
망부(亡父)	죽은 아버지.
부공(父公)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부군(父君)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부군(府君)	죽은 아버지나 남자 조상을 높여 이르는 말.
부친(父親)	‘아버지「1」’를 정중히 이르는 말. ¶ 부친의 말씀에 따르다/부친의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자네 부친께서는 안녕하신가?
선대인(先大人)	돌아가신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선고장01(先考丈)·선장03(先丈).
선친(先親)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 ≒고05(考)·선고02(先考)·선군01(先君)「2」·선군자·선부02(先父)·선엄(先嚴)·선인02(先人)「1」.
어르신네	「1」 남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어르신「1」. 「2」 아버지나 어머니와 벗이 되는 어른이나 그 이상 되는 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 ≒어르신「2」.
어른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조고(祖考)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이르는 말.
조부장(祖父丈)	남의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존공(尊公)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존집(尊執)	아버지의 벗이 될 만한 나이의 웃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
춘부장(椿府丈)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영존01(令尊)·춘당「1」·춘부02(椿府)·춘부대인·춘장02(椿丈).
친정(親庭)아버지	결혼한 여자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친정(親庭)아버님	‘친정아버지’의 높임말. 주로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이를 때 쓴다.

[2] 자녀

표준 화법 해설(1992)

①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런 아들, 딸도 혼인하기 전과 혼인한 뒤의 호칭이 다르다. 아들이 혼인하기 전에는 ‘철수야’처럼 이름을 부른다. 그러나 혼인한 후에는 ‘(○○) 아비(아범)’ 혹은 ‘○○[이름]’으로 부른다. ②아이를 낳으면 ‘아비’, ‘아범’하고 부르거나 손자, 손녀의 이름을 넣어 ‘○○ 아비’, ‘○○ 아범’하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손자, 손녀를 보기 전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혼인하지 않은 아들을 가족과 친척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어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지칭하는 아들보다 아랫사람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말인 ‘형’, ‘오빠’, ‘삼촌’ 등으로 가리킨다. 아들의 직장 사람들에게는 ‘○○○ 씨’ 또는 성이나 성명에 직함을 붙여 ‘○(○○) 과장(님)’으로 지칭하고, 타인에게는 ‘(우리) ○○[이름]’, ‘(우리) 아들’로 지칭한다.

혼인한 아들을 가족과 친척에게는 손자, 손녀의 이름을 넣은 ‘(○○) 아비(아범)’와 ‘○○[이름]’으로 지칭하고, 지칭하는 아들보다 아랫사람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말을 지칭어로 한다. 가리키고자 하는 아들의 처부모와 손위 처남 등에게는 ‘○○ 아비(아범)’로 지칭하는데 손자, 손녀를 보기 전에는 ‘○○[이름]’으로 지칭할 수 있다. 아들 처가의 손아래 동기에게는 ‘○○ 아비(아범)’와 그들이 부르는 말을 지칭어로 쓸

수 있다. 아들의 직장 사람들이나 타인에게 지칭할 때는 혼인하기 전의 지칭어와 같은 말을 쓴다. ④아들의 지방이나 축문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망자(亡子) ○○[이름]', '수재(秀才) ○○[이름]'을 썼다.

⑤간혹 아들의 직함이나 학위인 '군수', '박사' 등으로 부르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조선조에도 공석에서는 당상관 이상의 아들을 직함으로 호칭, 지칭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아들의 나이가 들고 사회적으로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오늘날도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자랑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상대방에 따라 적절히 가려 써야 할 표현이다.

딸도 아들과 같이 혼인하기 전에는 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혼인한 뒤에는 외손주에 기대어 '(○○) 어미(어멈)'으로 부르거나 외손주를 보기 전에는 '○○[이름]'으로 부른다. 지칭어도 아들의 경우와 같이 상황에 따라 '○○ 어미(어멈)', '어머니'를 쓰고 사돈 쪽 손아래 동기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말을 쓸 수도 있다.

<15-17쪽>

표준 언어 예절(2011)

①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 딸도 혼인하기 전과 혼인한 뒤의 호칭이 다르다. 아들이 혼인하기 전에는 '철수야'처럼 이름을 부른다. 그러나 혼인한 후에는 '아범', '○○[손주] 아범', '아비', '○○[손주] 아비' 또는 '○○[이름]'으로 부른다. ②아이를 낳으면 '아범', '아비'라고 부르거나 손주의 이름을 넣어 '○○[손주] 아범', '○○[손주] 아비'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주가 곁에 있는 상황에서는 아들을 손주 앞에서 존중하기 위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좋다. 손주가 곁에 없는 상황에서는 아들 이름, 서열('첫째', '둘째', '막내' 등)로 부른다. ③아들이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열로 부르거나 직함으로도 부를 수 있다. (지칭도 동일하다.)

혼인을 하지 않은 아들을 가족과 친척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지칭하는 아들보다 아랫사람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말인 '형', '오빠', '삼촌' 등으로 가리킨다. 아들의 직장 사람들에게는 '○○○ 씨' 또는 성이나 성명에 직함을 붙여 '○ 과장', '○○○ 과장', '○ 과장님', '○○○ 과장님'으로 지칭하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이름]', '아들'로 지칭한다.

혼인한 아들을 가족과 친척에게는 '아범', '아비', '○○[이름]'과 손주의 이름을 넣은 '○○[손주] 아범', '○○[손주] 아비'로 지칭하고, 지칭하는 아들보다 아랫사람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말을 지칭으로 한다. 아들의 처부모와 손위 처남 등에게는 '○○[손주] 아범', '○○[손주] 아비'로 지칭하는데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이름]'으로 지칭할 수 있다. 아들 처가의 손아래 동기에게는 '○○[손주] 아범', '○○[손주] 아비'와 그들이 부르는 말을 지칭으로 쓸 수 있다. 아들의 직장 사람들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혼인하기 전의 지칭과 같은 말을 쓴다.

⑤간혹 아들의 직함이나 학위인 '군수', '박사' 등으로 부르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조선조에도 공석에서는 당상관 이상의 아들을 직함으로 호칭, 지칭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나이가 들고 사회적으로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오늘날도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자랑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상대방에 따라 적당히 가려 써야 한다.

딸도 혼인하기 전에는 이름을 부르고 혼인한 뒤에는 외손주에 기대어 '어멈', '○○[외손주] 어멈', '어미', '○○[외손주] 어미'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손주가 곁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름]'이나 서열('첫째', '둘째', '막내' 등) 또는 직함으로 부른다. (지칭도 이와 동일하다.) 딸의 지칭도 아들의 경우와 같이 상황에 따라 '어멈', '○○[외손주] 어멈', '어미', '○○[외손주] 어미'를 쓰고 사돈 쪽 손아래 동기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말을 쓸 수도 있다.

<15-16쪽>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녀 역시 1992와 2011이 대동소이하다.

우선 1992와 2011에서 간혹 관계에 대한 기술 외 ①과 같은 기술이 시작되는 말로 사용되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친밀도는 가족마다 다를 것인데 이를 호칭과 지칭을 다루면서 주관적인 기술이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2018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는 자녀가 자녀를 낳아 손주가 생기면 자녀에 대한 호칭이 손주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손주를 기준으로 '아비/아범', '어미/어멈'으로 부르는 것이 과연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결혼을 하고 자녀(나의 입장에서는 손주)가 생긴다고 하여 자녀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또 그동안 불러왔던 호칭(이름, 서열 등)이 어느 순간 갑자기 쉽게 바뀌어 쓰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여 자식을 낳지 않는 부부도 많기 때문에 이후 '아범', '어멈' 계열의 호칭이나 지칭의 문제는 사용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특히 딸의 경우 그동안 사회생활 없이 가정에서 육아를 주로 담당하였던 것에 비해 갈수록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다 보면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손주] 어멈/어미'로 부르는 것의 적절성은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③은 결혼하지 않은 자녀에 대해, 2011은 '아들'로 한정하여 기술하였는데, 이름이나 서열, 직함으로 호칭과 지칭을 쓸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딸도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름이나 서열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⑤와 같이 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할 만한 위치인 '군수'나 '박사'일 때는 직함으로 부를 수 있는데 자랑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상대방에 따라 가려 써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군수'나 '박사'가 사회적으로 존경할 만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지, 직함으로 부를 때 굳이 사회적으로 존경할 만한 위치인지를 왜 고려해야 하는지, '군수'나 '박사'인 딸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2018은 직함을 부르는 것을 아들에만 한정하거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아들이나 딸 모두 직장에서 '과장'일 때, 경우에 따라 '○[姓] 과장(님)', '○○○ 과장(님)'을 쓸 수 있다고 보았다.

1992 ④는 제사와 관련된 것인데 부모의 경우 '현고(顯考)', '현비(顯妣)' 등을 쓴다고 되어 있고 자녀에 대해서는 '망자(亡子)', '수재(秀才)' 등을 써서 지방(紙榜)이나 축문(祝文)을 쓴다고 설명되어 있다. 지방이나 축문을 쓰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로 언중이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찾아봐야 할 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 1992와 2011까지 나이가 많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다. 요즘에는 자녀들이 결혼을 늦게까지 하지 않거나 손아래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 경우 자녀는 없지만 동생의 자녀인 조카가 있을 수 있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조카 앞에서 서열이나 직함 등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을 한 후에도 상황에 따라 서열이나 직함, 이름 등을 쓸 수 있다고 하면 결혼을 하지 않은 나이 많은 자녀들에 대해서도 서열이나 직함 등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정비안

〔2018〕 아버지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아빠, 아버지	=
지칭	아빠, 아버지, 아버님 ○○[지역] 아빠/아버지 친정아버지(님)[여자] ○○[자녀] 할아버지(님)/외할아버지(님)	= ○○[지역] 아버님 본가 아빠/아버지/아버님[남자/여자], 친정 아빠[여자] (자녀에게) 할아버지(님), 외할아버지(님)

※ '아버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 주로 사용

〔2018〕 어머니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엄마, 어머니	=
지칭	엄마, 어머니, 어머님 ○○[지역] 엄마/어머니 친정어머니[여자] ○○[자녀] 할머니(님)/외할머니(님)	= ○○[지역] 어머님 본가 엄마/어머니/어머님[남자/여자], 친정엄마[여자] (자녀에게) 할머니/할머님

※ '어머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에 주로 사용

〔2018〕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이름], 아범/아비, 어멈/어미, ○○[손주] 아범/아비, ○○[손주] 어멈/어미	= 아들, 딸 ○○[손주] 아빠, ○○[손주] 엄마
지칭	○○[이름], 아범/아비, 어멈/어미 ○○[손주] 아범/아비, ○○[손주] 어멈/어미 (해당 손주에게) 아빠/아버지, 엄마/어머니 (우리) 아들, (우리) 딸 ○○○ 씨, ○ 과장(님), ○○○ 과장(님),	= ○○[손주] 아빠, ○○[손주] 엄마

4.1.2.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서는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부르거나 이르는 호칭과 지칭,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르거나 이르는 호칭과 지칭에 대해 다룬다. 정비의 큰 방향은 다음과 같다.

O 정비 방향

가. 시부모와 본가 부모 사이 비대칭적인 호칭과 지칭을 수정하여 양가 부모를 대등하게 부르고 이른다.

나. 며느리와 사위를 대칭적으로 대우하여 호칭과 지칭을 정비한다.

다. 며느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는 ‘아기’와 같은 호칭이나 지칭은 권장하지 않는다.

O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표 비교

[1] 시아버지

〔1992〕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지칭어

호칭어		아버님
지칭어	시조부모에게	아버님(아버지)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시어머니에게	아버님
	남편에게	아버님
	자녀에게	할아버지(할아버님)
	남편의 동기에게	아버님
	동서에게	아버님
	시댁 친척에게	아버님, [그들이 부르는 대로]
	친정 쪽 사람에게	시아버님, 시아버지, ○○ 할아버지(할아버님)
	타인에게	(시)아버님, ○○ 할아버지(할아버님)

〔2011〕 [표 Ⅰ-4]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아버님
지칭	당사자에게	아버님
	시어머니에게	아버님
	시조부모에게	아버님, 아버지
	남편에게	아버님
	남편의 동기에게	아버님
	남편 동기의 배우자에게	아버님
	자녀에게	할아버지, 할아버님
	시댁 친척에게	아버님
	친정 쪽 사람에게	시아버님, 시아버지, ○○[자녀] 할아버지, ○○[자녀] 할아버님
	그 밖의 사람에게	시아버님, 시아버지, 아버님, ○○[자녀] 할아버지, ○○[자녀] 할아버님

〔2018〕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아버님	= 아버지
지칭	아버지, 아버님 (친부모에게) 시아버지(님) (자녀에게) 할아버지(님) ○○[자녀] 할아버지(님)	= ○○[지역] 할아버지(님)

1992와 2011 간 큰 차이는 '타인에게'가 '그 밖의 사람에게'로 바뀌었고 여기에 '아버님'과 자녀에 기대 이르는 지칭이 추가된 정도이다. 청자의 구분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칭어에 변화가 생기지 않은 셈이다.

▌호칭▐

기존에는 시아버지는 예를 갖춰야 할 대상으로 보아 '아버님'으로만 부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근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친밀함이나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친밀함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시아버지 역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보았다. <국민생각함>의 설문조사 결과 양가 부모님 모두를 '아버지', '어머니'로 불러도 된다는 의견이 '89.6%'(전체 5,700명 응답)였던 점, 심층 면담 결과 시어머니는 '어머니'로 시아버지만 '아버님'으로 높여 불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지칭▐

2018은 지칭을 간소하게 제시하기 위해 청자의 다양한 구분을 없앴다. '당사자(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조부모, 남편, 남편의 동기, 남편 동기의 배우자' 등에게 모두 '아버님'을 쓰기 때문에 나의 자녀, 즉 시아버지의 손주를 청자로 하는 경우만 '할아버지, 할아버님'을 따로 두었다. 한편 '시(媤)-'와 '친(親)-' 구분을 하지 않으려는 정비 방향에 따라 표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본가 아버지와 구별해야 할 경우('친정 쪽 사람에게') '시아버지', '시아버님' 등으로 이르는 말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 역시 필요에 따라 본가의 가족에게 '시아버지', '시아버님' 등으로 이르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자녀에 기대 이르는 '○○[자녀] 할아버지(님)'을 확대하여 '○○[지역] 할아버지' 등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구별 표지도 포함하였다. 자녀(시아버지에게는 손주)가 여럿일 때 보통 맏이의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쓰는 것이 보통이지만 가정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구별 표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

- 친손주와 외손주가 함께 있을 경우 오히려 '부산 할아버지'와 같이 지역 이름을 써서 양쪽 모두에게 같이 이르도록 하는 경우

– 첫째 딸의 자녀가 딸이어서 ‘영희 할아버지’로 이르다가 아들인 둘째가 결혼을 하여 자녀로 아들을 낳았을 때 둘째 아들의 아들 이름을 써서 ‘철수 할아버지’로 바꾸어 부르게 되는 경우

2 시어머니

〔1992〕 시어머니에 대한 호칭·지칭어

호칭어		어머님, 어머니
지칭어	시조부모에게	어머니(님)
	시아버지에게	어머님,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어머니
	남편에게	어머님
	자녀에게	할머니(님)
	남편의 동기에게	어머님
	동서에게	어머님
	시댁 친척에게	어머님, [그들이 부르는 대로]
	친정 쪽 사람에게	시어머님, 시어머니, ○○ 할머니(할머님)
	타인에게	(시)어머님, ○○ 할머니(할머님)

〔2011〕 [표 Ⅰ-5] 시어머니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어머님, 어머니
지칭	당사자에게	어머님, 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어머님, 어머니
	시조부모에게	어머님, 어머니
	남편에게	어머님
	남편의 동기에게	어머님
	남편 동기의 배우자에게	어머님
	자녀에게	할머니, 할머님
	시댁 친척에게	어머님
	친정 쪽 사람에게	시어머님, 시어머니, ○○[자녀] 할머니, ○○[자녀] 할머님
	그 밖의 사람에게	시어머님, 시어머니, 어머님, ○○[자녀] 할머니, ○○[자녀] 할머님

〔2018〕 시어머니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어머님, 어머니	=
지칭	어머니, 어머님 (친부모에게) 시어머니(님) (자녀에게) 할머니(님) ○○[자녀] 할머니(님)	= ○○[지역] 할머니(님)

1992와 2011 간 차이는 ‘타인에게’가 ‘그 밖의 사람에게’로 바뀌었고 여기에 ‘어머님’과 자녀에 기대 이르는 지칭이 추가된 것이 있다. 특이하게 1992에는 ‘동서에게’가 청자 구분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 며느리들 간에 시어머니를 이르는 말을 따로 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2011에서는 ‘남편 동기의 배우자에게’로 되어 있어 며느리 간 또는 며느리와 사위 간 등의 관계를 모두 아우를 수 있게 된 것이 달라진 것이다.[38]

▌호칭▐

기존에도 ‘어머님’과 ‘어머니’를 모두 쓰도록 하였다. 이를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 관계가 친밀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2018에서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 친밀함에는 정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시부모와 며느리 간 친밀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격식을 갖추어야 할 자리,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버님’, ‘어머님’ 등으로 높임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칭▐

2018은 간소화 원칙에 따라 지칭의 다양한 청자 구분을 없앴다. ‘당사자(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조부모, 남편, 남편의 동기, 남편 동기의 배우자’ 등에게 모두 ‘어머님’을 쓰기 때문에 나의 자녀, 즉 시어머니의 손주를 청자로 하는 경우만 ‘할머님, 할머니’를 따로 두었다. 한편 ‘시(媤)-’와 ‘친(親)-’ 구분을 하지 않으려는 정비 방향에 따라 표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는 본가 어머니와 구별해야 할 경우(‘친정 쪽 사람에게’) ‘시어머니’, ‘시어머님’ 등으로 이르는 말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 역시 필요에 따라 본가의 가족에게 ‘시아버지’, ‘시아버님’ 등으로 이르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자녀에 기대 이르는 ‘○○[자녀] 할머니(님)’을 확대하여 ‘○○[지역] 할머니(님)’ 등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구별 표지도 포함하였다. 자녀(시어머니에게는 손주)가 여럿일 때 보통 맏이의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쓰는 것이 보통이지만 가정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구별 표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며느리

〔1992〕 며느리에 대한 호칭·지칭어

호칭어		아가, 새아가, (○○) 어미(어멈), 얘야
지칭어	며느리에게	아가, 새아가, (○○) 어미(어멈), 너
	부모에게	며늘애, ○○ 어미(어멈), ○○ 댁, ○○ 처
	배우자에게	며늘애, 새아가, ○○ 어미(어멈), ○○ 댁, ○○ 처
	아들에게	○○ 어미, 네 댁, 네 처
	손자, 손녀에게	어머니, 엄마, 어미[허용]
	큰아들에게 작은며느리를	○○ 어미, ○○ 댁, 제수, 계수
	작은 아들에게 큰며느리를	○○ 어미, (네) 형수
	큰딸에게 작은며느리를	○○ 어미, 올케, ○○ 댁
	작은딸에게 큰며느리를	○○ 어미, 올케, 새언니

38) 이는 조부모가 손주의 육아를 담당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잘 만나지 않았던 며느리와 사위가 만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지게 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유형이 ‘조부모-부모-자녀’의 3대 직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부모 세대의 형제들 간 교류가 많아지게 되면서 자녀(손주) 세대는 친가와 외가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었다. 아울러 부모 입장에서도 내 자녀와 며느리/사위 등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부르거나 이르지 않고 편하게 부르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남편이나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들을 직접 부르거나 이르는 말에 대한 고려가 예전에 비해 더 필요하게 된 셈이다.

	다른 며느리에게	○○ 어미, 동서, (네) 형
	사위에게	처남의 댁, ○○ 어미, ○○ 댁
	친척에게	며느리, 며늘애, ○○ 댁, ○○ 어미, ○○ 처, [그들이 부르는 대로]
	사돈에게	며늘애, ○○ 어미, [그들이 부르는 대로]
	타인에게	며느리, 새아가

〔2011〕 [표 Ⅰ-6] 며느리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어멈, ○○[손주] 어멈, 어미, ○○[손주] 어미, 아가, 새아가
지칭	당사자에게	어멈, ○○[손주] 어멈, 어미, ○○[손주] 어미, 아기, 새아기
	부모에게	며늘애, 어멈, ○○[손주] 어멈, 어미, ○○[손주] 어미, ○○[아들] 처
	배우자에게	며늘애, 새아기, 어멈, ○○[손주] 어멈, 어미, ○○[손주] 어미, ○○[아들] 댁, ○○[아들] 처
	당사자 남편인 아들에게	어멈, ○○[손주] 어멈, 어미, ○○[손주] 어미, 네 댁, 네 처
	아들에게 동생의 아내를	○○[손주] 어멈, ○○[손주] 어미, ○○[아들] 댁, ○○[아들] 처, 제수, 계수
	아들에게 형의 아내를	○○[손주] 어멈, ○○[손주] 어미, 형수
	딸에게 남동생의 아내를	○○[손주] 어멈, ○○[손주] 어미, 올케, ○○[아들] 댁, ○○[아들] 처
	딸에게 오빠의 아내를	○○[손주] 어멈, ○○[손주] 어미, 올케, 새언니
	다른 며느리에게	○○[손주] 어멈, ○○[손주] 어미, 형, 동서
	사위에게	처남의 댁, 처남댁, ○○[손주] 어멈, ○○[손주] 어미, ○○[아들] 댁, ○○[아들] 처
	손주에게	어머니, 엄마, 어미
	친척에게	며느리, 며늘애, ○○[아들] 댁, ○○[아들] 처, ○○[손주] 어멈, ○○[손주] 어미
	사돈에게	며늘애, ○○[손주] 어멈, ○○[손주] 어미
	그 밖의 사람에게	며느리, 새아기

〔2018〕 며느리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어멈, 어미, ○○[손주] 어멈/어미, 아가, 새아가	= ○○[며느리 이름] 며느리
지칭	어멈, 어미, 새아가 ○○[손주] 어멈/어미 (손주에게) 엄마, 어머니 (가족 외의 사람에게) ○○[아들] 처/댁	= ○○[며느리 이름] (가족 외의 사람에게) ○○[아들] 아내, ○○[손주] 엄마/어머니

며느리에 대한 호칭어와 지칭어 역시 1992와 2011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지칭을 구분하는 방식이 달라졌는데 1992에서 '배우자에게'로 되어 있던 것이 2011에서 '당사자 남편인 아들에게'로 되어 있고 1992에서 '큰 아들, 큰 며느리, 작은 아들, 작은 며느리, 큰 딸, 작은 딸' 등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이 '아들', '동생', '형', '딸' 등 서열이 없이 제시되었다. 1992에서 '타인에게'로 되어 있던 것은 2011에서 '그 밖의 사람에게'로 표현만 바뀌었다.

▌호칭▐

호칭어의 경우 1992에 있던 '얘야'가 2011에서 빠지게 되었는데, 1992의 기술에서 시부모의 말투에 따라 며느리가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고, 그것이 2011에서 삭제되었다. 2018에서는 언중의 언어사용을 관찰한 결과, 가정에 따라 며느리를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서 이름을 부르던 것이 결혼 후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자신의 자녀와 며느리/사위 등을 친밀하게 이름으로 부르는 가정이 있어, 며느리나 사위에 대해 '○○야'와 같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심층 면담의 결과 며느리들이 시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불러주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였다. 시부모가 며느리에 대해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자녀인 아들과 동일하게 부른다면 '○○야'와 같이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것이나,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도 시부모가 며느리를 존중하는 태도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가정마다 분위기에 따라 1992에 제시된 것처럼 '얘야'로 정답게 부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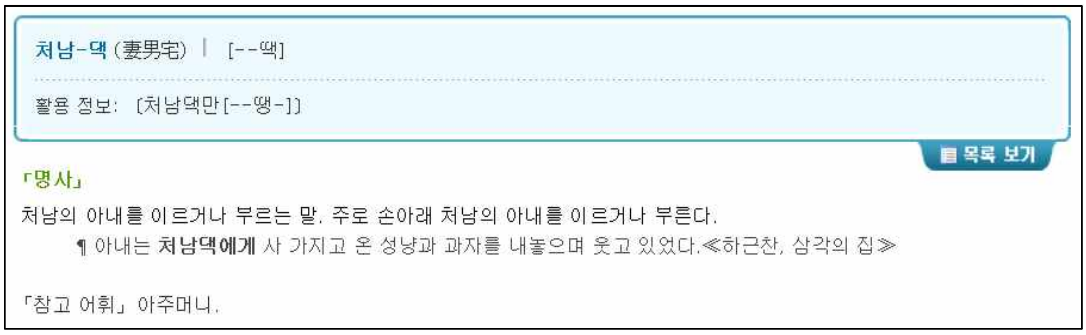
아들이나 딸에 대해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처럼 며느리나 사위에 대해서도 호칭으로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며느리나 사위 역시 아들이나 딸과 같이 애정을 담아 부르는 친근함을 드러내기 위한 호칭이다. 이처럼 2018은 호칭에서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는 부모가 자녀를 부르거나 조부모가 손주를 부르는 경우와 같이 위의 세대가 아래 세대를 부를 때와 형 또는 누나가 동생을 부르는 경우처럼 손위 동기(同氣)가 손아래 동기(同氣)를 부르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 외 결혼을 통해 맺어진 경우에는 '○○[이름] 씨'와 같이 부르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라고 보았다.

한편 심층 면담 중 자신의 자녀와 며느리, 사위를 '아들', '딸', '며느리', '사위'로 부른다는 응답이 있었다. 자신의 자녀를 '아들'이나 '딸'로 부르는 것처럼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호칭을 '며느리', '사위'로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호칭과 지칭을 통용해서 쓸 수 있고 나의 자녀와 결혼한 며느리나 사위를 나의 자녀와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는 점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지칭▐

지칭의 경우 1992는 '큰 아들에게', '큰 며느리를 작은 아들에게', '작은 며느리를 큰 딸에게', '큰 며느리를 작은 딸에게' 등과 같이 '큰', '작은'의 서열을 나누어 구분하였고, 2011은 '아들에게 동생의 아내를', '아들에게 형의 아내를', '딸에게 남동생의 아내를', '딸에게 오빠의 아내를'과 같이 동기의 배우자를 세분하여 지칭어를 쓰도록 하였다. 그런데 실제 지칭어의 사례들은 결국 '제수', '형수', '올케', '새언니' 등 청자와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호칭어를 지칭어로 쓰도록 한 외에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2018은 이를 따로 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2018 정비의 원칙 중 청자와 대상자 간 사용되는 호칭어는 대상자에 대한 지칭어로 통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따른 것이다.

한편 며느리를 다른 며느리에게 이를 때 호칭에 해당하는 '동서'나 '형'을 쓸 수 있으나 호칭어를 지칭어로 통용할 수 있어 표에서 다루지 않았다. 다른 사위에게 이를 때 1992와 2011 모두 '처남의 댁'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사전에 '처남댁'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처남의 댁'은 제외하고 '처남댁'만 써도 충분하다.



◎ 관계에 따라 시부모가 며느리를 이르는 지칭어로 통용하는 호칭어

관계	아들의				나의	
	형	남동생	누나	여동생	다른 며느리에게	다른 사위에게
지칭	제수	형수	올케	새언니	형, 동서	처남댁

지칭 중 1992와 2011에 '당사자에게' 이를 때 '어멈'의 낮춤말에 해당하는 '어미', '○○[손주] 어미' 등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당사자에게 낮추어 이르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 같은 맥락에서 며느리를 '아가'나 '아기'로 부르는 것이 여성을 미숙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연구진 회의를 통해 '아기' 계열은 어린 젖먹이 아이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제외하고 '아가', '새아가' 등은 며느리에 대한 애칭으로 표에 남겨 두기로 하였다. 물론 며느리의 나이가 어리거나 젊을 때, 또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친근하게 부르거나 이르고자 할 때는 '아기', '새아기', '아가', '새아가' 등을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 '아기', '아가', '새아기', '새아가'의 뜻풀이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아기	아가	새아기	새아가
호칭	–	시부모가 젊은 며느리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	–	시부모가 새 며느리를 사랑스럽게 부르는 말.
지칭	나이가 많지 않은 딸이나 며느리를 정답게 이르는 말	–	시부모가 새 며느리를 친근하게 이르는 말.	시부모가 새 며느리를 사랑스럽게 이르는 말.

<참고> 며늘애: 부모나 배우자 앞에서 며느리를 이르는 말. (며늘아이: 표제어 없음)

격식/공식적인 상황에서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손주]) 어멈', '(새)아가' 등으로 부르고 이르는 말 역시 가족 외의 사람에게 '며느리' 등으로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가족 외의 사람에게 '첫째 며느리' 등과 같이 서열을 활용하여 부르거나 상대가 집안의 사정을 잘 알아서 손주나 아들의 이름을 알 경우 '(○○[손주]) 어멈', '○○[아들] 처/댁/아내'와 같이 이를 수도 있다. 손주에게 며느리(손주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됨)를 이를 때 '어미'로 이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어미'가 '어머니'의 낮춤말로서의 용법이 있으므로 굳이 '어미'로 이르지 않고 '엄마'나 '어머니'로 이르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그 배우자인 며느리를 이를 때 1992와 2011 모두 '네 댁, 네 처' 등을 쓸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와 다르게 사위에 대해서는 "딸에게 '네 남편'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사위를 마치 남 가리키는 듯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외손주] 아

빠’도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2011, 29쪽)라고 기술되어 있다. 즉 며느리에 대해서는 ‘네 댁, 네 처’와 같이 이르도록 한 것과 반대로 사위에 대해서는 남을 가리키는 것과 같다 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굳이 며느리와 사위를 다르게 처리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2018은 며느리와 사위에 대해 모두 자신의 아들이나 딸에게 ‘네 댁’, ‘네 처’, ‘네 남편’ 등으로 이르는 것이 마치 남을 가리키는 듯하고 또 아내나 남편을 소유물로 보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가족 외의 다른 사람에게 이를 때 상대방이 내 자녀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아들] 처/댁/아내’, ‘○○[딸] 남편’ 등으로 지칭하는 것은 가능하다.

-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해설 비교

[1] 시아버지

표준 화법 해설(1992)
요즈음은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는 시아버지도 많고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며느리도 흔하다. 이러한 마음은 호칭어에도 나타나서 ①시아버지를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빠’라고 부르는 며느리도 있다. 실제로 시아버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버님’이라고 ‘님’자를 붙여 부르면 거리감이 있으므로 ‘아버지’로 부르자고 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경칭인 ‘아버님’을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어로 사용했고, ①지금도 시아버지는 예의를 갖춰 불러야 할 어려운 대상이므로 ‘아버님’을 표준으로 정했다. ②시아버지를 부르는 말로 ‘아버님’만을 정한 것과 달리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머님’과 ‘어머니’ 두 가지로 하였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갈등도 있지만, 시아버지보다는 친근한 대상이다. 전통적으로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어머니의 경칭인 ‘어머님’을 호칭어로 사용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머니’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이 배인 ‘어머니’라는 호칭이 예의에도 어긋나지 않는 말이라는 데 공감한 것이다. 시아버지에 대한 지칭어는 몇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정했다. 시조부모에게 시아버지를 가리킬 때는 ‘아버님’, ‘아버지’로 하기로 했다. ③시아버지를 시조부모에게 지칭할 때는 ‘아비’처럼 낮춰야 한다는 전통이 있다. 그러나 ‘아비’라고 지칭하는 것은 현실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시아버지를 부르는 말인 ‘아버님’으로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버님’을 표준으로 하고 ‘아버지’도 허용하였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를 지칭할 때는 호칭어와 마찬가지로 ‘아버님’을 표준으로 정하였다. 남편과 남편 동기 및 그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자녀에게 시아버지를 가리킬 때는 자녀의 위치에 서서 ‘할아버지’라고 정하였는데 경칭인 ‘할아버님’도 쓸 수 있다. 시댁 친척에게 시아버지를 지칭하는 말로 ‘아버님’을 정하였다. 물론 나이가 어린 친척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말을 지칭어로 사용할 수 있다. 친정 부모와 친정 친척에게는 ‘시-’를 붙인 ‘시아버님’, ‘시아버지’와 자녀의 이름에 기댄 ‘○○ 할아버지(할아버님)’를 지칭어로 쓰는 것이 좋다. ④현실적으로 ‘시아버지’를 많이 쓰니까 ‘시아버님’은 빼고 ‘시아버지’만 하자는 주장과 다른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시아버지는 ‘님’을 넣은 ‘시아버님’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전통과 현실을 다 존중하기로 하였다.

타인에게 지칭할 때 '시-'를 넣느냐 넣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시-'를 넣지 않아도 '아버님'이라고 하면 '아버지'로 지칭되는 친정 아버지와 구분할 수 있다는 주장과 타인에게 어느 쪽 아버지인지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 '시-'를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다. ⑤이 때는 '아버님', '시아버님' 가운데 하나를 골라 쓰면 된다. 가까운 친구나 잘 아는 이웃에게는 '○○ 할아버지(할아버님)'로 지칭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함께 넣었다.

<18-20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요즈음은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는 시아버지도 많고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며느리도 흔하다. 이러한 마음은 호칭에도 나타나서 ①시아버지를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시아버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버님'처럼 '-님'자를 붙여 부르면 거리감이 있으므로 '이버지'로 불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경칭인 '아버님'을 사아버지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했고, ①지금도 시아버지는 예의를 갖추어 불러야 할 대상이므로 '아버님'이 시아버지를 부르는 바른 호칭이다.

시아버지에 대한 지칭은 몇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아버지를 시부모에게 가리켜 말할 때는 호칭과 마찬가지로 '아버님'이 바른 지칭이다. 시조부모에게 시아버지를 가리킬 때도 '아버님', '아버지'로 지칭한다. ③시아버지를 시조부모에게 지칭할 때는 '아비'처럼 낮추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러나 '아비'라고 지칭하는 것은 현실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시아버지를 부르는 말인 '아버님'으로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버님'이라 하는 것이 원칙이되 '아버지'도 가능하다. 남편과 남편 동기 및 그 배우자에게도 '아버님'을 쓴다.

자녀에게 시아버지를 가리킬 때는 자녀의 위치에 서서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경칭인 '할아버님'을 쓸 수 있다.

시댁 친척에게 시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은 '아버님'이다. 물론 나이가 어린 친척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말로 지칭할 수 있다.

친정 쪽 사람에게는 '시-'를 붙인 '시아버님', '시아버지'와 자녀의 이름에 기댄 '○○[자녀] 할아버지', '○○[자녀] 할아버님'을 지칭으로 쓰는 것이 좋다. ④현실적으로 '시아버지'를 많이 쓰니까 '시아버님'은 빼고 '시아버지'만 하는 주장과 전통 예절에 따라 '-님'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실과 전통을 다 존중하기로 한 것이다.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 '시-'를 넣느냐 넣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시-'를 넣지 않아도 '아버님'이라고 하면 '아버지'로 지칭되는 친정아버지와 구분할 수 있다는 주장과 타인에게 어느 쪽 아버지인지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 '시-'를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다. ⑤이때는 '시아버님', '시아버지', '아버님' 가운데 하나를 골라 쓰면 된다. 가까운 친구나 잘 아는 이웃에게는 '○○[자녀] 할아버지', '○○[자녀] 할아버님'으로 지칭할 수도 있다.

<19-20쪽>

①에서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은 1992와 2011 모두 '아버님'으로 되어 있다. 1992 당시 '아버지'나 심지어 '아빠'와 같이 부르는 경우가 있음에도 존경을 표현해야 할 대상이므로 '아버님'을 표준으로 정한다고 하였고 2011에서는 이것이 바른 호칭이라고 하였다. 여러가지의 호칭 중 하나를 표준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버님'을 바른 호칭이라고 기술할 경우 그 외 호칭들은 바르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이해될 여지가 있다. 게다가 ②와 같이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친근함을

이유로 ‘어머님’과 ‘어머니’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시아버지에 대한 처리와 다르다. 2018은 이를 모두 ‘아버지’, ‘어머니’를 기본으로 하되 격식을 갖춰야 할 자리나 공식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높임을 표현해야 할 때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는 것으로 한다.

한편 시아버지에 대한 지칭은 1992와 2011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양한 청자를 구분하여 지칭어를 제시하였지만 나의 자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아버님’을 쓰는 것으로 정리된다. ③에서 시조부모에게 시부를 지칭하는 말로 ‘아비’와 같이 낮추어 쓰는 것이 전통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1992에서도 현실에서 거의 용법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2018에서도 이를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④, ⑤에서 현실과 전통을 모두 수용하여 친정 쪽 사람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시아버지’나 ‘시아버님’을 모두 쓰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2018은 구분의 표지를 없애는 방향을 취하였으므로 본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르는 경우와 같이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시아버지’와 ‘시아버님’을 쓰되 그렇지 않은 경우 ‘아버지’와 ‘아버님’을 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특히 본가 아버지에 대해 결혼 후에도 ‘아빠’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아버님’이나 ‘아버지’를 쓰는 것으로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격식/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버님’으로 부르거나 또는 ‘아버님’, ‘시아버님’ 등으로 이르는 것을 통해 친근하게 일상적으로 부르거나 이르는 ‘아버지’와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

2 시어머니

표준 화법 해설(1992)

시어머니에 대한 지칭어도 몇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시조부모에게 시어머니를 가리킬 때는 시아버지를 가리킬 때와 같은 이유로 ‘어머니(님)’로 하도록 했고, 시부모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어를 쓰도록 했다. 남편, 남편의 동기 및 그 배우자에게 시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은 ‘어머님’이 좋다.

자녀에게 시어머니를 가리킬 때도 시아버지를 지칭할 때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할머니(님)’로 하였다.

시댁 친척, 친정 부모, 친정 친척, 타인에게 시어머니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시아버지를 지칭할 때와 같이 ‘시어머님’, ‘시어머니’, ‘○○ 할머니(님)’를 쓰는 것이 좋다.

<20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시어머니를 부르는 말은 ‘어머님’과 ‘어머니’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아버지보다는 친근한 대상이다. 전통적으로 시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의 경칭인 ‘어머님’을 호칭으로 사용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머니’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이 배인 ‘어머니’라는 호칭이 예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시어머니에 대한 지칭도 몇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시어머니 본인을 지칭할 때와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나 시조부모에게 지칭할 때에는 ‘어머님’, ‘어머니’로 지칭한다. 남편, 남편의 동기 및 그 배우자에게 시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은 ‘어머님’이다. 자녀에게 시

어머니를 가리킬 때는 ‘할머니’, ‘할머님’으로 지칭한다. 시댁 친척에게는 ‘어머님’이라 지칭하며, 친정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 시어머니를 가리키는 경우는 ‘시어머님’, ‘시어머니’, ‘○○[자녀] 할머니’, ‘○○[자녀] 할머님’으로 쓴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시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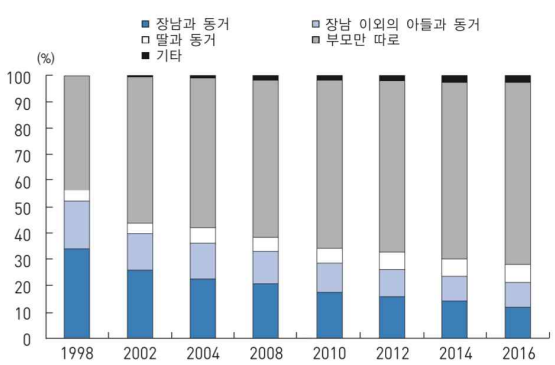
1992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호칭은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을 다루면서 함께 설명하였고 시어머니의 부분에서는 지칭만 다루고 있다. 2011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호칭 역시 1992의 내용과 같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8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 차이를 두지 않고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이 배인 호칭을 굳이 어머니에게만 써야 할 이유가 없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시아버지와 다르게 부르도록 하는 것은 지금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39] <국민생각함>의 설문 결과나 심층 면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후 ‘아버님, 아버지’, ‘어머님, 어머니’를 함께 쓸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시어머니에 대한 지칭 역시 1992와 2011이 크게 다르지 않다. 2011의 경우 ‘시아버지’의 지칭에 준해 기술되어 있는데, [표Ⅰ-4]와 [표Ⅰ-5]의 내용도 대칭을 이루고 있다. 다만 시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님’을,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머님/어머니’를 함께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18에서는 이 둘을 맞춰 시아버지도 ‘아버님/아버지’, 시어머니도 ‘어머님/어머니’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 대한 지칭에 ‘○○[자녀] 할아버지/할머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을 구분 표지로 사용한 지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8에서는 지역 역시 자녀와 함께 구분 표지로 설정하였고 실제 지역을 기준으로 한 사용이 심층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표에 함께 제시하였다.

3 며느리

표준 화법 해설(1992)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르는 말은 ‘아가’, ‘새아가’, ‘(○○) 어미(어멈)’, ‘얘야’를 표준으로 했다. ①이

[그림Ⅱ-1] 노부모의 동거가족, 1998-2016



옆의 그래프는 노부모와 동거하는 자녀의 유형과 비율을 조사한 통계청(2017, 한국의 사회동향 2017)의 자료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98년 장남과 동거하는 비율이 30% 이상, 장남 이외 아들과 동거하는 비율까지 합치면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며느리와 시부모가 한 집에 사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장남과 장남 이외의 아들까지 20% 정도이며 부모만 따로 사는 경우가 오히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언중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변화 역시 빠르게 포착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39) 시부모와 며느리가 한 집에 사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이유를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운데 ‘애야’는 어조에 따라서는 며느리가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할 말이다.

집안에 따라서는 며느리를 ‘새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방에 따라서는 ‘젊은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특정한 가정이나 지방의 말은 참고는 할 수 있으나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표준 화법에서는 제외했다.

며느리를 지칭하는 말도 상황별로 나누어 정하였다.

해당 며느리에게는 ‘아기’, ‘새아기’, ‘(○○) 어미(어멈)’, ‘너’로 가리킨다. 부모에게는 ‘며늘애’, ‘○○ 어미(어멈)’, ‘○○ 댁’, ‘○○ 처’로 지칭하고 ③배우자에게 며느리를 지칭하는 말로 ‘며늘애’, ‘새아기’와 아이의 이름을 넣은 ‘○○ 어미(어멈)’, 아들의 이름을 넣은 ‘○○ 댁’, ‘○○ 처’로 정하였다. ②‘며느리’는 남의 며느리를 지칭하는 느낌도 있고 어른 앞에서 며느리를 낮추는 것이 예의이기도 하여 ‘며느리’로 하지 않고 ‘며늘애’로 하였다. ‘○○ 댁’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댁’이 ‘청주댁’, ‘광주댁’처럼 부인의 친정 동네 이름 밑에 붙어 그 곳에서 온 부인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철수 댁’과 같이 이름 아래에 ‘댁’을 붙인 지칭어는 피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 이름에 ‘댁’을 붙인 지칭어는 아랫사람에게 전통적으로 써 온 것이고 현재도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이므로 써도 좋다는 말이다.

자녀들에게는 ‘○○ 엄마’와 자녀들이 부르는 말인 ‘제수’, ‘형수’, ‘올케’, ‘새언니’, ‘형’ 등으로 가리킨다.

⑥손자, 손녀에게는 ‘어머니’, ‘엄마’를 표준으로 정하고, ‘어미’로 지칭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어머니’라는 지칭어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장성한 손자, 손녀일 경우에 손자, 손녀의 위치에서 지칭할 수도 있고 ‘엄마’를 많이 쓰는 젊은 세대에게 ‘어머니’라는 말을 쓰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어머니’도 포함하였다.

친척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는 ‘며느리’, ‘며늘애’, ‘○○ 어미’, ‘○○ 댁’, ‘○○ 처’로 하였다. 친척 중 윗사람에게는 ‘며늘애’가 가능하지만 아랫사람에게는 ‘-애’가 붙은 ‘며늘애’보다는 ‘며느리’가 적당하다. 물론 어린 친척에게는 ‘아주머니’와 같이 그들이 부르는 말로 지칭할 수도 있다.

⑦며느리의 친부모인 사돈에게는 ‘며늘애’, ‘○○ 어미’로 하였다. 아이가 없을 때는 ‘며늘애’, 아이가 있을 때는 ‘며늘애’, ‘○○ 어미’로 지칭하는 것이 좋다. 사돈의 위치에 서서 ‘따님’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으나 이미 내 쪽 사람이므로 제외했다. 며느리의 손아래 동기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말인 ‘누나’, ‘언니’로 지칭할 수 있다.

타인에게는 ‘새아기’, ‘며느리’로 지칭하기로 하였다. 며느리의 호칭어 가운데 하나인 ‘아기’는 손자, 손녀를 지칭할 수도 있는 말이므로 제외하였다.

<21-23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르는 말은 ‘어멈’, ‘○○[손주] 어멈’, ‘어미’, ‘○○[손주] 어미’, ‘아가’, ‘새아가’가 표준이다. 집안에 따라서는 며느리를 ‘새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젊은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특정한 가정이나 지역의 말은 참고할 수는 있으나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표준 언어 예절로 볼 수는 없다.

며느리를 지칭하는 말도 상황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당 며느리에게는 ‘어멈’, ‘○○[손주] 어멈’, ‘어미’, ‘○○[손주] 어미’, ‘아기’, ‘새아기’로 가리킨다. ①시부모가 며느리와 친밀할 경우에 ‘너’라고 부르는 일도 있지만, ‘너’는 며느리를 가벼이 대하는 느낌이 있으므로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에게는 며느리를 ‘며늘애’, ‘어멈’, ‘○○[손주] 어멈’, ‘어미’, ‘○○[손주] 어미’, ‘○○[아들] 처’로 지칭하고, 배우자에게는 ‘며늘애’, ‘새아기’, ‘어멈’, ‘어미’와 손주의

이름을 넣은 ‘○○[손주] 어멈’, ‘○○[손주] 어미’, 아들의 이름을 넣은 ‘○○[아들] 댁’, ‘○○[아들] 처’로 지칭한다. ②‘며느리’는 남의 며느리를 지칭하는 느낌도 있고 어른 앞에서 며느리를 낮추는 것이 예의이기도 하므로 ‘며느리’보다는 ‘며늘애’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당사자의 남편인 아들에게는 ‘어멈’, ‘○○[손주] 어멈’, ‘어미’, ‘○○[손주] 어미’, ‘네 댁’, ‘네 처’ 등을 쓴다. 아들에게 동생의 아내를 지칭할 때는 ‘○○[손주] 어멈’, ‘○○[손주] 어미’, ‘○○[아들] 댁’, ‘○○[아들] 처’, ‘제수’, ④‘계수’ 등을 쓴다. 또한 아들에게 형의 아내를 지칭할 때는 ‘○○[손주] 어멈’, ‘○○[손주] 어미’, ‘형수’를 쓴다.

딸에게 남동생의 아내를 지칭할 때는 ‘○○[손주] 어멈’, ‘○○[손주] 어미’, ‘올케’, ‘○○[아들] 댁’, ‘○○[아들] 처’를 쓴다. 딸에게 오빠의 아내를 지칭할 때는 ‘○○[손주] 어멈’, ‘○○[손주] 어미’, ‘올케’, ‘새언니’를 쓴다.

자녀에게 그들의 형이나 오빠의 부인을 ‘○○[형이나 오빠] 댁’, ‘○○[형이나 오빠] 처’로 가리키지 않는 것은 남동생이나 여동생에게 형이나 오빠의 이름을 대면 그 형이나 오빠 그리고 그 부인을 대접하지 않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며느리를 다른 며느리에게 가리킬 때는 ‘○○[손주] 어멈’, ‘○○[손주] 어미’, ‘형’, ‘동서’를 쓴다. 사위에게 가리킬 때는 ⑤‘처남의 댁’, ‘처남댁’, ‘○○[손주] 어멈’, ‘○○[손주] 어미’, ‘○○[아들] 댁’, ‘○○[아들] 처’를 쓸 수 있다.

⑥손주에게 며느리를 가리킬 때는 ‘어머니’, ‘엄마’가 원칙이되, ‘어미’로 지칭하는 것도 가능하다. 친척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는 ‘며느리’, ‘며늘애’, ‘○○[아들] 댁’, ‘○○[아들] 처’, ‘○○[손주] 어멈’, ‘○○[손주] 어미’로 지칭한다. 친척 중 윗사람에게는 ‘며늘애’가 가능하지만 아랫사람에게는 ‘며늘애’보다는 ‘며느리’가 적당하다. 물론 나이 어린 친척에게는 ‘아주머니’와 같이 그들이 부르는 말로 지칭할 수도 있다.

⑦며느리의 친부모인 사돈에게는 ‘며늘애’, ‘○○[손주] 어멈’, ‘○○[손주] 어미’로 지칭한다. 아이가 없을 때는 ‘며늘애’, 아이가 있을 때는 ‘며늘애’와 함께 ‘○○[손주] 어멈’, ‘○○[손주] 어미’로 지칭하는 것이 좋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며느리’, ‘새아기’로 지칭한다. ‘아기’는 손주를 지칭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2-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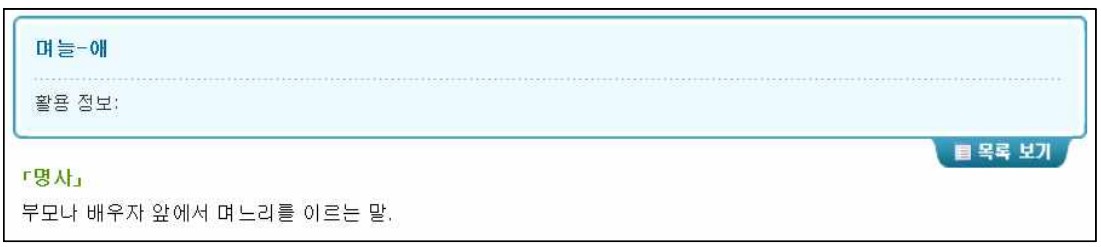
1992의 ①에서는 며느리를 ‘얘야’로 부를 때는 어조에 따라 며느리가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한다고 했다. 2018에서는 심층 면담 등의 응답에 근거하여 ‘○○아’와 같이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포함하였는데 이 역시 며느리가 거부감 없이 수용할 경우에 가능할 것이다. 결혼 후에도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 며느리나 사위가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면 자연스럽게 결혼 후에도 자녀와 같이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것이다. 한편 며느리에 대해 결혼 초에 ‘새아가’, ‘아가’ 등으로 부를 수 있으나 결혼한 지 오래된 경우에까지 ‘아가’, ‘새아가’로 부르기보다는 ‘○○[손주] 어멈’ 등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다만 손주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아’와 같이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에 비해 2011의 ①에서는 며느리를 ‘너’라고 부르는 일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며느리를 ‘가벼이 대하는’ 느낌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우선 지칭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부르는 일’이 아니라 ‘이르는 일’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 앞서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시부모와 며느리 간 친밀함이 있거나 이름으로 불리는 당사자, 즉 며느리

가 이를 수용할 경우 가능한 일이다. ‘너’로 이르는 것 역시 상황에 따라 시부모가 며느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심층 면담의 결과 며느리에 대해 ‘야’, ‘너’로 부르거나 이르는 경우는 모든 연령층에서 거의 드물었다. 시부모도 며느리를 이름으로 부르거나 이르고 며느리도 이름으로 불리길 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야’, ‘너’ 등으로 가벼이 부르거나 이르는 것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③의 ‘네 댁’이나 ‘네 처’ 등으로 지칭하는 것은 사위에 대해 ‘네 남편’이라고 하였을 때 사위를 멀게 대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과 비교해 보면 대칭적이지 않다. 며느리와 사위 양쪽을 모두 쓰거나 모두 쓰지 않는 쪽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아들이나 딸에게 배우자를 지칭하면서 ‘네 아내’, ‘네 남편’으로 하는 것은 며느리나 사위를 멀게 대하는 느낌이 들 수 있고 또 자녀의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가족 외의 사람에게 며느리나 사위를 지칭하면서 ‘○○[나의 아들 이름] 아내’, ‘○○[나의 딸 이름] 남편’ 정도로 이르는 것은 많이 사용되고 있다.

②의 ‘며늘애’는 부모나 내 배우자에게 며느리를 이를 때 쓰는 말인데 ‘며느리’로 지칭한다고 해서 남의 며느리를 이르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상황이 특별히 ‘며느리’의 경우에만 있다고 할 수 없고 며느리를 굳이 낮춰 ‘며늘애’로 아이 취급을 하여 지칭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기술 역시 수정될 필요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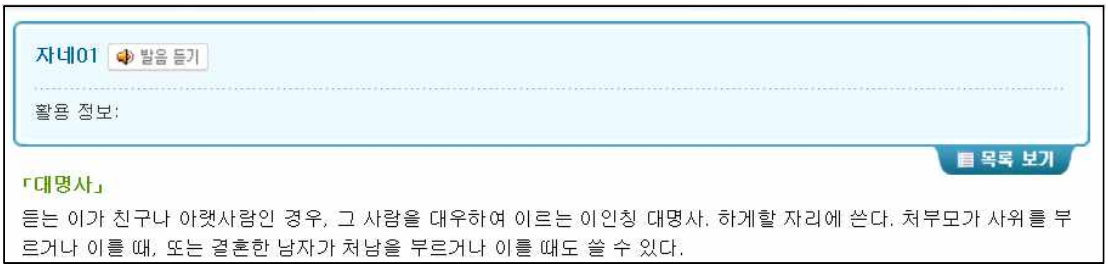
④ ‘계수’는 ‘제수’가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제수’만 지칭어로 두어도 충분할 것이다. 역시 ⑤ ‘처남의 댁’도 이미 사전에 ‘처남댁’이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처남댁’으로만 사용해도 충분할 것이다. 한편 ⑥ 손주나 ⑦ 며느리의 친부모인 사돈에게 며느리를 지칭하면서 굳이 ‘어미’로 낮춰 지칭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손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머니이고 사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인데 시부모가 나의 어머니 또는 나의 딸을 낮춰 이르는 것이 청자인 손주나 사돈에게 좋게 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돈에게 며느리를 이를 때는 ‘새아기’ 정도로 하여 친근함을 표현할 수 있는 지칭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자문회의 등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어미’, ‘아비’ 등은 사라져가는 어휘이고 심층 면담을 통해서도 사용이 거의 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11에서 며느리와 사위에 대한 지칭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 며느리와 사위에 대한 지칭의 차이 (2011 기준)

	며느리에 대한 지칭	사위에 대한 지칭
당사자에게	어멈, ○○[손주] 어멈, 어미, ○○[손주] 어미, 아기, 새아기, 너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비, ○ 서방, 자네
부모에게	어멈, ○○[손주] 어멈, 어미, ○○[손주] 어미, 며늘애, ○○[아들] 처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비, ○ 서방
배우자에게	어멈, ○○[손주] 어멈, 어미, ○○[손주] 어미, 며늘애, 새아기, ○○[아들] 댁, ○○[아들] 처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비, ○ 서방
당사자의 배우자에게 (나의 아들과 딸)	어멈, ○○[손주] 어멈, 어미, ○○[손주] 어미, 네 댁, 네 처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비, ○ 서방
친척에게	○○[손주] 어멈, ○○[손주] 어미, 며느리, 며늘애, ○○[아들] 처	–
사돈에게	○○[손주] 어멈, ○○[손주] 어미, 며늘애	–
그 밖의 사람에게	며느리, 새아가	○○[외손주] 아버지, ○○[외손주] 아빠, ○ 서방, 사위

아들이나 딸의 동기와 그 배우자들에게 이르는 경우에서는 관계에 따른 호칭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오히려 비대칭성이 드러나지 않는 반면, 당사자에게나 친척, 사돈, 그 밖의 사람에게 이르는 경우 비대칭성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당사자에게 이르는 경우 며느리에 대해서는 '아기/새아기' 등으로 이르는 데 비해 사위에 대해서는 '자네'라고 대우하여 이르도록 하였다. 특히 '자네'는 2인칭 대명사로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어휘이기도 하다. 사위와 처부모가 자주 만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시부모와 며느리, 처부모와 사위 간의 친밀함의 정도가 다르지 않다고 보면 굳이 사위에 대해서만 '자네'로 지칭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편 1992에서 '아범' 계열은 사위에 대한 지칭어로 많이 쓰이지 않았다. 호칭어로 쓰일 때와 장인, 장모가 대화하면서 쓰이는 정도였던 것이 2011에 들어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사위를 지칭하는 말로 제시되었다. 다만 이때 외손주에 기대서만 쓰도록 하였는데 2018에서는 며느리와 계열을 맞춰 '아범, 아비'만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에는 '아비'나 '아범'이 사위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로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딸이 자신의 시부모나 처부모에게 자신의 남편을,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이르는 말 등의 용법이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하여 처부모가 사위를 이르는 말로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의 사람에게 이를 때 사위는 외손주에 기대어 '○○[외손주] 아버지/아빠'를 쓰고 며느리에 대해서는 '○○[손주] 어머니/엄마'가 빠져 있는데, 외손주의 경우에만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며느리를 가족 외의 다른 사람에게 이를 때도 손주의 이름에 기댄 '○○[손주] 어머니/○○엄마'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o <소통을 위한 언어예절>(2018) 정비안

〔2018〕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아버님	= 아버지
지칭	아버지, 아버님 (친부모에게) 시아버지(님) (자녀에게) 할아버지(님) ○○[자녀] 할아버지(님)	= ○○[지역] 할아버지(님)

〔2018〕 시어머니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어머님, 어머니	=
지칭	어머니, 어머님 (친부모에게) 시어머니(님) (자녀에게) 할머니(님) ○○[자녀] 할머니(님)	= ○○[지역] 할머니(님)

〔2018〕 며느리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어멈, 어미, ○○[손주] 어멈/어미, 아가, 새아가	= ○○[며느리 이름] 며느리
지칭	어멈, 어미, 새아가 ○○[손주] 어멈/어미 (손주에게) 엄마, 어머니 (가족 외의 사람에게) ○○[아들] 처/댁	= ○○[며느리 이름] (가족 외의 사람에게) ○○[아들] 아내, ○○[손주] 엄마/어머니

4.1.3. 처부모와 사위 사이

‘처부모와 사위 사이’에서는 장인과 사위, 장모와 사위 간의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해 다루는데 정비의 큰 방향은 다음과 같다.

O 정비 방향

가. 처부모와 본가 부모 사이 비대칭적인 호칭과 지칭을 수정하여 양가 부모를 대등하게 부르고 이른다.

나. 사위와 며느리를 대칭적으로 대우하여 호칭과 지칭을 정비한다.

다. 자녀, 지역, 관계 등을 활용하여 이르는 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O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표 비교

1 처부모

〔1992〕 장인에 대한 호칭·지칭어

호칭어		장인 어른, 아버님
지칭어	장인에게	장인 어른, 아버님
	장모에게	장인 어른, 아버님
	아내에게	장인 (어른), 아버님
	부모와 동기에게	장인 (어른), ○○ 외할아버지
	친척에게	장인 (어른), ○○ 외할아버지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장인 어른, 아버님
	자녀에게	외할아버지(외할아버님)
	타인에게	장인 (어른), ○○ 외할아버지

〔2011〕 [표 Ⅰ-7] 장인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장인어른, 아버님
지칭	당사자에게	장인어른, 아버님
	장모에게	장인어른, 아버님
	아내에게	장인어른, 아버님, 장인
	부모와 동기, 친척에게	장인, 장인어른, ○○[자녀] 외할아버지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장인어른, 아버님
	자녀에게	외할아버지, 외할아버님
	그 밖의 사람에게	장인, 장인어른, ○○[자녀] 외할아버지, ○○[자녀] 외할아버님

〔2018〕 장인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장인어른, 아버님	= 아버지
지칭	장인어른, 아버님 (친부모에게) 장인(어른) (자녀에게) (외)할아버지 ○○[자녀] 할아버지(님), ○○[자녀] 외할아버지(님)	= 아버지 ○○[지역] 할아버지(님)

〔1992〕 장모에 대한 호칭·지칭어

호칭어		장모님, 어머님
지칭어	장인에게	장모님, 어머님
	장모에게	장모님, 어머님
	아내에게	장모, 장모님, 어머님
	부모와 동기에게	장모(님), ○○ 외할머니
	친척에게	장모(님), ○○ 외할머니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장모님, 어머님
	자녀에게	외할머니(님)
	타인에게	장모, 장모님, ○○ 외할머니

〔2011〕 [표 Ⅰ-8] 장모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장모님, 어머님
지칭	당사자에게	장모님, 어머님
	장인에게	장모님, 어머님
	아내에게	장모님, 어머님, 장모
	부모와 동기, 친척에게	장모, 장모님, ○○[자녀] 외할머니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장모님, 어머님
	자녀에게	외할머니, 외할머님
	그 밖의 사람에게	장모, 장모님, ○○[자녀] 외할머니, ○○[자녀] 외할머님

〔2018〕 장모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장모님, 어머님	= 어머니
지칭	장모님, 어머님 (친부모에게) 장모(님) (자녀에게) (외)할머니(님) ○○[자녀] 할머니(님), ○○[자녀] 외할머니(님)	= 어머니 ○○[지역] 할머니(님)

1992와 2011 간 큰 차이는 '타인에게'가 '그 밖의 사람에게'로 바뀌었고 여기에 '아버님'과 자녀에 기대 이르는 지칭이 추가된 정도이다. 1992에서 '장인 어른'으로 명사구 처리되었던 것이 2011에 들어 한 단어가 되어 '장인어른'으로 바뀌었다. 청자의 구분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부모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은 셈이다.

▌호칭▐

2018 정비안에서 호칭 중 가장 큰 변화는 처가 부모에 대해 시가 부모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위와 처가의 관계가 며느리와 시가의 관계보다 긴밀한 경우도 있고 또 어린 자녀의 육아를 시가와 처가가 함께 맡아주는 등 과거와는 다르게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사위가 예전처럼 ‘백년손님’이라 하여 늘 어렵게 대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생활을 함께 하며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되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실제 언중의 사용이나 심층 면담의 결과를 고려한다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부르는 것이 가능하다. 심층면담의 응답에서는 처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는 것에 대해 40-50대는 좋다고 응답한 반면 60대 이상은 ‘장인’과 ‘장모’를 쓰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오히려 20-30대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호칭이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국민생각함>의 설문에서는 양가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로 동일하게 부르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9.6%가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온 ‘장인어른’, ‘장모님’과 1992나 2011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한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2018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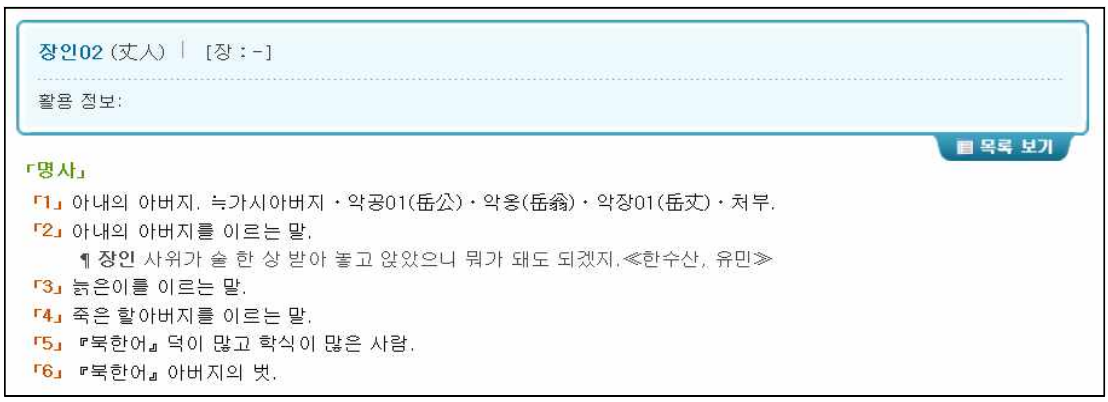
처가 부모에 대한 지칭은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장인어른’, ‘장모님’, ‘아버님’, ‘어머님’을 기본으로 장인과 장모, 아내, 부모나 동기, 친척 등에게 두루 사용할 수 있다. 격식적인 상황에서 처가 부모를 높여 이를 때는 ‘장인어른’, ‘장모님’을 사용하고 가족끼리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친근하게 이를 때는 ‘아버지’, ‘어머니’ 등으로 지칭어를 쓸 수도 있다.

요즈음은 누가 육아에 도움을 주는지에 따라 친가와 외가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외조부모에 대해 따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등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이를 때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지칭을 사용할 수 있고 친가의 조부모와 구분이 꼭 필요할 경우 전통적인 용법에 따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높여서 지칭해야 할 상황이나 그 밖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 격식적으로 이를 필요가 있다면 ‘(외)할아버님’, ‘(외)할머님’ 등으로 지칭한다.

한편 ‘○○[자녀] (외)할아버지’, ‘○○[자녀] (외)할머니’와 같이 자녀의 이름에 기대에 지칭할 경우 첫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데 첫 자녀가 딸일 경우 이후에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로 바꾸어 부르는 가정도 있다. 어떤 자녀의 이름에 기대 부를 것인가는 전적으로 각 가정의 편의와 가풍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아울러 자녀의 이름 외에도 거주하는 지역이나 직함 등 다양한 구별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역] 할아버지’, ‘○○[지역] 할머니’ 등의 특정한 구별 표지는 자녀에게뿐 아니라 가족 간, 또는 가정의 사정을 잘 아는 친한 사람들 간에서 쓸 수 있다.

처부모에 대한 지칭으로 ‘장인’과 ‘장모’를 쓸 수 있는데 나의 부모가 아내의 부모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또는 조부모에게 이르는 경우 등 처부모를 높이지 말아야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

용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처부모도 나의 부모와 동일하게 높여서 지칭을 사용한다. 아울러 2011에서 처부모를 친부모 등 자기 쪽 사람에게 '아버님', '어머님'으로 지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처부모를 친부모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지칭어로 사용하면 된다.



장인02 (丈人) | [장 : -]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1」 아내의 아버지. ≒가시아버지 · 악공01(岳公) · 악옹(岳翁) · 악장01(岳丈) · 처부.

「2」 아내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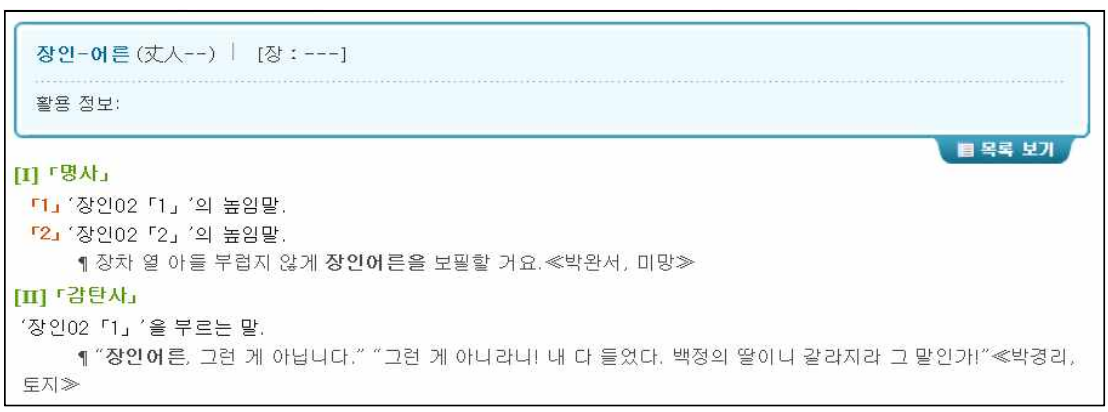
¶ **장인** 사위가 술 한 상 받아 놓고 앉았으니 뭐가 돼도 되겠지.≪한수산, 유민≫

「3」 늙은이를 이르는 말.

「4」 죽은 할아버지를 이르는 말.

「5」 『북한어』 덕이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

「6」 『북한어』 아버지의 벗.



장인-어른 (丈人--) | [장 : ---]

활용 정보:

목록 보기

[I] 「명사」

「1」 '장인02 「1」'의 높임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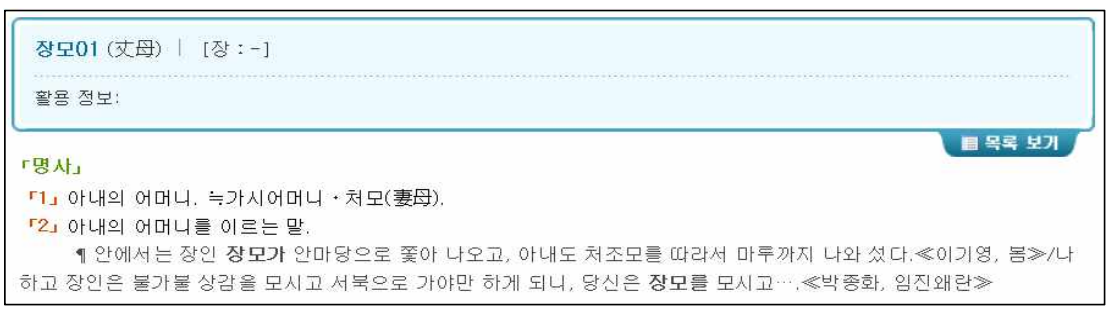
「2」 '장인02 「2」'의 높임말.

¶ 장차 열 아들 부럽지 않게 **장인어른**을 보필할 거요.≪박완서, 미망≫

[II] 「감탄사」

'장인02 「1」'을 부르는 말.

¶ "**장인어른**,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 내 다 들었다. 백정의 딸이니 갈라지라 그 말인가!"≪박경리, 토지≫



장모01 (丈母) | [장 : -]

활용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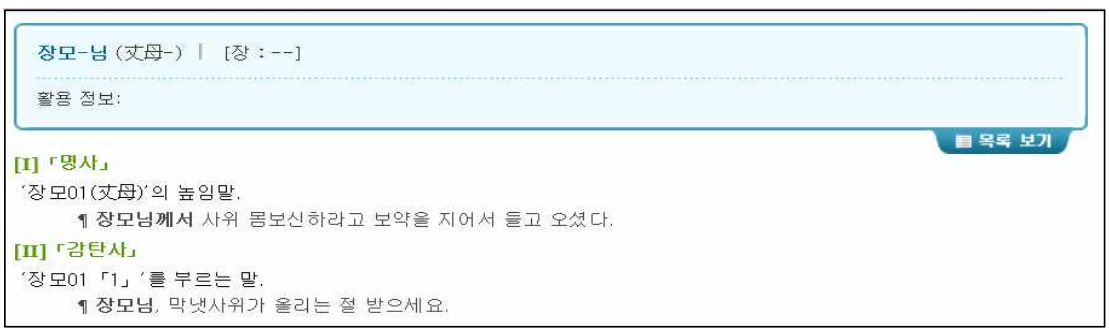
목록 보기

「명사」

「1」 아내의 어머니. ≒가시어머니 · 처모(妻母).

「2」 아내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 안에서는 장인 **장모가** 안마당으로 쫓아 나오고, 아내도 처조모를 따라서 마루까지 나와 섰다.≪이기영, 봄≫/나하고 장인은 불가불 상감을 모시고 서북으로 가야만 하게 되니, 당신은 **장모**를 모시고….≪박종화, 임진왜란≫



장모-님 (丈母-) | [장 : --]

활용 정보:

목록 보기

[I] 「명사」

'장모01(丈母)'의 높임말.

¶ **장모님께서** 사위 몸보신하라고 보약을 지어서 들고 오셨다.

[II] 「감탄사」

'장모01 「1」'를 부르는 말.

¶ **장모님**, 막냇사위가 올리는 절 받으세요.

2 사위

〔1992〕 사위에 대한 호칭·지칭어

호칭어		○ 서방, ○○ 아비(아범), 여보게
지칭어	사위에게	○ 서방, 자네
	딸에게	○ 서방
	장인, 장모가 대화하면서	○ 서방, ○○ 아비(아범)
	사돈에게	○ 서방
	아들에게	○ 서방, 매부, 매형, 자형
	다른 딸에게	○ 서방, 형부
	며느리에게	○ 서방
	다른 사위에게	○ 서방
	외손자, 외손녀에게	아버지, 아빠
	타인에게	사위, ○ 서방, ○○ 아버지(아빠)

〔2011〕 [표 Ⅰ-9] 사위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 서방,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비, 여보게
지칭	당사자에게	○ 서방, 자네,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비
	부모에게	○ 서방,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비
	당사자의 아내인 딸에게	○ 서방,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비
	배우자에게	○ 서방,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비
	사돈에게	○ 서방,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비
	아들에게	○ 서방, 매형, 자형, 매부, 매제
	당사자의 아내가 아닌 다른 딸에게	○ 서방, 형부, 제부
	며느리에게	○ 서방
	다른 사위에게	○ 서방
	외손주에게	아버지, 아빠
	그 밖의 사람에게	사위, ○ 서방, ○○[외손주] 아버지, ○○[외손주] 아빠

〔2018〕 사위에 대한 호칭,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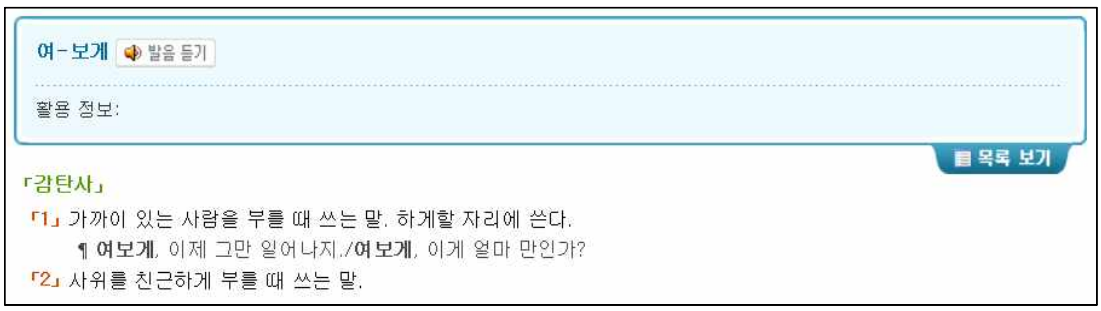
	전통	가능
호칭	○ 서방, ○○[외손주] 아범/아비, 여보게	= ○○[사위의 이름] 사위
지칭	○ 서방, 사위, 아범, 아비, 자네 ○○[외손주] 아범/아비, ○○[외손주] 아빠/아버지 (손주에게) 아빠, 아버지	= ○○[사위의 이름] (가족 외의 사람에게) ○○[딸] 남편

1992와 2011 간 큰 차이는 호칭과 지칭에 두루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비'를 '○ 서방'과 함께 쓸 수 있도록 추가한 부분이다. 나의 아들이 사위를 부르는 호칭에 해당하는 '자형', '매부', '제부' 등이 고루 지칭어에 추가되었고 딸이 부르는 '제부' 역시 새롭게 추가되었다. 특이한 것은 1992에 '장인, 장모가 대화하면서'라는 장면이 지칭의 구분에 들어 있었는데 2011에서는 이 부분이 빠지고 '배우자에게'로 처리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칭어 2011은 1992에 비해 '○ 서방'을 기본으로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비'가 추가되었고 그 외 관계에

따른 호칭어를 지칭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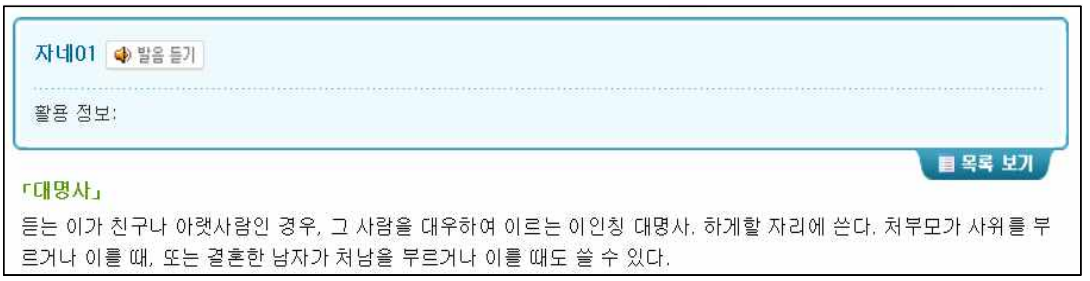
2018 정비안 중 호칭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위에 대해서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가족 간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나의 자녀와 같이 사위 역시 호칭으로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있다. 처부모도 부모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직접 부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며느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위가 처부모로부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사위에 대한 호칭 중 '여보게'는 '하게체' 사용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호칭이므로 굳이 삭제하지는 않았다.



사위를 부르는 말로 '사위'를 쓴다는 심층 면담 결과도 있었는데 당사자들 간 호칭의 문제는 자유롭게 결정하여 쓰는 것이므로 '사위'라고 부를 수 있다. 앞서 자녀에 대해 '아들', '딸', '며느리'를 호칭으로 추가한 것처럼 사위에 대해서도 '사위'를 호칭어로 추가하였다.

▌지칭▐

지칭은 기본적으로 '○ 서방'을 두루 쓰고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비'도 쓸 수 있다. 사위 당사자에게 '자네'로 이를 수 있다고 하였는데,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므로 굳이 처부모와 사위 사이에서만 쓰인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며느리는 '아가', '며늘애' 등으로 아이처럼 취급하여 부르는 것에 비해 사위만 대접하여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 '여보게'와 마찬가지로 '하게체'를 사용할 때 주로 쓰이기 때문에 '하게체'가 점차 쓰이지 않게 되면서 '자네'의 사용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통적인 용법으로 표에는 남겨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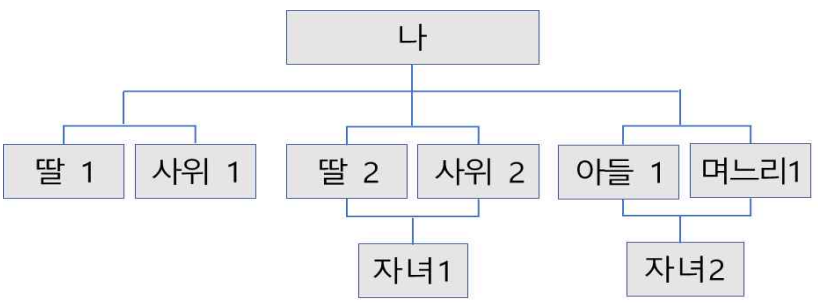
청자가 사위와 같은 항렬에 해당하는 나의 아들, 딸, 다른 사위, 며느리 등일 경우 기본적으로 '○ 서방'을 두루 사용하되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청자가 사위를 부르는 호칭을 지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1992에서는 '매부'나 '형부' 정도만 언급되었으나 2011에서 아들에게 사위를 이를 경우 '매부', '매제', '제부', '자형', 다른 딸에게 사위를 이를 경우 '형부', '제부'를 지칭으로 쓸 수 있다고 하였다. 2018은 정비의 방향으로 호칭어를 지칭어로 사용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기 때문에 표에 이것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 딸의 동기와 그 배우자를 청자로 할 때 사위의 지칭

관계	청자가 사위에게 사용하는 호칭에 기반한 지칭	자녀에 기반한 지칭	기본 지칭
사위 당사자에게	-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비,	○ 서방
아들에게	매형/자형/매부/매제		
다른 딸에게	형부/제부	○○[외손주] 고모부 ○○[외손주] 이모부	
다른 사위에게	형님, 동서		
다른 며느리에게	아주버님, 서방님		

며느리와 사위가 가깝게 지내는 일이 예전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나 지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사위에 대한 지칭에서도 기준이 되는 '외손주'가 해당 사위와 딸 사이의 자녀일 수도 있으나 만일 자녀가 없을 경우라면 청자의 자녀에 기반하여 지칭할 수도 있을 텐데 이 경우 청자의 자녀와 해당 사위의 관계에 기대 '고모부'나 '이모부'를 지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딸1'과 '사위1' 간에 자녀가 없다면 자녀에 기댄 지칭을 쓰기 어렵다. 이런 경우 '사위1'을 '사위2'에게 지칭할 때 '형님' 또는 '자녀1'에 기대 '○○[자녀1] 이모부', '며느리1'에게 '사위1'을 지칭할 경우 '○○[자녀2] 고모부' 등의 지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며느리에 대해서는 친척이나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는 말에 대해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비해 사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다. 며느리에 대해 가족 외의 사람에게는 '○○[아들] 처', '○○[아들] 댁'뿐 아니라 '○○[아들] 아내' 등으로 지칭을 쓰는데 사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2018은 며느리와 사위를 대칭적으로 맞춰 '○○[딸] 남편'으로 지칭하는 것을 추가하여 가족 외의 사람에게 사위를 이를 때 상대방이 나의 딸을 알고 있다면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며느리에 대해서는 그 자녀에게 '어미'로 지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굳이 자녀에게 그 부모를 '어미'나 '아비' 등으로 낮춰 이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며느리를 그 자녀, 즉 손주에게 지칭할 때 '어미'를 제외한 것처럼 사위에 대해서도 그 자녀(외손주)에게 '아비'라고 지칭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o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해설 비교

[1] 처부모

표준 화법 해설(1992)

아내의 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은 역시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①세태가 바뀌어 요즘은 사위를 친자식처럼 생각하는 처부모도 많고, 사위 쪽에서도 처가 쪽의 출입이 옛날보다 현저하게 잦아진 것이 현실이다.

②처부모 호칭에 대해서도 지역간,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 연세 드신 분 가운데 친부모를 일찍 여읜 어떤 분은 '아버님', '어머님' 하는 것이 훨씬 친근하게 느껴져서 이미 20년 전 결혼할 때부터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으로 불렀다고 한다. 또 이북 출신인 70대의 어떤 분은 자신이 장인을 '아버님'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결혼한 아들이 처부모를 '아버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도 했다. 그러나 중부 지방 출신의 어떤 연세 드신 분은 '아버님', '어머님' 또는 '아버지', '어머니'는 자신을 낳아 준 부모 외에는 쓸 수 없는 말이므로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는 것은 언어 현실이 어떻든 인륜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자가 시집을 가서 며느리가 되면 시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는데 사위도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에 널리 퍼진 생각이고, 또 실제로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 나아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③친구의 부모나 심지어 하숙집 주인에게까지도 '아버님', '어머님' 하는 것이 널리 퍼진 현실에 비추어 처부모에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못 할 이유는 없다.

'어머니'라는 말이 원래는 혈연 관계가 없던 사람에게는 쓰이지 않던 말인데 요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쓰이는 것을 보면 '아버님', '어머님'의 변화의 속도가 문제이지 결국 앞으로는 장인, 장모를 부르는 말로 일반화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④따라서 처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 친부모에게처럼 '아버지', '어머니' 하는 것은 곤란하나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장인 어른', '장모님'과 함께 '아버님', '어머님'도 표준으로 정하였다.

한편 자신의 장인, 장모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 '빙장 어른', '빙모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 말은 원래 다른 사람의 처부모를 높여 가리킬 때 쓰는 말이므로 자신의 처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에는 쓸 수 없는 말이다.

아내에게 처부모를 가리킬 때는 ⑤‘장인’, ‘장인 어른’, ‘아버님’, ‘장모’, ‘장모님’, ‘어머님’으로 하였다. ⑥‘○○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도 가능하겠지만 간접 호칭이므로 아내에게 지칭하는 말로 권장할 것이 못 된다.

친부모나 친척에게 처부모를 가리킬 때는 ‘장인’, ‘장모’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처부모의 나이가 훨씬 많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장인 어른’, ‘장모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자녀에 기대어 ‘○○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라고 해도 된다. 그러나 친부모 등 자기 쪽 사람에게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⑦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들에게는 ‘장인 어른’, ‘장모님’, ‘아버님’, ‘어머님’으로 하였다. 아내의 동기들이 부르는 대로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신의 자녀에 기대어 ‘○○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모두 간접 호칭이므로 제외하였다.

자녀에게 처부모를 지칭할 경우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 정하였다.

타인에게 지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장인’, ‘장모’라고 할 수 있고, 처부모를 높여서 이야기해도 되는 사대라면 ‘장인 어른’,‘장모님’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상대가 말하는 사람의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이라면 ‘○○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라고 해도 된다.

<25-26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아내의 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역시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①세태가 바뀌어 요즘은 사위를 친자식처럼 생각하는 처부모도 많고, 사위 쪽에서도 처가 쪽 출입이 옛날보다 현저하게 잦아진 것이 현실이다.

②처부모 호칭에 대해서도 지역 간,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 연세 드신 분 가운데 친부모를 일찍 여읜 어떤 분은 ‘아버님’, ‘어머님’ 하는 것이 훨씬 친근하게 느껴져서 이미 30년 전 결혼할 때부터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으로 불렀다고 한다. 또 이북 출신인 연로한 어떤 분은 자신이 장인을 ‘아버님’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결혼한 아들이 처부모를 ‘아버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중부 지방 출신의 어떤 연세 드신 분은 ‘아버님’, ‘어머님’ 또는 ‘아버지’, ‘어머니’는 자신을 낳아 준 부모 외에는 쓸 수 없는 말이므로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는 것은 인륜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자가 시집을 가서 며느리가 되면 시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는데 사위도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에 널리 퍼진 생각이고, 또 실제로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 나아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③친구의 부모에게까지도 ‘아버님’, ‘어머님’ 하는 것이 널리 퍼진 현실에 비추어 처부모에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못 할 이유는 없다.

④따라서 처부모를 부를 때는 친부모에게처럼 ‘아버지’, ‘어머니’ 하는 것은 곤란하나 ‘장인어른’, ‘장모님’이 원칙이되 ‘아버님’, ‘어머님’도 쓸 수 있다.

한편 자신의 장인, 장모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빙장어른’, ‘빙모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 말은 원래 다른 사람의 처부모를 높여 가리킬 때 쓰는 말이므로 자신의 처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에는 쓸 수 없는 말이다.

아내에게 처부모를 가리킬 때는 ⑤‘장인어른’, ‘아버님’, ‘장인’과 ‘장모님’, ‘어머님’, ‘장모’로 지칭한다. ⑥‘○○[자녀] 외할아버지’, ‘○○[자녀] 외할머니’는 간접 호칭이므로 아내에게 지칭하는 말로 권장할 만하지 않다.

친부모와 동기, 친척에게 처부모를 가리킬 때는 ‘장인’, ‘장모’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처부모의 나이가 친부모보다 훨씬 많거나 그 밖에 처부모를 대접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장인어른’,

> ‘장모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자녀에 기대어 ‘○○[자녀] 외할어버지’, ‘○○[자녀] 외할머니’라고 해도 된다. 그러나 친부모 등 자기 쪽 사람에게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
>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들에게는 ‘장인어른’, ‘장모님’, ‘아버님’, ‘어머님’으로 지칭한다. ⑦아내의 동기들이 부르는 대로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신의 자녀에 기대어 ‘○○[자녀] 외할아버지’, ‘○[자녀] 외할머니’고 하는 것은 모두 간접 호칭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 자녀에게 처부모를 지칭할 경우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외할아버지’, ‘외할아버님’, ‘외할머니’, ‘외할머님’으로 지칭한다.
>
>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장인’, ‘장모’라고 할 수 있고, 처부모를 높여서 말할 때에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상대가 말하는 사람의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사이라면 ‘○○[자녀] 외할아버지’, ‘○○[자녀] 외할아버님’, ‘○○[자녀] 외할머니’, ‘○○[자녀] 외할머님’이라고 해도 된다.
>
> <26-27쪽>

가족 구성의 양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위가 처가 쪽 출입이 현저하게 잦아졌는데, 자녀 세대의 맞벌이로 인해 어린 손주의 육아를 부모 세대가 담당하게 되면서 ‘조부모-부모-자녀’ 3대가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잘 만나지 않아 굳이 호칭과 지칭이 필요하지 않았던 관계들에 대한 호칭과 지칭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어 ②에 언급한 것처럼 처부모에 대한 사위의 호칭은 지역 간, 세대 간 차이가 있다. 또 ③과 같이 친구의 부모에게도 ‘어머님’, ‘아버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부모에 대해 ‘어머님’, ‘아버님’으로 하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2018의 정비에서 문제는 ④와 같이 처부모에 대해 ‘아버지’, ‘어머니’를 써도 되는가 하는 점이다. 1992나 2011은 며느리는 시부모에 대해 ‘아버지’, ‘어머니’를 쓰도록 한 것에 비해 사위가 처부모와 가깝게 지내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그 수위는 며느리와 다르게 처리한 셈이다. 2018은 사위와 며느리가 각각 처부모와 시부모에 대해 사용하는 호칭과 지칭을 대칭적으로 맞추고자 한다. 심층 면담 등의 결과에 따르면 내 아들이 처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는 것에 대해 처가와 친근하게 지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고 국민신문고 설문의 결과에서도 5,700명의 응답자 중 89.6%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아버지’, ‘어머니’로 불러도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근거를 삼을 수 있겠다.

다만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장인어른’, ‘장모님’을 쓰는 세대가 있으므로 어떤 호칭이 바람직하다거나 맞지 않는다는 등의 평가를 지양한다. 오히려 ‘장인어른/장모님’, ‘아버님/어머님’, ‘아버지/어머니’ 모두 가능한 것으로 두어 가정마다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제3자가 함께 있는 자리나 공식적인 상황 등 격식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쓸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처가 부모에 대해 ⑤와 같이 ‘장인’, ‘장모’를 지칭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아내에게 ‘장인’, ‘장모’로 지칭하는 것은 아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모를 대접하여 이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⑥, ⑦에서는 간접 호칭을 지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아내나 아내의 동기들, 아내 동기의 배우자들에게 처부모를 지칭할 경우 내 세대와 부모 세대의 관계이기 때문

에 굳이 내 자녀 세대를 거쳐 지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그러므로 '간접 호칭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술은 자칫 간접 호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기술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40]

2 사위

표준 화법 해설(1992)

사위를 부르는 말도 사위가 처부모를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세대 간, 지방 간의 차이가 크다. ①대체로 북부 지방에서는 사위의 이름을 부르는데 반하여 남부 지방에서는 '○ 서방'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부 지방에서도 장모가 사위를 어려워하여 어떻게도 부르지 못하고 어물어물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사위의 이름을 부르거나 '○ 군' 하는 이들도 있다. 처부모가 사위를 부르는 말은, ②현재의 언어 실태를 중시하여 '○ 서방', '○○ 아비(아범)', '여보게'를 표준으로 정하였다.

사위에게 사위를 지칭할 경우에는 '○ 서방', '자네'라고 한다. 딸에게 그 남편인 사위를 지칭할 경우에는 '○ 서방'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하였다. ③'네 남편'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는 의견 제기가 있었으나 사위를 마치 남 가리키는 듯하는 말이라고 해서 거부 반응이 강했다. 이 밖에 사위를 딸에게 지칭할 때 '○○ 아빠'라는 말이 흔히 쓰이고 있지만 간접 호칭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장인, 장모가 대화하면서 사위를 지칭할 경우는 '○ 서방', '○○ 아비(아범)'로 정하였다. 사위의 부모인 사돈에게 사위를 지칭할 경우는 '○ 서방'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랐다.

사위를 아들에게 지칭할 때는 '○ 서방', '매부(매형, 자형)'로 하였다.

다른 딸, 즉 사위의 처형이나 처제에게 사위를 지칭할 경우는 '○ 서방', '형부'로 하였다. 요즘 '제부'라고 하는 말이 흔히 쓰이고 있는데, 이말 자체가 억지로 만들어 낸 말이라는 의견도 있고, 보편성이 있는 말도 아니므로 표준 화법에 넣지 않았다. 따라서 사위를 사위의 처형에게 지칭할 경우에 '제부'라는 말 대신 ,'○ 서방'이라고 하는 것이 좋고 또 사위의 처제에게는 처제가 부르는 대로 '형부'라고 하는 것이 좋다.

며느리와 다른 사위들에게는 '○ 서방'으로 지칭하도록 정하였다. 다른 사위들에게는 '동서'라고 하는 말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어색하여 제외했다.

외손자, 외손녀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아버지', '아빠'로 정하였다. 타인에게 사위를 가리킬 경우는 이 쪽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이에게는 '(우리) 사위' 외에 '○ 서방', '○○ 아버지', '○○ 아빠'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사위'로 쓰는 것이 좋다.

<26-28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사위를 부르는 말도 사위가 처부모를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세대 간, 지역 간의 차이가 크다. ①대체로 북부 지방에서는 사위의 이름을 부르는 데 반하여 중부와 남부 지방에서는 '○ 서방'이 일반적이다. 그러

40) 이러한 사례는 예를 들면 남편의 남동생에게 '도련님', '서방님' 등으로 호칭이나 지칭을 사용하기가 불편하여 '○○[자녀] 삼촌', '○○[자녀] 작은아버지' 등으로 부르거나 이르는 경우에 해당한다. 2011은 이러한 경우에도 '도련님', '서방님' 등 전통적으로 해당 관계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호칭어가 있기 때문에 자녀에 기댄 간접 호칭이나 지칭의 사용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언중이 이미 '도련님', '서방님' 등의 사용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또 이러한 부류의 어휘들이 사라져가는 어휘라는 점, '○○[자녀] 삼촌', '○○[자녀] 작은아버지'와 같은 간접 호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간접 호칭으로 대체하여 쓰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나 중부 지방에서도 장모가 사위를 어려워하여 어떻게도 부르지 못하고 어물머물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사위의 이름을 부르거나 '○ 군' 하는 이들도 있다.

처부모가 사위를 부르는 말은 '○ 서방',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비', '여보게'이다.

당사자에게는 '○ 서방', '자네',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비'로 가리킨다. 부모에게 내 사위를 가리키거나 딸에게 그 남편인 사위를 지칭할 때는 '○ 서방',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비'로 지칭한다. ③딸에게 '네 남편'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사위를 마치 남 가리키는 듯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배우자에게 또는 사위의 부모인 사돈에게 사위를 지칭할 경우에는 '○ 서방',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비'로 지칭한다.

사위를 아들에게 지칭할 때는 '○ 서방', '매형', '자형', '매부', '매제'로 지칭한다.

당사자의 아내가 아닌 다른 딸, 즉 사위의 처형이나 처제에게 사위를 지칭할 경우에는 '○ 서방'으로 지칭한다. 사위를 그 처제에게 지칭할 때는 '형부', 그 처형에게 지칭할 때는 '제부'라고 할 수 있다.

며느리와 다른 사위들에게는 '○ 서방'으로 지칭한다. 다른 사위들에게는 '동서'라고 하는 말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자연스러운 지칭이 아니다.

외손주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아버지', '아빠'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 사위를 가리킬 경우에 이쪽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이에게는 '사위' 외에 '○ 서방', '○○[외손주] 아버지', '○○[외손주] 아빠'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위'로 쓰는 것이 좋다.

<29쪽>

사위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 1992와 2011에서 ①과 같이 기술하였는데 북부 지방에서 사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있었지만 중부와 남부 지방에서 '○ 서방'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즉 사위의 이름을 부르거나 부르지 않는 것은 지역에 따른 차이인데 1992의 ②와 같이 '○ 서방' 등을 표준으로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전통적으로도 사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므로 2018은 이를 살려 며느리와 사위에 대해 아들이나 딸에 준해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며느리나 시부모, 사위나 처부모 간의 친밀함이나 가족 간의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서로가 불편함이나 불쾌함이 없이 양해가 된 상황에서 사용해야 한다.

③과 관련하여 '네 댁, 네 처'와 '네 남편'의 비대칭성 등을 바탕으로 둘 다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비하였음을 앞서 기술한 바 있다.

○ <소통을 위한 언어예절>(2018) 정비안

〔2018〕 장인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장인어른, 아버님	= 아버지
지칭	장인어른, 아버님 (친부모에게) 장인(어른) (자녀에게) (외)할아버지 ○○[자녀] 할아버지(님), ○○[자녀] 외할아버지(님)	= 아버지 ○○[지역] 할아버지(님)

〔2018〕 장모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장모님, 어머님	= 어머니
지칭	장모님, 어머님 (친부모에게) 장모(님) (자녀에게) (외)할머니(님) ○○[자녀] 할머니(님), ○○[자녀] 외할머니(님)	= 어머니 ○○[지역] 할머니(님)

〔2018〕 사위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 서방, ○○[외손주] 아범/아비, 여보게	= ○○[사위의 이름] 사위
지칭	○ 서방, 사위, 아범, 아비, 자네 ○○[외손주] 아범/아비, ○○[외손주] 아빠/아버지 (손주에게) 아빠, 아버지	= ○○[사위의 이름] (가족 외의 사람에게) ○○[딸] 남편

4.1.4. 남편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 사이의 호칭은 매우 사적인 영역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정해 부를 것은 아니나 제3자,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 외의 사람과 있을 때는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 지칭의 경우 1992와 2011 모두 청자를 미세하게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청자가 남편을 부르는 호칭을 지칭으로 통용한 것을 제외하면 지칭이 대동소이하다. 그러므로 2018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을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O 정비 방향

가. 남편과 아내 간 호칭은 '여보'를 기본으로 하되 결혼의 햇수나 자녀의 유무를 따르기보다는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나. 동기간 또는 동기의 배우자에게 남편을 이를 때는 그들이 남편을 부르는 호칭을 지칭으로 통용한다.

다.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호칭이나 지칭을 인정하고 성별 간 비대칭성을 드러내는 구분 표지는 지양한다.

O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예절>(2018) 표 비교

〔1992〕 남편에 대한 호칭·지칭어

호칭어	신혼 초	여보, ○○ 씨, 여봐요[허용]
	자녀가 있을 때	여보, ○○ 아버지, ○○ 아빠
	장노년	여보, 영감, ○○ 할아버지, ○○ 아버지
지칭어	남편에게	당신, ○○ 씨[신혼 초], 영감[장·노년]
	시부모에게	아비, 아범, 그이(이이, 저이)
	친정부모에게	○ 서방, 그 사람
	남편 동기에게	형(님), 동생, 오빠
	남편 동기의 배우자에게	그이, ○○ 아버지, ○○ 아빠
	친정 동기에게	매부, 매형, 형부, ○ 서방, 그이, ○○ 아버지, ○○ 아빠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며느리에게	아버님
	사위에게	장인, 장인 어른, 아버님
	친구에게	그이, 우리 남편, 애 아버지, 애 아빠
	남편 친구에게	그이, 애 아버지, 애 아빠, 바깥 양반, 바깥 사람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 때	○○○ 씨, [직함 또는 성이나 성명과 직함을 부른다]
	아는 타인에게	○○ 아버지, ○○ 아빠, 바깥 양반, 바깥 사람
	모르는 타인에게	우리 남편, 저희 남편
	남편의 회사 사람에게	그이

〔2011〕 [표 Ⅰ-10]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여보, ○○ 씨,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영감, ○○[손주, 외손주] 할아버지
지칭	당사자에게		당신, ○○ 씨, 영감
	시부모에게		아범, 아비, 그이
	친정 부모에게		○ 서방, 아범, 아비
	남편 동기에게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형, 형님, 동생, 오빠
	남편 동기의 배우자에게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친정 동기와 배우자에게	손위 동기에게	○ 서방,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손위 동기의 배우자에게	○ 서방,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손아래 동기에게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매형, 자형, 매부, 형부
		손아래 동기의 배우자에게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며느리에게		아버님
	사위에게		장인, 장인어른, 아버님
	친구에게		그이, 남편, 애아버지, 애 아빠,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남편 친구에게		그이, 애아버지, 애 아빠,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바깥양반, 바깥사람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 때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아는 사람에게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바깥양반, 바깥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남편, 애아버지, 애 아빠

〔2018〕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여보, ○○ 씨, ○○[자녀] 아빠/아버지, 영감, ○○[손주/외손주] 할아버지	=
지칭	○ 서방, 아범, 아비, 애아버지, 애 아빠, 그이 ○○[자녀] 아빠/아버지 (자녀, 사위, 며느리에게) 아빠, 아버지, 아버님 (당사자에게) 당신, ○○ 씨, 영감 (남편의 직장에) ○○○ 씨, ○(○○) 과장(님)	= 이이, 저이, (우리) 남편, 아이아버지, 아이 아빠

1992와 2011의 큰 차이는 상황에 따른 호칭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1992의 경우 호칭에서도 신혼 초인지 장노년인지, 자녀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호칭을 나누었는데 2011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없앴다. 2011은 지칭 중 친정 동기에 대해서 1992와 달리 손위, 손아래, 각각의 배우자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매우 복잡하게 보이지만 '여보', '○○[자녀] 아버지/아빠', '○○[손주] 할아버지' 등을 기본으로 상대방이 부르는 호칭을 지칭으로 쓴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2018 역시 몇 가지 실제 사용이 나타나는 것을 추가하되 대체로는 기존의 호칭과 지칭을 수용하였다.

▌호칭▐

호칭은 매우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데, 결혼 전 '○○[남편 이름]아', '오빠', '선배' 등으로 불렀던 습관이 남아 결혼 후에도 호칭을 이렇게 쓸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 남편의 직함을 사용해 부를 수도 있다. 1992, 2011의 기술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자기'도 사용된다. 부부간 호칭의 사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2018은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호칭을 제시하되 사적인 영역의 호칭 사용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표로 제시된 것들은 1992, 2011을 거쳐 2018까지 유효하다고 판단된 예이다. 우선 1992에 있었던 '여봐요'는 2011에서 이미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외하였던 것이다. 또 1992, 2011을 거쳐 현실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자기'의 포함 여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2018에서도 역시 '자기'의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자문회의, 심층 면담 등을 통해 두루 확인되었고 연구진들의 의견 역시 포함해야 한다는 쪽이 적지 않았다.[4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본적인 호칭어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2018에서도 '자기'를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남편에 대해 '○○아/야', '○○ 씨' 등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부부간의 나이 차이나 친밀감의 정도, 애칭 등은 자유롭게 부르는 것이 맞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황이나 장소, 손위 어른이나 제3자가 함께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동안 부부간 나이 차이에서 남편이 많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내는 남편에게 '오빠'나 '선배', 남편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에는 동갑은 물론이고 아내가 나이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직접 호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구진 회의에서 호칭에 배우자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남편의 이름을 제3자가 있는 경우, 특히 시부모가 있는 경우 부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표에 포함하지는 않았다.[42] 향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든 아내의 경우도 동일하게 다루면 될 것이다.

▌지칭▐

2018은 상대방이 부르는 호칭을 지칭으로 통용하는 경우 표에 함께 넣지 않았다. 1992, 2011의 경우 남편 동기, 친정 동기,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까지 세밀하게 나누어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남편 동기나 그 배우자에 대한 것은 손위와 손아래의 구분이 없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결국 1992와 2011 모두 체계적인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2018은 이를 표에서 모두 제외하였지만 이후 '7.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8.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를

41) 심층 면담에서 '자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또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시부모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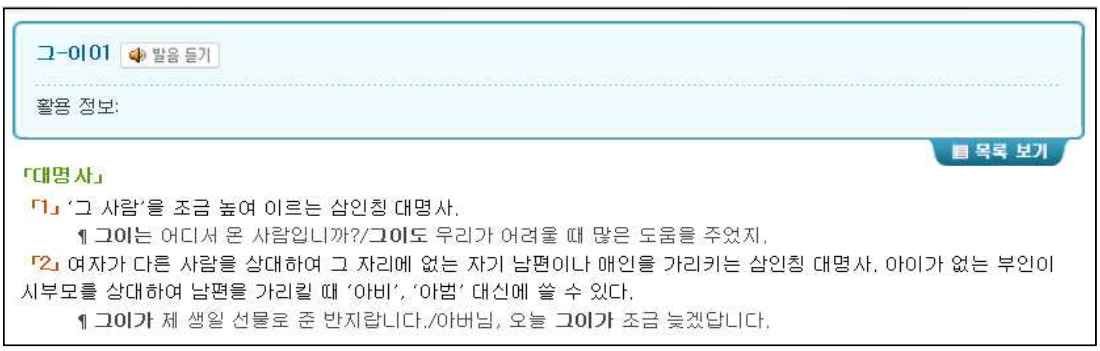
42) 앞서 '며느리'의 호칭을 정비하는 자리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름을 직접 불러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주, 그리고 형제간 정도이다. 남편과 아내는 손위와 손아래의 관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 서로 이름을 불러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이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으로 호칭을 쓰더라도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참고하여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상대방이 나의 남편을 부르는 호칭에 따른 남편에 대한 지칭

기준	남편의 동기				본가 동기			
관계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	오빠	언니	남동생	여동생
지칭	동생	동생	형, 형님	오빠	○ 서방, 매부, 매제	○ 서방, 제부	매형	형부
관계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지칭	도련님, 서방님	처남	아주버님	형님	서방님	동서	아주버님	형님

한편 남편을 지칭하는 말로 '그이'가 있는데 실제 사전의 뜻풀이에 근거하면 '이이'나 '저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남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3자에게 남편을 지칭할 경우 '이이'가 적합하고 멀리 있는 경우 '저이'가 적합하기 때문에 굳이 2011과 같이 '그이'만을 지칭어로 제시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1992에 따라 2018에서는 '그이'와 함께 '이이', '저이'를 추가하였다.


그-이01 발음 듣기

활용 정보:

목록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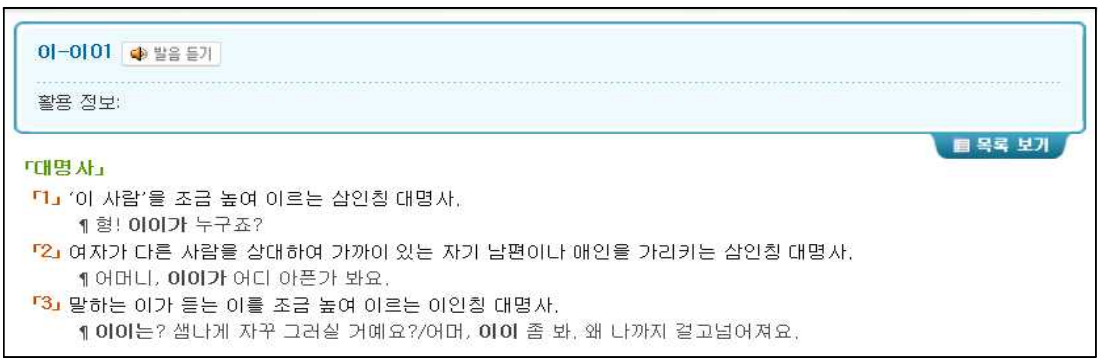
「대명사」

「1」 '그 사람'을 조금 높여 이르는 삼인칭 대명사.

¶ **그이**는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그이**도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었지.

「2」 여자가 다른 사람을 상대하여 그 자리에 없는 자기 남편이나 애인을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아이가 없는 부인이 시부모를 상대하여 남편을 가리킬 때 '아비', '아범' 대신에 쓸 수 있다.

¶ **그이가** 제 생일 선물로 준 반지랍니다./아버님, 오늘 **그이가** 조금 늦겠답니다.


이-이01 발음 듣기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대명사」

「1」 '이 사람'을 조금 높여 이르는 삼인칭 대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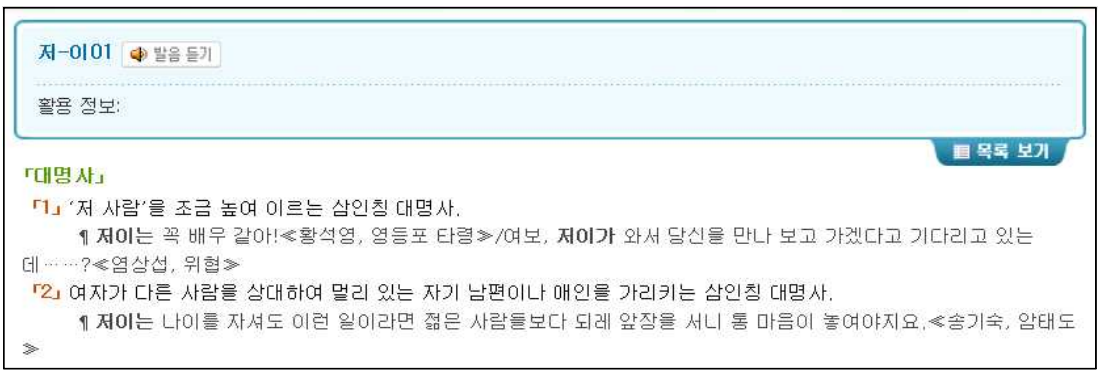
¶ 형! **이이가** 누구죠?

「2」 여자가 다른 사람을 상대하여 가까이 있는 자기 남편이나 애인을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 어머니, **이이가** 어디 아픈가 봐요.

「3」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조금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 **이이**는? 샘나게 자꾸 그러실 거예요?/어머, **이이** 좀 봐, 왜 나까지 걸고넘어져요.


저-이01 발음 듣기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대명사」

「1」 '저 사람'을 조금 높여 이르는 삼인칭 대명사.

¶ **저이**는 꼭 배우 같아!≪황석영, 영등포 타령≫/여보, **저이가** 와서 당신을 만나 보고 가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염상섭, 위협≫

「2」 여자가 다른 사람을 상대하여 멀리 있는 자기 남편이나 애인을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 **저이**는 나이를 자셔도 이런 일이라면 젊은 사람들보다 되레 앞장을 서니 통 마음이 놓여야지요.≪송기숙, 암태도≫

2011은 남편 직장에 전화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등을 쓰는 것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실제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굳이 남편 회사에 전화하는 경우만을 특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논의가 있었다(개인의 휴대전화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굳이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거는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 가족이 아닌 사회적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자녀의 이름을 꼭 알고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자녀] 아버지’를 쓸 수도 없다. 오히려 상대방이 알고 있는 남편의 이름이나 직함 등을 사용하여 이르는 것이 적절하다. 가족 외의 사람으로 공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는 1992와 2011에 제시되었던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1992와 2011의 ‘바깥양반(아내가 남편을 이르는 말)’, ‘바깥사람(남편을 예사롭게 또는 낮추어 이르는 말)’ 등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2018에서는 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전통적으로 남편은 집 밖의 일을, 아내는 집 안의 일을 담당한다고 보아 ‘바깥사람’과 ‘안사람’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던 것인데, 고정적인 성 역할의 경계가 차츰 사라지고 있다고 보면 ‘바깥’이나 ‘안’, ‘집’과 같이 전통적인 성 역할의 차이를 드러내는 어휘가 듣는 사람에게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여전히 사용하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차별적, 비대칭적 구분 표지의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2018의 큰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바깥양반’, ‘바깥사람’ 등을 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양반’은 어휘가 현재 호칭이나 지칭에 사용되는 외에는 주로 민속과 관련한 전문용어로 사용되어 일상적인 어휘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례> 육아 휴직 중인 남편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의 경우라면 남편이 ‘안사람’이고 아내가 ‘바깥양반’인 셈이다.

아울러 2018은 친한 친구나 비격식적인 관계에서 ‘(우리) 남편’을 지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아 이를 지칭에 새롭게 포함하였다. ‘신랑’을 지칭으로 쓰는 경우에 대해서도 회의를 통해 논의되었고 심층 면담의 응답 결과에서도 사용이 확인되었으나 남편에 대해 ‘(우리) 신랑’으로는 표현하는 것에 비해 아내에 대해서는 ‘(우리) 신부’라는 지칭이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칭으로 ‘남편’, ‘아내’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2011에서 ‘남편’은 모르는 사람에게만 쓰고 ‘아내’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모두에게 쓸 수 있다고 본 것에 대해 2018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데, 이는 양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1992와 2011에는 ‘애아버지’와 ‘애 아빠’가 지칭어로 제시되어 있다. 본말인 ‘아이아버지’와 ‘아이 아빠’는 빠져 있는 셈인데 이는 아내의 지칭인 ‘아이어머니’와 ‘아이엄마’도 마찬가지이다. 또 ‘아이아버지’, ‘애아버지’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데 ‘아이 아빠’, ‘애 아빠’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차츰 장년이나 결혼 후 자녀가 생긴 경우에도 ‘아빠’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이아빠’, ‘애아빠’ 등도 사전의 표제어로 등재되어야 할 것이다. 2018에서는 ‘아이’ 계열과 ‘애’ 계열, ‘아버지’ 계열과 ‘아빠’ 계열이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예절>(2018) 해설 비교

표준 화법 해설(1992)

남편에 대한 호칭어, 지칭어는 지켜지지 못할 현실성이 없는 어형은 배제하여 ①언어 변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한편, 현실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그릇된 것 또한 배제한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신혼 초에 남편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의 서먹서먹함을 고려하여 신혼 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 몇 가지 어형을 넣기도 하였다.

우선 남편을 부르는 경우는 신혼 초, 아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장·노년기의 호칭어로 나누었다. 호칭어와 지칭어를 막론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대체로 신혼 초의 말이다. 따라서 신혼 초의 호칭어, 지칭어에 대해 특히 논란이 많았다. 신혼 초의 남편에 대한 호칭어는 ‘여보’, ‘○○ 씨’를 표준으로 하고 ‘여봐요’도 허용하였다. 신혼 초에도 남편을 부르는 경우, ‘여보’가 가장 좋다. 그러나 ②막 결혼한 신부가 ‘여보’라는 말이 입에 붙지 않아 어색할 경우 ‘여보’라는 어형으로 넘어가는 전 단계로 ‘여봐요’라는 어형을 추가한 것이다. 물론 ‘이봐요’, ‘여보세요’ 등도 있을 수 있지만 ‘여봐요’가 어감상 ‘여보’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여봐요’로 하였다. 결혼 전의 호칭을 그대로 결혼 후에도 사용하여 ‘형’, ‘오빠’, ‘아저씨’라고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일 뿐 아니라, 어법에도 맞지 않아 결코 써서는 안 된다. 그러나 ‘○○ 씨’는 흔히 쓰고 있고, 남편을 ‘아저씨’나 ‘오빠’로 부르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신혼 초에 쓸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③‘○○ 씨’의 ‘씨’가 영어의 미스터를 그냥 번역한 느낌이고, 또한 ‘○○ 씨’라고 했을 때 부부간의 정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사무적인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쓰지 않아야 한다. ④남편 호칭어의 또 다른 한 문제는 ‘자기’이다. 요즘 젊은 신혼 부부들, 특히 연애 결혼을 한 부부들은 서로를 ‘자기’라고 부른다. ④그래서 ‘자기야’는 안 되나 ‘자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으나 역시 써서는 안 되는 말이다.

자녀가 있는 젊은 부인들은 ‘여보’라고 남편을 부르고 또 아이에 기대어 ‘○○ 아버지’, ‘○○ 아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빠’라고만 부르는 것은 자신의 친정 아버지를 부르는 것인지 남편을 부르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일본식 어법이므로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는 ‘여보’를 쓰되 때로는 ‘영감’, ‘○○ 할아버지’, ‘○○ 아버지’라 할 수도 있다.

남편을 지칭하는 말은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시부모에게 남편을 지칭할 경우는 ‘아비’, ‘아범’으로 써야 한다. 그러나 아이가 없는 부인이 ‘아비’, ‘아범’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이(이이, 저이)’로 할 수 있다. 시부모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 ‘걔’라는 말이 전통적으로 쓰였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으므로 제외되었다.

친정 부모에게는 전통적으로 ‘○ 서방’이었고 현대에도 그대로 쓰는 것이 옳다. 이 밖에 ‘그 사람’으로 할 수도 있다.

⑤남편의 형제들에게는 남편의 형제들을 기준으로 그들이 부르는 대로, 시동생에게는 ‘형(님)’, 시아주버니에게는 ‘동생’, 손아래 시누이에게는 ‘오빠’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아버지’처럼 자신의 자녀에 기대어 표현하는 것은 형제 사이의 우애를 생각하여 형제 앞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동서들이나 시누이 남편에게 ‘그이’, ‘○○ 아버지’, ‘○○ 아빠’로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친정 동생들에게도 역시 그들이 부르는 대로 ‘형부’, ‘매부’, ‘매형’, ‘자형’이라고 하는 것이 남편의 동기에게 그들이 부르는 대로 한 결정과 맥을 같이 한다. 친정 오빠나 언니, 그리고 친정 동기의 배우자들에게

는 ‘○ 서방’, ‘그이’, ‘○○ 아버지’, ‘○○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도 역시 그들이 부르는 대로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하는 것이 좋고, ⑥며느리에게는 ‘아버님’, 사위에게는 ‘장인 (어른)’, ‘아버님’이라고 한다.

자신의 친구들에게는 ‘그이’, ‘우리 남편’, ‘애 아버지’, ‘애 아빠’로 쓸 수 있다. ⑦신혼 초에는 ‘우리 신랑’,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 영감’이라고 써도 무방하나 남편의 직함을 붙여 ‘우리 사장’, ‘우리 장관’, ‘우리 선생’, ‘우리 부장’ 등으로 지칭해서는 안 된다.

남편의 친구들에게는 ‘그이’, ‘애 아버지’, ‘바깥 양반’, ‘바깥 사람’으로 쓰는데 ‘○○ 아버지’, ‘○○ 아빠’도 허용한다. 그러나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남편을 바꾸어 달라고 할 때는 ‘○○○ 씨’와 ‘○(○○) 과장’과 같이 성(姓)과 직함 또는 성명과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거기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친인척 이외의 타인에게는 상대방이 손위 사람인 경우 ‘우리 남편’, ‘저의 남편’이라 하고, ⑧비록 남이지만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경우에는 ‘○○ 아버지’, ‘○○ 아빠’, ‘바깥 양반’, ‘바깥 사람’으로, 또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 영감’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지칭하는 경우는 물론 ‘당신’이다. 그러나 신혼 초에는 ‘○○ 씨’, 나이가 들어서는 ‘영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⑨‘○○ 아버지’, ‘○○ 할아버지’ 하는 것은 좋은 표현이 아니다. ④젊은 부부 사이에서는 남편을 ‘자기’라 지칭하는 것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현실이 거의 그러할 뿐 아니라 ‘당신’이 원래 재귀대명사에서 유래한 사실과 공통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제외하였다.

<29-32쪽>

표준 언어 예절(2011)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은 ①현실성이 없는 어형은 배제하고 언어 변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한편, 현실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그릇된 것 또한 배제한다.

결혼한 기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남편을 부를 때는 ‘여보’를 쓴다. 그러나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 ‘여보’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 인정했던 ②‘여봐요’는 오늘날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신혼 초 ‘여보’라는 말이 어색할 경우 ‘○○ 씨’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 씨’의 ‘씨’가 영어의 미스터를 그냥 번역한 느낌이고, ③‘○○ 씨’라고 하면 부부간의 정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사무적인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신혼 초에는 쓸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결혼 전의 호칭을 그대로 결혼 후에도 사용하여 ‘형’, ‘오빠’, ‘아저씨’라고 하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써서는 안 된다. ④남편 호칭의 또 다른 한 문제는 ‘자기’이다.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 특히 연애결혼을 한 부부들은 흔히 서로를 ‘자기’라고 부른다. ④그래서 ‘자기야’는 안 되더라도 ‘자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으나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다.

자녀가 있는 젊은 부인들은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거나 아이에게 기대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빠’라고만 부르는 것은 자신의 친정아버지를 부르는 것인지 남편을 부르는 것인지 혼란스러우므로 써서는 안 된다. 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는 ‘○○[자녀] 아버지’, ‘영감’, ‘○○[손주, 외손주] 할아버지’라 할 수도 있다.

남편을 지칭하는 말은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지칭하는 경우는 물론 ‘당신’이다. 그러나 ⑨‘○○[자녀] 아버지’, ‘○○[손주, 외손주]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④호칭과 마찬가지로 지칭에서도 남편을 ‘자기’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부모에게 남편을 지칭할 경우에는 ‘아범’, ‘아비’로 써야 한다. 그러나 아이가 없을 때에는 ‘그이’로 지칭할 수 있다. 시부모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 ‘걔’라는 말이 전통적으로 쓰이기는 하였지만 현실성이 없

으므로 오늘날에는 권장할 만하지 않다.

친정 부모에게는 전통적으로 '○ 서방'이었고 현대에도 그대로 쓰는 것이 옳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범', '아비'로 할 수도 있다.

⑤남편을 남편의 동기에게 지칭할 때는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로 가리킨다. 남편의 손아래 동기에게 남편을 가리킬 때 시동생에게는 '형', '형님', 시누이에게는 '오빠'로 쓸 수도 있다.

남편 동기의 배우자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에는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로 쓴다.

친정의 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남편을 '○ 서방',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로 지칭한다. 친정의 손아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로 쓸 수도 있고 남동생에게는 '매형', '자형', '매부', 여동생에게는 '형부'로 쓸 수 있다.

자녀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하는 것이 좋고, ⑥며느리에게는 '아버님', 사위에게는 '장인', '장인어른', '아버님'이라고 한다.

자신의 친구들에게는 남편을 가리켜 '그이', '남편', '애아버지', '애 아빠',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신혼 때뿐만 아니라 ⑦나이가 들어서도 친구에게 남편을 가리켜 '신랑'이라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언어 현실이고 또한 이를 허용하자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남편의 직함을 붙여 '우리 과장', '우리 부장' 등으로 지칭해서는 안 된다.

남편의 친구들에게는 '그이', '애아버지', '애 아빠', '바깥양반', '바깥사람'으로 쓰는데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도 허용한다.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남편을 바꾸어 달라고 할 때는 '○○○ 씨'와 '과장님', '○ 과장님'과 같이 성(姓)과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거기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⑧아는 사람에게 남편을 가리킬 때에는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바깥양반', '바깥사람'을 쓰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남편', '애아버지', '애 아빠'를 쓴다.

<32-34쪽>

①에서 1992는 정비의 원칙으로 언어 변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나 명백히 그릇된 것은 배제한다고 하였고 2011은 현실성 없는 어형은 배제, 언어 변화 수용, 명백히 그릇된 것은 배제 등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2018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변화를 수용하는 정도의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기'를 1992와 2011 모두 현실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명백히 잘못된 호칭 중 하나로 보고 쓰지 말아야 한다고 기술하였으나 2018은 '자기'를 기본적이거나 널리 권장해야 할 호칭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부부간에 사용할 수 있는 호칭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2018은 기본적으로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호칭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호칭이므로 2018은 이를 규범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기본이 될 몇 개의 호칭을 제시하면서 '자기'나 '오빠' 등의 사적인 호칭은 표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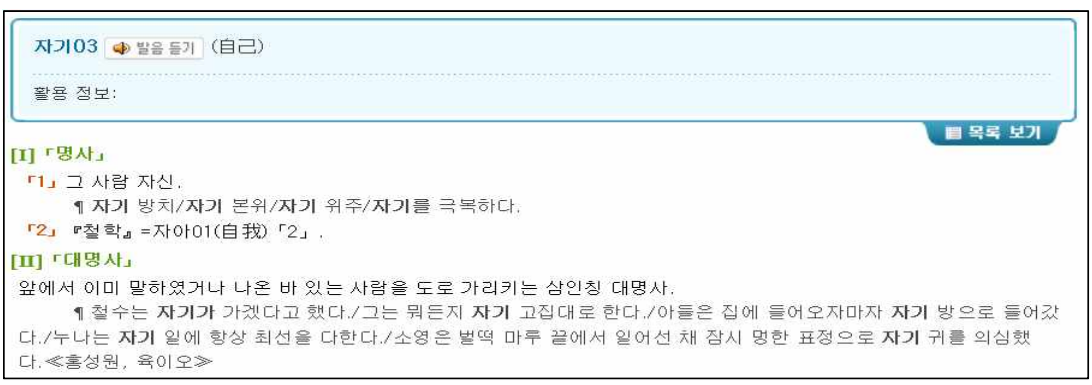
②에서 '여봐요'는 2011에서 이미 거의 쓰이지 않음을 밝히고 있어 굳이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③은 '○○ 씨'의 문제인데 '씨'에 대해 1992는 '미스터'를 번역한 느낌으로, 2011은 사무적인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미스터'는 주로 성 앞에 붙이는 것으로 '미스터 김' 등과 같이 쓰이지 '미스터 철수' 등과 같이 쓰이지 않는다. 즉 '○○ 씨'가 '미스터'의 번역이라고 볼 이유가 특별히 없는 셈이다. 또 '김철수 씨'와 같이 부를 경우는 사무적인

인상을 풍기지만 '철수 씨'로 불렀을 때 사무적인 인상이 풍기는 것인지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울러 결혼 전에 부르던 호칭이 결혼 후에도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면 굳이 신혼 초에만 쓴다고 제한할 근거가 없으며, '○○ 씨'를 남편에 대한 호칭으로 쓰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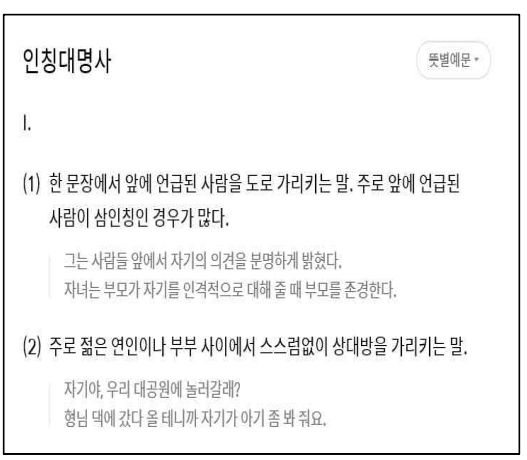
④는 '자기'의 문제로 1992에서도 2011에서도 모두 널리 쓰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남편에 대한 호칭으로 쓰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표준국어대사전>이나 <고려대사전> 등을 참조하여도 '자기'는 3인칭 재귀대명사로 쓰이는 것이 기본적인 용법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고려대사전> 인칭대명사 2번 뜻을 보면 "주로 젊은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스스럼없이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로 풀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대사전>이 용례기반 사전인 점을 고려하면 언중이 충분히 유의미한 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심층 면담에서도 '자기'의 사용이 확인되었는데 모든 연령층에서 두루 사용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20~30대의 경우 '자기'라는 호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다만 '자기'를 인정할 경우 '오빠'나 그 외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부르는 호칭을 모두 인정해야 할 부담이 있어 표에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심층 면담의 응답 내용에 있었던 것처럼 부부

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지만 시어른 등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⑤는 1992와 2011의 기술이 달라진 부분이다. 1992에서는 남편의 형제자매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 그들이 부르는 호칭에 준해 지칭을 사용해야 하며 자신의 자녀를 매개로 하여 '○○ 아버지' 등을 쓰는 것은 형제간 우애를 생각하여 쓰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아버지'로 간접적으로 지칭할 경우 남편과 동기간을 멀게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기술로 보인다. 이에 비해 2011은 이러한 고려가 해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아버지'나 '○○ 아빠'는 이 관계 외에도 다양한 관계에서 두루 쓰이는 지칭이기 때문에 형제간 우애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위와 며느리에게는 ⑥과 같이 남편을 지칭하여야 하는데, 앞서 2018에서는 사위와 며느리가 장인이나 시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에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포함시켰으므로 역시 지칭에서도 '아버님', '장인(어른)' 외 '아버지'로 지칭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사위나 며느리를 자녀와 동일하게 생각한다고 보면 '아버지'를 지칭으로 사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⑦은 2011에서 친구들에게 남편을 '신랑'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에 반해 1992는 신혼 초에 '신랑'이라는 지칭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신부'라고 지칭하지 않고 '신랑' 외에도 '남편'으로 지칭할 수 있기 때문에 2018에서도 이러한 사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단,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친구에게 남편을 '영감'이라고 이르거나 호칭으로 '영감'을 쓰는 것은 전통적인 용법으로 남겨 두었다.

⑧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게 지칭을 다르게 써야 한다는 것인데 '바깥양반'이나 '바깥사람' 등의 사용은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또 나와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나의 자녀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모두에게 '(우리) 남편', '애아버지', '애 아빠' 등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⑨는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지칭할 경우 자녀나 손주에 기댄 간접 호칭이나 '자기'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본적으로 '당신'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화자가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지칭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간접 호칭의 사용이 굳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정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녀들과 함께 있는 자리, 친구나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 공적인 자리 등에서 '당신'을 지칭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자녀] 아버지', '○○[손주, 외손주] 할아버지' 등의 지칭을 써서 사적인 어감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자기'를 지칭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비록 표에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위에 호칭의 사용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현실적인 사용을 고려한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할 지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소통을 위한 언어예절>(2018) 정비안

※ '아내에 대하여'에서 함께 제시함.

4.1.5. 아내에 대하여

남편과 마찬가지로 2011의 '4. 남편의 대하여'와 '5. 아내의 대하여'는 이후 '배우자'로 묶어서 다뤄질 것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호칭은 사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정해 부를 것은 아니나 제3자,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 외의 사람과 있을 때는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 2018은 남편과 아내를 대칭적으로 맞춰 제시하되 현실적인 사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 정비 방향

가. 남편과 아내 간 호칭은 '여보'를 기본으로 하되 결혼의 햇수나 자녀의 유무를 따르기보다는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나. 동기간 또는 동기의 배우자에게 남편을 이를 때는 그들이 아내를 부르는 호칭을 지칭으로 통용한다.

다.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호칭이나 지칭을 인정하고 성별 간 비대칭성을 드러내는 구분 표지는 지양한다.

-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표 비교

〔1992〕 아내에 대한 호칭·지칭어

호칭어	신혼 초	여보, ○○ 씨, 여봐요[허용]
	자녀가 있을 때	여보, ○○ 어머니, ○○ 엄마
	장노년	여보, 임자, ○○ 어머니, ○○ 엄마, ○○ 할머니
지칭어	아내에게	당신, ○○ 씨[신혼 초], 임자[장·노년]
	친부모에게	(○○) 어미(어멈), 그 사람
	장인, 장모에게	○○ 어미(어멈, 엄마), 집사람, 그 사람, 안사람
	형에게	○○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
	동생에게	○○ 엄마, 형수
	누나에게	○○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
	여동생에게	○○ 엄마, (새)언니
	형수, 매부, 제수에게	○○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
	손위 처남에게	○○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
	손아래 처남에게	○○ 엄마, 누나
	처남의 댁에게	○○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
	처형에게	○○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
	처제에게	○○ 엄마, 언니
	동서에게	○○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
	자녀에게	어머니, 엄마
	며느리에게	어머니
	사위에게	장모
	아내 친구에게	그 사람, 집사람, 안사람, 애어머니, 애 엄마
	아내 회사에 전화를 걸 때	○○○ 씨, [성이나 성명과 직함을 부른다]

	아내 회사 사람에게	그 사람
	친구에게	그 사람, 집사람, 안사람, 아내
	아는 사람에게	○○ 엄마, 집사람, 아내, 안사람, 처
	모르는 사람에게	집사람, 아내, 안사람, 처

〔2011〕 [표 Ⅰ-11]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여보, ○○ 씨, ○○[자녀] 엄마, 임자, ○○[손주, 외손주] 할머니
지칭	당사자에게		당신, ○○ 씨, 임자
	친부모에게		어멈, 어미, 집사람, 안사람, ○○[자녀] 엄마
	장인, 장모에게		어멈, 어미, ○○[자녀] 엄마, 집사람, 안사람
	동기에게	손위 동기에게	○○[자녀] 엄마, 집사람, 안사람
		남동생에게	○○[자녀] 엄마, 형수
		여동생에게	○○[자녀] 엄마, 언니, 새언니, 올케, 올케언니
	동기의 배우자에게		○○[자녀] 엄마, 집사람, 안사람
	아내 동기에게	아내의 손위 동기에게	○○[자녀] 엄마, 집사람, 안사람
		아내의 남동생에게	○○[자녀] 엄마, 누나
		아내의 여동생에게	○○[자녀] 엄마, 언니
	아내 동기의 배우자에게		○○[자녀] 엄마, 집사람, 안사람
	자녀에게		어머니, 엄마
	며느리에게		어머니
	사위에게		장모
	친구에게		집사람, 안사람, 아내, 애어머니, 애 엄마, ○○[자녀] 엄마
	아내 친구에게		집사람, 안사람, 애어머니, 애 엄마, ○○[자녀] 엄마, ○○[자녀] 어머니
	아내 회사에 전화를 걸 때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아는 사람에게		○○[자녀] 엄마, ○○[자녀] 어머니, 집사람, 안사람, 아내, 처
	모르는 사람에게		집사람, 안사람, 아내, 처, 애어머니, 애 엄마

〔2018〕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여보, ○○ 씨, ○○[자녀] 엄마, 임자, ○○[손주/외손주] 할머니	=
지칭	어멈, 어미, 애어머니, 애 엄마, 아내, 처 ○○[자녀] 엄마/어머니 (자녀, 사위, 며느리에게) 엄마, 어머니, 어머님 (당사자에게) 당신, 임자 (아내의 직장에) ○○○ 씨, ○(○○) 과장(님)	= 아이어머니, 아이 엄마 (당사자에게) ○○ 씨

1992와 2011의 큰 차이는 상황에 따른 호칭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1992의 경우 호칭에서도 신혼 초인지 장노년인지, 자녀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호칭을 나누었는데 2011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없앴다. 지칭의 경우 나의 동기와 아내의 동기에 대한 것을 세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실제 지칭은 '○○[자녀] 엄마', '집사람', '안사람'을 기본으로 상대방이 부르는 호칭을 지칭으로 통용한 것이다. 아래는 1992와 2011의 지칭 구분을 비교한 것인데 만일 이러한 구분이 반

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 '자녀에게'의 경우 다른 관계에서 사용되는 지칭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이 필요하다) 달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2018은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두루 쓸 수 있는 지칭을 제시하기로 한다.

◎ 1992와 2011 아내에 대한 지칭 사용의 기준이 되는 관계

<table>
<tr><th></th><th>1992</th><th>2011</th><th>공통 지칭</th></tr>
<tr><td rowspan="5">나(남자)의 동기</td><td>형에게</td><td rowspan="2">손위 동기에게</td><td rowspan="10">○○ 엄마, 집사람, 안사람
※1992 구분에서 '제부'(여동생의 남편) 빠짐
※1992의 '처'가 2011에 빠짐</td></tr>
<tr><td>누나에게</td></tr>
<tr><td>동생에게</td><td>남동생에게</td></tr>
<tr><td>여동생에게</td><td>여동생에게</td></tr>
<tr><td>형수, 매부, 제수에게</td><td>동기의 배우자에게</td></tr>
<tr><td rowspan="5">아내의 동기</td><td>손위 처남에게</td><td rowspan="2">아내의 손위 동기에게</td></tr>
<tr><td>처형에게</td></tr>
<tr><td>손아래 처남에게</td><td>아내의 남동생에게</td></tr>
<tr><td>처제에게</td><td>아내의 여동생에게</td></tr>
<tr><td>처남의 댁에게(손위+손아래)</td><td rowspan="2">아내 동기의 배우자에게</td></tr>
<tr><td>동서에게(처형+처제)</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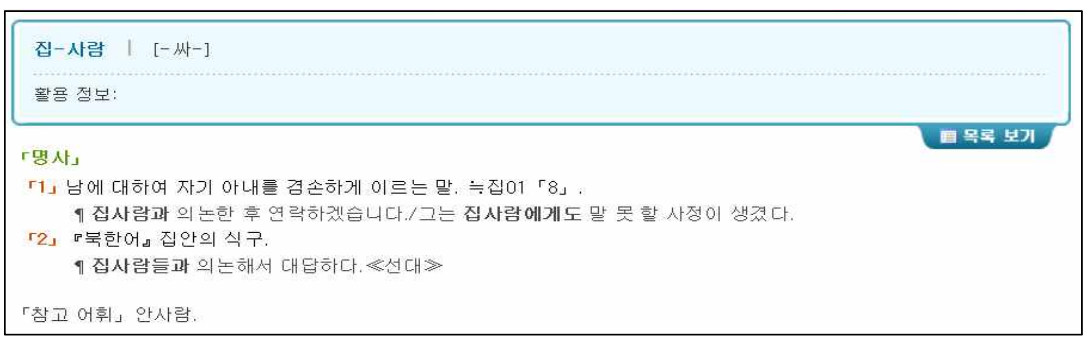
▌호칭▐

부부간에 사용하는 호칭이 나이가 들면서 자녀나 손주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뀌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므로 이를 호칭 사용의 구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호칭은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데, 결혼 전 '○○[이름]아', '누나', '선배' 등으로 불렀던 습관이 남아 결혼 후에도 호칭을 이렇게 쓸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 아내의 직함을 사용해 부를 수도 있다. 2011의 기술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자기'도 사용된다. 부부간 호칭의 사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2018은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호칭을 제시하되 사적인 영역의 호칭 사용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우선 아내에 대해 '○○ 아/야'와 같이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부부만 있는 자리에서는 가능하지만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자기' 역시 1992, 2011에서도 포함의 여부를 고민했던 만큼 2018에서는 언중의 사용 양상을 인정하여 '자기'를 호칭으로 추가하고자 하였지만 표에 함께 제시하는 것은 결정을 유보하였다. 다만 아내에 대해 '○○[아내 이름] 씨'로 부르는 것은 앞서 남편을 '○○[남편 이름] 씨'로 부르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표에 제시하였다. 부부간의 나이 차이나 친밀감의 정도에 따른 애칭 등은 자유롭게 부르는 것이 맞다. 다만 상황이나 장소, 손위 어른이나 제3자가 함께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다.

▌지칭▐

아내에 대한 지칭은 남편에 대한 지칭과 마찬가지로 '○○[자녀] 엄마'를 기본으로 상대방이 부르는 호칭을 지칭으로 통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1992나 2011에서 쓰도록 한 '안사람', '집사람'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남편에 대해 '바깥양반', '바깥사람' 등의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던 것처럼 아내에 대해서도 '안사람', '집사람'으로 지칭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아 표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진 회의 중에 전통적으로 '안사람', '집사람' 등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안사람'의 경우 '안'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고 '이르는 말'로서의 기능만 남아있다고 보면 오히려 '바깥사람'과 '안사람'을 상대방(청자)에 대해 나의 배우자를 예사롭게 또는 낮추어 이르는 말로 함께 쓰도록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심층 면담 결과 현실적으로 '안사람', '집사람'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바깥양반, 바깥사람', '집사람, 안사람' 등에 대해서는 20~30대가 매우 부정적이었던 반면 40~50대는 괜찮다는 반응도 있었고 60대 이상에서는 불편하지 않다는 쪽이 더 우세하였다. 그러나 남편에 대한 지칭과 대칭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바깥사람', '안사람', '집사람'을 모두 표에서 제외하였다. 대신 자녀에 기댄 지칭이나 '(우리) 아내' 등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집-사람 | [-싸-]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1」 남에 대하여 자기 아내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 늑집01 「8」.

¶ **집사람과** 의논한 후 연락하겠습니다./그는 **집사람에게도** 말 못 할 사정이 생겼다.

「2」 『북한어』 집안의 식구.

¶ **집사람들과** 의논해서 대답하다.≪선대≫

「참고 어휘」 안사람.



안-사람 | [-싸-]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아내01'를 예사롭게 또는 낮추어 이르는 말.

¶ **안사람이**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찍 들어가야 합니다./일이 많은 철인 걸 알면서도 명환이 **안사람을** 친정에 보낸 지도 근 열흘이 되어 간다.≪한수산, 유민≫

「반」 바깥사람 「1」.

「참고 어휘」 집사람.

한편 2011에서 언급한 '와이프'의 경우 일부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지만 외국어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지칭은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남편에 대해 '허즈번드'로 부르는 것이 일상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칭적인 지칭 체계를 지향하는 관점에서도 '와이프'만 인정하기는 어렵다. 심층 면담의 결과에서도 '와이프'는 20~30대조차도 순화해야 할 대상으로 '아내'를 쓰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1992와 2011에 걸쳐 배우자를 며느리에게 지칭할 때는 '아버님', '어머니', 사위에게 지칭할 때는 '장인어른'과 '장모' 등으로 쓰도록 되어 있다. 며느리와 사위가 쓰는 호칭에 준해 지칭을 정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 비대칭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선 남편에 대해서는 '아버님'과 '장인어른'으로 높여 이르는 것에 비해 아내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장모'로 평칭으로 이른다. 또 며느리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버님', '어머님'으로 되어 있고 사위만 유표적으로 '장인어른', '장모님'으로 이르도록 한다. 결국 자녀 세대에서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의 비대칭성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의 배우자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지칭하는 비대칭성으로 이어지게 된 셈이다. 2018은 이를 동일하게 '아버지/아버님', '어머니/어머님'으로 맞추었다. 이는 사위나 며느리도 아들, 딸과 마찬가지로 호칭을 쓸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정리한 것이다. 단 본가의 부모와 구분이 필요하다면 사위에게 '장인(어른)', '장모(님)'으로 지칭하고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님)', '시어머니(님)'으로 지칭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내 배우자를 자녀의 배우자에게 지칭할 때

	1992/2011		2018	
	남편에 대한 지칭	아내에 대한 지칭	남편에 대한 지칭	아내에 대한 지칭
며느리에게	아버님	어머님	아버지(님)	어머니(님)
사위에게	장인어른	장모		

한편 같은 맥락에서 며느리나 사위가 아들이나 딸과 같이 시부모나 처부모를 '아빠', '엄마'로 쓰는 경우도 있다. 친근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친부모와 구분이 필요하고 또 배우자의 부모와 격의 없이 지내는 것은 좋지만 예의를 갖춰 대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아빠', '엄마'와 같이 호칭하지 않고 그러므로 부모 역시 자신의 배우자를 며느리나 사위(자녀의 배우자)에게 '아빠', '엄마'로 지칭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아이어머니', '애어머니'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데 '아이 엄마', '애 엄마'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1992나 2011에는 준말에 해당하는 '애어머니'와 '애 엄마'만 지칭어로 제시되어 있다. 앞서 남편을 지칭하는 말로 '아이'와 '애', '아버지'와 '아빠'를 기준으로 네 가지 어휘를 모두 지칭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아내를 지칭하는 말도 '아이어머니', '애어머니', '아이 엄마', '애 엄마'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대칭적으로 정비한다.

'부인'의 경우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므로 나의 아내를 지칭할 때는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 다만 북한에서는 '공식 석상이나 공식 서한 따위에서,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이르는 말.'이라는 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아내를 부르는 호칭에 근거한 지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앞서 남편을 부르는 호칭에 근거하여 지칭을 정리한 것과 같다.

◎ 상대방이 나의 아내를 부르는 호칭에 따른 아내에 대한 지칭

기준	본가 동기				아내의 동기			
관계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	오빠	언니	남동생	여동생
지칭	제수	올케	형수	(새/올케) 언니	동생	동생	누나	언니
관계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지칭	동서	아주머니	형님	아주머니	아가씨	처제	형님	처형

O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해설 비교

표준 화법 해설(1992)

①아내를 부르는 것 역시 남편을 부를 때와 같이 신혼 초, 아이가 있을 때, 장년과 노년으로 나누었다.
연령에 관계없이 아내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어는 '여보'이지만 신혼초에는 결혼 전의 습관을 갑자기 버리기가 어려우므로 ①신혼 초에 한하여 '○○ 씨'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또 신혼 초에 '여보'라는 말을 하기가 쑥스러우므로 '여보'로 넘어가기 전 단계로 '여봐요'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아이가 있을 때는 '여보' 외에 '○○어머니'와 '○○ 엄마'를 인정하였다. 오늘날 아내를 '○○ 어머니'라고 부르는 남편은 거의 없기 때문에 '○○ 엄마'만 두고 '○○ 어머니'를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자녀가 장성했을 때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 어머니'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 어머니', '○○ 엄마' 두 가지를 모두 받아들였다.

장년과 노년에 들어서는 '여보', '○○ 어머니', '○○ 엄마'와 '임자' 그리고 손자, 손녀에 기대어 '○○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인정하였다. ②이 밖에 아내를 '부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나 일반적인 호칭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하였다. '마누라'는 아내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라 하여 역시 배제하였다.

아내와 이야기할 때 지칭어는 일반적으로 '당신'이다. 그러나 호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신혼 초 '당신'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에 결혼 전의 습관대로 '○○ 씨'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 외에 장년과 노년에는 '임자'를 써도 좋다.

③아내를 '자기'라고 지칭하는 데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다. 아내가 남편한테는 '자기'라고 지칭해서 안 되지만 남편이 아내한테는 '자기'라고 지칭할 수 있다는 주장과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관계이므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역시 부부 사이의 지칭어로는 옳지 않아서 표준 화법에 넣지 않았다.

친부모에게 아내를 지칭하는 말은 '(○○) 어미(어멈)', '그 사람'으로 하였다. 부모 앞에서는 아내를 낮추어 말해야 하므로 '○○ 엄마'는 넣지 않았다. 아내를 부를 때나 지칭할 때 신혼 초에 한해 '○○ 씨'가 무방하다고 했으나, ④부모에게 지칭할 때는 어른 앞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뜻에서 '○○ 씨'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걔'라고 하거나 '영희가 그랬어요.'처럼 이름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으나 아내를 무시하는 말이므로 쓰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람'은 옆에 아내가 없을 때의 지칭어이고, 아내가 바로 옆에 있을 때는 '이 사람', 대화의 현장에 있되 떨어져 있을 때는 '저 사람'이라고 한다. 아내를 '그 사람'이라고 가리킬 때에는 어느 경우에나 마찬가지이다. '에미'는 '어미'의 비표준어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장인, 장모에게 아내를 가리켜 말할 때는 '집사람', '안사람', '○○ 어미(어멈, 엄마)', '그 사람'으로 하였다. 친부모에게 말할 때와 달리 '○○ 엄마'를 포함시킨 것은 장인, 장모에게는 그 딸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⑤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인 형수, 제수, 매부에게 아내를 말할 때는 '○○ 엄마'와 '집사람', '안사람', '처'를 쓰기로 하였다. 다만 손아래인 남동생과 누이동생에게는 각기 동생의 처지에 서서 '형수'와 '언니', '새언니'라 하도록 하였다. '형수', '(새)언니' 외에 '너의'를 넣어 '너의 형수', '너의 (새)언니'라고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이는 손아래 사람에게 기대어 표현하는 경우에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⑤처의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에게 아내를 가리킬 때도 역시 '○○ 엄마', '집사람', '안사람', '처'를 쓰는 것이 좋다. 친형제, 자매에게 말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내의 손아래인 처남과 처제에게는 손아래 처남과 처제의 처지에 서서 '누나', '언니'라 하도록 하였다.

자녀에게 아내를 가리켜 말할 때는 '어머니', '엄마'이다. 물론 그 앞에 '너의(너희)'를 얹을 수도 있다.

⑥며느리에게 아내를 지칭할 때는 '어머니'이다. 며느리에게 남편을 가리켜 말할 때 '아버님'이라고 했으므로 아내를 가리켜 말할 때 '어머님'이라고 해야 균형이 맞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실 언어가 남편은 '아버님'이라고 말하지만 아내는 '어머님'이라고 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머니'만을 인정하였다. 또 '시어머니'라고 지칭하는 것 역시 일반적인 쓰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하였다.

⑥사위에게는 '장모'라고 지칭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네 장모'라고 하는 것 역시 옳다. ⑦사회생활에서 남에게 아내를 말할 때는 '집사람', '아내', '안사람', '처'를 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잘 아는 사람에게는 '○○ 엄마'도 쓸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마누라'는 아내를 하대하는 느낌 때문에 제외하였다. '안식구', '내자'는 특별히 제외할 이유는 없으나 오늘날 20대, 30대에게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쓰이지 않을 낡은 어투의 말이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오늘날 젊은 층에서 남들에게 아내를 가리켜 '와이프'라고 말하는 풍조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고유한 우리 말을 두고 외국어를 당연한 것처럼 쓰는 풍조는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34-36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연령에 관계없이 아내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은 '여보'이지만 ①신혼 초에는 결혼 전의 습관을 갑자기 버리기 어려우므로 신혼 초에 한하여 '○○ 씨'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 '여보'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 인정했던 '여봐요'는 현실적으로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아이가 있을 때는 '여보' 외에 '○○[자녀] 엄마'를 쓸 수 있다. 오늘날 아내를 '○○[자녀] 어머니'라고 부르는 남편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자녀] 엄마'만 두고 '○○[자녀] 어머니'는 제외한다. 장년과 노년에 들어서는 '여보', '○○[자녀] 엄마'와 '임자' 그리고 손주에 기대어 '○○[손주, 외손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밖에 ②아내를 '부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으나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다. '마누라'는 아내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므로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지칭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당신'이다. 그러나 호칭에서와 마찬가지로 신혼 초 '당신'이란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에 결혼 전의 습관대로 '○○ 씨'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외에 장년과 노년에는 '임자'를 써도 좋다. ③젊은 부부 사이에서 *남편을 '자기'라 지칭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다.

친부모에게 아내를 지칭하는 말은 '어멈', '어미', '집사람', '안사람', '○○[자녀] 엄마'이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집사람', '안사람'을 쓴다. 아내를 신혼 초에 부모에게 지칭할 때는 어른 앞에서 조심해야

하므로 ‘○○ 씨’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나 부모에게 ④자기 아내를 가리켜 ‘처’라고 하는 것은 거리감이 느껴지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걔’라고 하거나 ‘영희가 그랬어요.’처럼 이름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으나 아내를 무시하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장인, 장모에게 아내를 가리킬 때는 ‘어멈’, ‘어미’, ‘○○[자녀] 엄마’, ‘집사람’, ‘안사람’으로 지칭한다.

동기와 동기의 배우자(형수, 제수, 매형, 매제)에게 아내를 가리킬 때는 ‘○○[자녀] 엄마’를 쓴다. 손아래인 남동생과 여동생에게는 ‘○○[자녀] 엄마’와 함께 각기 동생의 처지에 서서 ‘형수’와 ‘언니’, ‘새언니’, ‘올케’, ‘올케언니’로 지칭한다. ⑤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집사람’, ‘안사람’이라고 쓸 수도 있다. ‘집사람’이나 ‘안사람’이라고 지칭하면 아내를 낮추는 의미가 되므로 손아래 동기의 처지에서 부르는 말로 지칭하는 것이 올바르다. 또 ‘처’는 친인척이 아닌 사람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내를 지칭할 때 자연스럽다. 가정 내 동기 사이에서 ‘처’를 사용하면 남처럼 느껴질 수 있고 어색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⑤아내의 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아내를 가리킬 때도 역시 ‘○○[자녀] 엄마’, ‘집사람’, ‘안사람’을 쓰는 것이 좋다. 친형제, 자매에게 말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내의 손아래 동기인 처남과 처제에게는 그들의 처지에 서서 ‘누나’, ‘언니’라 지칭한다. 자녀에게 아내를 가리켜 말할 때는 ‘어머니’, ‘엄마’이다. 물론 그 앞에 ‘너의’, ‘너희’를 얹을 수도 있다.

⑥며느리에게 아내를 지칭할 때는 ‘어머니’이다. 며느리에게 남편을 가리켜 말할 때 ‘아버님’이라고 하므로 아내를 가리켜 말할 때 ‘어머님’이라고 해야 균형이 맞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실 언어가 남편은 ‘아버님’이라고 말하지만 아내는 ‘어머님’이라고 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머니’만을 인정하였다. 또 ‘시어머니’라고 지칭하는 것 역시 일반적인 쓰임이 아니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⑥사위에게는 ‘장모’라고 지칭한다.

친구에게 아내를 지칭할 때나 아내의 친구에게 아내를 지칭할 때에는 ‘집사람’, ‘안사람’, ‘애어머니’, ‘애 엄마’, ‘○○[자녀] 엄마’로 쓴다. ‘마누라’는 아내를 하대하는 느낌이 들고 ‘안식구’, ‘내자’는 오늘날 거의 쓰이지 않고 앞으로 더욱 쓰이지 않을 말이기에 적합하지 않다.

아내 회사에 전화를 걸어 아내를 지칭할 때에는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을 쓴다. 아는 사람에게는 ‘집사람’, ‘안사람’, ‘아내’, ‘처’뿐만 아니라 자녀 이름에 기대어 ‘○○[자녀] 엄마’, ‘○○[자녀] 어머니’도 쓸 수 있다. ⑦모르는 사람에게 아내를 가리킬 때는 ‘집사람’, ‘안사람’, ‘아내’, ‘처’, ‘애어머니’, ‘애 엄마’로 나타낸다.

오늘날 젊은 층에서 남들에게 아내를 가리켜 ‘와이프’라고 말하는 풍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고유한 우리말을 두고 외국어를 당연한 것처럼 쓰는 풍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37-39쪽>

1992에서 호칭의 사용을 결혼 기간이나 자녀의 유무에 따라 나누었던 것을 2011에서 그 구분을 없앴다. 구분은 없앴지만 해설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1992와 2011의 해설에서 ①과 같이 결혼 전의 쓰임을 고려하여 신혼 초에는 ‘○○ 씨’를 쓸 수 있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결혼 전에 ‘누나’나 ‘자기’를 썼다면 이를 신혼 초에는 써도 된다는 말이 된다. 2018은 ‘여보’를 기본으로 하되 결혼 전에 사용한 호칭에 대해서도 장소나 제3자 등의 여부를 고려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보았다.

②와 같이 아내에 대해 ‘부인’이나 ‘마누라’를 쓰는 것은 2018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우선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이므로 나의 아내를 이르는 말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 ‘마누라’는 ‘중년이 넘은 아내를 허물없이 이르는 말.’ 또는 ‘중년이

넘은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되어 있어서 사전의 뜻풀이에 따르면 지칭으로서의 용법만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2011에서 '아내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와 같이 호칭으로 기술한 부분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남편에 대해 '영감탱이, 영감쟁이, 영감태기', 아내에 대해 '마누라, 마누라쟁이'로 지칭하는 것은 낮잡아 이르는 말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어미'는 '웃어른 앞에서 자기 아내를 낮추어 이르는 말.'인데 심층 면담 등에서 현실적으로 사용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③은 아내에 대한 기술 중에 '*남편'을 자기로 부르는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2011의 단순한 오탈자로 보인다. '아내'로 수정하는 것이 문맥에 맞다. '아내'를 자기로 부르는 것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고 또 부부간에 호칭은 사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앞서 '남편'을 자기로 부르는 문제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8 표에 이를 포함하는 문제는 결정을 유보하였다.

④는 친부모에게 아내를 지칭하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예들이다. 우선 '처'는 거리감이 느껴져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데 '집사람'이나 '안사람'에 비해 '처'로 지칭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또 '처'만 제시되어 있고 '아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아내'를 써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도 분명치 않다. 다음으로 이름이나 '걔'로 지칭하는 것은 아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걔'의 경우 '그 아이'의 준말이므로 아내를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해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내를 무시한다는 것의 근거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집사람'이나 '안사람'으로 지칭하는 것의 타당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아래는 사전에 풀이된 '집사람'과 '안사람'의 뜻풀이이다.

◎ '안사람'과 '집사람'의 사전 뜻풀이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사전>
안사람	'아내01'를 예사롭게 또는 낮추어 이르는 말	(1)(기본의미) 상대에 대하여 자신의 아내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 (2)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아내를 가리켜 이르는 말.
집사람	남에 대하여 자기 아내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	남에게 자기 아내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

사전의 뜻풀이에만 기대어 볼 때 우선 두 표현 모두 아내를 상대방(청자)에게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특히 '집사람'은 '남에 대하여', '남에게' 등으로 부모가 아닌 상대방에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에게 아내를 지칭할 때 '집사람', '안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사전의 뜻풀이와 맞지 않는 셈이다. 이어 ⑤에서도 '집사람', '안사람'이 아내를 낮추는 지칭이라고 기술되어 있다는 점, 현재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남편에 대해 '바깥양반', '바깥사람' 등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18에서는 이 두 어휘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았다. 특히 심층 면담의 결과로 미루어 나의 아내에 대해 남이나 부모에게 반드시 낮춰 이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의식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⑦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므로 모르는 사람에게 굳이 나의 아내를 낮춰 이를 필요가 없으므로 '집사람'이나 '안사람'보다는 '아내'가 적절할 것이다.

⑥의 경우 2018은 남편에 대해 며느리나 사위에게 ‘아버님/아버지’를 모두 지칭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본 것처럼 아내에 대해서도 ‘어머님/어머니’를 모두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남편을 며느리나 사위에게 이를 때 ‘아버지’로, 아내를 며느리나 사위에게 이를 때 ‘어머니’로 이르는 것은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나 처부모에게 사용하는 호칭과 대칭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다.

O <소통을 위한 언어예절>(2018) 정비안

〔2018〕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여보, ○○ 씨, ○○[자녀] 아빠/아버지, 영감, ○○[손주/외손주] 할아버지	=
지칭	○ 서방, 아범, 아비, 애아버지, 애 아빠, 그이 ○○[자녀] 아빠/아버지 (자녀, 사위, 며느리에게) 아빠[자녀에게만], 아버지, 아버님 (당사자에게) 당신, ○○ 씨, 영감 (남편의 직장에) ○○○ 씨, ○(○○) 과장(님)	= 이이, 저이, (우리) 남편, 아이아버지, 아이 아빠

〔2018〕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여보, ○○ 씨, ○○[자녀] 엄마, 임자, ○○[손주/외손주] 할머니	=
지칭	어멈, 어미, 애어머니, 애 엄마, 아내, 처 ○○[자녀] 엄마/어머니 (자녀, 사위, 며느리에게) 엄마[자녀에게만], 어머니, 어머님 (당사자에게) 당신, 임자 (아내의 직장에) ○○○ 씨, ○(○○) 과장(님)	= 아이어머니, 아이 엄마, (당사자에게) ○○ 씨

4.1.6.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우리말의 호칭어와 지칭어 중 가장 복잡한 부분이 동기와 그 배우자, 배우자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관한 부분이다. 결혼을 통해 서열과 나이가 뒤바뀌기도 하고 친분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어 전통적으로 써 온 호칭어나 지칭어에 대해서도 언중의 정비 요구가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2018은 청자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던 지칭을 통합하고 특별히 구분해야 할 지칭만 따로 청자를 제시하는 것으로 제시 방식을 간소화하였다. 격식을 갖춰야할 자리에서는 '-님'을 붙여 쓰되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나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지칭에서는 '아빠', '엄마' 등의 유아어를 포함한 '큰아빠', '큰엄마' 등의 사용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O 정비 방향

가. 같은 지칭어를 사용하는 관계는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는다.

나. 자녀, 지역, 관계 등을 활용하여 이르는 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다. 서열만 기준으로 한 지칭어에 대해서는 서열과 나이를 함께 고려하여 정한다.

O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표 비교

1 남자의 경우 : 형, 남동생, 누나, 여동생과 그 배우자

가. 형과 그 배우자

〔1992〕 남자의 경우

		형	형의 아내
호칭어		형, 형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형수님
지칭어	당사자에게	형, 형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형수님
	부모에게	형	아주머님, 형수
	동기, 처가 쪽 사람에게	형, 형님	아주머니(님), 형수(님)
	자녀에게	큰아버지(님)	큰어머니(님)
	타인에게	형, 형님	형수(님)

〔2011〕 [표 Ⅰ-12] 형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형, 형님
지칭	당사자에게	형, 형님
	부모에게	형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형, 형님
	처가 쪽 사람에게	형, 형님, ○○[자녀] 큰아버지
	자녀에게	큰아버지, 큰아버님
	그 밖의 사람에게	형, 형님, ○○[자녀] 큰아버지

〔2011〕 [표 Ⅰ-13]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형수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지칭	당사자에게	형수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부모에게	형수, 아주머니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형수님, 형수, 아주머님, 아주머니
	처가 쪽 사람에게	형수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자녀] 큰어머니
	자녀에게	큰어머니, 큰어머님
	그 밖의 사람에게	형수님, ○○[자녀] 큰어머니

〔2018〕 형에 대한 호칭, 지칭 (2018)

	전통	가능
호칭	형, 형님	=
지칭	형, 형님 ○○[자녀] 큰아버지 (자녀에게) 큰아버지(님)	= 큰아빠

〔2018〕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2018)

	전통	가능
호칭	형수님, 아주머니(님)	= 형수
지칭	형수님, 아주머니(님), ○○[자녀] 큰어머니 (자녀에게) 큰어머니(님)	= 형수 큰엄마

▌호칭과 지칭▐

1992와 2011의 가장 큰 차이는 '형'과 '형의 아내'가 묶여 있던 것을 2011에서 둘로 나누어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2018 역시 2011을 따라 형과 형의 아내를 나누어 기술한다. 나보다 손위인 남자 형제에 대해 호칭은 '형'을 기본으로 높여서 이르는 '형님'을 더 쓸 수 있고, 지칭은 '형', '형님'과 함께 나의 자녀에 기대 '○○[나의 자녀] 큰아버지' 등을 사용한다. 형이 여럿일 경우 '첫째', '둘째' 등 서수사를 써서 구분할 수 있다.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님'을 붙여 사용할 수 있고 또 형제간에 나이 차가 많이 날 경우, 형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 자식과 손주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형'이라고 부르기 어색하여 '형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형의 아내는 '형수님'을 기본적인 호칭으로 하고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아주머니', '아주머님'도 쓸 수 있다. 심층 면담의 결과 거의 모든 경우 '형수(님)'을 쓰고 있었고 '아주머니(님)'을 알고 있다는 응답 정도가 있었다.

한편 최근 결혼하는 연령이 점차 늦어지면서 형제간 서열과 나이가 역전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즉 나이 많은 형이 나이 어린 아내와 결혼을 할 경우 형의 부인, 즉 형수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형의 아내이기 때문에 형을 대접하는 것처럼 '형수님'을 쓰도록 하였지만, 나와 형수 간 나이 차이가 없거나 나보다 어릴 경우 각

가정의 분위기나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형수’로 부르기도 한다. 다만 이 때에도 호칭의 대상이 되는 형수와 형이 ‘형수’로 부르는 것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지칭의 경우에도 나보다 손윗사람에게 이야기할 경우 높이지 말아야 할 상황이라면 ‘형’과 ‘형수’를 지칭어로 사용하지만, 나와 형, 그 형의 아내보다 손아랫사람이라면 ‘형수님’을 지칭어로 쓴다.

한편 부모에 대해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는 것보다 ‘아빠’, ‘엄마’로 부르는 일이 연령에 관계없이 두루 나타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형과 그 아내인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큰아빠’, ‘큰엄마’로 부르는 일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나의 형과 그 아내를 지칭할 때 ‘큰아빠’, ‘큰엄마’ 등으로 지칭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다. 여기에서만 대표로 ‘큰아빠’, ‘큰엄마’를 제시하되 이후 따로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아빠’, ‘어머니’는 ‘엄마’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남동생과 그 배우자

〔1992〕 남자의 경우

		남동생	남동생의 아내
호칭어		○○[이름], 아우, 동생	제수씨, 계수씨
지칭어	부모, 동기, 타인에게	○○[이름], 아우, 동생	제수(씨), 계수(씨)
	처가 쪽 사람에게	아우, 동생	제수(씨), 계수(씨)
	자녀에게	삼촌, 작은아버지(작은아버님)	작은어머니(님), 숙모(님)

〔2011〕 [표 Ⅰ-14] 남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 남자

호칭		○○[이름], 아우, 동생
지칭	당사자에게	○○[이름], 아우, 동생
	부모에게	○○[이름], 아우, 동생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이름], 아우, 동생
	처가 쪽 사람에게	아우, 동생, ○○[자녀] 작은아버지
	자녀에게	삼촌, 작은아버지
	그 밖의 사람에게	○○[이름], 아우, 동생, ○○[자녀] 작은아버지

〔2011〕 [표 Ⅰ-15]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 남자

호칭		제수씨, 계수씨
지칭	당사자에게	제수씨, 계수씨
	부모에게	제수, 제수씨, 계수, 계수씨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제수, 제수씨, 계수, 계수씨
	처가 쪽 사람에게	제수, 제수씨, 계수, 계수씨, ○○[자녀] 작은어머니
	자녀에게	작은어머니, 숙모
	그 밖의 사람에게	제수, 제수씨, 계수, 계수씨, ○○[자녀] 작은어머니

〔2018〕 남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 남자

	전통	가능
호칭	○○[이름], 아우, 동생	=
지칭	○○[이름], 아우, 동생 ○○[자녀] 작은아버지 (자녀에게) 작은아버지,(님) 삼촌	= 남동생 작은아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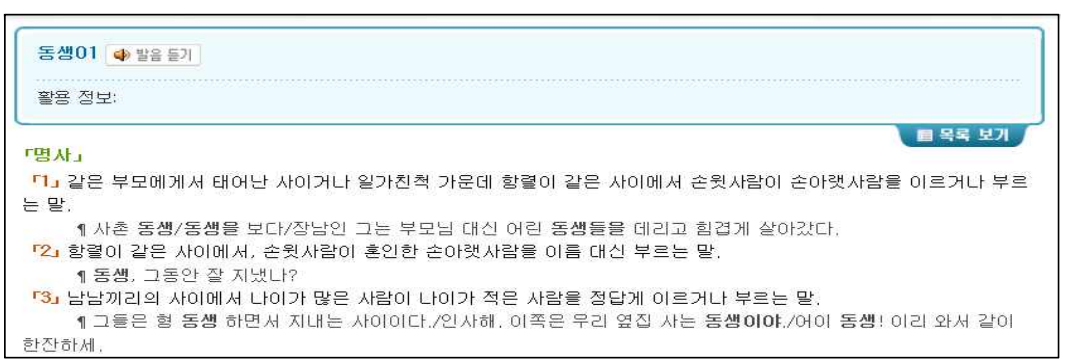
[2018]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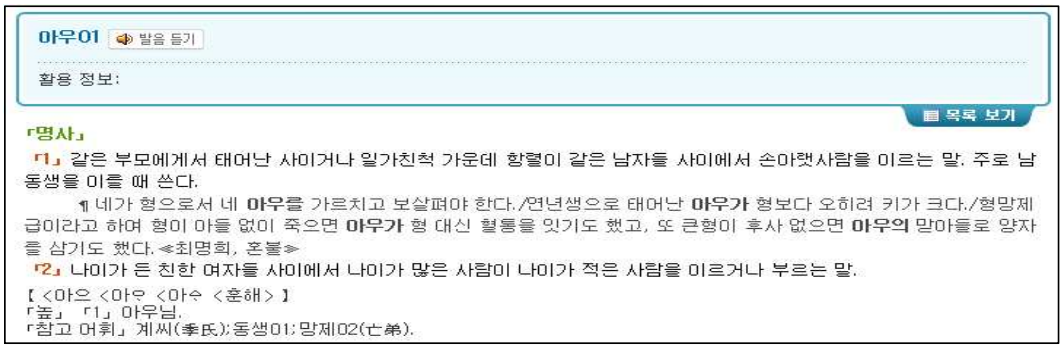
	전통	가능
호칭	제수씨, 계수씨	= 제수, 계수
지칭	제수, 제수씨, 계수, 계수씨 ○○[자녀] 작은어머니 (자녀에게) 작은어머니(님), 숙모(님)	= 작은엄마

1992에서 손위 남자 형제인 '형'과 마찬가지로 남동생에 대해서도 남동생과 남동생의 아내가 하나로 묶여 있던 것이 2011에서는 '남동생'과 '남동생의 아내'로 분리되었다. 2018도 2011을 따라 남동생과 남동생의 아내를 따로 제시한다.

▌호칭과 지칭▐

전통적으로 손위 동기에 대해서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또 손위 동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형, 누나, 오빠, 언니'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에 비해 손아래 동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름을 부르도록 되어 있어 호칭어가 별다르게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남자 형제들 간에서는 손아래 동기에 대해 '아우'로 전통적으로 불러 왔는데 최근에는 많이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동생'도 부르는 말로 함께 쓸 수 있는데 '아우'와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되는 호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진 회의에서 '아우'나 '동생'은 현실적으로 호칭어의 쓰임이 많지 않다고 보아 제외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을 굳이 없애기보다는 살려 쓸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아 전통적인 용법으로 두기로 하였다. 사전 풀이를 보면 '동생'은 호칭과 지칭의 용법이 모두 있는 반면 '아우'는 지칭으로서의 용법만 있다.




아우01 발음 듣기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1」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남자들 사이에서 손아랫사람을 이르는 말. 주로 남동생을 이를 때 쓴다.

¶ 네가 형으로서 네 **아우**를 가르치고 보살펴야 한다./연년생으로 태어난 **아우가** 형보다 오히려 키가 크다./형망제급이라고 하며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아우가** 형 대신 혈통을 잇기도 했고, 또 큰형이 후사 없으면 **아우의** 맏아들로 양자를 삼기도 했다. ≪최명희, 혼불≫

「2」 나이가 든 친한 여자들 사이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 <아으 <아우 <아수 <훈해> 】

「높」 「1」 아우님.

「참고 어휘」 계씨(季氏); 동생01; 망제02(亡弟).

심층 면담의 결과 남동생의 아내에 대해서는 '제수씨'로 호칭과 지칭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실제 '계수씨'의 사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역시 전통적인 용법으로 보아 굳이 제외하지는 않았다. 한편 심층 면담에서 형의 아내에 대해 '형수'로 부르는 경우와 같이 남동생의 아내를 '제수'로 부르는 경우 두 사람의 나이가 동갑이거나 편한 상대일 때 혹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사용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제수'의 경우 사용이 확인되어 '형수'와 마찬가지로 표에 포함하여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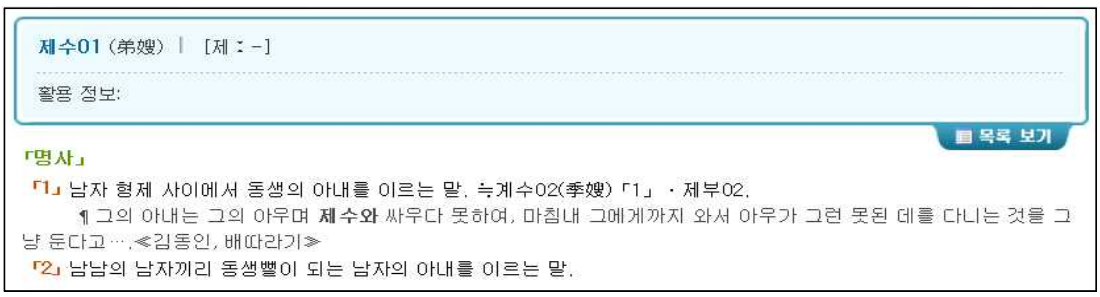
동생이 여럿이 있을 경우 남자 동생을 구분하여 지칭해야 할 경우에는 '여동생'과 대칭적으로 '남동생'으로 한다. 1992와 2011의 경우 남동생은 '동생'으로 여동생은 '여동생'으로 처리하여 여동생만 유표적인 것으로 처리하였지만 2018은 성별 간 비대칭성을 없애는 것을 정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지칭에 '남동생'을 추가하였다.

한편 처가 쪽 사람이나 가족 외의 사람에게 나의 자녀와 남동생, 나의 자녀와 남동생의 아내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나의 자녀] 작은아버지', '○○[나의 자녀] 작은어머니'로 지칭할 수 있는데 앞서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큰아빠', '큰엄마'로 지칭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본 것처럼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역시 '작은아빠', '작은엄마'로 지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녀가 남동생과 그 배우자에게 쓰는 호칭인 '삼촌'과 '숙모'도 지칭으로 쓴다.

2018에서는 '제수'와 '계수'도 1992나 2011의 처리와 차이가 있다. 남동생의 아내에 대해서는 지칭어 '제수'(弟嫂, 아우 제, 형수 수, '嫂'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인'의 뜻으로 쓰임)에 '씨(氏)'가 붙어서 호칭어로 쓰이게 된 것인데 현재 사전의 뜻풀이에 따르면 '제수'는 지칭어의 용법만 있고 '제수씨'는 호칭어와 지칭어의 용법이 모두 있다. '제수'의 경우 남동생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보다 서열이 낮은 것으로 보아 '-님'을 붙여 '제수님'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동생의 아내도 역시 형의 아내와 같이 대접하여야 할 대상이므로 '제수씨'로 부르고 이르는 것이 기본이지만 경우에 따라 '제수'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가족 간 친밀함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현재 지칭어로만 되어 있는 '제수'도 역시 호칭어로 쓰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심층 면담의 응답 중에는 동갑이거나 서로 편하고 친밀함이 있는 경우 '제수'로 부른다는 답이 있었다. 이처럼 비격식적인 상황이나 친밀함이 있고 서로 이해가 된 사이라면 '형수'나 '제수'와 같은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겠다.

‘계수(季嫂)’의 경우 ‘제수(弟嫂)’를 뜻하기도 하지만 ‘남자 형제가 여러 명일 경우 막내의 부인을 이르는 말.’의 용법도 있다. 전통적으로 형제가 여럿일 경우 형제들의 차례를 ‘백부(伯父, 큰아버지)–중부(仲父, 둘째아버지)–숙부(叔父, 작은아버지)–계부(季父, 아버지의 막내아우)’로 하였고 ‘백수(伯嫂, 맏형수)’는 ‘백부(伯父)’의 아내, ‘계수(季嫂)’는 ‘계부(季父)’의 아내가 된다. 보통 한 집안의 동기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백부’나 ‘중부’, ‘숙부’, ‘계부’ 등 남자 형제들 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굳이 ‘계수’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만 전통적으로 ‘계수’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2018에서도 표에 포함하였다.



제수01 (弟嫂) | [제 : -]

활용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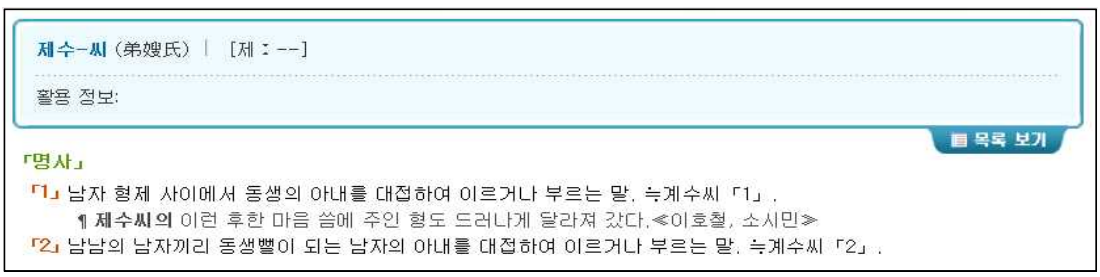
목록 보기

「명사」

「1」 남자 형제 사이에서 동생의 아내를 이르는 말. ≒계수02(季嫂)「1」 · 제부02.

¶ 그의 아내는 그의 아우며 **제수와** 싸우다 못하여, 마침내 그에게까지 와서 아우가 그런 못된 데를 다니는 것을 그냥 둔다고 ….≪김동인, 배따라기≫

「2」 남남의 남자끼리 동생뻘이 되는 남자의 아내를 이르는 말.



제수-씨 (弟嫂氏) | [제 : --]

활용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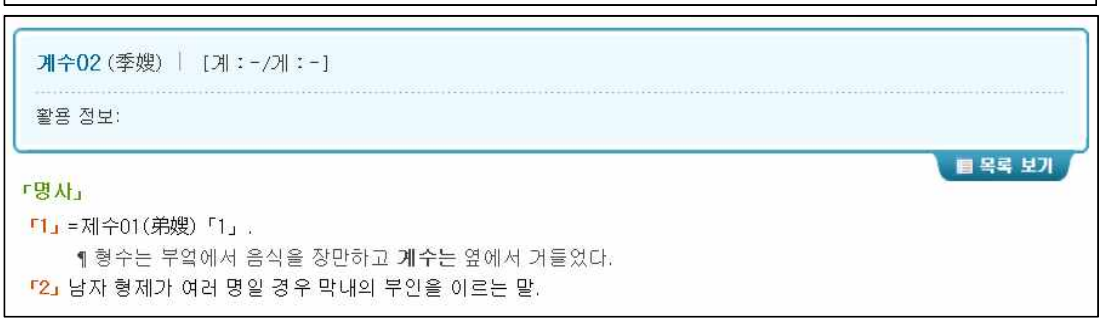
목록 보기

「명사」

「1」 남자 형제 사이에서 동생의 아내를 대접하여 이르거나 부르는 말. ≒계수씨「1」.

¶ **제수씨의** 이런 후한 마음 씀에 주인 형도 드러나게 달라져 갔다.≪이호철, 소시민≫

「2」 남남의 남자끼리 동생뻘이 되는 남자의 아내를 대접하여 이르거나 부르는 말. ≒계수씨「2」.



계수02 (季嫂) | [계 : -/게 : -]

활용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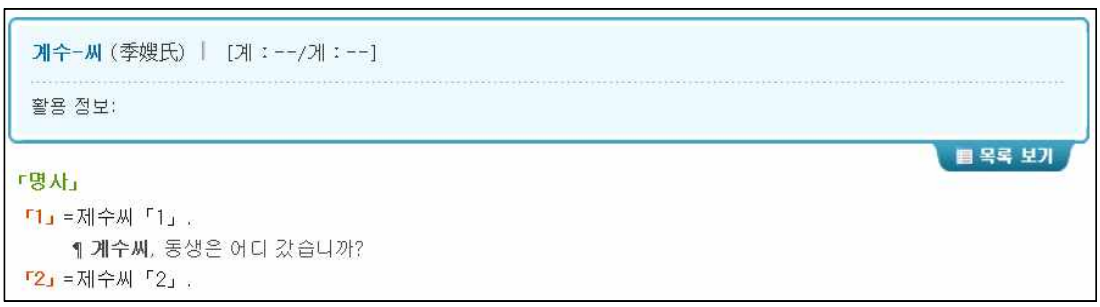
목록 보기

「명사」

「1」 =제수01(弟嫂)「1」.

¶ 형수는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계수는** 옆에서 거들었다.

「2」 남자 형제가 여러 명일 경우 막내의 부인을 이르는 말.



계수-씨 (季嫂氏) | [계 : --/게 : --]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1」 =제수씨「1」.

¶ **계수씨**, 동생은 어디 갔습니까?

「2」 =제수씨「2」.

다. 누나와 그 배우자

〔1992〕 남자의 경우

		누나	누나의 남편
호칭어		누나, 누님	매부, 매형, 자형
지칭어	부모에게	누나	매부, 매형, 자형
	동기 및 처가 쪽 사람, 타인에게	누나, 누님	매부, 매형, 자형
	자녀에게	고모(님)	고모부(님)

〔2011〕 [표 Ⅰ-16] 누나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누나, 누님
지칭	당사자에게	누나, 누님
	부모에게	누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누나, 누님, 누이
	처가 쪽 사람에게	누나, 누님, 누이, ○○[자녀] 고모
	자녀에게	고모, 고모님
	그 밖의 사람에게	누나, 누님, 누이, ○○[자녀] 고모

〔2011〕 [표 Ⅰ-17]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매형, 자형, 매부
지칭	당사자에게	매형, 자형, 매부
	부모에게	매형, 자형, 매부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매형, 자형, 매부
	처가 쪽 사람에게	매형, 자형, 매부, ○○[자녀] 고모부
	자녀에게	고모부, 고모부님
	그 밖의 사람에게	매형, 자형, 매부, ○○[자녀] 고모부

〔2018〕 누나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누나, 누님	=
지칭	누나, 누님, 누이 ○○[자녀] 고모 (자녀에게) 고모(님)	=

〔2018〕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매형, 자형, 매부	= 매형님, 자형님, 매부님
지칭	매형, 자형, 매부 ○○[자녀] 고모부 (자녀에게) 고모부(님)	= 매형님, 자형님, 매부님[43]

43) 상대방의 신분이나 지위를 높이는 표현인 접미사 '-님'에 대해 표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시하기로 하였다. 언중은 높임을 드러내고 싶을 때 기존 '형-형님', '누나-누님'에 준해 '-님'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매형님'이나 '자형님', '매부님'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다. 이후 명시적으로 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언어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호칭이나 지칭에 '-님'을 붙여 사용할 수 있다.

▌호칭과 지칭▐

손위의 여자 형제에 대한 호칭은 기본적으로 '누나'이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격식을 갖춰 불러야 할 때는 '-님'을 붙여 '누님'으로 부른다. '누이'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사이에서 남자가 여자 형제를 이르는 말. 흔히 손아래인 여자를 이른다.'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어 손아래 여동생을 지칭하는 말로 볼 수 있는데, 1992에는 지칭에 없다가 2011에 동기와 그 배우자, 처가 쪽 사람, 그 밖의 사람들에게 '누나'를 지칭하는 말로 '누이'가 포함되었다. 사전의 뜻풀이와 괴리가 있고 '누이'가 잘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우'와 같이 차츰 쓰임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누나의 남편은 '매형'을 기본으로 하고 손위와 손아래 모두 쓸 수 있는 '매부'와 1992에서 추가된 '자형' 세 가지를 호칭과 지칭으로 쓴다. 1992에서는 '자형(姊兄)'이 남부 지방의 말이지만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서도 상당히 세력을 얻은 것으로 보아 '표준 언어 예절'로 인정하였다. 2018은 여기에 '매형님', '매부님', '자형님'을 추가하였는데 '누나'에 대해 '누님'이 있는 것처럼 '매형'에 대해서도 나이가 한참 위이거나 높임을 좀더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호칭과 지칭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누나-누님'처럼 '매형-매형님'으로 계열을 맞춰 쓸 수 있겠다.

*한자어의 의미와 어휘의 뜻풀이
姊兄 손위 누이 자, 손위 누이의 남편　　妹兄 손위 누이의 남편
妹弟 누이동생의 남편　　妹夫 손위 누이나 손아래 누이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cf. 姉 손위 누이 자, 妹 손아래 누이 매

격식을 갖춰야 할 상황이나 호칭이나 지칭의 대상이 나이가 많은 경우 '고모님', '고모부님'으로 높여 이를 수 있고 자녀의 이름을 알고 있는 가족 외의 사람이나 처가 사람에게 '○○[자녀] 고모'와 '○○[자녀] 고모부'를 지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 여동생과 그 배우자

〔1992〕 남자의 경우

		여동생	여동생의 남편
호칭어		○○[이름], 동생	매부, ○ 서방
지칭어	부모에게	○○[이름], 동생	매부, ○ 서방
	동기에게	○○[이름], 동생	매부, ○ 서방, 형부
	처가 쪽 사람에게	누이동생	매부
	자녀에게	고모(님)	고모부(님)
	타인에게	누이동생	매부, ○ 서방

〔2011〕 [표 Ⅰ-18] 여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 남자

호칭		○○[이름], 동생
지칭	당사자에게	○○[이름], 동생
	부모에게	○○[이름], 동생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이름], 동생, 누이
	처가 쪽 사람에게	누이동생, 여동생, 동생, 누이, ○○[자녀] 고모
	자녀에게	고모
	그 밖의 사람에게	누이동생, 여동생, 동생, 누이, ○○[자녀] 고모

〔2011〕 [표 Ⅰ-19]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 남자

호칭		○ 서방, 매부, 매제
지칭	당사자에게	○ 서방, 매부, 매제
	부모에게	○ 서방, 매부, 매제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 서방, 매부, 매제
	처가 쪽 사람에게	매부, 매제, ○○[자녀] 고모부
	자녀에게	고모부
	그 밖의 사람에게	○ 서방, 매부, 매제, ○○[자녀] 고모부

〔2018〕 여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 남자

	전통	가능
호칭	○○[이름], 동생	=
지칭	○○[이름], 동생, 누이, 누이동생, 여동생 ○○[자녀] 고모 (자녀에게) 고모(님)	=

〔2018〕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 남자

	전통	가능
호칭	○ 서방, 매부, 매제	= ○ 서방님, 매부님, 매제님
지칭	○ 서방, 매부, 매제 ○○[자녀] 고모부 (자녀에게) 고모부(님)	= ○ 서방님, 매부님, 매제님

남자가 여동생과 그 남편을 부를 때 1992와 2011 간 가장 큰 차이는 지칭으로 ‘여동생’과 호칭과 지칭으로 ‘매제’가 추가된 것이다. 남동생을 ‘아우’, 여동생을 ‘누이동생’으로 부르던 전통적인 용법에서 남동생에 대해서는 ‘동생’, 여동생에 대해서는 유표적으로 ‘여동생’으로 구분하였던 것이 2011의 방식이다. 2018은 이러한 비대칭적 사용을 ‘남동생’과 ‘여동생’으로 맞춰 제시하였다.

▌호칭과 지칭▐

결혼으로 인해 새롭게 맺어진 인간관계의 경우 결혼 이전에 사적으로 친했던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예의를 갖춰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존중이 동기간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손위 동기 뿐 아니라 손아래 동기의 배우자도 존중하여 호칭과 지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동생의 남편이 나보다 나이가 많을 경우 ‘매부’로 부르기 어렵다면 ‘매부님’과 같이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서방’도 마찬가지여서 ‘○ 서방님’으로 부르면 된다. 이처럼 나이와 서열이 역전되었을 경우(상대방이 나보다 나이는 많지만 서열이 낮을 때) 각 가정의 분위기나 상대방과의 친밀도 등을 고려하여 ‘○ 서방(님)’, ‘매부(님)’, ‘매제(님)’을 적절히 사용하면 된다. 즉 서열은 낮지만 나이가 많아서 낮춰 부르는 것이 어렵다면 원래의 호칭에 ‘-님’을 붙여 공손을 표시할 수 있다. 남동생의 아내는 ‘제수’를 ‘제수씨’를 쓰는 것으로 대접하여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 쓸 수 있다. ‘형수’는 ‘형수님’으로 높여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 쓰고 ‘형수씨’는 남남끼리 형의 아내를 대접하여 부르는 말로 ‘형수님’도 지인의 아내에게 쓸 수 있다.

2 여자의 경우: 오빠, 남동생, 언니, 여동생과 그 배우자

마. 오빠와 그 배우자

〔1992〕 여자의 경우

		오빠	오빠의 아내
호칭어		오빠, 오라버니(님)	언니, 새언니
지칭어	당사자에게	오빠, 오라버니(님)	언니, 새언니
	부모에게	오빠, 오라버니	언니, 새언니, 올케
	동기에게	오빠, 오라버니(님), 형(님)	언니, 새언니, 올케
	시댁 쪽 사람 및 타인에게	(친정) 오빠, (친정) 오라버니, ○○ 외삼촌	새언니, 올케, ○○ 외숙모
	자녀에게	외삼촌, 외숙부(님)	외숙모(님)

〔2011〕 [표 Ⅰ-20] 오빠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오빠, 오라버니, 오라버님
지칭	당사자에게	오빠, 오라버니, 오라버님
	부모에게	오빠, 오라버니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오빠, 오라버니, 오라버님
	시댁 쪽 사람에게	오빠, 친정 오빠, 오라버니, 친정 오라버니, ○○[자녀] 외삼촌
	자녀에게	외삼촌, 외숙부, 외숙부님
	그 밖의 사람에게	오빠, 친정 오빠, 오라버니, 친정 오라버니, ○○[자녀] 외삼촌

〔2011〕 [표 Ⅰ-21] 오빠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새언니, 언니
지칭	당사자에게	새언니, 언니
	부모에게	새언니, 언니, 올케, 올케언니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새언니, 언니, 올케, 올케언니
	시댁 쪽 사람에게	올케, 올케언니, 새언니, ○○[자녀] 외숙모
	자녀에게	외숙모, 외숙모님
	그 밖의 사람에게	올케, 올케언니, 새언니, ○○[자녀] 외숙모

〔2018〕 오빠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오빠, 오라버니, 오라버님	=
지칭	오빠, 오라버니, 오라버님 친정 오빠, 친정 오라버니, ○○[자녀] 외삼촌 (자녀에게) 외삼촌, 외숙부(님)	= 본가 오빠, 본가 오라버니(님)[44]

[2018] 오빠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새언니, 언니	= 올케(님), 올케언니
지칭	새언니, 언니, 올케, 올케언니 ○○[자녀] 외숙모 (자녀에게) 외숙모(님)	=

1992와 2011의 가장 큰 차이는 오빠의 아내를 '올케언니'로 지칭하는 것이다. '올케'가 오빠의 아내를 이르는 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뜻풀이가 되어 있고 '올케언니'가 '새언니'와 같은 뜻으로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2018은 지칭과 호칭을 겸하여 쓸 수 있다고 보아 '올케'를 오빠의 아내를 부르는 말로 제안하였다. 오빠의 아내로 나보다 서열은 높지만 나이가 어릴 경우 '언니'라는 호칭을 쓰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호칭과 지칭을 통용하는 것을 적용하면 지칭 중 '올케'를 호칭으로 쓸 수 있겠다.

▌호칭과 지칭▐

2018은 여성의 결혼 전 친부모의 집을 '친정', '본가'로 부르는 것에 비해 남성의 결혼 전 친부모의 집을 부르는 말이 없는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 전 친부모의 집을 부르는 말로 '본가'를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여성이 '친정 오라버니'를 '본가 오라버니'나 '본가 오빠' 등으로 지칭할 수 있고 남성이 자신의 누나나 여동생을 '본가 누나' 또는 '본가 여동생' 등으로 지칭할 수 있다.[45]

오빠의 아내는 결혼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관계이므로 나이와 서열이 역전될 수 있다. '오빠의 아내'가 나보다 어릴 경우 '언니'로 부르는 것에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라고 해도 오빠의 아내를 존중하는 것이 곧 오빠를 존중하는 것이므로 '언니'로 부르되 상호 존중하여 존댓말을 쓰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다. 문제는 결혼 전부터 친근하게 지내온 사이라서 이름을 불렀었는데 결혼 후 호칭을 바로 바꾸는 것이 어렵다거나 나

44) 앞서 2018 주요 변경 사항에서 '본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친정'을 '본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오빠'도 마찬가지여서 '친정 오빠'를 '본가 오빠'로 쓸 수 있다. 이들을 모두 표에 제시하지는 않는데 2011에서 '친정'으로 표시되어 있는 몇몇 경우에 대해서는 짝을 맞춰 2018에서도 '본가'가 포함된 지칭어를 제한적으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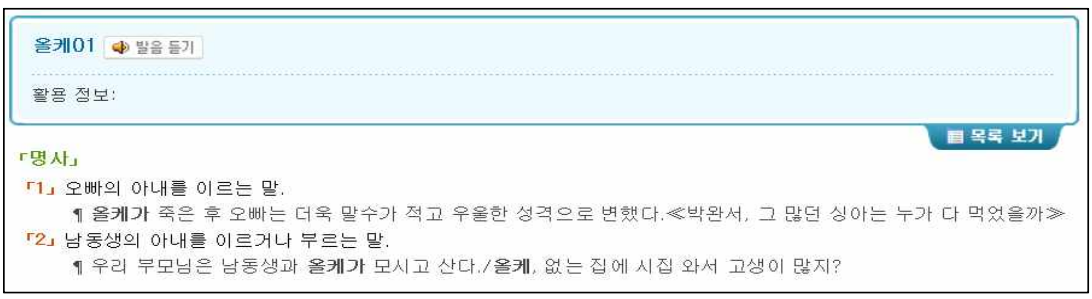
45) 2011 해설에는 어머니의 오빠에 대한 지칭으로 '외숙'을 쓰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표준 언어 예절』 2011:100). 그러므로 '외삼촌', '외숙부'와 함께 '외숙'도 같은 자리에 지칭으로 쓸 수 있겠다. 다만 1992, 2011 모두 이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2018에서도 표에 추가하지 않았다. '외숙'의 사전 뜻풀이는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이르는 말'이다.

이가 어린 새언니에게 ‘언니’라는 호칭을 쓰기 불편하다는 언어 사용자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다. 특히 2011은 ‘오빠의 아내’에 대해 직접 ‘올케’라고 부르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했는데, ‘올케’가 호칭으로 쓰이는 것은 남동생의 아내인 경우라고 설명하였다.

2018에서는 나이의 차이로 인해 양쪽이 모두 ‘새언니’나 ‘언니’를 호칭어로 쓰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 ‘올케’ 또는 ‘올케님’을 호칭어로 쓰되 서로 존댓말을 써서 존중하는 마음을 표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호칭과 지칭을 통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칭인 ‘올케’를 호칭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적용한 것이다. 물론 ‘올케’로 하여 남동생의 아내와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올케님’을 써서 구분할 수 있다. 오빠의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새언니’, ‘언니’를 쓰지 않고 대신 ‘올케’에 ‘-님’을 붙여 ‘올케님’을 쓰는 것이다.

물론 이 외에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기댄 ‘○○[자녀] 외숙모’를 쓸 수도 있겠다. 또 ‘새언니’와 같은 뜻인 ‘올케언니’도 2011에 누락되어 있어 2018에서 추가하였다.

‘○○ 씨’와 같이 부를 수도 있고 또 ‘올케’라는 지칭을 호칭으로 확대하여 ‘올케’로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호칭의 사용은 가족 구성원 간의 양해가 필요하다. 각자 집안의 문화에 따라 자유롭게 호칭을 정하여 쓰되 가족 구성원들이 불편하게 또는 불쾌하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쓸 필요가 있다.


올케01 발음 듣기

활용 정보:

목록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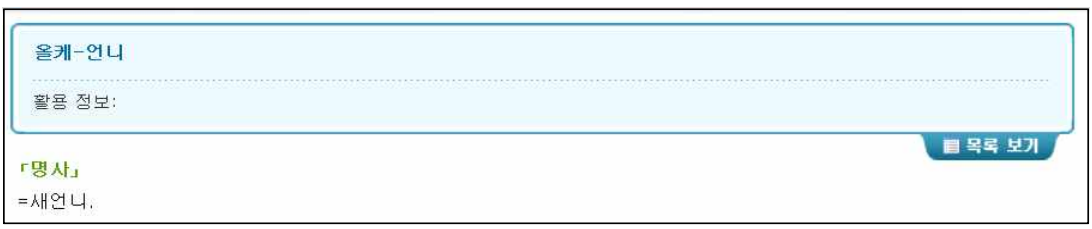
「명사」

「1」 오빠의 아내를 이르는 말.

¶ **올케가** 죽은 후 오빠는 더욱 말수가 적고 우울한 성격으로 변했다.≪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2」 남동생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 우리 부모님은 남동생과 **올케가** 모시고 산다./**올케**, 없는 집에 시집 와서 고생이 많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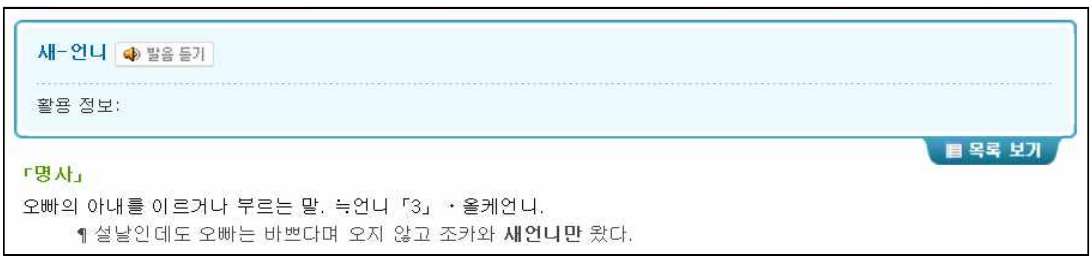

올케-언니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새언니.


새-언니 발음 듣기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오빠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늑언니 「3」 ‘올케언니.

¶ 설날인데도 오빠는 바쁘다며 오지 않고 조카와 **새언니만** 왔다.

바. 남동생과 그 배우자

〔1992〕 여자의 경우

		남동생	남동생의 아내
호칭어		○○[이름], 동생	올케
지칭어	당사자에게	○○[이름], 동생	올케
	부모에게	○○[이름], 동생	올케
	동기에게	○○[이름], 동생, 형(님), 오빠	올케, 형수님, (새)언니
	시댁 쪽 사람에게	친정 동생, ○○ 외삼촌	올케, ○○ 외숙모
	자녀에게	외삼촌, 외숙부(님)	외숙모(님)
	타인에게	○○[이름], (친정) 동생, ○○ 외삼촌	올케, ○○ 외숙모

〔2011〕 [표 Ⅰ-22] 남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 여자

호칭		○○[이름], 동생
지칭	당사자에게	○○[이름], 동생
	부모에게	○○[이름], 동생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이름], 동생
	시댁 쪽 사람에게	친정 동생, ○○[자녀] 외삼촌
	자녀에게	외삼촌, 외숙부
	그 밖의 사람에게	○○[이름], 동생, 친정 동생, ○○[자녀] 외삼촌

〔2011〕 [표 Ⅰ-23]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 여자

호칭		올케
지칭	당사자에게	올케
	부모에게	올케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올케
	시댁 쪽 사람에게	올케, ○○[자녀] 외숙모
	자녀에게	외숙모
	그 밖의 사람에게	올케, ○○[자녀] 외숙모

〔2018〕 남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이름], 동생	=
지칭	○○[이름], 동생 친정 동생, ○○[자녀] 외삼촌 (자녀에게) 외삼촌, 외숙부(님)	= 남동생 친정 남동생, 본가 동생/남동생

〔2018〕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올케	= 올케님, ○○[이름] 씨
지칭	올케 ○○[자녀] 외숙모 (자녀에게) 외숙모(님)	= 올케님, ○○[이름] 씨, 올케님

1992와 2011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1992에서 상대방(청자)이 나의 남동생이나 남동생의 아내를 부르는 호칭인 '형(님), 오빠, 형수님, 새언니' 등이 지칭에도 제시되어 있는 반면 2011에서는 등이 빠져 있다. 이 지칭은 상대방이 남동생보다 손아래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지칭이다.

2018에서도 호칭과 지칭을 통용하여 쓸 수 있기 때문에 표에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호칭과 지칭▐

동생에 대해서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성년이 되었거나 결혼을 한 후에는 동생을 대접하여 불러야 하므로 이름을 부르는 대신 '동생'으로 부를 수 있다. 앞서 오빠에 대해서도 '친정 오빠'와 '본가 오빠'를 함께 쓴 것처럼 남동생도 '본가 동생', '본가 남동생' 등으로 이를 수 있다.

최근 동기간의 배우자들과 격의 없이 지내는 집안이 점점 늘고 있어 남동생의 아내에 대해 '올케'라는 호칭 대신 이름을 불러 친근함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동생과 그 아내를 같이 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심층 면담의 결과에서도 올케가 나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 이름을 부른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20~30대 중에서는 아직 친하지 않은 경우 '○○ 씨'와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를 호칭에 반영하여 표에 제시하였다. 다만 사적인 호칭은 친근함의 정도에 따라 각 가정 내의 가풍에 따르도록 하고 공식적인 자리나 제3자가 있어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서는 이름보다는 '올케'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또 남동생의 아내라고 해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1992나 2011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었다. 2018에서는 '올케님'을 통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손아래 올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2011에서는 남동생의 아내를 '○○[자녀] 엄마' 등과 같이 자녀에 기대 부르는 것이 타인을 부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자녀] 엄마', '○○[자녀] 아빠'는 다른 관계들에서도 두루 쓰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경우에만 타인을 부르거나 이르는 느낌을 준다고 하기 어렵다. '○○[자녀] 엄마', '○○[자녀] 아빠'가 주로 부모가 자식이 있는 자녀를 부를 때 쓰이거나 부부 간에 쓰이고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들 간에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표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쓸 것인지는 가족마다 상황에 따르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자녀가 없어 '○○[나의 자녀] 외숙모'로 쓸 수 없을 때 '○○[남동생의 자녀] 엄마'를 대신하여 쓸 수도 있겠다.

'오빠의 아내'와 '남동생의 아내' 모두 '외숙모' 또는 '○○[자녀] 외숙모'로 지칭하는데 이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큰외숙모'와 '작은외숙모' 등으로 구분하여 이르면 된다.[46]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등으로 구분하는 것에 준한 것이다. 자녀에게 이를 때는 1992에서 정리한 것처럼 '외숙모' 또는 '외숙모님'을 두루 쓸 수 있다.

사. 언니와 그 배우자

46) '큰외삼촌', '큰외숙모', '작은외삼촌', '작은외숙모', '큰숙모', '작은숙모' 등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큰삼촌', '작은삼촌' 등의 처리에 준해 이 보고서에서도 합성어로 처리하였다.

〔1992〕 여자의 경우

		언니	언니의 남편
호칭어		언니	형부
지칭어	당사자에게	언니	형부
	친정 쪽 사람에게	언니	형부, 매부
	시댁 쪽 사람 및 타인에게	언니, ○○ 이모	형부, ○○ 이모부
	자녀에게	이모(님)	이모부(님)

〔2011〕 [표 Ⅰ-24] 언니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언니
지칭	당사자에게	언니
	부모에게	언니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언니
	시댁 쪽 사람에게	언니, ○○[자녀] 이모
	자녀에게	이모, 이모님
	그 밖의 사람에게	언니, ○○[자녀] 이모

〔2011〕 [표 Ⅰ-25] 언니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형부
지칭	당사자에게	형부
	부모에게	형부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형부
	시댁 쪽 사람에게	형부, ○○[자녀] 이모부
	자녀에게	이모부, 이모부님
	그 밖의 사람에게	형부, ○○[자녀] 이모부

〔2018〕 언니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언니	=
지칭	언니 언니, ○○[자녀] 이모 (자녀에게) 이모(님)	= 친정 언니, 본가 언니

〔2018〕 언니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형부	= 형부님
지칭	형부 형부, ○○[자녀] 이모부 (자녀에게) 이모부(님)	= 형부님

▌호칭과 지칭▐

여자가 자신의 언니와 언니의 남편을 부르는 호칭과 지칭의 경우 1992와 2011 간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1992에서 '형부'와 '매부'를 모두 지칭어로 쓸 수 있도록 하였는데 '매부'가

손위 누이나 손아래 누이의 남편을 이르는 말, 즉 남자가 사용하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부'가 언니의 남편에 대한 지칭어로 제시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상대방(청자)가 호칭으로 쓰는 것을 지칭으로 쓴 경우인데 유독 '매부'만 특별히 제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2018에서는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8은 '형부'를 주로 하여 제시하였고 자녀에 기대 부르는 '이모부'를 지칭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언니'가 '오빠의 아내'인 '(새)언니'와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가'를 붙여 '본가 언니'로 지칭하여 구분할 수 있다. 1992와 2011은 여자의 경우 결혼 전 형제자매에 대해 '친정 오빠', '친정 (남)동생', '친정 여동생'으로 밝히고 있으면서 유독 '언니'에 대해서만 '친정 언니'를 지칭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연구진 회의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친정 언니'와 '본가 언니'를 함께 표에 제시하였다.

한편 '형부'에 대해서도 '형부님'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님'을 붙여 쓸 수 있는 것을 '형부'에도 적용한 것이다.

아. 여동생과 그 배우자

〔1992〕 여자의 경우

		여동생	여동생의 남편
호칭어		○○[이름], 동생	○ 서방(님)
지칭어	당사자에게	○○[이름], 동생	○ 서방(님)
	부모에게	○○[이름], 동생	○ 서방
	동기에게	○○[이름], 동생, 누나, 언니	○ 서방, 매부, 형부
	시댁 쪽 사람 및 타인에게	친정 여동생, ○○ 이모	동생의 남편, ○○ 이모부,
	자녀에게	이모(님)	이모부(님)

〔2011〕 [표 Ⅰ-26] 여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 여자

호칭		○○[이름], 동생
지칭	당사자에게	○○[이름], 동생
	부모에게	○○[이름], 동생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이름], 동생
	시댁 쪽 사람에게	친정 여동생, ○○[자녀] 이모
	자녀에게	이모
	그 밖의 사람에게	친정 여동생, ○○[자녀] 이모

〔2011〕 [표 Ⅰ-27]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 여자

호칭		○ 서방, 제부
지칭	당사자에게	○ 서방, 제부
	부모에게	○ 서방, 제부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 서방, 제부
	시댁 쪽 사람에게	동생의 남편, ○○[자녀] 이모부, 제부
	자녀에게	이모부
	그 밖의 사람에게	동생의 남편, ○○[자녀] 이모부, 제부

〔2018〕 여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여자

	전통	가능
호칭	○○[이름], 동생	=
지칭	○○[이름], 동생 친정 여동생, ○○[자녀] 이모 (자녀에게) 이모(님)	= 여동생 본가 여동생

〔2018〕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 서방, 제부	= ○ 서방님, 제부님 ○○ 씨
지칭	○ 서방, 제부 동생의 남편, ○○[자녀] 이모부 (자녀에게) 이모부(님)	= ○ 서방님, 제부님 ○○ 씨

1992는 여동생과 여동생의 남편이 함께 제시되어 있었는데 2011에서는 여동생과 여동생의 남편이 따로 제시되었다. 2018 역시 여동생과 여동생의 남편을 따로 제시한다. 1992에는 상대방(청자)과 여동생, 상대방(청자)과 여동생의 남편의 관계에 해당하는 '누나, 언니', '매부, 형부' 등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 2011에는 빠져 있다. 2018도 호칭과 지칭을 통용하여 쓸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표에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어 1992와 2011의 가장 큰 차이는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고 이르는 말로 '제부'가 추가된 것이다.

▌호칭과 지칭▐

동생에 대해서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보통이나 성년이 되었거나 결혼을 한 후에는 동생을 대접해야 하므로 이름으로 부르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동생'으로 부를 수 있다. 지칭 중에서 '친정'을 남자와 여자 모두 '본가'로 쓰기로 하였으므로 '본가 동생', 성별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가 여동생' 등으로 지칭을 쓸 수 있다.

자녀에게 이를 때 '이모' 또는 '이모부'로 지칭하는데 여자 동기가 여럿이어서 이를 구분해야 할 경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로 구분한 것에 준해 '큰 이모', '작은 이모'로 구분하여 이른다. 다만 '큰'과 '작은'이 모든 친족 관계 호칭어에 결합하여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된 것이 아니어서 주의를 요한다. 아래와 같이 '작은', '큰', '맏' 등이 포함된 표제어들을 계열 관계를 맞추어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뜻풀이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표준국어대사전>의 '작은', '큰', '맏' 결합 표제어

작은누나, 작은누이	큰누나, 큰누님, 큰누이	맏누이
작은댁	큰댁	–
작은동서	큰동서	맏동서
작은따님	큰따님, 큰딸	맏딸

작은마누라	큰마누라	–
작은매부	큰매부	맏매부
작은며느리	큰며느리	맏며느리
작은사위	큰사위	맏사위
작은삼촌	큰삼촌	–
작은손녀, 작은손자	큰손녀, 큰손자	맏손녀, 맏손자, 맏손주
작은시누	큰시누	맏시누
작은아가씨	큰아가씨	–
작은아기	큰아기	–
작은아기씨	큰아씨	–
작은아들	큰아들	맏아들
작은아버님, 작은아버지, 작은아빠	큰아버님, 큰아버지, 큰아비, 큰아빠	–
작은아이	큰아이	–
–	큰아저씨	–
–	큰아주머니	맏아주머니
작은어머니, 작은엄마	큰어머니, 큰어머님, 큰어미, 큰엄마	–
작은언니	큰언니	맏언니
작은오빠	큰오빠	맏오빠
작은올케	큰올케	–
–	큰조카	맏조카
작은종조모, 작은종조모님, 작은종조할머니, 작은종조할머님	큰종조모, 큰종조모님, 큰종조할머니, 큰종조할머님	–
작은종조부, 작은종조부님, 작은종조할아버님, 작은종조할아버지	큰종조부, 큰종조부님, 큰종조할아버님, 큰종조할아버지	–
작은처남	큰처남	–
작은할머니, 작은할머님, 작은할미	큰할머니, 큰할머님	–
작은할아버님, 작은할아버지, 작은할아비	큰할아버님, 큰할아버지	–
작은형	큰형	맏형
작은형수	큰형수	맏형수
–	큰애, 큰자식	맏놈, 맏아이, 맏이, 맏자식
–	큰집	맏집

한편 여동생의 남편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 서방’, ‘제부’ 등으로 부르기 어려울 경우 ‘제부님’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런데 『표준 화법 해설』(1992)에는 ‘○ 서방(님)’을 호칭어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표준 언어 예절』(2011)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2018은 ‘○ 서방(님)’과 같은 사용을 살려 ‘제부님’과 함께 호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에 함께 제시하였다. 여동생의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나보다 많거나 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높임을 표현하는 호칭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여동생의 남편에 대해서도 ‘○○ 씨’와 같이 호칭과 지칭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남자가 남동생의 아내나 여동생의 남편을, 여자가 남동생의 아내를 ‘○○ 씨’로 부른 것과 대칭을 맞춘 것이다. 앞서 주요 정비 사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언중은 전통적인 호칭이나 지칭을 부르기 애매하거나 불편한 경우 ‘○○ 씨’와 같은 호칭이나 지칭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주로 서열이 아래이면서 나이도 어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내 동생의 배우자에 대해 전통적인 호칭이나 지칭 대신 ‘○○ 씨’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해설 비교

『표준 화법 해설』(1992)은 남자를 기준으로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 여자를 기준으로 오빠, 언니, 남동생, 여동생과 각각에 대한 배우자 등에 관한 기술이 비교적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에 비해 『표준 언어 예절』(2011)은 각 관계를 나누어 따로 제시하고 있지만 표의 내용을 다시 풀어 설명한 정도이다. 기술에 특이점이 없는 부분은 따로 논의하지 않고 『표준 화법 해설』(1992)과 『표준 언어 예절』(2011)의 본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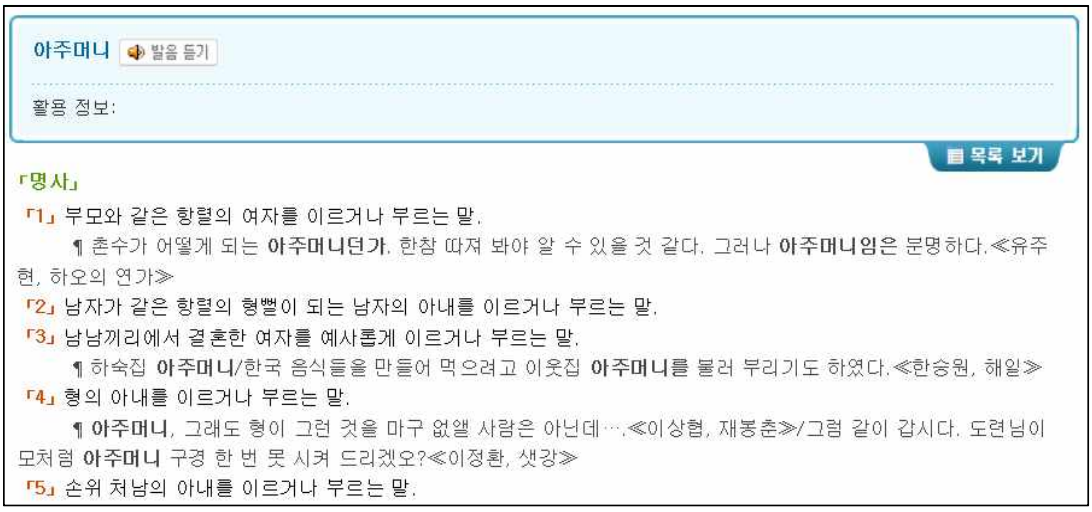
㉠ 남자의 경우: 형, 남동생, 누나, 여동생

가. 형과 그 배우자

표준 화법 해설(1992)
형, 누나, 오빠, 언니 등 친동기와 '형부'를 제외한 '동기와 그 배우자의 호칭어, 지칭어'도 계층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다. 널리 쓰이는 말로 표준을 정하였다.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어는 '아주머님', '아주머니', '형수님'으로 정했다. ①전통적인 호칭은 '아주머님', '아주머니'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현재 많이 쓰이는 '형수님'으로 인정했다. 부모와 손위 동기에게 가리킬 때는, '아주머니', '형수'를 쓰도록 했다. 당사자와 손아래 동기, 처가 쪽 사람에게 가리킬 때는 '아주머니(님)', '형수님'을 쓰도록 정했다. 자녀에게 가리킬 때는 '큰어머니(큰어머님)', 타인에게는 '형수님'으로 한다. <37-38쪽>

표준 언어 예절(2011)
형을 부르는 말은 '형', '형님'이다. 형을 그 당사자에게 가리키는 말도 호칭과 같은 '형', '형님'이다. 부모에게 형을 가리킬 때에는 '형'만을 지칭으로 쓴다.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형을 가리켜 말할 때에는 '형', '형님'을 쓴다. 처가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는 '형', '형님', '○○[자녀] 큰아버지'로 지칭한다. 자녀에게 형을 가리킬 때에는 자녀의 입장에서 '큰아버지', '큰아버님'이라 한다.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은 '형수님', '아주머님', '아주머니'로 한다. 당사자를 지칭할 때에도 호칭과 동일하게 '형수님', '아주머님', '아주머니'를 쓴다. ①전통적인 호칭은 '아주머님', '아주머니'라는 지적도 있으나, 현재 많이 쓰는 '형수님'도 쓸 수 있다. 형의 아내를 부모에게 가리킬 때는 '형수', '아주머니'를 쓴다.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가리킬 때는 '형수님', '형수', '아주머님', '아주머니'로 지칭하는데 손아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형수'를 피해야 한다. 처가 쪽 사람에게 형의 아내를 가리킬 때는 '형수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자녀] 큰어머니'를 쓴다. 자녀에게 가리킬 때는 '큰어머니', '큰어머님'을 쓰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형수님', '○○[자녀] 큰어머니'를 쓴다. <42-43쪽>

①의 '아주머님', '아주머니'의 경우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결혼한 여자를 예사롭게 이르는 말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 심층 면담의 결과에서도 '형수님'의 사용이 대부분이었고 호칭에서는 '아주머니(님)'의 사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통적인 용법으로 굳이 표에서 제외하지는 않았다.



아주머니 발음 듣기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1」 부모와 같은 항렬의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 촌수가 어떻게 되는 **아주머니던가**. 한참 따져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아주머니임**은 분명하다.≪유주현, 하오의 연가≫

「2」 남자가 같은 항렬의 형뻘이 되는 남자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3」 남남끼리에서 결혼한 여자를 예사롭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 하숙집 **아주머니**/한국 음식들을 만들어 먹으려고 이웃집 **아주머니**를 불러 부리기도 하였다.≪한승원, 해일≫

「4」 형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 **아주머니**, 그래도 형이 그런 것을 마구 없앨 사람은 아닌데….≪이상협, 재봉춘≫/그럼 같이 갑시다. 도련님이 모처럼 **아주머니** 구경 한 번 못 시켜 드리겠오?≪이정환, 샛강≫

「5」 손위 처남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나. 남동생과 그 배우자

표준 화법 해설(1992)

남동생에 대한 호칭어는 '○○[이름]', '아우', '동생'으로 정했다. 늙어서도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성년이 되어 혼인을 하면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전통적인 예의이다.

부모, 동기 및 타인에게 남동생을 지칭할 경우에는 호칭어와 같은 '○○[이름]', '아우', '동생'을, 처가 쪽 사람에게는 '아우', '동생'을 지칭어로 정했다. 자녀에게 가리킬 경우에 미혼이면 '삼촌', 기혼이면 '작은아버지(작은아버님)'를 쓰도록 했다.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어는 '제수씨', '계수씨'로 정하였다. 이미 많이 쓰일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제수(弟嫂)', '계수(季嫂)'가 지칭어로 쓰이기 때문이다.

남동생의 아내를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어와 같은 말을 쓰고, 자녀에게는 '작은어머니(님)', '숙모(님)', 그 외는 '제수(씨)', '계수(씨)'로 지칭한다.

<38-39쪽>

표준 언어 예절(2011)

남동생에 대한 호칭은 '○○[이름]', '아우', '동생'이다. 늙어서도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성년이 되어 혼인을 하면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전통적인 예의이다.

당사자, 부모,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남동생을 지칭할 경우에는 호칭과 같은 '○○[이름]', '아우', '동생'을 쓴다. 처가 쪽 사람에게는 '아우', '동생', '○○[자녀] 작은아버지'로 지칭한다. 자녀에게 가리킬 경우에는 자녀의 입장에서 '삼촌', '작은아버지'를 쓴다. 그 밖의 사람에게 남동생을 가리킬 때는 '○○[이름]', '아우', '동생', '○○[자녀] 작은아버지'를 쓴다.

남동생의 아내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제수(弟嫂)', '계수(季嫂)'가 지칭으로 쓰였기 때문에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은 '제수씨', '계수씨'이다.

남동생의 아내를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같은 '제수씨', '계수씨'를 쓰고, 부모,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제수', '제수씨', '계수', '계수씨'를 쓴다. 처가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 남동생의 아내를 가리킬 때는 '제수', '제수씨', '계수', '계수씨', '○○[자녀] 작은어머니'로 지칭한다. 자녀에게는 '작은어머니', '숙모'로 지칭한다.

<44-45쪽>

다. 누나와 그 배우자

표준 화법 해설(1992)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어는 ‘매부’, ‘매형’, ‘자형’으로 정하였다. ‘매부’는 일찍부터 중부 지방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누나의 남편과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로 쓰이고 있고, ‘매형’은 중부 지방에서 누나의 남편을 부르는 말이므로 표준으로 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자형(姊兄)’은 주로 남부 지방에서 쓰는 말이므로 누나의 남편을 부르는 표준 화법에 넣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자형’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서 이미 세력을 얻었으므로 표준 화법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지칭어도 호칭어와 같이 ‘매부’, ‘매형’, ‘자형’으로 하고, 자녀에게는 그들의 위치에서 ‘고모부(님)’로 가리킨다.

<39쪽>

표준 언어 예절(2011)

누나를 부르는 말은 ‘누나’, ‘누님’이다. 누나를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도 호칭과 동일하다. 부모에게 누나를 지칭할 때는 ‘누나’를 쓴다.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누나를 ‘누나’, ‘누님’, ‘누이’로 지칭한다. ‘누이’는 여동생과 누나를 모두 아우르므로 ‘누나’, ‘누님’과 함께 지칭하는 말로 쓸 수 있다. 처가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 누나를 지칭하는 말은 ‘누나’, ‘누님’, ‘누이’, ‘○○[자녀] 고모’이다. 자녀에게 가리킬 경우에는 ‘고모’, ‘고모님’을 쓴다.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은 ‘매형’, ‘자형’, ‘매부’이다. ‘매부’는 중부 지방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누나의 남편과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이고, ‘매형’은 중부 지방에서 누나의 남편을 부르는 말이다. ‘자형(姊兄)’은 주로 남부 지방에서 누나의 남편을 부르는 말이므로 ‘표준 언어 예절’에 넣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형’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서도 이미 상당한 세력을 얻었으므로 ‘표준 언어 예절’로 인정한다.

지칭도 호칭과 같이 ‘매형’, ‘자형’, ‘매부’로 하고, 처가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자녀] 고모부’도 쓸 수 있다. 자녀에게는 그들의 위치에서 ‘고모부’, ‘고모부님’으로 가리킨다.

<45-47쪽>

라. 여동생과 그 배우자

표준 화법 해설(1992)

여동생을 부르는 말은 ‘○○[이름]’, ‘동생’으로 정하였다. ‘동생’은 성년이 되어 이름을 부르기 어려운 경우에 쓴다. 부모와 동기에게는 ‘○○[이름]’, ‘동생’을 지칭어로 하도록 하였다. 처가 쪽 사람과 타인에게는 ‘누이동생’으로, 자녀에게는 그들의 위치에서 ‘고모(님)’으로 지칭한다.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매부’, ‘○ 서방’으로 정하였다. 부모, 동기 및 타인에게는 호칭어와 같은 말로, 처가 쪽 사람에게는 ‘매부’로 지칭하도록 하였다. 자녀에게는 누나의 남편과 같은 지칭어로 정하였다.

<39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여동생을 부르는 말은 ‘○○[이름]’, ‘동생’이다. ‘동생’은 성년이 되어 이름을 부르기 어려운 경우에 쓴다. 당사자와 부모에게는 여동생을 호칭과 같은 ‘○○[이름]’, ‘동생’으로 지칭한다.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이름]’, ‘동생’, ‘누이’로 지칭한다. 처가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는 ‘누이동생’, ‘여동생’, ‘동생’, ‘누이’, ‘○○[자녀] 고모’로, 자녀에게는 그들의 위치에서 ‘고모’로 지칭한다.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 서방’, ‘매부’, ‘매제’이다. ‘매제’는 일부 지역에서만 쓰이는 말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제는 중부 지방에서도 세력을 얻은 말이므로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로 쓸 수 있다. 당사자, 부모,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호칭과 같은 말인 '○ 서방', '매부', '매제'로 지칭하고, 처가 쪽 사람에게는 '매부', '매제', '○○[자녀] 고모부'로 지칭한다. 자녀에게는 그들의 위치에 서서 '고모부'로, 그 밖의 사람에게는 '○ 서방', '매부', '매제', '○○[자녀] 고모부'로 지칭한다.

<47-48쪽>

2 여자의 경우: 오빠, 남동생, 언니, 여동생

마. 오빠와 그 배우자

표준 화법 해설(1992)

오빠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언니','새언니'로 정하였다. '(새)언니'가 자신보다 나이가 적어도 마찬가지이다.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어와 같은 '(새)언니'를 쓰고, 부모와 동기에게는 '(새)언니', '올케'를 쓴다. 시댁 쪽 사람과 타인에게는 '(새)언니', '올케', '○○ 외숙모', 자녀에게는 '외숙모(님)'를 쓰도록 했다.

<39-40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오빠를 부르는 말은 '오빠', '오라버니', '오라버님'이다. 오빠를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에도 동일하다. 부모에게는 '오빠', '오라버니'를 지칭으로 쓴다.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지칭할 때는 '오빠', '오라버니', '오라버님'을 쓴다. 단, 남동생에게는 그의 입장에서 '형', '형님'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 시댁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는 '오빠', '친정 오빠', '오라버니', '친정 오라버니', '○○[자녀] 외삼촌'이라고 지칭한다. 자녀에게 오빠를 지칭하는 말은 '외삼촌', '외숙부', '외숙부님'이다.

오빠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새언니', '언니'이다. '새언니', '언니'가 자신보다 나이가 적어도 마찬가지이다.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같은 '새언니', '언니'를 쓰고, 부모,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지칭할 때는 '새언니', '언니', '올케', '올케언니'를 쓴다. 단, 남동생에게는 그의 입장에서 '형수님'이라 지칭할 수도 있다. 시댁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는 '올케', '올케언니', '새언니', '○○[자녀] 외숙모'를, 자녀에게는 '외숙모', '외숙모님'으로 지칭한다.

<49-50쪽>

바. 남동생과 그 배우자

표준 화법 해설(1992)

남동생을 부르는 말로는 '○○[이름]', '동생'을 정하였다. '동생'은 남자의 경우와 같이 성년이 되었을 때를 고려한 것이다. 부모에게 지칭할 때는 '○○[이름]', '동생'으로, 동기에게는 '○○[이름]', '동생'과 '형(님)', '오빠'와 같이 그들이 부르는 말을 지칭어로 쓰고, 시댁 쪽 사람에게는 '천정 동생', '○○ 외삼촌'으로 지칭하고, 타인에게는 '○○[이름]', '(친정) 동생', '○○ 외삼촌', 자녀에게는 '외삼촌', '외숙부(님)'로 지칭하도록 했다.

남동생의 아내는 '올케'를 호칭어로 정했다. '○○ 엄마'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타인을 부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당사자, 부모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어와 같은 '올케'를, 동기에게 지칭할 때는 '올케'와 '형수님', '(새)언니'를 적절히 쓰도록 하였다. 시댁 쪽 사람에게는 '올케'와 자녀에 기댄 표현인 '○○ 외숙모'를, 자녀에게는 '외숙모(님)'을 지칭어로 쓰도록 했다. 타인에게는 '올케', '○○ 외숙모'를 쓰도록 했다.

<40-41쪽>

표준 언어 예절(2011)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이름]', '동생'이다. '동생'은 성년인 남동생에 대한 호칭이다. 당사자, 부모,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같은 '○○[이름]', '동생'을 쓴다. 단, 당사자보다 손아래인 남동생에게는 그의 입장에서 '형', '형님', 여동생에게는 그의 입장에서 '오빠'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 시댁 쪽 사람에게는 '친정동생', '○○[자녀] 외삼촌'으로 지칭하고, 자녀에게는 '외삼촌', '외숙부'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이름]', '동생', '친정 동생', '○○[자녀] 외삼촌'으로 지칭한다.

남동생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올케'이다. ②'○○[자녀] 엄마'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타인을 부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당사자, 부모,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같은 '올케'를 쓴다. 단, 당사자보다 손아래인 남동생에게는 그의 입장에서 '형수님'이라 지칭할 수도 있고 여동생에게는 그의 입장에서 '새언니', '언니'라고 할 수도 있다. 시댁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는 '올케'와 자녀에 기댄 표현인 '○○[자녀] 외숙모'를, 자녀에게는 '외숙모'를 지칭으로 쓴다.

<51-52쪽>

②에서 남동생의 아내를 '○○[자녀] 엄마'로 쓰는 것에 대해 타인을 부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자녀] 엄마'로 부르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인을 부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47]

사. 언니와 그 배우자

표준 언어 예절(2011)

언니를 부르는 말은 '언니'이다. 언니를 당사자, 부모,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지칭하는 말도 '언니'이다. 단, 남동생에게는 그의 입장에서 '누나', '누님'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 시댁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 언니를 가리킬 때에는 '언니', '○○[자녀] 이모'를 쓰고, 자녀에게는 '이모', '이모님'을 쓴다.

언니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형부'이다. 당사자, 부모,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언니의 남편을 가리킬 때도 '형부'를 쓴다. 단, 남동생에게는 그의 입장에서 '매형', '자형' 등으로 지칭할 수 있다.

시댁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는 언니의 남편을 '형부', '○○[자녀] 이모부'라 지칭하고, 자녀에게는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모부', '이모부님'이라 지칭한다.

<52-53쪽>

1992의 경우 '언니와 그 배우자'에 대한 해설은 따로 없었던 것이 2011에 추가되었다.

47) 『표준 언어 예절』의 기술에서 가장 모호한 부분이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다. 언중의 언어 직관은 변화하기 마련이고 연구자의 직관이 늘 언중의 변화하는 언어 사용을 예민하게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느낌'을 근거로 들어 호칭어와 지칭어의 사용을 재단하는 것은 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2018은 연구진의 직관에 의존하기보다는 2017 실태조사나 2018 심층 면담, 2018 <국민생각함> 설문 등 다양한 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아. 여동생과 그 배우자

표준 화법 해설(1992)

여동생을 부르는 말로는 '○○[이름]', '동생'을 정하였다. 부모에게는 '○○[이름]', '동생'을, 동기에게는 '○○[이름]', '동생'과 '누나', '언니'를 동기의 처지에 맞게 적절히 지칭하도록 했다. 시댁 쪽 사람 및 타인에게는 '친정 여동생'과 자녀에 기댄 표현인 '○○ 이모'를, 자녀에게는 '이모(님)'를 지칭어로 하였다.

③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 서방', '○ 서방님'으로 정하였다. 여동생의 남편의 나이가 더 많은 경우에는 '○ 서방님'으로 부르도록 한 것이다. 당사자에게는 '○ 서방(님)', 친정 쪽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 서방', 시댁 쪽 사람에게는 자녀에게 기댄 '○○ 이모부'와 '동생의 남편'을 쓰도록 했다. 자녀에게는 '이모부(님)'를 지칭어로 하도록 했다.

<41-42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여동생을 부르는 말은 '○○[이름]', '동생'이다. 여동생을 당사자, 부모,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가리킬 때에도 호칭과 같은 '○○[이름]', '동생'을 쓴다. 동기에게는 동기의 처지에 맞게 '○○[이름]', '동생', '누나', '언니'로 적절히 지칭할 수 있다. 시댁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는 '친정 여동생'과 자녀에 기댄 표현인 '○○[자녀] 이모'를, 자녀에게는 '이모'를 지칭으로 쓴다.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 서방', '제부'이다. ③여동생의 남편을 '○ 서방'이라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부'로 부른다. '제부'는 전통적인 호칭, 지칭은 아니나 '형부'의 대립어로 널리 쓰이게 되었으므로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고 가리키는 말로 쓸 수 있다. 당사자, 부모,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여동생의 남편을 지칭할 때도 호칭과 같은 '○ 서방', '제부'를 쓴다. 남자 동기에게 지칭할 때에는 그의 입장에서 '매부', '매형', '자형', '매제' 등으로, 여동생에게 지칭할 때는 그의 입장에서 '제부', '형부'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 시댁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는 '동생의 남편', '제부'와 자녀에게 기댄 '○○[자녀] 이모부'로 지칭하고 자녀에게는 '이모부'로 지칭한다.

<54-55쪽>

③은 여동생의 남편이므로 서열이 낮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 서방'으로 부르기 어려운 경우 '-님'을 붙여 부르도록 한 것이다. 1992의 경우 서열과 나이가 역전되었을 때 호칭을 유지하되 '-님'을 붙여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도록 한 것이다. 이후 2011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빠지고 실제로 표에서도 이런 경우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형제들 간의 결혼 순서가 서열대로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아내의 나이가 남편보다 많은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열과 나이의 역전 현상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는 곧 가족 내에서 전통적인 호칭과 지칭의 사용이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2018은 호칭이나 지칭을 전통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되 1992에서 기술한 바대로 '-님'을 붙이고 상호 존댓말을 쓰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소통을 위한 언어예절>(2018) 정비안

가. [남자] 형과 그 배우자

〔2018〕 형에 대한 호칭, 지칭 (2018)

	전통	가능
호칭	형, 형님	=
지칭	형, 형님 ○○[자녀] 큰아버지 (자녀에게) 큰아버지(님)	= 큰아빠

〔2018〕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2018)

	전통	가능
호칭	형수님, 아주머니(님)	= 형수
지칭	형수님, 아주머니(님), ○○[자녀] 큰어머니 (자녀에게) 큰어머니(님)	= 형수 큰엄마

나. [남자] 남동생과 그 배우자

〔2018〕 남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이름], 아우, 동생	=
지칭	○○[이름], 아우, 동생 ○○[자녀] 작은아버지 (자녀에게) 작은아버지(님), 삼촌	= 남동생 작은아빠

〔2018〕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제수씨, 계수씨	= 제수, 계수
지칭	제수, 제수씨, 계수, 계수씨 ○○[자녀] 작은어머니 (자녀에게) 작은어머니(님), 숙모(님)	= 작은엄마

다. [남자] 누나와 그 배우자

〔2018〕 누나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누나, 누님	=
지칭	누나, 누님, 누이 ○○[자녀] 고모 (자녀에게) 고모(님)	=

〔2018〕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매형, 자형, 매부	= 매형님, 자형님, 매부님
지칭	매형, 자형, 매부 ○○[자녀] 고모부 (자녀에게) 고모부(님)	= 매형님, 자형님, 매부님

라. [남자] 여동생과 그 배우자

〔2018〕 여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이름], 동생	=
지칭	○○[이름], 동생, 누이, 누이동생, 여동생 ○○[자녀] 고모 (자녀에게) 고모(님)	=

〔2018〕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 서방, 매부, 매제	= ○ 서방님, 매부님, 매제님
지칭	○ 서방, 매부, 매제 ○○[자녀] 고모부 (자녀에게) 고모부(님)	= ○ 서방님, 매부님, 매제님

마. [여자] 오빠와 그 배우자

〔2018〕 오빠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오빠, 오라버니, 오라버님	=
지칭	오빠, 오라버니, 오라버님 친정 오빠, 친정 오라버니, ○○[자녀] 외삼촌 (자녀에게) 외삼촌, 외숙부(님)	= 본가 오빠, 본가 오라버니(님)

〔2018〕 오빠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새언니, 언니	= 올케(님), 올케언니
지칭	새언니, 언니, 올케, 올케언니 ○○[자녀] 외숙모 (자녀에게) 외숙모(님)	=

바. [여자] 남동생과 그 배우자

〔2018〕 남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이름], 동생	=
지칭	○○[이름], 동생 친정 동생, ○○[자녀] 외삼촌 (자녀에게) 외삼촌, 외숙부(님)	= 남동생 친정 남동생, 본가 동생/남동생

〔2018〕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올케	= 올케님, ○○[이름] 씨
지칭	올케 ○○[자녀] 외숙모 (자녀에게) 외숙모(님)	= 올케님, ○○[이름] 씨, 올케님

사. [여자] 언니와 그 배우자

〔2018〕 언니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언니	=
지칭	언니 언니, ○○[자녀] 이모 (자녀에게) 이모(님)	= 친정 언니, 본가 언니

〔2018〕 언니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형부	= 형부님
지칭	형부 형부, ○○[자녀] 이모부 (자녀에게) 이모부(님)	= 형부님

아. [여자] 여동생과 그 배우자

〔2018〕 여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이름], 동생	=
지칭	○○[이름], 동생 친정 여동생, ○○[자녀] 이모 (자녀에게) 이모(님)	= 여동생 본가 여동생

〔2018〕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 서방, 제부	= ○ 서방님, 제부님 ○○ 씨
지칭	○ 서방, 제부 동생의 남편, ○○[자녀] 이모부 (자녀에게) 이모부(님)	= ○ 서방님, 제부님 ○○ 씨

4.1.7.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남편의 동기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은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되어 왔다. 특히 남녀 간 비대칭적인 호칭과 지칭의 대표적인 사례로 다루어졌거나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는 등 정비의 요구가 많았던 부분이다. 이에 남녀 간 대칭적인 호칭과 지칭 체계를 만들고 현재 쓰이는 호칭과 지칭을 수용하되 전통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였다. 남편의 동기와 그 동기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의 정비 방향은 크게 아래와 같다.

O 정비 방향

가. 남녀 간 비대칭적인 호칭과 지칭을 대칭적으로 바꾼다.

나.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개념이 사라진 어휘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를 고려한다.

다. 자녀나 지역 등 구분 표지에 기댄 지칭을 사용할 수 있다.

O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표 비교

① 남편의 형과 그 배우자

〔1992〕 남편의 형

호칭어		아주버님
지칭어	시댁 쪽 사람에게	아주버님
	친정 쪽 사람에게	시아주버니, ○○ 큰아버지
	자녀에게	큰아버지(큰아버님)
	타인에게	시아주버니, ○○ 큰아버지

〔2011〕 [표 Ⅰ-28] 남편의 형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아주버님
지칭	당사자에게	아주버님
	시댁 쪽 사람에게	아주버님
	친정 쪽 사람에게	시아주버니, ○○[자녀] 큰아버지
	자녀에게	큰아버지, 큰아버님
	그 밖의 사람에게	시아주버니, ○○[자녀] 큰아버지

〔2018〕 남편의 형에 대한 호칭,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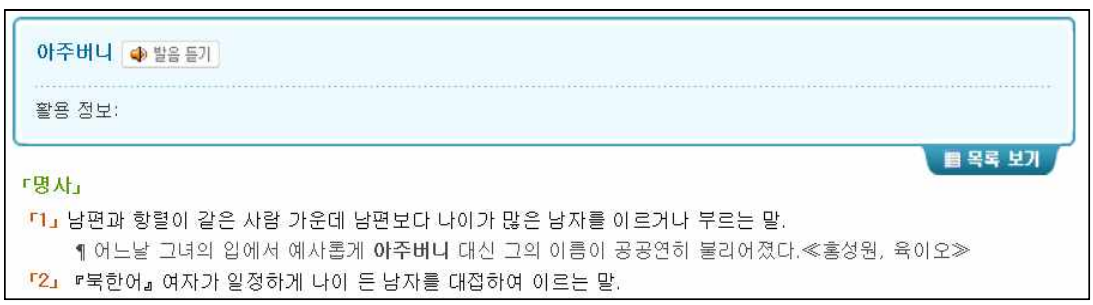
	전통	가능
호칭	아주버님	=, 아주버니
지칭	아주버님 시아주버니, ○○[자녀] 큰아버지 (자녀에게) 큰아버지(님)	= 아주버니, 시아주버님 큰아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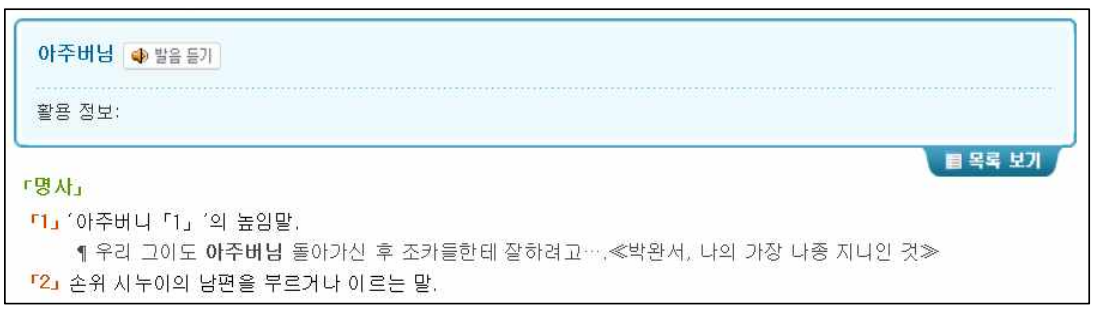
1992에는 형이 여럿일 경우 순서에 관한 것까지 다루고 있으나 2011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2018은 나의 형에 대해 '큰아빠'를 지칭으로 포함했던 것처럼 남편의 형에 대해서도 '큰아빠'를 지칭에 함께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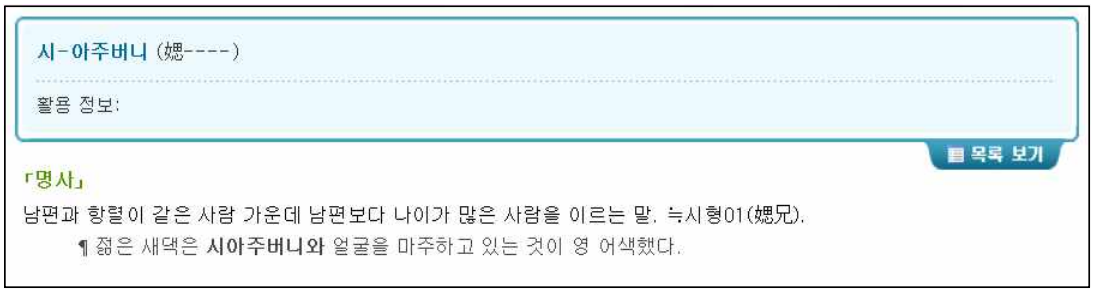
▌호칭과 지칭▐

남편의 형이 나보다 나이가 어릴 때 '아주버님'보다 낮춰 부르는 '아주버니'도 함께 제시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고려하면 '항렬이 같은 사람 중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 되어 있으므로 남편의 형을 '아주버니'로 부르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특히 남편의 형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버님'과 '아주버니'를 함께 호칭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지칭 중 '시아주버니'가 있는 데 비해 이를 높여 이르는 '시아주버님'은 없어 이 역시 함께 제시하였다. '시아주버니'를 써서 나나 남편의 형보다 손윗사람인 경우 공손함을 표현할 수 있고 남편의 형보다 한참 어리거나 손아랫사람인 경우라면 반대로 '시아주버님'을 써서 남편의 형을 높여 이를 수 있다.






시-아주버니 (媤----)

활용 정보:

목록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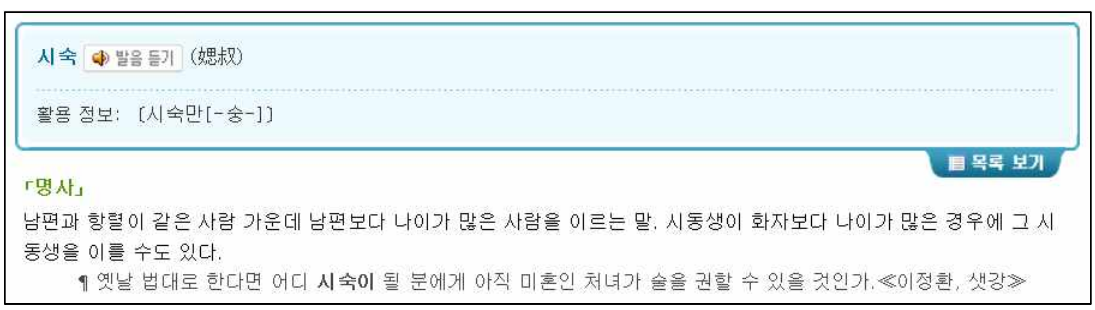
「명사」

남편과 항렬이 같은 사람 가운데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 ≒시형01(媤兄).

¶ 젊은 새댁은 **시아주버니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영 어색했다.

다만 '시(媤)-'나 '친(親)-', '외(外)-' 등의 구분 표지를 지양한다는 점에서 '아주버니'와 '시아주버니'의 뜻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후 '시아주버니'의 사용은 차츰 줄여가는 것이 좋겠다.

한편 한자어 '시숙(媤叔)'도 '아주버니'와 같은 뜻인데 심층 면담의 결과 '시숙'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60대 이상에서 있었지만(1명) 대부분 '아주버님'을 사용하고 있었고 아내 쪽으로는 '숙(叔)'을 써서 이러한 관계를 이르는 말이 없고(매부-손위+손아래, 매형-손위, 매제-손아래) '처숙(妻叔)'은 '처숙부(妻叔父, 아내의 숙부)'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굳이 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시숙 발음 듣기 (媤叔)

활용 정보: 〔시숙만[-숭-]〕

목록 보기

「명사」

남편과 항렬이 같은 사람 가운데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 시동생이 화자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 그 시동생을 이를 수도 있다.

¶ 옛날 법대로 한다면 어디 **시숙이** 될 분에게 아직 미혼인 처녀가 술을 권할 수 있을 것인가.≪이정환, 샛강≫

〔1992〕 남편 형의 아내

호칭어		형님
지칭어	시댁 쪽 사람에게	형님
	친정 쪽 사람에게	큰동서(맏동서), ○○ 큰어머니
	자녀에게	큰어머니(님)
	타인에게	큰동서(맏동서), ○○ 큰어머니

〔2011〕 [표 Ⅰ-29] 남편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형님
지칭	당사자에게	형님
	시댁 쪽 사람에게	형님
	친정 쪽 사람에게	큰동서, 형님, 맏동서[남편 맏형의 아내만], ○○[자녀] 큰어머니
	자녀에게	큰어머니, 큰어머님
	그 밖의 사람에게	큰동서, 형님, 맏동서[남편 맏형의 아내만], ○○[자녀] 큰어머니

〔2018〕 남편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형님	= 동서님
지칭	형님 큰동서, 맏동서[남편 맏형의 아내만], ○○[자녀] 큰어머니 (자녀에게) 큰어머니(님)	= 동서(님) 큰엄마

▌호칭과 지칭▐

앞서 '큰아빠'를 포함한 것처럼 '큰엄마'를 지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함하였다.

남편 형의 아내가 나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 '형님'으로 부르고 높임말을 쓰는데 반대로 나이가 어린 형의 아내가 나이가 많은 손아래 동서에게 하대를 하여 가족 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사위들 간의 관계에서는 나이와 서열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나이를 기준으로 손아래 동서가 손위 동서에게 '동서'로 호칭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2011에 설명되어 있다. 즉 사위들 간에는 나이와 서열 중 나이를 우선하는 것에 비해 며느리들 간에는 남편의 서열을 우선하는 비대칭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위들 간의 호칭과 같이 며느리들 간의 호칭도 서열과 나이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즉 사위나 며느리들 간 공통적으로 손위에 대한 호칭은 '형님', 손아래에 대한 호칭은 '동서'를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가정의 분위기나 당사자들 간의 친밀한 정도에 따라 나이와 서열이 역전되었을 때 양편 모두 '동서님'으로 부르고 존대를 하여 서로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나이가 어린 남편 형의 아내에 대해 '형님'으로 부르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 '동서님'을 쓰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2 남편의 남동생과 그 배우자

〔1992〕 남편의 아우

호칭어	미혼자		도련님
	기혼자		서방님
지칭어	시댁 쪽 사람에게	미혼자	도련님
		기혼자	서방님
	친정 쪽 사람에게		시동생, ○○ 작은아버지, ○○ 삼촌
	자녀에게	미혼자	삼촌
		기혼자	작은아버지(직은아버님)
	타인에게		시동생, 도련님, 서방님, ○○ 작은아버지, ○○ 삼촌

〔2011〕 [표 Ⅰ-30] 남편의 남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지칭	당사자에게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시댁 쪽 사람에게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친정 쪽 사람에게	시동생, ○○[자녀] 작은아버지, ○○[자녀] 삼촌
	자녀에게	작은아버지, 작은아버님, 삼촌
	그 밖의 사람에게	시동생,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자녀] 작은아버지, ○○[자녀] 삼촌

〔2018〕 남편의 남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 ○○ 씨, 동생(님), (○○[자녀]) 삼촌, 작은아빠/아버지/아버님
지칭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시동생, ○○[자녀] 작은아버지, ○○[자녀] 삼촌 (자녀에게) 작은아버지(님), 삼촌	= ○○ 씨, 동생(님), 작은아빠

남편의 남동생과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 및 지칭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다. 결혼의 여부에 따라 호칭과 지칭이 달라지고 또 지금은 호칭어나 지칭어의 용법 외에는 사용이 없는 어휘들이어서 개선의 요구가 가장 높았던 부분이기도 하다. 1992와 2011은 '도련님'과 '서방님'을 기준으로 자녀에 기댄 지칭을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8은 여기에 다른 호칭이나 지칭을 쓸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호칭과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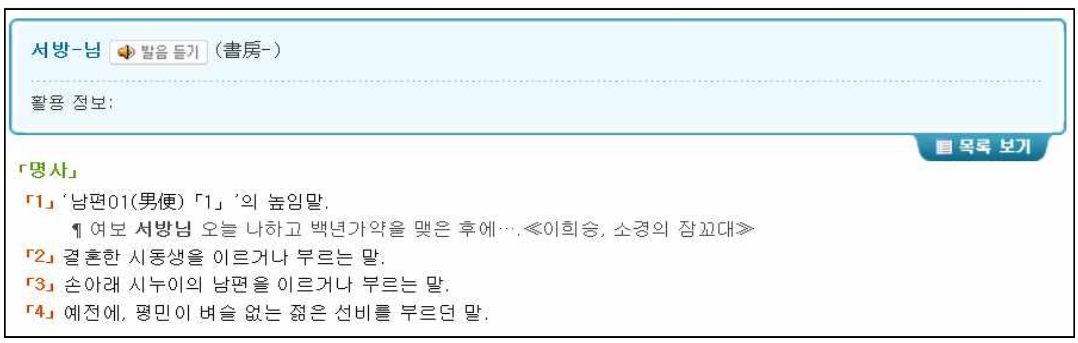
'도련님', '서방님'을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2017년 실태조사에서 65%가 불편하거나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씨', '동생(님)', '삼촌', '○○[자녀] 삼촌' 등의 호칭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특히 『표준 언어 예절』(2011:59)에는 '도련님', '서방님' 등 호칭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자녀에 기댄 '○○[자녀] 삼촌' 등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자녀에 기댄 '○○[자녀] 삼촌'과 같은 호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호칭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았다. 심층 면담의 결과 60대 이상 응답자들이 '서방님'은 쓰지 않고 '도련님'은 이상하다고 응답하였는데 남편의 동생도 나이가 많아지고 결혼을 이미 하였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련님'을 이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전 연령에 걸쳐 두루 '삼촌'을 많이 쓴다고 응답하여 이미 자녀에 기댄 관계를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2017년 실태조사를 통해 '도련님', '서방님'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름] 씨'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바 있고 남편의 남동생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동생님', '동생분' 등의 사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민생각함>의 응답 결과 '처남, 처제'에 대응한 '부남, 부제'가 4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름] 씨'가 41.7%로 가장 높게 나왔다.(복수응답 가능) '처남, 처제'와 같이 전통적으로 쓰인 것과 함께 제시되어서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

파력이나 정착성, 국어학적인 타당성 등을 고려할 때 '부남', '부제'를 당장 사용하자고 하기 어렵다. 다만 2017년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새롭게 제시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므로 이후 사용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다.

'○○[이름] 씨'는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겠고 남편의 남동생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이름을 직접 부르기 어려운 경우라면 남편과의 관계에 기대어 '동생(님)', '동생(분)' 등으로 부를 수 있다. 단, '○○ 씨'를 쓰는 것은 가정 내 구성원들이 서로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서방님'의 경우 남편의 높임말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동생까지 '서방님'으로 부르게 되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또 '서방님'은 예전에 평민 중 벼슬을 하지 못한 젊은 선비를 부르던 말이라는 뜻이 있어 이후 '서방님'의 사용 역시 '삼촌', '○○[자녀] 삼촌' 등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서방-님 발음 듣기 (書房-)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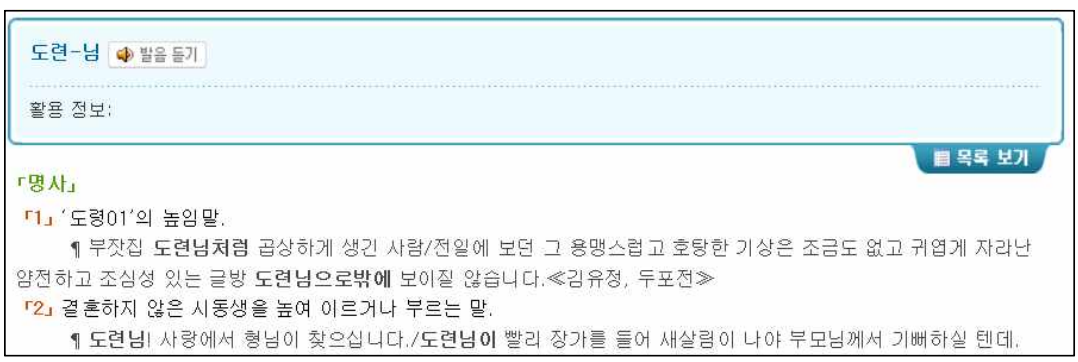
「1」 '남편01(男便)「1」'의 높임말.

¶ 여보 **서방님** 오늘 나하고 백년가약을 맺은 후에….≪이희승, 소경의 잠꼬대≫

「2」 결혼한 시동생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3」 손아래 시누이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4」 예전에, 평민이 벼슬 없는 젊은 선비를 부르던 말.


도련-님 발음 듣기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1」 '도령01'의 높임말.

¶ 부잣집 **도련님처럼** 곱상하게 생긴 사람/전일에 보던 그 용맹스럽고 호탕한 기상은 조금도 없고 귀엽게 자라난 얌전하고 조심성 있는 글방 **도련님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김유정, 두포전≫

「2」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을 높여 이르거나 부르는 말.

¶ **도련님**! 사랑에서 형님이 찾으십니다./**도련님이** 빨리 장가를 들어 새살림이 나야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이처럼 '도련님'과 '서방님'에 대해 개선의 요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실태조사의 결과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도련님', '서방님'을 쓰는 것이 괜찮거나 매우 괜찮다는 응답 역시 35%에 이른다. 실제 여성단체 좌담회 결과에서도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도련님'과 '서방님'을 무조건 쓰지 말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고, 심층 면담의 결과에서도 연령별로 고르게 '도련님'과 '서방님'의 사용에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 표현을 제안하되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도련님', '서방님' 역시 함께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1992와 2011의 표 제목에 '아우'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는데 2018은 '여동생'과 대칭을 맞추기 위해 '남동생'으로 통일하여 제시하였다.

〔1992〕 남편 아우의 아내

호칭어		동서
지칭어	시댁 쪽 사람에게	동서
	친정 쪽 사람에게	동서, ○○ 작은어머니
	자녀에게	작은어머니(님)
	타인에게	동서, ○○ 작은어머니

〔2011〕 [표Ⅰ-31] 남편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동서
지칭	당사자에게	동서
	시댁 쪽 사람에게	동서
	친정 쪽 사람에게	동서, 작은동서, ○○[자녀] 작은어머니
	자녀에게	작은어머니, 작은어머님
	그 밖의 사람에게	동서, 작은동서, ○○[자녀] 작은어머니

〔2018〕 남편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동서	= 동서님, ○○ 씨
지칭	동서 작은동서, ○○[자녀] 작은어머니 (자녀에게) 작은어머니(님)	= 동서님, ○○ 씨 작은엄마

남편 남동생의 아내는 '동서'가 1992와 2011에 걸쳐 기본적인 호칭과 지칭으로 제시되었고 자녀의 이름에 기댄 '○○[자녀] 작은어머니'도 함께 쓰인다. 2018은 남편 형의 아내, 남편 남동생의 아내, 즉 며느리들 간의 호칭과 지칭을 대칭적으로 맞추고자 하였다.

▌호칭과 지칭▐

결혼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관계이다 보니 나이와 서열이 역전되는 경우 서로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손아랫사람인 '동서'를 '동서님'으로 부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서'로 부르는 것이 기본이지만 '동서님'으로 불러 나이가 많은 손아랫사람을 대우하고 상호 높임말을 통해 예의를 지킬 수 있다. 앞서 남편 형의 아내에서 다룬 것처럼 '형님'과 '동서'를 기본으로 하고 나이와 서열이 역전된 경우 상호 '동서님'으로 불러 갈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비하였다.

또 남편 남동생에 대한 호칭으로 '○○ 씨'를 쓸 수 있는 것처럼 남편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으로도 '○○ 씨'를 쓸 수 있다. 남편 남동생의 아내가 손아랫사람이면서 나이도 어린 경우 정겹게 이름에 '씨'를 붙여 부를 수 있는데 상대방이나 함께 듣는 다른 가족 역시 이러한 호칭을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작은어머니'는 앞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어머니' 등의 계열이 '아빠'와 '엄마'를

포함하여 쓰일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칭으로 '작은엄마'도 쓸 수 있다.

3 남편의 누나와 여동생

〔1992〕 남편의 누나

호칭어		형님
지칭어	시댁 쪽 사람에게	형님
	친정 쪽 사람에게	시누이, ○○ 고모
	자녀에게	고모(님)
	타인에게	시누이, ○○ 고모

〔2011〕 [표 Ⅰ-32] 남편의 누나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형님
지칭	당사자에게	형님
	시댁 쪽 사람에게	형님
	친정 쪽 사람에게	시누이, 형님, ○○[자녀] 고모
	자녀에게	고모, 고모님
	그 밖의 사람에게	시누이, 형님, ○○[자녀] 고모

〔2018〕 남편의 누나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형님	= 언니 누나/누님 (○○[자녀]) 고모
지칭	형님 시누이, ○○[자녀] 고모 (자녀에게) 고모(님)	= 언니, 누나/누님

남편의 누나에 대해 1992와 2011 모두 '형님'으로 호칭을 쓰도록 하였다. 지칭은 '형님'과 함께 '○○[자녀] 고모'와 자녀의 입장에서 '고모'를 쓸 수 있는데 2018 역시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호칭과 지칭▐

남편의 누나에 대해 전통적으로 '형님'으로 부르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형제의 배우자와도 교류가 많아지는 추세여서 남편의 누나와 친밀한 관계인 경우도 많이 있다. 또 젊은 사람들의 경우 '형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끼거나 결혼 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서 '언니'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한편 남편의 누나가 나이가 아주 많거나 혹은 나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서 '언니'나 '형님'으로 부르기 어색한 경우에는 남편이 부르는 것처럼 '누나/누님', 자녀가 부르는 것처럼 '고모'를 써서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서열과 나이가 역전되어 관계가 어색하다

면 간접적인 호칭을 써서 거리감을 유지하되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여 상호 존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한편 '시누이'는 '시뉘(媤-)', '시누' 등으로도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시누이'로 통일하여 제시하지만 각 가정의 분위기나 전통, 지역적 특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여도 좋다.

〔1992〕 남편의 누이동생

호칭어		아가씨, 아기씨
지칭어	시댁 쪽 사람에게	아가씨, 아기씨
	친정 쪽 사람에게	시누이, ○○ 고모
	자녀에게	고모(님)
	타인에게	시누이, ○○ 고모, 아가씨, 아기씨

〔2011〕 [표 Ⅰ-33] 남편의 여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아가씨, 아기씨
지칭	당사자에게	아가씨, 아기씨
	시댁 쪽 사람에게	아가씨, 아기씨
	친정 쪽 사람에게	시누이, ○○[자녀] 고모
	자녀에게	고모, 고모님
	그 밖의 사람에게	시누이, 아가씨, 아기씨, ○○[자녀] 고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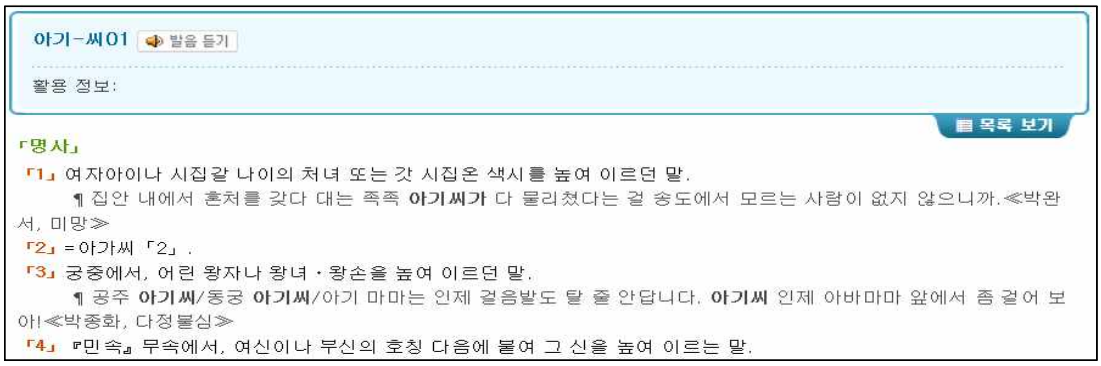
〔2018〕 남편의 여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아가씨	= ○○ 씨 동생(님) (○○[자녀]) 고모
지칭	아가씨 시누이, ○○[자녀] 고모 (자녀에게) 고모(님)	= ○○ 씨 동생(님)

남편의 여동생에 대해서는 1992와 2011 모두 '아가씨'와 '아기씨'를 기본으로 호칭과 지칭을 쓰고 여기에 더해 '○○[자녀] 고모'를 지칭으로 추가하여 사용한다.

▌호칭과 지칭▐

우선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아기씨'는 현재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심층 면담 결과에서도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아가씨'와 같은 뜻으로 사전에 기술되어 있으나 2018에서는 현재 잘 사용되지 않는 호칭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표에서 제외하였다.



아기-씨01 발음 듣기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1」 여자아이나 시집갈 나이의 처녀 또는 갓 시집온 색시를 높여 이르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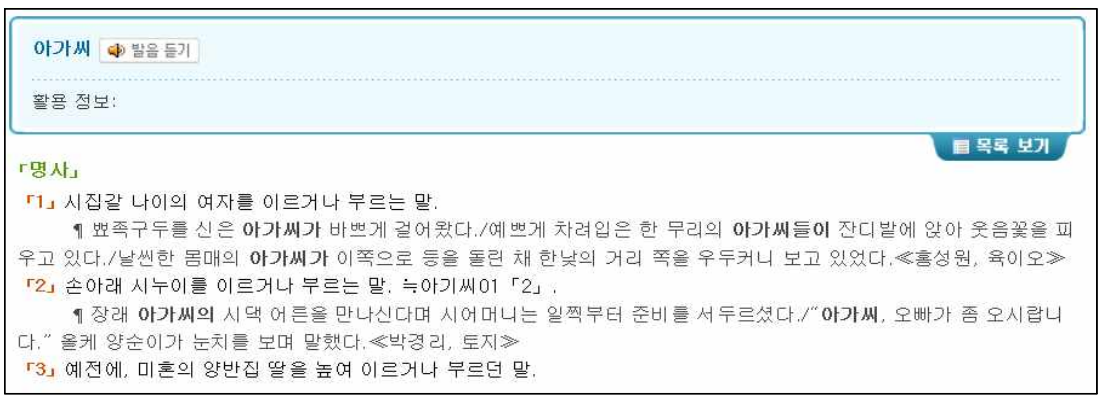
¶ 집안 내에서 혼처를 갖다 대는 족족 **아기씨가** 다 물리쳤다는 걸 송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으니까.≪박완서, 미망≫

「2」 =아가씨 「2」.

「3」 궁중에서, 어린 왕자나 왕녀·왕손을 높여 이르던 말.

¶ 공주 **아기씨**/동궁 **아기씨**/아기 마마는 인제 걸음발도 탈 줄 안답니다. **아기씨** 인제 아바마마 앞에서 좀 걸어 보아!≪박종화, 다정불심≫

「4」 『민속』 무속에서, 여신이나 부신의 호칭 다음에 붙여 그 신을 높여 이르는 말.



아가씨 발음 듣기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1」 시집갈 나이의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 뾰족구두를 신은 **아가씨가** 바쁘게 걸어왔다./예쁘게 차려입은 한 무리의 **아가씨들이** 잔디밭에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날씬한 몸매의 **아가씨가** 이쪽으로 등을 돌린 채 한낮의 거리 쪽을 우두커니 보고 있었다.≪홍성원, 육이오≫

「2」 손아래 시누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아기씨01 「2」.

¶ 장래 **아가씨의** 시댁 어른을 만나신다며 시어머니는 일찍부터 준비를 서두르셨다./"**아가씨**, 오빠가 좀 오시랍니다." 올케 양순이가 눈치를 보며 말했다.≪박경리, 토지≫

「3」 예전에, 미혼의 양반집 딸을 높여 이르거나 부르던 말.

한편 남편의 여동생에 대해 '아가씨'라고 부르는 것이 남편의 여동생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으로 느껴져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48] 남편의 여동생이 나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 나보다 나이가 어린 남편의 여동생을 '아가씨'로 부르고 존댓말을 쓰는데 상대방은 나를 '올케'로 부르고 반말을 써서 가정 내 갈등의 요소로 대두된 상황이다. 2018은 '아가씨'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으로 '○○ 씨', '동생(님)', '고모' 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자녀가 생겼을 경우 자녀의 호칭에 기대어 '고모', '○○[자녀] 고모' 등으로 부를 수 있고 남편과의 관계에 기대어 '동생', '동생님' 등으로 부르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호칭으로 보인다. 만일 자녀가 없거나 친근함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 씨'로 부를 수 있겠다. 물론 '○○ 씨'로 부르는 것에 대해 가정 구성원들 간 양해와 수용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2017 실태조사를 통해 '부매', '부제' 등이 언중에 의해 새롭게 제안된 형태이고 <국민생각함>의 설문 결과에서도 44% 정도의 국민이 사용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다만 국어학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2018은 이를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다.

4 남편 여자 형제의 배우자

48) 2017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동생을 부를 때에는 '도련님, 아가씨' 등으로 높여 부르고 결혼한 남성이 아내의 동생을 부를 때에는 '처남, 처제' 등으로 높이지 않고 부르는 관행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 중 25%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고, 40.8%가 '조금 그렇다'라고 답해, 긍정 응답 비율이 65.8%를 차지하였다.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8.5%,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7%로, 전체 응답 가운데 부정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이 34.2%에 그쳤다."(국립국어원, 2017:28)고 되어 있다.

〔1992〕 남편 누이의 남편

		남편 누나의 남편	남편 누이동생의 남편
호칭어		아주버님, 서방님	서방님
지칭어	자녀에게	고모부(님)	고모부(님)
	자녀 외의 사람들에게	(지역 이름) 아주버님 (지역 이름, 姓) 서방님 ○○ 고모부님	(지역 이름, 姓) 서방님 ○○ 고모부님

〔2011〕 [표 Ⅰ-34] 시누이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남편 누나의 남편	남편 여동생의 남편
호칭		아주버님	서방님
지칭	당사자에게	아주버님	서방님
	자녀에게	고모부, 고모부님	고모부, 고모부님
	자녀 외의 사람들에게	시누이 남편, 아주버님, ○○[지역] 아주버님, ○○[자녀] 고모부, ○○[자녀] 고모부님	시누이 남편, 서방님, ○○[지역] 서방님, ○ 서방, ○○[자녀] 고모부, ○○[자녀] 고모부님

〔2018〕 남편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

	전통	가능
호칭	아주버님	= 아주버니 매형(님)
지칭	아주버님, ○○[지역] 아주버님, 시누이 남편 ○○[자녀] 고모부(님) (자녀에게) 고모부(님)	= 매형님

〔2018〕 남편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

	전통	가능
호칭	서방님	= ○[성씨] 서방님 매부(님), 매제(님) ○○ 씨
지칭	서방님, ○○[지역] 서방님, 시누이 남편, 아주버님, ○ 서방 ○○[자녀] 고모부(님) (자녀에게) 고모부(님)	= ○[성씨] 서방님 매부(님), 매제(님) ○○ 씨

1992와 2011 모두 남편 누나의 남편과 남편 여동생의 남편을 시누이의 남편으로 묶어 함께 제시하였는데 2018은 이것을 둘로 나누어 제시한다. 남편 누나의 남편은 '아주버님'을, 남편 여동생의 남편은 '서방님'을 기본으로 하고 지칭에서는 '○○[자녀] 고모부'를 경우에 따라 사용한다. 이 중 남편 여동생의 남편을 '서방님'으로 부르는 것이 불편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2018은 이에 대해 다른 호칭을 찾고자 하였다.

▌호칭과 지칭▐

2018에서는 호칭의 경우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아주버님’, ‘서방님’을 두고 이러한 호칭이 불편할 경우 관계에 기댄 표현을 두루 살려 쓰는 것으로 정비의 방향을 잡았다. 남편과 나를 동등한 입장으로 보고 남편의 호칭어인 ‘매형’, ‘매부’과 ‘매제’를 쓴다거나, 처부모가 사위를 부르는 호칭인 ‘○[성씨] 서방’ 등을 함께 사용하되 다만 여기에 관계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고려하여 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여 ‘-님’을 붙여 ‘매형님’, ‘매부님’, ‘매제님’, ‘○[성씨] 서방님’ 등을 호칭과 지칭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여기에 자녀와의 관계에 기댄 ‘고모부(님)’, ‘○○[자녀] 고모부(님)’도 함께 호칭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자녀와의 관계에 기댄 ‘○○[자녀] 고모부(님)’ 등은 호칭과 지칭을 통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표에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남편 누나의 남편은 ‘아주버님’으로 부르는 것이 전통적인 호칭이지만 가족 간에 친밀하게 지낸다거나 나보다 나이가 어릴 때 가족들 간의 양해가 있다면 ‘아주버니’로 부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 남편 여동생의 남편의 경우 손아래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해 친근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 씨’를 쓸 수도 있다. 그러므로 ‘○○ 씨’를 쓰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손아래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손아래 형제자매, 배우자의 손아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한편 남편 누나의 남편과 여동생의 남편에 대해서만 ‘○○[지역] 아주버님’과 ‘○○[지역] 서방님’이 제시되어 있는데 다른 관계들에도 자녀 대신 지역을 구분 표지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큰아버지’로 쓸 수도 있고 ‘부산 올케’를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 다만 1992나 2011에서 남편 누나와 여동생의 남편에 대해서만 ‘○○[지역] 아주버님’과 ‘○○[지역] 서방님’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2018에서도 이 부분만 표에 살리고 다른 관계들에서는 굳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o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해설 비교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는 나의 동기가 아니라 배우자의 동기에 해당하므로 결혼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관계로 그 배우자까지 확대될 경우, 남편의 동기가 결혼을 했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표준 화법 해설』(1992)은 남편의 동기인 형, 아우, 누나, 누이동생과 형의 아내, 아우의 아내, 누이의 남편 순서로 되어 있고 기술은 하나로 묶어 제시되어 있다.

1 남편의 형과 그 배우자

표준 화법 해설(1992)

말이 사회적인 관습이라면, 호칭어도 관습이다. 폐쇄 사회가 개방 사회로, 대가족 제도가 소가족 제도로 바뀌면서 호칭어도 많이 변했다. 특히 가족 호칭은 문화적, 지역적 차이뿐만 아니라 집안에 따라 미묘한 차이점까지 있어서, 시댁에서의 호칭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남편의 형에 대한 호칭어는 '아주버님'으로 정했다. 남편의 형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르게 불러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①미혼 기혼을 구별하지 않고 호칭하는 것이 전통이므로 그것을 따르기로 했다.

시부모에게 남편의 형을 지칭할 때, 남편의 형보다 손위 시댁 쪽 사람에게는 '아주버님'의 평칭인 '아주버니'로 지칭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②현실적으로 남편의 형은 어느 경우에나 '아주버님'으로 지칭하므로 이를 받아들였다.

친정 쪽 사람에게 남편의 형을 가리킬 때는 '시아주버니'와 자녀에게 기댄 표현인 '○○ 큰아버지'를 쓰도록 했다. ③이때 '시-'를 넣지 않아도 남편의 형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아주버니'를 지칭어로 많이 쓰기 때문에 현실을 존중하였다.

자녀에게 남편의 형을 가리킬 때는 자녀의 위치에 서서 '큰아버지' 또는 '큰아버님'으로 지칭하기로 정했다. 남편의 형이 여럿일 때는 '둘째 큰아버지'처럼 '첫째, 둘째……' 등의 서열을 넣거나, 혹은 살고 있는 지역 이름을 넣어 '남양주 큰아버지'처럼 지칭할 수 있다.

<43-44쪽>

표준 언어 예절(2011)

남편의 형에 대한 호칭은 '아주버님'이다. ①남편의 형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르게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미혼, 기혼을 구별하지 않고 호칭하는 것이 전통이므로 그것을 따른다.

남편의 형 당사자를 가리킬 때는 '아주버님'이라 한다. 남편의 형을 시댁 쪽 사람에게 지칭할 때도 '아주버님'이다. ②남편 형의 손위 사람에게는 '아주버니'로 지칭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남편의 형은 어느 경우에나 '아주버님'으로 지칭하는 것이 옳다.

친정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 남편의 형을 가리킬 때는 '시아주버니', 자녀에게 기댄 표현인 '○○[자녀] 큰아버지'를 쓴다. ③'시아주버니'에서 '시-'를 넣지 않아도 남편의 형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아주버니'를 지칭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현실을 존중한 것이다. '시숙(媤叔)'은 '남편의 형제를 이르는 말'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주로 남편의 형을 가리켜 '시숙'이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남편의 형을 친정 쪽 사람들과 그 밖의 사람에게 가리킬 때 쓸 수 있다. 또 시동생이 화자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도 그 시동생을 가리켜 '시숙'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에게 남편의 형을 가리킬 때는 자녀의 위치에 서서 '큰아버지' 또는 '큰아버님'으로 지칭한다. 남편의 형이 여럿일 때는 '둘째 큰아버지'처럼 '첫째, 둘째……' 등의 서열을 넣거나, 살고 있는 지역 이름을 넣어 '남양주 큰아버지'처럼 지칭할 수 있다.

<57쪽>

①은 남편 형의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아주버님'으로 부른다는 것인데 남편 남동생을 결혼 전 '도련님'과 결혼 후 '서방님'으로 나누어 부르는 것과 다르다. 남편 형의 경우 항상 '아주버님'으로 부르도록 하였는데 남편의 형이 나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도 있어 2018의 경우 '아주버니'도 함께 호칭으로 쓸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반드시 남편의 형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주버니'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주버님'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 내의 분위기에 맞춰 자

유롭게 쓰면 될 것이다.

다만 지칭의 문제에서 ②의 경우, 즉 남편의 형보다 손위 사람에게도 남편의 형을 '아주버님'으로 지칭하도록 하였는데, "어느 경우에나 '아주버님'으로 지칭하는 것이 옳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남편을 높여 대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 남편의 형도 당연히 높여야 할 대상이 되므로 어느 경우에나 '아주버님'으로 부르고 이르도록 한 것인데, 이어진 기술에서 친정 쪽 사람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시아주버니'를 쓰도록 하여 기술들 간 불일치가 생긴 셈이다. 남편의 형이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형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아주버님'과 '아주버니'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③ '시아주버님'의 경우 굳이 '시(媤)-'를 붙이지 않아도 남편의 형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8은 '시(媤)-' 등의 구분 표지를 지양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를 표에서 제외할 것에 대해서도 연구진의 논의가 있었다. 다만 심층 면담의 결과 40대 이상에서는 '시아주버니'를 호칭이나 지칭으로, '시숙님' 등을 지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부 확인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용법으로 제시하였다.

표준 화법 해설(1992)

남편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어, 지칭어를 논의하기 전에 며느리 사이의 관계말로 '동서'가 옳은 말인가를 논의하였다. '동서(同壻)'는 같은 집의 사위들끼리의 관계말이고, 며느리 사이의 관계말은 '동시(同媤)'가 맞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壻)'가 '사위 서'일 뿐만 아니라 '남편 서'로도 쓰이고, 국어사전에 '동서'는 '자매(姉妹)의 남편끼리 또는 형제의 아내끼리 서로 일컫는 말'로 이미 올라 있고 지금도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므로 며느리 사이의 관계말로 '동서'가 옳다. '동시(同媤)'는 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다. 18세기말에 편찬된 '재물보(才物譜)'에도 동생의 아내가 형의 아내를 '맏동서'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다.

④남편 형의 아내에 대해 '형님'을 호칭어로 정했다. 전통적으로 동서는 남편의 나이 순서에 따라 서열이 정해져, 윗동서의 나이가 적더라도 '형님'으로 호칭하고 존대말을 썼다. 윗동서에게 예절을 갖추는 것은 우선 남편의 형을 예우하는 것이란 점에서 지금도 이러한 전통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부모에게 남편 형의 아내를 지칭할 때는 '형님'을 표준으로 하고 '큰동서(맏동서)'로 지칭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시부모 이외의 시댁 쪽 사람들에게 지칭할 때는 '형님'으로 정했다. 친정 쪽 사람에게는 '큰동서(맏동서)', '○○ 큰어머니'로, ⑤자녀에게는 자녀가 부르는 말인 '큰어머니(님)'로 지칭한다.

<46-47쪽>

표준 언어 예절(2011)

남편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이전에 며느리 사이의 관계말로 '동서'가 옳은 말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동서(同壻)'는 같은 집의 사위들끼리의 관계말이고, 며느리 사이의 관계말은 '동시(同媤)'가 맞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서(壻)'가 '사위 서'일 뿐만 아니라 '남편 서'로도 쓰이고, 국어사전에 '동서'는 '자매(姉妹)의 남편끼리 또는 형제의 아내끼리 서로 일컫는 말'로 이미 올라 있다. 지금도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므로 며느리 사이의 관계말로 '동서'가 옳다. '동시(同媤)'는 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다. 18세기 말에 편찬된 '재물보(才物譜)'에도 동생의 아내가 형의 아내를 '맏동서'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다.

남편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은 '형님'이다. ④전통적으로 동서는 남편의 나이 순서에 따라 서열이 정해

져 있어서, 윗동서의 나이가 적더라도 '형님'으로 호칭하고 존댓말을 썼다. 윗동서에게 예절을 갖추는 것은 우선 남편의 형을 예우하는 것이란 점에서 지금도 이러한 전통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부모에게 남편 형의 아내를 지칭할 때는 '형님'이 원칙이되 '큰동서', '맏동서(남편 맏형의 아내만)'로 지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부모 이외의 시댁 쪽 사람들에게 '형님'으로 지칭한다. 친정 쪽 사람, 그 밖의 사람에게는 남편 형의 아내를 '큰동서', '형님', '맏동서(남편 맏형의 아내만)', '○○[자녀] 큰어머니'로 지칭한다. ⑤자녀에게는 자녀가 부르는 말인 '큰어머니', '큰어머님'으로 지칭한다.

<58-59쪽>

④에서 윗동서의 나이가 나보다 적을 경우에도 호칭은 '형님'으로 하고 존댓말을 쓰도록 기술하고 있다. 이것이 배우자의 서열에 대한 존중을 지키는 것으로 본 것인데 실제로 남자의 경우 아내의 여자 형제의 남편에 대해 손위와 손아래, 즉 서열을 기준으로 '형님'과 '○ 서방'을 나누어 쓰기는 하지만 '동서'를 써서 양쪽 모두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서열이 엄격하게 지켜진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여자가 남편 형의 아내를 부르는 호칭과 남자가 아내 언니의 남편을 부르는 호칭을 대칭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형님'과 '동서'를 모두 함께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 경우에도 나이가 어린 형님과 나이가 많은 동서가 서로 '동서님'으로 존대를 하여 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사위들 간에도 나이와 서열이 뒤바뀐 경우에는 아내의 서열을 존중하여 양편이 모두 '동서님'으로 부르고 존대를 하여 예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⑤ 자녀에게는 자녀가 사용하는 호칭인 '큰어머니', '큰어머님'을 지칭으로 사용하는데 호칭을 지칭으로 사용한다는 맥락에서 '큰엄마'도 지칭으로 가능하다. 이는 다른 경우들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남편의 남동생과 그 배우자

표준 화법 해설(1992)

남편의 아우 곧 시동생이 미혼일 때는 '도련님'을 호칭어로 정했다. '되렌님'으로 하는 지역이 있으나 '도련님'이 올바른 말이다. 남편의 아우가 여럿이 함께 있을 때는 혼란을 막기 위해 '첫째 도련님', '둘째 도련님'처럼 서열을 넣어 호칭할 수 있다.

⑥흔히 남편의 아우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것을 본다. 그러나 전통적인 직접 호칭어가 있을 때는 자녀에 기대어 호칭하는 '삼촌, 고모, 큰엄마……' 등과 같은 호칭어는 쓰지 말아야 한다.

남편의 아우가 기혼일 때는 '서방님'으로 호칭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 '첫째 서방님, 둘째 서방님'처럼 서열을 넣어 쓸 수 있다.

시댁 쪽 사람에게 남편의 아우를 가리킬 때는 호칭어와 마찬가지로, 미혼자는 '도련님', 기혼자는 '서방님'으로 지칭한다.

친정 쪽 사람에게는 '시동생', '○○ 삼촌', '○○ 작은아버지'로 지칭하고, 자녀에게는 자녀에 기대어 미혼이면 '삼촌', 기혼이면 '작은아버지' 또는 '작은아버님'으로 지칭하도록 했다.

<44-45쪽>

표준 언어 예절(2011)

남편의 아우, 곧 시동생이 미혼일 때 호칭은 '도련님'이다. '되렌님'으로 하는 지역이 있으나 '도련님'이 표준어이다. 남편의 아우가 여럿이 함께 있을 때는 혼란을 막기 위해 '첫째 도련님', '둘째 도련님'처럼 서열을 넣어 호칭할 수 있다. ⑥흔히 남편의 아우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것을 본다. 그러나 전통적인 직접 호칭이 있을 때는 자녀에 기대어 호칭하는 '삼촌, 고모, 큰엄마, ……' 등과 같은 호칭은 쓰지 말아야 한다. 남편의 아우가 기혼일 때는 '서방님'으로 호칭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 '첫째 서방님, 둘째 서방님'처럼 서열을 넣어 쓸 수 있다.

남편의 아우 당사자를 가리킬 때와 시댁 쪽 사람에게 남편의 아우를 가리킬 때는 호칭과 마찬가지로, 미혼자는 '도련님', 기혼자는 '서방님'으로 지칭한다. 친정 쪽 사람에게는 '시동생', '○○[자녀] 작은아버지', '○○[자녀] 삼촌'으로 지칭하고, 자녀에게는 자녀에 기대어 '작은아버지', '작은아버님', '삼촌'으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시동생',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자녀] 아버지', '○○[자녀] 삼촌'을 쓴다.

<59-60쪽>

⑥은 자녀에 기댄 호칭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남편의 남동생을 결혼 전에는 '도련님'으로 결혼 후에는 '서방님'으로 부르고 이르는 것에 대해 언어 사용자들의 불만이 방송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 많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남편의 남동생이 나이가 나보다 어릴 경우 '도련님'이나 '서방님' 등으로 높여 부르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에 기댄 호칭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부르고 듣기에 부담스러운 호칭과 지칭을 전통적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 삼촌' 또는 '삼촌'과 같이 자녀와 남편의 남동생 간 관계를 활용한 간접적인 호칭의 사용이 화자와 청자 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미 '삼촌'이나 '○○[자녀] 삼촌' 등은 언중이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⑥과 같이 자녀에 기댄 호칭을 아예 쓰지 말아야 할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2018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표준 화법 해설(1992)

남편 아우 곧 시동생의 아내는 며느리 사이의 관계말인 '동서'를 호칭어로 한다. ⑦'여보게', '○○ 엄마'도 널리 쓰이는 호칭어이나 타인을 부르는 느낌이 들어 제외했다. ⑧물론 아랫동서가 나이가 많을 때는 '동서'라고 호칭하고 존대말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어법에 맞다. 마음의 정은 친동기간에게 주는 것과 같지만 동서끼리도 예의로 대접해야 한다.

자녀에게는 자녀의 위치에서 '작은어머니(님)'로 지칭하고, 친정 쪽 사람에게는 '동서' 또는 '○○ 작은어머니', 그 밖의 사람에게는 '동서'로 지칭하도록 했다.

<47쪽>

표준 언어 예절(2011)

남편 아우, 곧 시동생의 아내는 며느리 사이의 관계말인 '동서'를 호칭으로 한다. ⑦'여보게', '○○[자녀] 엄마'도 널리 쓰이는 호칭이나 타인을 부르는 느낌이 들어 적절하지 않다. ⑧물론 손아래 동서가 나이가 많을 때는 '동서'라고 호칭하고 존댓말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예법에 맞다. 마음의 정은 친동기간에게

주는 것과 같지만 동서끼리도 예의로 대접해야 한다.
남편 아우의 아내 당사자를 가리킬 때와 시댁 쪽 사람에게 남편 아우의 아내를 가리킬 때는 '동서'라고 지칭한다. 친정 쪽 사람, 그 밖의 사람에게는 '동서', '작은동서', 또는 '○○[자녀] 작은어머니'로 지칭하고, 자녀에게는 자녀의 위치에서 '작은어머니', '작은어머님'으로 지칭한다.
<60-61쪽>

⑦에서 '여보게' 등이 널리 쓰이는 호칭이라고 하였는데 하게체 사용의 축소로 '여보게'가 널리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손아래 동서가 나이가 많을 때 호칭을 '동서'라고 하고 존댓말을 쓰는 것이 전통적인 예법에 맞는다고 설명하였는데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호칭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양쪽에서 모두 고려해 보아야 한다.

⑧에서 손아래 동서가 나보다 나이가 많을 경우 호칭을 '동서'로 하고 존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호칭은 그대로이면서 존댓말을 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양편이 모두 '동서님'으로 높이는 동시에 존댓말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3 남편의 누나와 그 배우자

표준 화법 해설(1992)

⑨남편의 누나에 대한 호칭어는 '형님'으로 했다.
시댁 쪽 사람에게 남편의 누나를 지칭할 때는 호칭어와 마찬가지로 '형님'을 쓰고, 친정 쪽 사람과 타인에게는 '시누이', '○○ 고모'로 지칭하기로 했다.
자녀에게 지칭할 때는 자녀의 위치에 서서 '고모' 또는 '고모님'으로 지칭하기로 정했다.
<45쪽>

표준 언어 예절(2011)

⑨남편의 누나에 대한 호칭은 '형님'이다. 남편의 누나 당사자를 가리킬 때와 시댁 쪽 사람에게 남편의 누나를 지칭할 때는 호칭과 마찬가지로 '형님'을 쓰고, 친정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는 '시누이', '형님', '○○[자녀] 고모'라고 지칭한다. '시누이'는 남편의 누나와 여동생을 아우르는 말이므로 남편의 누나를 지칭하는 말로 쓸 수 있고 '형님'은 남편의 누나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쓰기 때문에 역시 쓸 수 있다. 자녀에게 지칭할 때는 자녀의 위치에 서서 '고모' 또는 '고모님'으로 지칭한다.
<61-62쪽>

⑨ 여자가 쓰는 남편의 누나에 대한 호칭은 '형님'인데 남자가 쓰는 아내의 오빠에 대한 호칭 역시 '형님'이다. 또 남자 형제들의 부인들 간(며느리들 간)의 호칭 역시 '형님-동서'인데 여자 형제들의 남편들(사위들 간)의 호칭 역시 '형님-동서'이다. '형님', '동서'가 다양한 관계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 남편의 여동생과 그 배우자

표준 화법 해설(1992)

⑩남편의 누이동생에 대한 호칭어는 '아가씨', '아기씨'로 정했다. 남편의 누이동생이 혼인을 하여도 호칭어에는 변함이 없다. 일반적으로 '아가씨'가 처녀나 젊은 여자를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가족 호칭어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 말이 남편의 누이 동생을 부르고 가리키는 말로 쓰였고 지금도 가장 널리 쓰이는 말이다. ⑩또는 전통적으로 사대부집에서 쓰인 말 중 '작은아씨'는 듣기에도 정겨운 말이지만 보편성이 없어 제외했다.

남편의 누이동생을 시댁 쪽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어와 마찬가지로 '아가씨', '아기씨'로 정했고, 친정 쪽 사람에게는 남편의 누나와 같이 '시누이'와 '○○ 고모'를 지칭어로 쓰도록 했다. 자녀에게 지칭할 때는 자녀의 위치에 서서 '고모' 또는 '고모님'을 쓰도록 했다.

<45-46쪽>

표준 언어 예절(2011)

⑩남편의 여동생에 대한 호칭은 '아가씨', '아기씨'이다. 남편의 여동생이 혼인을 하여도 호칭에는 변함이 없다. 일반적으로 '아가씨'가 처녀나 젊은 여자를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가족 호칭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아가씨'가 남편의 여동생을 부르고 가리키는 말로 쓰였고 지금도 가장 널리 쓰이는 말이다. ⑩한편 사대부집에서 쓰인 말 중 '작은아씨'는 듣기에 정겨운 말이지만 보편성이 없으므로 권장할 만하지 않다.

남편의 여동생 당사자를 가리킬 때와 시댁 쪽 사람에게 남편 여동생을 지칭할 때는 호칭과 마찬가지로 '아가씨', '아기씨'라 하고, 친정 쪽 사람에게는 '시누이', '○○[자녀] 고모'를 지칭으로 쓴다. 자녀에게 남편의 여동생을 지칭할 때는 자녀의 위치에 서서 '고모' 또는 '고모님'으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시누이', '아가씨', '아기씨', '○○[자녀] 고모'를 쓴다.

<62-63쪽>

⑩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기씨'나 '작은아씨' 등은 현재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 다만 심층 면담의 결과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의 사용이 남녀차별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젊은 연령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던 것에 비해, 40~50대로 넘어가면서는 전통이므로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언어가 어느 한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편의 의견만 반영하여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어휘를 없애기는 어렵다. 심층 면담이나 자문회의 등의 논의를 통해 2018은 이러한 어휘들을 무조건 없애거나 다른 어휘로 대체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언중이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폭넓은 후보를 제시해 주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한다.

표준 화법 해설(1992)

시누이의 남편

전통적으로 시누이의 남편과 처남의 부인은 엄격한 내외법이 있어서 직접 부를 일도 없었고 또 부르는 말도 없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면서 생일 잔치 등 양가가 모이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이 두 사람이 자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잦아져 서로의 호칭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⑪시누이의 남편에 대한 호칭어의 표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우선 새로 어떤 말을 만들

어 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현재 시누이의 남편을 부르는 데 쓰이고 있는 말들 가운데서 하나를 고르기로 하여 '아주버님', '서방님', '○○ 고모부님'과 '시매부님'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⑫그 결과 남편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어는 '아주버님'과 '서방님'을 표준으로 정했다. '아주버님'은 현재 여러 지방에서 시누이 남편을 부르는 말로 쓰일 뿐 아니라 남편의 형을 가리키는 말과 같으므로 손위 시누이 남편 호칭어로 무난하다. '서방님'은 서울에서 '서방님', '운니동 서방님', '김 서방님', '운니동 김 서방님'처럼 지칭어로 쓰던 말이다. 현재도 '운니동 서방님'과 같이 부른다는 의견이 있으나, 호칭어로는 지역 이름을 넣지 않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방님'으로 정하였다.

손위 시누이 남편을 자녀에게는 자녀의 위치에 서서 '고모부(님)'로 지칭하고, 그 외는 '(지역 이름) 아주버님', '(지역 이름, 성) 서방님', '○○ 고모부(님)'로 지칭하도록 했다.

⑬남편 누이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어는 '서방님'으로 정하였다. '아주버님'은 손위 시누이 남편을 부르는 말이고 '서방님'은 손위, 손아래 시누이 남편에게 두루 쓰이는 말이라는 여론을 존중한 것이다. 손아래 시누이 남편을 자녀에게는 '고모부(님)', 그 외는 '(지역 이름, 성) 서방님', '○○ 고모부(님)'로 지칭하도록 했다.

⑭'○○ 고모부님'은 간접 호칭어이나 올바른 호칭어가 없을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간접 호칭이란 사실과 함께 만약 '○○ 고모부님'을 표준으로 하면 자녀가 없을 때의 호칭어가 또 다시 궁색해진다는 문제가 있어 제외되었다.

'시매부(媤妹夫)님'은 한자로 뜻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시아버님'을 '아버님'으로 호칭하는 것처럼, 호칭할 때 '시-'를 빼고 '매부님'으로 부른다면 남자가 부르는 호칭처럼 들리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시아버님'은 여자가 부르는 말인 '아버님'에 '시-'를 넣은 것이지만, ⑮남자가 누이의 남편을 부르는 말인 '매부'에 '시-'를 붙여 여자가 호칭하는 말을 만든다는 한계점이 있어 표준 화법에 넣지 않았다.

<47-49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전통적으로 시누이의 남편과 처남의 부인은 엄격한 내외법이 있어서 직접 부를 일도 없었고 부르는 말도 없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생일잔치 등 모일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이 두 사람이 자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잦아져 서로를 부르는 말이 필요하게 되었다.

⑫남편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은 '아주버님'이다. '아주버님'은 현재 여러 지역에서 시누이 남편을 부르는 말로 쓰일 뿐 아니라 남편의 형을 가리키는 말과 같으므로 남편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으로 무난하다. '서방님'은 보통 손아래 사람(결혼한 시동생, 남편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이므로 남편 누나의 남편 호칭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남편 누나의 남편 당사자를 가리킬 때에는 '아주버님'이라 지칭하고, 자녀에게는 자녀의 위치에 서서 '고모부', '고모부님'으로 지칭한다. 자녀 외의 사람들에게는 '시누이 남편', '아주버님', '○○[지역] 아주버님', '○○[자녀] 고모부님'으로 지칭한다.

⑬남편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은 '서방님'이다. '아주버님', '아주버니'는 남편 누나의 남편을 이르는 말이라 적당하지 않고 '서방님'은 남편 여동생의 남편을 호칭할 때 두루 쓰이는 말이기 때문이다. ⑭'○○[자녀] 고모부님'은 간접 호칭이므로 좋지 않고, ⑮'시매부(媤妹夫)님'은 호칭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시댁 쪽 사람들에게 남편이 부르는 것과 같이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를 넣어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 여동생의 남편을 자녀에게는 '고모부', '고모부님', 자녀 외의 사람들에게는 '시누이 남편', '서방님', '○○[지역] 서방님', '○ 서방', '○○[자녀] 고모부', '○○[자녀] 고모부님'으로 지칭한다.

<63-64쪽>

⑪은 남편 누나와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을 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이다. 예전에는 시누이

의 남편과 처남의 부인이 만날 일이 흔하지 않았지만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양가가 만나는 일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들 관계에 대한 호칭과 지칭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992에서 이에 대한 표준을 정하였다는 것인데 결국 전통적으로 이들 관계에 사용되는 호칭과 지칭이 하나로 정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⑪과 같이 후보를 정하고 그 중에 '아주버님'과 '서방님'으로 정했다는 것인데 '서방님'에 대해서는 다른 호칭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1992에서 남편 누나의 남편에 대해 ⑫와 같이 '아주버님'과 '서방님'을 표준으로 정했고, 2011은 '아주버님'으로 수정하였다. ⑬의 설명처럼 '서방님'이 보통 손아랫사람을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이 둘을 나눈 것이다. 그런데 1992의 ⑬에 따르면 '서방님'은 전통적으로 위아래 두루 쓰이는 말이라는 것이 여론이었다고 한다. 2018은 '서방님'이라는 호칭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여론이 많이 있어 이 자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⑭는 간접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데 '서방님' 등의 호칭을 쓰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언중들이 그에 대한 대안으로 간접 호칭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⑮에서 '시매부(媤妹夫)'는 호칭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1992는 '매부'가 남편이 부르는 말이어서 여자가 부르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2011은 시댁 쪽 사람들에게 남편이 부르는 것과 같이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결국 '시매부'를 쓰지 않는 이유가 다른 셈이다. '시매부(媤妹夫)'를 호칭으로 쓰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가 조금 더 타당하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소통을 위한 언어예절>(2018) 정비안

〔2018〕 남편의 형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아주버님	=, 아주버니
지칭	아주버님 시아주버니, ○○[자녀] 큰아버지 (자녀에게) 큰아버지(님)	= 아주버니, 시아주버님 큰아빠

〔2018〕 남편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형님	= 동서님
지칭	형님 큰동서, 맏동서[남편 맏형의 아내만], ○○[자녀] 큰어머니 (자녀에게) 큰어머니(님)	= 동서(님) 큰엄마

〔2018〕 남편의 남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 ○○ 씨, 동생(님), (○○[자녀]) 삼촌, 작은아빠/아버지/아버님
지칭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시동생, ○○[자녀] 작은아버지, ○○[자녀] 삼촌 (자녀에게) 작은아버지(님), 삼촌	= ○○ 씨, 동생(님), 작은아빠

〔2018〕 남편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동서	= 동서님, ○○ 씨
지칭	동서 작은동서, ○○[자녀] 작은어머니 (자녀에게) 작은어머니(님)	= 동서님, ○○ 씨 작은엄마

※ 며느리들 간 서열과 나이가 뒤바뀐 경우 서로 '동서님'을 호칭으로 하고 존대를 하여 서로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도록 한다. 이는 사위들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2018〕 남편의 누나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형님	= 언니 누나/누님 (○○[자녀]) 고모
지칭	형님 시누이, ○○[자녀] 고모 (자녀에게) 고모(님)	= 언니, 누나/누님

〔2018〕 남편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

	전통	가능
호칭	아주버님	= 아주버니 매형(님)
지칭	아주버님, ○○[지역] 아주버님, 시누이 남편 ○○[자녀] 고모부(님) (자녀에게) 고모부(님)	= 매형님

〔2018〕 남편의 여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아가씨	= ○○ 씨 동생(님) (○○[자녀]) 고모
지칭	아가씨 시누이, ○○[자녀] 고모 (자녀에게) 고모(님)	= ○○ 씨 동생(님)

〔2018〕 남편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

	전통	가능
호칭	서방님	= ○[성씨] 서방님 매부(님), 매제(님) ○○ 씨
지칭	서방님, ○○[지역] 서방님, 시누이 남편, 아주버님, ○ 서방 ○○[자녀] 고모부(님) (자녀에게) 고모부(님)	= 매부님 ○○ 씨

4.1.8.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아내의 동기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은 남녀 간 비대칭적인 호칭과 지칭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여성은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댁의 서열을 나이보다 우선하여 따라야 함에 비해,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남성은 사위의 입장에서 서열보다는 나를 기준으로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호칭이나 지칭을 써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018은 앞서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에 준하여 정비 방향을 제시한다. 아내의 동기와 그 동기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의 정비 방향은 크게 아래와 같다.

O 정비 방향

가. 남녀 간 비대칭적인 호칭과 지칭을 대칭적으로 바꾼다.

나.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개념이 사라진 어휘에 대해서는 사용을 고려한다.

다. 자녀나 지역 등 구분 표지에 기댄 지칭을 사용할 수 있다.

O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표 비교

① 아내의 남자 동기

〔1992〕 아내의 남자 동기에 대한 호칭어, 지칭어

			아내의 오빠	아내의 남동생
호칭어			형님, 처남[연하]	처남, ○○[이름]
지칭어	당사자에게		형님, 처남[연하]	처남, 자네
	아내에게		형님, 처남[연하]	처남, ○○[이름]
	부모, 동기, 타인에게		처남, ○○ 외삼촌	처남, ○○ 외삼촌
	장인 장모에게		형님, 처남[연하]	처남
	당사자의	손위 동기와 그의 배우자에게	형님, 처남[연하]	처남, ○○[이름]
		손아래 사람에게	[그들이 부르는 대로]	[그들이 부르는 대로]
	자녀에게		외삼촌, 외숙부(님)	외삼촌, 외숙부(님)

〔2011〕 [표 Ⅰ-35] 아내의 남자 동기에 대한 호칭, 지칭(2011)

			아내 오빠	아내 남동생
호칭			형님	처남
지칭	당사자에게		형님	처남, 자네
	아내에게		형님	처남
	부모, 동기, 그 밖의 사람에게		처남, ○○[자녀] 외삼촌	처남, ○○[자녀] 외삼촌
	장인, 장모에게		형님	처남
	아내의	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형님	처남
		손아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형님, 형, 오빠	처남, 동생, 형님, 형, 오빠
	자녀에게		외삼촌, 외숙부, 외숙부님	외삼촌, 외숙부, 외숙부님

※ 두꺼운 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다음 표 [Ⅰ-36]에서 상세히 다룸.

[표Ⅰ-36] 아내의 남동생을 아내의 동기에게 지칭할 때

화자	청자		지칭어	
(~가)	(~에게)		(~라고 지칭한다.)	
나	① 아내 오빠, 아내 언니		처남	
	② 아내		처남	
	③ 아내 남동생, 아내 여동생		처남, 동생	
	④ **당사자인 남동생(지칭 대상)**		처남	
	⑤ 아내 남동생	아내 여동생	형, 형님	오빠

※ 청자 칸의 ①~⑤는 아내 동기들의 서열을 나타냄.

〔2018〕 아내의 오빠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형님	= 처남님
지칭	(당사자, 아내, 부모, 처부모, 동기) 형님 ○○[자녀] 외삼촌 (아내 동기의 호칭에 따라) 형(님), 오빠 (자녀에게) 외삼촌, 외숙부(님)	= 처남님

〔2018〕 아내의 남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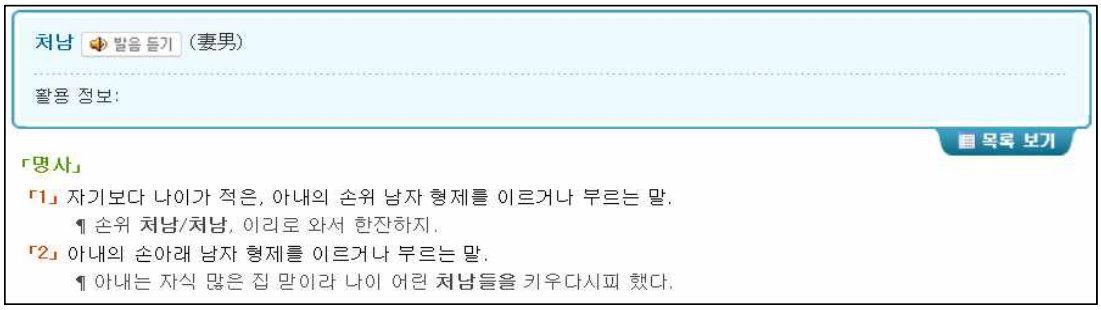
	전통	가능
호칭	처남	= 처남님 ○○ 씨 동생(님)
지칭	(당사자, 아내, 부모, 처부모, 동기) 처남, (당사자) 자네 ○○[자녀] 외삼촌 (아내 동기의 호칭에 따라) 형(님), 오빠, 동생 (자녀에게) 외삼촌, 외숙부(님)	= 처남님 ○○ 씨 동생님

1992와 2011 모두 아내의 오빠와 남동생을 하나의 표로 묶어 제시하였던 것을 2018에서는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전통적으로 아내의 오빠는 '형님'으로, 아내의 남동생은 '처남'으로 부르고 여기에 상대방과 아내의 오빠나 남동생 간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호칭어를 지칭어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2011은 특이하게도 '8.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에서만 '[표Ⅰ-36] 아내의 남동생을 아내의 동기에게 지칭할 때'와 같은 표를 따로 두었다. 동기와 그 배우자,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 등에서는 따로 표로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만 특별히 나올 이유가 없다고 보아 2018은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

▌호칭과 지칭▐

호칭의 경우 1992나 2011에서 아내의 오빠에 대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처남'으로 불러도

되는 것으로 보았다. 물론 한자의 뜻 그대로 보면 '처의 남자 형제'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처남'이 아내의 남동생을 부르는 호칭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설령 아내의 오빠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처남'으로 부르기보다는 '처남님' 정도로 불러 나이가 어린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또 아내의 남동생도 서열이 아래이더라도 나이가 나보다 많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처남님' 또는 '동생님'으로 써서 상대에 대한 존중을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이와 함께 아내의 남동생은 배우자의 손아래 형제이므로 친근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 씨'로 부르고 이를 수 있다.

한편 2011의 '[표 Ⅰ-36] 아내의 남동생을 아내의 동기에게 지칭할 때'는 1992에서 '당사자의 손아래 사람에게' 쓰는 지칭은 '[그들이 부르는 대로]' 처리하였던 것인데, 2011에서는 아내의 남동생과 여동생의 경우에만 따로 표로 제시한 것이다. 2018에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아내 동기의 호칭에 따라)'로 함께 처리하였다. 호칭을 지칭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복잡하게 제시된 표가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호칭을 지칭으로 통용할 수 있도록 한 원칙에 따라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서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서도 제외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1992나 2011의 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내 동기의 호칭에 따라)' 정도로 정리하였다.

② 아내 남자 동기의 배우자

〔1992〕 아내 남자 동기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 지칭어

			아내 오빠의 부인	아내 남동생의 부인
호칭어			아주머니	처남의 댁
지칭어	당사자에게		아주머니	처남의 댁
	아내에게		처남의 댁	처남의 댁
	부모, 동기, 타인에게		처남의 댁, ○○ 외숙모	처남의 댁, ○○ 외숙모
	장인, 장모에게		처남의 댁	처남의 댁
	당사자 시댁의	손위 동기와 그의 배우자에게	처남의 댁	처남의 댁
		손아래 사람에게	[그들이 부르는 대로]	[그들이 부르는 대로]
	자녀에게		외숙모(님)	외숙모(님)

〔2011〕 [표 Ⅰ-37] 아내 남자 동기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 지칭

			아내 오빠의 아내	아내 남동생의 아내
호칭			아주머니	처남의 댁, 처남댁
지칭	당사자에게		아주머니	처남의 댁, 처남댁
	아내에게		처남의 댁, 처남댁	처남의 댁, 처남댁
	부모, 동기, 그 밖의 사람에게		처남의 댁, 처남댁, ○○[자녀] 외숙모	처남의 댁, 처남댁, ○○[자녀] 외숙모
	장인, 장모에게		처남의 댁, 처남댁	처남의 댁, 처남댁
	아내의	손위 동기와 그의 배우자에게	처남의 댁, 처남댁	처남의 댁, 처남댁
		손아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형수, 새언니, 언니, 올케, 올케언니	형수, 새언니, 언니, 올케, 올케언니
	자녀에게		외숙모, 외숙모님	외숙모, 외숙모님

〔2018〕 아내 오빠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아주머니	= 아주머님 형님댁
지칭	(당사자에게) 아주머니, (부모, 아내, 처부모에게) 처남댁 ○○[자녀] 외숙모 (아내 동기가 사용하는 호칭에 따라) 형수, 새언니, 언니, 올케(언니) (자녀에게) 외숙모(님)	= 아주머님 형님댁

〔2018〕 아내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처남댁	= ○○ 씨
지칭	(당사자, 부모, 아내, 처부모에게) 처남댁 ○○[자녀] 외숙모 (아내 동기가 사용하는 호칭에 따라) 형수, 새언니, 언니, 올케(언니) (자녀에게) 외숙모(님)	= ○○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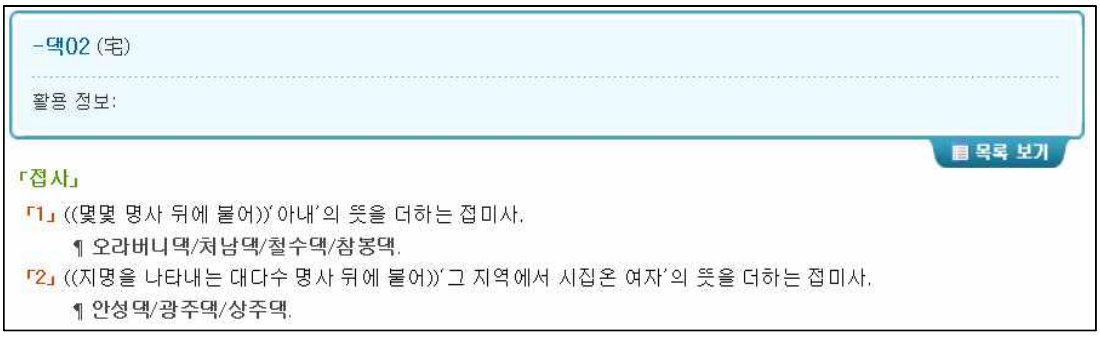
1992와 2011 모두 아내 오빠의 아내와 아내 남동생의 아내를 하나의 표로 묶어 제시하였던 것을 2018에서는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아내 오빠의 아내는 '아주머니'로, 아내 남동생의 아내는 '처남댁'으로 부르고 여기에 더해 아내의 동기가 사용하는 호칭어를 지칭어로 사용할 수 있다.

▌호칭과 지칭▐

2018에서 특별히 추가하여 제안한 것으로 '형님댁'이 있다. 또한 1992와 2011에서 '처남의 댁'으로 되어 있는 호칭이나 지칭은 삭제하고 '처남댁'으로만 제시하였다. 이미 '처남댁'이 사전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고 또 심층 면담의 결과에서도 '처남의 댁'이 아닌 '처남댁'이 거의 굳어진 것으로 보여 굳이 '처남의 댁'과 같이 관계를 밝히는 표현을 둘 필요가 없었다.

'형님댁'의 경우 '처남댁'의 짝으로 아내의 오빠를 '형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여 아내 오빠의 아내를 '형님의 댁' 또는 '형님댁'으로 부르거나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형님댁'은 사전

에 표제어로 없고 '형님댁'을 보통은 '형님의 집'의 의미로 쓰고 있어 향후 '아주머니(님)'와 함께 '형님댁'을 같이 쓰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아내 오빠의 아내는 아내의 오빠를 높이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아주머니'를 '아주머님'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또 아내 남동생의 아내에 대해 '○○ 씨'로 부를 수 있는데 손아랫사람이지만 존중하면서도 친근하게 부르는 방식으로 볼 수 있겠다.

3 아내의 여자 동기

〔1992〕 아내의 여자 동기에 대한 호칭어, 지칭어

			아내의 언니	아내의 여동생
호칭어			처형	처제
지칭어	당사자에게		처형	처제
	아내에게		처형	처제
	부모, 동기, 타인에게		처형, ○○ 이모	처제, ○○ 이모
	장인 장모에게		처형	처제
	당사자의 시댁 및 처가의	손위 동기와 그의 배우자에게	처형	처제
		손아래 동기에게	[그들이 부르는 대로]	[그들이 부르는 대로]
	자녀에게		이모(님)	이모(님)

〔2011〕 [표 Ⅰ-38] 아내의 여자 동기에 대한 호칭, 지칭(2011)

			아내 언니	아내 여동생
호칭			처형	처제
지칭	당사자에게		처형	처제
	아내에게		처형	처제
	부모, 동기, 그 밖의 사람에게		처형, ○○[자녀] 이모	처제, ○○[자녀] 이모
	장인, 장모에게		처형	처제
	아내의	손위 동기와 그의 배우자에게	처형	처제
		손아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누나, 누님, 언니	처형, 동생, 누나, 누님, 언니
	자녀에게		이모, 이모님	이모, 이모님

※ 두꺼운 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다음 표 [Ⅰ-39]에서 상세히 다룸.

[표 Ⅰ-39] 아내의 여동생을 아내의 동기에게 지칭할 때

화자	청자		지칭어	
(~가)	(~에게)		(~라고 지칭한다.)	
나	① 아내 오빠, 아내 언니		처제	
	② 나의 아내		처제	
	③ 아내 남동생, 아내 여동생		처제, 동생	
	④ 당사자인 여동생(지칭 대상)		처제	
	⑤ 아내 남동생	아내 여동생	누나, 누님	언니

※ 청자 칸의 ①~⑤는 아내 동기들의 서열을 나타냄.

〔2018〕 아내의 언니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처형	= 처형님
지칭	(당사자, 아내, 부모, 처부모에게) 처형 ○○[자녀] 이모 (아내의 동기가 사용하는 호칭에 따라) 누나(님), 언니 (자녀에게) 이모(님)	= 처형님

〔2018〕 아내의 여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처제	= 처제님 ○○ 씨 동생님
지칭	(당사자, 아내, 부모, 처부모에게) 처제 ○○[자녀] 이모 (아내의 동기가 사용하는 호칭에 따라) 처형, 동생, 누나(님), 언니 (자녀에게) 이모(님)	= 처제님 ○○ 씨 동생님

1992와 2011 모두 아내의 언니와 아내의 여동생을 하나의 표로 묶어 제시하였던 것을 2018에서는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전통적으로 아내의 언니는 '처형', 아내의 여동생은 '처제'로 부르고 여기에 더해 아내의 동기가 사용하는 호칭어를 지칭어로 사용할 수 있다.

▌호칭과 지칭▐

2018은 1992와 2011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호칭이나 지칭을 대체로 따라 정리하였다. 다만 아내의 언니나 여동생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높여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할 때 '-님'을 붙여 '처형님', '처제님' 등으로 쓰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아내의 여동생에 대해서도 아내의 남동생과 마찬가지로 '○○ 씨'와 '동생님'을 호칭과 지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아내의 손아래 여동생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다.

④ 아내 여자 동기의 배우자

〔1992〕 아내 여자 동기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 지칭어

			아내 언니의 남편	아내 여동생의 남편
호칭어			형님, 동서[연하]	동서, ○ 서방
지칭어	당사자에게		형님, 동서[연하]	동서, ○ 서방
	아내에게		형님, 동서[연하]	동서, ○ 서방
	부모, 동기, 타인에게		동서, ○○ 이모부	동서, ○○ 이모부
	장인 장모에게		형님, 동서[연하]	동서, ○ 서방
	당사자 처가의	손위 동기와 배우자에게	형님, 동서[연하]	동서, ○ 서방
		손아래 동기에게	[그들이 부르는 대로]	[그들이 부르는 대로]
	자녀에게		이모부(님)	이모부(님)

〔2011〕 [표 Ⅰ-40] 아내 여자 동기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 지칭

			아내 언니의 남편	아내 여동생의 남편
호칭			형님	동서, ○ 서방
지칭	당사자에게		형님	동서, ○ 서방
	아내에게		형님	동서, ○ 서방
	부모, 동기, 그 밖의 사람에게		동서, ○○[자녀] 이모부	동서, ○○[자녀] 이모부
	장인, 장모에게		형님	동서, ○ 서방
	아내의	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형님	동서, ○ 서방
	아내의	손아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매형, 자형, 매부, 형부, 형님	매형, 자형, 매부, 형부, ○ 서방
	자녀에게		이모부, 이모부님	이모부, 이모부님

〔2018〕 아내 언니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형님	= 동서님
지칭	(당사자, 아내, 처부모에게) 형님, (부모, 동기에게) 동서 ○○[자녀] 이모부 (아내의 동기가 사용하는 호칭에 따라) 매형, 자형, 매부, 형부, 형님 (자녀에게) 이모부(님)	= 동서님

〔2018〕 아내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동서, ○ 서방	= 동서님
지칭	(당사자, 아내, 부모, 처부모, 동기에게)동서, ○ 서방 ○○[자녀] 이모부 (아내의 동기가 사용하는 호칭에 따라) 매형, 자형, 매부, 형부, ○ 서방 (자녀에게) 이모부(님)	= 동서님 ○ 서방님 ○○ 씨

1992와 2011 모두 아내 언니의 남편과 여동생의 남편을 하나의 표로 묶어 제시하였던 것을 2018에서는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전통적으로 아내 언니의 남편은 '형님'으로 아내 여동생의 남

편은 ‘동서’, ‘○ 서방’ 등으로 이르거나 부르도록 하였다. 여기에 더해 아내의 동기가 사용하는 호칭어를 지칭어로 사용할 수 있다.

▌호칭과 지칭▐

2018은 1992와 2011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호칭이나 지칭을 대체로 따라 정리하였다. 다만 아내 언니의 남편이나 여동생의 남편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높여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할 때 ‘-님’을 붙여 ‘동서님’으로 쓰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나이와 서열이 역전되어서 아내 언니의 남편이지만 나보다 나이가 어릴 때 ‘동서님’으로 써서 형님으로서의 서열 관계를 높이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동서’의 경우 ‘同壻’, 즉 ‘처형이나 처제의 남편을 모두 이르는 말’로 쓸 수 있는데 남자와 여자 쪽 모두 나이가 어린 형님에 대해 ‘동서’를 호칭어로 사용하여 서열과 나이가 역전되었을 때 상대방의 서열을 존중해 주는 의미로 ‘동서님’을 쓰도록 한 것이다. 결혼으로 맺어지는 관계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양쪽을 모두 동일하게 처리한다. 며느리들끼리도 ‘형님’과 ‘동서’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나이가 어린 형님에 대해 ‘동서님’으로 부르는 것으로 관계와 서열이 역전되어 생기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o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해설 비교

1 아내의 남자 동기

표준 화법 해설(1992)

처갓집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고 하는 속담이 이제는 옛말이 되어 버렸다. 시대가 변하여 요즈음은 처가 출입도 빈번하고 친형제보다도 아내의 동기들과 더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호칭어가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옛날에는 필요없던 호칭어가 필요하게도 되었다.

아내의 남자 동기에 대한 호칭어, 지칭어

아내의 오빠를 부르는 말은 ‘형님’, ‘처남’을 표준으로 정했다. 아내의 오빠에 대한 전통적인 호칭어는 ‘처남’이었고 ①처가 쪽의 서열에 관계없이 연령 순으로 위아래가 정해졌다는 것이 전통 윤리에 밝은 분들의 지적이다. 아내의 오빠와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벗삼아 지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내의 오빠를 ‘형님’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나이에 관계없이 남편 쪽의 서열에 따라 남편 동기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가 정해지는데 아내의 동기들에게는 여자의 서열에 관계없이 남자들의 나이에 따른다는 것이 지나친 남성 위주의 사고일 뿐더러, 요즈음은 처남과 매부가 친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는 일이 많고 심지어 남에게도 ‘형님’이라고 하는데 손위 처남을 ‘형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낡은 주장이다. ②따라서 현실을 존중하여 아내의 오빠에 대하여는 ‘형님’을 호칭어로 정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옛날처럼 ‘처남’이라고 부르도록 결정하

였다.

손위 처남을 당사자나 아내의 친정 쪽 사람들에게 가리킬 때는 호칭어와 마찬가지로 '형님', 나이가 자신보다 적을 때는 '처남'으로 쓰도록 정하였다. 아내의 친정 쪽 사람들 가운데 처남을 기준으로 손아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오빠', '형' 등으로 가리키도록 하였다. 손위 처남을 자신의 부모와 동기들, 그리고 타인에게 말할 때는 '처남', '○○ 외삼촌'이라고 하고,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외삼촌'이라 하거나 '외숙부(님)'라고 하기로 정하였다.

③아내의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전통을 따라 '처남'이라고 하고 손아래 처남의 나이가 아주 어리면 이름을 부를 수도 있다.

④그리고 아내의 남동생을 가리키는 지칭어로는 본인에게는 '처남' 또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내를 비롯하여 처가 식구들에게는 호칭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남' 또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했다. 아내의 친정 쪽 동기들 가운데에 처남을 기준으로 손아래 사람에게 지칭할 경우에는 아내의 오빠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부르는 대로 '형', '오빠' 등을 지칭어로 쓰도록 한다. 자신의 부모와 동기들에게는 '처남', '○○ 외삼촌'이라 하고, 자녀들에게는 자녀의 외삼촌이므로 '외삼촌' 또는 '외숙부(님)'라고 지칭한다. 타인에게도 손위 처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남' 또는 '○○ 외삼촌'을 지칭어로 정하였다.

<50-51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아내의 오빠를 부르는 말은 '형님'이다. 아내의 오빠에 대한 전통적인 호칭은 '처남'이었고 ①처가 쪽의 서열에 관계없이 연령순으로 위아래가 정해졌다는 것이 전통 윤리에 밝은 분들의 지적이다. 아내의 오빠와 나이가 열 살 이상 차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벗 삼아 지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내의 오빠를 '형님'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나이에 관계없이 남편 쪽의 서열에 따라 남편 동기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이 정해지는데 아내의 동기들에게는 여자의 서열에 관계없이 남자들의 나이에 따른다는 것이 지나친 남성 위주의 사고이다. 그뿐만 아니라 요즈음은 처남과 매부가 친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는 일이 많고 심지어 남에게도 '형님'이라고 하는데 손위 처남을 '형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낡은 주장이다. 따라서 ②현실을 존중하여 아내의 오빠를 부르는 말은 '형님'이라 하되 자신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처남'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아내 오빠 당사자를 가리킬 때와 아내에게 아내 오빠를 가리킬 때는 호칭과 마찬가지로 '형님'으로 지칭한다. 나이가 자신보다 적을 때는 '처남'이라고 할 수도 있다. 자신의 부모와 동기, 그리고 그 밖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처남', '○○[자녀] 외삼촌'이라고 한다. 장인, 장모에게 아내 오빠를 가리킬 때는 '형님'으로 지칭한다. 아내의 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형님'으로 지칭하는데, 나이가 어릴 경우 '처남'으로 지칭할 수도 있다. 아내 오빠를 아내의 남동생에게는 '형님', '형'으로, 아내의 여동생에게는 '오빠'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외삼촌'이라 하거나 '외숙부', '외숙부님'이라고 한다.

③아내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전통에 따라 '처남'이다. 아내의 남동생의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④그리고 아내 남동생을 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처남', '자네'로 지칭한다. 아내에게 아내 남동생을 가리킬 때는 호칭과 마찬가지로 '처남'으로 지칭한다. 자신의 부모와 동기, 그 밖의 사람에게는 아내 남동생을 '처남', '○○[자녀] 외삼촌'이라 한다. 장인, 장모에게 아내 남동생을 가리킬 때는 '처남'으로 지칭한다.

아내의 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아내 남동생을 '처남'으로 지칭한다. 아내의 남동생이 여러 명인 경우 서열이 위인 남동생에게 그보다 서열이 아래인 남동생을 지칭할 때는 '처남', '동생'이라 하고, 서열

이 아래인 남동생에게 그보다 서열이 위인 남동생을 지칭할 때는 '형' 또는 '형님'이라 지칭한다. 아내에게 남동생과 여동생이 모두 있는 경우 아내 여동생이 당사자인 남동생보다 손위이면 '처남', '동생'으로, 아내 여동생이 당사자인 남동생보다 손아래이면 '오빠'로 지칭할 수 있다. 자녀에게는 '외삼촌' 또는 '외숙부', '외숙부님'이라고 지칭한다.

<66-68쪽>

① 여성이 남편의 서열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들을 부르는 것과 다르게 남성은 서열에 상관없이 아내 동기들과 나이를 기준으로 호칭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10년 차이가 나지 않으면 아내의 오빠와도 벗으로 지냈다는 것인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아내의 오빠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 2018은 서열과 나이의 문제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방향으로 정비하였다. 즉 여성도 남편 동기 또는 그 배우자보다 서열도 고려하지만 나이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어 남편 형의 아내가 나보다 나이가 적은 경우 예전에는 무조건 '형님'으로 불렀다면 2018에서는 '동서님'으로도 부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에 대해 앞서 1992에서도 남자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아내의 오빠에 대해 '처남님'으로 부르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여자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 남편의 형에 대해 '아주버니', 누나에 대해 '누님', '고모' 등의 호칭으로 부르는 것과 대칭을 맞춘 것인데 2018의 경우 서열과 나이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 지칭에서도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처남'으로 지칭하기보다는 '처남님'으로 지칭하는 것이 좋겠다.

③, ④ 아내의 남동생을 '처남'으로 부르고 이르는 문제에서 1992는 처남의 나이가 아주 어리다면 이름을 불러도 된다고 하였으나 2011은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네'로 부르도록 하였다. '자네'의 경우 장인이 사위를 부르는 호칭으로 아래 항렬의 사람에게 쓴다고 보면 처남은 같은 항렬이기 때문에 '자네'를 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여자가 남편의 남동생이나 여동생에 대해 '자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하게체'가 점차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자네' 자체의 사용도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아내 남자 동기의 배우자

표준 화법 해설(1992)

아내의 남자 동기의 부인, 즉 처남의 댁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경우 중의 하나다. 이 경우는 시누이의 남편 호칭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내외를 하여 서로 만나 직접 대화하는 일이 없어 적당한 호칭어가 없었다. 그러나 시속이 변하여 요즘은 만나는 일도 잦아졌고 또 가까이 지내는 집안도 많아서 그 호칭어와 지칭어도 필요하게 되었다.

⑤오랜 논의 끝에 손위 처남의 부인에 대한 호칭어는 '아주머니'를 표준으로 했다. '아주머니'가 숙모(叔母)를 가리키는 말이고 요즘은 보통 남에게도 '아주머니'라 하기 때문에 손위 처남의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지만 '처남의 댁'이라는 말이 '충주댁', '안성댁' 하듯이 낮추어 말하는 느낌이 있어 손위 처남의 부인에게 '처남의 댁'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는 것이다. ⑤그래서 요즘 일부에서 손위 처남의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따라 '아주머니'를 표준으로 결

정한 것이다.

그러나 지칭어로는 '아주머니'라는 말이 적절치 않으므로 '처남의 댁'을 지칭어로 정하였다. 다만 당사자에게는 '아주머니'라 지칭하고 자녀들에게는 '외숙모(님)'라고 지칭하도록 하였다. 부모, 동기, 타인에게 지칭할 경우에는 '처남의 댁' 외에 자신의 자녀들에 기대어 표현한 '○○ 외숙모'도 쓸 수 있다.

손아래 처남의 부인을 부르는 호칭어는 전통적으로 써 온 '처남의 댁'으로 정하였다. 흔히 '처남댁'이라고도 하나 표준어는 '처남의 댁'이다. 손아래 처남의 부인을 가리키는 말은 자녀들에게는 '외숙모(님)'라고 하고 부모, 동기, 타인에게 '처남의 댁', '○○ 외숙모'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밖의 경우에는 '처남의 댁'으로 지칭하도록 정하였다.

<53-55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아내 남자 동기의 아내 즉 처남의 댁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경우 중 하나다. 이 경우는 시누이의 남편 호칭과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서로 만나 직접 대화하는 일이 별로 없어 적당한 호칭이 없었다. 그러나 시속이 변하여 요즘은 만나는 일도 잦아졌고 또 가까이 지내는 집안도 많아서 그 호칭과 지칭도 필요하게 되었다.

⑤아내 오빠의 아내에 대한 호칭은 '아주머니'이다. '아주머니'가 숙모(叔母)를 가리키는 말이고 요즘은 보통 남에게도 '아주머니'라 하기 때문에 아내 오빠의 아내를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만 ⑤여러 지역에서 아내 오빠의 아내를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따라 '아주머니'를 표준으로 정한 것이다. '처남의 댁'이라는 말은 낮추어 말하는 느낌이 있어 아내 오빠의 아내에게 '처남의 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내 오빠의 아내 당사자에게는 호칭어와 같이 '아주머니'를 쓰고 아내에게 아내 오빠의 아내를 가리킬 때는 '처남의 댁', '처남댁'으로 지칭한다. 부모, 동기,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경우에는 '처남의 댁', '처남댁' 외에 자신의 자녀들에 기대어 표현한 '○○[자녀] 외숙모'도 쓸 수 있다. 장인, 장모에게 아내 오빠의 아내를 가리킬 때는 '처남의 댁', '처남댁'으로 지칭한다.

아내 오빠의 아내를 아내의 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처남의 댁', '처남댁'으로 지칭하고, 아내의 남동생에게는 '형수'로, 아내의 여동생에게는 '새언니', '언니', '올케', '올케언니'로 지칭할 수도 있다. 자녀들에게는 '외숙모', '외숙모님'이라고 지칭한다.

아내 남동생의 아내를 부르는 호칭은 '처남의 댁', '처남댁'이다. 전통적으로 써 온 '처남의 댁'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쓰고 있는 '처남댁'도 쓸 수 있다. 아내 남동생의 아내 당사자를 가리킬 때와 아내에게 아내 남동생의 아내를 가리킬 때는 '처남의 댁', '처남댁'으로 지칭한다. 부모, 동기, 그 밖의 사람에게는 '처남의 댁'. '처남댁', '○○[자녀] 외숙모'라고 지칭한다. 장인, 장모에게 아내 남동생의 아내를 가리킬 때는 '처남의 댁', '처남댁'으로 지칭한다.

아내 남동생의 아내를 아내의 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처남의 댁', '처남댁'으로 지칭한다. 아내의 남동생이 여러 명일 때 서열이 위인 남동생에게 서열이 아래인 남동생의 아내를 지칭할 때는 '처남의 댁', '처남댁'이라 하고, 서열이 아래인 남동생에게 서열이 위인 남동생의 아내를 지칭할 때는 '형수'라고 지칭한다.

아내의 여동생한테 아내의 남동생의 아내를 가리켜, 여동생이 그 남동생의 누나일 경우 '처남의 댁', '처남댁'으로 지칭한다. 여동생이 그 남동생의 여동생일 경우 '새언니', '언니', '올케', '올케언니'로 지칭한다. 자녀에게 아내 남동생의 부인을 가리키는 말은 '외숙모', '외숙모님'이다.

<68-70쪽>

⑤는 아내 오빠의 아내를 부르는 '아주머니'에 관한 것인데 1992에서는 일부에서의 사용에 따

라 2011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부르는 것에 따라 표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호칭으로 보기 어렵지만 점차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아내의 여자 동기

표준 화법 해설(1992)

아내의 언니를 부르는 말은 '처형'으로 정하였다.
당사자와 아내 쪽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처형'이라고 하고, 부모, 동기, 타인에게 지칭할 때는 '처형', '○○ 이모'를 쓰고, 자녀에게는 '이모(님)'로 지칭한다.
아내의 여동생을 부를 때와 아내 쪽 사람들에게 지칭할 때는 '처제'라고 한다. 부모, 동기, 타인에게 지칭할 때는 '처제' 또는 '○○ 이모'라고 한다. 자녀들에게는 처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모(님)', 또 타인에게는 '처제' 외에 '○○ 이모'를 쓸 수 있다. 또 아내의 친정 쪽 사람 중 처제보다 손아래 사람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언니', '누나' 등으로 지칭하는 것이 좋다.

<52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아내의 언니를 부르는 말은 '처형'이다.
아내 언니 당사자와 아내에게 아내의 언니를 가리킬 때는 모두 '처형'을 쓴다. 부모, 동기,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처형', '○○[자녀] 이모'를 쓴다. 장인, 장모에게 아내 언니를 가리킬 때도 '처형'으로 지칭한다.
아내 언니를 아내의 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처형'으로 지칭한다. 아내의 남동생에게는 '누나', '누님'으로, 아내의 여동생에게는 '언니'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 자녀에게는 '이모, 이모님'으로 지칭한다.
아내 여동생을 부르는 말은 '처제'이다. 아내 여동생 당사자와 아내에게 아내 여동생을 지칭할 때는 모두 '처제'를 쓴다. 부모, 동기,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처제' 또는 '○○[자녀] 이모'라고 한다. 장인, 장모에게 아내 여동생을 가리킬 때도 '처제'로 지칭한다. 아내 여동생을 아내의 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처제'로 지칭한다.
아내의 여동생에게 그 여동생을 지칭할 때는 '처제', '동생'이라 하고, 아내의 여동생에게 그 언니를 지칭할 때는 '언니'라고 지칭한다. 아내에게 남동생과 여동생이 다 있는 경우 아내의 남동생에게 그 여동생을 '처제', '동생'으로, 아내의 남동생에게 그 누나를 '누나', '누님'으로 지칭할 수 있다. 자녀에게는 처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모', '이모님'을 쓸 수 있다.

<71-72쪽>

4 아내 여자 동기의 배우자

표준 화법 해설(1992)

①처형의 남편을 부르는 호칭어는 '형님', '동서'를 표준으로 결정하였다. 아내 오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위 동서에게도 '동서'라고 해야지 '형님'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①역시 현실을 존중해서 '형님', 나이가 적으면 '동서'로 호칭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당사자와 아내 쪽 사람들에게는 호칭어인 '형님', '동서'로 지칭하고, 아내의 동기 가운데 동서보다 아랫사람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즉 처제에게는 '형부', 처남에게는 '매부' 등을 적절히 쓸 수 있다. 자기 쪽 사람들과 타인에게는 '동서', '○○ 이모부'로 지칭하고, 자녀들에게는 '이모부(님)'로 지칭한다.

아내 여동생 곧 처제 남편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불러 오던 대로 ‘동서’ 또는 ‘○ 서방’을 호칭어로 결정하였다. 지칭어는 손위 동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아내 그리고 장인, 장모 등 처가 쪽 사람들에게는 호칭어와 같이 ‘동서’ 또는 ‘○ 서방’으로 정하였다. 다만 부모를 포함한 자기 쪽 사람들에게는 ‘동서’, ‘○○ 이모부’라고 지칭하도록 하였다. 물론 아이들에게는 ‘이모부(님)’로, 타인에게는 ‘동서’ 외에 ‘○○ 이모부’라 지칭할 수도 있다.

<52-53쪽>

표준 언어 예절(2011)

①아내 언니의 남편을 부르는 호칭은 ‘형님’, ‘동서’이다. 아내 오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내 언니의 남편에게도 ‘동서’라고 해야지 ‘형님’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역시 ①현실을 존중해서 아내 언니의 남편은 ‘형님’으로 부르는데, 나이가 적으면 ‘동서’로 부른다.

아내 언니의 남편 당사자를 가리킬 때와 아내에게 아내 언니의 남편을 가리킬 때는 ‘형님’으로 지칭한다. 아내 언니의 남편이 자신보다 어릴 때는 ‘동서’라고 할 수도 있다 부모, 동기, 그 밖의 사람에게는 ‘동서’, ‘○○[자녀] 이모부’로 지칭한다. 장인, 장모에게 아내 언니의 남편을 가리킬 때는 ‘형님’으로 지칭한다. 아내 언니의 남편을 아내의 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형님’으로 지칭하고, 아내의 남동생에게는 ‘매형’, ‘자형’, ‘매부’로, 아내의 여동생에게는 ‘형부’로 지칭할 수도 있다. 자녀에게는 ‘이모부’, ‘이모부님’으로 지칭한다.

②아내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호칭은 전통적으로 불러 오던 대로 ‘동서’ 또는 ‘○ 서방’이다.

아내 여동생의 남편 당사자를 가리킬 때 ‘동서’ 또는 ‘○ 서방’이라 한다. 아내에게 아내 여동생의 남편을 가리킬 때는 ‘동서’ 또는 ‘○ 서방’으로 지칭한다. 부모, 동기, 그 밖의 사람에게는 ‘동서’, ‘○○[자녀] 이모부’라고 지칭한다. 장인, 장모에게 아내 여동생의 남편을 가리킬 때는 ‘동서’, ‘○ 서방’으로 지칭한다. 아내 여동생의 남편을 아내의 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동서’, ‘○ 서방’으로 지칭한다. 아내 남동생에게 그 여동생의 남편을 지칭할 때는 ‘동서’, ‘○ 서방’이라 하고, 아내의 남동생에게 그 누나의 남편을 지칭할 때는 ‘매형’, ‘자형’, ‘매부’라고 지칭한다. 아내에게 남동생과 여동생이 다 있을 때 아내의 여동생에게 그 여동생의 남편을 지칭하는 말은 ‘동서’, ‘○ 서방’이다. 아내의 여동생에게 그 언니의 남편을 지칭하는 말은 ‘형부’이다. 물론 자녀에게는 ‘이모부’, ‘이모부님’으로 지칭한다.

<73쪽>

①은 아내 언니의 남편을 부르는 호칭에 대한 것인데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이가 적으면 ‘동서’로 부르도록 되어 있다. 2011은 여자의 경우 남편 형의 아내에 대해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형님’으로 부르도록 되어 있는 반면 남자의 경우 아내의 오빠, 아내 언니의 남편에 대해 서열과 관계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부르도록 되어 있다. 2018은 비대칭적인 호칭이나 지칭을 대칭적으로 맞추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남자가 아내 언니의 남편에 대한 호칭을 나이에 상관없이 ‘형님’을 기본으로 하되 나이가 어리더라도 ‘동서’보다는 ‘동서님’으로 불러 상대방에 대해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②도 마찬가지여서 아내 여동생의 남편에게도 ‘동서’, ‘○ 서방’으로 부르되 손아랫사람이라고 해도 나이가 많다면 ‘동서님’, ‘○ 서방님’ 등으로 불러 나이와 서열이 뒤바뀐 경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다.

○ <소통을 위한 언어예절>(2018) 정비안

〔2018〕 아내의 오빠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형님	= 처남님
지칭	(당사자, 아내, 부모, 처부모, 동기) 형님 ○○[자녀] 외삼촌 (아내 동기의 호칭에 따라) 형(님), 오빠 (자녀에게) 외삼촌, 외숙부(님)	= 처남님

〔2018〕 아내의 남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처남	= 처남님 ○○ 씨 동생(님)
지칭	(당사자, 아내, 부모, 처부모, 동기) 처남, (당사자) 자네 ○○[자녀] 외삼촌 (아내 동기의 호칭에 따라) 형(님), 오빠, 동생 (자녀에게) 외삼촌, 외숙부(님)	= 처남님 ○○ 씨 동생님

〔2018〕 아내 오빠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아주머니	= 아주머님 형님댁
지칭	(당사자에게) 아주머니, (부모, 아내, 처부모에게) 처남댁 ○○[자녀] 외숙모 (아내 동기가 사용하는 호칭에 따라) 형수, 새언니, 언니, 올케(언니) (자녀에게) 외숙모(님)	= 아주머님 형님댁

〔2018〕 아내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처남댁	= ○○ 씨
지칭	(당사자, 부모, 아내, 처부모에게) 처남댁 ○○[자녀] 외숙모 (아내 동기가 사용하는 호칭에 따라) 형수, 새언니, 언니, 올케(언니) (자녀에게) 외숙모(님)	= ○○ 씨

〔2018〕 아내의 언니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처형	= 처형님
지칭	(당사자, 아내, 부모, 처부모에게) 처형 ○○[자녀] 이모 (아내의 동기가 사용하는 호칭에 따라) 누나(님), 언니 (자녀에게) 이모(님)	= 처형님

〔2018〕 아내의 여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처제	= 처제님 ○○ 씨 동생님
지칭	(당사자, 아내, 부모, 처부모에게) 처제 ○○[자녀] 이모 (아내의 동기가 사용하는 호칭에 따라) 처형, 동생, 누나(님), 언니 (자녀에게) 이모(님)	= 처제님 ○○ 씨 동생님

〔2018〕 아내 언니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형님	= 동서님
지칭	(당사자, 아내, 처부모에게) 형님, (부모, 동기에게) 동서 ○○[자녀] 이모부 (아내의 동기가 사용하는 호칭에 따라) 매형, 자형, 매부, 형부, 형님 (자녀에게) 이모부(님)	= 동서님

〔2018〕 아내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동서, ○ 서방	= 동서님
지칭	(당사자, 아내, 부모, 처부모, 동기에게)동서, ○ 서방 ○○[자녀] 이모부 (아내의 동기가 사용하는 호칭에 따라) 매형, 자형, 매부, 형부, ○ 서방 (자녀에게) 이모부(님)	= 동서님 ○ 서방님 ○○ 씨

일부 호칭어와 지칭어는 여러 관계에 두루 쓰이기도 하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쓰기도 한다. 아래에서 여러 관계에 두루 쓰이는 가족관계의 호칭어나 지칭어를 정리해 본다.

◎ 여러 관계에 두루 쓰이는 호칭어나 지칭어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 기준)

가. 형님

	형	형님
1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남자들 사이에서 손윗사람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주로 남자 형제 사이에 많이 쓴다.	'형01[Ⅰ]「1」'의 높임말.
2	남남끼리의 사이에서 나이가 적은 남자가 나이가 많은 남자를 정답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형01[Ⅰ]「2」'의 높임말.
3		(남성이) 아내의 오빠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4		(여성이) 손위 시누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5		손위 동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며느리들끼리도 '형님-동서', 사위들끼리도 '형님-동서'를 사용함.

※(남성이) 아내의 언니의 남편을 부를 때도 '형님'을 쓸 수 있음,

나. 동서

1	(여성이) 시아주버니의 아내를 이르는 말. -며느리들끼리
2	(여성이) 시동생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 -며느리들끼리
3	(남성이) 처형이나 처제의 남편을 이르는 말. -사위들끼리

다. 아주버니

1	남편과 항렬이 같은 사람 가운데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2	남편 누나의 남편-사전 뜻풀이에 없음

라. 서방님

1	'남편01(男便)「1」'의 높임말.
2	결혼한 시동생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3	손아래 시누이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4	예전에, 평민이 벼슬 없는 젊은 선비를 부르던 말.

마. 서방

성에 붙여 사위나 매제, 아래 동서 등을 이르는 말.

¶ 요즈음 정 서방은 회사 잘 다니니?

4.1.9. 조부모와 손주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를 확장하면 조부모와 손주 사이가 된다. 조부모의 경우 아버지의 부모(조부모), 어머니의 부모(외조부모), 결혼으로 인해 생기는 처조부모나 시조부모, 조부모나 외조부모의 형제와 그 자녀 등 다양한 관계로 확장될 수 있어 호칭이나 지칭이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다. 1992에는 조부모와 손주 사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2011에서는 조부모, 외조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주 등으로 나누어 다뤘다. 이를 기준으로 2018은 호칭이나 지칭을 간소화하되 손주 사위, 손주 며느리 등 1992나 2011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관계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O 정비 방향

가. '친(親)-', '외(外)-', '시(媤)-', '처(妻)-' 등의 표지는 지칭에서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한다. 이 외에 지역이나 관계에 기댄 지칭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친가, 외가, 시가, 처가 조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본으로 하여 동일하게 부른다.

다. 손주는 이름으로 부르고 이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O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예절>(2018) 표 비교

1 조부모와 외조부모

〔2011〕[표 Ⅰ-41]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

		조부모	외조부모
호칭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지칭	당사자와 그 배우자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부모, 형제, 자매, 친척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내와 처가 쪽 사람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남편과 시댁 쪽 사람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친정 할아버지, 친정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정 외할아버지, 친정 외할머니

〔2018〕 조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할아버지, 할머니	=
지칭	할아버지, 할머니 친정 할아버지, 친정 할머니	= 본가 할아버지/친할아버지, 본가 할머니/친할머니 할아버님, 할머님

〔2018〕 외조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할아버지/외할아버지, 할머니/외할머니	=
지칭	할아버지/외할아버지, 할머니/외할머니 친정 외할아버지, 친정 외할머니	= 본가 할아버지/외할아버지, 본가 할머니/외할머니, 외할아버님, 외할머님

▌호칭과 지칭▐

어린 자녀의 육아를 위해 결혼 후에도 부모의 곁에 사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고, '친(親)-'과 '외(外)-'로 구분하던 전통적인 방식 외에도 사는 지역 등 가족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보통 호칭은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로 부르되 지칭에 한해 격식을 갖춰야 할 자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아버님', '할머님' 등으로 높여 이를 수 있다. 다만 전통적으로 외조부모에 대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 호칭을 썼던 것에 대해서는 전통으로 표에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심층 면담의 결과에서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 부른다는 응답이 일부 있었지만 외조부모에 대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등으로 부르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도 있어 향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의 호칭 사용은 차츰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칭 역시 특별히 구분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쓴다. 2011에서 지칭의 구분 기준으로 당사자와 그 배우자, 부모/형제/자매/친척, 아내와 처가 쪽 사람, 남편과 시댁 쪽 사람 등 다양하게 제시하였으나 실제 지칭은 모두 '할아버지'와 '할머니'이다. 2018은 지칭도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본으로 하되 구분의 필요가 있을 경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쓸 수 있다고 보았다. 1992와 2011에서 조부모와 외조부모에 대해 '친정'을 붙여 지칭을 쓰도록 하였는데 '친정'은 여자에게만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어서 2018은 남자와 여자가 두루 쓸 수 있는 '본가'를 쓰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친정 할아버지'는 여자가, '본가 할아버지'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쓸 수 있다. 여기서는 '친정' 계열의 지칭이 제시되어서 이에 대한 짝을 맞추기 위해 '본가' 계열의 지칭을 제시하였다.

한편 구분의 표지로 지역이나 관계에 기댄 지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육아를 중심으로 아내의 부모, 즉 처부모와 가깝게 지내다보니 손주들이 외조부모를 훨씬 더 가깝게 느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지칭하고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를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또는 지역을 구분 표지로 사용하여 '서울 할아버지', '서울 할머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즉 '친-'이 기본이고 '외-'가 유표적이었던 과거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오히려 지역이나 관계에 기댄 지칭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호칭이나 지칭이 결혼한 성인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 전의 성인이나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호칭이나 지칭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2018은 이러한 언중의 사용에 따라 지역이나 관계에 기댄 지칭의 사용을 폭넓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였다. 관계에 기댄 지칭, 예를 들면 '아버지의 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할아버지' 등의 사용은 2011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2 시조부모, 시외조부모, 처조부모, 처외조부모

가. 시조부와 시조모

〔2011〕[표 Ⅰ-42] 시조부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할아버님
지칭	당사자에게	할아버님
	시조모에게	할아버님
	시부모에게	할아버님
	남편, 시댁 쪽 사람에게	할아버님
	부모, 동기, 친정 쪽 사람에게	시할아버님, 시할아버지, 시조부님, 시조부, ○○[자녀] 증조할아버님, ○○[자녀] 증조할아버지, ○○[자녀] 증조부님, ○○[자녀] 증조부

〔2011〕[표 Ⅰ-43] 시조모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할머님, 할머니
지칭	당사자에게	할머님, 할머니
	시조부에게	할머님, 할머니
	시부모에게	할머님
	남편, 시댁 쪽 사람에게	할머님
	부모, 동기, 친정 쪽 사람에게	시할머님, 시할머니, 시조모님, 시조모, ○○[자녀] 증조할머님, ○○[자녀] 증조할머니, ○○[자녀] 증조모님, ○○[자녀] 증조모

〔2018〕 시조부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할아버님	= 할아버지
지칭	(당사자, 시조모, 시부모에게) 할아버님 시할아버지(님), 시조부(님) ○○[자녀] 증조할아버지(님), ○○[자녀] 증조부(님)	= 할아버지

〔2018〕 시조모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할머님, 할머니	=
지칭	(당사자, 시조부, 시부모에게) 할머님, 할머니 시할머니(님), 시조모(님) ○○[자녀] 증조할머니(님), ○○[자녀] 증조모(님)	=

나. 시외조부와 시외조모

〔2011〕[표 Ⅰ-44] 시외조부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할아버님, 외할아버님
지칭	당사자에게	할아버님, 외할아버님
	시외조모에게	할아버님, 외할아버님
	시부모에게	외할아버님
	남편, 시댁 쪽 사람에게	외할아버님
	부모, 동기, 친정 쪽 사람에게	시외할아버님, 시외할아버지, 시외조부님, 시외조부

〔2011〕[표 Ⅰ-45] 시외조모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
지칭	당사자에게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
	시외조부에게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
	시부모에게	외할머님
	남편, 시댁 쪽 사람에게	외할머님
	부모, 동기, 친정 쪽 사람에게	시외할머님, 시외할머니, 시외조모님, 시외조모

[2018] 시외조부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할아버님, 외할아버님	=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지칭	(당사자, 시외조모에게) 할아버님, 외할아버님 (시부모, 남편에게) 외할아버님 시외할아버지(님), 시외조부(님)	=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2018] 시외조모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	=
지칭	(당사자, 시외조부에게)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 (시부모, 남편에게) 외할머님 시외할머니(님), 시외조모(님)	=

다. 처조부와 처조모

[2011][표 Ⅰ-46] 처조부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할아버님
지칭	당사자에게	할아버님
	처조모에게	할아버님
	처부모에게	할아버님
	아내, 처가 쪽 사람에게	할아버님
	부모, 동기, 친척에게	처조부님, 처조부, ○○[자녀] 외증조할아버님, ○○[자녀] 외증조할아버지, ○○[자녀] 외증조부님, ○○[자녀] 외증조부

[2011][표 Ⅰ-47] 처조모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할머님
지칭	당사자에게	할머님
	처조부에게	할머님
	처부모에게	할머님
	아내, 처가 쪽 사람에게	할머님
	부모, 동기, 친척에게	처조모님, 처조모, ○○[자녀] 외증조할머님, ○○[자녀] 외증조할머니, ○○[자녀] 외증조모님, ○○[자녀] 외증조모

[2018] 처조부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할아버님	= 할아버지
지칭	(당사자, 처조모, 처부모, 아내에게) 할아버님 (부모, 동기, 친척에게) 처조부(님), ○○[자녀] 외증조할아버지(님), ○○[자녀] 외증조부(님)	= 할아버지

[2018] 처조모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할머님	= 할머니
지칭	(당사자, 처조부, 처부모, 아내에게) 할머님 (부모, 동기, 친척에게) 처조모(님), ○○[자녀] 외증조할머니(님), ○○[자녀] 외증조모(님)	= 할머니

라. 처외조부와 처외조모

〔2011〕[표 Ⅰ-48] 처외조부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할아버님, 외할아버님
지칭	당사자에게	할아버님, 외할아버님
	처외조모에게	할아버님, 외할아버님
	처부모에게	외할아버님
	아내, 처가 쪽 사람에게	외할아버님
	부모, 동기, 친척에게	처외조부님, 처외조부

〔2011〕[표 Ⅰ-49] 처외조모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
지칭	당사자에게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
	처외조부에게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
	처부모에게	외할머님
	아내, 처가 쪽 사람에게	외할머님
	부모, 동기, 친척에게	처외조모님, 처외조모

〔2018〕 처외조부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할아버님, 외할아버님	=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지칭	(당사자, 처외조모에게) 할아버님, 외할아버님 (처부모, 아내, 처가 쪽 사람에게) 외할아버님 (부모, 동기, 친척에게) 처외조부님, 처외조부	=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2018〕 처외조모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	=
지칭	(당사자, 처외조부에게)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 (처부모, 아내, 처가 쪽 사람에게) 외할머님 (부모, 동기, 친척에게) 처외조모님, 처외조모	=

▌호칭과 지칭▐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로 통칭하였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호칭에 준해 시가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처가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로 호칭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격식을 갖춰야 하는 상황에서는 ‘할아버님’, ‘할머님’ 등으로 높여 부르더라도 평상시에는 친근하게 ‘할아버지’, ‘할머니’로 부를 수 있겠다.

지칭의 경우 어휘적 공백이 발견되는데, 2011에 제시된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에 대한 호칭과 지칭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에 대한 호칭과 지칭

구분	여자가 남편의 시(외)조부모를 부르거나 이름		남자가 아내의 처(외)조부모를 부르거나 이름	
	시조부모	시외조부모	처조부모	처외조부모
호칭	할아버지/할머니	외할아버지/외할머니	할아버지/할머니	외할아버지/외할머니
지칭	할아버님/할머님 시할아버지/시할머니 시조부/시조모	외할아버님/외할머님 시외할아버지/시외할머니 시외조부/시외조모	할아버님/할머님 – (㉠) 처조부/처조모	외할아버님/외할머님 – (㉡) 처외조부/처외조모
	○○[자녀] 증조할아버지 ○○[자녀] 증조할머니	– (㉢) – (㉢)	○○[자녀] 외증조할아버지 ○○[자녀] 외증조할머니	– (㉣) – (㉣)

지칭의 경우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기본으로 '시(媤)–'나 '처(妻)–'를 붙여 배우자의 (외)조부모인 것을 구분하는데 '시할아버지'와 '시외할아버지'가 2011에 제시되어 있는 반면 ㉠ '처할아버지'와 ㉡ '처외할아버지'는 빠져 있다. 이어 '시외조부모'와 '처외조부모'의 지칭인 ㉢'○○[자녀] 진외증조할아버지, ○○[자녀] 진외증조할머니', ㉣'○○[자녀] 외외증조할아버지, ○○[자녀] 외외증조할머니'가 빠져 있다.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조부모(㉢), 어머니의 조부모(㉣)를 이르는 것이므로 '진외'와 '외외'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 기술이 빠져 있는 셈이다.[49]

'증조(曾祖)'의 경우 시가와 처가 모두 조부모에게만 사용되고 외조부모에게는 사용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외조부나 외조모를 '진외증조부', '진외증조모'로 부르는데 이를 적용한다면 '○○[자녀] 진외증조할아버지', '○○[자녀] 진외증조할머니', '○○[자녀] 외외증조할아버지', '○○[자녀] 외외증조할머니'(처의 외할아버지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외할아버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준해 부를 수 있다) 등으로 부를 수 있겠다. '진외가(陳外家)'는 아버지의 외가를, '외외가(外外家)'는 어머니의 외가를 뜻한다.

문제는 '증조'나 '진외', '외외' 등의 구분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나의 조부모나 외조부모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에 대한 호칭과 지칭을 쓰되 구분이 필요할 때만 '아내의 외할아버지', '남편의 외할머니' 등 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는 지칭을 쓰는 편이 쓰기에도, 이해하기에도 편리할 것이다.

3 손주, 외손주

〔2011〕 [표 Ⅰ-50] 손주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이름]
지칭	집안 사람들에게	○○[이름]
	그 밖의 사람에게	○○[이름], 손자, 손녀

49) '진외', '외외'에 대한 기술은 '조부모와 손주 사이'에서 먼저 다루어졌어야 하는데 2011에서는 부모의 형제자매를 다루면서 '진외'와 '외외'의 사용을 설명하였다. 또 해설에는 '진외'와 '외외'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표에는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어떤 관계에 사용하는 지칭인지 한번에 알기 어렵다. 2018에서는 '진외'나 '외외'와 같이 현실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 호칭어나 지칭어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한다.

〔2011〕 [표 Ⅰ-51] 외손주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이름]
지칭	집안 사람들에게	○○[이름]
	그 밖의 사람에게	○○[이름], 외손자, 외손녀

〔2018〕 손주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이름]	=
지칭	○○[이름] 손자, 손녀	=

〔2018〕 외손주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이름]	=
지칭	○○[이름] 외손자, 외손녀	= 손자, 손녀

▌호칭과 지칭▐

손주와 외손주는 모두 이름으로 부른다. 지칭의 경우 가족 외의 사람에게 구분의 필요가 있을 때만 '손주'와 '외손주'를 나누어 이르고 그 외에는 모두 이름으로 이르면 된다.

그런데 2011에서 조부모에 대해서는 남편이나 아내의 조부모와 외조부모까지 다루고 있으면서 손주에 대해서는 손자며느리나 손녀사위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았고, 앞서 2장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3장 처부모와 사위 사이에서도 손자며느리나 손녀사위에 대해서는 다뤄진 바 없다. 결혼을 통해 형성되는 '손자며느리', '손녀사위'의 호칭과 지칭에 대해서도 다뤄져야 할 것이다.

앞서 며느리와 사위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준해 따져보면 호칭으로는 '(새)아가', '○ 서방' 등을 기본으로 손자며느리와 손녀사위의 자녀 이름에 기대 '○○ 어멈', '○○ 아범' 등으로 부를 수 있다. 또 손주와 같이 손자며느리와 손녀사위의 이름을 정답게 직접 부를 수도 있다. 지칭에서는 '손자며느리'나 '손녀사위'로 이르거나, 나의 자녀(즉 손자며느리나 손녀사위의 시부모나 처부모)에게 이를 때는 이름이나 자녀의 이름에 기대 '○○ 어멈', '○○ 아범' 등으로 이를 수 있다.

아울러 조부모를 다루면서 증조부모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손주 역시 증손주까지 다루는 것이 좋겠다. '증손자'와 '증손녀'는 '손자의 아들. 또는 아들의 손자.'와 '손자의 딸. 또는 아들의 손녀.'를 말하고 '외증손'은 '외손자의 아들. 또는 딸의 손자.'에 해당한다. 즉 외가 쪽으로는 '외증손자', '외증손녀'와 같은 구분이 현재 사전 표제어로는 정리되어 있지 않은 셈이다.[50]

50)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외증손'이라는 표제어가 없다. <고려대 사전>과 <우리말샘>에 '외증손'이라는 표제어가 있고 '외증손자'나 '외증손녀' 등의 표제어는 이들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해설 비교

1992에는 '조부모와 손주' 사이에 대한 장이 따로 없고 2011에 새롭게 포함된 장이다. 일상적으로 만나는 가족들 간의 호칭이나 지칭은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촌수가 먼 가족일수록 호칭이나 지칭의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심층 면담 중에도 우리말의 호칭이나 지칭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답변도 있었듯이 촌수가 먼 가족에 대한 호칭이나 지칭도 다뤄져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물론 촌수가 먼 가족에 대한 호칭이나 지칭도 간소화되어야 하는 것은 필요하다.

1 조부모, 외조부모

표준 언어 예절(2011)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

아버지의 아버지를 부르는 말은 '할아버지'이고, 아버지의 어머니를 부르는 말은 '할머니'이다. 또 어머니의 아버지를 부르는 말은 '외할아버지'이고, 어머니의 어머니를 부르는 말은 '외할머니'이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부모를 아버지의 부모와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①어머니의 부모를 호칭할 때에 '외-'를 붙이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다.

조부모를 그 당사자에게 가리키는 말은 호칭과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이고, 외조부모를 그 당사자에게 가리키는 말도 호칭과 같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이다. 조부모나 외조부모를 그 배우자에게 지칭하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나의 부모, 형제, 자매, 친척, 배우자와 배우자 쪽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구별되도록 조부모를 가리켜 '할아버지', '할머니', 외조부모를 가리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라고 한다.

자녀에게 나의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가리키는 말은 내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내가 남자일 때는 자녀에게 내 조부모를 가리켜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증조(曾祖)'를 붙여 '증조할아버지', '증조부', '증조할머니', '증조모'로 가리킬 수 있고,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외조부모는 자녀에게 '아버지 외할아버지', '아버지 외할머니'라고 한다. ②또 '진외(陳外)'를 붙여 '진외증조할아버지', '진외증조부', '진외증조할머니', '진외증조모'로 가리킬 수도 있고,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내가 여자일 때는 자녀에게 내 조부모를 가리켜 '어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외(外)'를 붙여 '외증조할아버지', '외증조부', '외증조할머니', '외증조모'로 가리킬 수 있고,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 있다. 자녀에게 내 외조부모를 가리킬 때는 '어머니 외할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라고 한다. 또 ②한 번 더 '외(外)'를 붙여 '외외증조할아버지', '외외증조부', '외외증조할머니', '외외증조모'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 있다.

<76-77쪽>

①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기본적인 호칭으로 두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허용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2018에서는 호칭은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하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만 '외할아버지/외할머니'로 부르는 것으로 정비한다. 또 ②의 '진외'나 '외외' 역시 표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조부모와 손주 사이'를 다루면서 해설에 포함하여 기술한다.

2 시조부, 시외조부, 처조부, 처외조부

표준 언어 예절(2011)

시조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자신의 조부모뿐만 아니라 남편의 조부모까지 부르고 가리키게 된다. ①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경칭인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할아버지인 시조부(媤祖父)를 '할아버님'이라고 부른다.

시조부를 그 당사자에게 가리키는 말은 호칭과 같은 '할아버님'이다. 시조부를 시조모에게 지칭할 때나 시부모, 남편, 시댁 쪽 사람에게 지칭할 때도 경칭인 '할아버님'을 쓴다.

시조부를 부모나 동기, 친정 쪽 사람에게 가리킬 때는 '시(媤)-'를 붙인 '시할아버지', '시조부'와 자녀에 기댄 '○○[자녀] 증조할아버지', '○○[자녀] 증조부'를 지칭으로 쓰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여 쓸 수도 있다.

<78쪽>

시조모

남편의 할머니인 시조모(媤祖母)는 '할머님', '할머니'라고 부른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보다 친근한 대상인 시어머니를 '어머니', '어머님'으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조모를 '할머님', '할머니'로 부를 수 있다.

시조모를 그 당사자에게 가리키는 말도 호칭과 같은 '할머님', '할머니'이다. 시조모를 시조부에게 지칭하는 말도 '할머님', '할머니'이다. 시부모나 남편, 시댁 쪽 사람에게는 남편의 할머니를 예의를 갖추어 지칭해야 하므로 경칭인 '할머님'을 쓴다.

부모, 동기, 친정 쪽 사람에게 시조모를 지칭할 때는 '시-'를 붙인 '시할머니', '시조모'와 자녀에 기댄 '○○[자녀] 증조할머니', '○○[자녀] 증조모'를 쓰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여 쓸 수도 있다.

<79쪽>

시외조부

②남편의 외할아버지인 시외조부(媤外祖父)를 부르는 말은 '할아버님', '외할아버님'이다. 시외조부를 시조부와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외(外)-'를 붙이지 않고 '할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할아버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시외조부를 그 당사자에게 가리키는 말은 호칭과 같은 '할아버님', '외할아버님'이다. 시외조부를 시외조모에게 지칭할 때도 '할아버님', '외할아버님'을 쓴다. 시부모나 남편, 시댁 쪽 사람에게는 시조부와 구별이 되도록 '외할아버님'이라고 지칭한다.

시외조부를 부모, 동기, 친정 쪽 사람에게는 '시외(媤外)-'를 붙인 '시외할아버지', '시외조부'를 쓰고 자녀에 기댄 '○○[자녀] 진외증조부'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 있다.

<80쪽>

시외조모

남편의 외할머니인 시외조모(媤外祖母)는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라고 부른다. 시외조모를 시조모와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외-'를 붙이지 않고 '할머님', '할머니'라고 부르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할머님', '할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다.

시외조모를 그 당사자에게 가리키는 말도 호칭과 같은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이다. 시외조모를 시외조부에게 지칭하는 말도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이다. 시부모나 남편,

시댁 쪽 사람에게 시외조모를 지칭할 때는 시조모와 구별이 되도록 '외할머님'을 쓴다.

부모, 동기, 친정 쪽 사람에게 시외조모를 지칭할 때는 '시-'를 붙인 '시외할머님', '시외할머니', '시외조모님', '시외조모'를 쓴다. 자녀에 기댄 '○○[자녀] 진외증조할머니', '○○[자녀] 진외증조모'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 있다.

<81쪽>

처조부

남자가 결혼을 하면 자신의 조부모뿐만 아니라 아내의 조부모까지 부르고 가리키게 된다. ③사위가 장인을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안 되듯이 손녀사위가 아내의 할아버지인 처조부(妻祖父)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사위가 장인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손녀사위는 처조부를 '할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조부를 그 당사자에게 가리키는 말은 호칭과 같은 '할아버님'이다. 처조부를 처조모에게 지칭할 때도 '할아버님'을 쓴다. 처조부를 처조모, 아내, 처가 쪽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어 지칭해야 하므로 경칭인 '할아버님'을 쓴다.

처조부를 부모, 동기, 친척에게 가리킬 때에는 '처조부'와 자녀에 기댄 '○○[자녀] 외증조할아버지', '○○[자녀] 외증조부'를 쓰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여 쓸 수도 있다.

<82쪽>

처조모

아내의 할머니인 처조모(妻祖母)는 '할머님'이라고 부른다. 사위가 장모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듯이 처조모는 '할머님'이라고 부른다.

처조모를 그 당사자나 처조부에게 가리키는 말도 호칭과 같은 '할머님'이다. 처조모를 처부모, 아내, 처가 쪽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 지칭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경칭인 '할머님'을 쓴다.

부모, 동기, 친척에게 처조모를 지칭할 때는 '처조모'와 자녀에 기댄 '○○[자녀] 외증조할머니', '○○[자녀] 외증조모'를 쓰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여 쓸 수도 있다.

<83쪽>

처외조부

④아내의 외할아버지인 처외조부(妻外祖父)를 부르는 말은 '할아버님', '외할아버님'이다. 처외조부를 처조부와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외-'를 붙이지 않고 '할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할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처외조부를 그 당사자에게 가리키는 말은 호칭과 같은 '할아버님', '외할아버님'이다. 처외조부를 처외조모에게 지칭할 때도 '할아버님', '외할아버님'을 쓴다. 처부모나 아내, 처가 쪽 사람에게는 '처조부'와 구별이 되도록 '외할아버님'이라고 지칭한다.

처외조부를 부모, 동기, 친척에게 가리킬 때는 '처외조부님', '처외조부'를 쓴다. 자녀에 기댄 '○○[자녀] 외외증조할아버지', '○○[자녀] 외외증조부'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84쪽>

처외조모

아내의 외할머니인 처외조모(妻外祖母)는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라고 부른다. 처외조모를 처조모와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외-'를 붙이지 않고 '할머님', '할머니'라고 부르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할머님', '할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다.

> 처외조모를 그 당사자에게 가리키는 말도 호칭과 같은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이다. 처외조모를 처외조부에게 지칭할 때도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를 쓴다. 처부모나 아내, 처가 쪽 사람에게는 아내의 할머니와 구별이 되도록 ‘외할머님’이라고 지칭한다.
>
> 부모, 동기, 친척에게 처외조모를 지칭할 때는 ‘처외조모님’, ‘처외조모’를 쓴다. 자녀에 기댄 ‘○○[자녀] 외외증조할머니’, ‘○○[자녀] 외외증조모’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
> <85쪽>

①에서는 시할아버지에 대해 ‘할아버님’을 쓰도록 되어 있다. 2018은 앞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아버님’과 ‘아버지’로 모두 부를 수 있다고 본 것처럼 시할아버지에 대해서도 ‘할아버님’과 ‘할아버지’를 모두 쓸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시어머니, 시할머니에 대해 ‘어머님, 어머니’, ‘시할머님, 시할머니’를 모두 쓸 수 있는 것과 대칭적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② 남편의 외할아버지에 대해서도 ‘할아버님’과 함께 ‘할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남편이 ‘할아버지’로 부르고 또 남편의 외할머니를 아내인 내가 ‘할머니’로 부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경우에도 ‘할아버지’를 호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외조부에 대한 호칭은 지칭과 달리 시조부와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외할아버님’으로 부르지 않아도 된다.

며느리뿐 아니라 사위 역시 처조부모, 처외조부모를 ‘할아버지’, ‘할머니’로 부를 수 있다. ③ 손녀사위가 아내의 할아버지인 처조부(妻祖父), ④ 외할아버지인 처외조부(妻外祖父)를 부르는 말은 ‘할아버님’과 ‘할아버님/외할아버님’이다. 이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아버님’이라 하고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것과 대칭을 맞춘 것인데 2018은 남녀 간의 호칭과 지칭이 대칭적으로 사용되도록 정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친밀한 정도에 따라 ‘할아버님’과 ‘할아버지’를 두루 쓸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는 ‘할어버님’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높여 불러야 하기 때문에 ‘아버님’이라고만 불러야 한다는 것은 요즘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손녀사위가 처조부나 처외조부에 대해서도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할아버지’로 부른다고 해도 예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2018은 ③과 ④의 경우에 대해 ‘할아버님’과 ‘할아버지’를 함께 쓸 수 있다고 본다.

3 손주, 외손주

> 표준 언어 예절(2011)
>
> **손주**
>
> ⑤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조부모의 손주에 대한 사랑은 각별하다. 내 아들, 딸의 자녀인 손주는 ‘철수야!’처럼 이름으로 부른다. 그런데 손주가 혼인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 이름뿐만 아니라 ‘○○[손주 자녀] 아범’, ‘○○[손주 자녀] 아비’, ‘○○[손주 자녀] 어멈’, ‘○○[손주 자녀] 어미’로도 부를 수 있다. 손주의 자녀가 곁에 있는 상황에서는 손주를 그 자녀 앞에서 존중하기 위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좋다.

손주를 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이름을 쓴다. 나의 배우자, 부모 등에게도 손주를 이름으로 지칭한다. 손주의 부모인 아들과 며느리, 친척에게도 손주를 이름으로 가리킨다.

손주를 그 밖의 사람에게 가리킬 때는 가까운 사이에서는 손주의 이름으로 지칭하고,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손자', '손녀'로 지칭할 수 있다.

<86쪽>

외손주

내 딸의 자녀인 외손주도 이름으로 부른다. 그런데 외손주가 혼인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 이름뿐만 아니라 '○○[외손주 자녀] 아범', '○○[외손주 자녀] 아비', '○○[외손주 자녀] 어멈', '○○[외손주 자녀] 어미'로도 부를 수 있다. 외손주의 자녀가 곁에 있는 상황에서 외손주를 그 자녀 앞에서 존중하기 위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좋다.

외손주를 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이름을 쓴다. 나의 배우자, 부모 등에게도 외손주를 이름으로 지칭한다. 외손주의 부모인 딸과 사위, 친척에게도 외손주를 이름으로 지칭한다.

외손주를 그 밖의 사람에게 가리킬 때는 가까운 사이에서는 외손주의 이름으로 지칭하고,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외손자', '외손녀'로 지칭할 수 있다.

<87쪽>

한편 2011의 기술 중 '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조부모의 손주에 대한 사랑은 각별하다.'와 같은 기술이 간혹 보인다. 가족간의 호칭, 지칭을 다룬 것이어서 이러한 기술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인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나 기술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 <소통을 위한 언어예절>(2018) 정비안

〔2018〕 조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할아버지, 할머니	=
지칭	할아버지, 할머니 친정 할아버지, 친정 할머니	= 본가 할아버지/친할아버지, 본가 할머니/친할머니 할아버님, 할머님

〔2018〕 외조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할아버지/외할아버지, 할머니/외할머니	=
지칭	할아버지/외할아버지, 할머니/외할머니 친정 외할아버지, 친정 외할머니	= 본가 할아버지/외할아버지, 본가 할머니/외할머니, 외할아버님, 외할머님

[2018] 시조부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할아버님	= 할아버지
지칭	(당사자, 시조모, 시부모에게) 할아버님 시할아버지(님), 시조부(님) ○○[자녀] 증조할아버지(님), ○○[자녀] 증조부(님)	= 할아버지

[2018] 시조모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할머님, 할머니	=
지칭	(당사자, 시조부, 시부모에게) 할머님, 할머니 시할머니(님), 시조모(님) ○○[자녀] 증조할머니(님), ○○[자녀] 증조모(님)	=

[2018] 시외조부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할아버님, 외할아버님	=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지칭	(당사자, 시외조모에게) 할아버님, 외할아버님 (시부모, 남편에게) 외할아버님 시외할아버지(님), 시외조부(님)	=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2018] 시외조모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	=
지칭	(당사자, 시외조부에게)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 (시부모, 남편에게) 외할머님 시외할머니(님), 시외조모(님)	=

[2018] 처조부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할아버님	= 할아버지
지칭	(당사자, 처조모, 처부모, 아내에게) 할아버님 (부모, 동기, 친척에게) 처조부(님), ○○[자녀] 외증조할아버지(님), ○○[자녀] 외증조부(님)	= 할아버지

[2018] 처조모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할머님	= 할머니
지칭	(당사자, 처조부, 처부모, 아내에게) 할머님 (부모, 동기, 친척에게) 처조모(님), ○○[자녀] 외증조할머니(님), ○○[자녀] 외증조모(님)	= 할머니

[2018] 처외조부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할아버님, 외할아버님	=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지칭	(당사자, 처외조모에게) 할아버님, 외할아버님 (처부모, 아내, 처가 쪽 사람에게) 외할아버님 (부모, 동기, 친척에게) 처외조부님, 처외조부	=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2018] 처외조모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	=
지칭	(당사자, 처외조부에게)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 (처부모, 아내, 처가 쪽 사람에게) 외할머님 (부모, 동기, 친척에게) 처외조모님, 처외조모	=

[2018] 손주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이름]	=
지칭	○○[이름] 손자, 손녀	=

[2018] 외손주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이름]	=
지칭	○○[이름] 외손자, 외손녀	= 손자, 손녀

4.1.10. 숙질 사이

앞서 ‘조부모와 손주 사이’까지는 주로 직계(直系)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해 다룬 것이었다면 ‘숙질 사이’는 방계(傍系)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 대한 것이다. ‘숙질(叔姪)’은 아저씨와 조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 이를 대표로 하여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부르고 이르는 말을 정리한 것이다. 숙질 사이부터는 ‘종조(從祖)’, ‘진외(陳外)’, ‘대(大)-’, ‘왕(王)-’, ‘이질(姨姪)’, ‘생질(甥姪)’, ‘이숙질(姨叔姪)’, ‘처질(妻姪)’ 등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최근에는 잘 사용되지 않아 이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 정비 방향

가.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는 자녀나 지역 등의 구분 표지나 관계를 풀어 설명하는 호칭이나 지칭으로 대체한다.

나. 관계를 풀어 말하거나, 지역을 구분 표지로 하거나, 가정에서 특별히 정해 쓰는 구분 표지 등을 자유롭게 써서 부르거나 이를 수 있다.

-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표 비교

1 아버지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가. 아버지의 형과 그 배우자

〔1992〕 아버지의 형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큰아버지
지칭어	말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지역 이름)큰할아버지(님), 종조할아버지(님), 종조부(님), (지역 이름) 할아버지(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큰아버지, 아버지(님), 아빠
	그 밖의 사람들에게	큰아버지, 백부〔아버지의 맏형만〕

〔1992〕 아버지 형의 아내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큰어머니
지칭어	말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지역 이름) 큰할머니(님), 종조할머니(님), 종조모(님), (지역 이름) 할머니(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큰어머니, 어머니(님), 엄마
	그 밖의 사람들에게	큰어머니, 백모〔아버지의 맏형의 아내만〕

〔2011〕[표 Ⅰ-52] 아버지의 형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큰아버지
지칭	당사자에게	큰아버지
	자녀에게	큰할아버지, 큰할아버님, ○○[지역] 큰할아버지, ○○[지역] 큰할아버님, ○○[지역] 할아버지, ○○[지역] 할아버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큰아버지
	그 밖의 사람에게	큰아버지, 백부[아버지 맏형만]

〔2011〕 [표 Ⅰ-53] 아버지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큰어머니
지칭	당사자에게	큰어머니
	자녀에게	큰할머니, 큰할머님, ○○[지역] 큰할머니, ○○[지역] 큰할머님, ○○[지역] 할머니, ○○[지역] 할머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어머니, 엄마, 큰어머니
	그 밖의 사람에게	큰어머니, 백모[아버지 맏형의 아내만]

〔2018〕 아버지의 형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큰아버지	=
지칭	(당사자에게) 큰아버지,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큰아버지 (자녀에게) 큰할아버지(님), ○○[지역] 큰할아버지(님), ○○[지역] 할아버지(님) (그 밖의 사람에게) 큰아버지, 백부[아버지 맏형만]	=

〔2018〕 아버지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큰어머니	=
지칭	(당사자에게) 큰어머니, (당사자의 자녀에게) 어머니, 엄마, 큰어머니 (자녀에게) 큰할머니(님), ○○[지역] 큰할머니(님), ○○[지역] 할머니(님) (그 밖의 사람에게) 큰어머니, 백모[아버지 맏형의 아내만]	=

아버지 형과 형의 아내에 대해 호칭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를 기본으로 한다. 1992에는 지칭 중에 자녀에게 말할 때 ‘종조(從祖)할아버지’, ‘종조(從祖)할머니’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1에서는 이것이 빠져 있다. 현실적으로 잘 쓰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호칭과 지칭▐

2018은 호칭에서 ‘큰아버지’, ‘큰어머니’에 대해 ‘큰아빠’와 ‘큰엄마’를 쓸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아버지’에 대해 ‘아빠’, ‘어머니’에 대해 ‘엄마’를 인정한 것을 부모의 형제자매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어릴 때 ‘큰아빠’나 ‘큰엄마’로 불렀던 호칭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현실적인 사용을 수용하고자 한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을 기준으로 지칭할 수 있는데 나의 자녀에게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고 ‘지역+자녀와의 관계’를 형식으로 한다. 예를 들어 나에게 큰아버지인 경우 나의 자녀에게는 ‘서울 큰할아버지’로 지칭할 수 있다.[51)]

이 외에도 부모의 형제자매에 대해 순서를 기준으로 지칭할 수 있는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해 '첫째', '둘째'를 붙이거나 나의 부모를 기준으로 손위는 '큰', 손아래는 '작은'을 붙여 쓴다. 아래와 같이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8명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A, B, C 등의 방법이 가능한데 이 중 A와 같이 나의 아버지인 다섯째를 기준으로 위는 '큰', 아래는 '작은'을 쓰고 '작은'과 '큰' 중에 서열을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992의 해설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형제들 간의 서열을 활용한 호칭이나 지칭을 설명한 바 있다.

◎ 구분이 필요할 경우 형제들 간의 서열을 활용한 호칭이나 지칭

순서	성별	이름	호칭이나 지칭		
			A	B	C
1	남	이상득	첫째 큰아버지	첫째 큰아버지	첫째 큰아버지
2	남	이상원	둘째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3	여	이선희	첫째 큰고모	첫째 큰고모	셋째 큰고모
4	남	이상태	셋째 큰아버지	셋째 큰아버지	넷째 큰아버지
5	남	이상호 (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6	여	이선영	첫째 작은고모	둘째 작은고모	여섯째 작은고모
7	여	이선자	둘째 작은고모	셋째 작은고모	일곱째 작은고모
8	남	이상수	(첫째/막내) 작은아버지	넷째 작은아버지	여덟째(막내) 작은아버지

한편 전통적으로 맏이에게만 사용되어 온 '백부(伯父)'나 '백모(伯母)'는 지칭으로 사용하되 호칭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중부(仲父, 둘째아버지)', '숙부(叔父, 작은아버지)', '계부(季父, 아버지의 막내 아우)', '제숙(弟叔, 작은아버지)' 등의 어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 '백부'나 '백모'의 사용 역시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나. 아버지의 남동생과 그 배우자

[1992] 아버지의 남동생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미혼-삼촌, 아저씨 기혼-작은아버지
지칭어	말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지역 이름)작은할아버지(님), (작은)종조할아버지(님), (작은)종조부(님), (지역 이름)할아버지(할아버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작은아버지, 아버지(아버님), 아빠
	그 밖의 사람들에게	미혼-삼촌, 아저씨 기혼-작은아버지, 숙부

51) 그런데 '지역'을 기준으로 한 지칭의 사용은 다른 관계들에서는 표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주로 '자녀'를 기준으로 한 경우만 표에 제시되었는데 특이하게 '숙질', 즉 나의 부모의 동기를 나의 자녀에게 이를 때 '지역'을 구분 표지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전반적인 정비 원칙이나 각 장의 정비 원칙에서 밝힌 것처럼 '지역'이라는 구분 표지는 언어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하여 쓸 수 있다. '서울 큰할아버지'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외삼촌'도 쓸 수 있고, '서울 큰동서'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2011을 기준으로 하여 정비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2018 표에도 짝을 맞춰 '○○[지역] 큰할아버(님)'과 같은 지칭을 포함하였으나 다른 장에서도 '○○[지역]'을 구분의 표지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1992〕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작은어머니
지칭어	말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지역 이름)작은할머니(님), (작은)종조할머니(님), (작은)종조모(님), (지역 이름) 할머니(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작은어머니, 어머니(어머님), 엄마
	그 밖의 사람들에게	작은어머니, 숙모

〔2011〕 [표 Ⅰ-54] 아버지의 남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작은아버지, 아저씨, 삼촌
지칭	당사자에게	작은아버지, 아저씨, 삼촌
	자녀에게	작은할아버지, 작은할아버님, ○○[지역] 작은할아버지, ○○[지역] 작은할아버님, ○○[지역] 할아버지, ○○[지역] 할아버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작은아버지
	그 밖의 사람에게	작은아버지, 숙부, 아저씨, 삼촌

〔2011〕 [표 Ⅰ-55]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작은어머니
지칭	당사자에게	작은어머니
	자녀에게	작은할머니, 작은할머님, ○○[지역] 작은할머니, ○○[지역] 작은할머님, ○○[지역] 할머니, ○○[지역] 할머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어머니, 엄마, 작은어머니
	그 밖의 사람에게	작은어머니, 숙모

〔2018〕 아버지의 남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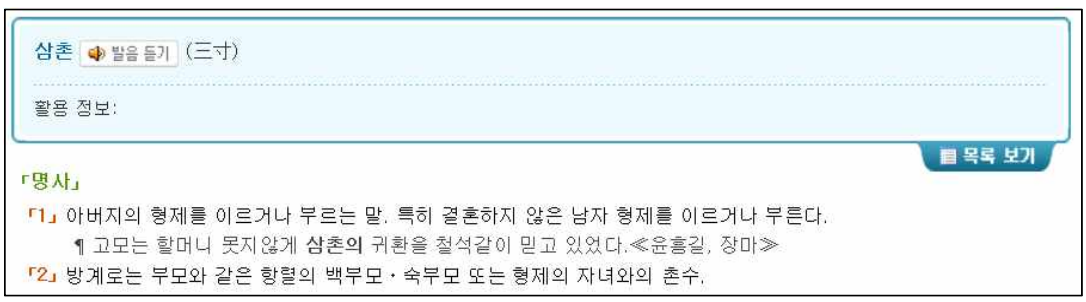
	전통	가능
호칭	작은아버지, 아저씨, 삼촌	= 숙부
지칭	(당사자에게) 작은아버지, 아저씨, 삼촌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작은아버지 (자녀에게) 작은할아버지(님), ○○[지역] 작은할아버지(님), ○○[지역] 할아버지(님) (그 밖의 사람에게) 작은아버지, 숙부, 아저씨, 삼촌	=

〔2018〕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작은어머니	= 숙모
지칭	(당사자에게) 작은어머니 (당사자의 자녀에게) 어머니, 엄마, 작은어머니 (자녀에게) 작은할머니(님), ○○[지역] 작은할머니(님), ○○[지역] 할머니(님) (그 밖의 사람에게) 작은어머니, 숙모	=

1992에서는 아버지의 남동생에 대해 결혼 전에는 '삼촌, 아저씨'로 결혼 후에는 '작은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였는데 2011에서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작은아버지, 삼촌, 아저씨'로 부르도록 하였다. 결혼 전에는 '작은아버지'보다는 '삼촌'이 적절하지만 결혼 후에 '삼촌'으로 부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의 남자 형제의 경우 '외삼촌'으로 부르는데 결혼이나 서열(나의 어머니

보다 손위인지 손아래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외삼촌’으로 부르고 있어 아버지의 형과 남동생의 경우에 서열과 결혼 여부를 고려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특히 예전에는 형제들의 결혼 순서가 서열 순서와 거의 일치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이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지 않았고 ‘큰아버지’로만 부르는 것이 문제가 없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형이 동생보다 결혼을 늦게 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도 ‘큰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형과 남동생도 서열이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삼촌’으로 부른다면 어머니의 오빠와 남동생을 ‘외삼촌’으로 부르는 것과 같아지게 된다. 다만 전통적인 용법을 고려하여 ‘삼촌’과 ‘외삼촌’의 짝을 기본적인 호칭이나 지칭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다.



▌호칭과 지칭▐

앞서 아버지의 형과 아내에 대해 언중이 ‘큰아빠’와 ‘큰엄마’로 부르는 것을 수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남동생과 아내에 대해서도 ‘작은아빠’와 ‘작은엄마’로 부르는 것도 수용한다. 아버지의 남동생의 경우 ‘삼촌’과 ‘작은아버지’, ‘아저씨’ 등으로 부르는데 2011은 ‘삼촌’은 관계를 나타낸 말로 호칭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삼촌’이 이미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어머니의 남자 형제에 대해서도 ‘외삼촌’이라는 호칭을 널리 쓰기 때문에 2018도 ‘삼촌’을 호칭으로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숙부’나 ‘숙모’를 호칭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심층 면담을 통해 언중이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에 대해 ‘숙부’를 쓴다는 응답은 없었지만 ‘숙모’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한편 1992, 2011의 기술 중 조카와 삼촌(아버지의 남동생)의 나이가 뒤바뀐 경우 그 기준을 다섯 살로 잡고 있다. 어려서는 서로 말을 놓고 지내다가 성년이 되었을 때 조카가 아저씨보다 나이가 다섯 살 이상이면 서로 존대하고 다섯 살 미만이면 조카가 아저씨에게 존대를 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다섯 살이 기준이 되는 이유를 알기 어려우나 1992부터 전통적으로 조카와 삼촌 간의 나이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2018에서도 이를 밝혀둔다. 다만 1992, 2011에서 삼촌, 조카 나이가 뒤바뀐 경우 서로 존대를 하라고만 되어 있지 호칭을 어떻게 부르라는 명시적인 답은 없었다. 이처럼 조카와 삼촌 간의 나이가 뒤바뀐 경우 ‘삼촌’, ‘조카님’으로 호칭을 부르고 서로 존대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 아버지의 여자 형제와 그 배우자

〔1992〕 아버지의 누이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고모, 아주머니
지칭어	말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대고모(님), 왕고모(님), 고모할머니(님)[허용], (지역 이름)할머니(님)[허용]
	당사자의 자녀에게	고모, 어머니(님), 엄마
	그 밖의 사람들에게	고모

〔1992〕 아버지 누이의 배우자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고모부, 아저씨
지칭어	말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대고모부(님), 왕고모부(님), 고모할아버지(님)[허용], (지역 이름)할아버지(님)[허용]
	당사자의 자녀에게	고모부, 아버지(님), 아빠
	그 밖의 사람들에게	고모부, 고숙

〔2011〕 [표 Ⅰ-56] 아버지의 누이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고모, 아주머니
지칭	당사자에게	고모, 아주머니
	자녀에게	대고모, 대고모님, 왕고모, 왕고모님, 고모할머니, 고모할머님, ○○[지역] 할머니, ○○[지역] 할머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어머니, 엄마, 고모
	그 밖의 사람에게	고모

〔2011〕[표 Ⅰ-57] 아버지 누이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고모부, 아저씨
지칭	당사자에게	고모부, 아저씨
	자녀에게	대고모부, 대고모부님, 왕고모부, 왕고모부님, 고모할아버지, 고모할아버님, ○○[지역] 할아버지, ○○[지역] 할아버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고모부
	그 밖의 사람에게	고모부, 고숙

〔2018〕 아버지의 여자 형제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고모, 아주머니	=
지칭	(당사자에게) 고모, 아주머니 (당사자의 자녀에게) 어머니, 엄마, 고모 (자녀에게) 대고모(님), 왕고모(님), 고모할머니(님), ○○[지역] 할머니(님) (그 밖의 사람에게) 고모	=

〔2018〕 아버지 여자 형제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고모부, 아저씨	=
지칭	(당사자에게) 고모부, 아저씨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고모부 (자녀에게) 대고모부(님), 왕고모부(님), 고모할아버지(님), ○○[지역] 할아버지(님) (그 밖의 사람에게) 고모부, 고숙	=

1992는 호칭과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 다루고 있는데 2011로 넘어오면서 호칭과 지칭이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아버지의 남자 형제의 경우 형과 남동생으로 나누어 기술되었지만 아버지의 여자 형제는 '누이'로 묶어 제시되었는데 실제 호칭이나 지칭이 '고모', '고모부'로 손위나 손아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모'를 '아주머니'라고 부르거나 이르는 것과 맞춰 아버지의 남자 형제에게 쓰이는 '고모부'를 '아저씨'로 부르거나 이를 때 쓸 수 있다.

▌호칭과 지칭▐

'고모', '고모부'에만 '대고모', '왕고모', '대고모부', '왕고모부' 등이 있는데 '*왕이모'나 '*대이모부'처럼 다른 관계들에서는 이러한 용법이 보이지 않는다. '대고모' 또는 '왕고모'는 '아버지의 고모'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인데 삼촌이나 이모, 숙부나 숙모 등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용법이다. 이와 함께 쓰이는 '아저씨', '아주머니'는 남남끼리 성인 남자 또는 성인 여자를 부를 때 많이 사용되는 반면 친족 관계에서는 점점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심층 면담 결과 '대고모'나 '왕고모', '아저씨', '아주머니'는 실제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 '고모할머니'를 쓰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⑵ 어머니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가. 어머니의 여자 형제와 그 배우자

〔1992〕 어머니의 자매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이모, 아주머니
지칭어	말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이모할머니(님), (지역 이름)할머니(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이모, 어머니(님), 엄마
	그 밖의 사람들에게	이모

〔1992〕 어머니 자매의 배우자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이모부, 아저씨
지칭어	말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이모할아버지(님), (지역 이름)할아버지(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이모부, 아버지(님), 아빠
	그 밖의 사람들에게	이모부, 이숙

〔2011〕[표 Ⅰ-58] 어머니의 자매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이모, 아주머니
지칭	당사자에게	이모, 아주머니
	자녀에게	이모할머니, 이모할머님, ○○[지역] 할머니, ○○[지역] 할머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어머니, 엄마, 이모
	그 밖의 사람에게	이모

〔2011〕 [표 Ⅰ-59] 어머니 자매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이모부, 아저씨
지칭	당사자에게	이모부, 아저씨
	자녀에게	이모할아버지, 이모할아버님, ○○[지역] 할아버지, ○○[지역] 할아버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이모부
	그 밖의 사람에게	이모부, 이숙

〔2018〕 어머니의 여자 형제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이모, 아주머니	=
지칭	(당사자에게) 이모, 아주머니 (당사자의 자녀에게) 어머니, 엄마, 이모 (자녀에게) 이모할머니(님), ○○[지역] 할머니(님) (그 밖의 사람에게) 이모	=

〔2018〕 어머니 여자 형제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이모부, 아저씨	=
지칭	(당사자에게) 이모부, 아저씨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이모부 (자녀에게) 이모할아버지(님), ○○[지역] 할아버지(님) (그 밖의 사람에게) 이모부, 이숙	=

▌호칭과 지칭▐

어머니의 자매는 손위와 손아래 관계없이 모두 ‘이모’로 부르고 이른다. 아버지의 형과 남동생의 경우에만 구분이 있고 아버지의 누나와 여동생, 어머니의 언니와 여동생, 어머니의 오빠와 남동생 등은 ‘고모’, ‘이모’, ‘외삼촌’으로 같이 부르기 때문에 서열의 구분이 없는 셈이다. 어머니 언니나 여동생인 ‘이모’의 남편은 ‘이모부’이고 격식을 갖춰야 하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이모님’, ‘이모부님’ 등으로 높여 부를 수 있다.

나. 어머니의 남자 형제와 그 배우자

〔1992〕 어머니의 남자 형제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외삼촌, 아저씨
지칭어	말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진외할아버지(님), 진외종조부(님), (지역 이름) 할아버지(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외삼촌, 외숙부, 아버지(님), 아빠
	그 밖의 사람들에게	외삼촌, 외숙

〔1992〕 어머니 남자 형제의 배우자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외숙모, 아주머니
지칭어	말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진외할머니(님), 진외종조모(님), (지역 이름) 할머니(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외숙모, 어머니(님), 엄마
	그 밖의 사람들에게	외숙모

〔2011〕 [표 Ⅰ-60] 어머니의 남자 형제에 대한 호칭, 지칭(2011)

호칭		외삼촌, 아저씨
지칭	당사자에게	외삼촌, 아저씨
	자녀에게	아버지 외삼촌, ○○[지역] 할아버지, ○○[지역] 할아버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외삼촌, 외숙부
	그 밖의 사람에게	외삼촌, 외숙

〔2011〕 [표 Ⅰ-61]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외숙모, 아주머니
지칭	당사자에게	외숙모, 아주머니
	자녀에게	아버지 외숙모, ○○[지역] 할머니, ○○[지역] 할머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어머니, 엄마, 외숙모
	그 밖의 사람에게	외숙모

〔2018〕 어머니의 남자 형제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외삼촌, 아저씨	= 삼촌, 숙부(님)
지칭	(당사자에게) 외삼촌, 아저씨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외삼촌, 외숙부 (자녀에게) 아버지 외삼촌, ○○[지역] 할아버지(님) (그 밖의 사람에게) 외삼촌, 외숙	= 삼촌, 숙부(님)

〔2018〕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외숙모, 아주머니	= 숙모(님)
지칭	(당사자에게) 외숙모, 아주머니 (당사자의 자녀에게) 어머니, 엄마, 외숙모 (자녀에게) 아버지 외숙모, ○○[지역] 할머니(님) (그 밖의 사람에게) 외숙모	= 숙모(님)

▌호칭과 지칭▐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외삼촌',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는 '외숙모'로 부르는 것이 가장 일반

적이다. 지역 등을 구분 표지로 하여 부를 수도 있고 '아저씨'나 '아주머니'와 같은 호칭이나 지칭도 쓸 수 있다. '외삼촌', '외숙모'에 대해 '삼촌', '숙모'로 부르기도 하여 '외(外)-'의 사용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층 면담 등에서 '이숙'(姨叔, 어머니 여자 형제의 남편)이나 '진외'(陳外, 아버지의 외가) 등에 대해서는 알고 쓰고 있다는 응답은 없었다.

3 남자 조카와 그 배우자

〔1992〕 조카와 그 배우자

			남자 조카	조카의 아내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미성년: ○○[이름] 성년: 조카, ○○ 아비, ○○ 아범, 조카님[시가 쪽의 나이가 많은 조카]	아가, 새아가, ○○ 어미, ○○ 어멈, 질부[姪婦], 생질부[甥姪婦]
지칭어	당사자 외의 사람들에게	친조카	조카	조카며느리, 질부[姪婦]
		누이의 자녀	생질[甥姪]	생질부[甥姪婦]

〔2011〕 [표 Ⅰ-62] 남자 조카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이름], 조카[친조카를, 남편의 조카를], 조카님[나이 많은 조카를], ○○[조카의 자녀] 아범, ○○[조카의 자녀] 아비
지칭	○○[이름], 조카[친조카를, 남편의 조카를], 조카님[나이 많은 조카를], ○○[조카의 자녀] 아범, ○○[조카의 자녀] 아비, 생질(甥姪)[누이의 아들을, 남편 누이의 아들을], 이질(姨姪)[자매의 아들을, 아내 자매의 아들을], 처조카[아내의 조카를]

〔2011〕 [표 Ⅰ-63] 조카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아가, 새아가, ○○[조카의 자녀] 어멈, ○○[조카의 자녀] 어미, 질부(姪婦)[친조카의 아내를, 남편 조카의 아내를], 생질부(甥姪婦)[누이의 며느리를], 이질부(姨姪婦)[자매의 며느리를]
지칭	아기, 새아기, ○○[조카의 자녀] 어멈, ○○[조카의 자녀] 어미, 조카며느리[친조카의 아내를, 남편 조카의 아내를], 질부(姪婦)[친조카의 아내를, 남편 조카의 아내를], 생질부(甥姪婦)[누이의 며느리를, 남편 누이의 며느리를], 이질부(姨姪婦)[자매의 며느리를], 처조카며느리[아내 조카의 아내를], 처질부(妻姪婦)[아내 조카의 아내를], 처이질부(妻姨姪婦)[아내 자매의 며느리를]

〔2018〕 남자 조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이름], (친조카, 남편의 조카) 조카, (나이 많은 조카) 조카님, ○○[조카의 자녀] 아범, ○○[조카의 자녀] 아비	=
지칭	○○[이름], (친조카, 남편의 조카) 조카, (나이 많은 조카) 조카님, ○○[조카의 자녀] 아범, ○○[조카의 자녀] 아비,	=

※ 1992, 2011에서 제외한 부분

지칭: 생질(甥姪)[누이의 아들을, 남편 누이의 아들을], 이질(姨姪)[자매의 아들을, 아내 자매의 아들을], 처조카[아내의 조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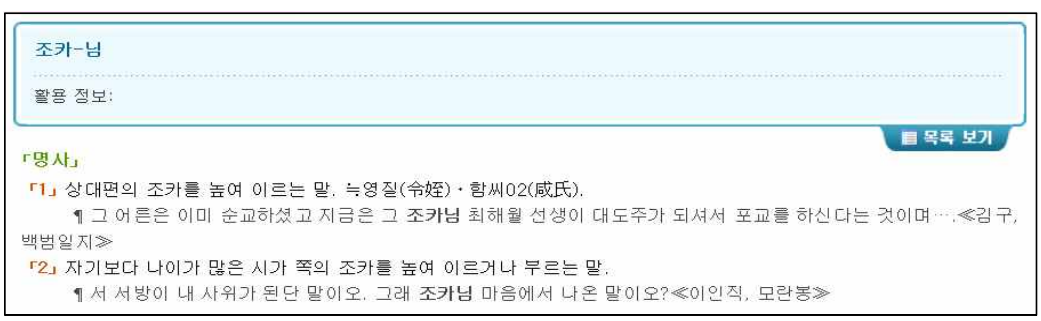
〔2018〕 조카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아가, 새아가, ○○[조카의 자녀] 어멈, ○○[조카의 자녀] 어미	= ○○[이름] 씨, 조카며느님
지칭	아기, 새아기, ○○[조카의 자녀] 어멈, ○○[조카의 자녀] 어미, (친조카의 아내, 남편 조카의 아내) 조카며느리, 질부(姪婦) (친조카의 아내, 남편 조카의 아내), (아내 조카의 아내를) 처조카며느리	= ○○[이름] 씨, 조카며느님

※ 1992, 2011에서 제외한 부분
호칭: 질부(姪婦)[친조카의 아내를, 남편 조카의 아내를], 생질부(甥姪婦)[누이의 며느리를], 이질부(姨姪婦)[자매의 며느리를]
지칭: 생질부(甥姪婦)[누이의 며느리를, 남편 누이의 며느리를], 이질부(姨姪婦)[자매의 며느리를], 처질부(妻姪婦)[아내 조카의 아내를], 처이질부(妻姨姪婦)[아내 자매의 며느리를]

▌호칭과 지칭▐

1992, 2011의 경우 '장조카는 예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는 기술이 있는데 '아버지의 남동생'을 다루는 곳에 기술되어 있고(2011, 92쪽) 남자 조카를 다루는 곳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장조카를 예우하는 것에 관한 언급은 남자 조카를 다루는 이 부분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장조카 또는 맏조카는 '맏형의 맏아들'을 이르는데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조카님' 등으로 부르는 것이 예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사전의 뜻풀이를 찾아보면 '조카님'은 상대편의 조카를 높여 이르거나 나이가 많은 시가 쪽의 조카를 높여 이르는 말로 되어 있어 장조카에 대해서만 특별히 어떤 호칭을 써야 하는지는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는 자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남자 장조카를 따로 중요하게 대하는 문화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조카-님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1」 상대편의 조카를 높여 이르는 말. 늑영질(令姪)·함씨02(咸氏).

¶ 그 어른은 이미 순교하셨고 지금은 그 **조카님** 최해월 선생이 대도주가 되셔서 포교를 하신다는 것이며…,≪김구, 백범일지≫

「2」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시가 쪽의 조카를 높여 이르거나 부르는 말.

¶ 서 서방이 내 사위가 된단 말이오. 그래 **조카님** 마음에서 나온 말이오?≪이인직, 모란봉≫

조카의 아내에 대해 '아가', '새아가'와 '아기', '새아기'로 부르는 것은 며느리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인 여자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호칭·지칭이고 또 결혼으로 새로 가족이 된 사람에 대한 친근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굳이 '전통'에서까지 뺄 필요는 없다. 또 자녀가 생기면 자녀에 기대 '○○ 어멈' 등으로 부르는 경우

도 많다. 2018은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용법을 인정하면서 조카며느리도 조카에 준해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인정하기로 한다. 이름을 직접 부를 수도 있고 '씨'를 붙여 조카며느리를 대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다. 또 조카며느리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카며느님'으로 불러 '조카님'과 함께 쓸 수 있겠다.

한편 조카와 조카의 아내를 한자어를 사용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이 2011에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심층 면담의 결과 '질부'는 비교적 알고 있고 사용한다는 응답도 있었지만 '생질부', '이질부', '처질부', '처이질부' 등에 대해서는 60-70대 일부가 사용하거나 알고 있을 뿐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다. 2018은 이러한 어휘들이 호칭어나 지칭어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아 표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만 구분 없이 조카며느리는 '질부'를 쓰는 것으로 정리한다. 조카에게 쓰는 '생질'이나 '이질' 등도 표에서 제외하였다.

4 여자 조카와 그 배우자

〔1992〕 조카와 그 배우자

			여자 조카	조카의 남편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미성년: ○○[이름] 성년: 조카, ○○ 어멈, ○○ 어미, 조카님[시가 쪽의 나이가 많은 조카]	○ 서방, ○○ 아비, ○○ 아범
지칭어	당사자 외의 사람들에게	친조카	조카딸, 질녀[姪女]	조카사위, 질서[姪壻]
		누이의 자녀	생질녀[甥姪女]	생질서[甥姪壻]

〔2011〕 [표 Ⅰ-64] 여자 조카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이름], 조카[친조카를, 남편의 조카를], 조카님[나이 많은 조카를], ○○[조카의 자녀] 어멈, ○○[조카의 자녀] 어미
지칭	○○[이름], 조카[친조카를, 남편의 조카를], 조카님[나이 많은 조카를], ○○[조카의 자녀] 어멈, ○○[조카의 자녀] 어미, 조카딸[친조카를, 남편의 여자 조카를], 질녀(姪女)[친조카를, 남편의 여자 조카를], 생질녀(甥姪女)[누이의 딸을, 남편 누이의 딸을], 이질(姨姪)[자매의 딸을], 이질녀(姨姪女)[자매의 딸을], 처조카[아내의 조카를], 처조카딸[아내의 여자 조카를], 처이질(妻姨姪)[아내 자매의 딸을], 처이질녀(妻姨姪女)[아내 자매의 딸을]

〔2011〕 [표 Ⅰ-65] 조카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 서방, ○○[조카의 자녀] 아범, ○○[조카의 자녀] 아비
지칭	○ 서방, ○○[조카의 자녀] 아범, ○○[조카의 자녀] 아비, 조카사위[친조카의 남편을, 남편 조카의 남편을], 질서(姪壻)[친조카의 남편을, 남편 조카의 남편을], 생질서(甥姪壻)[누이의 사위를, 남편 누이의 사위를], 이질서(姨姪壻)[자매의 사위를], 처조카사위[아내 조카의 남편을], 처질서(妻姪壻)[아내 조카의 남편을], 처이질서(妻姨姪壻)[아내 자매의 사위를]

〔2018〕 여자 조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이름], (친조카, 남편의 조카) 조카, (나이 많은 조카) 조카님, ○○[조카의 자녀] 어멈, ○○[조카의 자녀] 어미	=
지칭	○○[이름], (친조카, 남편의 조카) 조카, (나이 많은 조카) 조카님, ○○[조카의 자녀] 어멈, ○○[조카의 자녀] 어미, (친조카, 남편의 여자 조카) 조카딸(친조카를, 남편의 여자 조카를) 질녀(姪女), (아내의 조카) 처조카, (아내의 여자 조카를) 처조카딸	=

※ 2011에서 삭제한 부분
지칭: 생질녀(甥姪女)[누이의 딸을, 남편 누이의 딸을], 이질(姨姪)[자매의 딸을], 이질녀(姨姪女)[자매의 딸을], 처이질(妻姨姪)[아내 자매의 딸을], 처이질녀(妻姨姪女)[아내 자매의 딸을]

〔2018〕 여자 조카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 서방, ○○[조카의 자녀] 아범, ○○[조카의 자녀] 아비	= ○○[이름] 씨 조카사위님
지칭	○ 서방, ○○[조카의 자녀] 아범, ○○[조카의 자녀] 아비, (친조카의 남편, 남편 조카의 남편)조카사위, (아내 조카의 남편을)처조카사위	= ○○[이름] 씨 조카사위님

※ 2011에서 삭제한 부분
지창: 질서(姪壻)[친조카의 남편을, 남편 조카의 남편을], 생질서(甥姪壻)[누이의 사위를, 남편 누이의 사위를], 이질서(姨姪壻)[자매의 사위를], 처질서(妻姪壻)[아내 조카의 남편을], 처이질서(妻姨姪壻)[아내 자매의 사위를]

▌호칭과 지칭▐

남자 조카에 대한 처리와 마찬가지로 여자 조카에 대해 '질녀'를 '생질녀', '이질', '이질녀', '처이질', '처이질녀' 등을 통칭하는 말로 남기고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어는 표에서 제외하였다. 같은 이유로 여자 조카의 남편을 이르는 '질서', '생질서', '이질서', '처질서', '처이질서' 등도 표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생질'과 '이질'의 구분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층 면담의 응답 중에는 '생질'(남자의 여자 형제의 자녀)은 따로 쓰거나 구분하지 않지만 '이질'(여자의 여자 형제의 자녀)은 알고 있으며 여전히 쓰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생질'이 무표적인 반면 '이질'이 유표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자 조카와 그 남편은 일반적으로 이름으로 부르되 대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조카님', '조카사위님' 등으로 부를 수도 있다. 조카며느리와 마찬가지로 조카사위에 대해서도 이름으로 부르거나 이를 수 있는데 조카사위에 대해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를 경우에는 '○○ 씨'와 같이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결혼을 하여 자녀가 생기면 여자 조카는 '○○ 어멈', '○○ 어미' 등으로 부를 수 있고 조카의 남편은 사위에 해당하므로 '○ 서방'으로 부를 수 있다.

지칭도 호칭에 준해 쓰는데 만일 나의 사위와 구분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다면 '조카사위'와 '처조카사위'로 쓸 수 있다. '조카딸'이라고 하여 조카 중 여자만을 특별히 구분하여 부르기도 하고 아내의 조카에 대해서는 나의 조카와 구분하기 위해 '처조카', '처조카딸', '처조카사위' 등으

로 지칭할 수 있다. 다만 '조카딸'의 경우 '조카아들'을 따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또 '조카의 딸'로도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남자 조카'나 '여자 조카'와 같이 구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해설 비교

1 아버지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가. 아버지의 형과 그 배우자

표준 화법 해설(1992)

숙질간의 호칭어·지칭어를 결정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 원칙을 정하였다.
첫째, 지칭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 대한 지칭어는 호칭어와 같다.
둘째, 처가 쪽 숙질간의 호칭어는 아내가 부르는 대로 하고 지칭어는 그 앞에 '처-'를 붙인다. 외가 쪽 숙질간의 지칭어도 '외-'를 적절히 사용한다.

아버지의 형

아버지의 형을 부르는 말은 '큰아버지'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형제 가운데 맏형만을 '큰아버지'라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버지의 형은 모두 '큰아버지'이다. ①구어(口語)로는 자기의 혈족에게 '-님'을 붙이지 않으므로 친조카는 '큰아버님'이라고 하지 않으나 편지에서는 '큰아버님 보옵소서'처럼 '님'을 넣어 '큰아버님'을 쓸 수 있다. 조카며느리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아버님', '어머님' 하듯이 '큰아버님'이라고 부른다. ②그리고 '백부'는 지칭어로는 가능하지만 호칭어로는 적당치 않다.
아버지의 형을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어와 같이 '큰아버지', 말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지칭할 경우는 자녀의 입장에서 '큰할아버지'라고 하거나 '장충동 큰할아버지(님)'처럼 '장충동'과 같은 지역 이름을 넣어 지칭한다. 또 이와 함께 ③'종조할아버지(님)', '종조부(님)'도 쓰도록 하였다. 한편, 말하는 사람이 여자일 경우에는 친정 큰아버지가 자녀에게는 외할아버지의 형이 되므로 자녀에게 가리킬 때 '큰외할아버지'라고 하거나 '장충동 큰외할아버지(님)'와 같이 지역 이름을 넣어 가리킬 수 있다. 또 '외종조할아버지(님)', '외종조부(님)'를 써도 된다.
큰아버지의 자녀에게 가리킬 때는 큰아버지의 자녀가 말하는 사람보다 어린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버지(아빠) 계시냐?'처럼 '아버지(아빠)'로 지칭하고,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큰아버지 계십니까?'처럼 '큰아버지'로 지칭한다. 타인에게 지칭할 경우에는 '큰아버지', '백부(伯父)'[아버지의 맏형만]로 정하였다.

<56-57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아버지의 형

아버지의 형을 부르는 말은 '큰아버지'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형제 가운데 맏형만을 '큰아버지'라고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버지의 형은 모두 '큰아버지'이다. ①구어(口語)로는 자기의 혈족에게 '-님'을 붙이지 않으므로 친조카는 '큰아버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나 편지에서는 '큰아버님, 보시옵소서.'처럼 '-님'을 넣어 '큰아버님'을 쓸 수 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듯이 조카며느리는 남편의 큰아버지를 '큰아버님'이라고 부른다. ②'백부'는 지칭으로는 쓸 수 있지만 호칭으로는 적당치 않다.

아버지의 형을 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같이 '큰아버지'라고 한다. 내가 남자일 경우에 자녀에게는 자녀의 입장에서 '큰할아버지'라고 하거나 '장충동 큰할아버지', '장충동 할아버지'처럼 '○○동'과 같은 지역 이름을 넣어 지칭할 수 있으며 ③'종조(從祖)'를 붙인 '큰종조할아버지', '종조할아버지', '큰종조부', '종조부'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또 '아버지 큰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다.

한편, 내가 여자일 경우에 친정 큰아버지가 자녀에게는 외할아버지의 형이 되므로, 자녀에게 가리킬 때 '큰외할아버지'라고 하거나 '장충동 큰외할아버지', '장충동 외할아버지'와 같이 지역 이름을 넣어 가리킬 수 있으며 '외종조(外從祖)'를 붙인 '큰외종조할아버지', '외종조할아버지', '큰외종조부', '외종조부'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또 '어머니 큰아버지'를 써도 된다.

아버지의 형을 그 자녀에게 가리킬 때는 그 당사자의 자녀가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인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버지 계시냐?'처럼 '아버지'로 지칭하고,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나의 입장에서 '큰아버지 계십니까?'처럼 '큰아버지'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큰아버지', '백부(伯父)[아버지의 맏형만]'로 지칭한다.

<89-90쪽>

1992와 2011의 해설 역시 다른 절의 해설과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하다. 우선 ①에서 구어에서는 혈족에 대한 호칭에 '-님'을 붙여 부르지 않지만 편지에서는 '큰아버님'과 같이 '-님'을 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예전과 다르게 편지를 쓰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해설의 유용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전화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사용이 더 일반적이고 '큰아버지'와도 친밀하게 지내다보니 '큰아빠'로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 ①과 같은 기술은 삭제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백부'는 사전 풀이에 따르면 '큰아버지'와 같은 말로 되어 있고 '큰아버지'는 호칭과 지칭의 용법이 모두 있으므로 1992나 2011에 따른다면 사전의 풀이를 수정해야 한다. 우선 2018은 1992나 2011의 입장을 따라 '백부'를 지칭으로만 두었다. 그러나 이후 어려운 한자어 계열의 호칭어나 지칭어들이 사라지는 추세에 따라 '백부' 역시 점차 사용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③ '종조(從祖)'는 심층 면담에서도 60대 이상 응답자들 중에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거의 없었다. 2018에서는 '종조'를 포함하는 지칭이 더 이상 언중에게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현실적인 사용을 존중하여 표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표준 언어 예절(2011)

아버지 형의 아내

아버지 형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큰어머니'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듯이 조카며느리는 남편의 큰어머니를 '큰어머님'이라고 부른다. ①'백모'는 지칭으로는 쓸 수 있지만 호칭으로는 적당치 않다.

아버지 형의 아내를 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같이 '큰어머니'라고 한다. 내가 남자일 경우에 자녀에게는 자녀의 입장에서 '큰할머니'라고 하거나 '장충동 큰할머니', '장충동 할머니'처럼 '○○동'과 같은 지역 이름을 넣어 지칭할 수 있으며 ②'종조(從祖)'를 붙인 '큰종조할머니', '종조할머니', '큰종조모', '종조모'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또 '아버지 큰어머니'를 쓸 수 있다.

한편, 내가 여자일 경우에 친정 큰어머니가 자녀에게는 외할아버지 형의 아내가 되므로, 자녀에게 가리킬 때 '큰외할머니'라고 하거나 '장충동 큰외할머니', '장충동 외할머니'와 같이 지역 이름을 넣어 가리킬 수 있다. 또 '외종조(外從祖)'를 붙인 '큰외종조할머니', '외종조할머니', '큰외종조모', '외종조모'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또 '어머니 큰어머니'를 써도 된다.

아버지 형의 아내를 그 자녀에게 가리킬 때는 그 당사자의 자녀가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인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머니', '엄마'로 지칭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나의 입장에서 '큰어머니'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큰어머니', '백모(伯母)'[아버지 맏형의 아내만]로 지칭한다.

<90-91쪽>

1992의 해설에는 '아버지 형의 아내', 즉 '큰어머니'에 대한 해설은 따로 없고 그 해설은 2011에 '큰아버지'에 준해 제시되어 있다. 2018은 ①의 '백모(伯母)'는 전통으로는 남겨 두되 ②의 '종조모(從祖母)' 계열의 지칭은 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비하였다.

나. 아버지의 남동생과 그 배우자

표준 화법 해설(1992)

아버지의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①아버지의 남동생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삼촌', '아저씨'이고 결혼한 뒤에는 '작은아버지'가 표준이다. '삼촌'은 관계를 나타낸 말이어서 호칭어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이미 오래 전부터 '삼촌'은 '삼촌숙(三寸叔)'의 준말로서 아버지의 형제를 부르고 가리키는 말로 쓰였고, 사전에까지 등재되어 있으므로 인정하였다.

②나이가 뒤바뀐 숙질간에도 호칭어와 지칭어는 마찬가지이다. 경어법상의 등급은 어렸을 때에는 서로 말을 놓고 지내지만, ②성년이 되어서는 조카가 아저씨보다 나이가 다섯 살 이상이면 서로 존대하고, 다섯 살 미만이면 항렬을 따라서 조카가 아저씨에게 존대를 해야 한다. 한편 장조카인 경우는 예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아버지 형제가 여럿일 경우 이를 구분해 말하는 법이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부 지방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에서,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여 아버지보다 위이면 '큰아버지', 아버지보다 아래이면 '작은아버지'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표준 화법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아버지의 형제가 다섯 분인데 아버지가 그 가운데 셋째라면, ③'(첫째) 큰아버지 - (둘째) 큰아버지 - 아버지 - (첫째) 작은아버지 - (막내, 둘째) 작은아버지'라고 한다.

<57-60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아버지의 남동생

아버지의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①아버지의 남동생이 미혼이냐 기혼이냐에 관계없이 '작은아버지', '아저씨', '삼촌'이다. 오늘날 '아저씨'는 혈족이 아닌 남자 어른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 지칭으로 쓰임이 확장되었지만 '아저씨'는 아버지의 남동생을 일컬을 때에 여전히 쓸 수 있는 말이다. '삼촌'은 관계를 나타낸 말이어서 호칭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삼촌'은 '삼촌숙(三寸叔)'의 준말로서 아버지의 형제를 부르고 가리키는 말로 쓰였고, 사전에까지 등재되어 있으므로 쓸 수 있는 호칭이다.

②나이가 뒤바뀐 숙질간에도 호칭과 지칭은 마찬가지이다. 경어법상의 등급은 어렸을 때에는 서로 말을 놓고 지내지만, 성년이 되어서는 ②조카가 아저씨보다 나이가 다섯 살 이상이면 서로 존대하고, 다섯 살 미만이면 항렬을 따라서 조카가 아저씨에게 존대를 해야 한다. 한편 장조카인 경우는 예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아버지 형제가 여럿일 경우 이를 구분해 말하는 법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부 지방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에서,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여 아버지보다 위이면 '큰아버지', 아버지보다 아래이면 '작은아버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를 표준 언어 예절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아버지의 형제가 다섯인데 아버지가 그 가운데 셋째라면, ③ ㉠'큰아버지' 또는 '첫째 큰아버지', ㉡'큰아버지' 또는 '둘째 큰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 또는 '첫째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또는 '둘째 작은아버지' 또는 '막내 작은아버지'라고 한다.

아버지의 남동생을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같이 '작은아버지', '아저씨', '삼촌'이라고 한다. 내가 남자일 경우에 자녀에게는 자녀의 입장에서 '작은할아버지'라고 하거나 지역 이름을 넣어 '장충동 작은할아버지', '장충동 할아버지'처럼 지칭하고 ④'종조(從祖)'를 붙인 '작은종조할아버지', '종조할아버지', '작은종조부', '종조부'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또 '아버지 작은아버지'를 쓸 수도 있다.

한편, 내가 여자일 경우에 친정 작은아버지가 자녀에게는 외할아버지의 남동생이므로, 작은아버지에 '외-'를 붙여 '작은외할아버지'라고 지칭하거나 지역 이름을 넣어 '장충동 작은외할아버지', '장충동 외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④'외종조(外從祖)'를 붙인 '작은외종조할아버지', '외종조할아버지', '작은외종조부', '외종조부'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또 '어머니 작은아버지'를 쓸 수도 있다.

아버지의 남동생을 그 자녀에게 가리킬 때는 그 당사자의 자녀가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인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버지', '아빠'로 지칭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나의 입장에서 '작은아버지'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작은아버지', '숙부(叔父)', '아저씨', '삼촌'으로 지칭한다.

<92-93쪽>

1992에서 아버지의 남동생을 부르는 말에 미혼(삼촌, 아저씨)과 기혼(작은아버지)의 차이가 있었는데 2011에서는 미혼, 기혼 여부에 관계없이 '삼촌, 아저씨, 작은아버지'를 모두 쓰도록 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남동생이 미혼이거나 또는 기혼이더라도 아이가 없을 때 '작은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형, 아버지의 남동생을 두루 '삼촌'으로 부르고 '큰아버지', '큰아빠', '작은아버지', '작은아빠'를 서열이나 친밀함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면 될 것이다.

이어 ②는 나이가 뒤바뀐 숙질간의 호칭과 지칭에 대한 문제인데 기준이 되는 나이를 다섯 살로 명시하고 있다. 나이가 뒤바뀐 숙질간에는 서로 존대하고 나이가 나보다 어리더라도 '삼촌'으로 부르는 것이 전통을 따르는 방법이다. 다만 기준이 되는 나이가 왜 다섯 살인지에 대해서는 이후 좀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는 것이 좋겠다.

③은 아버지의 형제가 여럿일 때 그 순서를 구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앞서 언급한 대로 손위는 '큰', 손아래는 '작은'을 붙이되 '첫째', '둘째'의 순서는 '큰아버지'들 안에서, '작은아버지'들 안에서의 순서에 따라 쓰면 된다.

④는 앞서 아버지의 형과 그 아내에서 다룬 것으로 아버지의 남동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종조'의 쓰임은 표에서 제외하여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표준 언어 예절(2011)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작은어머니'이다.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를 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같이 '작은어머니'라고 한다. 내가 남자일 경우에 자녀에게는 자녀의 입장에서 '작은할머니'라고 하거나 지역 이름을 넣어 '장충동 작은할머니', '장충동 할머니'처럼 지칭할 수 있으며 ①'종조(從祖)'를 붙인 '작은종조할머니', '종조할머니', '작은종조모', '종조모'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또 '아버지 작은어머니'를 쓸 수 있다.

한편, 내가 여자일 경우에 친정 작은어머니가 자녀에게는 외할아버지 남동생의 아내가 되므로, 남자가 작은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에 '외-'를 덧붙여 '작은외할머니'라고 하거나 지역 이름을 넣어 '장충동 작은외할머니', '장충동 외할머니'라고 할 수 있으며 ①'외종조(外從祖)'를 붙인 '작은외종조할머니', '외종조할머니', '작은외종조모', '외종조모'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또 '어머니 작은어머니'를 쓸 수도 있다.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를 그 자녀에게 가리킬 때는 그 당사자의 자녀가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인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머니', '엄마'로 지칭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나의 입장에서 '작은어머니', '숙모(叔母)'로 지칭한다.

<93-94쪽>

앞서 1992에서 아버지 형의 아내, 즉 '큰어머니'에 대한 해설이 없다고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 즉 '작은어머니'에 대한 해설도 따로 제시된 바 없다. 2011의 경우 '작은아버지'의 해설에 준해 '작은어머니'의 해설이 정리되어 있다. ① '종조'에 관한 처리는 앞서 표에서 제외하였던 것을 따른다.

다. 아버지의 여자 형제와 그 배우자

표준 화법 해설(1992)

아버지의 누이와 그 배우자

아버지의 여자 동기에 대한 호칭어는 '고모', '아주머니'를 표준으로 하였다.

②고모를 자신의 자녀에게 지칭할 때는 자녀의 편에 서서 '대고모', '왕고모'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 '고모할머니'라는 말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더 널리 쓰이고 있다. 이 말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말은 이 밖에도 '이모할머니'가 있고 또 그 배우자를 가리키는 말로 '고모할아버지', '이모할아버지'와 같은 말이 있다. ③오랜 논의 끝에 현실을 존중하여 어린이들이 쓰는 말로 이들을 쓸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고모(부), 이모(부)를 자신의 자녀에게 지칭할 때 '고모할머니(고모할아버지)', '이모할머니(이모할아버지)'를 쓸 수 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고모할머니', '이모할아버지'의 '고모', '이모' 대신 '미금 할머니', '일산 할아버지'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미금', '일산'과 같은 지역 이름을 넣어 쓸 수도 있다.

말하는 사람이 여자일 경우에는 자신의 고모를 자녀에게 가리키는 특별한 지칭어가 없는 실정이다. 만일 자녀에게 자신의 고모를 지칭해야 할 경우에는 지역 이름을 넣어 '미금 할머니', '일산 할머니' 등과 같이 쓰면 된다.

④아버지의 외가는 진외가(陳外家)이다. 자신의 외삼촌을 자녀에게 가리킬 때 '진외종조부(님)'라고 한다. 또 아버지의 외삼촌은 자녀들에게는 할아버지뻘이 되므로 '진외할아버지'라는 말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아버지의 외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외삼촌 모두 '진외할아버지'라고 가리킬 수 있다.

<60-61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아버지의 누이

아버지의 누이를 부르는 말은 '고모', '아주머니'이다. 오늘날 '아주머니' 역시 혈족이 아닌 여자 어른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 지칭으로 쓰임이 확장되었지만 ①'아주머니'는 아버지의 누이를 일컬을 때에 여전히 쓸 수 있는 말이다.

아버지의 누이를 그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은 호칭과 같은 '고모', '아주머니'이다. ②내가 남자일 경우에 아버지의 누이를 자신의 자녀에게 지칭할 때는 자녀의 위치에 서서 '대고모', '대고모님', '왕고모', '왕고모님'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 '고모할머니'라는 말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더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말은 이 밖에도 어머니의 자매를 가리키는 '이모할머니', 어머니 자매의 남편을 가리키는 '이모할아버지', 아버지 누이의 남편을 가리키는 '고모할아버지'가 있다. ③이런 말을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현실을 존중하여 어린이들이 쓰는 말로 인정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누이를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지칭할 때도 '고모할머니'라고 할 수 있고, 그 경칭인 '고모할머님'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고모할머니'의 '고모' 대신 '미금 할머니' 또는 '일산 할머니'처럼 할머니 앞에 '미금', '일산'과 같은 지역 이름을 넣어 '○○[지역] 할머니', '○○[지역] 할머님'을 쓸 수도 있다. 또 '아버지 고모'라고도 지칭할 수 있다.

아버지의 자매가 여럿이라면 '첫째 고모', '둘째 고모', '막내 고모'처럼 서열을 나타내는 말을 함께 써서 명확히 지칭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가 여자일 경우에는 내 아버지의 누이를 자녀에게 가리키는 특별한 지칭이 없는 실정이다. 만일 자녀에게 지칭해야 할 경우에는 지역 이름을 넣어 '미금 할머니', '일산 할머니' 등과 같이 쓰거나 '어머니 고

모’를 쓰면 된다.
아버지의 누이를 그 자녀에게 가리킬 때 그 당사자의 자녀가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인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머니’, ‘엄마’로 지칭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나의 입장에서 ‘고모’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고모’로 지칭한다.

<95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아버지 누이의 남편

아버지 누이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고모부’, ‘아저씨’이다.
아버지 누이의 남편을 그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은 호칭과 같은 ‘고모부’, ‘아저씨’이다. ②내가 남자일 경우에 아버지 누이의 남편을 자녀에게 지칭할 때는 자녀의 위치에 서서 ‘대고모부’, ‘대고모부님’, ‘왕고모부’, ‘왕고모부님’이라고 한다. ③어린이들이 쓰는 말인 ‘고모할아버지’와 그 경칭인 ‘고모할아버님’도 쓸 수 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지역 이름을 넣어 ‘○○[지역] 할아버님’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 또 ‘아버지 고모부’라고도 지칭할 수 있다.
내가 여자일 경우에는 아버지 누이의 남편을 자녀에게 가리키는 특별한 지칭이 없는 실정이다. 만일 자녀에게 지칭해야 할 경우에는 지역 이름을 넣어 ‘미금 할아버지’, ‘일산 할아버지’ 등과 같이 쓰거나 ‘어머니 고모부’를 쓰면 된다.
아버지 누이의 남편을 그 자녀에게 가리킬 때 그 당사자의 자녀가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인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버지’, ‘아빠’로 지칭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나의 입장에서 ‘고모부’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고모부’, ‘고숙’으로 지칭한다.

<96-97쪽>

아버지의 형제의 경우 형과 남동생에 대한 호칭과 지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나누어 기술하였는데 여자 형제의 경우에는 손위와 손아래 모두 ‘고모’로 부르고 이르기 때문에 ‘누이’로 묶어 기술하였다. 2018 역시 호칭과 지칭을 똑같이 쓰기 때문에 굳이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함께 묶어 기술하였다.

①은 아버지의 여자 동기에 대한 호칭을 ‘고모’와 함께 ‘아주머니’로 쓰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1992에서는 ‘고모’와 ‘아주머니’를 표준으로 정했다고 기술하였고 2011은 ‘아주머니’가 혈족이 아닌 성인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으로 쓰이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미 아버지의 누이를 ‘고모’로 부르는 것으로 거의 정리가 된 것을 2011에서도 언급한 셈이다. 2018에서도 ‘아주머니’를 빼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우선은 전통에 남겨 두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고모’, ‘이모’에 대해 ‘아주머니’, ‘고모부’, ‘이모부’에 대해 ‘아저씨’ 등으로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였다. ②의 ‘대고모’, ‘왕고모’ 역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아주머니’와 같이 전통에는 남겨 두지만 이후 점차 사용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③은 ‘고모할머니’, ‘고모할아버지’, ‘이모할아버지’, ‘이모할머니’ 등이 어린아이의 말인데 1992에서는 이를 인정하였다고 하였고 2011에서도 이 해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 ‘대고모’, ‘왕고모’ 등을 ‘고모할머니’와 같은 말로 처리하였고 뜻풀이 등의 기술을

‘고모할머니’에서 제시하고 있다. 즉 사전에서도 ‘고모할머니’를 기본으로 본 셈이다. 2018은 1992에서 어린아이의 말을 인정하였던 것을 시작으로 이미 ‘고모할머니’가 기본형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④ ‘진외가(陳外家)’는 ‘아버지의 외가’를 뜻하는데 심층 면담에서 쓴다는 응답은 없었고 알고 있다는 응답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쓰임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 어머니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가. 어머니의 여자 형제와 그 배우자

표준 언어 예절(2011)

어머니의 자매

①어머니의 자매를 부르는 말은 ‘이모’, ‘아주머니’이다.

어머니의 자매를 그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은 호칭과 같은 ‘이모’, ‘아주머니’이다. ②내가 남자일 경우에 어머니의 자매를 자녀에게 지칭할 때는 ‘이모할머니’와 그 경칭인 ‘이모할머님’을 쓸 수 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지역 이름을 넣어 ‘○○[지역] 할머니’, ‘○○[지역] 할머님’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 또 ‘아버지 이모’라고도 지칭할 수 있다. 어머니의 자매가 여럿이라면 ‘첫째 이모’, ‘둘째 이모’, ‘막내 이모’처럼 서열을 나타내는 말을 함께 써서 명확히 지칭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가 여자일 경우에는 어머니의 자매를 자녀에게 가리키는 특별한 지칭이 없는 실정이다. 만일 자녀에게 지칭해야 할 경우에는 지역 이름을 넣어 ‘미금 할머니’, ‘일산 할머니’ 등과 같이 쓰거나 ‘어머니 이모’를 쓰면 된다.

어머니의 자매를 그 자녀에게 가리킬 때 그 당사자의 자녀가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인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머니’, ‘엄마’로 지칭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나의 입장에서 ‘이모’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이모’로 지칭한다.

<97-98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어머니 자매의 남편

①어머니 자매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이모부’, ‘아저씨’이다.

어머니 자매의 남편을 그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은 호칭과 같은 ‘이모부’, ‘아저씨’이다. ②내가 남자일 경우에 어머니 자매의 남편을 자녀에게 지칭할 때는 ‘이모할아버지’와 그 경칭인 ‘이모할아버님’을 쓴다. 한편 이들과 함께 지역 이름을 넣어 ‘○○[지역] 할아버지’, ‘○○[지역] 할아버님’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 또 ‘아버지 이모부’라고도 지칭할 수 있다.

내가 여자일 경우에는 어머니 자매의 남편을 자녀에게 가리키는 특별한 지칭이 없는 실정이다. 만일 자녀에게 지칭해야 할 경우에는 지역 이름을 넣어 ‘미금 할아버지’, ‘일산 할아버지’ 등과 같이 쓰거나 ‘어머니 이모부’를 쓰면 된다.

어머니 자매의 남편을 그 자녀에게 가리킬 때 그 당사자의 자녀가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인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버지’, ‘아빠’로 지칭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나의 입장에서 ‘이모부’로 지칭한다. ③그 밖의 사람에게는 어머니 자매의 남편을 ‘이모부’, ‘이숙’으로 지칭한다.

<98-99쪽>

1992의 경우 아버지의 형제자매와 어머니의 형제자매에 관한 기술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해설하였던 것을 2011에서 이를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①의 '아주머니', '아저씨' 문제, ②의 '이모할머니', '이모할아버지' 문제 등은 앞서 '고모', '고모부'에 준해 전통에 남겨 두는 것으로 처리한다. ③ '이숙(姨叔)' 역시 '고숙(姑叔)'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지칭으로 남겨 두는 것으로 처리한다.

나. 어머니의 남자 형제와 그 배우자

표준 언어 예절(2011)

어머니의 남자 형제

①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부르는 말은 '외삼촌', '아저씨'이다.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같이 '외삼촌', '아저씨'라고 한다.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자녀에게 가리킬 때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외삼촌' 또는 '어머니 외삼촌'과 같은 관계말을 쓰거나 '해운대 할아버지', '부천 할아버님'처럼 지역 이름을 넣은 지칭을 쓴다. 내가 남자일 경우, 자녀에게 어머니의 남자형제를 가리키는 말로 ②'진외(陳外)할아버지', '진외(陳外)할아버님', '진외(陳外)종조부', '진외(陳外)종조부님'이라고 할 수도 있다.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그 자녀에게 가리킬 때 외사촌이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인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버지', '아빠'로 지칭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나의 입장에서 '외삼촌', '외숙부'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외삼촌', '외숙'으로 지칭한다.

<100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

①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외숙모', '아주머니'이다.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를 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같이 '외숙모', '아주머니'라고 한다. 내가 남자일 경우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를 자녀에게 가리킬 때 관계를 쉽게 이해하도록 '아버지 외숙모'와 같은 관계말을 쓰거나 '미금 할머니', '일산 할머님'처럼 지역 이름을 넣은 지칭을 쓴다. 또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는 내 자녀 입장에서 할머니뻘이 되므로 ②'진외(陳外)'를 붙여 '진외할머니', '진외할머님', '진외종조모', '진외종조모님'이라고 할 수도 있다.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를 그 자녀에게 가리킬 때 외사촌이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인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머니', '엄마'로 지칭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나의 입장에서 '외숙모'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외숙모'로 지칭한다.

<101쪽>

어머니의 남자 형제와 그 배우자, 즉 '외삼촌'과 '외숙모'에 대한 처리도 부모의 다른 형제자매에 준해 정리한다. 우선 ①에서 '외삼촌'과 함께 쓰는 '아저씨', '외숙모'와 함께 쓰는 '아주머니'

등은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전통에는 남겨 두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어 ② ‘진외(陳外)’ 역시 심층 면담 등에서 알거나 사용한다는 응답이 거의 없었지만 ‘종조’ 등의 처리에 준해 표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였다.

3 남자 조카와 그 배우자

표준 화법 해설(1992)

조카나 조카딸을 부르는 말은, 그들이 어릴 때에는 이름을 부르고 장성하면 ‘조카’ 또는 아이에 기대어 ‘○○ 아비(아범)’, ‘○○ 어미(어멈)’로 쓴다. 그러나 시댁의 조카일 경우, 그 조카의 나이가 더 많으면 전통적으로 ‘조카’라고 부르지 못했다. 시가 쪽의 나이 많은 조카는 ‘님’을 넣어 ‘조카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조카의 아내는 말하는 사람이 시어머니와 같은 항렬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르듯이 결혼 초에는 ‘아가’, ‘새아가’ 하고 아이가 있으면 ‘아가’, ‘새아가’와 함께 ‘○○ 어미’, ‘○○ 어멈’으로 부른다. 조카사위도 장인이나 장모가 부르듯 ‘○ 서방’, ‘○○ 아범’, ‘○○ 아비’로 부른다. 조카를 타인에게 가리킬 때는 자신과 대상자의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그 관계를 따져 지칭한다. 따라서 친조카는 ‘조카’ 또는 ‘조카딸’, 조카며느리는 ‘조카며느리’, ‘질부’라 하고 조카사위는 ‘조카사위’ 또는 ‘질서(姪壻)’라고 한다. 누이의 자녀를 부를 때는 친조카와 같으나 타인에게 지칭할 때는 친조카와 구분하기 위해 ‘생질(甥姪)’, ‘생질녀(甥姪女)’, 생질부(甥姪婦), ‘생질서(甥姪壻)’와 같은 한자어 계열의 말로 지칭하여 그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의 조카는 아내가 부르는 대로 호칭하고 다만 타인에게 지칭할 경우에는 그 말에 ‘처’를 덧붙여 ‘처조카’, ‘처조카사위’ 등으로 지칭한다.

<61쪽>

표준 언어 예절(2011)

남자 조카

동기의 자녀 가운데 남자는 그들이 어릴 때에는 이름을 부르고, 장성하면 ‘조카’ 또는 조카의 자녀에 기대어 ‘○○[조카의 자녀] 아범’, ‘○○[조카의 자녀] 아비’라고 부른다. 나이 많은 조카는 ‘-님’을 붙여 ‘조카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동기의 자녀 가운데 남자를 지칭할 경우 호칭과 동일하게 ‘○○[이름]’, ‘조카’, ‘조카님’, ‘○○[조카의 자녀] 아범’, ‘○○[조카의 자녀] 아비’로 가리킨다.

여자 동기의 아들을 구별하여 가리켜야 할 때는 남자 동기의 아들과 구분하기 위해 한자어 계열의 말로 지칭하여 그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남자는 누이의 아들을 ‘생질(甥姪)’로, 여자는 자매의 아들을 ‘이질(姨姪)’로 지칭한다.

남편의 남자 조카는 남편의 입장에서 부르고 가리키는 대로, 아내의 남자 조카는 아내의 입장에서 부르고 가리키는 대로 한다. 다만 아내의 남자 조카를 구별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내가 가리키는 말에 ‘처’를 붙여 ‘처조카’ 등으로 지칭한다.

<102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조카의 아내

동기 아들의 아내에게는 내가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같은 항렬이므로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르듯이 결혼 초에는 '아가', '새아가' 하고, 아이가 있으면 '아가', '새아가'와 함께 '○○[조카의 자녀] 어멈', '○○[조카의 자녀] 어미'로 부른다. 한자어 계열의 말인 '질부(姪婦)'[친조카의 아내를], '생질부(甥姪婦)'[누이의 며느리를], '이질부(姨姪婦)'[자매의 며느리를]로 부를 수도 있다.

동기 아들의 아내는 '아기', '새아기', '○○[조카의 자녀] 어멈', '○○[조카의 자녀] 어미', '조카며느리', '질부'로 지칭한다.

여자 동기 아들의 아내를 구별하여 가리킬 때는 한자어 계열의 말로 지칭할 수도 있다. 남자는 누이 아들의 아내를 '생질부', 여자는 자매 아들의 아내를 '이질부'로 지칭한다. 남편 조카의 아내는 남편이 부르고 가리키는 대로, 아내 조카의 아내는 아내가 부르고 가리키는 대로 호칭, 지칭한다. 다만 아내 조카의 아내를 구별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내가 가리키는 말에 '처'를 덧붙여 '처조카며느리', '처질부(妻姪婦)', '처이질부(妻姨姪婦)'[아내 자매의 며느리를] 등으로 지칭한다.

<103쪽>

4 여자 조카와 그 배우자

표준 화법 해설(1992)

조카나 조카딸을 부르는 말은, 그들이 어릴 때에는 이름을 부르고 장성하면 '조카' 또는 아이에 기대어 '○○ 아비(아범)', '○○ 어미(어멈)'로 쓴다. 그러나 시댁의 조카일 경우, 그 조카의 나이가 더 많으면 전통적으로 '조카'라고 부르지 못했다. 시가 쪽의 나이 많은 조카는 '님'을 넣어 '조카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조카의 아내는 말하는 사람이 시어머니와 같은 항렬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르듯이 결혼 초에는 '아가', '새아가' 하고 아이가 있으면 '아가', '새아가'와 함께 '○○ 어미', '○○ 어멈'으로 부른다. 조카사위도 장인이나 장모가 부르듯 '○ 서방', '○○ 아범', '○○ 아비'로 부른다. 조카를 타인에게 가리킬 때는 자신과 대상자의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그 관계를 따져 지칭한다. 따라서 친조카는 '조카' 또는 '조카딸', 조카며느리는 '조카며느리', '질부'라 하고 조카사위는 '조카사위' 또는 '질서(姪壻)'라고 한다. 누이의 자녀를 부를 때는 친조카와 같으나 타인에게 지칭할 때는 친조카와 구분하기 위해 '생질(甥姪)', '생질녀(甥姪女)', '생질부(甥姪婦)', '생질서(甥姪壻)'와 같은 한자어 계열의 말로 지칭하여 그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의 조카는 아내가 부르는 대로 호칭하고 다만 타인에게 지칭할 경우에는 그 말에 '처'를 덧붙여 '처조카', '처조카사위' 등으로 지칭한다.

<61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여자 조카

동기의 자녀 가운데 여자는 그들이 어릴 때에는 이름을 부르고, 장성하면 '조카', '조카님' 또는 조카의 자녀에 기대어 '○○[조카의 자녀] 어멈', '○○[조카의 자녀] 어미'라고 부른다.

동기의 자녀 가운데 여자를 지칭할 경우 호칭과 동일하게 '○○[이름]', '조카', '조카님', '○○[조카의 자녀] 어멈', '○○[조카의 자녀] 어미' 또는 '조카딸', '질녀(姪女)'로 가리킨다.

여자 동기의 딸을 구별하여 가리킬 때는 한자어 계열의 말로 지칭할 수도 있다. 남자는 누이의 딸을 '생질녀(甥姪女)'로, 여자는 자매의 딸을 '이질(姨姪)', '이질녀(姨姪女)'로 지칭한다. 남편의 여자 조카는

남편이 부르고 가리키는 대로, 아내의 여자 조카는 아내가 부르고 가리키는 대로 호칭, 지칭한다. 다만 아내의 여자 조카를 구별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내가 가리키는 말에 '처'를 덧붙여 '처조카', '처조카딸', '처이질(妻姨姪)'[아내 자매의 딸을], '처이질녀(妻姨姪女)'[아내 자매의 딸을] 등으로 지칭한다.
<104-105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조카의 남편

동기 딸의 남편도 장인이나 장모가 사위를 부르듯 '○ 서방', '○○[조카의 자녀] 아범', '○○[조카의 자녀] 아비'라고 부른다.

동기 딸의 남편을 지칭할 경우 호칭인 '○ 서방', '○○[조카의 자녀] 아범', '○○[조카의 자녀] 아비' 또는 '조카사위', '질서(姪壻)'로 지칭한다. 여자 동기 딸의 남편을 구별하여 가리킬 때는 한자어 계열의 말로 지칭할 수도 있다.

남자는 누이 딸의 남편을 '생질서(甥姪壻)'로, 여자는 자매 딸의 남편을 '이질서(姨姪婿)'로 지칭한다. 남편 조카의 남편은 남편이 부르고 가리키는 대로, 아내 조카의 남편은 아내가 부르고 가리키는 대로 호칭, 지칭한다. 다만 아내 조카의 남편을 친조카의 남편과 구별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내가 가리키는 말에 '처'를 덧붙여 '처조카사위'[아내 조카의 남편을], '처질서(妻姪壻)'[아내 조카의 남편을], '처이질서(妻姨姪婿)'[아내 자매의 사위를] 등으로 지칭한다.
<106쪽>

○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정비안

〔2018〕 아버지의 형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큰아버지	=
지칭	(당사자에게) 큰아버지,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큰아버지 (자녀에게) 큰할아버지(님), ○○[지역] 큰할아버지(님), ○○[지역] 할아버지(님) (그 밖의 사람에게) 큰아버지, 백부[아버지 맏형만]	=

〔2018〕 아버지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큰어머니	=
지칭	(당사자에게) 큰어머니, (당사자의 자녀에게) 어머니, 엄마, 큰어머니 (자녀에게) 큰할머니(님), ○○[지역] 큰할머니(님), ○○[지역] 할머니(님) (그 밖의 사람에게) 큰어머니, 백모[아버지 맏형의 아내만]	=

[2018] 아버지의 남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작은아버지, 아저씨, 삼촌	= 숙부
지칭	(당사자에게) 작은아버지, 아저씨, 삼촌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작은아버지 (자녀에게) 작은할아버지(님), ○○[지역] 작은할아버지(님), ○○[지역] 할아버지(님) (그 밖의 사람에게) 작은아버지, 숙부, 아저씨, 삼촌	=

[2018]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작은어머니	= 숙모
지칭	(당사자에게) 작은어머니 (당사자의 자녀에게) 어머니, 엄마, 작은어머니 (자녀에게) 작은할머니(님), ○○[지역] 작은할머니(님), ○○[지역] 할머니(님) (그 밖의 사람에게) 작은어머니, 숙모	=

[2018] 아버지의 여자 형제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고모, 아주머니	=
지칭	(당사자에게) 고모, 아주머니 (당사자의 자녀에게) 어머니, 엄마, 고모 (자녀에게) 대고모(님), 왕고모(님), 고모할머니(님), ○○[지역] 할머니(님) (그 밖의 사람에게) 고모	=

[2018] 아버지 여자 형제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고모부, 아저씨	=
지칭	(당사자에게) 고모부, 아저씨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고모부 (자녀에게) 대고모부(님), 왕고모부(님), 고모할아버지(님), ○○[지역] 할아버지(님) (그 밖의 사람에게) 고모부, 고숙	=

[2018] 어머니의 여자 형제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이모, 아주머니	=
지칭	(당사자에게) 이모, 아주머니 (당사자의 자녀에게) 어머니, 엄마, 이모 (자녀에게) 이모할머니(님), ○○[지역] 할머니(님) (그 밖의 사람에게) 이모	=

〔2018〕 어머니 여자 형제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이모부, 아저씨	=
지칭	(당사자에게) 이모부, 아저씨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이모부 (자녀에게) 이모할아버지(님), ○○[지역] 할아버지(님) (그 밖의 사람에게) 이모부, 이숙	=

〔2018〕 어머니의 남자 형제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외삼촌, 아저씨	= 삼촌 숙부(님)
지칭	(당사자에게) 외삼촌, 아저씨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외삼촌, 외숙부 (자녀에게) 아버지 외삼촌, ○○[지역] 할아버지(님) (그 밖의 사람에게) 외삼촌, 외숙	= 삼촌 숙부(님)

〔2018〕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외숙모, 아주머니	= 숙모(님)
지칭	(당사자에게) 외숙모, 아주머니 (당사자의 자녀에게) 어머니, 엄마, 외숙모 (자녀에게) 아버지 외숙모, ○○[지역] 할머니(님) (그 밖의 사람에게) 외숙모	= 숙모(님)

〔2018〕 남자 조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이름], (친조카, 남편의 조카) 조카, (나이 많은 조카) 조카님, ○○[조카의 자녀] 아범, ○○[조카의 자녀] 아비	=
지칭	○○[이름], (친조카, 남편의 조카) 조카, (나이 많은 조카) 조카님, ○○[조카의 자녀] 아범, ○○[조카의 자녀] 아비,	=

※ 1992, 2011에서 제외한 부분

지칭: 생질(甥姪)[누이의 아들을, 남편 누이의 아들을], 이질(姨姪)[자매의 아들을, 아내 자매의 아들을], 처조카[아내의 조카를]

〔2018〕 조카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아가, 새아가, ○○[조카의 자녀] 어멈, ○○[조카의 자녀] 어미	= ○○[이름] 씨 조카며느님
지칭	아기, 새아기, ○○[조카의 자녀] 어멈, ○○[조카의 자녀] 어미, (친조카의 아내, 남편 조카의 아내) 조카며느리, 질부(姪婦) (친조카의 아내, 남편 조카의 아내), (아내 조카의 아내를) 처조카며느리	= ○○[이름] 씨 조카며느님

※ 1992, 2011에서 제외한 부분

호칭: 질부(姪婦)[친조카의 아내를, 남편 조카의 아내를], 생질부(甥姪婦)[누이의 며느리를], 이질부(姨姪婦)[자매의 며느리를]

지칭: 생질부(甥姪婦)[누이의 며느리를, 남편 누이의 며느리를], 이질부(姨姪婦)[자매의 며느리를], 처질부(妻姪婦)[아내 조카의 아내를], 처이질부(妻姨姪婦)[아내 자매의 며느리를]

〔2018〕 여자 조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이름], (친조카, 남편의 조카) 조카, (나이 많은 조카) 조카님, ○○[조카의 자녀] 어멈, ○○[조카의 자녀] 어미	=
지칭	○○[이름], (친조카, 남편의 조카) 조카, (나이 많은 조카) 조카님, ○○[조카의 자녀] 어멈, ○○[조카의 자녀] 어미, (친조카, 남편의 여자 조카) 조카딸(친조카를, 남편의 여자 조카를) 질녀(姪女), (아내의 조카) 처조카, (아내의 여자 조카를) 처조카딸	=

※ 2011에서 삭제한 부분

지칭: 생질녀(甥姪女)[누이의 딸을, 남편 누이의 딸을], 이질(姨姪)[자매의 딸을], 이질녀(姨姪女)[자매의 딸을], 처이질(妻姨姪)[아내 자매의 딸을], 처이질녀(妻姨姪女)[아내 자매의 딸을]

〔2018〕 여자 조카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 서방, ○○[조카의 자녀] 아범, ○○[조카의 자녀] 아비	= ○○[이름] 씨 조카사위님
지칭	○ 서방, ○○[조카의 자녀] 아범, ○○[조카의 자녀] 아비, (친조카의 남편, 남편 조카의 남편)조카사위, (아내 조카의 남편을)처조카사위	= ○○[이름] 씨 조카사위님

※ 2011에서 삭제한 부분

지칭: 질서(姪壻)[친조카의 남편을, 남편 조카의 남편을], 생질서(甥姪壻)[누이의 사위를, 남편 누이의 사위를], 이질서(姨姪壻)[자매의 사위를], 처질서(妻姪壻)[아내 조카의 남편을], 처이질서(妻姨姪壻)[아내 자매의 사위를]

4.1.11. 사촌에 대하여

1992에는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이 2011에 새롭게 들어간 것이다.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와 나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나의 형제자매에 준해 호칭과 지칭을 사용한다. '고종(姑從)'과 '이종(姨從)' 등의 구분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데 젊은 세대들이 잘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또 고모와 이모가 모두 있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면서 점차 사용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촌 형제들 간 동갑일 경우 형, 동생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도 2011에 이미 밝힌 것처럼 동갑인 사촌 형제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는 것을 따랐다. 물론 가정의 문화에 따라 형, 동생을 나누고 호칭 및 지칭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고 이는 각 가정마다 정하여 쓰면 된다.

o 정비 방향

가. 사촌에 대한 호칭과 지칭은 친형제자매의 호칭과 지칭에 준해 사용한다.

나. 현실적인 사용 양상을 최대한 수용한다.

o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표 비교

〔2011〕 [표 Ⅰ-66] 아버지의 동기의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table>
<tr><td>호칭</td><td colspan="2">형, ○○[이름] 형, 형님, ○○[이름] 형님, 오빠, ○○[이름] 오빠, 누나, ○○[이름] 누나, 누님, ○○[이름] 누님, 언니, ○○[이름] 언니, ○○[이름] [동갑, 손아래 사촌일 경우]</td></tr>
<tr><td rowspan="5">지칭</td><td>당사자와 그 배우자에게</td><td>형, ○○[이름] 형, 형님, ○○[이름] 형님, 오빠, ○○[이름] 오빠, 누나, ○○[이름] 누나, 누님, ○○[이름] 누님, 언니, ○○[이름] 언니, ○○[이름] [동갑, 손아래 사촌일 경우]</td></tr>
<tr><td>부모, 친척에게</td><td>○○[이름] 형, ○○[이름] 형님, ○○[이름] 오빠, ○○[이름] 누나, ○○[이름] 누님, ○○[이름] 언니, ○○[이름] [동갑, 손아래 사촌일 경우]</td></tr>
<tr><td>당사자의 자녀에게</td><td>아버지, 아빠, 어머니, 엄마</td></tr>
<tr><td rowspan="2">그 밖의 사람에게</td><td>아버지 남자 동기의 자녀를</td><td>사촌 형, 사촌 형님, 사촌 오빠, 사촌 누나, 사촌 누님, 사촌 언니, 사촌, 사촌 동생</td></tr>
<tr><td>아버지 여자 동기의 자녀를</td><td>고종형, 고종형님, 고종사촌 형, 고종사촌 형님, 고종사촌 오빠, 고종사촌 누나, 고종사촌 누님, 고종사촌 언니, 고종사촌, 고종사촌 동생</td></tr>
</table>

〔2018〕 아버지의 동기의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가능
호칭	형(님), 오빠, 누나(님), 언니 ○○[이름] 형(님), ○○[이름] 오빠, ○○[이름] 누나(님), ○○[이름] 언니 (동갑, 손아래 사촌일 경우) ○○[이름]
지칭	형(님), 오빠, 누나(님), 언니 ○○[이름] 형(님), ○○[이름] 오빠, ○○[이름] 누나(님), ○○[이름] 언니 (동갑, 손아래 사촌일 경우) ○○[이름]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어머니, 엄마 (아버지 남자 동기의 자녀들) 사촌 형(님), 사촌 오빠, 사촌 누나(님), 사촌 언니, 사촌, 사촌 동생 (아버지 여자 동기의 자녀들) 고종형, 고종형님, 고종사촌 형, 고종사촌 형님, 고종사촌 오빠, 고종사촌 누나, 고종사촌 누님, 고종사촌 언니, 고종사촌, 고종사촌 동생

〔2011〕[표 Ⅰ-67] 어머니의 동기의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형, ○○[이름] 형, 형님, ○○[이름] 형님, 오빠, ○○[이름] 오빠, 누나, ○○[이름] 누나, 누님, ○○[이름] 누님, 언니, ○○[이름] 언니, ○○[이름] [동갑, 손아래 사촌일 경우]		
지칭	당사자와 그 배우자에게		형, ○○[이름] 형, 형님, ○○[이름] 형님, 오빠, ○○[이름] 오빠, 누나, ○○[이름] 누나, 누님, ○○[이름] 누님, 언니, ○○[이름] 언니, ○○[이름] [동갑, 손아래 사촌일 경우]
	부모, 친척에게		○○[이름] 형, ○○[이름] 형님, ○○[이름] 오빠, ○○[이름] 누나, ○○[이름] 누님, ○○[이름] 언니, ○○[이름] [동갑, 손아래 사촌일 경우]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어머니, 엄마
	그 밖의 사람에게	어머니 남자 동기의 자녀를	외사촌 형, 외사촌 형님, 외사촌 오빠, 외사촌 누나, 외사촌 누님, 외사촌 언니, 외사촌, 외사촌 동생
		어머니 여자 동기의 자녀를	이종형, 이종형님, 이종사촌 형, 이종사촌 형님, 이종사촌 오빠, 이종사촌 누나, 이종사촌 누님, 이종사촌 언니, 이종사촌, 이종사촌 동생

〔2018〕 어머니의 동기의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가능
호칭	형(님), 오빠, 누나(님), 언니 ○○[이름] 형(님), ○○[이름] 오빠, ○○[이름] 누나(님), ○○[이름] 언니 (동갑, 손아래 사촌일 경우) ○○[이름]
지칭	형(님), 오빠, 누나(님), 언니 ○○[이름] 형(님), ○○[이름] 오빠, ○○[이름] 누나(님), ○○[이름] 언니 (동갑, 손아래 사촌일 경우) ○○[이름]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어머니, 엄마 (어머니 남자 동기의 자녀들) 외사촌 형, 외사촌 형님, 외사촌 오빠, 외사촌 누나, 외사촌 누님, 외사촌 언니, 외사촌, 외사촌 동생 (어머니 여자 동기의 자녀들) 이종형, 이종형님, 이종사촌 형, 이종사촌 형님, 이종사촌 오빠, 이종사촌 누나, 이종사촌 누님, 이종사촌 언니, 이종사촌, 이종사촌 동생

◎ 부모 동기의 자녀들 간 호칭과 지칭

나이	호칭	지칭			
		아버지		어머니	
		남자 동기	여자 동기	남자 동기	여자 동기
		사촌(四寸)	고종(姑從)	외사촌(外四寸)	이종(姨從)
연상	(○○) 형/오빠/누나/언니	형/오빠/누나/언니			
		(○○) 형/오빠/누나/언니			
		사촌(/고종사촌/외사촌/이종사촌) 형(오빠/누나/언니)			
동갑, 연하	○○[이름]				

▌호칭과 지칭▐

아버지 동기의 자녀나 어머니 동기의 자녀는 나의 형제자매에 빗대어 '형, 오빠, 누나, 언니'를 기본으로 호칭과 지칭을 사용한다. 여기에 구분의 필요가 있을 때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아버지의 남자 동기의 경우에는 '사촌(四寸)'을, 아버지의 여자 동기의 경우에는 '고종(姑從)'을, 어머니의 남자 동기에 대해서는 '외사촌(外四寸)'을, 어머니의 여자 동기에 대해서는 '이종(姨從)'을 붙여 사용한다. 2011과 2018에 표가 다소 복잡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위에 제시된 '부모 동기의 자녀들 간 호칭과 지칭' 표의 방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한편 사촌 간 나이 차이가 클 경우, 사촌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 노년이 된 경우에는 '형님', '누님', '오라버니' 등의 호칭이나 지칭을 쓸 수 있다.

사촌 간이 같은 해에 태어났을 때 호칭이나 지칭의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가풍에 따라 한 달이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을 '형'으로 부르도록 하는 가정이 있다. 심층 면담의 응답 중에도 60대 이상에서는 동갑인 사촌 간에도 형과 동생을 구분해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가족 안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가족 외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예. 학교를 같이 다니는 경우) 동갑인 사촌형제들 간이 형 동생으로 부르게 되면 어색할 수도 있다. 『표준 언어 예절』(2011:109)에서도 '사촌이 동갑이거나 연하인 경우 당사자와 그 배우자, 나의 부모, 친척에게 이름으로 지칭한다'고 기술되어 있어 사촌들 간 나이가 동갑이라면 이름으로 부르면 될 것이다.

O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해설 비교

표준 언어 예절(2011) **아버지 동기의 자녀** 아버지 동기의 자녀가 나보다 손위일 때 그 당사자를 부르는 말은 '형', '○○[이름] 형', '형님', '○○[이름] 형님', '오빠', '○○[이름] 오빠', '누나', '○○[이름] 누나', '누님', '○○[이름] 누님', '언니', '○○[이름] 언니'이다. ①사촌이 나와 동갑이거나 연하일 때에는 그 당사자를 이름으로 부른다. 나이가 든 경우에는 '동생', '아우(남자가 남동생을 가리킬 때)', '누이(남자가 여동생을 가리킬 때)'라고 부를 수도 있다. 아버지 동기의 자녀를 그 당사자와 그 배우자에게 가리킬 때에는 호칭과 마찬가지로 '형', '○○[이름] 형', '형님', '○○[이름] 형님', '오빠', '○○[이름] 오빠', '누나', '○○[이름] 누나', '누님', '○○[이름] 누님', '언니', '○○[이름] 언니'로 지칭한다. 부모, 친척에게 손위인 사촌을 가리킬 때에는 이름을 붙여 '○○[이름] 형', '○○[이름] 형님', '○○[이름] 오빠', '○○[이름] 누나', '○○[이름] 누님', '○○[이름] 언니'로 지칭한다. 사촌이 동갑이거나 연하인 경우 당사자와 그 배우자, 나의 부모, 친척에게 이름으로 지칭한다. 사촌을 당사자의 자녀에게 가리킬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 '아버지', '아빠', '어머니', '엄마'라고 한다. 나의 친가 쪽 사촌을 자녀에게 가리킬 때에는 '아버지 사촌', '아버지 고종사촌', '어머니 사촌', '어머니 고종

사촌’과 같이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친사촌을 가리켜 ‘사촌 형’, ‘사촌 형님’, ‘사촌 오빠’, ‘사촌 누나’, ‘사촌 누님’, ‘사촌 언니’, ‘사촌’, ‘사촌 동생’, 고종사촌을 가리켜 ‘고종형’, ‘고종형님’, ‘고종사촌 형’, ‘고종사촌 형님’, ‘고종사촌 오빠’, ‘고종사촌 누나’, ‘고종사촌 누님’, ‘고종사촌 언니’, ‘고종사촌’, ‘고종사촌 동생’이라고 한다.

<109-110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어머니 동기의 자녀

어머니 동기의 자녀가 나보다 손위일 때 그 당사자를 부르는 말은 ‘형’, ‘○○[이름] 형’, ‘형님’, ‘○○[이름] 형님’, ‘오빠’, ‘○○[이름] 오빠’, ‘누나’, ‘○○[이름] 누나’, ‘누님’, ‘○○[이름] 누님’, ‘언니’, ‘○○[이름] 언니’이다. ①외사촌이 나와 동갑이거나 연하일 때에는 그 당사자를 이름으로 부른다. 나이가 든 경우에는 ‘동생’, ‘아우’, ‘누이(남자가 여동생을 가리킬 때)’라고 부를 수도 있다.
어머니 동기의 자녀를 그 당사자와 그 배우자에게 가리킬 때에는 호칭과 마찬가지로 ‘형’, ‘○○[이름] 형’, ‘형님’, ‘○○[이름] 형님’, ‘오빠’, ‘○○[이름] 오빠’, ‘누나’, ‘○○[이름] 누나’, ‘누님’, ‘○○[이름] 누님’, ‘언니’, ‘○○[이름] 언니’로 지칭한다.
부모, 친척에게 손위인 외사촌을 가리킬 때에는 이름을 붙여 ‘○○[이름] 형’, ‘○○[이름] 형님’, ‘○○[이름] 오빠’, ‘○○[이름] 누나’, ‘○○[이름] 누님’, ‘○○[이름] 언니’로 지칭한다. 사촌이 동갑이거나 연하인 경우 당사자와 그 배우자, 나의 부모, 친척에게 이름으로 지칭한다.
외사촌을 당사자의 자녀에게 가리킬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 ‘아버지’, ‘아빠’, ‘어머니’, ‘엄마’라고 한다. 나의 외가 쪽 사촌을 자녀에게 가리킬 때에는 ‘아버지 외사촌’, ‘아버지 이종사촌’, ‘어머니 외사촌’, ‘어머니 이종사촌’과 같이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외사촌을 가리켜 ‘외사촌 형’, ‘외사촌 형님’, ‘외사촌 오빠’, ‘외사촌 누나’, ‘외사촌 누님’, ‘외사촌 언니’, ‘외사촌’, ‘외사촌 동생’, 이종사촌을 가리켜 ‘이종형’, ‘이종형님’, ‘이종사촌 형’, ‘이종사촌 형님’, ‘이종사촌 오빠’, ‘이종사촌 누나’, ‘이종사촌 누님’, ‘이종사촌 언니’, ‘이종사촌’, ‘이종사촌 동생’이라고 한다.

<111쪽>

부모 동기의 자녀는 나와 사촌, 고종, 외사촌, 이종 등의 관계로 나의 형제자매에 준해 호칭과 지칭을 사용하면 된다. 나의 형제자매의 경우는 동갑일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모 동기의 자녀와 내가 동갑일 때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2011의 해설에서는 ①과 같이 동갑인 사촌 간은 이름으로 부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다. 형제간의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에서는 형과 동생을 엄격하게 구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기준이 필요한 부분이다. 2018은 기본적으로 2011을 따라 동갑인 경우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하되 각 가정마다 가풍에 따라 따로 정해 쓸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정비안

〔2018〕 아버지의 동기의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가능
호칭	형(님), 오빠, 누나(님), 언니 ○○[이름] 형(님), ○○[이름] 오빠, ○○[이름] 누나(님), ○○[이름] 언니 (동갑, 손아래 사촌일 경우) ○○[이름]
지칭	형(님), 오빠, 누나(님), 언니 ○○[이름] 형(님), ○○[이름] 오빠, ○○[이름] 누나(님), ○○[이름] 언니 (동갑, 손아래 사촌일 경우) ○○[이름]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어머니, 엄마 (아버지 남자 동기의 자녀들) 사촌 형(님), 사촌 오빠, 사촌 누나(님), 사촌 언니, 사촌, 사촌 동생 (아버지 여자 동기의 자녀들) 고종형, 고종형님, 고종사촌 형, 고종사촌 형님, 고종사촌 오빠, 고종사촌 누나, 고종사촌 누님, 고종사촌 언니, 고종사촌, 고종사촌 동생

〔2018〕 어머니의 동기의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가능
호칭	형(님), 오빠, 누나(님), 언니 ○○[이름] 형(님), ○○[이름] 오빠, ○○[이름] 누나(님), ○○[이름] 언니 (동갑, 손아래 사촌일 경우) ○○[이름]
지칭	형(님), 오빠, 누나(님), 언니 ○○[이름] 형(님), ○○[이름] 오빠, ○○[이름] 누나(님), ○○[이름] 언니 (동갑, 손아래 사촌일 경우) ○○[이름]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어머니, 엄마 (어머니 남자 동기의 자녀들) 외사촌 형, 외사촌 형님, 외사촌 오빠, 외사촌 누나, 외사촌 누님, 외사촌 언니, 외사촌, 외사촌 동생 (어머니 여자 동기의 자녀들) 이종형, 이종형님, 이종사촌 형, 이종사촌 형님, 이종사촌 오빠, 이종사촌 누나, 이종사촌 누님, 이종사촌 언니, 이종사촌, 이종사촌 동생

◎ 부모 동기의 자녀들 간 호칭과 지칭

<table>
<tr><td rowspan="4">나이</td><td rowspan="4">호칭</td><td colspan="4">지칭</td></tr>
<tr><td colspan="2">아버지</td><td colspan="2">어머니</td></tr>
<tr><td>남자 동기</td><td>여자 동기</td><td>남자 동기</td><td>여자 동기</td></tr>
<tr><td>사촌(四寸)</td><td>고종(姑從)</td><td>외사촌(外四寸)</td><td>이종(姨從)</td></tr>
<tr><td rowspan="3">연상</td><td rowspan="3">(○○)
형/오빠/누나/언니</td><td colspan="4">형/오빠/누나/언니</td></tr>
<tr><td colspan="4">(○○) 형/오빠/누나/언니</td></tr>
<tr><td colspan="4">사촌(/고종사촌/외사촌/이종사촌) 형(오빠/누나/언니)</td></tr>
<tr><td>동갑, 연하</td><td colspan="5">○○[이름]</td></tr>
</table>

4.1.12. 사돈 사이

예전에는 사돈 간에 만나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요즘은 사돈 간에 격의 없이 가깝게 지내는 가정도 적지 않다. 형제자매의 결혼으로 인해 사돈이 생기게 되었을 때 가족 간의 행사나 모임 등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린 자녀의 육아를 사돈이 함께 나누어 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관계에 대한 호칭이나 지칭도 필요하게 되었고 또 '사돈 도령'이나 '사돈아가씨, 사돈처녀'처럼 현재에는 잘 쓰이지 않는 어휘들도 검토가 필요하다. 1992에서도 이미 예전과 달리 사돈과 가깝게 지내는 현상을 언급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도 사돈 사이의 호칭어나 지칭어는 다른 관계들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게 제시되었다.

O 정비 방향

가. 성별의 비대칭성이 드러나는 어휘나 현재 잘 사용하지 않는 어휘가 포함된 호칭이나 지칭은 사용을 지양한다.

나. 호칭은 '사돈'으로 통용하되 구분이 필요한 지칭은 관계를 풀어 이르는 관계말을 활용한다.

O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표 비교

1 자녀 배우자의 부모	2 자녀 배우자의 삼촌 항렬
3 동기 배우자의 동기 및 그 배우자	4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 동기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배우자의 동기와 그 자녀, 동기 배우자의 조카	

1 자녀 배우자의 부모

〔1992〕 같은 항렬

	자식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부모 및 삼촌 항렬			
	남 : 남	남 : 여	여 : 여	여 : 남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사돈 어른, 사돈	사부인	사부인, 사돈	사돈 어른(밭사돈)
자기 쪽 사람에게	부모: 사돈, ○○(외)할아버지	사부인, ○○ (외)할머니	사부인, ○○ (외)할머니	사돈 어른(밭사돈), ○○ (외)할아버지
	삼촌: 사돈, [관계말]	사부인, [관계말]	사부인, [관계말]	사돈 어른, [관계말]
사돈 쪽 사람에게	부모: 사돈 어른, 사돈, ○○ (외)할아버지	사부인, ○○ (외)할머니	사부인, ○○ (외)할머니	사돈 어른, ○○ (외)할아버지
	삼촌: 사돈 어른, 사돈, [관계말]	사부인, [관계말]	사부인, [관계말]	사돈 어른, [관계말]

〔2011〕[표 Ⅰ-68]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

		내가 아버지인 경우		내가 어머니인 경우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를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를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를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를
호칭		사돈어른, 사돈	사부인	사돈어른, 밭사돈	사부인, 사돈
지칭	당사자에게	사돈어른, 사돈	사부인	사돈어른, 밭사돈	사부인, 사돈
	자기 쪽 사람에게	사돈, ○○[외손주] 할아버지, ○○[손주] 외할아버지	사부인, ○○[외손주] 할머니, ○○[손주] 외할머니	사돈어른, 밭사돈, ○○[외손주] 할아버지, ○○[손주] 외할아버지	사부인, ○○[외손주] 할머니, ○○[손주] 외할머니
	사돈 쪽 사람에게	사돈어른, 사돈, ○○[외손주] 할아버지, ○○[손주] 외할아버지	사부인, ○○[외손주] 할머니, ○○[손주] 외할머니	사돈어른, ○○[외손주] 할아버지, ○○[손주] 외할아버지	사부인, ○○[외손주] 할머니, ○○[손주] 외할머니

〔2018〕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내가 아버지인 경우

	전통		가능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를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를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를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를
호칭	사돈어른, 사돈	사부인	=	= 사돈, 사돈어른
지칭	사돈어른, 사돈 ○○[외손주] 할아버지, ○○[손주] 외할아버지	사부인 ○○[외손주] 할머니, ○○[손주] 외할머니	=	= 사돈, 사돈어른

〔2018〕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내가 어머니인 경우

	전통		가능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를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를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를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를
호칭	사돈어른, 밭사돈	사부인, 사돈	= 사돈	= 사돈어른
지칭	사돈어른, 밭사돈 ○○[외손주] 할아버지, ○○[손주] 외할아버지	사부인, 사돈 ○○[외손주] 할머니, ○○[손주] 외할머니	= 사돈	= 사돈어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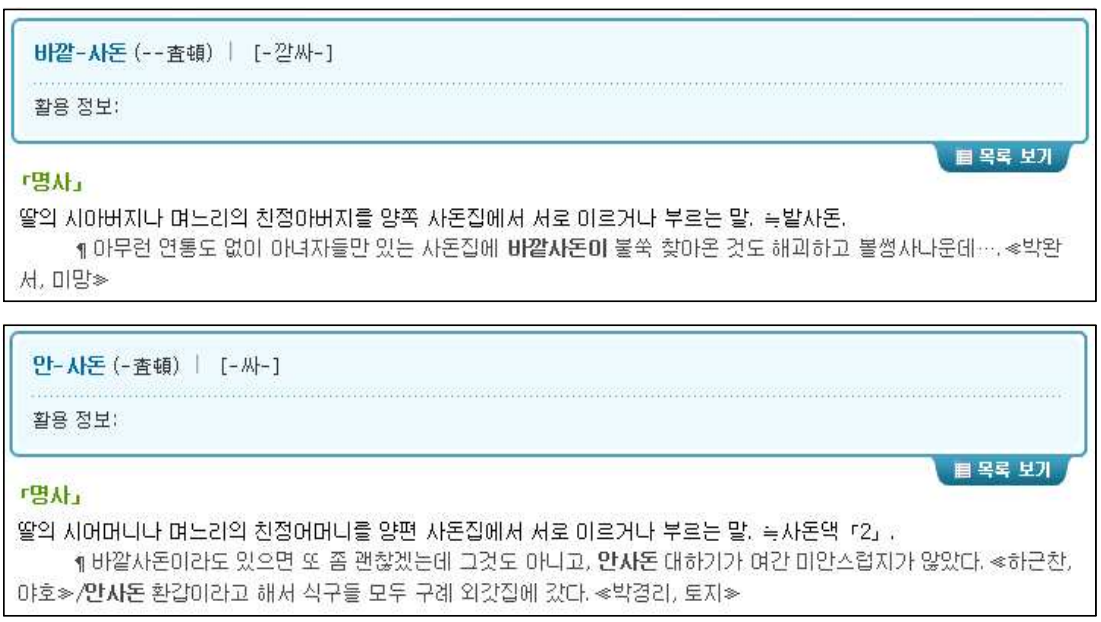
1992와 2011 모두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어나 지칭어는 큰 변화가 없다. 2018 역시 기존의 전통을 유지하되 나이나 성별에 따른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호칭과 지칭▐

사돈에 대한 호칭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상대방(사돈)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된다. 조부모의 경우 '사장어른'으로 통칭하는 것에 준해 기존의 구분을 없애고 이를 모두 '사돈'이나 '사돈어른'으로 통칭할 수도 있겠다. 친밀함의 정도나 나이 등에 따라 친밀한 사이에는 '사돈', 상대방이 나이가 많거나 격식을 갖춰야 한다면 '사돈어른'으로 부르는 것을 기본

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바깥사돈', '밭사돈', '안사돈'과 같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어휘가 있다. 남자에 대해 '밭(=바깥)', 여자에 대해 '안' 등 고정적인 성 역할이 반영된 표지라는 점에서 이들의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구분의 필요가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1992와 2011에서 '밭사돈'과 '사부인'을 쓰고 있는데 사전의 뜻풀이에 근거하면 '밭사돈/바깥사돈'과 '안사돈'이 짝을 이루고 있으므로 '밭사돈/바깥사돈'이 쓰이는 자리에는 '안사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안사돈'이 아닌 '사부인('안사돈'의 높임말)'이 쓰이고 있어 이 역시 비대칭적이다. 그러므로 '밭사돈/바깥사돈'과 '안사돈'을 모두 인정하거나 둘 다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바깥-사돈 (--査頓) | [-깓싸-]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딸의 시아버지나 며느리의 친정아버지를 양쪽 사돈집에서 서로 이르거나 부르는 말. ≒밭사돈.

¶ 아무런 연통도 없이 아녀자들만 있는 사돈집에 **바깥사돈이** 불쑥 찾아온 것도 해괴하고 볼썽사나운데…. ≪박완서, 미망≫

안-사돈 (-査頓) | [-싸-]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딸의 시어머니나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를 양편 사돈집에서 서로 이르거나 부르는 말. ≒사돈댁 「2」.

¶ 바깥사돈이라도 있으면 또 좀 괜찮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안사돈** 대하기가 여간 미안스럽지가 않았다. ≪하근찬, 야호≫/**안사돈** 환갑이라고 해서 식구들 모두 구례 외갓집에 갔다. ≪박경리, 토지≫

지칭의 경우도 호칭과 같이 '사돈', '사돈어른'으로 통칭하여 지칭하되 남녀 구분 없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사돈어른'으로, 적으면 '사돈'으로 부르면 될 것이다. 다만 나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친밀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사돈어른'으로 서로 높여 부르고 존댓말을 써서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한편 지칭에서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손주나 외손주를 매개로 '○○ (외)할아버지'와 '○○ (외)할머니' 등을 쓰면 될 것이다.

2 자녀 배우자의 삼촌 항렬

[2011][표 Ⅰ-69] 자녀 배우자의 삼촌 항렬에 대한 호칭, 지칭

		내가 아버지인 경우		내가 어머니인 경우	
		자녀 배우자의 삼촌, 외삼촌을	자녀 배우자의 고모, 이모를	자녀 배우자의 삼촌, 외삼촌을	자녀 배우자의 고모, 이모를
호칭		사돈어른, 사돈	사부인	사돈어른, 밭사돈	사부인, 사돈
지칭	당사자에게	사돈어른, 사돈	사부인	사돈어른, 밭사돈	사부인, 사돈
	자기 쪽 사람에게	사돈	사부인	사돈어른	사부인
	사돈 쪽 사람에게	사돈어른, 사돈	사부인	사돈어른	사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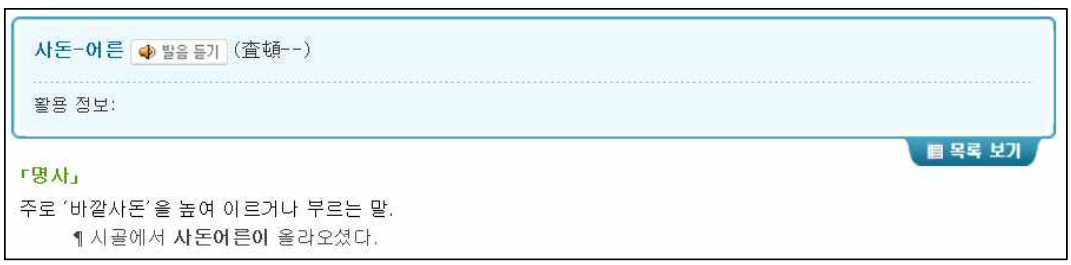
〔2018〕 자녀 배우자의 삼촌 항렬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자녀 배우자의				자녀 배우자의			
	내가 아버지인 경우		내가 어머니인 경우		내가 아버지인 경우		내가 어머니인 경우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호칭	사돈(어른)	사부인	사돈어른, 밭사돈	사부인, 사돈	=	= 사돈(어른)	=	= 사돈(어른)
지칭	사돈(어른)	사부인	사돈어른, 밭사돈	사부인, 사돈	=	= 사돈(어른)	=	= 사돈(어른)

▌호칭과 지칭▐

1992에서는 따로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2011에서 자녀 배우자의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에 대한 호칭과 지칭이 제시되었다. 나나 자녀 배우자의 부모와 같은 항렬에 해당하는데 호칭이나 지칭은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 준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녀 배우자의 삼촌이나 외삼촌, 고모, 이모 모두 '사돈'으로 통칭하여 부르거나 이르도록 하고 격식적인 상황에서 높여야 할 경우 남자는 '사돈어른', 여자는 '사부인'을 써서 높임의 의도를 표현하면 된다. 물론 고모나 이모의 경우에도 '사돈어른'으로 통칭하여 높일 수 있다. 2018에서는 성별에 따른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모나 이모의 경우 '사돈(어른)'으로 호칭과 지칭을 쓸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에 근거해 보아도 '주로 '바깥사돈'을 높여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돈어른'을 안사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아울러 전통적인 호칭과 지칭 중 '밭사돈'에 대해서도 표에서 제외할 것을 논의하였지만 우선은 전통에 남겨 두었다.



3 동기 배우자의 동기 및 그 배우자

〔1992〕 같은 항렬

	동기 배우자(형수, 올케 등)의 동기 및 그 배우자	
	남자	여자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사돈, 사돈 도령, 사돈 총각	사돈, 사돈 처녀, 사돈 아가씨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지칭	사돈, 사돈 도령, 사돈 총각, [관계말]	사돈, 사돈 처녀, 사돈 아가씨, [관계말]

〔2011〕[표 Ⅰ-70] 동기 배우자의 동기 및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 지칭

		남자	여자
호칭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
지칭	당사자에게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
	그 밖의 사람에게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

〔2018〕 동기 배우자의 동기 및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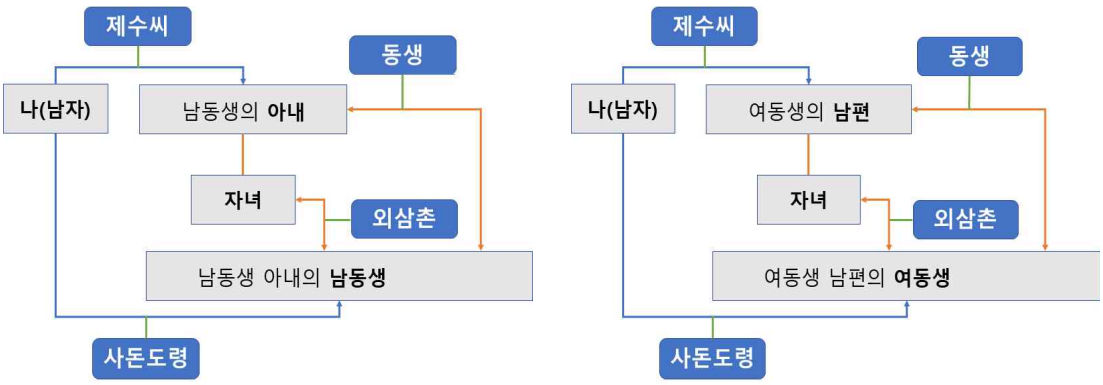
	전통		가능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호칭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	= 형(님), 오빠, 동생(님) ○○[자녀] 삼촌, ○○[자녀] 외삼촌	= 누나(누님), 언니, 동생(님) ○○[자녀] 이모, ○○[자녀] 고모
지칭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	= 형(님), 오빠, 동생(님) ○○[자녀] 삼촌, ○○[자녀] 외삼촌	= 누나(누님), 언니, 동생(님) ○○[자녀] 이모, ○○[자녀] 고모

▌호칭과 지칭▐

‘도령’이나 ‘총각’, ‘아가씨’, ‘처녀’ 등 성별이나 결혼의 여부 등이 호칭이나 지칭에 드러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아 ‘사돈’으로 구분 없이 써도 무방하다. 다만 호칭이나 지칭에서 구분이 필요할 때는 관계를 중심으로 한 호칭, 지칭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자녀에 기댄 호칭·지칭, ‘동기 배우자의 동기’나 ‘동기 배우자 동기의 배우자’가 부르는 호칭에 준해 지칭을 사용하면 된다. 1992에서도 ‘[관계말]’이라 하여 지칭을 쓰도록 하였는데 2011에서는 이 부분이 표에서 빠지고 해설에서 관계말을 지칭으로 쓸 수 있다는 기술만 있다. 2018 역시 관계말을 활용하여 지칭을 쓸 수 있다고 보았다.

동기 배우자의 동기나 동기 배우자 동기의 배우자는 동기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사돈’이라는 호칭, 지칭을 통해 존중의 의도를 드러내거나 자녀에 기댄 지칭을 통해 친밀함을 드러낼 수 있다. ‘사돈도령’, ‘사돈총각’, ‘사돈아가씨’, ‘사돈처녀’의 경우 전통에서도 삭제하고 ‘사돈’으로만 제시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여전히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우선 전통에 기존과 같이 유지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나'를 시작으로 '사돈도령'과 '사돈아가씨'의 관계 중 하나를 예로 보인 것이다.



'사돈도령' 대신 '○○ 외삼촌'이나 '사돈아가씨' 대신 '○○ 고모' 등 자녀에 기댄 호칭이나 지칭을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돈도령'이 자녀의 삼촌이나 외삼촌, '사돈아가씨'가 자녀의 고모나 이모를 모두 부르거나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을 위해서도 자녀에 기댄 호칭이나 지칭의 사용을 허용하는 편이 좀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 이와 함께 동기의 배우자와 '남동생의 아내'와 '남동생 아내의 남동생', '여동생의 남편'과 '여동생 남편의 여동생' 간의 관계인 '동생(님)'을 활용해 부를 수도 있겠다. 호칭이나 지칭을 사용하면서 '형님분', '오빠분', '언니분'과 같이 손위 동기에 대해서는 '분'을 붙여 높여 이를 수도 있다.

④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 동기 배우자의 부모

〔1992〕 위 항렬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조부모, 동기 배우자(형수, 올케 등)의 부모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사장어른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지칭	사장어른, [관계말]

〔2011〕[표 Ⅰ-71]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 및 동기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사장어른
지칭	당사자에게	사장어른
	그 밖의 사람에게	사장어른

〔2018〕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 및 동기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사장어른	=
지칭	사장어른	=

▌호칭과 지칭▐

전통적으로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 동기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은 조부, 조모 모두 '사장어른'으로 호칭과 지칭을 사용하여 왔다. 상황의 격식성이나 화자와 청자의 친밀함, 나이의 많고 적음, 성별 등을 모두 구분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두루 '사장어른'으로 통일해서 쓴 것이다. 지칭의 경우도 '사장어른'으로 쓰고 구분이 필요한 경우 관계말을 활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며느리의 조부', '사위의 조모', '올케 조모님'과 같이 관계를 풀어 설명하는 것으로 지칭하는 말을 쓴다. 2018 역시 1992나 2011에 따라 '사장어른'만 보기로 제시하되 관계말을 지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설명으로 대신한다.

5 자녀 배우자의 동기와 그 자녀, 동기 배우자의 조카

〔1992〕 아래 항렬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동기 및 조카, 동기 배우자(형수, 올케 등)의 조카	
	남자	여자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사돈, 사돈 도령, 사돈 총각	사돈, 사돈 아가씨, 사돈 처녀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지칭	사돈, 사돈 도령, 사돈 총각, [관계말]	사돈, 사돈 아가씨, 사돈 처녀, [관계말]

〔2011〕[표 Ⅰ-72] 자녀 배우자의 동기와 그 자녀, 동기 배우자의 조카에 대한 호칭, 지칭

		남자	여자
호칭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
지칭	당사자에게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
	그 밖의 사람에게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외손주] 삼촌, ○○[손주] 외삼촌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 ○○[손주] 이모, ○○[외손주] 고모

〔2018〕 자녀 배우자의 동기와 그 자녀, 동기 배우자의 조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호칭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	= ○○씨	= ○○씨
지칭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외손주] 삼촌, ○○[손주] 외삼촌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 ○○[손주] 이모, ○○[외손주] 고모	= 사돈 형(님) 사돈 (남)동생(님)	= 사돈 누나(누님) 사돈 언니 사돈 (여)동생(님)

이 관계는 나보다 아래 항렬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호칭과 지칭이다. 같은 항렬의 동기 배우자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 지칭 역시 '사돈', '사돈도령', '사돈아가씨' 등이었다. 이와 동일하게 나보다 아래 항렬인 자녀 배우자의 동기와 그 자녀, 동기 배우자의 조카 등에 대해서

도 같은 호칭과 지칭을 사용한다. 다만 아래 항렬의 사람이므로 '사돈'과 같이 부르기보다는 '○○ 씨' 등으로 이름을 불러 친근함을 표현할 수도 있다.

▌호칭과 지칭▐

'도령'이나 '총각', '아가씨', '처녀' 등 성별이나 결혼 여부가 호칭이나 지칭에 드러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아 '사돈'으로 통칭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만 지칭에서 구분이 필요할 때는 관계를 중심으로 한 지칭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자녀에 기댄 지칭을 쓰거나 자녀가 없을 때에는 며느리나 사위가 부르는 호칭에 준해 지칭을 사용할 수 있다.

격식과 비격식의 구분이나 나이의 많고 적음 등에 관계없이 호칭과 지칭을 사용하는데, 자녀 배우자의 동기, 자녀 배우자 동기의 자녀, 자녀 배우자 동기 배우자의 조카 등의 관계는 나보다 서열이 낮기 때문에 높임말을 써야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굳이 호칭이나 지칭을 높여 사용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자녀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촌수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름을 부를 정도의 가까운 관계라고도 볼 수 없다. '사돈'이라는 호칭, 지칭을 통해 존중의 의도를 드러내거나 손주, 외손주에 기댄 지칭을 통해 친밀함을 드러낼 수 있다.

O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해설 비교

1 자녀 배우자의 부모

표준 화법 해설(1992)

"남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것은?" 하는 수수께끼가 있다. 가깝게 지내도 허물없는 과갈(瓜葛)간이 될 수 없고, 멀다고 생각해도 남이 아닌 사돈 사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듯 조심스러운 관계인 사돈을 부르는 말은 항렬, 나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

같은 항렬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부모를 호칭하는 말 가운데, 밭사돈이 밭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돈 어른', '사돈'을 표준으로 정했다. 상대방이 나이가 위일 때는 '사돈 어른', 아래일 때는 '사돈'으로 부르도록 하고, 나이가 비슷하면 친밀한 정도에 따라 적절히 쓰도록 한 것이다.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은 호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돈이 여러 사람이어서 혼란이 생길 때는 '서울 사돈 어른', '서울 사돈'처럼 '사돈 어른'과 '사돈' 앞에 사돈이 살고 있는 곳의 이름을 넣어 부를 수 있다. 이것은 아래의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쪽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사돈', '○○ (외)할아버지'를 쓰도록 정했다. 자녀에 기대어 '○○ 장인 어른', '○○ 시어른'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간접적으로 지칭할 때는 대부분 손아래 사람에게 지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손자, 손녀에 기댄 표현을 표준으로 정했다. 사돈 쪽 사람에게는 '사돈 어른', '사돈'을 적절히 사용하고, '○○ (외)할아버지'도 사용할 수 있다.

①밭사돈이 안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부인'으로 정했다. 안사돈이 나이가 적어도 어려운 상대이므로

'사돈댁'의 존칭인 '사부인'을 표준으로 했다. 지칭어로는 당사자에게는 '사부인'을 그대로 쓰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사부인', '○○ (외)할머니'를 쓴다.

안사돈이 안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부인', '사돈'으로 정했다. 나이가 아래이고 친밀한 사이이면 '사돈', 나이가 위이면 '사부인'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은 호칭어를 그대로 쓰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사부인', '○○ (외)할머니'로 지칭한다.

안사돈이 밭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돈 어른'으로 정했다. 나이 차이가 많거나 친밀한 경우에는 '밭사돈'을 쓸 수도 있다. 지칭어로는 당사자에게는 '사돈 어른', 그 밖의 사람에게는 '사돈 어른(밭사돈)', '○○(외)할아버지'로 지칭한다.

<63-64쪽>

표준 언어 예절(2011)

같은 항렬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부모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부모를 호칭하는 말 가운데, 내가 아버지일 때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인 밭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돈어른', '사돈'이다. 상대방이 나이가 위일 때는 '사돈어른', 아래일 때는 '사돈'으로 부르도록 하고, 나이가 비슷하면 친밀한 정도에 따라 적절히 쓰도록 한 것이다.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를 그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은 호칭인 '사돈어른', '사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돈이 여러 사람이어서 혼란이 생길 때는 '서울 사돈어른', '서울 사돈'처럼 '사돈어른'과 '사돈' 앞에 사돈이 살고 있는 곳의 이름을 넣어 지칭할 수 있다. 이것은 아래의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를 자기 쪽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사돈', '○○[외손주] 할아버지', '○○[손주] 외할아버지'라 한다. 자녀에 기대어 '○○[자녀] 장인어른', '○○[자녀] 시어른'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간접 지칭은 대부분 손아래 사람에게 지칭할 때 쓰이기 때문에 '사돈'을 원칙으로 한다. 사돈 쪽 사람에게는 '사돈어른', '사돈'을 적절히 사용하고, '○○[외손주] 할아버지', '○○[손주] 외할아버지'도 사용할 수 있다.

①내가 아버지일 때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인 안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부인'이다. 안사돈은 나이가 적어도 어려운 상대이므로 '사돈댁'의 존칭인 '사부인'이 바른 호칭어이다.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를 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인 '사부인'을 그대로 쓴다. 자기 쪽 사람이나 사돈 쪽 사람에게는 '사부인', '○○[외손주] 할머니', '○○[손주] 외할머니'로 지칭한다.

내가 어머니일 때 배우자의 아버지인 밭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돈어른', '밭사돈'이다. 자녀 배우자 아버지의 나이가 아래이거나 관계가 친밀하여 '사돈어른'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밭사돈'을 쓴다.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를 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인 '사돈어른', '밭사돈'을 그대로 쓴다. 자기 쪽 사람에게는 '사돈어른', '밭사돈', '○○[외손주] 할아버지', '○○[손주] 외할아버지'로 지칭하고, 사돈 쪽 사람에게는 '사돈어른', '○○[외손주] 할아버지', '○○[손주] 외할아버지'로 지칭한다.

내가 어머니일 때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인 안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부인', '사돈'이다. 나이가 위이면 '사부인'으로, 나이가 아래이고 친밀한 사이이면 '사돈'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를 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인 '사부인', '사돈'을 그대로 쓴다. 자기 쪽 사람이나 사돈 쪽 사람에게는 '사부인', '○○[외손주] 할머니', '○○[손주] 외할머니'로 지칭한다.

<114-115쪽>

①은 내가 아버지이고 자녀 배우자의 부모 중 어머니를 부를 때, 즉 성별이 다른 사돈을 부르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성별이 같은 사돈을 부르는 것과 같이 '사돈' 또는 '사돈어른'으로 부르면 된다. 그런데 1992와 2011에서는 '바깥사돈'과 '안사돈'을 부르는 말로 '사돈어른'과 '밭사돈',

‘사부인’을 각각 제시하였다. 성별이 다른 사돈의 경우 나이가 어리더라도 어려운 사이이기 때문에 높여 부르는 ‘사부인’을 쓰는 것을 표준으로 정했다는 것인데 2018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쓰지 않고 예를 갖춰야 할 어려운 사이에서는 ‘사돈어른’으로, 친밀함이 있고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돈’을 호칭이나 지칭으로 쓰는 것도 괜찮다고 보았다.

2 자녀 배우자의 삼촌 항렬

표준 화법 해설(1992)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삼촌 항렬인 사람을 부르는 호칭어도 자녀 배우자 부모의 호칭어와 같다. 지칭어로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호칭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호칭어와 ‘○○ 큰(외)할아버지’, ‘○○ 작은(외)할머니’ 등과 같은 관계말을 사용한다.

<64쪽>

표준 언어 예절(2011)

같은 항렬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삼촌 항렬

내가 아버지일 때 자녀 배우자의 삼촌, 외삼촌을 부르는 말은 ‘사돈어른’, ‘사돈’이다.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도 호칭과 마찬가지로 ‘사돈어른’, ‘사돈’이라고 가리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녀 배우자의 삼촌, 외삼촌을 자기 쪽 사람에게는 ‘사돈’으로, 사돈 쪽 사람에게는 ‘사돈어른’, ‘사돈’이라고 지칭한다. 내가 아버지일 때 자녀 배우자의 고모, 이모를 부르는 말은 ‘사부인’이다. 자녀 배우자의 고모, 이모를 당사자, 자기 쪽 사람, 사돈 쪽 사람에게 지칭하는 말도 모두 ‘사부인’이다.

내가 어머니일 때 자녀 배우자의 삼촌, 외삼촌을 부르는 말은 ‘사돈어른’이지만 ‘사돈어른’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경우 ‘밭사돈’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자녀 배우자의 삼촌 항렬을 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자녀 배우자의 삼촌, 외삼촌을 가리켜 자기 쪽 사람, 사돈 쪽 사람에게 ‘사돈어른’이라고 한다. 내가 어머니일 때 자녀 배우자의 고모, 이모를 ‘사부인’, ‘사돈’이라 부른다.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도 호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자녀 배우자의 고모, 이모를 자기 쪽 사람, 사돈 쪽 사람에게 지칭하는 말은 ‘사부인’이다.

자녀 배우자의 삼촌 항렬을 자기 쪽 사람, 사돈 쪽 사람에게 가리킬 때에는 손주, 외손주에 기대어 ‘○○[외손주] 큰할아버지’, ‘○○[손주] 작은외할아버지’, ‘○○[외손주] 고모할머니’, ‘○○[손주] 이모할머니’ 등과 같은 관계말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116쪽>

①, ②에서 자녀 배우자의 삼촌 항렬에 대한 호칭과 지칭은 1992에서는 따로 표로 다뤄지지 않았고 짧게 해설이 되어 있었는데 2011에서는 별개의 표로 제시되었다.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 준해 호칭과 지칭을 쓰는데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등에 차이가 없다.

3 동기 배우자의 동기 및 그 배우자

표준 화법 해설(1992)

동기 배우자(형수, 매부, 올케 등)의 동기에 대한 호칭어, 지칭어는 말하는 사람의 성별에는 관계없이 상대방이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 구별된다. ①남자를 부르는 말은 '사돈', '사돈 도령', '사돈 총각'으로 정했다. 이 관계는 나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하는 말로 '사돈'을 쓰고 미혼이면 상황에 따라 '사돈 도령'과 '사돈 총각'을 쓰도록 여유를 두었다. '사돈 총각'은 낮추는 말이라는 여론이 있으나, 결혼할 나이의 남자에게는 '사돈 총각'이 더 어울리고 실제로 많이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표준으로 했다. 당사자에 대한 지칭어는 호칭어를 그대로 쓰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호칭어와 조카에 기댄 말인 '○○(외)삼촌'을 지칭어로 쓸 수 있다.

②여자를 부르는 말은 '사돈', '사돈 처녀', '사돈 아가씨'로 정했다. 남자를 부를 때와 같이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별하여 쓸 수 있다. 지칭어로는 당사자에게는 호칭어를 그대로 쓰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호칭어와 조카에 기댄 '○○ 고모(이모)' 등과 같은 관계말을 쓰는 것이 좋다.

<65쪽>

표준 언어 예절(2011)

같은 항렬

동기 배우자(형수, 올케 등)의 동기 및 그 배우자

동기 배우자(형수, 매부, 올케 등)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 지칭은 나의 성별에는 관계없이 상대방이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 구별된다. ①동기 배우자의 동기와 그 배우자가 남자일 때에는 호칭으로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을 쓴다. 동기 배우자의 남자 동기를 부를 때에는 나이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전체를 총괄하는 말로 '사돈'을 쓰고, 미혼이면 상황에 따라 '사돈도령', '사돈총각'을 쓸 수 있다. '사돈총각'은 낮추는 말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결혼할 나이의 남자에게는 '사돈총각'이 더 어울리고 실제로 많이 쓰이는 말이다.

동기 배우자의 동기와 그 배우자가 남자일 경우, 당사자와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을 그대로 쓴다.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조카에 기댄 말인 '○○[조카] 삼촌', '○○[조카] 외삼촌' 등을 지칭으로 쓸 수도 있다.

②동기 배우자의 동기와 그 배우자가 여자일 때에는 호칭으로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를 쓴다. 동기 배우자의 여자 동기를 부를 때는 전체를 총괄하는 말로 '사돈'을 쓰고, 미혼이면 '사돈아가씨', '사돈처녀'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별하여 쓸 수 있다.

동기 배우자의 동기와 그 배우자가 여자일 경우, 당사자와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을 그대로 쓴다.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조카에 기댄 '○○[조카] 고모', '○○[조카] 이모' 등과 같은 관계말을 지칭으로 쓸 수도 있다.

<117-118쪽>

동기 배우자의 동기나 그 배우자를 부르는 말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남자, 여자 모두 '사돈'으로 쓸 수 있는데 이는 결혼이나 성별 여부에 관계없이 호칭이나 지칭으로 사용한다. 다만 미혼일 경우 '사돈총각', '사돈도령', '사돈처녀', '사돈아가씨' 등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별하여 쓰도록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총각'이나 '처녀'가 이제 잘 쓰이지 않는 말이고 '도령'은 친족어휘가 아니면 다른 경우에는 쓰이지 않는다. 즉 어휘 자체가 공시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돈’으로 통칭할 수 있다면 점차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심층 면담 등에서 사용이 확인되기 때문에 ‘전통’에는 그대로 두었다. 지칭에서 구분이 필요하다면 관계를 풀어 이르는 말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 동기 배우자의 부모

표준 화법 해설(1992)

위 항렬

①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조부모는 부르는 사람과 대상의 성별에 관계없이 ‘사장 어른’을 호칭어의 표준으로 정했다. 전통적으로 ‘사돈’은 같은 항렬 이하를, ‘사장’은 위 항렬을 가리키는 말이라서 ‘사장 어른’을 채택했다.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여, 할머니를 부르는 말로는 ②‘안사장 어른’을 쓸 수도 있다.

지칭어로는 당사자에게는 호칭어인 ‘사장 어른’을 그대로 쓰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사장 어른’과 ‘○○ (시, 처)조부모’와 같은 관계말을 쓰도록 정했다.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보다 한 항렬이 높으면 ‘사장 어른’ 앞에 ‘노-’를 붙여 ‘노사장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다.

동기 배우자(형수, 매부, 올케 등)의 부모도 남녀 구분 없이 ‘사장 어른’으로 부른다. 지칭어로는 당사자에게는 ‘사장 어른’, 그 밖의 사람에게는 ‘사장 어른’과 조카의 이름에 기댄 ‘○○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와 같은 관계말을 쓰도록 정했다.

<65-66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위 항렬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조부모 및 동기 배우자(형수, 올케 등)의 부모

①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조부모는 자신과 지칭 대상의 성별에 관계없이 ‘사장어른’이라고 부른다. 전통적으로 ‘사돈’은 같은 항렬 이하를, ‘사장’은 위 항렬을 가리키는 말이라서 ①‘사장어른’을 표준 언어 예절로 삼는다. ②상황에 따라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여, 할머니를 부르는 말로 ‘안사장 어른’을 쓸 수도 있다.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를 당사자와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은 ‘사장어른’을 그대로 쓴다.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 ‘○○[딸] 시조부모’, ‘○○[아들] 처조부모’ 등과 같은 관계말을 쓸 수도 있다.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보다 한 항렬이 높으면 ‘사장어른’ 앞에 ‘노-’를 붙여 ‘노사장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다.

동기 배우자(형수, 매부, 올케 등)의 부모도 남녀 구분 없이 ‘사장어른’으로 부른다. 동기 배우자의 부모를 당사자와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인 ‘사장어른’을 그대로 쓴다.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 조카에 기댄 ‘○○[조카] 할아버지’, ‘○○[조카] 외할아버지’, ‘○○[조카] 할머니’, ‘○○[조카] 외할머니’와 같은 관계말을 지칭으로 쓸 수도 있다.

<118-119쪽>

①은 ‘사장어른’을 표준으로 정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사장’의 경우 위 항렬을 가리키는 말이라서 여기에 ‘어른’을 붙여 ‘사장어른’을 채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표준 화법”을 정하면서 여

러 가지 호칭 중 가장 타당한 것을 골라 정한 셈이다.

5 자녀 배우자의 동기와 그 자녀, 동기 배우자의 조카

표준 화법 해설(1992)

아래 항렬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동기와 조카, 동기 배우자(형수, 매부, 올케 등)의 조카와 같이 아래 항렬은 말하는 사람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상대방이 여자인가 남자인가에 따라 호칭어와 지칭어가 달라진다.

아래 항렬의 남자를 부르는 말은 나이와 상황에 따라 '사돈', '사돈 도령', '사돈 총각'으로 적절히 부르도록 했다. 상대방이 항렬이 낮더라도 사돈으로 예우를 하는 것이 전통이다. 지칭어로는 당사자에게는 호칭어를 그대로 쓰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호칭어와 손자, 손녀에 기댄 '○○ (외, 고종, 이종)사촌 형' 등과 같은 관계말을 적절히 쓰도록 했다.

아래 항렬의 여자를 부르는 말은 '사돈', '사돈 처녀', '사돈 아가씨'로 했다. 나이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부르도록 한 것이다. 지칭어는 당사자에게는 호칭어를 그대로 쓰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호칭어와 손자, 손녀에 기댄 '○○ (외, 고종, 이종)사촌 언니' 등과 같은 관계말을 지칭어로 쓰도록 했다.

<67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아래 항렬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동기와 그 자녀, 동기 배우자(형수, 올케 등)의 조카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동기와 그 자녀, 동기 배우자(형수, 매부, 올케 등)의 조카와 같은 아래 항렬은 말하는 사람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상대방이 여자인가 남자인가에 따라 호칭과 지칭이 달라진다.

아래 항렬의 남자는 나이와 상황에 따라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으로 적절히 부른다. 전체를 총괄하는 말로 상대방이 항렬이 낮더라도 '사돈'으로 예우를 하는 것이 전통이고, 상황에 따라 미혼인 경우에는 '사돈도령', '사돈총각'을 쓴다. 아래 항렬의 남자를 당사자와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을 그대로 쓴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손주, 외손주 또는 조카에 기댄 '○○[외손주] 삼촌', '○○[손주] 외삼촌', '○○[외손주, 조카] 사촌 형', '○○[외손주, 조카] 고종사촌 형', '○○[손주, 조카] 외사촌 형', '○○[손주, 조카] 이종사촌 형' 등과 같은 관계말을 적절히 지칭으로 쓸 수 있다.

아래 항렬의 여자를 부르는 말은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이다. 전체를 총괄하는 말로 '사돈'을 쓰고, 상황에 따라 미혼이면 '사돈아가씨', '사돈처녀'를 적절히 조정하여 부르도록 한다. 아래 항렬의 여자를 당사자와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을 그대로 쓴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손주, 외손주 또는 조카에 기댄 '○○[손주] 이모', '○○[외손주] 고모', '○○[외손주, 조카] 사촌 언니', '○○[외손주, 조카] 고종사촌 언니', '○○[손주, 조카] 외사촌 언니', '○○[손주, 조카] 이종사촌 언니' 등과 같은 관계말을 지칭으로 쓸 수 있다.

<119-120쪽>

○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정비안

〔2018〕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내가 아버지인 경우

	전통		가능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를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를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를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를
호칭	사돈어른, 사돈	사부인	=	= 사돈, 사돈어른
지칭	사돈어른, 사돈 ○○[외손주] 할아버지, ○○[손주] 외할아버지	사부인 ○○[외손주] 할머니, ○○[손주] 외할머니	=	= 사돈, 사돈어른

〔2018〕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내가 어머니인 경우

	전통		가능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를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를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를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를
호칭	사돈어른, 밭사돈	사부인, 사돈	= 사돈	= 사돈어른
지칭	사돈어른, 밭사돈 ○○[외손주] 할아버지, ○○[손주] 외할아버지	사부인, 사돈 ○○[외손주] 할머니, ○○[손주] 외할머니	= 사돈	= 사돈어른

〔2018〕 자녀 배우자의 삼촌 항렬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자녀 배우자의				자녀 배우자의			
	내가 아버지인 경우		내가 어머니인 경우		내가 아버지인 경우		내가 어머니인 경우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호칭	사돈(어른)	사부인	사돈어른, 밭사돈	사부인, 사돈	=	= 사돈(어른)	=	= 사돈(어른)
지칭	사돈(어른)	사부인	사돈어른, 밭사돈	사부인, 사돈	=	= 사돈(어른)	=	= 사돈(어른)

〔2018〕 동기 배우자의 동기 및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호칭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	= 형(님), 오빠, 동생(님) ○○[자녀] 삼촌, ○○[자녀] 외삼촌	= 누나(누님), 언니, 동생(님) ○○[자녀] 이모, ○○[자녀] 고모
지칭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	= 형(님), 오빠, 동생(님) ○○[자녀] 삼촌, ○○[자녀] 외삼촌	= 누나(누님), 언니, 동생(님) ○○[자녀] 이모, ○○[자녀] 고모

〔2018〕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 및 동기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사장어른	=
지칭	사장어른	=

〔2018〕 자녀 배우자의 동기와 그 자녀, 동기 배우자의 조카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호칭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	= ○○씨	= ○○씨
지칭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	= 사돈 형(님) 사돈 (남)동생(님)	= 사돈 누나(누님) 사돈 언니 사돈 (여)동생(님)
	○○[외손주] 삼촌, ○○[손주] 외삼촌	○○[손주] 이모, ○○[외손주] 고모		

4.2. 사회관계 호칭어 및 지칭어

사회관계 호칭어 및 지칭어는 최근 사회관계가 복잡다단해지는 만큼, 또 화자와 청자 간 힘의 차이로 인한 전략적 호칭 및 지칭의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호칭어와 지칭어가 다양해지고 있다. 1992에서는 '직장 사람들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1, 타인에 대하여 2, 자기에 대하여'로 다뤄졌던 것이 2011에서는 '직장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하여, 지인에 대하여, 직원과 손님 사이' 등으로 바뀌게 되었다.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Ⅱ. 직장, 사회에서의 호칭어, 지칭어	**Ⅱ.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
11. 직장 사람들에 대하여	13. 직장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하여
12. 타인에 대하여 1	14. 지인에 대하여
13. 타인에 대하여 2	15. 직원과 손님 사이
14. 자기에 대하여	

1992에서 '11. 직장 사람들에 대하여'와 '13. 타인에 대하여 2' 중 직장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부분이 2011에서 묶여 '13. 직장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하여'로 정리되었다. 또 1992에서 '13. 타인에 대하여 2'에 있던 '식당 종업원, 손님'이나 '식당, 은행, 관공서 등의 손님이나 직원'이 따로 분리되어 2011에서는 '15. 직원과 손님 사이'로 확대되었다. 1992의 '12. 타인에 대하여 1'은 2011에서 '14. 지인에 대하여'로 제목이 바뀌었는데 친구와 그 가족, 부모님의 친구, 친구의 부모님 등에 대한 호칭과 지칭을 다루고 있다.

1992에서 2011로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는 직장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한 지칭어 부분이 매우 자세하게 확대되었다는 점인데 잉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보여 2018은 이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정리하였다. 반면 1992에서 소략하게 다뤄진 식당이나 관공서 등에서의 호칭과 지칭 역시 2011에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호칭과 지칭 사용의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2018은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였다. 한편 1992에서 다뤄졌지만 2011에서 빠지게 된 자신에 대한 호칭이나 지칭, 모르는 타인에 대한 호칭이나 지칭 등도 2018은 간략하게나마 다루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8이 제안하는 목차는 다음과 같다.

수정 목차

Ⅱ.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
13. 직장 사람과 그 가족
14. 지인과 지인의 가족

14.1. 나의 친구
14.2. 부모의 친구
15. 장소와 목적에 따른 호칭과 지칭
15.1. 공공 기관에서
15.2. 서비스 기관에서
15.3. 그 밖의 상황

2018에서 'Ⅱ.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의 정비 방향은 'Ⅰ.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이 될 표의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게 제시하여 언중이 이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호칭과 지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별이나 연령, 직위 등의 차이에 따른 비대칭적 호칭과 지칭의 사용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1992와 2011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이후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었다면 최대한 포함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님'이나 '씨', '선생님' 등의 사용 확대, 직장 내 수평적 호칭 문화 개선, 직업 간 차별을 드러내지 않는 호칭 사용, 고정적인 성별 인식을 반영한 호칭이나 지칭에 대한 문제의식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52]

여기서는 2011 내용의 정비를 위해 2011의 순서를 따라 정비 내용을 제시하기로 한다.

52) 다만 2018에서 사회관계에서 사용되는 호칭이나 지칭을 충분히 조사하여 이 보고서에 포함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후 후속 작업을 통해 사회관계에서의 호칭과 지칭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정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2.1. 직장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하여

직장에서 호칭이나 지칭의 사용은 각 직장의 직급 체계, 직장 문화, 동료나 선후배 간의 관계나 친밀도 등에 따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2018은 상사나 직급이 같은 동료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것과 같이 아래 직원에 대해서도 존중의 의미가 담긴 호칭이나 지칭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정비 원칙을 삼았다.

O 정비 방향

가. 직급이나 나이의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존중하는 호칭과 지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호칭이나 지칭을 간소화하되 직장 내 문화나 분위기, 관계 등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 쓸 수 있도록 한다.

다. 방송이나 언론 매체 등에 등장하지 않거나 현재 소멸되어 가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호칭이나 지칭은 제외한다.

O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표 비교

1 직장 상사, 동료, 아래 직원에 대한 호칭과 지칭

〔1992〕 직장에서의 호칭, 지칭

		호칭 및 지칭어
동료를	직함 없음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배, ○ 형, (○○) 언니, ○(○○)여사
	직함 있음	○ 과장,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배, ○ 형, ○(○○)여사
상사를	직함 없음	선생님, ○(○○) 선생님, ○(○○) 선배님, ○(○○) 여사
	직함 있음	부장님, ○(○○) 부장님, (총무) 부장님
아래 직원을	직함 없음	○○○ 씨, ○ 형, ○ 선생(님), ○○○ 선생(님), ○(○○)여사, ○ 군, ○ 양
	직함 있음	○ 과장, 총무과장, ○○○ 씨, ○ 형, ○ 선생(님), ○○○ 선생(님)

〔2011〕[표Ⅱ-1] 상사, 직급이 같은 동료, 아래 직원에 대한 호칭, 지칭(2011)

	상사	직급이 같은 동료	아래 직원
호칭 및 지칭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배님, ○○○ 선배님, ○ 여사님, ○○○ 여사님, 부장님, ○ 부장님, ○○○ 부장님, 총무부장님	○○○ 씨, ○○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 선배님, ○ 선배님, ○○○ 선배님, 선배, ○ 선배, ○○○ 선배, 형, ○ 형, ○○ 형, ○○○ 형, 언니, ○○ 언니, ○ 여사, ○○○ 여사,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	○○ 씨, ○○○ 씨,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 ○ 형, ○○ 형, ○○○ 형, ○ 여사, ○○○ 여사, ○ 군, ○○ 군, ○○○ 군, ○ 양, ○○ 양, ○○○ 양,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 총무과장

〔2018〕 상사에 대한 호칭, 지칭

		2011	2018
호칭 및 지칭	직급/직함 있음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총무과장님	=
	직급/직함 없음	선생님, 선배님, ○ 선생님/선배님, ○○○ 선생님/선배님, ○ 여사님, ○○○ 여사님	= ○(○○) 선배

〔2018〕 직급이 같은 동료에 대한 호칭, 지칭

		2011	2018
호칭 및 지칭	직급/직함 있음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	= ○○○ 과장님, ○○ 과장
	직급/직함 없음	○○○ 씨, ○○ 씨, 선생님, 선배(님) ○ 선생(님)/선배(님), ○○○ 선생(님)/선배(님) ○ 여사, ○○○ 여사	= 후배님

〔2018〕 아래 직원에 대한 호칭, 지칭

		2011	2018
호칭 및 지칭	직급/직함 있음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총무과장	
	직급/직함 없음	○○ 씨, ○○○ 씨, ○ 선생(님), ○○○ 선생(님) ○ 여사, ○○○ 여사	= 후배(님)

▌호칭과 지칭▐

1992는 직함의 유무를 기준으로 호칭과 지칭을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2011은 이 구분을 없애고 함께 제시하였다. 직함이나 직급은 직장에서 이름과 함께 중요한 구분의 기준이 되므로 2018은 1992와 같이 직함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다시 살려 제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직함과 직급은 구분되는 것이므로 두 가지를 같이 제시하였다.

직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직함이나 직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호칭이나 지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적인 직군에서는 '직함/직급+님'을 기본으로 하여 부르고, 특정하여 부르거나 이를 때에는 성(姓)과 이름을 직함/직급의 앞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김철수 연구원'을 부를 때는 '연구원님, 김철수 연구원님, 김 연구원님' 등으로 부르는데 친밀한 관계일 때는 이름만 써서 '철수 연구원' 등으로 부를 수도 있다. 나이가 어릴 때는 '김 연구원, 김철수 연구원, 김철수 연구원님'과 같이 직함/직급만 사용하여 부르거나 이른다. 여기서 다양한 모든 직종의 직함을 다룰 수 없으므로 '직함/직급'으로 대신한다.[53]

2017 실태조사에서는 '○○○님'처럼 직급에 상관없이 이름을 부르는 경우나 '○[성씨] 프로'/

53) 1992에는 "전문 직종의 직장에서 쓰이는 호칭어는 제외했다."고 해설에서 밝히고 있는데 전문 직종의 직장의 경우 '성+이름+전문 직종+(님)'의 구성으로 호칭과 지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밝히기 어렵다. 2018 역시 전문 직종의 경우를 따로 밝히지 않는다.

‘○[성씨] 선임(연구원)/‘○[성씨] 책임’ 등 일반적인 직급 체계와 다른 직급 체계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조사되었다. 직장에서 나이나 서열에 따라 위계질서가 잡혀 자유로운 직장 분위기를 해친다는 의견이 있어 직장 문화의 하나로 호칭이나 지칭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하나 아직 모든 직장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8은 일반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호칭이나 지칭의 최소한을 제시하여 호칭이나 지칭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사용에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각 직장에서 자유롭게 정해 쓰는 호칭이나 지칭의 사용은 문제될 것이 없다.

상사에 대한 호칭과 지칭은 직함이 있는 경우 ‘직함+님’을 기본으로 하고 그 앞에 이름이나 성, 부서 등을 붙여 해당 상사를 특정할 수 있다. 직함이 없는 경우는 ‘선배님’과 ‘선생님’을 사용하는데 ‘선생님’의 경우 직함이 없는 동료나 아래 직원에게도 쓸 수 있어 직함이 없는 직원들 간 두루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나 지칭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나이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사님’의 경우도 1992나 2011의 사용을 살려 표에 포함하였다. 한편 직장의 상사 중 나이가 나보다 어리거나 동년배인 경우, 친밀함의 정도가 높은 경우 ‘-님’을 써서 높이는 것이 서로 어색하거나 불편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 선배’ 등을 호칭이나 지칭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때도 물론 상호 호칭이나 지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직장 동료들 간 나이에 따라 ‘형’, ‘언니’ 등으로 부를 수 있으나 이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호칭과 지칭이므로 격식을 갖춰야 하는 ‘직장’이라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1992의 경우 동료 사이에서 직함이 없을 때 ‘○ 형’이나 ‘(○○) 언니’ 등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1은 이를 확대하여 ‘형’, ‘○ 형’, ‘○○ 형’, ‘○○○ 형’, ‘언니’, ‘○○ 언니’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형’이나 ‘언니’ 등의 호칭이나 지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식적인 회의나 다른 직원이 함께 있는 경우 등 격식을 갖춰 부르거나 이르는 것이 필요하므로 ‘형’, ‘언니’ 등의 호칭이나 지칭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식사 시간이나 사적인 대화처럼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서로 양해가 되어 있다면 ‘형’, ‘언니’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적인 상황에서도 ‘○[성씨] 형’의 경우 자칫 상대방을 낮춰 부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아래 직원에게 주로 사용되어 온 ‘군’, ‘양’, ‘미스터’, ‘미스’ 등의 호칭이나 지칭은 상호 존중이나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는 시대적 분위기에 맞지 않으므로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1992에서 ‘김 형’, ‘김 군’, ‘김 양’ 정도 있던 것이 2011에 ‘김 형’, ‘철수 형’, ‘김철수 형’, ‘언니’, ‘영희 언니’ 등이 추가되었고 ‘철수 군’, ‘김철수 군’, ‘김영희 양’ 등이 추가되었는데 2018은 이들을 모두 표에서 제외하였다. ‘군’이나 ‘양’과 같이 나이가 많은 상사가 나이가 어리고 직급이 없거나 차이가 많이 나는 직원에 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별 차이를 드러내는 호칭이나 지칭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사용을 지양하는 편이 좋다. 또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친밀함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형’이나 ‘언니’ 등의 호칭이나 지칭을 직장에서 사용하는 격식적인 호칭이나 지칭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형’과 ‘언니’ 외에 ‘오빠’나 ‘누나’ 등이 제시되지 않은 것도 이성(異性) 간 호칭이나 지칭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기

도 하다.

직급이 아래인 직원이 나이가 많은 경우(직급과 나이가 역전된 경우)도 있는데 직장에서 격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래 직급의 직원을 '형', '언니' 등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직급이 있으면 직급으로, 그 외의 경우 '선생(님)', '○○ 씨' '○○○ 씨' 등으로 부르되 높임말을 써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직급이 낮은 직원에 대해 '후배' 또는 '후배님'을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후배님'은 직급은 낮지만 나이가 많은 직원에 대한 호칭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54] 또 직급이 동일하지만 특별한 직함이나 직급이 없을 경우 나보다 나이가 많다면 '선배(님)'을, 나이가 어리다면 '후배님'을 쓸 수 있겠다.

2 직장 상사, 동료, 아래 직원의 가족

〔1992〕 직장 상사의 가족

		아내	남편	자녀
호칭어		사모님, 아주머니(님)	(○, ○○○) 선생님, (○, ○○○) 과장님	○○[이름], ○○○ 씨, 과장님, (○) 과장(님)
지칭어	당사자에게	사모님, 아주머니(님)	(○, ○○○) 선생님, (○, ○○○) 과장님	○○[이름], ○○○ 씨, (○) 과장(님), 아드님, 따님, 자제분
	해당 상사에게	사모님, 아주머니(님)	(○, ○○○) 선생님, (○, ○○○) 과장님, 바깥 어른	○○[이름], ○○○ 씨, (○) 과장(님), 아드님, 따님, 자제분
	다른 사람에게	사모님, (○, ○○○) 과장(님) 부인(사모님)	(○, ○○○) 과장(님) 바깥 어른(바깥 양반)	(○, ○○○) 과장(님) 아드님(따님, 자제분)

〔2011〕[표Ⅱ-2] 상사의 아내, 남편,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상사의 아내	상사의 남편	상사의 자녀
호칭		사모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 과장님, 여사님, ○ 여사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이름],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지칭	당사자에게	사모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 과장님, 여사님, ○ 여사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이름],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아드님, 따님, 자제분
	해당 상사에	사모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 선생님, ○○○	바깥어른,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아드님, 따님, 자제분, ○○[이름], ○○○ 씨, 과장님,

54) 연구진 회의에서 나이가 많지만 직급이 낮은 직원에게 '후배님'으로 부를 경우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호칭은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쓰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대방이 '후배님'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주의가 필요하다.

	게	선생님, ○ 과장님, ○○○ 과장님, 여사님, ○ 여사님	○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그 밖의 사 람 에 게	사모님, 과장님 부인, ○ 과장님 부인, ○○○ 과장님 부인, 과장 사모님, ○ 과장 사모님, ○○○ 과장 사모님	과장님 바깥어른, ○ 과장님 바깥어른, ○○○ 과장님 바깥어른, 과장님 바깥양반, ○ 과장님 바깥양반, ○○○ 과장님 바깥양반, 과장 바깥양반, ○ 과장 바깥양반, ○○○ 과장 바깥양반	과장님 아드님, ○ 과장님 아드님, ○○○ 과장님 아드님, 과장님 따님, ○ 과장님 따님, ○○○ 과장님 따님, 과장님 자제분, ○ 과장님 자제분, ○○○ 과장님 자제분

〔2018〕 상사의 아내, 남편,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2011			2018		
	상사의 아내	상사의 남편	상사의 자녀	상사의 아내	상사의 남편	상사의 자녀
호칭	사모님, 여사님	선생님	○○[이름], ○○○ 씨	=	=, 사부님	=
지칭	사모님, 여사님 (그 밖의 사람에게)(○, ○○○) 과장(님) 아내(사모님)	선생님, (그 밖의 사람에게)(○, ○○○) 과장(님) 남편(사부님)	아드님, 따님, 자제분, (그 밖의 사람에게)(○, ○○○) 과장(님) 아드님(따님, 자제분)	= 아내분	= 남편분, 사부님	=

〔1992〕 직장 동료 및 아랫사람의 가족

		아내	남편	자녀
호칭어		아주머니(님), 부인	(○, ○○○) 선생님, (○, ○○○) 과장님	○○[이름], ○○○ 씨, 과장님, (○) 과장(님)
지칭어	당사자에게	아주머니(님), 부인	(○, ○○○) 선생님, (○, ○○○) 과장님	○○[이름], ○○○ 씨, (○) 과장(님), 아들(아드님), 딸(따님), 자제분
	해당 동료 및 해당 아랫사람에게	아주머니(님), (자네) (합)부인	(○, ○○○) 선생(님), (○, ○○○) 과장(님), 부군, 바깥 양반	○○[이름], ○○○ 씨, (○) 과장(님), 아들(아드님), 딸(따님), 자제분
	다른 사람에게	(○, ○○○) 과장(님) 부인, ○○○ 씨 부인	(○, ○○○) 과장(님) 바깥 남편(바깥 양반), ○○○ 씨 남편(바깥 양반)	(○, ○○○) 과장(님) 아드님(아들, 따님(딸), 자제분)

〔2011〕[표Ⅱ-3]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 남편,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	동료나 아래 직원의 남편	동료나 아래 직원의 자녀
호칭		○○ 씨, ○○○ 씨, 아주머님, 아주머니, ○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 과장님	○○ 씨, ○○○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이름],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지칭	당사자에게	○○ 씨, ○○○ 씨, 아주머님, 아주머니, ○ 선생님, ○○○ 선생님,	○○ 씨, ○○○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이름],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아드님, 아들, 따님, 딸,

		○ 과장님, ○○○ 과장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자제분
	해당 동료 및 해당 아래 직원에게	아주머님, 아주머니, 부인, ○○ 씨, ○○○ 씨, ○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 과장님	남편, 부군, 바깥양반, ○○ 씨, ○○○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아드님, 아들, 따님, 딸, 자제분, ○○[이름],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그 밖의 사람에게	과장님 부인, ○ 과장님 부인, ○○○ 과장님 부인, 과장 부인, ○ 과장 부인, ○○○ 과장 부인, ○○○ 씨 부인	과장님 남편, ○ 과장님 남편, ○○○ 과장님 남편, 과장 남편, ○ 과장 남편, ○○○ 과장 남편, ○○○ 씨 남편 과장님 바깥양반, ○ 과장님 바깥양반, ○○○ 과장님 바깥양반, 과장 바깥양반, ○ 과장 바깥양반, ○○○ 과장 바깥양반, ○○○ 씨 바깥양반	과장님 아드님, ○ 과장님 아드님, ○○○ 과장님 아드님, 과장님 아들, ○ 과장님 아들, ○○○ 과장님 아들, 과장 아들, ○ 과장 아들, ○○○ 과장 아들, ○○○ 씨 아들, 과장님 따님, ○ 과장님 따님, ○○○ 과장님 따님, 과장님 딸, ○ 과장님 딸, ○○○ 과장님 딸, 과장 딸, ○ 과장 딸, ○○○ 과장 딸, ○○○ 씨 딸, 과장님 자제분, ○ 과장님 자제분, ○○○ 과장님 자제분

[2018]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 남편,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2011			2018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	동료나 아래 직원의 남편	동료나 아래 직원의 자녀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	동료나 아래 직원의 남편	동료나 아래 직원의 자녀
호칭	○○[이름] 씨, ○○○ 씨	○○[이름] 씨, ○○○ 씨	○○[이름], ○○○ 씨	= 아내분, 사모님	= 남편분, 사부님, 선생님,	=
지칭	○○[이름] 씨, ○○○ 씨, 부인, (그 밖의 사람에게) (○, ○○○) 과장(님) 아내(사모님)	○○[이름] 씨, ○○○ 씨, 남편, (그 밖의 사람에게) (○, ○○○) 과장(님) 남편(사부님)	○○[이름], 아들(아드님), 딸(따님), 자제(분), (그 밖의 사람에게) (○, ○○○) 과장(님) 아들(아드님)/딸(따님)/자제(분)	= 아내(분), 사모님	= 남편(분), 사부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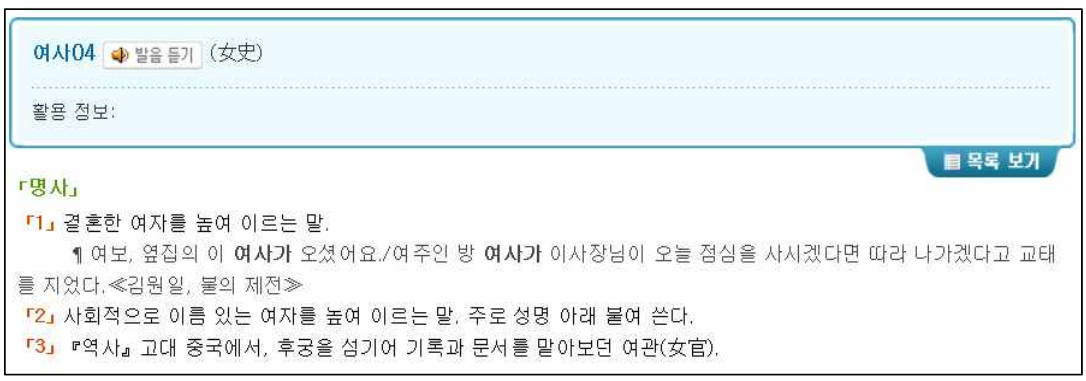
▌호칭과 지칭▐

1992에서 비교적 간단히 제시되어 있던 상사나 동료, 아래 직원의 가족에 대한 내용이 2011에서는 매우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2011에 제시된 내용이 1992에 비해 새롭게 추가된 것이라기보다는 잉여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실제로 직장에서 다른 직원의 가족에 대한 호칭이나 지칭을 쓸 일이 많지 않다고 보아 2018은 2011에 제시된 호칭이나 지칭을 간소화하여 제시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였다. 우선 호칭의 경우 직장 상사의 아내에 대해서는 '사모님'이나 나이가 많을 경우 '여사님', 남편은 '사부님'이나 '선생님'을, 자녀에 대해서는 이름을 부르거나 '이름+씨' 정도로 부르면 될 것이다.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에 대해서는 '사모님', '아내분', 남편에 대해서는 '사부님', '남편분', 자녀에 대해서는 '자제분, 아드님, 따님' 정도를 기본으로 호칭과 지칭을 사용하면 되겠다.

이어 지칭은 호칭과 지칭으로 쓸 수 있고 직장사람의 직함과 관계를 함께 써서 '과장님 아내(분)' 등의 형식으로 쓸 수 있다.

가. 아내에 대하여

직장 상사의 아내에 대해서는 '사모님', '여사님', 남편에 대해서는 '선생님', '사부님', 자녀에 대해서는 이름을 부르거나 '○○ 씨' 정도로 부를 수 있겠다. 동료나 아랫사람의 아내나 남편, 자녀에 대해서는 '○○ 씨', '○○○ 씨'로 부르는데, 2018은 아내에 대해서는 '사모님', 남편에 대해서는 '사부님, 선생님' 등을 추가하였다. 1992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2011에서 상사의 아내가 나이가 많을 것을 고려하여 '여사님'을 호칭으로 쓴 것인데 실제로 사전에 '여사'는 지칭어로서의 용법만 있다. 또 '여사'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있으므로 '-님'을 붙이면 높임이 중복되는 셈이다.


여사04 발음 듣기 (女史)

활용 정보:

목록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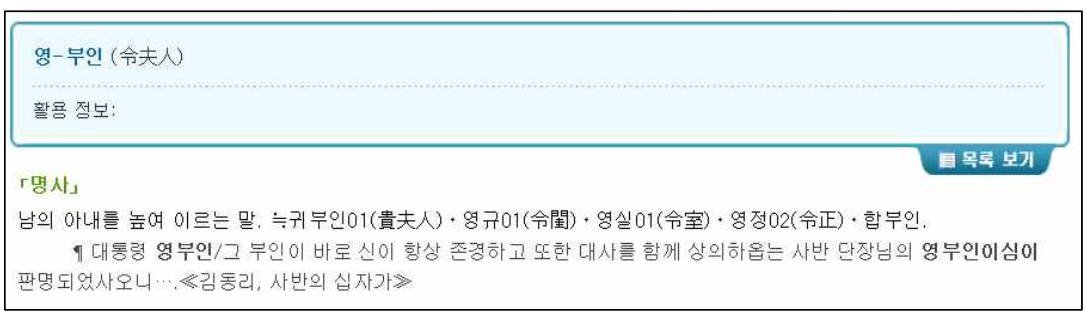
「명사」

「1」 결혼한 여자를 높여 이르는 말.

¶ 여보, 옆집의 이 **여사가** 오셨어요./여주인 방 **여사가** 이사장님이 오늘 점심을 사시겠다면 따라 나가겠다고 교태를 지었다.≪김원일, 불의 제전≫

「2」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여자를 높여 이르는 말. 주로 성명 아래 붙여 쓴다.

「3」 『역사』 고대 중국에서, 후궁을 섬기어 기록과 문서를 맡아보던 여관(女官).


영-부인 (令夫人)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 늑귀부인01(貴夫人)·영규01(令閨)·영실01(令室)·영정02(令正)·합부인.

¶ 대통령 **영부인**/그 부인이 바로 신이 항상 존경하고 또한 대사를 함께 상의하옵는 사반 단장님의 **영부인이심이** 판명되었사오니….≪김동리, 사반의 십자가≫

온라인에는 '여사'와 '여사님'에 대한 온갖 잘못된 해석이 넘치는데 그러다 보니 '여사(님)'의 용법도 잘못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부인을 '영부인'으로 부르는 것이 군사독재 시절의 잔재라 하여 '여사님'으로 부르는 것이 민주적인 의식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야기되는데 '대통령(大統領)'의 '領'이 아니라 '令夫人'의 '令'이므로 '영부인'이 반드시 대통령에만 관련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한편 '여사님'의 경우 요즘은 대통령의 부인을 부르는 호칭부터 직함이 없는 직종의 나이 많은 여성들을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까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2011에 새롭게 제시된 '여사님'의 경우 직함이 없거나 이름을 직접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많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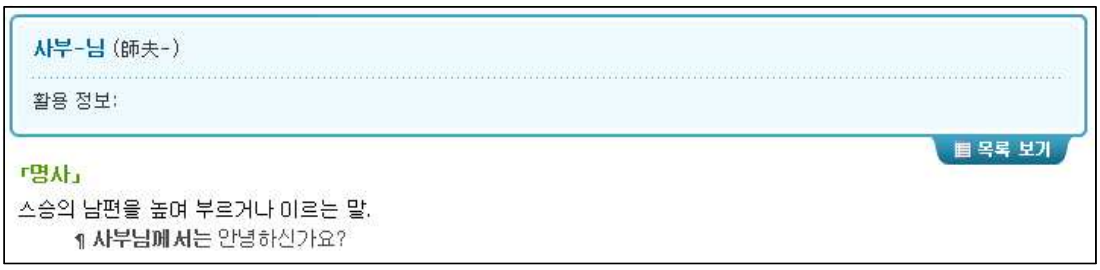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두루 쓸 수 있는 호칭이 된 셈이다. 2018에서도 '여사님'의 호칭으로서의 용법을 인정하되 다만 나이가 많은 상사의 아내에 대해서만 쓰는 것으로 정리한다. 아울러 지칭으로의 용법만 있는 '여사'의 뜻풀이, '여사님'의 표제어로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사전 처리를 바꿔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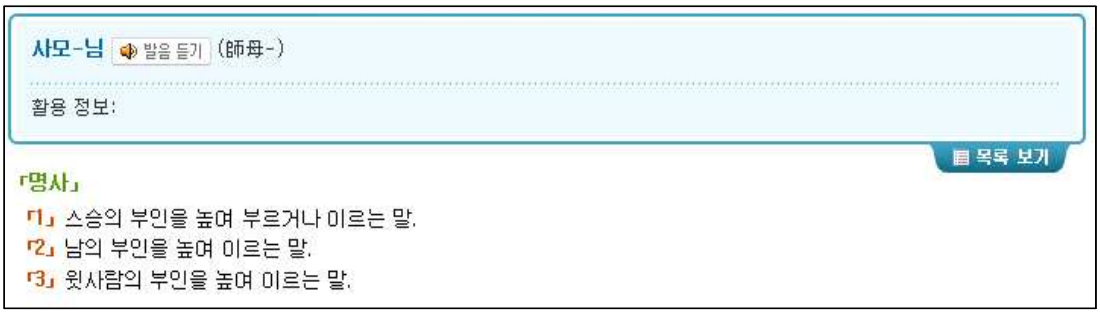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에 대해 1992는 '아주머니(님)'과 '부인'을, 2011은 '아주머니'와 함께 이름이나 직함을 부르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우선 '부인'의 경우 사전 뜻풀이에 따르면 호칭으로의 용법이 없고 젊은 사람을 부르는 말로 사용하기는 어색하다. 1992와 2011에 제시되었던 '아주머니(님)'의 경우 직장 상사, 동료, 아랫사람의 부인에게 모두 쓸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직장 상사, 동료, 아랫사람의 남편에 대해 '아저씨'를 쓰지 않는 점, '아주머니(님)'이 일반적으로 (결혼한) 성인 여자에 대해 사용하거나 형의 아내에 대해 사용하는 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8에서는 제외하였다. 2011은 이름에 '씨'를 붙여 부르는 방법이나 직함을 활용하여 부르는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이름이나 직함을 활용하여 부르는 방법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이름이나 직함을 모를 경우가 있어 2018에서는 '사모님' 정도를 추가하였다.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라고 해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해야 하고 또 나이가 많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가한 것이다.

지칭의 경우 상대방의 직함과 관계를 활용하여 쓸 수도 있는데 '○○○ 과장님 사모님' 또는 '○○○ 과장님 아내분'과 같이 상대방의 직함과 가족관계를 함께 쓰면 될 것이다. 다만 2011의 경우 지나치게 중복하여 제시된 것을 정리하여 2018에서는 간단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 남편에 대하여

상사의 남편에 대하여 1992와 2011 모두 '선생님'을 호칭으로, 직함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직함으로 부르도록 하였다. 아내에 대해 '사모님'을 쓰는 것에 준해 2018에서 언중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여 '사부님'을 추가하였다. 현재 '사부(師夫)님'의 뜻풀이에는 이런 용법이 없으나 '사모님'을 스승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경우 외에도 쓰는 것에 따라 남의 남편을 높여 부르거나 이르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사모님' 역시 남의 부인이나 윗사람의 부인을 이르는 지칭으로의 용법만 있는데 여기에 호칭의 용법을 추가하여 현실적인 사용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동료나 아래 직원의 남편에 대해서도 상사의 가족에게 사용한 호칭이나 지칭에 준해 사용할 수 있다. 동료나 아래 직원 또는 그 가족이라고 해도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모님', '사부님'과 함께 '아내분', '남편분'을 쓸 수 있고 지칭의 경우에는 '아내'나 '남편'을 사용할 수 있다. 2011에 제시된 '바깥양반'의 경우 아내에 대해 '안', 남편에 대해 '바깥'을 써서 구분하던 전통적인 사용을 지양하기로 했으므로 2018 표에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경우 이름을 알고 있다면 이름으로 부르되 어린아이라면 '○○야'로 불러도 되지만 성인이라면 '(○)○○ 씨'로 존중하여 부르는 것이 좋겠다. 상사나 동료, 아래 직원의 자녀에 대해 이름이나 직함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만일 이름이나 직함을 모르는 상태에서 불러야 한다면 호칭과 지칭을 통용할 수 있다고 한 원칙에 따라 '아드님', '따님', '자제분', '○○○ 과장 아드님' 등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지칭을 사용할 때도 상대방의 나이나 친분의 정도에 따라 격식을 갖추거나 높여 불러야 할 경우에는 '아들' 대신 '아드님'을, '딸' 대신 '따님'을, '자녀' 대신 '자제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해설 비교

1 직장 상사, 동료, 아래 직원에 대한 호칭과 지칭

표준 화법 해설(1992)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의 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낸다.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은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도 해서 직장에서의 언어 예절은 매우 조심스럽다.

먼저 ①오늘날 널리 쓰이고 있는 '미스 ○', '미스터 ○'의 '미스', '미스터'는 외국어이므로 어느 경우에도 쓰지 않아야 할 말이다. ②그리고 전문 직종의 직장에서 쓰이는 호칭어는 제외했다.

직함이 없는 동료끼리는 남녀를 불문하고 '○○○ 씨', 상황에 따라 이름만으로 '○○ 씨' 하고, 직종에 따라서는 '선생님' 또는 '○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이 좋다. 친한 사이인 경우 '○○야'처럼 이름만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석이면 몰라도 공적인 직장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선배', '○ 선배님'은 같은 직급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아 '○○○ 씨'라고 하기가 곤란한 경우 쓸

수 있다.

③남자 직원이 동료 남자 직원을 '○ 형'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그냥 '형' 하거나 '○○ 형' 또는 '○○○ 형' 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적인 인상을 주므로 쓰지 않도록 하였다. ③여직원이 남자 직원을 '○ 형'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④여직원이 여직원을 부르는 경우는 '언니'나 '○○ 언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 언니' 또는 '미스 ○ 언니'처럼 부르는 것은 좋지 않다.

과장이 과장을 또는 부장이 부장을 부르는 경우처럼 직함이 있는 동료 사이에는 직함으로 '○ 과장', '○ 부장'처럼 부르거나, 직함이 없는 동료들끼리 부르는 것처럼 부를 수 있다.

⑤직함이 없는 선배 또는 나이가 많은 동료 직원을 부르는 경우는 '○○○ 씨'로 부르기는 어렵다. 이 경우는 꼭 '님'을 붙여 '선배님', '선생님' 또는 '○ 선생님', '○○○ 선배님'처럼 부르도록 했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에서 남자 직원끼리 '○ 형'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족 호칭에서 '형'은 윗사람을 부르는 말이지만 사회에서 '형'은 주로 동년배이거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기 때문이다.

⑥나이 지긋한 여자 직원은 '○ 여사' 또는 '○○○ 여사'라고 부를 수 있다.

직함이 있는 상사를 부를 때는 직함에 '님'을 붙여 '부장님'처럼 부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과장이나 부장이 여럿이 한 자리에 있어 꼭 구분을 해서 말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무부장님' 또는 '○○○ 부장님'처럼 소속이나 이름에 직함을 붙여 부른다.

상사가 직함이 없는 아랫사람을 부를 때는 '○○○ 씨'를 쓰고 아랫사람이라도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 선생(님)', '○○○ 선생(님)'으로 부른다. 남자 직원에게는 '○ 형' 할 수도 있고 나이 든 기혼의 여자 직원에게는 아랫사람이라도 '○ 여사' 할 수 있다. ⑦또 '○○○ 씨' 하기가 어색할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직원에게는 '○ 군' 또는 '○ 양'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부를 때라도 '○○야' 한다거나 '○ 씨'로 부르는 것은 좋지 않다. 공적인 직장에서 '○○야' 하는 것이 어렵고, ⑧또 '○ 씨'의 '씨'가 과거에는 존칭 접미사였지만 오늘날 이름을 넣지 않고 성(姓)만으로 '○ 씨' 하는 표현은 그렇게 높이는 뜻이 없으므로 배제하였다.

⑨직장 언어 예절에는 지칭어와 경어법도 큰 문제가 된다. 지칭어는 대체로 호칭어를 그대로 쓰는데 지칭 대상이 누구이며, 또 누구에게 지칭하는가에 따라 그 지칭어가 달라지고 경어법의 등급이 달라진다.

동료 직원을 동료 직원에게 지칭할 경우 대체로 '○○○ 씨가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처럼 지칭 대상이 말하는 사람과 동급이거나 아래인 경우는 존칭의 조사 '께서'와 '하셨습니다'에서처럼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어미 '-시-'는 쓰지 않는다. 또 듣는 사람과의 친소 관계, 나이 등에 따라 듣는 사람을 대접하는 경어법의 체계가 '했다, 했어, 했네, 했소, 했어요, 했습니다'처럼 달라진다. 그러나 아무리 듣는 사람이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했다'처럼 '해라'체는 쓰지 않는 것이 옳고, 가급적이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뜻에서 높여 말하는 것이 좋다.

지칭 대상이 말하는 사람보다 상급자인 경우, 듣는 사람의 직위와 나이에 따라 '총무과장이',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장님께서' 가운데 어떤 것을 쓰는지, 또 '하시었' 할 것인지 '했'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어렵다. 듣는 사람이 사장이나 부장처럼 과장보다 윗사람이거나 회사 밖의 사람들인 경우에 '총무과장이 이 일을 했습니다'로 말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교육하는 회사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일본어의 어법이지 우리의 전통 언어 예절이 아니다.

윗사람 앞에서 그 사람보다 낮은 윗사람을 낮추는 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가족간이나 사제간처럼 사적인 관계에서는 적용될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장에서 윗사람을 그보다 윗사람에게 지칭하는 경우, '총무과장님께서'는 곤란하여도 '총무과장님이' 하고, 주체를 높이는 '-시-'를 넣어 '총무과장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처럼 높여 말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 예절인 것이다.

'총무과장이 이 일을 했습니다.'로 말해야 한다고 교육 받은 사람들도 실제로는 직속 상관이나 상사를 낮추어 말하는 것이 어려워 어물어물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은 바로 우리의 전통 언어 예절과 일본 예절

이 뒤섞여 생겨난 혼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혼란은 여러 방향에서 바로 잡을 수 있겠지만, 바른 언어 사용도 그 중의 중요한 한 몫이다.

⑩위의 내용은 직급과 나이가 비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연령과 직급이 뒤바뀌어져 있을 때는 일반적인 경어법 사용에 따라 나이를 존중해야 한다.

<71-74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상사, 직급이 같은 동료, 아래 직원에 대한 호칭, 지칭

①먼저 오늘날 널리 쓰이고 있는 '미스 ○', '미스터 ○'의 '미스'와 '미스터'는 외국어이므로 어느 경우에도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말이다. 또, 상사, 동료, 아래 직원에 대한 호칭과 지칭은 상대의 직함과 성별, 상대와의 친밀도 등에 따라 적절한 말을 골라 쓸 수 있다.

상사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은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배님', '○○○ 선배님', '○ 여사님', '○○○ 여사님', '부장님', '○ 부장님', '○○○ 부장님', '총무부장님' 등이다. 직함이 있는 상사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부장님', '○ 부장님', '○○○ 부장님', '총무부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부장'은 상사의 직함을 대표해서 쓴 말이다.) 직함이 있는 상사는 직함에 '-님'을 붙여 '부장님'처럼 부르고 가리킨다. 그리고 과장이나 부장이 여러 명 한 자리에 있어 꼭 구분을 해서 말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무부장님' 또는 '○○○ 부장님'처럼 직함 앞에 부서나 이름을 붙여 부르고 가리킨다.

자기와 직급이 같은 동료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은 '○○○ 씨', '○○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 '선배님', '○ 선배님', '○○○ 선배님', '선배', '○ 선배', '○○○ 선배', '형', '○ 형', '○○ 형', '○○○ 형', '언니', '○○ 언니', '○ 여사', '○○○ 여사',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 등이다.

직함이 없는 동료들끼리는 남녀를 불문하고 '○○○ 씨', 상황에 따라 이름만으로 '○○ 씨', 직종에 따라서는 '선생님' 또는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으로 부르고 가리킨다. 친한 사이인 경우 '○○야'처럼 이름만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석이면 몰라도 공적인 직장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⑤직함이 없는 선배 또는 직급은 같지만 나이가 많은 동료 직원을 '○○○ 씨'로 부르고 가리키기는 어렵다. 이 경우는 '-님'을 붙여 '선배님', '○ 선배님', '○○○ 선배님', '선생님' 또는 '○ 선생님', '○○○ 선생님'처럼 부르고 가리킨다. 상황에 따라 '선배', '○ 선배', '○○○ 선배' 등으로 부르고 가리킬 수도 있다.

③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남자 직원끼리 '○ 형' 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족 호칭, 지칭에서 '형'은 윗사람을 부르고 가리키는 말이지만 사회에서 '형'은 주로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기 때문이다

남자 직원이 동년배이거나 나이 차가 적은 동료 남자 직원을 '형', '○ 형', '○○ 형', '○○○ 형'으로 부르고 가리킬 수 있지만 ③여직원이 남자 직원을 '○ 형'이라고 부르고 가리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④여직원이 여직원을 부르고 가리킬 경우에는 '언니'나 '○○ 언니'라고 할 수 있고 ⑥나이 지긋한 여자 직원에게 '○ 여사' 또는 '○○○ 여사'라고 부르고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 언니' 또는 '미스 ○ 언니'처럼 부르고 가리키는 것은 좋지 않다.

과장이 과장을 부르고 가리키는 경우처럼 직함이 있는 동료 사이에서는 직함을 붙여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처럼 부르고 가리킬 수 있고, 직함이 없는 동료들끼리 부르고 가리키는 것처럼 성, 이름, 성명 뒤에 '씨', '선생님', '선생', '선배님', '선배', '형', '언니', '여사' 등을 붙여 부르고 가리킬 수 있다.

아래 직원을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은 '○○ 씨', '○○○ 씨',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 ‘○ 형’, ‘○○ 형’, ‘○○○ 형’, ‘○ 여사’, ‘○○○ 여사’, ‘○ 군’, ‘○○ 군’, ‘○○○ 군’, ‘○ 양’, ‘○○ 양’, ‘○○○ 양’,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 ‘총무과장’ 등이다.

상사가 직함이 없는 아랫사람을 부르고 가리킬 때는 ‘○○ 씨’, ‘○○○ 씨’를 쓰고 아랫사람이라도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으로 부르고 가리킨다. 동년배이거나 나이 차가 적은 남자 직원에게는 ‘○ 형’, ‘○○ 형’, ‘○○○ 형’ 할 수도 있고 나이 든 기혼의 여자 직원에게는 아랫사람이라도 ‘○ 여사’, ‘○○○ 여사’ 할 수 있다. ⑦또 ‘○○○ 씨’ 하기가 어색할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직원에게는 ‘○ 군’, ‘○○ 군’, ‘○○○ 군’ 또는 ‘○ 양’, ‘○○ 양’, ‘○○○ 양’으로 부르고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부를 때라도 ‘○○야’ 한다거나 ‘○ 씨’로 부르는 것은 좋지 않다. 공적인 직장에서 ‘○○야’ 하는 것이 어렵고, ⑧또 ‘○ 씨’의 ‘씨’가 과거에는 존칭이었지만 오늘날 이름을 넣지 않고 성(姓)만으로 ‘○ 씨’ 하는 표현은 높이는 느낌이 거의 없으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아랫사람에게 직함이 있는 경우에는 직함을 붙여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 ‘총무과장’처럼 부르고 가리킬 수 있다. 직급이 같은 아랫사람 여럿이 한 자리에 있어 구분해서 말해야 할 때에는 ‘○○○ 과장’처럼 이름에 직함을 붙여 부르고 가리킨다.

<123-1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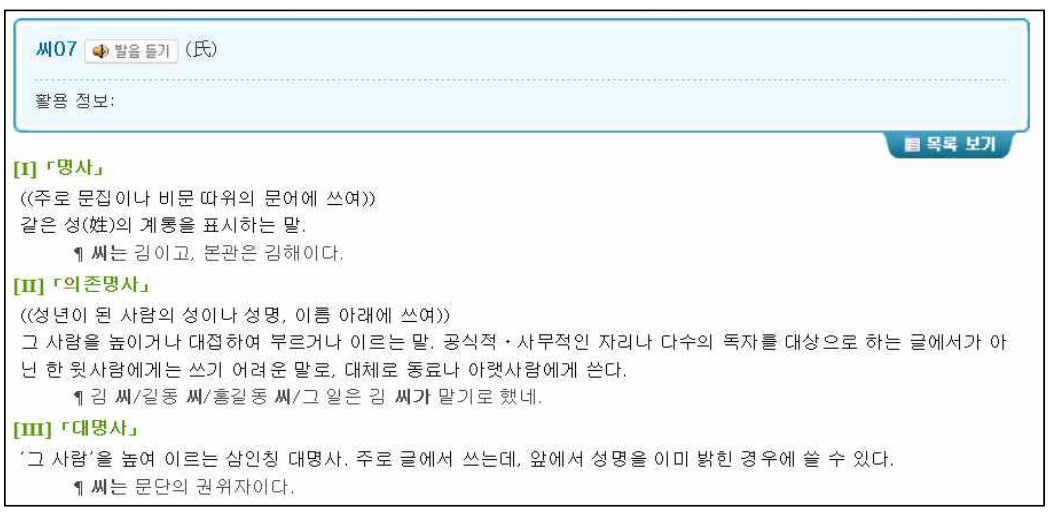
직장에서 직원들 간의 호칭과 지칭도 1992와 2011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1992에는 직장 내에서 지켜야 할 경어법까지 다루고 있는 반면 2011에는 호칭과 지칭에 대한 것만 다루고 있는 점이 다르다. 표의 내용 역시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 해설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②는 직장에서의 호칭과 지칭을 정하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2에 명시되어 있다가 2011에 빠진 기술이다. 실제로 많은 직업들이 각 직종에서 쓰이는 고유한 호칭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전문 직종들의 경우 그 직종의 이름에 성을 붙여 부르는 호칭이 널리 쓰이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다루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2018도 1992의 원칙에 따라 ‘○ 선생(님)’, ‘○ 박사(님)’, ‘○ 기사(님)’, ‘○ 명장(님)’, ‘○ 요리사(님)’ 등 다양한 전문 직종의 호칭을 따로 언급하지 않지만 ‘○ 직종(님)’, ‘○○○ 직종(님)’ 등의 형식으로 호칭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①의 ‘미스’, ‘미스터’는 이미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후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③의 동료 직원끼리 ‘○ 형’으로 부르거나 동년배이거나 나이가 적은 직원에게 ‘○ 형’ 등으로 부르는 일도 많지 않다. ‘○ 형’이 상대방을 낮춰 대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인데 같은 맥락에서 ‘○ 씨’ 역시 직급이 낮다거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 여자 직원이 남자 직원에게 ‘○ 형’으로 부를 수 없다는 기술 역시 적절하지 않다. 여자 직원과 남자 직원이라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호칭 자체가 갖고 있는 ‘낮춤’의 의미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남자 직원 간에는 ‘형’이나 ‘○○ 형’, ‘○○○ 형’, 여자 직원 간에는 ④와 같이 ‘언니’나 ‘○○ 언니’와 같은 호칭을 쓸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직장이라는 공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사적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형’이나 ‘언니’ 등의 호칭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오빠’나 ‘누나’ 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결국 직장에서 동성 간에는 친족 호칭어를 쓰지만 이성 간에는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는 셈이다. 2018은 이들을 모두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공식적인 장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하였다.

⑤는 ‘씨’에 관한 문제인데 직급이 같더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직함이 없는 선배에 대해서는 ‘○○○ 씨’로 부르기 어려우므로 ‘선배(님)’이나 ‘선생(님)’을 쓰도록 한 것이다. ‘씨’가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이 없어졌다고 보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사전 뜻풀이에도 동료나 아랫사람을 대상으로 쓰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은 상대방에 대해 ‘씨’를 쓰기 어렵고 ‘선배(님)’나 ‘선생(님)’ 등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더하여 ⑧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부를 때도’ ‘○씨’를 사용하는 것은 ‘높이는 느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55]


씨07 발음 듣기 (氏)

활용 정보:

목록 보기

[I] 「명사」

((주로 문집이나 비문 따위의 문어에 쓰여))

같은 성(姓)의 계통을 표시하는 말.

¶ **씨**는 김이고, 본관은 김해이다.

[II] 「의존명사」

((성년이 된 사람의 성이나 성명, 이름 아래에 쓰여))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 공식적·사무적인 자리나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서가 아닌 한 윗사람에게는 쓰기 어려운 말로, 대체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쓴다.

¶ 김 **씨**/길동 **씨**/홍길동 **씨**/그 일은 김 **씨가** 맡기로 했네.

[III] 「대명사」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삼인칭 대명사. 주로 글에서 쓰는데, 앞에서 성명을 이미 밝힌 경우에 쓸 수 있다.

¶ **씨**는 문단의 권위자이다.

⑥ ‘여사’는 최근 많이 쓰이는 호칭어로, 지칭이 호칭으로 용법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나이가 많은 여성에게 쓰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여사’라는 호칭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⑦은 ‘군(君)’과 ‘양(孃)’에 관한 것으로 하게체의 사용이 축소되면서 자연스럽게 ‘군’과 ‘양’의 사용도 축소되고 있다.

한편 1992의 ⑨ 이하는 2011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분으로 직장 내 경어법에 관한 설명이다. 직장 내에서 지칭과 함께 높임 표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압존법과 관련하여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1992의 ⑩은 『표준 화법 해설』(1992)의 기술이 연령과 직급이 비례하는 경우에 따라 기술된 것이며 연령과 직급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어법을 따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나이와 직급이 충돌하였을 때 직급보다는 나이를 우선해서 높임법을 사용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직장 내에서 흔히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2018도 상사에 대한 호칭 중 ‘○(○○) 선배’ 등의 호칭을 두어 나이와 직급이 역전되었을 때 서로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추가하였다. 상사라고 해서 아래 직원에게 하대를 하거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래 직원이 상사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추후 좀더 세밀한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다.

55) 직장 내에서 직급의 상하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분류이기는 하지만 ‘상사’나 ‘부하 직원’ 등 직장 내 서열을 드러내는 용어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2 직장 상사, 동료, 아래 직원의 가족

표준 화법 해설(1992)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물건을 사고 팔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길을 물을 때처럼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 모두를 우리는 정중한 마음으로 서로 부르고 가리켜야 한다.

직장 상사의 가족

①직장 상사의 아내는 '사모님', '아주머니(님)'로 부르도록 정했다. '사모님'은 원래 스승의 아내를 부르고 가리키는 말이었으므로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윗사람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로 확대되어 쓰이는 것을 인정하였다. 직함[이하 과장으로 대표시킴]이 있으면 '(○) 과장님'처럼 부를 수도 있다. 당사자에게나 해당 상사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어를 그대로 쓰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모님', '(○, ○○○) 과장(님) 부인(사모님)'으로 가리킨다.

직장 상사의 남편을 호칭할 때나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 ○○○) 선생님', '(○, ○○○) 과장님'을 표준으로 정했다. ②해당 여자 상사에게 지칭할 때는 '(○, ○○○) 선생님', '(○, ○○○) 과장님', '바깥 어른'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는 '(○, ○○○) 과장(님) 바깥 어른(바깥 양반)'으로 지칭하도록 했다.

직장 상사의 자녀를 부르는 말은 '○○[이름]', '○○○ 씨', 직함이 있으면 '(○) 과장(님)'을 쓰도록 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적절히 쓰도록 한 것이다. 당사자와 해당 상사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어와 '아드님', '따님', '자제분'을 쓰도록 했고,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 ○○○) 과장(님) 아드님(따님, 자제분)'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81-83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직장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호칭, 지칭
상사의 아내, 남편, 자녀

①직장 상사의 아내는 '사모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 과장님', '여사님', '○ 여사님'으로 부른다. '사모님'은 원래 스승의 아내를 부르고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윗사람의 아내를 부르는 말로 확대되었으므로 '사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또, 보편적인 호칭으로 많이 쓰이는 '아주머님', '아주머니'나 '○ 선생님', '○○○ 선생님'으로 부를 수도 있고, 직장 상사 아내의 직함을 알면 '○ 과장님', '○○○ 과장님'처럼 부를 수도 있다. (직함으로 부르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직함을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직장 상사의 아내를 당사자나 해당 상사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인 '사모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 과장님', '여사님', '○ 여사님'을 그대로 쓰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사모님', '과장님 부인', '○ 과장님 부인', '○○○ 과장님 부인', '과장님 사모님', '○ 과장님 사모님', '○○○ 과장님 사모님' 등으로 가리킨다.

직장 상사의 남편을 호칭할 때나 당사자, 해당 상사에게 지칭할 때는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을 쓴다. ②직장 상사의 남편을 해당 상사에게 '바깥어른'으로 가리킬 수 있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과장님 바깥어른', '○ 과장님 바깥어른', '○○○ 과장님 바깥어

른', '과장님 바깥양반', '○ 과장님 바깥양반', '○○○ 과장님 바깥양반', '과장 바깥양반', '○ 과장 바깥양반', '○○○ 과장 바깥양반' 등으로 지칭한다.

직장 상사의 자녀를 부르는 말은 '○○[이름]',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이다. 직장 상사 자녀의 나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호칭으로 부를 수 있는데 가령 상사의 자녀가 동년배이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상사의 자녀를 당사자와 해당 상사에게 지칭할 때는 '아드님', '따님', '자제분'을 쓰고 그 밖에 '○○[이름]',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을 쓴다. 상사의 자녀가 동년배이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그 당사자에게 '선생님'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과장님 아드님', '○ 과장님 아드님', '○○○ 과장님 아드님', '과장님 따님', '○ 과장님 따님', '○○○ 과장님 따님', '과장님 자제분', '○ 과장님 자제분', '○○○ 과장님 자제분'이라고 한다.

<126-127쪽>

표준 화법 해설(1992)

직장 동료 및 아랫사람의 가족

①직장 동료의 아내에 대한 호칭어는 '아주머니(님)', '부인'으로 정했는데 직함이 있으면 '(○) 과장(님)'처럼 부를 수 있다.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어를 그대로 쓴다. 해당 동료에게는 '아주머니(님)', '(자네) (합) 부인'으로 지칭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 ○○○) 과장(님) 부인', '○○○ 씨 부인'처럼 해당 동료의 호칭어에 '부인'을 붙여 지칭한다.

직장 동료의 남편에 대한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은 '(○, ○○○) 선생(님)', '(○, ○○○) 과장(님)'으로 정했다. ②해당 동료에게는 호칭어와 '부군', '바깥 양반'으로 지칭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 ○○○) 과장(님) 남편(바깥 양반)', '○○○ 씨 남편(바깥 양반)'으로 지칭하도록 했다.

자녀를 부르는 말은 '○○[이름]', '○○○ 씨', '(○) 과장(님)'으로 정했다. 당사자와 해당 동료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어와 '아들(아드님)', '딸(따님)', '자제분'을 쓰도록 했다. 당사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자네', '너'라고 지칭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 ○○○) 과장(님) 아드님(아들, 딸, 따님, 자제분)'으로 지칭하도록 했다.

직장 아랫사람의 가족에 대한 호칭어와 지칭어는 동료 가족의 그것과 같다.

<82-83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직장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호칭, 지칭
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 남편, 자녀

①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 씨', '○○○ 씨', '아주머님', '아주머니', '○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 과장님'이다. 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를 당사자, 해당 동료 및 해당 아래 직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인 '○○ 씨', '○○○ 씨', '아주머님', '아주머니', '○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 과장님'을 그대로 쓴다.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를 해당 동료 및 해당 아래 직원에게 '부인'으로 지칭할 수 있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과장님 부인', '○ 과장님 부인', '○○○ 과장님 부인', '과장 부인', '○ 과장 부인', '○○○ 과장 부인', '○○○ 씨 부인'처럼 해당 동료의 호칭에 '부인'을 붙여 지칭한다.

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 씨’, ‘○○○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이다. 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남편을 그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도 호칭과 같은 ‘○○ 씨’, ‘○○○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이다. ②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남편을 해당 동료나 아래 직원에게는 ‘남편’, ‘부군’, ‘바깥양반’으로 지칭하고 호칭인 ‘○○ 씨’, ‘○○○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도 쓸 수 있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과장님 남편’, ‘○ 과장님 남편’, ‘○○○ 과장님 남편’, ‘과장 남편’, ‘○ 과장 남편’, ‘○○○ 과장 남편’, ‘○○○ 씨 남편’, ‘과장님 바깥양반’, ‘○ 과장 바깥양반’, ‘○○○ 과장 바깥양반’, ‘○○○ 씨 바깥양반’으로 지칭한다.

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자녀를 부르는 말은 ‘○○[이름]’,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이다. 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자녀를 그 당사자와 해당 동료 및 해당 아래 직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인 ‘○○[이름]’,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과 그 밖에 ‘아드님’, ‘아들’, ‘따님’, ‘딸’, ‘자제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황에 따라 당사자에게는 ‘자네’, ‘너’라고 지칭할 수 있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과장님 아드님’, ‘○ 과장님 아드님’, ‘○○○ 과장님 아드님’, ‘과장님 아들’, ‘○ 과장님 아들’, ‘○○○ 과장님 아들’, ‘과장 아들’, ‘○ 과장 아들’, ‘○○○ 과장 아들’, ‘○○○ 씨 아들’, ‘과장님 따님’, ‘○ 과장님 따님’, ‘○○○ 과장님 따님’, ‘과장님 딸’, ‘○ 과장님 딸’, ‘○○○과장님 딸’, ‘과장 딸’, ‘○ 과장 딸’, ‘○○○ 과장 딸’, ‘○○○씨 딸’, ‘과장님 자제분’, ‘○ 과장님 자제분’, ‘○○○ 과장님 자제분’ 등으로 가리킨다.

<129-130쪽>

앞서 직장 사람들의 가족에 대해 1992나 2011의 표에서 자세히 언급된 것을 2018에서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해설 역시 같은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①은 직장 상사, 동료, 부하 직원의 아내를 ‘아주머니(님)’로 부르는 문제인데 직장 상사, 동료, 부하 직원의 남편을 ‘아저씨’로 부르지 않는다는 점, ‘아주머니’가 일반적인 성인 여자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로 쓰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8은 표에서 제외하였다. 이어 ② ‘바깥양반’의 경우 역시 ‘안’과 ‘밖’, ‘바깥’ 등의 구분 표지를 지양한다는 점에서 남편에 대한 지칭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였다.

o <소통을 위한 언어예절>(2018) 정비안

[2018] 상사에 대한 호칭, 지칭

		2011	2018
호칭 및 지칭	직급/직함 있음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총무과장님	=
	직급/직함 없음	선생님, 선배님, ○ 선생님/선배님, ○○○ 선생님/선배님, ○ 여사님, ○○○ 여사님	= ○(○○) 선배

[2018] 직급이 같은 동료에 대한 호칭, 지칭

		2011	2018
호칭 및 지칭	직급/직함 있음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	= ○○○ 과장님 ○○ 과장
	직급/직함 없음	○○○ 씨, ○○ 씨, 선생님, 선배(님) ○ 선생(님)/선배(님), ○○○ 선생(님)/선배(님) ○ 여사, ○○○ 여사	= 후배님

[2018] 아래 직원에 대한 호칭, 지칭

		2011	2018
호칭 및 지칭	직급/직함 있음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총무과장	=
	직급/직함 없음	○○ 씨, ○○○ 씨, ○ 선생(님), ○○○ 선생(님) ○ 여사, ○○○ 여사	= 후배(님)

[2018] 상사의 아내, 남편,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2011			2018		
	상사의 아내	상사의 남편	상사의 자녀	상사의 아내	상사의 남편	상사의 자녀
호칭	사모님, 여사님	선생님	○○[이름], ○○○ 씨	=	=, 사부님	=
지칭	사모님, 여사님 (그 밖의 사람에게)(○, ○○○) 과장(님) 아내(사모님)	선생님, (그 밖의 사람에게)(○, ○○○) 과장(님) 남편(사부님)	아드님, 따님, 자제분, (그 밖의 사람에게)(○, ○○○) 과장(님) 아드님(따님, 자제분)	= 아내분	= 남편분, 사부님	=

[2018]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 남편,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2011			2018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	동료나 아래 직원의 남편	동료나 아래 직원의 자녀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	동료나 아래 직원의 남편	동료나 아래 직원의 자녀
호칭	○○[이름] 씨, ○○○ 씨	○○[이름] 씨, ○○○ 씨	○○[이름], ○○○ 씨	= 아내분, 사모님	= 남편분, 사부님, 선생님,	=
지칭	○○[이름] 씨, ○○○ 씨, 부인, (그 밖의 사람에게) (○, ○○○) 과장(님) 아내(사모님)	○○[이름] 씨, ○○○ 씨, 남편, (그 밖의 사람에게) (○, ○○○) 과장(님) 남편(사부님)	○○[이름], 아들(아드님), 딸(따님), 자제(분), (그 밖의 사람에게) (○, ○○○) 과장(님) 아들(아드님)/딸(따님)/자제(분)	= 아내(분), 사모님	= 남편(분), 사부님	=

4.2.2. 지인에 대하여

1992에서 친구와 그 가족에 대한 것은 ‘타인에 대하여’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비해 2011에서는 친구의 가족과 부모의 친구에 대한 호칭과 지칭을 따로 떼어 ‘지인에 대하여’로 제시하였는데 주로 ‘친구’에 관련한 것을 다루고 있으므로 장의 제목이 적절하지는 않다. ‘지인(知人)’은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아주 친한 친구부터 공적인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사람까지 친밀함에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한 범주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적인 친밀함이 큰 ‘친구와 친구의 가족’에 대한 호칭이나 지칭은 여기서 다루고 그 외 친근함이나 사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지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나이,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직장에서의 호칭과 지칭에 준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 정비 방향

가. 성별이나 나이의 비대칭성을 보여주는 표현 등은 지양한다.
나. 친구와 그 가족에 대해 나의 가족에게 사용하는 호칭과 지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방송이나 언론 매체 등에 등장하지 않거나 현재 소멸되어 가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호칭이나 지칭은 제외한다.

-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표 비교

[1] 친구의 배우자

〔1992〕 친구의 아내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아주머니, (○)○○ 씨, ○○ 어머니, 부인, ○ 여사, ○ 과장(님)
지칭어	해당 친구에게	(자네) (합)부인, ○○ 어머니
	아내에게	○○(씨) 부인, ○○ 어머니, ○ 과장 부인
	자녀에게	○○ 어머니, (지역 이름) 아주머니
	다른 친구에게	○○(씨) 부인, (○)○○ 씨, ○○ 어머니, ○과장 부인

〔2011〕[표Ⅱ-4] 친구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아주머니,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여사, 여사님, ○ 여사님, 과장님, ○ 과장님, ○ 선생, 선생님, ○ 선생님
지칭	당사자에게	아주머니,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여사, 여사님, ○ 여사님, 과장님, ○ 과장님, ○ 선생, 선생님, ○ 선생님
	해당 친구에게	부인, 집사람, 안사람,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과장님
	아내에게	○○[친구] 부인, ○○[친구] 집사람, ○○[친구] 안사람, ○○[친구] 처, ○○[친구] 씨 부인,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과장 부인, ○ 과장님
	자녀에게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 ○ 과장님
	다른 친구에게	○○[친구] 부인, ○○[친구] 집사람, ○○[친구] 안사람, ○○[친구] 처, ○○[친구] 씨 부인,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과장 부인

〔2018〕 친구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 씨, ○○○ 씨, ○○[친구 자녀] 엄마/어머니 아주머니, 여사님, 선생님, ○ 여사(님), ○ 선생(님), ○ 과장(님)
지칭	○○ 씨, ○○○ 씨, ○○[친구 자녀] 엄마/어머니 (당사자에게) ○ 여사(님) (해당 친구에게) 아내, 부인 (나의 아내, 다른 친구에게) ○○[친구] 아내, ○ 과장 부인 (나의 자녀에게) 아주머니, 아줌마, ○○[지역] 아주머니

▌호칭과 지칭▐

친구의 아내에 대해 1992와 2011은 다양한 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름에 '씨'를 붙여 쓰거나 자녀의 이름을 넣어 '○○ 엄마'로 부르거나 이를 수도 있다. 아주머니를 쓸 수도 있고 직함을 알고 있는 경우 직함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제시된 호칭이나 지칭은 정답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쓰임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1992에 있는 '합부인(閤夫人, =영부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8에서는 제외하였다. 한편 1992에서는 없었지만 2011은 현실적인 사용에 따라 '집사람'이나 '안사람'을 쓰도록 하였는데, 앞서 아내에 대해 '집사람'이나 '안사람' 등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과 맞추어 친구의 아내에 대해서도 '집사람'이나 '안사람'은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친구의 아내를 지칭해야 한다면 '부인'이나 '처', '아내' 등으로 표현하면 될 것이다. 공통적으로 호칭과 지칭 모두 '이름+씨'의 형식으로 쓰되 이름을 부르기 어렵거나 모른다면 일반적으로 여성을 높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 '여사(님)'나 '부인' 등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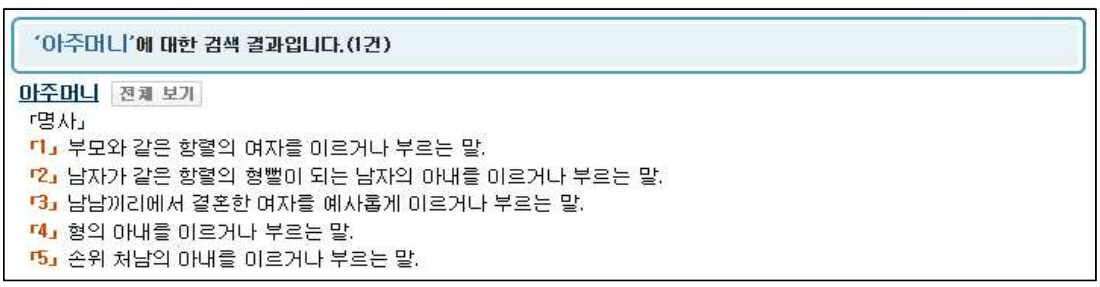
한편 친구의 아내에 대한 호칭과 지칭을 '제수씨'로 할 수도 있다. 심층 면담이나 설문조사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또는 '사용해도 좋다'는 등의 사례들이 확인되었고 친구 간이 형제처럼 친밀하다면 가족관계의 호칭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56] 다만 사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호칭이나 지칭을 여기에 제시할 수 없어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자녀에게 친구의 아내를 지칭할

56) 2017 실태조사에서 친구의 아내에 대한 호칭으로 62.6%가 '제수씨'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 씨'(28.5%), '○○ 엄마'(11.5%) 순이었다. (2017 실태조사 44쪽)

때 ‘아주머니’나 ‘아줌마’(자녀가 어릴 경우)를 기본으로 쓴다.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친구나 친구의 아내를 ‘아저씨’, ‘아주머니’ 등으로 지칭했다면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동일한 지칭을 사용하면 된다.

최근 부모의 여자 친구에 대한 호칭이나 지칭으로 ‘이모’, 남자 친구에 대한 호칭이나 지칭으로 ‘삼촌’을 쓰는 경우가 있다. 이를 2018에서 ‘부모의 친구’를 다루면서 표에 반영하였다. 그러한 용법을 고려한다면 나의 자녀에게 친구를 지칭할 때도 ‘이모’나 ‘삼촌’으로 지칭할 수 있다. 특히 가족관계 내의 ‘이모’나 ‘삼촌’과 구분하기 위해 지역이나 직업 등 다양한 구분 표지도 함께 사용하는데 연구진 회의에서 이를 표에 포함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일단 언중의 사용 양상을 조금 더 관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표에 포함하는 것은 우선 유보하였다.

친구를 직함으로 부를 수 있으므로 직함에 기댄 호칭이나 지칭의 사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김 과장 부인’, ‘김 선생 부인’, ‘김 연구원 부인’ 등으로 쓸 수 있는데 이처럼 관계에 기댄 호칭이나 지칭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친구의 아내가 특정한 직함을 가지고 있고 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친구 아내의 직함을 직접 부르거나 이르는 것도 괜찮다.


‘아주머니’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1건)

아주머니 전체 보기

「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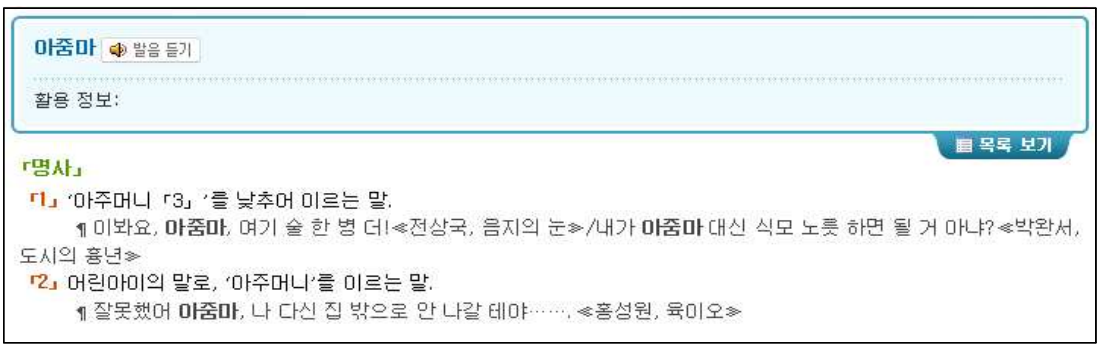
「1」 부모와 같은 항렬의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2」 남자가 같은 항렬의 형뻘이 되는 남자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3」 남남끼리에서 결혼한 여자를 예사롭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4」 형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5」 손위 처남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아줌마 발음 듣기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1」 ‘아주머니 「3」’를 낮추어 이르는 말.

¶ 이봐요, **아줌마**, 여기 술 한 병 더!≪전상국, 음지의 눈≫/내가 **아줌마** 대신 식모 노릇 하면 될 거 아냐?≪박완서, 도시의 흉년≫

「2」 어린아이의 말로, ‘아주머니’를 이르는 말.

¶ 잘못했어 **아줌마**, 나 다신 집 밖으로 안 나갈 테야……, ≪홍성원, 육이오≫

[1992] 친구의 남편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 씨, ○○ 아버지, (○) 과장님, (○) 선생님
지칭어	해당 친구에게	(○)○○ 씨, ○○ 아버지, (○) 과장님, 너희 남편(바깥 양반)
	남편에게	○○ 남편(바깥 양반), (○) 과장님
	자녀에게	○○ 아버지, (지역 이름) 아저씨, (○) 과장님
	다른 친구에게	○○ 남편(바깥 양반)

〔2011〕 [표Ⅱ-5] 친구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 씨, ○○○ 씨,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과장님, ○ 과장님, 선생님, ○ 선생님
지칭	당사자에게	○○ 씨, ○○○ 씨,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과장님, ○ 과장님, 선생님, ○ 선생님
	해당 친구에게	남편, 바깥양반, ○○ 씨, ○○○ 씨,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 과장님
	남편에게	○○[친구] 남편, ○○[친구] 바깥양반, ○○[친구] 씨 남편,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 과장 남편, ○ 과장님
	자녀에게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아저씨, ○○[지역] 아저씨, ○ 과장님
	다른 친구에게	○○[친구] 남편, ○○[친구] 바깥양반, ○○[친구] 씨 남편, ○○ 씨, ○○○ 씨,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 과장 남편

〔2018〕 친구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 씨, ○○○ 씨, ○○[친구 자녀] 아빠/아버지, 선생님, ○ 과장님
지칭	○○ 씨, ○○○ 씨, ○○[친구 자녀] 아빠/아버지 (당사자에게) ○ 선생(님) (해당 친구에게) 남편 (나의 아내, 다른 친구에게) ○○[친구] 남편, ○ 과장 남편 (나의 자녀에게) 아저씨, ○○[지역] 아저씨

▌호칭과 지칭▐

친구의 남편도 친구의 아내에 준해 처리하였다. 2011과 같이 복잡하게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2018은 1992와 2018의 대표적인 예들을 간단히 추려 제시하였는데 이를 활용하여 상황에 맞게 쓰면 될 것이다. 한편 '바깥양반'은 위에서 '집사람', '안사람' 등을 표에서 제외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외한다.

앞서 '친구의 아내'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녀에게 지칭할 때 '삼촌'이라는 가족관계의 어휘를 활용할 수 있다. 친삼촌과 구분하기 위해 '서울 삼촌' 등과 같이 구분 표지를 붙여 지칭할 수도 있는데 최근 이러한 활용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표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하였다.

2 배우자의 친구

〔1992〕 남편의 친구

호칭어 및 자녀 이외의 사람에게 지칭	(○)○○ 씨, ○○ 아버지, (○) 과장님, (○, ○○○) 선생님
자녀에게 지칭	○○ 아버지, (지역 이름) 아저씨, (○) 과장님

〔2011〕 [표Ⅱ-6] 남편의 친구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 씨, ○○○ 씨,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지칭	당사자에게	○○ 씨, ○○○ 씨,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남편에게	○○ 씨, ○○○ 씨,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 ○ 과장님, ○○○ 과장님, ○ 선생님, ○○○ 선생님
	자녀에게	아저씨, ○○[지역] 아저씨,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 ○ 과장님
	그 밖의 사람에게	○○ 씨, ○○○ 씨,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 ○ 과장님, ○○○ 과장님, ○ 선생님, ○○○ 선생님

〔2018〕 배우자의 남자 친구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 씨, ○○○ 씨, ○○[배우자 친구의 자녀] 아버지/아빠, (○, ○○○) 과장님
지칭	(당사자, 배우자, 그 밖의 사람에게) ○○ 씨, ○○○ 씨, ○○[배우자 친구의 자녀] 아버지/아빠, (○, ○○○) 과장님 (자녀에게) 아저씨, ○○[지역] 아저씨

〔1992〕 아내의 친구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 씨, ○○ 어머니, 아주머니, ○ 선생(님) (○) 과장(님), ○ 여사(님)
지칭어	아내에게	(○)○○ 씨, ○○ 어머니, ○ 과장, ○ 선생
	자녀에게	(지역 이름) 아주머니, ○○ 어머니

〔2011〕[표Ⅱ-7] 아내의 친구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 씨, ○○○ 씨, ○○[아내 친구의 자녀] 어머니, 아주머니, ○ 선생,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 여사, 여사님, ○ 여사님, ○○○ 여사님
지칭	당사자에게	○○ 씨, ○○○ 씨, ○○[아내 친구의 자녀] 어머니, 아주머니, ○ 선생,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 여사, 여사님, ○ 여사님, ○○○ 여사님
	아내에게	○○ 씨, ○○○ 씨, ○○[아내 친구의 자녀] 어머니, ○ 과장님, ○○○ 과장님, ○ 선생, ○ 선생님, ○○○ 선생님
	자녀에게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 ○○[아내 친구의 자녀] 어머니, ○ 과장님
	그 밖의 사람에게	○○ 씨, ○○○ 씨, ○○[아내 친구의 자녀] 어머니, ○ 과장님, ○○○ 과장님, ○ 선생님, ○○○ 선생님

〔2018〕 배우자의 여자 친구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 씨, ○○○ 씨, ○○[배우자 친구의 자녀] 어머니/엄마, (○, ○○○) 과장님
지칭	(당사자, 배우자, 그 밖의 사람에게) ○○ 씨, ○○○ 씨, ○○[배우자 친구의 자녀] 어머니/엄마, (○, ○○○) 과장님 (자녀에게) 아주머니/아줌마, ○○[지역] 아주머니/아줌마

▌호칭과 지칭▐

1992와 2011의 경우 남편의 친구, 아내의 친구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는데 실제 표 안의 호칭과 지칭의 어휘를 확인해 보면 동성 간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은 이성 간 친구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아 제목을 바꾸어 '배우자의 남자 친구'와 '배우자의 여자 친구'로 처리하였다.

배우자의 친구에 대해서는 이름에 '씨'를 붙여 부르거나 친구 자녀의 이름에 기대 '○○ 아버지/아빠', '○○ 어머니/엄마' 등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우자의 친구에 대한 호칭에서 '아주머니'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나이가 많은 성인 남자의 경우 친구의 아내에 대해 '아주머니'를 쓰기도 하지만 아내의 여자 친구에 대해서도 '아주머니'를 쓰는 것은 어색하다. '아주머니'가 일반적인 중년 여성을 두루 이르고 부르는 말로 쓰임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잘 알고 있는 사이에서는 쓰임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배우자의 남자 친구에 대한 호칭 중 '아저씨'는 없다. 자녀에게는 배우자의 남자 친구는 '아저씨', 여자 친구는 '아주머니'나 '아줌마'로 지칭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을 구분 표지로 활용하여 '○○[지역 이름] 아저씨'나 '○○[지역 이름] 아주머니/아줌마'로 지칭할 수도 있다.

한편 가족과 같이 가까운 부모의 친구에 대해서는 '삼촌'이나 '이모' 등의 가족관계 호칭어를 쓰도록 한 것과 맞추어 보면 지칭에서도 '삼촌', '○○[친구 이름] 삼촌', '이모', '○○[친구 이름] 이모' 등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배우자의 친구에 대해 매우 친밀한 관계라면 나이나 성별에 따라 '형', '누나', '동생', '오빠', '언니' 등의 형제간 호칭을 쓸 수도 있다. 요즘에는 동성 간 친구 외에도 이성 간 친구나 지인도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밀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서는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는 형제간 호칭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2018에서 표에 넣어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이러한 표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1992와 2011의 경우 친구의 배우자, 배우자의 친구 등의 관계에서 동성 간의 친구 관계를 가정하고 호칭어와 지칭어가 제시되어 있다. 최근에는 결혼을 한 후에도 친구(지인)가 이성인 경우가 적지 않고 결혼 전에 알았던 이성 친구(지인)와 결혼 후에도 친분이 유지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결국 아래와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도 호칭이나 지칭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씨'나 '○○○ 씨' 등을 호칭이나 지칭으로 사용하고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친족 간에 사용하는 호칭이나 지칭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겠다. 물론 친족 간 호칭이나 지칭에 준해 쓰는 것은 서로 친밀함이나 이해가 있은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남자의 경우 남자 친구의 아내를 자신은 친근하다고 생각하여 '제수'로 불렀을 때 막상 친구의 아내는 그러한 친밀한 호칭을 거북하게 여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간의 친구 관계는 물론 부부간의 나이가 남자가 많은 경우, 여자가 많은 경우까지 고려하여 호칭을 정리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남자의 경우

남자 친구의 아내가 나보다 나이가 많다면 (즉 나와 동갑인 친구가 연상의 여자와 결혼을 한 경우) '형수'로 불러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존중을 표현할 수 있다. 또 남자가 아내의 여자 친구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면 이름이나 '처제'로, 나이가 많다면 '누나/누님'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57] 그러나 아래의 표는 연구진 회의와 소규모 조사를 통해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추후 좀더 정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겠다.

◎ 성별의 차이에 따른 친구(지인) 유형과 호칭

관계	친구의 배우자				배우자의 친구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남자 친구의 아내	남자 친구의 아내	여자 친구의 남편	여자 친구의 남편	아내의 여자 친구	아내의 남자 친구	남편의 여자 친구	남편의 남자 친구
호칭	제수(씨), 형수 ○○ 씨	언니, ○○ 씨	형(님), ○○ 씨	형부, 제부, ○○ 씨	누나/누님, 처제, ○○ 씨	형(님), ○○ 씨	언니, ○○ 씨	오빠, ○○ 씨

3 부모님의 친구

〔1992〕 아버지의 친구

호칭어 및 지칭어	어린이의 말	(지역 이름) 아저씨, ○○ 아버지
	어른의 말	(지역 이름) 아저씨, 어르신, 선생님, (○) 과장님

〔2011〕[표Ⅱ-8] 아버지의 친구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및 지칭	아저씨, ○○[지역] 아저씨, ○○[아버지 친구의 자녀] 아버지, 어르신,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2018〕 부모님의 남자 친구에 대한 호칭, 지칭

	2011	2018
호칭 및 지칭	아저씨, ○○[지역] 아저씨, ○○[아버지 친구의 자녀] 아버지, 어르신,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삼촌

〔1992〕 어머니의 친구

호칭어 및 지칭어	어린이의 말	(지역 이름) 아주머니, ○○ 어머니(엄마)
	어른의 말	(지역 이름) 아주머니, (○○) 어머니

57) 연구진 회의에서 이러한 경우 '처제'와 짝을 이루는 '처형'이 아니라 '누나/누님'으로 부르는 것이 언중의 언어 사용 현실에 맞다는 의견이 있었다.

〔2011〕[표Ⅱ-9] 어머니의 친구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및 지칭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 아줌마, ○○[지역] 아줌마, ○○[어머니 친구의 자녀] 어머니, 어르신,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2018〕 부모님의 여자 친구에 대한 호칭, 지칭

	2011	추가
호칭 및 지칭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 아줌마, ○○[지역] 아줌마, ○○[어머니 친구의 자녀] 어머니, 어르신,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이모

▌호칭과 지칭▐

1992와 2011의 경우 아버지의 친구는 남자로 어머니의 친구는 여자로 상정하고 호칭이나 지칭이 제시되어 있다. 예전에는 이성 간 친구가 결혼을 한 후에도 계속 만나는 일이 많지 않았고 사회에서 만나는 지인의 경우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백이 당연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 결혼 후에도 이성 친구와 만나고 또 그 가족까지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동년배의 친구가 아니더라도 선후배 간의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성 간 친구들의 호칭과 지칭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2018은 제목을 바꿔 '부모님의 남자 친구', '부모님의 여자 친구'로 수정하고 어머니의 남자 친구(지인), 아버지의 여자 친구(지인)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부모님의 남자 친구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아저씨'를 쓰는데 친근한 정도에 따라 가족관계의 호칭어인 '삼촌'을 쓸 수도 있다. 어머니의 친구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주머니'와 함께 '이모'로 부를 수 있다. 특히 어려서부터 사용한 호칭은 커서도 쉽게 바뀌지 않고 유지되는데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함께 상황이나 친밀함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쓰면 될 것이다.

④ 친구의 부모님

〔1992〕 친구의 아버지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어린이의 말	○○ 아버지, (지역 이름) 아저씨
	어른의 말	(○○) 아버님, 어르신, ○○ 할아버지
친구에게 지칭	어린이의 말	너희 아버지
	어른의 말	(자네) 아버지(아버님), 어르신, 춘부장

〔2011〕 [표Ⅱ-10] 친구의 아버지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아저씨, ○○[지역] 아저씨, ○○[친구] 아버지, 아버님, ○○[친구] 아버님, 어르신, ○○[친구의 자녀] 할아버지
지칭	당사자에게	아저씨, ○○[지역] 아저씨, ○○[친구] 아버지, 아버님, ○○[친구] 아버님, 어르신, ○○[친구의 자녀] 할아버지
	해당 친구에게	아버지, 아버님, 아빠, 어르신, 부친, 춘부장

〔2018〕 친구의 아버지에 대한 호칭, 지칭

	2011	추가
호칭	(○○[지역]) 아저씨, (○○[친구]) 아버님, ○○[친구] 아버지, 어르신, ○○[친구의 자녀] 할아버님	= 아버지
지칭	(○○[지역]) 아저씨, (○○[친구]) 아버님, ○○[친구] 아버지, 어르신, ○○[친구의 자녀] 할아버님 (해당 친구에게) 아빠/아버지/아버님, 어르신, 부친, 춘부장	=

〔1992〕 친구의 어머니

호칭어	어린이의 말	○○ 어머니(엄마), (지역 이름) 아주머니
	어른의 말	(○○) 어머님, 아주머니, ○○ 할머니
당사자 및 해당 친구에게 지칭	어린이의 말	○○ 어머니(엄마), (지역 이름) 아주머니
	어른의 말	(○○) 어머니, 아주머니, ○○ 할머니, 자당

〔2011〕[표Ⅱ-11] 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 아줌마, ○○[지역] 아줌마, 어머님, ○○[친구] 어머님, ○○[친구] 어머니, ○○[친구] 엄마, 어르신, ○○[친구의 자녀] 할머니
지칭	당사자에게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 아줌마, ○○[지역] 아줌마, 어머님, ○○[친구] 어머님, ○○[친구] 어머니, ○○[친구] 엄마, 어르신, ○○[친구의 자녀] 할머니
	해당 친구에게	어머님, 어머니, 엄마, 어르신, 모친, 자당

〔2018〕 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지역]) 아주머니/아줌마, (○○[친구]) 어머님, ○○[친구] 어머니, 어르신, ○○[친구의 자녀] 할머님	= 어머니
지칭	(당사자에게) (○○[지역]) 아주머니/아줌마, (○○[친구]) 어머님, ○○[친구] 어머니, 어르신, ○○[친구의 자녀] 할머님 (해당 친구에게) 어머님, 어머니, 엄마, 어르신, 모친, 자당	

▌호칭과 지칭 ▐

친구의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 ‘어머니’로 부를 수 있다. 심층 면담의 응답 중에도 친구의 부모님에 대해 나의 부모님과 같이 친근하게 대하는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등의 호칭이나 지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1992나 2011에 대해 친구의 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으로는 부를 수 있지만 나의 부모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2018은 1992나 2011에서 제시된 호칭이나 지칭이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에 언중이 사용하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정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였다.

그런데 친구의 부모님을 손주의 이름에 기대 ‘○○[친구의 자녀] 할아버지’, ‘○○[친구의 자녀] 할머니’로 부르는 것이 1992와 2011에 제시되어 있다. 1992에서는 ‘○○[친구의 자녀] 할아버지’

가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으로 되어 있고 ‘어른의 말’로 소분류가 되어 있다. 1992와 2011 해설에는 ‘○○[친구] 아버님’과 함께 ‘○○[친구의 자녀] 할아버지’를 호칭으로 정했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친구] 아버님’을 호칭으로 쓰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친구의 자녀] 할아버지’는 상대방을 높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족관계에서도 ‘○○[손주] 할아버지’는 지칭으로서의 용법만 있지 호칭으로는 쓰이지 않았다. 결국 친구의 아버지를 ‘○○[친구의 자녀] 할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2018은 ‘○○[친구의 자녀] 할아버지’를 ‘○○[친구의 자녀] 할아버님’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였다.

한편 호칭 중 ‘○○ 엄마’가 있는데 1992에서는 이를 ‘어린이의 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2011은 이러한 설명 없이 제시되어 있어 성인이 친구의 어머니에 대해 ‘○○ 엄마’로 부르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2018은 ‘○○ 엄마’를 호칭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유는 친구의 아버지에 대해 어린이의 말에서 ‘○○ 아빠’로 부르지 않고 아무리 어린이라고 해도 지칭이 아닌 호칭에서 ‘○○ 엄마’를 쓰는 일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조사가 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확신하기 어렵지만 어린아이가 친구의 어머니를 ‘○○ 엄마’로 부르는 일이 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선생님과 그 배우자

〔1992〕 여자 선생님의 남편 (학부모 또는 학생의 편에서)

호칭어	사부(師夫)님, (○, ○○○) 선생님, (○) 과장님
당사자 및 해당 선생님에게 지칭	사부(師夫)님, (○, ○○○) 선생님, (○) 과장님, 바깥 어른

〔1992〕 남자 선생님의 아내

호칭어 및 지칭어	사모님

〔2011〕[표Ⅱ-12] 남자 선생님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사모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지칭	당사자 및 해당 선생님에게	사모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2011〕[표Ⅱ-13] 여자 선생님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사부(師夫)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지칭	당사자 및 해당 선생님에게	사부(師夫)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바깥어른

〔2018〕 남자 선생님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지칭	사모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2018〕 여자 선생님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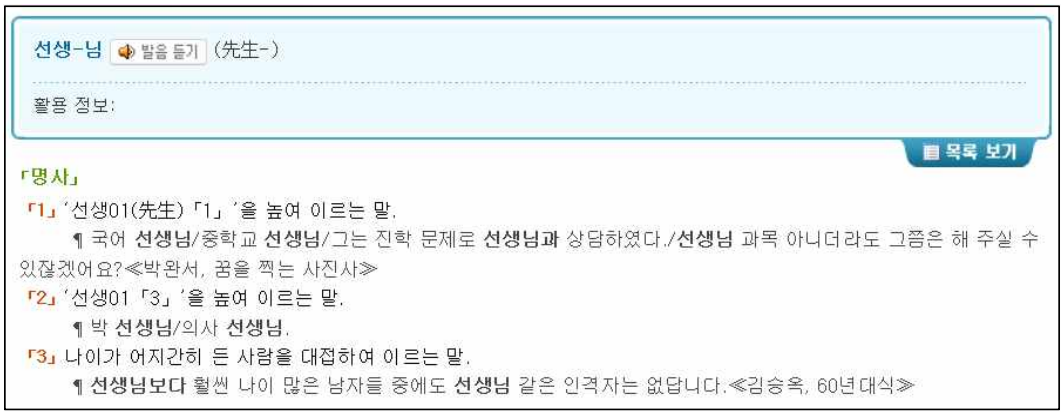
호칭 지칭	사부(師夫)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호칭과 지칭▐

1992는 선생님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을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이 2011로 넘어오면서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이 없어진 채 제시되어 친구들 간의 호칭과 지칭을 다루는 장에 맞지 않게 들어가게 된 셈이다.

여기서 다뤄지는 선생님은 특히 학교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선생님의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호칭이나 지칭을 쓸 일이 많지 않지만 1992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부를 말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이를 정하기 위해 다룬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선생님은 언제나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그 배우자에게도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남자 선생님의 아내는 '사모님', 여자 선생님의 남편은 '사부님'을 호칭으로 쓰고 해당 선생님의 성이나 이름을 앞에 붙여 특정(特定)하는 표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대화하는 사람들끼리 해당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그 선생님의 과목 이름을 활용하여 '수학 선생님의 사모님', '수학 선생님의 사부님' 등으로 지칭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 외에도 매우 다양한 장면에서 호칭이나 지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을 '샘' 또는 '쌤'으로 부르고 오히려 대학에 와서는 교수를 '교수님'으로 부른다. 또 학교나 학원에서 교사들끼리도 서로 '선생님'으로 부른다. 'PD 선생님', '연출가 선생님'처럼 쓰기도 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분야의 대가나 연륜이 높은 분에 대해서도 '○○○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택시를 타도 기사분에게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쓰고 물건을 파는 매장에서도 나이가 지긋한 남자 어른에게 '사장님'이라는 호칭 대신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기도 한다.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부를 때도 '선생님'이라고 하고 반대로 민원인이 공무원을 부를 때도 '선생님' 한다. 이처럼 '선생님'은 '교사'에 대한 호칭이나 지칭으로서의 용법에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호칭이나 지칭의 용법으로 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선생-님 발음 듣기 (先生-)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1」 '선생01(先生)「1」'을 높여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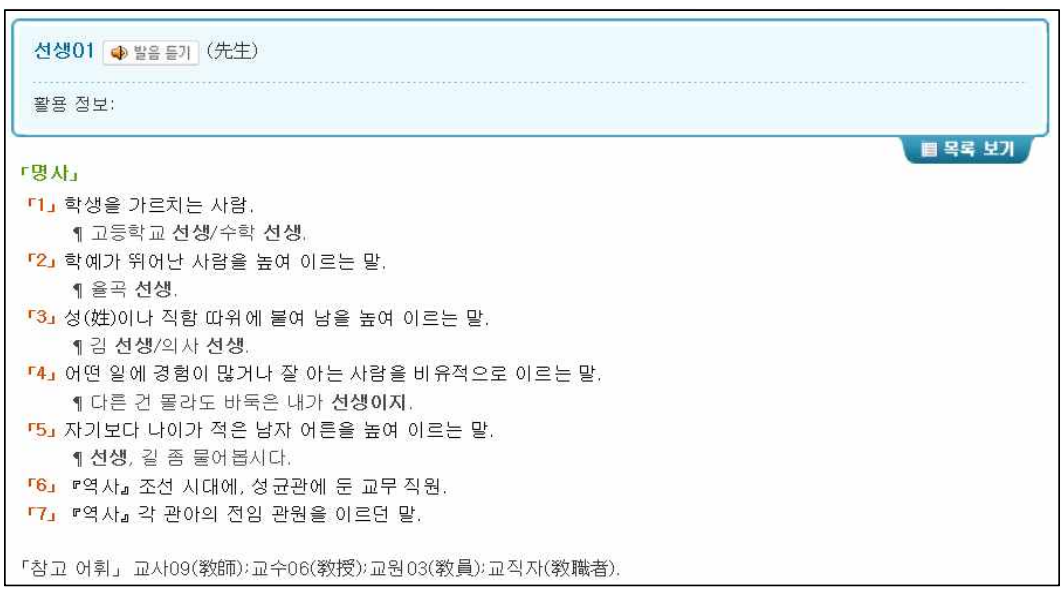
¶ 국어 **선생님**/중학교 **선생님**/그는 진학 문제로 **선생님과** 상담하였다./**선생님** 과목 아니더라도 그쯤은 해 주실 수 있잖겠어요?≪박완서, 꿈을 찍는 사진사≫

「2」 '선생01「3」'을 높여 이르는 말.

¶ 박 **선생님**/의사 **선생님**.

「3」 나이가 어지간히 든 사람을 대접하여 이르는 말.

¶ **선생님보다** 훨씬 나이 많은 남자들 중에도 **선생님** 같은 인격자는 없답니다.≪김승옥, 60년대식≫



선생01 발음 듣기 (先生)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1」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 고등학교 **선생**/수학 **선생**.

「2」 학예가 뛰어난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 율곡 **선생**.

「3」 성(姓)이나 직함 따위에 붙여 남을 높여 이르는 말.

¶ 김 **선생**/의사 **선생**.

「4」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잘 아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다른 건 몰라도 바둑은 내가 **선생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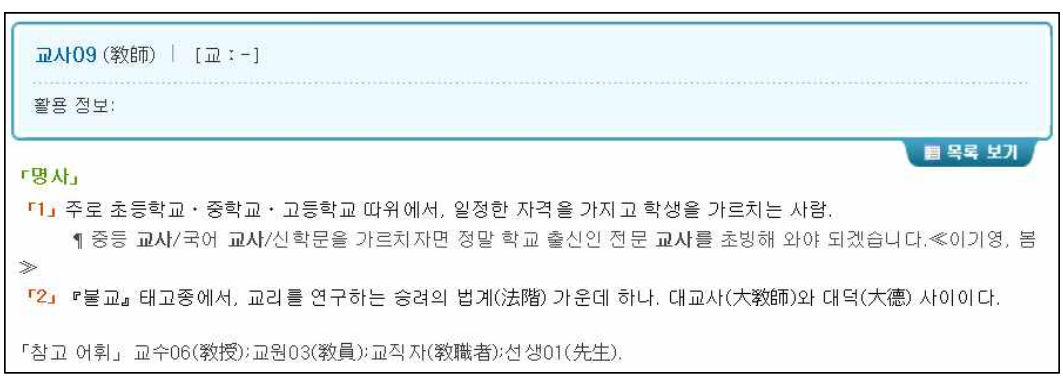
「5」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남자 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

¶ **선생**, 길 좀 물어봅시다.

「6」 『역사』 조선 시대에, 성균관에 둔 교무 직원.

「7」 『역사』 각 관아의 전임 관원을 이르던 말.

「참고 어휘」 교사09(敎師);교수06(敎授);교원03(敎員);교직자(敎職者).



교사09 (敎師) | [교ː-]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1」 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따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 중등 **교사**/국어 **교사**/신학문을 가르치자면 정말 학교 출신인 전문 **교사**를 초빙해 와야 되겠습니다.≪이기영, 봄≫

「2」 『불교』 태고종에서, 교리를 연구하는 승려의 법계(法階) 가운데 하나. 대교사(大敎師)와 대덕(大德) 사이이다.

「참고 어휘」 교수06(敎授);교원03(敎員);교직자(敎職者);선생01(先生).

❍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해설 비교

[1] 친구의 배우자

표준 화법 해설(1992)

우리 사회가 도시 산업 사회로 변화하면서 남들과의 만남이 친척 만나는 것만큼이나 잦아졌다. 그러나 호칭어, 지칭어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발달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르는 것이 올바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도 많다. ①타인에 대한 호칭어, 지칭어는 현재 쓰이는 말 중에서 전통적이면서도 시대에 맞는 말을 찾는 데 힘을 기울였다.

친구의 아내

친구의 아내에 대한 호칭어는 '아주머니', '(○)○○씨', '○○ 어머니', '부인', '○ 여사', '○ 직함'[이하 과장으로 대표시킴]을 쓸 수 있다. 젊은 층에서는 이름을 부르고, 집안끼리 잘 아는 사이일 때는 '○○ 어머니'라고 하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부인', '○ 여사', 직장 생활을 할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직함으로 '○ 과장(님)'이라고 부르는 현실을 존중한 것이다.

②흔히 친구의 아내를 '제수씨', '계수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친구의 아내를 '제수씨', '계수씨'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어를 그대로 쓴다. 해당 친구에게는 ③'(자네) (합(閤))부인', '○○○ 어머니'로 지칭하고, 말하는 이의 아내에게는 '○○ (씨) 부인', '○○ 어머니', '○ 과장 부인'으로 지칭한다. 자녀에게는 '○○ 어머니', '(지역 이름) 아주머니'로 가리킨다. ④다른 친구에게는 '○○ (씨) 부인', '(○)○○ 씨', '○○ 어머니', '○ 과장 부인'으로 지칭한다.

친구의 남편

친구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 씨', '○○ 아버지', '(○) 과장님', '(○) 선생님'으로 정했다.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은 호칭어와 같다. 해당 친구에게 지칭할 때는 '(○)○○ 씨', '○○ 아버지', '(○) 과장님', ⑤'너희 남편(바깥 양반)'으로 한다. 남편에게는 ⑤'○○ 남편(바깥 양반)', '(○) 과장님'으로, 자녀에게는 '○○ 아버지', '(지역 이름) 아저씨', '(○) 과장님'으로 지칭한다. 다른 친구에게는 ⑤'○○ 남편(바깥 양반)'으로 지칭한다.

<75-76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친구의 아내

친구의 아내에 대한 호칭은 '아주머니',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여사', '여사님', '○ 여사님', '과장님', '○ 과장님', '○ 선생', '선생님', '○ 선생님'을 쓸 수 있다. 젊은 층에서는 이름을 부르고, 집안끼리 잘 아는 사이일 때는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라고 하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 여사', '여사님', '○ 여사님', 친구의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할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직함으로 '과장님', '○ 과장님'이라고 부르는 현실을 존중한 것이다. 또 친구의 아내에게 예를 갖추어 '○ 선생', '선생님', '○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②흔히 친구의 아내를 '제수씨', '계수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제수씨', '계수씨'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 친구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아내와 친구의 아내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친구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을 그대로 쓴다. ④해당 친구에게는 '부인', '집사람', '안사람',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과장님'으로 지칭한다. ③'합부인', '자네 합부인'은 현실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말이므로 권장할 만하지 않다.

친구의 아내를 나의 아내에게는 '○○[친구] 부인', '○○[친구] 집사람', '○○[친구] 안사람', '○○[친구] 처', '○○[친구] 씨 부인',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과장 부인'으로 지칭한다. 또 친구의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할 경우에는 '○ 과장님'이라고 가리킬 수도 있다. 자녀에게는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와 직함을 이용한 '○ 과장님'으로 가리킨다.

④다른 친구에게는 '○○[친구] 부인', '○○[친구] 집사람', '○○[친구] 안사람', '○○[친구] 처', '○○[친구] 씨 부인',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과장 부인'으로 지칭한다.

<134-135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친구의 남편

친구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 씨', '○○○ 씨',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과장님', '○ 과장님', '선생님', '○ 선생님'이다.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은 호칭과 같다. 해당 친구에게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는 '남편', '바깥양반', '○○ 씨', '○○○ 씨',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 과장님'을 쓸 수 있다. 친구의 남편을 내 남편에게 지칭할 때는 '○○[친구] 남편', ⑤'○○[친구] 바깥양반', '○○[친구] 씨 남편',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 과장 남편', '○ 과장님'이라고 한다. ⑥친구의 남편을 가리켜 '신랑'이라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녀에게는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아저씨', '○○[지역] 아저씨', '○ 과장님'으로 지칭한다. 다른 친구에게는 '○○[친구] 남편', ⑤'○○[친구] 바깥양반', '○○[친구] 씨 남편', '○○ 씨', '○○○ 씨',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 과장 남편'으로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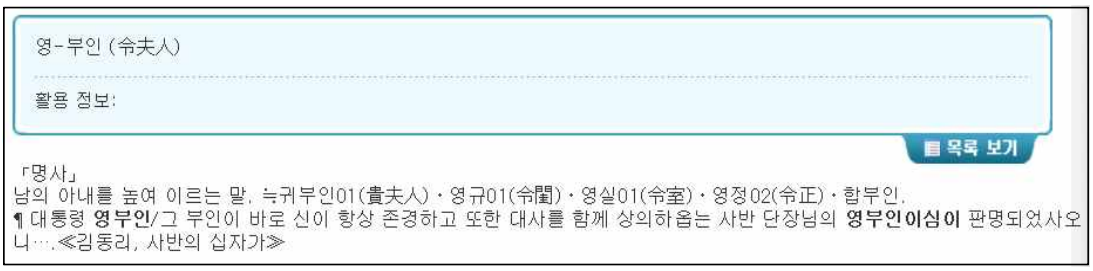
<136쪽>

타인에 대한 호칭과 지칭을 결정하면서 1992는 ①에서 현재 쓰이는 것 중 '전통적이면서도 시대에 맞는 말을 찾는' 방식으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018 역시 이러한 방향을 따라 예전부터 써 온 호칭이나 지칭을 유지하되 현실적으로 쓰임이 없거나 언중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하였다.

친구의 아내와 남편에 대한 호칭과 지칭은 '○○ 씨', '○○○ 씨'를 기본으로 친구의 자녀 이름을 매개로 '○○ 어머니', '○○ 아버지'를 쓴다. ②에서 친구의 아내에 대해 '제수씨'나 '계수씨'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친구와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요즘은 '제수씨'로 부르고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족관계의 호칭어를 가족 외의 사람들에게도 널리 쓰고 있는 요즘 언어문화를 고려하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없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부르는 사람이 친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제수씨'와 같은 호칭이나 지칭을 썼다고 해도 상대방이 불

편하여 느낀다면 좋은 호칭이나 지칭은 아닐 것이다.

③의 ‘합부인(閤夫人)’은 사전 뜻풀이에 따르면 ‘영부인(令夫人)’과 같은 뜻으로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1992에서는 ‘합부인’을 지칭으로 인정한 반면 2011에서는 현실적으로 쓰이지 않는 말이므로 권장할 만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영부인’ 등의 사용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합부인’이 지칭으로 널리 쓰이기는 어렵겠다.



④의 ‘집사람’, ‘안사람’과 ⑤의 ‘바깥양반’ 역시 앞으로 사용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사람’의 경우 1992에 없다가 2011에 지칭으로 추가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참고하면 ‘집사람’은 ‘남에 대하여 자기 아내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 ‘안사람’은 ‘‘아내01’를 예사롭게 또는 낮추어 이르는 말.’로 되어 있다. 친구의 아내를 예사롭게 또는 낮춰 부르는 셈인데 ‘제수씨’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한 것과 다른 처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제수씨’로 불러 동생의 아내를 부르는 것과 같이 친구의 아내를 부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집사람’이나 ‘안사람’ 등으로 예사롭게 또는 낮춰 부르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 남편에 대해 ‘바깥양반’으로 ‘바깥사람’을 쓰지 않은 것도 아내와 남편 간 대칭에 어긋난다. 2018은 ‘집사람’, ‘안사람’, ‘바깥양반’, ‘바깥어른’ 등의 호칭과 지칭의 사용을 지양하는 원칙에 따라 앞서 부부간 호칭과 지칭에서 이들 어휘를 모두 제외하였다. 친구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서도 마찬가지로 위 표현들을 제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⑥은 연구진의 회의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남편을 ‘(우리) 신랑’으로 지칭하거나 ‘신랑’으로 호칭하는 경우도 많고, 친구의 남편을 지칭하면서 ‘너희 신랑’, ‘영희 신랑’ 등의 표현이 널리 쓰이기 때문이다. 2011 역시 이러한 사용이 많다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이를 표준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2018 역시 ‘신랑’을 호칭과 지칭에 포함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다. 아내에 대해 ‘신부’로 호칭이나 지칭을 쓰는 경우가 없고 결혼한 지 오래되어 자녀가 생긴 후에는 쓰지 않을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사용이 확대되는 정도를 보아 추가할 수도 있겠다.

[2] 배우자의 친구

표준 화법 해설(1992)

남편의 친구

남편의 친구를 부르는 말은 '(○)○○ 씨', '○○ 아버지', '(○) 과장님', '(○, ○○○) 선생님'으로 정했다. 자녀에게 지칭할 때는 '○○ 아버지', '(지역 이름) 아저씨', '(○) 과장님'으로 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어와 같은 말을 쓴다.

아내의 친구

아내의 친구를 부르는 말은 '(○)○○ 씨', '○○ 어머니', '아주머니', '○ 선생(님)', '○ 과장(님)', '○ 여사(님)'으로 정했다.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어와 같은 말을 쓴다. 아내에게 지칭할 때는 '(○)○○ 씨', '○○ 어머니', '○ 과장', '○ 선생'으로, 자녀에게 지칭할 때는 '(지역 이름) 아주머니', '○○ 어머니'를 쓴다.

<76-77쪽>

표준 언어 예절(2011)

남편의 친구

남편 친구를 부르는 말은 '○○ 씨', '○○○ 씨',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이다. 남편 친구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도 호칭과 동일하다. 남편의 친구를 남편에게 가리킬 때에는 '○○ 씨', '○○○ 씨'라고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도 쓸 수 있다. 또 남편 친구의 직함을 사용하여 남편에게 '○ 과장님', '○○○ 과장님', '○ 선생님', '○○○ 선생님'이라고 지칭한다.

자녀에게 지칭할 때는 '아저씨', '○○[지역] 아저씨',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 '○ 과장님'으로 하고,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 씨', '○○○ 씨',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 '○ 과장님', '○○○ 과장님', '○ 선생님', '○○○ 선생님'을 쓴다.

<137-138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아내의 친구

아내의 친구를 부르는 말은 '○○ 씨', '○○○ 씨', '○○[아내 친구의 자녀] 어머니', '아주머니', '○ 선생',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 여사', '여사님', '○ 여사님', '○○○ 여사님'이다. 아내 친구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도 호칭과 같다.

아내에게 지칭할 때는 '○○ 씨', '○○○ 씨'라고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내 친구의 자녀] 어머니'도 쓸 수 있다. 또 아내 친구의 직함을 사용하여 아내에게 '○ 과장님', '○○○ 과장님', '○ 선생', '○ 선생님', '○○○ 선생님'이라고 지칭한다. 자녀에게 지칭할 때는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 '○○[아내 친구의 자녀] 어머니', '○ 과장님'을 쓴다. 아내의 친구를 그 밖의 사람에게 가리킬 때는 '○○ 씨', '○○○ 씨', '○○[아내 친구의 자녀] 어머니', '○ 과장님', '○○○ 과장님', '○ 선생님', '○○○ 선생님'이라고 한다.

<139쪽>

3 부모님의 친구

표준 화법 해설(1992)

아버지의 친구

①아버지의 친구를 부르는 말은 어린이의 말과 어른의 말이 다르다. 어린이의 말은 '(지역 이름) 아저씨', '○○ 아버지'로 정하고, 어른의 말은 '(지역 이름) 아저씨', '어르신', '선생님', '(○) 과장님'으로 정했다. 지칭어도 호칭어와 같다.

어머니의 친구

①어머니의 친구를 부르는 말은 어린이의 말과 어른의 말이 별로 다르지 않다. '(지역 이름) 아주머니', '○○ 어머니(엄마)'로 부르고 가리키도록 했다.

<77-78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아버지의 친구

아버지의 친구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은 일반적으로 '아저씨', '○○[지역] 아저씨'이나, 어릴 때는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친근하게 '○○[아버지 친구의 자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성인이 되면 예를 갖추어 '어르신',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나 가리킬 수도 있다. 또 아버지 친구의 직함을 빌려 '과장님', '○ 과장님'으로 부르거나 가리킬 수 있다.

<141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어머니의 친구

어머니의 친구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은 일반적으로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 '○○[어머니 친구의 자녀] 어머니'이다. 어릴 때는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아줌마', '○○[지역] 아줌마'를 쓰므로 친근하게 '아줌마', '○○[지역] 아줌마'를 쓸 수도 있다. 성인이 되면 예를 갖추어 '어르신',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나 가리킬 수도 있다. 또 어머니 친구의 직함을 빌려 '과장님', '○ 과장님'으로 부르거나 가리킬 수 있다.

<141쪽>

부모님의 친구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이 어린아이의 말과 성인이 되어서의 말이 다를 수 있다. 문제는 남자는 어린아이의 말과 성인의 말을 다르게 쓴다고 하였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다고 한 점이다. 1992에서 ①과 같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한 것을 2011은 남자와 여자 모두 어려서 쓰던 말을 성인이 되어서도 쓸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018도 2011의 방향을 따라 남자와 여자가 모두 어려서 쓰던 말을 성인이 되어서도 쓸 수 있고 부모님의 남자 친구와 여자

친구 모두 ‘아저씨’, ‘아주머니’와 함께 ‘어르신’, ‘선생님’ 등을 쓸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친구의 부모

표준 화법 해설(1992)

친구의 아버지

친구의 아버지에 대한 호칭어는, 어린이 말은 ‘○○ 아버지’, ‘(지역 이름) 아저씨’로 정했고, 어른의 말은 ‘(○○) 아버님’, ‘어르신’, ‘○○ 할아버지’로 정했다. ①친구의 이름을 넣지 않은 ‘아버님’이란 말이 친구의 아버지를 부르는 말로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친구의 이름을 넣어 ‘○○ 아버님’으로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름이 생략되었다는 전제 아래 ‘아버님’을 인정한 것이다. ②손자의 이름을 넣어 ‘○○ 할아버지’처럼 부를 수도 있다.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은 호칭어와 같다. 해당 친구에게 지칭할 때, 어린이 말은 ‘너희 아버지’를 쓰고 어른의 말은 ‘(자네) 아버지(아버님)’, ‘어르신’, ③‘춘부장’을 쓰도록 했다.

친구의 어머니

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어는 어린이 말은 ‘○○ 어머니(엄마)’, ‘(지역 이름) 아주머니’로 정하고 어른 말은 ‘(○○) 어머님’, ‘아주머니’, ②‘○○ 할머니’로 정했다. 지칭어로는 어린이 말은 호칭어를 그대로 쓰고 어른의 말은 호칭어와 ③‘자당(慈堂)’을 쓰도록 했다.

<78-79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친구의 아버지

친구의 아버지에 대한 호칭은 ‘아저씨’, ‘○○[지역] 아저씨’, ‘○○[친구] 아버지’, ‘아버님’, ‘○○[친구] 아버님’, ‘어르신’, ‘○○[친구의 자녀] 할아버지’이다. 친구의 이름을 넣어 ‘○○[친구] 아버님’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친구의 이름을 넣지 않은 ‘아버님’이란 말이 친구의 아버지를 부르는 말로 적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름이 생략되었다는 전제 아래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②또 친구 자녀 이름을 넣어 ‘○○[친구의 자녀] 할아버지’처럼 부를 수도 있다.

친구의 아버지인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은 호칭과 같다. 친구 아버지를 해당 친구에게 지칭할 때에는 ‘아버님’, ‘아버지’를 쓴다. 어릴 때에는 친구의 아버지를 해당 친구에게 ‘아빠’로, 성인이 되어서는 친구의 아버지를 해당 친구에게 ‘어르신’, ‘부친’, ③‘춘부장’으로 지칭할 수도 있다.

<142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친구의 어머니

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은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 '아줌마', '○○[지역] 아줌마', '어머님', '○○[친구] 어머님', '○○[친구] 어머니', '○○[친구] 엄마', '어르신', '○○[친구의 자녀] 할머니'이다. '○○[친구] 어머님'으로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①이름이 생략되었다는 전제 아래 '어머님'을 쓸 수 있으며 ②친구 자녀 이름을 넣어 '○○[친구의 자녀] 할머니'처럼 부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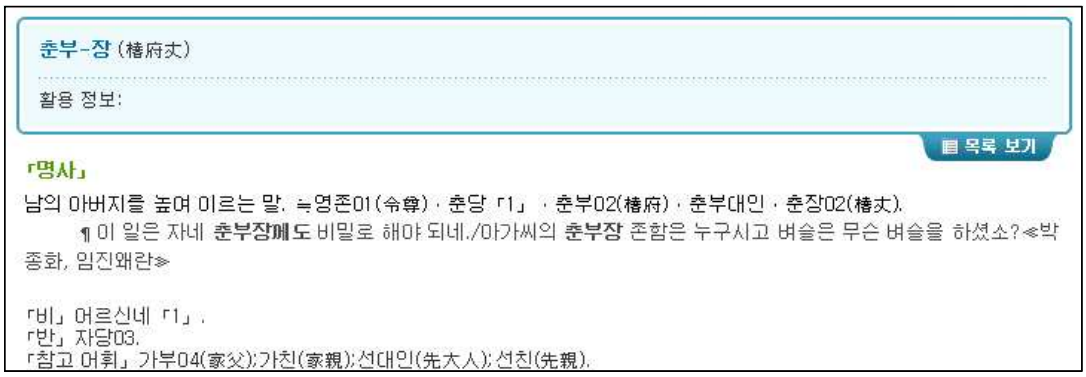
친구의 어머니인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은 호칭과 같다. 친구 어머니를 해당 친구에게 지칭할 때는 '어머님', '어머니'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릴 때에는 친구의 어머니를 해당 친구에게 '엄마'로, 성인이 되어서는 친구의 어머니를 해당 친구에게 '어르신', '모친', ③'자당'으로 지칭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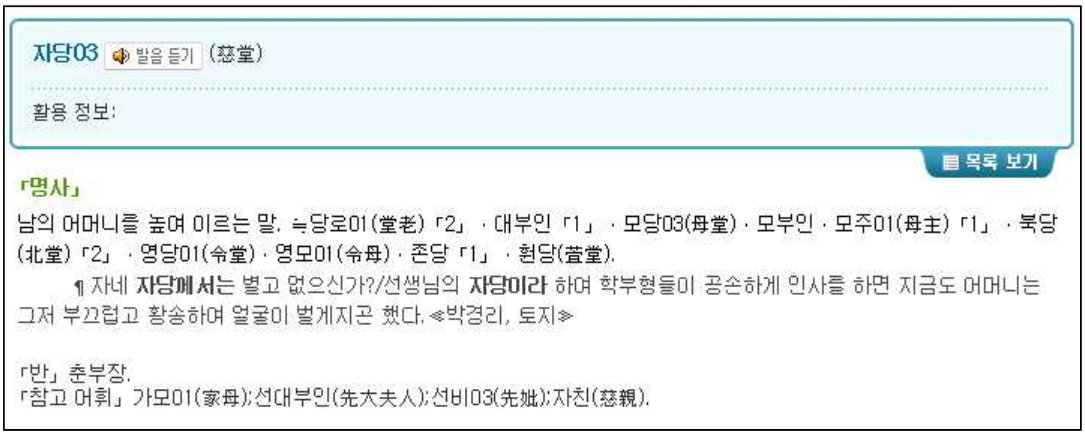
<143-144쪽>

①에서 친구의 부모님에 대해 '아버님', '어머님'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2017 실태조사나 심층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친구의 이름이 생략된 것으로 굳이 보지 않더라도 친구를 가족과 같이 생각할 만큼 친분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아버지', '어머니'로도 호칭을 쓰는데 2018은 이에 대해 폭넓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였다. 다만 나의 가족과 가족 외의 사람들 간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② 친구의 자녀 이름을 넣어 '○○[친구의 자녀] 할아버지', '○○[친구의 자녀] 할머니'로 부르는 문제는 앞서 '○○[친구의 자녀] 할아버님', '○○[친구의 자녀] 할머님'으로 정비한 내용을 밝혔다.

마지막 '춘부장'과 '자당'은 현실적으로 점차 사용이 축소되고 있는 지칭이다. 전통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르는 한자어가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잘 쓰이고 있지 않다. 1992와 2011 역시 '춘부장'과 '자당'을 제외하고 다른 표현은 소개하지 않고 있다. 2018 역시 표에는 지칭으로 포함하였지만 이들 어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자당03 발음 듣기 (慈堂)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당로01(堂老) 「2」 · 대부인 「1」 · 모당03(母堂) · 모부인 · 모주01(母主) 「1」 · 북당(北堂) 「2」 · 영당01(令堂) · 영모01(令母) · 존당 「1」 · 훤당(萱堂).

¶ 자네 **자당께서**는 별고 없으신가?/선생님의 **자당이라** 하여 학부형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 지금도 어머니는 그저 부끄럽고 황송하여 얼굴이 벌게지곤 했다. ≪박경리, 토지≫

「반」 춘부장.

「참고 어휘」 가모01(家母);선대부인(先大夫人);선비03(先妣);자친(慈親).

5 선생님과 그 배우자

표준 화법 해설(1992)

여자 선생님의 남편
학부모 또는 학생의 편에게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사부(師夫)님', '(○, ○○○) 선생님', '(○) 과장님'으로 정했다. 예전에는 여자 스승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부르는 전통적인 말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여자 스승도 많고, 여자 스승의 남편에 대한 호칭어, 지칭어가 필요하기도 하다.

여론을 조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부님'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색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었다. 사전에 올라 있지 않지만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사부님'을 표준 화법에 넣었다. 이 때 남자 선생님의 아내를 부르는 '사모(師母)님'과 짝이 되도록 '사부(師父)님'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사부(師父)'는 사전에 '가르침의 깊은 은혜를 입은 스승을 높이어 일컫는 말'로 올라 있어, 스승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로는 '사부(師夫)님'을 쓰도록 했다.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어를 그대로 쓰고, 해당 여자 선생님에게 지칭하는 말은 학생은 호칭어를 그대로 쓰고 ①학부모는 호칭어와 '바깥 어른'을 쓰도록 했다.

남자 선생님의 아내

남자 선생님의 아내를 부르는 말과 가리키는 말은 '사모님'으로 정했다. 어느 경우에나 선생님은 예의를 갖추어 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고, 선생님을 높이는 뜻에서도 선생님의 아내를 높여야 한다.

<79-80쪽>

표준 언어 예절(2011)

남자 선생님의 아내

남자 선생님의 아내를 부르는 말과 남자 선생님의 아내를 그 당사자와 해당 선생님에게 가리키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모님'이며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으로도 쓴다. 선생님은 예의를 갖추어 대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고, 선생님을 높이는 뜻에서도 선생님의 아내를 높여야 한다.

<144-145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여자 선생님의 남편

예전에는 여자 스승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부르는 전통적인 말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자 스승도 많고, 여자 스승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이 필요하기도 하다.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사부(師夫)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이다.

여자 선생님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부님'을 쓰고 있는데 이때 '사부'의 한자는 '아비 부(父)'가 아니라 '지아비 부(夫)'를 쓴 '사부(師夫)'이다.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학생이 당사자와 해당 여자 선생님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을 그대로 쓰고, ①학부모가 지칭할 때는 '바깥어른'도 함께 쓸 수 있다.

<145쪽>

2018 정비의 원칙 중 하나는 남녀 간 대칭적인 호칭과 지칭이다. 여자 선생님의 남편과 남자 선생님의 아내의 경우 1992는 남자 선생님의 아내에 대해 '사모님' 하나만 제시하고 있는 반면 2011에 이르러서는 남자 선생님의 아내 역시 사회에서 직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아 여자 선생님의 남편과 동일하게 호칭과 지칭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바깥양반'이 하나 다른데 2011은 ①과 같이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학부모가 해당 여자 선생님에게 이를 때 '바깥양반'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2018은 '바깥양반'을 지칭어로 쓰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바깥양반'을 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비하였다. 결국 2018에서는 여자 선생님의 남편과 남자 선생님의 아내가 동일한 호칭어와 지칭어의 대상이 된다.

○ <소통을 위한 언어예절>(2018) 정비안

〔2018〕 친구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 씨, ○○○ 씨, ○○[친구 자녀] 엄마/어머니 아주머니, 여사님, 선생님, ○ 여사(님), ○ 선생(님), ○ 과장(님)
지칭	○○ 씨, ○○○ 씨, ○○[친구 자녀] 엄마/어머니 (당사자에게) ○ 여사(님) (해당 친구에게) 아내, 부인 (나의 아내, 다른 친구에게) ○○[친구] 아내, ○ 과장 부인 (나의 자녀에게) 아주머니, 아줌마, ○○[지역] 아주머니

〔2018〕 친구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 씨, ○○○ 씨, ○○[친구 자녀] 아빠/아버지, 선생님, ○ 과장님
지칭	○○ 씨, ○○○ 씨, ○○[친구 자녀] 아빠/아버지 (당사자에게) ○ 선생(님) (해당 친구에게) 남편 (나의 아내, 다른 친구에게) ○○[친구] 남편, ○ 과장 남편 (나의 자녀에게) 아저씨, ○○[지역] 아저씨

〔2018〕 배우자의 남자 친구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 씨, ○○○ 씨, ○○[배우자 친구의 자녀] 아버지/아빠, (○, ○○○) 과장님
지칭	(당사자, 배우자, 그 밖의 사람에게) ○○ 씨, ○○○ 씨, ○○[배우자 친구의 자녀] 아버지/아빠, (○, ○○○) 과장님 (자녀에게) 아저씨, ○○[지역] 아저씨

〔2018〕 배우자의 여자 친구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 씨, ○○○ 씨, ○○[배우자 친구의 자녀] 어머니/엄마, (○, ○○○) 과장님
지칭	(당사자, 배우자, 그 밖의 사람에게) ○○ 씨, ○○○ 씨, ○○[배우자 친구의 자녀] 어머니/엄마, (○, ○○○) 과장님 (자녀에게) 아주머니/아줌마, ○○[지역] 아주머니/아줌마

〔2018〕 부모님의 남자 친구에 대한 호칭, 지칭

	2011	2018
호칭 및 지칭	아저씨, ○○[지역] 아저씨, ○○[아버지 친구의 자녀] 아버지, 어르신,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삼촌

〔2018〕 부모님의 여자 친구에 대한 호칭, 지칭

	2011	추가
호칭 및 지칭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 아줌마, ○○[지역] 아줌마, ○○[어머니 친구의 자녀] 어머니, 어르신,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이모

〔2018〕 친구의 아버지에 대한 호칭, 지칭

	2011	추가
호칭	(○○[지역]) 아저씨, (○○[친구]) 아버님, ○○[친구] 아버지, 어르신, ○○[친구의 자녀] 할아버님	= 아버지
지칭	(○○[지역]) 아저씨, (○○[친구]) 아버님, ○○[친구] 아버지, 어르신, ○○[친구의 자녀] 할아버님 (해당 친구에게) 아빠/아버지/아버님, 어르신, 부친, 춘부장	=

〔2018〕 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 지칭

	전통	가능
호칭	(○○[지역]) 아주머니/아줌마, (○○[친구]) 어머님, ○○[친구] 어머니, 어르신, ○○[친구의 자녀] 할머님	= 어머니
지칭	(당사자에게) (○○[지역]) 아주머니/아줌마, (○○[친구]) 어머님, ○○[친구] 어머니, 어르신, ○○[친구의 자녀] 할머님 (해당 친구에게) 어머님, 어머니, 엄마, 어르신, 모친, 자당	

〔2018〕 남자 선생님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지칭	사모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2018〕 여자 선생님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지칭	사부(師夫)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4.2.3. 직원과 손님 사이

장 제목이 1992에서는 '타인에 대하여'였다가 2011에 아예 '직원과 손님 사이'로 바뀐 장이다. 사회적 장면이나 관계가 다양화되면서 예전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호칭이나 지칭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내용에서 1992와 2011 간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는 2011의 분류에 따라 '직원에 대하여', '손님에 대하여'를 먼저 다루고 그 외 나머지 다른 상황은 '그 밖의 상황'으로 묶어 정리하였다.

1992와 2011의 경우 종업원과 손님을 둘로 나누어 호칭과 지칭을 정리하고 있다. 그나마도 1992에서는 '식당 등의 종업원'과 '은행, 관공서의 직원'을 나누어 이 둘의 처리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2011은 이것을 묶어 제시하였기 때문에 내용만 복잡해지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써야 하는 필요성도 없어지게 되었다. 2018은 1992와 같이 '은행, 관공서'는 '공공 기관'으로 '식당 등'은 '서비스 기관' 정도로 나누어야 정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 더해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여러 호칭과 지칭에 대해서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를 묶어 '그 밖의 상황' 정도로 처리하였다. 이와 함께 호칭이나 지칭에서 관계나 나이, 직위 등 고정적인 요소 외에도 화자와 청자가 처한 장소나 상황, 그에 따라 달라지는 힘(권력)의 차이, 담화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전략 등을 함께 고려해 보고자 하였다.

- 정비 방향

가. 나이나 힘(권력)의 차이가 있을 경우 어느 한 편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존중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서로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나. 이미 사용해 온 호칭이나 지칭을 활용하고 호칭과 지칭을 통용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를 추구한다.

다. 방송이나 언론 매체 등에 등장하지 않거나 현재 소멸되어 가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호칭이나 지칭은 제외한다.

-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표 비교

[1] 직원에 대하여

〔1992〕 식당 등의 종업원

		남자	여자
호칭어		여보세요, 아저씨, 젊은이, 총각	여보세요, 아주머니, 아가씨
지칭어	당사자에게	아저씨, 젊은이, 총각	아주머니, 아가씨
	다른 사람에게	(남자) 종업원	(여자) 종업원

〔1992〕 은행, 관공서 등의 직원

	남자	여자
호칭 및 당사자에게 지칭	○○○ 씨, (○) 과장(님), 선생(님)[시안]	○○○ 씨, (○) 과장(님), 선생(님)[시안]
다른 사람에게 지칭	○○○ 씨, (○) 과장(님), (남자) 직원	○○○ 씨, (○) 과장(님), (여자) 직원

〔2011〕 [표Ⅱ-14] 식당, 상점, 회사, 관공서 등의 직원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및 지칭	아저씨, 젊은이, 총각, 아주머니, 아가씨, ○○ 씨,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 주로 식당, 상점 등에서의 호칭: 여기요, 여보세요

〔2018〕 공공 기관 직원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및 지칭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여기요 ○○ 씨, ○○○ 씨

〔2018〕 서비스 기관 직원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및 지칭	여기요, 저기요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씨, ○○○ 씨

▌호칭과 지칭▐

1992는 직함이 있는 은행이나 관공서에서는 직함을,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는 '아저씨'나 '아주머니' 등을 호칭이나 지칭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2011은 이 둘을 합치고 '여기요' 등의 호출어를 추가하였다.

2018은 1992와 같이 식당과 관공서를 분리하여 처리하는데 식당이나 상점은 '서비스 기관'으로 학교나 병원, 관공서 등은 '공공 기관'으로 묶어 처리한다.[58] 식당이나 상점에서는 손님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고자 하므로 종사자가 손님을 좀더 예우하고 친근한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다 보니 가족관계에서 사용되는 호칭이나 지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공공 기관에서는 이용자(민원인)가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안내와 도움, 처리 등을 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병원도 역시 환자의 수보다 의사나 간호사의 수가 적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치료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관공서나 병원처럼 대화 목적이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거나 비교적 정형적인 담화 패턴을

58) 연구진 회의에서 병원을 공공 기관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병원이 식당이나 상점처럼 서비스를 최우선한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관공서처럼 공적인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보다는 해당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담화의 유형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즉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담화는 상점에서 점원과 손님 간의 담화보다는 관공서에서 직원과 민원인 간에 이루어지는 담화의 성격과 좀더 가깝다고 보고 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위해서는 상황별 담화의 성격을 규명하는 연구가 좀더 깊이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호칭이나 지칭 역시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식당이나 상점에서는 종사자들의 직함이나 직급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없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 기관에서는 직함이나 직급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관공서에서는 이름과 함께 직급이 이름패나 이름표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선 공공 기관의 경우 이름과 직함을 부르거나 이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직함이나 직급 대신 '선생(님)'을 쓸 수도 있다. 보통은 처음 보는 사이거나 특별한 친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직함+님', '선생님'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1992에서는 관공서 등에서 '○○○ 씨'를 호칭이나 지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 2011의 경우도 해설에서 '○○○ 씨'와 함께 '○○ 씨'도 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관공서에서 만나는 직원들과 민원인은 처음 만나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나이가 어린 민원인이 나이가 많은 시청 공무원에게 '김철수 씨', '철수 씨'로 부르거나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령 나이가 많은 민원인이라도 어린 공무원에게라도 '김철수 씨', '철수 씨'로 부르는 것은 상대방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아야 가능할 것인데 친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관공서에서 '○○○ 씨', '○○ 씨'를 쓰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관공서과 함께 1992에서는 '은행', 2011에서는 '회사'의 직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은행이나 회사의 경우, 서로 다른 은행이나 회사의 직원들 간에는 서로의 이름과 직함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름과 직함을 활용한 호칭과 지칭을 사용하면 된다. 또 회사의 경우 손님이라고 해도 보통 업무에 관련한 방문이 많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은행의 손님과 직원 간의 호칭과 지칭인데 보통 은행에서는 손님이 직원을 부르거나 지칭할 상황보다는 직원이 손님을 부르거나 지칭하는 상황이 더 많다. 물론 손님이 직원을 부르거나 이르는 상황이 생긴다면 직원마다 이름패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또 이름이나 직함을 모를 경우라면 '선생님'을 호칭으로 사용하면 될 것인데 심층 면담의 결과에서도 '선생님'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식당이나 상점의 직원을 부를 경우 주로 '여기요', '저기요' 등과 같은 호출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심층 면담의 응답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1992나 2011에 제시된 것처럼 '젊은이', '아가씨', '총각', '아저씨', '아주머니' 등으로 부르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중립적이고 감정이 담기지 않은 호출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이'나 '아가씨', '총각' 등의 호칭 사용은 성별이나 나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손님이 직원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아가씨'는 친족관계에서 사용될 때는 쓰는 사람이 상대방을 높이는 느낌이 들어 불편한 호칭으로 개선의 요구가 높았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식당이나 상점에서 사용되는 '아가씨'는 쓰는 사람이 상대방을 낮추는 느낌이 들고 특히 '마담'과 함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여 현재 잘 사용되지 않는 호칭어이기도 하다. '아주머니'를 '아줌마'로 부를 경우 상대방을 낮추는 느낌이 들고 이는 '아저씨'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1992나

2011에 제시된 호칭이나 지칭 중 상당수가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손님이 직원에게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 ‘언니’, ‘이모(님)’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1992나 2011은 이를 바람직하지 않은 호칭이나 지칭이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언니’는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듯하고 ‘이모(님)’ 역시 다양한 장면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장년의 남자가 나이가 어린 여자 종업원을 ‘아가씨’로 부르는 대신 ‘언니’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집에서 아이(아기)를 돌보아주는 분을 ‘이모님’으로 부르기도 한다. 서로가 편한 마땅한 호칭이 없다보니 젊거나 어린 여성에 대해서는 ‘언니’, 연세가 있는 여성을 일컫는 호칭으로 ‘이모님’이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미 언중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용법이라면 이를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하고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수 있겠다.

‘여기요’도 호출어지만 호칭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말이다. 1992는 해설 부분에서 이를 ‘여보세요’로 보고 널리 쓰일 수 있다고 기술하였고 2011은 ‘여기요’와 ‘여보세요’를 동시에 제시하였다. 2018은 ‘여기요’를 기본적인 호칭으로 보고 ‘여보세요’의 경우 면대면 대화에서 호칭으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전화 통화에서 시작하는 말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용법이라고 보아 표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여기요’와 함께 ‘저기요’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였다.

중요한 것은 식당이나 상점에서도 직원에 대한 호칭이나 지칭 역시 손님이 직원을 존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8은 우선 호출어의 사용을 기본으로 직원의 이름에 ‘씨’를 붙여 부르거나 ‘선생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아울러 ‘언니’나 ‘이모’의 사용에 대해서도 언중이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따라 상대방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2 손님에 대하여

[1992] 식당, 은행, 관공서 등의 손님

	식당 등	은행, 관공서 등
호칭어 및 지칭어	손님	(○○○) 손님

[2011][표Ⅱ-15] 식당, 상점, 회사, 관공서 등의 손님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및 지칭	손님, ○○○ 님, ○○○ 손님

[2018] 공공 기관에서 손님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및 지칭	○○○ 님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2018] 서비스 기관에서 손님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및 지칭	손님, 고객님, 회원님 등 ○○○ 님, ○○ 님, ○○○ 손님, ○○○ 고객님

우선 공공 기관의 손님은 공적인 업무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다른 기관에서 업무의 협의 등을 위해 방문하는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기관의 직원들과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로의 이름이나 직함, 직위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이름에 직함을 붙여 호칭이나 지칭으로 쓸 수 있고 직함 대신 '선생님'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민원인과 같이 개인의 자격으로 방문하는 경우 직함이나 직위 등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름을 알 수 있다면 이름에 '-님'을 붙여 부르면 된다. 실제로 이미 많은 공공 기관들에서 '이름+님'의 형식으로 호칭이나 지칭을 쓰고 있고 심층 면담의 응답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이름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선생님' 정도의 호칭이나 지칭이 적당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다. 실제 학교의 교사인 '선생님'과 '나이가 어지간히 든 사람을 대접하여 이르는 말'의 용법을 구분해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한편 나이가 많은 분에 대해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 등으로 부르는 것을 청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신문 기사 등을 통해 나오기도 했다. 언중은 자신의 성별이나 나이가 호칭이나 지칭을 통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는 면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님'이나 '○○○ 씨', '선생님' 등과 같이 중립적이고 무표적인 호칭과 지칭을 사용하여 갈등의 요인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

이와 함께 요즘은 번호표를 활용하는 문화가 은행, 관공서, 병원 등 여러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이름 등의 개인 정보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 넓은 공간에서 큰 목소리로 부르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결국 공공 기관에서 직원이 손님과 면대면 대화에서 호칭이나 지칭을 쓰게 된다.

식당이나 상점에서 손님을 부르는 호칭이나 지칭은 '손님', '고객님' 등이 많이 쓰이는데 심층 면담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손님의 경우에는 '회원님' 등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은행이나 병원 같은 곳에서 손님을 지명해서 불러야 할 경우 '○○○ 님' 등과 같이 이름 뒤에 '-님'을 붙여 부르기도 한다. 병원에서 손님, 즉 환자에 대해서도 '○○○ 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에 대해 '환자분'이나 보호자에 대해 '(○○○[환자이름] 님) 보호자분'으로 부르기도 한다. 연구진 회의에서 '환자분'으로 불리는 경우 환자가 부정적으로 느낄 염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2011에 운송기관(기차, 전철, 버스 등)에서 '승객님'으로 호칭을 쓰도록 하였으나 '승객 여러분'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안내에서는 호칭으로 '승객'을 쓰기도 하지만 승객에게 직접 '승객님'으로 부르기보다는 '손님'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3 그 밖의 상황

한편 1992는 '우연히 만난 어른'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2011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이 외에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호칭과 지칭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 이 부분까지 모두 조사하고 담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여기서는 '우연히 만난 어른'과 '그 밖의 상황'을 간단히 다루고 논의를 마무리한다.

〔1992〕 우연히 만난 어른

	남자			여자		
호칭어 및 지칭어	아랫사람	동년배의 사람	윗사람	아랫사람	동년배의 사람	윗사람
	선생(님)	선생(님)	어르신(네), 선생님	할머니, 아주머니	할머니, 아주머니	어르신(네), 할머니(님), 아주머니(님)

〔2018〕 우연히 만난 어른

호칭 및 지칭	선생님, 여기요, 저기요 아저씨, 아주머니,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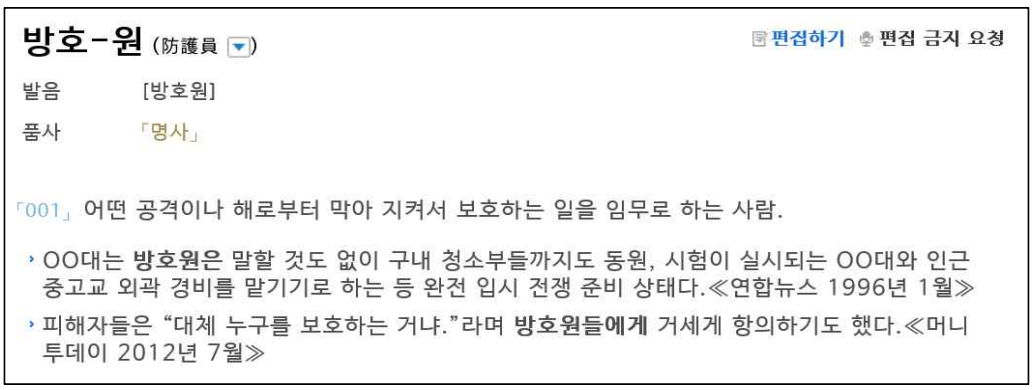
우연히 만난 어른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관계에서의 호칭이나 지칭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성인 남자에게는 '아저씨', 성인 여자에게는 '아주머니', 노인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쉽게 쓰게 된다. 그런데 요즘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할머니'라는 호칭을 듣고 불편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있었다. 나이에 대해 유표적인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성인에 대해서는 '선생님' 정도를 쓰는 것이 좋겠다. 또 '아저씨'나 '아주머니'도 성인 남자나 여자를 대상으로 호칭이나 지칭으로 쓸 수 있는데 연구진 회의나 자문회의 등에서 '아줌마'의 사용은 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주머니'에 비해 '아줌마'가 낮춤의 어감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여기요', '저기요'와 같은 호출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성별이나 나이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호칭으로 부담이 없이 쓰일 수 있겠다. 또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학생' 또는 '젊은이'를 호칭이나 지칭으로 쓸 수도 있는데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학생'을 호칭이나 지칭으로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외에도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관계나 직종도 많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환경) 미화원, (가사, 육아) 도우미, 경비원, 승무원 등 직종에 대한 말은 있지만 보통 '아저씨', '아줌마', '언니' 등의 호칭이 쓰이는 직군이다. 건물이나 기관의 경비를 맡은 분에 대해 국립국어원에서는 '방호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고 한다. <우리말샘>에는 '방호원'에 대해 '경비원 및 청원경찰'의 의미로 풀이되어 있

다.[59] 직종에 '선생님'을 붙여 그 업무의 전문가임을 존중해주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비행기의 조종사나 기차의 기관사에 대해 '조종사님', '기관사님'이나 '조종사 선생님', '기관사 선생님' 등으로 부르고 '미화(원) 선생님', '조리사 선생님' 등으로 부르고 이를 수 있겠다.


방호-원 (防護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방호원]

품사 「명사」

「001」 어떤 공격이나 해로부터 막아 지켜서 보호하는 일을 임무로 하는 사람.

› OO대는 **방호원은** 말할 것도 없이 구내 청소부들까지도 동원, 시험이 실시되는 OO대와 인근 중고교 외곽 경비를 맡기기로 하는 등 완전 입시 전쟁 준비 상태다.≪연합뉴스 1996년 1월≫

› 피해자들은 "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거냐."라며 **방호원들에게**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머니투데이 2012년 7월≫

또 <우리말샘>에는 60건 이상의 '도우미' 관련 표제어가 있는데 '결혼 도우미'나 '간병 도우미', '진로 도우미'처럼 직업을 나타내는 어휘도 있지만 '귀가 도우미', '급식 도우미', '도서 도우미'처럼 봉사나 임시적인 일과 관련한 어휘도 있다. 우선 '급식 도우미'를 생각해 보면 학교 급식 시간에 밥과 반찬을 나누어주는 사람을 말하는데 보통은 학부모나 상급생 등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 필요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직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호칭이나 지칭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간병 도우미'나 '산후 도우미'처럼 가족과 같은 수준의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모(님)'와 같은 호칭을 쓰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나의 가족을 돌보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 친근함을 드러내기 위해 '이모(님)' 등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수용할 것인지는 좀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호칭이나 지칭이 필요한 영역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를 모두 다루기는 어렵다. 언중이 자연스럽게 상대를 존중하면서 상황에 맞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호칭이나 지칭을 발굴하고 가꾸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학생들은 다른 전공의 학생이나 심지어는 같은 전공의 학생이라도 친분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60] 예전에는 학번을 기준으로 '선배(님)'로 부르던 것이 이제는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 씨'에서 '(○)○○ 선배(님)', '○○ 형/언니/누나/오

59) 방호원(防護員)은 과거 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13.12.12. 폐지)의 명칭으로 행정기관의 시설을 보호하고 경비·경호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 사람을 말했었다. 현재는 경비원 및 청원경찰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https://k○.wikipedia.○rg/wiki/%EB%B0%A9%ED%98%B8%EC%9B%90)

60) * http://www.hank○○kilb○.c○m/News/Read/201812201352064557?did=DA&dtype=&dtypec○de= 한국일보 요즘 대학생이 선배를 '~씨'라 부르는 이유? 2018.12.22

* 머니투데이 2018.12.10. "대학가 호칭, 선배가 웬말? 학번 상관없이 '○○ 씨'

빠’ 등으로 달라진다는 것이다. 후배에게도 처음부터 이름을 그냥 부르지 않고 ‘(○)○○ 씨’ 하다가 친해진 후에 ‘○○야’ 한다는 것이다. ‘(○)○○ 씨’로 부를 경우 상대방과 나이나 학번, 성별 등을 모르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드러낼 수 있다. 물론 ‘(○)○○ 씨’로 불리는 것이 불편하다거나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으로 보인다. 대학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 선배와 후배 간 구분이 엄격했던 때 사용했던 호칭이나 지칭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없애자는 문화가 생기면서 여자 후배가 남자 선배에게 ‘형’으로 호칭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선배’가 주는 거리감 때문에 ‘오빠’나 ‘언니’와 같은 호칭이 자연스럽게 확대되었다가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 씨’와 같은 호칭으로까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역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예전의 호칭이나 지칭을 지키면서 막아서고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하나로 보고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 어떨가 한다.

온라인상에서의 호칭과 지칭도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SNS나 인터넷 기사에 달리는 댓글에서 글을 보는 사람에 대한 고려 없이 상대방을 낮추거나 비하하는 호칭이나 지칭은 바람직하지 않다.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으로 ‘-님’을 쓰는데 현재 사전에는 의존명사, 접미사의 용법으로만 되어 있어 문법적으로 바른 표현은 아니다. 그러나 온라인의 용법이 오프라인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용법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또 ‘엄빠’(엄마와 아빠)나 ‘셤니’(시어머니) 등의 지칭을 사용하면서 비속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바른 온라인 언어문화를 위해 언중의 노력이 필요하다. 1992나 2011은 편지글에서 사용하는 호칭을 다루고 있지만 이제는 온라인이나 전자우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나 지칭의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 『표준 화법 해설』(1992), 『표준 언어 예절』(2011),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2018) 해설 비교

표준 화법 해설(1992)

식당 등의 종업원

식당 등 영업소의 남자 종업원을 부를 때와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아저씨’, ‘젊은이’, ‘총각’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쓰도록 했다. ①일반적으로 어느 경우에나 ‘여보세요’를 쓸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남자) 종업원’을 쓰도록 했다.

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와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아주머니’, ‘아가씨’를 쓰도록 했다. ‘아줌마’는 상대방을 높이는 느낌이 들지 않으므로 말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아주 적거나 친근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야 할 표현이다. ②연세가 드신 분들이 나이 어린 여자 종업원을 ‘언니’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쓰지 않아야 될 말이다. 물론 어린이는 ‘언니’라 부를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여자) 종업원’을 쓰도록 했다.

식당 등의 손님

식당 등의 영업소에서 손님을 부르거나 지칭할 때는, ③손님의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손님'을 표준으로 했다. 직함을 정확히 아는 손님일 때는 '(○, ○○○) 과장님'처럼 직함이나, 성(姓) 혹은 성명에 직함을 합쳐 부르고 가리킬 수 있다.

식당, 은행, 관공서 등의 손님 및 직원

많은 사람들이 은행 창구, 관공서 민원실 등의 직원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도 현재 쓰고 있는 말 중에서 적합한 말을 표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④남녀 모두 '○○○ 씨', '(○) 과장(님)'을 호칭어와 지칭어로 쓰도록 정했다. 또한 이름이나 직함을 모를 때에 일반적으로 '여보세요'라고 부를 수 있는데, '선생(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어와 '(남자 또는 여자) 직원'을 쓰도록 하였다. 은행, 관공서 측에서 손님을 부를 때는 누구에게나 '(○○○)손님'으로 부르고 지칭한다.

우연히 만난 어른

⑤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을 만나서 부르고 가리킬 경우도 많다. 그 사람이 아주 나이가 많은 남자라면 '어르신(네)', '선생님'이라고 하고 동년배이거나 아랫사람이면 '선생(님)'을 쓰도록 하였다.

만난 사람이 여자일 경우 아주 나이 많은 윗사람에게는 '어르신(네)', '할머니(님)', '아주머니(님)'를 쓰고 동년배이거나 나이가 더 적은 사람에게는 경우에 따라 '할머니', '아주머니'를 쓰도록 하였다.

<83-86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식당, 상점, 회사, 관공서 등의 직원

식당, 상점, 회사, 관공서 등의 직원을 부르고 가리키는 말은 '아저씨', '젊은이', '총각', '아주머니', '아가씨', '○○ 씨',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이다. ①그리고 주로 식당, 상점 등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쓰는 말은 '여기요'와 '여보세요'이다.

식당, 상점 같은 영업소의 남자 종업원을 부를 때와 가리킬 때는 '아저씨', '젊은이', '총각'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쓴다. 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와 가리킬 때는 '아주머니', '아가씨'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쓴다. '아줌마'는 상대방을 높이는 느낌이 들지 않으므로 나이가 많은 종업원이나 친한 사이가 아닌 종업원에게는 호칭, 지칭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②손님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자 종업원을 '언니' 또는 '이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다. 물론 어린이는 '아줌마', '언니'라고 부를 수 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은행 같은 회사나 구청 같은 관공서 등의 직원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④이에 대하여 남녀 모두 '○○ 씨',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을 호칭과 지칭으로 쓸 수 있다. 또한 이름이나 직함을 모를 때에는 일반적으로 '여기요', '여보세요'라고 부를 수 있는데,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이라고 부를 수 있다.

<148쪽>

표준 언어 예절(2011)

식당, 상점, 회사, 관공서 등의 손님

식당, 상점 등의 영업소에서 손님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③손님의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손님'이라고 한다. 직함을 정확히 아는 손님일 때는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처럼 직함이나, 성(姓) 또는 성명에 직함을 합쳐 부르고 가리킬 수 있다.

은행, 관공서 측에서는 손님이 누구든지 '손님', '○○○ 님', '○○○ 손님'으로 부르고 가리킨다.

⑥한편, 지하철, 철도, 항공편 같은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곳에서는 '손님' 대신 '승객'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 이때 '고객'보다는 '차, 배, 비행기 따위를 타는 손님'이라는 뜻이 담긴 '승객'을 쓰는 것이 좋다.

<149쪽>

1992에서는 호출어로 ①과 같이 일반적으로 '여보세요'를 쓸 수 있다고 한 반면 2011은 '여기요'와 '여보세요'를 제시하였다. 요즘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르기 위해 주로 많이 쓰는 말은 '여보세요'보다는 '여기요'인 경우가 많다. 2018은 '여기요'를 기본으로 보고 '여보세요'는 전화 통화 등에서 주로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②에서 나이 많은 손님이 나이가 어린 종업원에게 '언니'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되 분명히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향에 따라 2018에서는 이를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다.

③의 '손님'은 요즘 '고객님' 등과 같이 쓰인다. 2018은 언중의 사용을 따라 이 둘을 모두 쓸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아울러 ⑥은 교통수단의 손님을 '승객'으로 부르고 이르도록 한 것인데 '손님'이나 '고객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굳이 '승객'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④는 관공서에서 직원에 대해 이름에 '씨'를 붙여 '○○○ 씨'로 부르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처음 보는 직원에게 '김철수 씨'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마지막으로 ⑤는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 호칭과 지칭에 대한 것인데 1992에 있다가 2011에서는 빠진 부분이다. 보통은 '아저씨', '아주머니'를 기본으로 '어르신'이나 '선생님'을 쓰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을 불러야 할 때 호출어인 '여기요', '저기요'도 많이 쓰인다.

○ <소통을 위한 언어예절>(2018) 정비안

〔2018〕 공공 기관 직원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및 지칭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여기요 ○○ 씨, ○○○ 씨

〔2018〕 서비스 기관 직원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및 지칭	여기요, 저기요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씨, ○○○ 씨

〔2018〕 공공 기관에서 손님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및 지칭	○○○ 님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2018〕 서비스 기관에서 손님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및 지칭	손님, 고객님, 회원님 등 ○○○ 님, ○○ 님, ○○○ 손님, ○○○ 고객님

〔2018〕 우연히 만난 어른

호칭 및 지칭	선생님, 여기요, 저기요 아저씨, 아주머니, 학생



5.『표준 언어 예절』(2011) 정비안 홍보 방안

5.『표준 언어 예절』(2011) 정비안 홍보 방안

언어, 특히 호칭어나 지칭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늘 쓰이는 어휘에 대해 정책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연구진은 물론 학계 전문가, 전문가 자문위원들의 염려가 있었다. 호칭어나 지칭어의 표준을 정해 그 외의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재단하는 일이 과연 옳은가, '표준'이라는 것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정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우려는 물론이고 이를 홍보해서 언중에게 쓰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고민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사용자들이 호칭어나 지칭어 수정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어렵다', '복잡하다', '불평등하다' 등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라고 보았다. 연구진은 최대한 나이나 성별에 있어 대칭적인 호칭어나 지칭어의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언중이 사용하고 있는 호칭어나 지칭어를 새롭게 포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제 연구의 결과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홍보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결과보고서의 활용 방안을 고민해 보기로 한다.

① 소책자 제작

기본적인 방법으로 『표준 언어 예절』(2011)과 같은 소책자를 제작하여 관공서, 학교, 기업체 등에 배포하는 것이 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현재 『표준 언어 예절』과 같은 단행본으로 꾸려 기준이 될 호칭과 지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붙여 출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이러한 형식의 단행본은 자칫 또 다른 '표준 호칭·지칭'을 제안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이후에는 간단하고 재미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소책자 형식의 안내서 정도를 제작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행본의 경우 제작과 배포의 비용이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자책 형태로 제작하되 이를 연재의 형식으로 만들어 기간을 두고 배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② 동영상,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 세부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다. 동영상과 같은 영상 매체를 우선적으로 제작하고, 신문, 잡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지면 홍보물을 제작한다. 동영상은 인터넷 포털, 관공서 누리집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③ 언론(방송, 신문 등), 매체(인터넷·SNS 등)를 통한 홍보

제작된 홍보물을 통해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 세부안을 홍보하는데, 우선적으로 가능한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홍보물을 전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하여 그에 적합한 홍보 작업을 수행한다.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웹툰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제작할 수 있다. 특히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호칭이나 지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고 여성가족부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과 연계하여 새롭게 정비된 호칭어나 지칭어의 내용을 함께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초·중등 교사 연수 실시

학교 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실시한다. 이는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연수원에 협조를 요청하여 방학 중이나 인터넷 원격 연수를 통하여 연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교과서의 제작 단계에도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어문규범을 배운 후 활동으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호칭어나 지칭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루는 구성을 마련하거나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으로 언어 예절 사용에 대한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국립국어원에서 행사를 마련할 수 있다.

⑤ 공무원, 직장인 대상 국어문화학교 운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방법으로는 국어원에서 운영하는 국어문화교육을 활용하여 공무원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 연수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실제 언어 사용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예절 내용에 대하여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언어 예절 세부안 홍보와 확산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에 대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실제 언어 사용 환경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종래의 언어 예절 관련 연수와의 차별성이나 장점은 사라지고 기존 언어 예절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 결론

6. 결론

본 연구는 1992년 『표준 화법 해설』에 이어 2011년에 발간된 『표준 언어 예절』의 뒤를 다시 잇는 새로운 언어 예절 지침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언어 예절에는 호칭·지칭, 높임법, 인사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는 호칭·지칭에 관한 연구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1992년에서 2011년의 사이에는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 동안에 이루어진 변화의 폭보다 최근 7~8년 사이에 아직 몇 해 부족한 이 시점에 분출되고 있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훨씬 더 강렬하고 근본적인 것이라고 판단되어 연구진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연구를 수행하는 수개월의 시간 동안에만도 어느 때보다 잦은 민원과 언론 기사를 접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호칭·지칭에 대한 일반 연구를 포함하여, 2017년에 이루어진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의 면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심층 설문 조사안 마련 과정을 통한 연구 결과를 국어학회 국어정책포럼에서 발표하면서 국어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어 본 연구진이 마련한 심층 설문지를 활용하여 실태 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여성 단체 임원들과의 좌담회, 학계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기존의 소위 표준안들이 가진 문제점과 시대의 요구를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추가적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서 제공하는 <국민생각함>과 네이버 설문조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섬세하게 언중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유림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하여 성균관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전통적인 가족 제도의 원형이 상당히 와해되었고 집단 중심이기보다는 개인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남녀의 위상이 상하적인 관계에서 대등적인 관계로 조정되었다는 점이었다. 전통적인 가족 제도의 원형이라 함은, 부모와 자녀와 함께 사는 남성을 중심으로 하여 3대에 걸치고 손위·아래로 형제·자매를 두루 갖추고 있는 대가족을 가리킨다. 이러한 가족 제도 안에서, 여성은 성장한 이후 그 가족에 편입된 후발 구성원이고 남성에게 대소사의 결정이나 경제력에서 종속된 존재로서 그보다 손아래의 위상을 가지는 것이 당연시되며, 여성의 가족은 늘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범위에 들지 못하고 여성의 위상에 준해서 대접받는다. 사회에서의 관계도 예전에는 집단 중심 문화의 영향으로 공과 사의 구별이 불분명하고 직책의 위계가 관계의 고하로 오해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이 존중되기를 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산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언어 예절에 있어서는 '표준'이라는 규범적 시각을 지양하고 상호 배려와 소통을 추구하는 전략적 태도가 기본이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비 원칙을 수립하여 『표준 언어 예절』의 체제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1. 남녀 간 대칭적 호칭어, 지칭어 체계를 갖추어 제시한다.
2. 호칭어나 지칭어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제시하되 다소 잉여적이더라도 체계상 빠져 있는 부분은 보완하여 제시한다.
3. 기본적으로 모든 지칭은 호칭으로 통용될 수 있음을 수용한다.
4. 지역을 구별 표지로 하는 호칭이나 지칭, 자녀를 매개로 한 호칭이나 지칭, 제3자와의 관계를 활용한 호칭이나 지칭의 사용을 폭넓게 수용한다.
5. 표에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각 가정이나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필요나 목적에 따라 호칭어나 지칭어는 자유롭게 정해 쓸 수 있다. 특히 상황이나 장면, 친소 관계 등의 변화에 따라 호칭어나 지칭어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하는 호칭어나 지칭어를 기준으로 삼아 자유롭게 쓰면 된다는 점을 안내한다.

이러한 정비 과정에서 우리는 전통적 호칭과 지칭 가운데 오늘날의 보편적 인식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라도 전통적 가족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언중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당장에 비표준 내지는 오용으로 단정하는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다. 오늘날 전혀 사용되지 않는 일부 호칭이나 지칭은 목록에서 제외하기도 하였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당장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세대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사용하기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은 정리되고 확산될 필요가 있는 것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새로운 가족 형태와 관계, 사회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호칭과 지칭을 제안하기 위해 언중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발한 착상을 제공하려 하지 않았다. 없는 말을 갑작스럽게 제정해서 언중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모쪼록 우리는 본 연구가 오늘날 달라지고 다양해진 언중들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단순한 질서 유지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기보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함으로써 원만한 소통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호칭과 지칭의 언어예절 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총서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교육인적자원부(2007),『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 『국어교육학사전』, 서울:대교출판.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2. 논문

D. Otgontsetseg(2010), 한국어와 몽골어에 있어서의 언어예절에 대한 비교연구 – 호칭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15,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D.Otgontsetseg · 金子祐樹(2010), 문화 대비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와 몽골어의 호칭과 지칭, 제8차《한국어문학 국제학술포럼 국제학술대회》.
Qi Feng(2011), 한국어와 중국어의 호칭어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Yuan · Yun-xia(2008), 한 · 중 사회 호칭어 체계와 응용의 대조, 《어문논총》 19.
YUAN YUNXIA · YUAN YUNXIA(2008), 현대 한·중 사회 호칭어 대조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병륜(2001),「호칭어(呼稱語) '아빠/아버지·엄마/어머니'에 대한 연구(硏究) – 초등학교(初等學校) 교과서의 부(父)·모(母) 호칭어(呼稱語) 정립을 위하여 –」, 語文硏究,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강병주(2009), 한일어 호칭어 대조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소산 · 전은주(2013), 한국어 교육에서 호칭어, 지칭어 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새국어교육》 95.
강영부(2008), 일본인과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차이 – 인사표현, 「どうも」, 「どうぞ」와 그에 대한 한국어표현에서 나타나는 콘텍스트 의존도의 차이, 《日本文化學報》 제 39집.
강주영(2009), 방송언어의 호칭어 사용 양상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희숙(2002),「호칭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강희숙·손춘섭·양영희(2009),「전남방언 여성호칭어의 사회언어학적 변이와 변화에 대한 연구」, 호남문화연구,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고선(2013), 한 · 중 매개호칭 · 지칭에 대한 대조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성환(2009), 한국어 교재의 호칭 · 지칭어, 《통합인문학연구》 1-2.
구현정(2009), 국어 표준 화법의 현황과 개선 방안 : 경어법이 표준 화법 실태와 개선 방안, 《화법연구》 15, 한국화법학회.
김경혜(2002), 한국어와 일본어의 인사표현에 관하여 – 대학생의 만남과 헤어짐의 인사말을 중심으로–, 《일본어교육연구》 3.
김광순(2015), 친족어의 호칭어로서 확장, 사용 양상 – {형}, {누나}, {오빠}, {언니}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48, 한국어의미학회.
김규원(2002), 대중 매체를 이용한 호칭어 · 지칭어 교육 방법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기종(1995), 중국 조선족과 한국 사이에서 호칭어, 지칭어 사용에서의 차이, 《중국조선어문》 2.
김동구(1989), 지칭 표현의 지시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령(2012), 우리말 인사화행의 연구, 《우리말연구》 31, 우리말글학회.

김수아(2017), 사회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혐오, 차별 표현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와, 차별 표현의 문제와 개선 방안, 새국어생활 제27권 제3호, 국립국어원.
김시황(1998), 한국인의 지칭과 호칭, 《동양예학》 1, 동양예학회.
김은경(2017),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 연구, 동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일두(2009), 호칭의 인플레션, 《문예운동 2009년 가을호》 103.
김지연 · 심영택(2010), 표준 화법 개정을 위한 가정에서의 호칭어, 지칭어 조사 연구, 《화법연구》 16, 한국화법학회.
김태경 · 이필영(2018), 개정을 위한 사회에서의 호칭어 · 지칭어 사용 양상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66집, 국어교육학회.
김태경(2018), 일반 사회(공공장소)에서의 언어 예절, 새국어생활 제28권 제1호, 국립국어원.
김해연(1999), 한국어 대화상에서의 화자와 청자에 대한 지칭 표현, 《담화와인지》 6-1, 담화인지언어학회.
김혜숙(2004), 한국인 부부의 관계 변화에 따른 호칭어 사용 변화,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김혜영(2013), 문맥에서 지칭어와 호칭어의 사용,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2013,
나디아(2011), 말레이어 · 한국어 대조 분석을 통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나은미(2012), 화법 교육의 현황 및 대학에서 화법 교육 방향 - 맥락(context)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31집, 한성어문학회.
나은미(2014), “한국어 밥 인사 표현”의 맥락과 화용 의미, 《민족문화연구》 63, 민족문화연구원.
나채운(1988), 우리말의 특징에 관한 한 고찰 – 인칭, 호칭, 지칭에 관한 외국어와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나채운, 《장신논단》 제4집.
노양진(1998), 지칭에서 의미로, 《哲學》 제56집, 한국철학회.
노은희(2009), 국어 표준 화법의 현황과 개선 방안 : 국어 교육에서 표준 화법 관련 내용의 수용 방향, 《화법연구》 15, 한국화법학회.
孟祥艷(2012),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인사 표현 분석, 《한남어문학》 제36집, 한남어문학회.
문금현(200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인사 표현의 교육 방안, 《새국어교육》 80, 한국국어교육학회.
문금현(2009), 한국어 빈말 인사 표현의 사용 양상과 특징, 《언어와 문화》 5-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문금현(2009), 한국어 인사 표현의 유형과 특징, 《세계한국어문학 창간호》 1.
민병곤 · 박재현(2010), 표준 화법의 개정을 위한 직장,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어 사용 실태 분석, 《화법연구》 16, 한국화법학회.
민병곤 · 박재현(2010), 표준 화법의 개정을 위한 직장,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어 사용 실태 분석, 《화법연구》 16, 한국화법학회.
박광규(2012), 한국인의 인사표현 연구 – 일상의 인사표현을 중심으로, 《언어과학》 19-3, 한국언어과학회.
박미숙 · 오영훈(2015), 외국인 유학생이 인식하는 한국어 호칭과 문화와의 상관성 연구, 《문화교류연구》 4-2,
박상택(2013), 한·몽 호칭어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언어학연구》 28, 한국중원언어학회.
박수란(2005),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인사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용한(2008), 해군 장교 부인들 상호 간의 호칭어 사용 연구,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박은송(2008), 호칭 접미사 '씨'와 '님'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은하(2010), 「드라마에 나타난 호칭어 및 높임법 사용 양상 연구」, 드라마연구, 한국드라마학회.
박은하(2013), 호칭어 ‘선생님’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 대학에서의 표준형과 변이형 사용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59집
박재현(2006), 「설득 화법 교육을 위한 텍스트 연결 표현의 의미기능 연구」, 텍스트언어학, 한국텍스트언어학회.
박재현(2008), 「화법 수업에서 비디오 피드백에 대한 말하기 불안 학습자의 인식」, 화법연구, 한국화법학회.
박재현(2009), 「군 조직의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언어 교육 방향」,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박재현(2010), 「‘표준 화법’의 개정을 위한 직장, 사회에서의 호칭·지칭어 사용 실태 분석」, 화법연구, 한국화법학회.
박재현(2010), 「국어 교수 화법의 유형적 특성에 관한 분석적 고찰 -국어교사의 평가/피드백 발화를 중심

으로-」, 새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박재현(2011),「개정 교육과정 '설득' 범주의 교육 내용 통합 연구」,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박재현(2011),「공공언어에 대한 요건별 장르별 만족도」,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박재현(2011),「공공언어의 수준 평가를 위한 진단 지수 개발 연구」, 인문연구, 인문과학연구소.
박재현(2012),「한국어 교사의 등급별 문법 용어 사용 실태」,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박재현(2013),「사용자 중심의 국어과 교과서 선정 기준 개발 방향 연구 -국어 교사의 실제 선정 활동 분석을 토대로-」, 국어교육연구, 국어교육연구소.
박재현(2013),「수사적 민감성 척도를 활용한 세대별 의사소통 양상 분석」, 화법연구, 한국화법학회.
박재현(2013),「중등학교 국어 교과서 토론 단원에 제시된 정책 논제의 적합성 분석」, 새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박재현(2013),「한국 중고생의 부모-자녀 대화 양상」, 화법연구, 한국화법학회.
박재현(2014),「국민의 국어능력 조사 결과 분석」, 국어교육연구, 국어교육연구소.
박재현(2014),「성인의 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 결과 분석」, 화법연구, 한국화법학회.
박재현(2015),「미래 사회의 요구와 화법 역량」, 새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박재현(2016),「성차별적 표현에 대한 언어인식 교육 방향 탐색」,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박재현(2016),「직급과 성별에 따른 직장 의사소통 갈등 요인」, 화법연구, 한국화법학회.
박재현(2017),「군대 은어 및 낯선 한자어의 사용자 인식 유형별 교육 방향」,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박정운(1997),「한국어 호칭어 체계」,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박지원(2017), 법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혐오, 차별 표현 - 입법적 규제의 필요성, 새국어생활 제27권 제3호, 국립국어원.
박창균 · 임칠성(2010), 인사말의 표준 화법 실태 조사 연구, 《화법연구》 16, 한국화법학회.
박철우(2018), 종합적 단어관의 전개 가능성 검토, 한글 79, 한글학회.
박철우(2017), 담화 단위와 의미, 한국어학 77, 한국어학회.
박철우(2015), 화용론의 현재와 미래 - 언어 연구의 방법적 성격과 외연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62, 중앙어문학회.
방혜숙(2007),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인사표현 양상과 그 효과적 교수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18-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봉일원(2012), 교감적 언어사용과 번역 - 관계표지로서의 호칭형식과 호감표지를 중심으로, 《독어학》 26, 한국독어학회.
北島佳代子(2012), 한 · 일 양어의 호칭에 관한 연구 - 「호칭의 확대사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민정(2008), 한국어 여성 지칭, 호칭어의 변화 양상 - 1940, 50년대와 2000년대의 비교-, 《우리어문연구》 30, 우리어문학회.
서정수(1997), 인사말 비교 연구 - 한 , 일 , 영 , 중국의 주요 인사말 -, 《한국어 교육》 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서진숙(2009), 학부 유학생의 호칭어 사용 연구 : 언니, 누나, 오빠, 형, 선배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서현석(2009), 국어 표준 화법의 현황과 개선 방안 : 표준 화법 개선을 위한 인사말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화법연구》 15, 한국화법학회.
손세모돌(2005), 한국어 교육에서의 호칭지칭에 대하여, 《한말연구》 16, 한말학회.
손춘섭(2010), 현대국어 호칭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33, 한국어의미학회.
신호철(2009), 국어 문장 부호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 128, 한국어교육학회.
신호철(2016), 문법 교과서에서 매체의 활용 유형 연구, 한말연구 39호, 한말연구학회.
신호철(2018), 문법 영역의 교육 내용으로서의 국어생활, 한말연구 49, 한말연구학회.
신호철 · 이현희(2018), 한국어 인사와 인사말의 개념과 범위, Journal of Korean Culture 42권,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심영택(2010),「표준 화법 개정을 위한 가정에서의 호칭어, 지칭어 조사 연구」. 화법연구, 한국화법학회.
심지연(2013), 한국어 배우자 가족 호칭의 문제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학연구》 제44집
양영희(2011), 여성지칭 접미사 '-네'와, '댁'의 형성 과정과 기능 변천 고찰, 《우리말글》 제52집, 우리말글학회.

양오진·황대화·김현주(2008), 평안도(平安道) 서해안(西海岸) 방언(方言)의 지칭어(指稱語)·호칭어(呼稱語) 연구(硏究) – 용천(龍川)·의주(義州)(평북(平北))와 문덕(文德)·안주(安州)(평남(平南))를 중심으로 –, 語文硏究,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엄기정(2000), 상행위에서의 호칭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엄기정,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카무라 카나(2017), 의문형 인사 표현에 대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인식 및 응답 양상 연구, 《사회언어학》 25-1, 한국사회언어학회.
옥종석(2000), 영어와 한국어 호칭어에 대한 재고찰, 《영어영문학연구》 42-2,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유경옥 · 강미영,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연구 – 호칭어 목록 선정과 교육 방안을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45.
유동삼(1980), 국어 교육 바람직한 인사의 생활화를 위한 지도 방안, 《새국어교육》 32, 한국국어교육학회.
유송영(1998), 국어 호칭·지칭어와 청자 대우 어미의 독립성, 《國語學》 제32집, 국어학.
유송영(2001), 두 남녀 사이에 '친밀성'(intimacy)의 증가에 따른 호칭·지칭어의 교체 사용과 요인간의 우선순위,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유원호·채서영(2011), 타이틀과 호칭어로 쓰이는 직업명: 일곱 개 언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언어와 언어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유정정(2010), 대학가 여학생들이 사용하는 호칭어에 관한 고찰 –남자 선배를 부를 때 사용하고 있는 호칭어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유현아(2013), 한, 중 친족 호칭 비교 연구 – 친족지칭 조카에 대한 비교, 《중국언어연구》 49, 한국중국언어학회.
유혜민(2009), 한국어 일본어의 호칭 비교 분석 – 젠더와 대우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관희(2018), 군대 언어,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새국어생활 제28권 제1호, 국립국어원.
이기갑 · 최경룡(2013), 호칭의 사용과 변화에 대한 연구 – 화용론적 관점에서–, 《학문과기독교세계관》 7,
이문성(1992), 고유명의 의미와 지칭, 《인문논총》 22,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이문성(1993), 지칭의 고정성과 한정기술의 범위, 《건지철학》 3, 한국건지철학회.
이병덕(2015), 지칭의 대용어 이론과 이에 대한 비판들, 《논리연구》 18-2, 한국논리학회.
이선웅(2007) 국어 지칭어 · 호칭어의 명사구 형성 문법, 《우리말글》 제40집, 우리말글학회.
이선화(2002), 공공 상황에서의 한국어 호칭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수연(2010), 「한국어 배우자 지칭어 체계의 성별 분화 현상」, 방언학, 한국방언학회.
이숙자(2014), 공손 표현에 대한 번역 전략 – 호칭어를 사용한 대화체 문장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5,
이순형 · 이승민(2013), 한 · 일 교원의 '선생님' 호칭 사용에 관한 실태와 의식, 《동북아 문화연구》 제34집
이영천(2010), 한중 호칭어와 지칭어의 대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윤진(2006),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17-1,
이은희(2015), 한국어 친족 호칭어 및 지칭어 교육 현황 연구 –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교재를 중심으로 –, 《한성어문학》 34,
이정미 · 안병곤(2010), 한일 양국의 서비스경어행동으로서의 인사행동 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27집,
이정복(2006), 「국어 경어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국어학, 국어학회.
이정복(2007), 「인터넷 통신 언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평가」, 방언학, 한국방언학회.
이정복(2009),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적 언어문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 언어과학연구, 언어과학회.
이정복(2010), 「인터넷 사이트 방문자에 대한 호칭 실태 분석」,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이정복(2010), 「인터넷 통신 공간의 여성 비하적 지시 표현」,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이정복(2011), 「인터넷 통신 언어 실태와 세대 간 의사소통의 문제」, 배달말, 배달말학회.
이정복(2011), 「트위터 누리꾼들의 호칭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이정복(2011), 「한국어 경어법의 주요 기능」,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이정복(2012), 「스마트폰 시대의 통신 언어 특징과 연구 과제」,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이정복(2012), 「학술 논문 심사자와 제출자의 경어법 사용」,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이정복(2013), 「사회적 소통망(SNS)의 지역 차별 표현」,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이정복(2014),「통신 언어 의성의태어 사용과 성별 차이」,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이정복(2015),「사회적 소통망(SNS) 말놀이의 유형과 기능」,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이정복(2016),「누리꾼들의 비의도적 차별 언어 사용 연구」,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이정복(2017), 한국어와 한국 사회의 혐오, 차별 표현, 새국어생활 제27권 제3호, 국립국어원.
이정복(2017ㄱ),「국어사전의 차별 표현 기술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배달말, 배달말학회.
이정복(2017ㄴ),「2017년 한국 대선 기간의 유명 정치인들에 대한 트위터 누리꾼들의 호칭어 및 경어법 사용」, 언어와 정보 사회, 서강대학교언어정보연구소.
이정복(2018),「한국어 친족 호칭어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語文學, 한국어문학회.
이창덕(2007),「새로운 화법교육 연구의 방향과 과제」,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이창덕·나은미(2010),「표준화법 규정 제정과 교육 방안 연구 -표준화법 인식과 교육 및 홍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법연구, 한국화법학회.
이창덕(2011),「언어예절 인식변화와 언어 갈등 해결 방식 탐색」, 나라사랑, 외솔회.
이창덕(2011),「화법교육의 이론과 실제」, 새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이창덕(2016),「국어 화자입장(speakers stance)의 화용적 표현체계에 대하여」, 화법연구, 한국화법연구학회.
이필영·김태경(2018),「가정에서의 호칭어 · 지칭어 사용 실태와 문제점」,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이한규(2005), 한국어 부정대명사 남의 지칭 현상, 《언어학》 13-4,
이현주(2015), 신문광고에 나타난 소비자 지칭 어휘의 변화 양상 연구, 이현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현희(2014), 구어성 언어 단위의 설정과 그 유형, 한글 303, 한글학회.
이현희(2015), 구어의 특성을 고려한 감탄사의 범주 전형성 연구, 우리말연구 40, 우리말학회.
이현희·박철우(2015), 성인의 문식성 향상을 위한 핵심 어휘 학습 방안 연구, 독서연구 24집, 한국독서학회.
이현희·박미영(2018),「≪표준 언어 예절≫(2011)로 본 언어 예절 연구 방향」,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임칠성(2008),「화법 교육과정의 '담화 유형'에 대한 범주적 접근」, 화법연구, 한국화법학회.
임칠성(2010),「디지털 언어 소통 시대와 화법」,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임칠성(2010),「바람직한 화법 교육과정 구조와 내용 체계 연구」,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임칠성(2010),「인사말의 표준 화법 실태 조사 연구」, 화법연구, 한국화법학회.
임칠성(2015),「국어와 한국어 구어교육 비교 연구, 화법연구, 한국화법학회.
임칠성(2016),「라디오 DJ 오프닝멘트의 말 걸기 전략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국어교과교육학회.
임칠성(2017),「디지털 소통과 국어교육」, 한글, 한글학회.
임칠성(2017),「디지털 소통과 화용론 연구의 과제」, 국어교과교육연구, 국어교과교육학회.
전룡화(2012), 중한 두 나라 인사말 대응관계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20,
전영우(2009), 표준화법의 문제와 개선 방향, 《화법연구》 15,
전은주(2006),「화법교육 변천사」,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전은주(2007),「대학 화법 교육의 내용 구성」, 국어교육학연구, 국어교육학회.
전은주(2007),「대학 화법 교육의 목표 설정 방향」, 새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전은주(2009),「호칭어, 지칭어의 '표준 화법' 실태와 개선 방안」, 화법연구, 한국화법학회.
전은주(2011),「한국어 말하기 듣기 교육에서 '실제성 원리'의 적용 층위와 내용」, 새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전은주(2013),「드라마 직장 대화에 나타난 질문 화행 분석」, 화법연구, 한국화법학회.
전은주(2013),「한국어 교육에서 호칭어, 지칭어 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새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전은주(2014),「스마트 교육 시대의 화법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국어교육학회.
전은주(2016),「직급과 성별에 따른 직장 의사소통 갈등 요인」, 화법연구, 한국화법학회.
전은주(2016),「직장 내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무직 회사원의 감정(분노) 조절 실태 조사」, 화법연구, 한국화법학회.
전은주(2017),「직장 내 회의의 갈등 유발 요인 탐색」, 화법연구, 한국화법학회.
전은주(2018), 직장 내 의사소통의 양상과 개선 방향, 새국어생활 제28권 제1호, 국립국어원.
정달영(1999), 한국어의 친족 호칭어와 지칭어에 관한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5,
정성경(2010), 전남의 기혼자 호칭어 연구 : '-네, -실, -손'을 중심으로, 방언학, 한국방언학회.

정유진 · 강범모(2015), 인물 지칭어와 관련어의 사용 양상, 《담화 · 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정인호(2006), 존칭과 호칭, 《문예운동 2006년 가을호》 91,
정주희(2009), 드라마에 나타난 현대 호칭어 · 지칭어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제민경(2017), 교육적 관점에서 본 혐오, 차별 표현 - 담화 공동체에서 차별 없는 언어란 무엇인가, 새국어생활 제27권 제3호, 국립국어원.
제효봉(2010),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 연구 – 듣기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조남민(2009),「여성 호칭어 "아주머니" 계열 어휘의 의미 변화에 대한 연구」, 배달말, 경상대학교 배달말학회.
조은주 · 고은정(2015), 한국인과 한국어 학습자의 인사 화행 연구, 《이중언어학》 60,
조태린(2007),「표준어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한말연구, 한말연구학회.
조태린(2009),「언어 정책에서 법적 규정의 의미와 한계-국어기본법 다시 보기」, 한말연구, 한말연구학회.
조태린(2010),「언어 규범과 언어 변이의 문제 -'표준 화법'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조태린(2010),「언어정책이란 무엇인가」,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원.
조태린(2010), 언어 규범과 언어 변이의 문제 – '표준 화법'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8-2,
조태린(2011ㄱ),「부부 간 호칭어 및 높임법 사용의 양성 불평등 측면」,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조태린(2011ㄴ), 차별적 언어 표현과 사회 갈등의 문제, 나라사랑, 외솔회.
진경애 · 이미숙(2015), 한국과 일본의 국어교과서 및 소설에 나타난 呼稱 대조 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44,
진경애(2016), 한국과 일본의 呼秤 및 指秤 연구 – 한 · 일 원작 소설과 번역본의 대조를 통하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진소희(2015), 호칭어의 전략적 사용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채완(2018), 가족 간의 언어 예절 - 호칭을 중심으로, 새국어생활 제28권 제1호, 국립국어원.
최건(1990), 사회적 요소로부터 본 조선어와 한어의 호칭, 《중국조선어문》 제2호
최경희(2012), 한국어의 호칭어, 지칭어 교수-학습 방안 연구 –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유숙(2016), 신문기사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 지칭어 분석 – 지칭어와 관련어와 공기어를 중심으로, 《語文論集》 제67집, 중앙어문학회.
최정은(2012), 남녀 관계 변화에 따른 호칭어와 청자 대우법의 양상 – 텔레비전 드라마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3, 우리어문학회.
한원형(2015), 한일 호칭접미사(呼称接尾辭)의 대조 연구 – '-さん' '-さま'와 '-씨' '-님'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37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한현희(2016), 러시아어와 한국어 호칭어의 사회언어학적 비교 연구, 《노어노문학》 28-2, 한국노어노문학회.
허백영(2002), 지칭과 호칭, 《나라사랑》 제103집,
홍기수(1977), 지칭의미론에 관한 소고, 《문창어문논집》 14, 문창어문학회.
황병순(1999), 국어 인사말 연구, 《배달말》 25, 배달말학회.
侯文玉 · 金鉉哲(2015), 중 · 한 의문사 '誰'와 '누구'의 비의문 지칭기능 대조 연구, 《中國語文學論集》 92, 중국어문학연구회.

3. 단행본

강신항(2007), 『오늘날의 국어생활』, 박이정.
강연임(2017),『한국어의 활용과 화용론』, 인문과교양.
강현석, 강희숙 외(2014),『사회언어학』, 글로벌콘텐츠.
高陸洋(2007),『한·중 호칭어의 대조 연구 : 사회언어학적 방법론』, 박이정.

국립국어연구원(2001),『국어연구원에 물어보았어요 2001 : 국어 생활 질의응답 자료집 : 일반용』, 국립국어연구원.
고영근, 남기심(2014),『표준국어 문법론』, 박이정.
구본관, 박재연 외(2016),『한국어 문법 총론 2』, 집문당.
권경근, 박소영 외(2016),『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 박이정.
김광희(2010),『(실무자를 위한) 정서법과 바른 국어생활』, 학문사.
김길영(2003),『한국어 화용론』, 세종출판사.
김윤옥(2016),『화법 교육』, 미래엔.
김형철, 김정대 외(2010),『언어와 언어생활』, 경남대학교출판부.
나찬연(2013),『국어 어문 규범의 이해』, 월인.
량홍(2014),『연변 지역 친족호칭어와 청자대우법 연구』, 역락.
박덕유(2003),『화법·작문 교육론』, 역락.
박숙희(2014),『국어 어문 규범』, 역락.
박영순(2004),『한국어의 사회언어학』, 한국문화사.
박영순(2007),『한국어 화용론』, 박이정.
서덕주(2013),『(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부해야 할) 한글 맞춤법과 어법』, 형설.
서상준, 손춘섭 외(2013),『한국어 어문 규범』, 역락.
성환갑(2001),『(삶을 함께하는) 국어 화법』, 동인.
송경숙(2008),『담화화용론』, 한국문화사.
신흥대학. 문학과 언어 교수실(1998),『생활과 언어』, 국학자료원.
안귀남(2007),『경북 방언의 연구』, 민속원.
양순임(2016),『한국어어문규범연구』, 태학사.
양영희(2015),『사회언어학 관점에서의 국어 호칭어 사적 전개 연구』, 역락.
왕한석(2005),『한국 사회와 호칭어』, 역락.
우형식(2009),『(한국어 교육을 위한)한국어 어휘의 이해』,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이경우(2017),『한국어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역락.
이경우, 김경희(2009),『화법과 언어생활』, 역락.
이성만(2012),『미디어 언어의 텍스트화용론』, 경진.
이성범(2001),『추론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이성범(2012),『화용론 연구의 거시적 관점』, 소통.
이성범(2015),『소통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이성범, 장인봉 외(2002),『화용론 연구』, 태학사.
이은정(1995),『(표준 화법을 적용한) 고운 말 바른 표현 』, 白山出版社..
이익섭(2000),『사회언어학』, 민음사.
이정복(2002),『국어경어법과 사회언어학』, 월인.
이정복(2008),『한국어 경어법, 힘과 거리의 미학』, 소통.
이정복(2017),『사회적 소통망(SNS)의 언어문화 연구』, 소통.
이주행(2006),『한국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원리』, 동인.
이주행(2002),『전통 화법과 화법 교육』, 역락.
이주행(2004),『화법 교육의 이해』, 박이정.
이주행(2013),『어문 규범의 이해』, 보고사.
이창덕(2017),『화법 교육론』, 역락.
이창덕, 민병곤 외(2010),『교사화법』, 즐거운학교.
임칠성(2004),『교사화법 교육』, 집문당.
임칠성(2013),『공공화법 :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현대인의 화법』, 태학사.
장소원(2007),『방송화법』, 커뮤니케이션북스.
장태진(2010),『국어학 사회언어학의 탐구』, 태학사.
전영우(2004),『언어 예절과 인간관계』, 역락.
전영우(2017),『화법에 대하여』, 소명출판.
정동해(2013),『어휘 의미 화용론 국어 규범』, 희소.

조선일보사(1996ㄱ),『우리 말의 예절: 화법의 실제와 표준. 상』, 朝鮮日報社.
조선일보사(1996ㄴ),『우리 말의 예절: 화법의 실제와 표준. 하』, 朝鮮日報社.
조성문(2009),『외국인을 위한 말하기』, 한양대학교 출판부.
조오현(2005),『북한 언어 문화의 이해』, 경진문화사.
조형일(2017),『한국 어문 규범』, 박이정.
최석재(2008),『국어 대우법 체계의 정보화 연구』, 박이정.
최태연(2013),『우리 언어 예절』, 역락.
한국사회언어학회(2002),『문화와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한국문화사.
한국사회언어학회(2012),『사회언어학 사전』, 소통.
한국화법학회 화법용어해설위원회(2014),『화법 용어 해설』, 박이정.
한길(2011),『(외국인 대상) 한국의 언어와 문화』, 역락.
황대화(2009),『서북방언의 친족어 연구』, 제이앤씨.

4. 연구 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2011), 『초 중등 독서 활성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구현정 외(2014), 『분야별 화법 분석 및 향상 방안 연구-가정 내 대화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1991), 『국어의 표준화법(시안)』,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1992), 『표준 화법 해설』,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06),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11), 『표준 언어 예절』, 국립국어원.
나윤정 외(2017),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민병곤 외(2015),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연구를 위한 기초 조사』, 국립국어원.
민병곤 외(2016),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안태숙 외(2010), 『표준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이대성 외(2013), 『남북 언어예절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이창덕 외(2009), 『표준 화법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전은주 외(2015), 『분야별 화법 분석 및 향상 방안 연구-직장 내 대화법-』,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국립국어원.

5. 외국 논저

Adams, M. J. (1994/1996). *Beginning to read: Thinking and learning about print.* Cambridg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erton, D. (1996). Proper names and definite descriptions with the same reference: a pragmatic choice for language users. *Journal of Pragmatics* 25. 621-633.

Beck, U. & Beck-Gernsheim, E. (2010). Passage to hope: Marriage, migration, and the need for a cosmopolitan turn in family research. *Journal of Family Therapy & Review*, 2, 401-414.

Blommaert, J. (2005). *Discour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lum-Kulka, S. (1987). Indirectness and politeness: Same or different?. *Journal of Pragmatics*, 11(2), 131-146.

Blum-Kulka, S. (1989). Playing it safe: the role of conventionality in indirectness. In S. Blum-Kulka, J., House, J. & G. Kasper (Eds.),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New directions in discourse processing* (pp. 37-71). Norwood, NJ: Ablex.

Blum-Kulka, S. (1997). *Dinner talk. Cultural patterns of sociability and socialization in family discourse*.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Bourdieu, P. (1977). The economics of linguistic exchanges. *Social Science Information*, 16(6), 645-668.

Boxer, D. (2002). Nagging: The familial conflict arena. *Journal of Pragmatics*, 34(1), 49-61.

Braun, F. (1988). *Terms of address: problems of patterns and usage in various languages and cultures*. Berlin: Mouton de Gruyter.

Brown, R. & Ford, M. (1961). Address in American English.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 375-385.

Brown, R. & Gilman, A. (1960). The pronouns of power and solidarity. In Sebeok, T. A. (ed.). *Style in language*. London: Wiley & Sons. 253-276.

Brown, P. & Levinson, S. C.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New York, NY, 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Bucholtz, M., & Hall, K. (2005). Identity and interaction: A sociocultural linguistic approach. *Discourse Studies*, 7(4-5), 585-614.

Burrell, N. A. (1995). Communication patterns in stepfamilies. In M. A. Fitzpatrick & A. L. Vangelisti (Eds.), *Explaining family interaction* (pp. 290-309). Thousand Oaks: Sage.

Candlin, C. (2000). General editor's preface. In B. Norton, *Identity and language learning: Gender, ethnicity and educational change* (pp. xiii-xxi). Essex: Pearson Education Limited.

Dale, I. R. H. (1978). Beyond intuition: the use of questionnaires in linguistic investigation. *Anthropological Linguistics 20*. 158-166.

Davies, B. and Harré, R. (1990). Positioning: The discursive production of selves.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20(1), 43-63.

Dedaic, M. N. (2001). Stepmother as electron: Positioning the stepmother in a family dinner conversation. *Journal of Sociolinguistics*, 5(3), 372-400.

Denzin, N. K. & Lincoln, Y. S. (2005). Introduction. The discipline and practice of qualitative research. In N. K. Denzin & Y.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ition) (pp. 1-32). Thousand Oaks: SAGE.

Duff, P. A. (2008). Case study research in applied linguistics. New York: Routledge.

Fasold, R. (1993). *The Sociolinguistics of Language*. Cambridge,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Halliday, M.A.K and R. Hasan. (1990)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semiotic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anong, L. H. & Coleman, M. (2004). *Stepfamily relationships. Development, dynamics, and interventions*.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Geertz, H. (1989). *The Javanese family: A study of kinship and socialization*. Prospect Heights:

Waveland Press.

Geiger, R. A. (1979). Third-person reference in German. *Papers in Linguis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Communication 12* (3-4). 535-552.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Anchor.

Goffman, E. (1981). Footing. In *Forms of talk* (pp. 124-159).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Gordon, C. (2003). Aligning as a team: Forms of conjoined participation in (stepfamily) interaction. *Research on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36(4), 395-431.

Gordon, C. (2009). Making meanings, creating families. *Intertextuality and framing in family intera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Holmes, J. (1992)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London: Longman.

Kolstrup, K. (2013). "You"re not in charge here". Negotiations of control and connection in a binational family. *Multilingua*, 32(4), 441-461.

Kramsch, C., & Whiteside, A. (2008). Language ecology in multilingual settings. towards a theory of symbolic competence. *Applied Linguistics*, 29(4), 645-671.

Kvale, S. (1996): *InterView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Laforest, M. (2002). Scenes of family life: Complaining in everyday conversation. *Journal of Pragmatics*, 34(10-11), 1595-1620.

Laforest, M. (2009). Complaining in front of a witness: Aspects of blaming others for their behaviour in multi-party family interactions. *Journal of Pragmatics*, 41(12), 2452-2464.

Larsen-Freeman, D., & Cameron, L. (2008). *Complex systems and applied linguistics*. Oxford, England: Oxford UP.

Lee, D. A. (1997). Frame conflicts and competing construals in family agreement. *Journal of Pragmatics*, 27, 339-360.

Levin, I. (1997a). Stepfamily as project. *Marriage & Family Review*, 26(1), 123-133.

Levin, I. (1997b). The stepparent role from a gender perspective. *Marriage & Family Review*, 26(1), 177-190.

Luong, H. V. (1990). *Discursive practices and linguistic meanings: the Vietnamese system of person reference*. Amsterdam: John Benjamins.

Marinova, D. (2007). Finding the right balance between connection and control: A father"s identity construction in conversations with his college-age daughter. In D. Tannen, S. Kendall & C. Gordon (Eds.), *Family talk. Discourse and identity in four American families* (pp. 103-120).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arkus, H. & Nurius, P. (1986). Possible selves. *American Psychologist*, 41 (9), 954-969.

Mauthner, N. S. & Doucet, A. (2003). Reflexive accounts and accounts of reflexivity in qualitative data analysis. *Sociology*, 37(3), 413-431.

Oyserman, D., Elmore, K., & Smith, G. (2012). Self, self-concept, and identity. In M. R. Leary, & J.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2nd edition) (pp. 69-104).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Riessman, C. K. (1993). *Narrative analysis*. London: SAGE
Riessman, C. K. (2008). *Narrative analysis for the human sciences*. London: SAGE.
Schegloff, E. S. (2007). *Sequence organization in interaction. A primer in conversation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egloff, E. S., Jefferson, G. & Sacks, H. (1977). The preference for self-correction in the organization of repair in conversation. *Language*, 53(2), 361-382.
Silverman, D. (2001). *Interpreting qualitative data methods for analysing talk, text and interaction* (2nd edition). London: SAGE.
Stake, R. E. (2005). Qualitative case studies. In N. K. Denzin & Y.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ition) (pp. 443-466). Thousand Oaks: SAGE.
Tannen, D. (2001). *I only say this because I love you*. New York: Ballantine.
Tannen, D. (2007). Power maneuvers and connection maneuvers in family interaction. In D. Tannen, S. Kendall & C. Gordon (Eds.), *Family talk. Discourse and identity in four American families* (pp. 27-4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ten Have, P. (2007). *Doing conversation analysis*. London: Sage Publication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1)3. (1997). 285--438.
Thorne, S. L. (2005). Epistemology, politics, and ethics in sociocultural theory.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9(3), 393-409.
Thorne, S. L. (2011). Community formation and the world as its own model. *The Modern Language Journal*, 95(2), 304-307.
Varenne, H. (1992). *Ambiguous harmony. Family talk in America*. Norwood: Ablex.
Watts, R. J. (1991). *Power in family discourse*. Berlin: Mouton de Gruyter.
Wolfson, N. (1976). Speech events and natural speech: some implications for sociolinguistic methodology. *Language in Society 5*. 189-209.
Zwicky, A. M. (1974). Hey, Whatsyourname! In La Galy, M. W., Fox, R. A. & Bruck, A. (eds.). *Papers from the Ten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787-801.

6. 누리집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nile.or.kr/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국어문화원 www.korea.go.kr/kadvice
통계청 www.kostat.go.kr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www.textbook.ac
한국교육개발원 국가평생교육통계 lifelong.kedi.re.kr
한국언어문화연구원 www.kolang.or.kr



부 록

1. 심층 면담 질문지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 연구 - 언어 예절을 중심으로

	ID-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심층 면담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심층 면담은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 연구-언어 예절을 중심으로" 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언중의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살피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사회적 소통을 위해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언어 예절, 특히 호칭어와 지칭어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호칭어·지칭어가 무엇인지, 호칭어·지칭어의 사용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자유롭게 답변해 주십시오. 가급적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면담에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순수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모든 개인 정보는 저희 연구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답변은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예절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면담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주관 : 국립국어원 박미영 학예연구사	실사 수행 :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현희 교수
myaprk96@korea.kr	hhlee311@anyang.ac.kr
(Tel. 02-2669-9724)	(Tel: 031-467-0785)

【면담자】

면담자		면담 일시	2018 년 월 일
		면담 장소	

【응답자】

SQ 1.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SQ2. 연령	만 _____ 세
SQ 3. 학 력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④ 대학원		
	① 재학 ② 졸업 ③ 수료 ④ 중퇴		
SQ 4. 직 업	① 관리/전문직 ④ 기술직 ⑦ 가정주부		
	② 서비스직 ⑤ 노무직 ⑧ 기타		
	③ 사무직 ⑥ 학생 (초, 중, 고, 대학 이상) ( )		

【면담자 주의사항】

※심층 면담에서 면담자는 아래 사항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1) 모든 답변에 대한 응답자의 선택 이유나 의견은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아울러 정답을 말하도록 유도하지 말고 응답자가 실제 사용하는 어형을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십시오.

(2) 만약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응답과 함께 이유나 응답자의 의견도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표준언어예절>에 제시된 호칭어나 지칭어가 아닌 다른 표현에 대해서도 응답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4) 호칭어와 지칭어를 구분해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5) <예시>, <주의>, <표준> 등을 고려해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6) 피험자가 직접 사용하는 호지칭 외에도 주변 사람들이 사용하는 호지칭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면 응답으로 포함해 주십시오.

【응답자 주의사항】

※심층 면담에서 응답자는 아래 사항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1) 본 면담은 크게 가족 관계에 대한 것과 사회관계에 대한 것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에 대해 호칭어와 지칭어를 답변해 주십시오.

호칭어: 사람이나 물건 따위의 상대를 부르는 말
지칭어: 사람이나 사물 등을 가리켜 이르는 말

예)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 "아빠, 식사하세요"에서처럼 '아빠'라는 호칭어를 사용하지만 회사처럼 공적인 자리에서는 아버지를 가리켜 이를 때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오늘은 일찍 들어가 보겠습니다."에서처럼 '아버지'라는 지칭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어머니나 동생 혹은 친한 친구에게 아버지를 가리켜 이를 때에는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으므로 호칭어와 동일한 "엄마, 아빠는 오늘 늦으신대요."에서처럼 '아빠'라는 지칭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2) '정답'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자께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표현 또는 주변에서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표현을 답변해 주십시오.

(3) 문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응답하셔도 좋습니다.

(4) 답변이 잘 생각나지 않을 경우 면담자에게 무엇이 <표준언어예절>에 있는 표현인지 묻고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심층 면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 가족 관계의 범위에 관한 문항

A1. 응답자의 가족 관계의 범위와 가족 간 친분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평소 사용하고 있는 호칭어와 지칭어를 파악하는 것과 함께 호칭어·지칭어 사용의 필요성, 인식, 어휘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1. 호칭어·지칭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가족관계의 범위	
1-1. 결혼을 하셨습니까?	
1-2. 자녀나 손주(손자/손녀)가 있습니까?	
1-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주의>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나의 관계를 답변	
1-4. 평소에 자주 만나는 친척이 있습니까?	
1-5. 친척 중 윗세대의 친척(존속)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서로 호칭할 일이 있을 만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까? <주의> 친가나 외가, 남편의 가족이나 아내의 가족을 구분하여 답변	
1-6. 친척 중 아랫세대의 친척(비속)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서로 호칭할 일이 있을 만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까? <주의> 친가나 외가, 남편의 가족이나 아내의 가족을 구분하여 답변	

사회관계 (공적 관계, 사적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1. 호칭어·지칭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회관계의 범위	
1-1. 자신이 속한 사회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시>공적: 직장, 사회단체, 학부모회 등 사적: 동호회, 동창회 등	
1-2. 현재 자주 만나는 사회관계에 있는 사람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시>직장 동료, 동호회 사람들, 활동 중인 사회단체 회원 등	
1-3. 공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시>직장 동료, 공무원, 손님-종업원 등	
1-4. 사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시>동창회에서 만나는 친구,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 등	
1-5. 공적인 관계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 형성되는 사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예시>학부모회를 통해 만난 어머니의 남편 또는 내 아이 친구의 부모	

B. 호칭어•지칭어 사용 양상

가족 관계 <1. 부모와 자녀 사이> <2.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3. 처부모와 사위 사이>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1. 부모-자녀	호칭	**a. 자녀를 이름 대신 '아들'이나 '딸'로 부르기도 합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 자녀의 미혼/기혼 여부를 생각하여 응답 **b. 부모님을 '엄마', '아빠'로 부릅니까? 이렇게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 결혼 전후, 자녀가 생긴 후로 달라진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여 응답	
	지칭	**a.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들'이나 '딸'로 지칭하기도 합니까? 자녀의 혼인 여부에 따라 바뀐 점이 있습니까?** <주의>대상에 따라 지칭을 다르게 사용하는지 응답 **b. 부모님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호칭이나 지칭의 변화가 있는지 응답('아빠', '엄마'라고 불렀던 것을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는지 응답	
2. 시부모-며느리	호칭	**a. 시부모를 '아버지/아빠', '어머니/엄마'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아빠'나 '엄마'로 부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까?** **b.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거나 '야', '너'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며느리는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까?** **c. 며느리가 자신과 배우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d. 시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부릅니까? 시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e. '새아가', '며늘애' 등이 며느리를 아이처럼 취급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칭	**a. 시부모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가리키는 말이 다릅니까? 왜 다르게 씁니까?** **b. 며느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가리키는 말이 다릅니까? 왜 다르게 씁니까?**	

가족 관계 <1. 부모와 자녀 사이> <2.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3. 처부모와 사위 사이>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3. 처부모-사위	호칭	a. 처부모를 '장인(어른)', '장모(님)' 외에 '아버지/아빠', '어머니/엄마'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아버지/아빠', '어머니/엄마' 등으로 부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까? b. 사위를 '자네', 'O서방' 외에 이름을 부르거나 '야', '너'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사위는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까? c. 사위가 자신과 배우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사위가 자신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d. 처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부릅니까? 처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지칭	a. 처부모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가리키는 말이 다릅니까? 왜 다르게 씁니까? b. 사위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가리키는 말이 다릅니까? 왜 다르게 씁니까?	

【면담자 메모】

가족 관계 <4. 남편에 대하여> <5. 아내에 대하여> <6.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4. 남편 5. 아내	호칭	**배우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오빠', '누나', '형', '선배', '자기'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상대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떤 요인에 가장 영향을 받습니까?** <주의> '자기'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	
	지칭	**배우자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바깥양반/바깥사람', '안사람/집사람', '와이프' 등으로 지칭하기도 합니까? 상대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떤 요인에 가장 영향을 받습니까?** <주의>다른 사람(부모님 또는 웃어른)과 함께 있는 경우 고려 <주의> 배우자가 나를 '바깥양반', '집사람', '안사람', '와이프' 등으로 가리키는 것을 들었을 때 불편한지 답변	
6-1. 동기와 그 배우자 [남자-형]	호칭	**형의 배우자(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예시> 형수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주의> 친족 관계에서 '아주머니' 계열이 사용되는지, 응답자가 알고 있는지 확인.	
	지칭	**형의 배우자(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 형, 자녀, 부모, 다른 사람 <예시> 형수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큰어머니(큰어머님)	
6-2. 동기와 그 배우자 [남자-남동생]	호칭	**남동생의 배우자(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예시> 제수씨(弟嫂氏), 계수씨(季嫂氏)	
	지칭	**남동생의 배우자(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남동생, 자녀, 부모, 다른 사람 <예시>제수씨(弟嫂氏), 계수씨(季嫂氏), 작은어머니, 숙모	
6-3. 동기와 그 배우자 [남자-누나]	호칭	**누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예시>매형, 자형, 매부	
	지칭	**누나의 배우자(남편)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 누나, 자녀, 부모, 다른 사람 <예시> 매형, 자형, 매부, 고모부(님)	
6-4. 동기와 그 배우자 [남자-여동생]	호칭	**여동생의 배우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예시> O 서방, 매부, 매제,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지, 이름으로 불렀을 때 문제는 없었는지 답변	
	지칭	**여동생의 배우자(남편)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 여동생, 자녀, 부모, 다른 사람 <예시> O 서방, 매부, 매제, 고모부	

가족 관계 <6.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6-5. 동기와 그 배우자 [여자-오빠]	호칭	**오빠의 배우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예시> 새언니, 언니	
	지칭	**오빠의 배우자(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 오빠, 자녀, 부모, 다른 사람 <예시> 새언니, 언니, 올케, 올케언니, 외숙모(님)	
6-6. 동기와 그 배우자 [여자-남동생]	호칭	**남동생의 배우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예시> 올케, 이름 <주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않는지 확인	
	지칭	**남동생의 배우자(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 남동생, 자녀, 부모, 다른 사람 <예시> 올케, 외숙모	
6-7. 동기와 그 배우자 [여자-언니]	호칭	**언니의 배우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예시> 형부	
	지칭	**언니의 배우자(남편)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 언니, 자녀, 부모, 다른 사람 <예시> 형부, 이모부	
6-8. 동기와 그 배우자 [여자-여동생]	호칭	**여동생의 배우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예시> O 서방, 제부	
	지칭	**여동생의 배우자(남편)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 여동생, 자녀, 부모, 다른 사람 <예시> O 서방, 제부, 이모부, 동생의 남편	
6-9. 나이와 관계의 역전	호칭	**윗동기의 배우자이나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 아랫동기의 배우자이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부릅니까? 부를 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지칭	**윗동기의 배우자이나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 아랫동기의 배우자이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가리킵니까? 가리킬 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6-10. 동생에 대하여	호칭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동생', '아우', '누이', '누이동생'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지칭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다른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동생', '아우', '누이', '누이동생'으로 가리키기도 합니까?**	
6-11. 고모부, 이모부에 대하여	호칭	**고모부(이모부)가 여럿일 경우 '큰고모부(이모부)', '작은고모부', '첫째고모부', '둘째고모부' 등으로 위아래나 순서를 구분하여 부르기도 합니까? 그냥 '고모부', '이모부'로 부릅니까?**	
	지칭	**고모부(이모부)가 여럿일 경우 '큰고모부(이모부)', '작은고모부', '첫째고모부', '둘째고모부' 등으로 위아래나 순서를 구분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리키기도 합니까? 그냥 '고모부', '이모부'로 다른 사람에게 가리킵니까?**	

가족 관계 [여성 응답자용] <7.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7-1. 남편의 동기와 배우자 [남편의 여동생과 남편]	호칭	**a. 남편의 여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가씨'라고 부르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시>아가씨, 고모 <주의>다른 사람(부모님 또는 웃어른)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부르는지도 고려 **b. 남편 여동생의 남편을 어떻게 부릅니까? '서방님'으로 부르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시>서방님, 고모부 <주의>다른 사람(부모님 또는 웃어른)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부르는지도 고려	
	지칭	**a. 남편의 여동생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에 따라 가리키는 말을 다르게 씁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시>아가씨, 시누이, OO 고모 <대상>시부모, 친정부모, 웃어른, 지인, 자녀 등 **b. 남편 여동생의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에 따라 가리키는 말을 다르게 씁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시>서방님, 아주버님, OO 고모부 <대상>시부모, 친정부모, 웃어른, 지인, 자녀 등	
7-2. 남편의 동기와 배우자 [남편의 남동생과 아내]	호칭	**a. 남편의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도련님'이나 '서방님'으로 부르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촌'이나 'OO 작은아버지'로 부르면 어떨까요?** **b. 남편 남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혹시 이름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예시>동서, 작은동서 <주의>다른 사람(부모님 또는 웃어른)과 함께 있는 경우 고려	
	지칭	**a. 남편의 남동생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에 따라 가리키는 말을 다르게 씁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시>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삼촌, 시동생, OO 작은아버지 <대상>시부모, 친정부모, 웃어른, 지인, 자녀 등 **b. 남편 남동생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시부모, 친정부모, 웃어른, 지인, 자녀 등	

가족 관계 [여성 응답자용] <7.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7-3. 남편의 동기와 배우자 [남편의 누나와 남편]	호칭	**a. 남편의 누나를 어떻게 부릅니까? '언니'로 부르면 어떨까요?** <예시>형님 <주의>다른 사람(부모님 또는 웃어른)과 함께 있는 경우 고려하여 답변 **b. 남편 누나의 남편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주버님'이나 '고모부' 중 어느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의>다른 사람(부모님 또는 웃어른)과 함께 있는 경우 고려하여 답변	
	지칭	**a. 남편의 누나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에 따라 가리키는 말을 다르게 씁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시>형님, 시누이, OO 고모 <대상>시부모, 친정부모, 웃어른, 지인, 자녀 등 **b. 남편 누나의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에 따라 가리키는 말을 다르게 씁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시>아주버님, OO 고모부 <대상>시부모, 친정부모, 웃어른, 지인, 자녀 등	
7-4. 남편의 동기와 배우자 [남편의 형과 아내]	호칭	**a. 남편의 형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시>아주버님 <주의>'시숙(님)'을 사용하는지 여부 **b. 남편 형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어렵거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예시>형님 <주의>다른 사람(부모님 또는 웃어른)과 함께 있는 경우 고려	
	지칭	**a. 남편의 형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주버님'과 'OO 큰아버지' 중 어느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시>아주버님, 시아주버니, OO 큰아버지 <대상>부모, 웃어른, 자녀, 지인, 모르는 사람 <주의>'시숙(님)'을 사용하는지 여부 **b. 남편 형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남편의 형제가 여럿일 경우 '첫째동서', '둘째동서'로 구분하거나 혹은 '큰동서', '작은동서'로 구분합니까?** <예시>형님, 큰동서, OO큰어머니 <대상>부모, 웃어른, 자녀, 지인, 모르는 사람	

가족 관계 [남성 응답자용] <8.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8-1. 아내의 동기와 배우자 [아내의 여동생과 남편]	호칭	**a. 아내의 여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처제' 외에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는 내 여동생에게 '아가씨'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제' 대신 '아가씨'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b. 아내 여동생의 남편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시>동서, O 서방 <주의>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친하지 않을 경우 부르기 어려운 점은 없는지 고려하여 답변	
	지칭	**a. 아내의 여동생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에 따라 다르게 가리켜 말합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시>처제, OO 이모, 이모(님), 이름 <대상>부모, 웃어른, 자녀, 지인, 모르는 사람 **b. 아내 여동생의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부모, 웃어른, 자녀, 지인, 모르는 사람 <주의>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친하지 않을 경우 부르기 어려운 점은 없는지 답변	
8-2. 아내의 동기와 배우자 [아내의 남동생과 아내]	호칭	**a. 아내의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처남'이나 '자네' 외에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는 내 남동생에게 '도련님', '서방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남' 대신 '도련님'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b. 아내 남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어렵거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예시>처남의 댁, 처남댁	
	지칭	**a. 아내의 남동생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에 따라 다르게 가리키는 말을 씁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시>처남, OO 외삼촌 <대상>부모, 웃어른, 자녀, 지인, 모르는 사람 **b. 아내 남동생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처남의 댁'과 '처남댁' 중 어느 쪽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예시>처남의 댁, 처남댁 <대상>부모, 웃어른, 자녀, 지인, 모르는 사람	

가족 관계 [남성 응답자용] <8.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8-3. 아내의 동기와 배우자 [아내의 언니와 남편]	호칭	a. 아내의 언니를 어떻게 부릅니까? '처형'을 '처형님'으로 부르거나 (아내의 오빠를 부르는 것처럼) '형님'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b. 아내 언니의 남편을 어떻게 부릅니까? '형님' 대신 '동서'로 부르기도 합니까? '동서'로 부른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응답자와 상대방의 나이/ 다른 사람(부모님 또는 웃어른)과 함께 있는 경우 고려 <표준>아내 언니의 남편은 '형님', 단 나이가 나보다 적으면 '동서'	
	지칭	a. 아내의 언니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에 따라 가리키는 말을 다르게 씁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시>처형, OO 이모 <대상>부모, 웃어른, 자녀, 지인, 모르는 사람 b. 아내 언니의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에 따라 가리키는 말을 다르게 씁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시>형님, OO 이모부 <대상>부모, 웃어른, 자녀, 지인, 모르는 사람	
8-4. 아내의 동기와 배우자 [아내의 오빠와 아내]	호칭	a. 아내의 오빠를 어떻게 부릅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친하지 않을 때 '형님'으로 부르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시>형님 b. 아내 오빠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예시>아주머니	
	지칭	a. 아내의 오빠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어렵거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예시>형님, OO 외삼촌, 외숙부 <대상>부모, 웃어른, 자녀, 지인, 모르는 사람 b. 아내 오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어렵거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예시>처남의 댁, 처남댁 <대상>부모, 웃어른, 자녀, 지인, 모르는 사람	

가족 관계 <9. 조부모와 손주 사이>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9-1. 조부모-손주	호칭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어떻게 부릅니까? 외조부모도 '할아버지', '할머니'로 부르면 어떨까요?**	
	지칭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외조부모도 '할아버지', '할머니'로 가리켜 말합니까?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00 할머니'로 부른다고 할 때 지역 외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주의>지역 이름을 넣어서 '안양할머니' 등으로 지칭하는지, 아파트 이름을 넣어서 '래미안 할머니', 직업에 따라 '교수 할머니' 등 무엇을 쓰는지 답변	
	지칭	**a. [남자]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처가 쪽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b. [여자]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시가 쪽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여자는 '친정 할아버지'를 남자는 '할아버지'를 쓰는 것이 표준으로 되어 있음. 남자에는 '친정'에 대응하는 말이 없음.	
9-2. 조부모-손자-손자의 자녀 (3대) 9-3. 조부모-손녀-손녀의 자녀 (3대)	호칭	**자녀(아들, 딸)가 나의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어떻게 부릅니까?** <주의> 명확한 호칭어가 없음	
	지칭	**자녀(아들, 딸)가 나의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등이 표준이고 '증조(曾祖)-친가', '진외(陳外)-외가' 등을 추가 <주의>'증조', '진외', '외외' 등을 알고 있는지 또는 사용하는지 답변	
9-4. 조부모-며느리	호칭	**a. 며느리가 시조부모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할아버님, 할머님/할머니 **b. 시조부모가 손주며느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가'나 이름, '00의 처' 중 무엇으로 부르는 것이 좋을까요?**	
	지칭	**a. 며느리가 시조부모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시할아버지/시할머니, 시조부님/시조모님, 시조부/시조모, OO(자녀) 증조할아버지/증조할머니 **b. 시조부모가 손주며느리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가'나 이름, '00의 처' 중 무엇으로 가리켜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9-5. 외조부모-며느리	호칭	**a. 며느리가 시외조부모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할아버님/외할아버님, 할머님/외할머님/할머니/외할머니 **b. 시외조부모가 외손주며느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가'나 이름, '00의 처' 중 무엇으로 부르는 것이 좋을까요?**	
	지칭	**a. 며느리가 시외조부모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시할아버지/시할머니, 시조부님/시조모님, 시조부/시조모, OO(자녀) 증조할아버지/증조할머니 **b. 시외조부모가 외손주며느리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가'나 이름, '00의 처' 중 가리켜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족 관계 <9. 조부모와 손주 사이>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9-6. 조부모-사위	호칭	**a. 사위가 처조부모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할아버님, 할머님 **b. 처조부모가 손주사위를 어떻게 부릅니까? 이름으로 부르거나 '0 서방'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지칭	**a. 사위가 처조부모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할아버님/할머님, 처조부님/처조모님, 처조부/처조모, OO(자녀) 외증조할아버(님)/외증조할머님, OO 외증조부(님)/외증조모님 **b. 처조부모가 손주사위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0 서방'이나 'OO(손녀 이름) 남편'으로 가리켜 말하면 어떨까요?**	
9-7. 외조부모-사위	호칭	**a. 사위가 처외조부모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할아버님/외할아버님, 할머님/외할머님/할머니/외할머니 **b. 처외조부모가 외손주사위를 어떻게 부릅니까? 이름으로 부르거나 '0 서방'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지칭	**a. 사위가 처외조부모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할아버님/할머님, 외할아버님/외할머님, 처외조부(님)/처외조모(님) <주의> 'OO(자녀) 외외증조할어버지/외외증조부', 'OO(자녀) 외외증조할머니/외외증조모'를 쓸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사용 여부 확인 **b. 처외조부모가 외손주사위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0 서방'이나 'OO(손녀 이름) 남편'으로 가리켜 말하면 어떨까요?**	
9-8. 조부모-손주	호칭	**손주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이름, OO(손주의 자녀) 아범/아비, OO(손주의 자녀) 어멈/어미 <주의> 여러 손주가 있을 때 '첫째야', '둘째야', '막내야' 할 수 있는지 답변	
	지칭	**손주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손주들과 구분해야 할 때는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표준>이름, 손자, 손녀 <예시> 둘째네 큰애, 안양 막내 등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	
9-9. 외손주	호칭	**외손주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이름, OO(외손주의 자녀) 아범/아비, OO(외손주의 자녀) 어멈/어미 <주의> 여러 손주가 있을 때 '첫째야', '둘째야', '막내야' 할 수 있는지 답변	
	지칭	**외손주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이름, 외손자, 외손녀 <주의> 둘째네 큰애, 안양 막내 등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	

가족 관계 <10. 숙질 사이>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10-1. 아버지의 형	호칭	**아버지의 형을 어떻게 부릅니까? '큰아버지' 대신 '큰아빠'를 쓰기도 합니까? 어린아이라면 또는 내 자녀가 나의 형에게 '큰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지칭	**아버지의 형을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백부(伯父)'(맏형만 해당)나 '종조(從祖)'(종조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남자형제)를 알고 사용하는지 답변 <주의>첫째, 둘째 등 순서를 붙여 사용하는지 답변 <대상> 부모님, 웃어른, 당사자, 자녀, 당사자의 자녀, 다른 사람	
10-2. 아버지 형의 아내	호칭	**아버지 형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큰어머니' 대신 '큰엄마'를 쓰기도 합니까? 어린아이라면 또는 내 자녀가 나의 형에게 '큰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지칭	**아버지 형의 아내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백모(伯母)'(맏형의 아내), '종조(從祖)'(종조할머니: 종조할아버지의 아내)를 쓰고 있는지 확인 <주의>첫째, 둘째 등 순서를 붙이는지 확인 <대상> 부모님, 웃어른, 당사자, 자녀, 당사자의 자녀, 다른 사람	
10-3. 아버지의 남동생	호칭	**아버지의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작은아버지' 대신 '작은아빠'를 쓰기도 합니까? '삼촌'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기혼/미혼 여부에 상관 없이 '작은아버지, 아저씨, 삼촌'	
	지칭	**아버지의 남동생을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숙부', '종조(從祖)'를 쓰고 있는지 확인 <대상> 부모님, 웃어른, 당사자, 자녀, 당사자의 자녀, 다른 사람	
10-4.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	호칭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작은어머니' 대신 '작은엄마'를 쓰기도 합니까? '숙모'로 부르기도 합니까?**	
	지칭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숙모', '종조(從祖)'를 쓰고 있는지 확인 <대상> 부모님, 웃어른, 당사자, 자녀, 당사자의 자녀, 다른 사람	
10-5. 아버지의 누이	호칭	**아버지의 누이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 고모, 아주머니	
	지칭	**아버지 누이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자녀의 위치에서 '대고모(님)', '왕고모(님)', '고모할머니(님)' <대상> 부모님, 웃어른, 당사자, 자녀, 당사자의 자녀, 다른 사람	
10-6. 아버지 누이의 남편	호칭	**아버지 누이의 남편을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 고모부, 아저씨	
	지칭	**아버지 누이의 남편을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고숙'이라는 지칭을 쓰는지 확인 <대상> 부모님, 웃어른, 당사자, 자녀, 당사자의 자녀, 다른 사람	

가족 관계 <10. 숙질 사이>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10-7. 어머니의 자매	호칭	**어머니의 자매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이모, 아주머니	
	지칭	**어머니의 자매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 당사자, 자녀, 당사자의 자녀, 다른 사람	
10-8. 어머니 자매의 남편	호칭	**어머니 자매의 남편을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이모부, 아저씨	
	지칭	**어머니 자매의 남편을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이숙'이라는 지칭을 알고 사용하는지 답변 <대상> 당사자, 자녀, 당사자의 자녀, 다른 사람	
10-9. 어머니의 남자형제	호칭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어떻게 부릅1니까?** <표준>외삼촌, 아저씨	
	지칭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진외(陳外)'를 지칭을 알고 사용하는지 답변(진외종조부, 진외할아버님 등) <대상> 당사자, 자녀, 당사자의 자녀, 다른 사람	
10-10. 어머니 남자형제의 아내	호칭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외숙모, 아주머니	
	지칭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진외(陳外)'를 지칭을 알고 사용하는지 답변(진외종조모, 진외할머님 등) <대상> 당사자, 자녀, 당사자의 자녀, 다른 사람	
10-11. 남자 조카	호칭	**남자 조카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 이름(나이가 어릴 때), 조카(님)(성인), OO 아범(결혼 후)	
	지칭	**남자 조카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생질(甥姪, 누이의 아들, 남편 누이의 아들), 이질(姨姪, 자매의 아들, 아내 자매의 아들), 처조카(아내의 조카) 등을 알고 사용하는지 답변	
10-12. 남자 조카의 아내	호칭	**남자 조카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아가, 새아가, OO 어멈, 질부(姪婦), 생질부(甥姪婦), 이질부(姨姪婦)	
	지칭	**남자 조카의 아내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 호칭 + 조카며느리, 처조카며느리, 처질부, 처이질부	
10-13. 여자 조카	호칭	**여자 조카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이름, 조카(님), OO 어멈	
	지칭	**여자 조카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 호칭 + 조카딸, 질녀(姪女), 생질녀(甥姪女), 이질녀(姨姪女), 처조카, 처조카딸, 처이질녀(妻姨姪女)	
10-14. 여자 조카의 남편	호칭	**여자 조카의 남편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름을 부르거나 여자 조카의 이름으로 부르거나 혹은 '조카사위'라고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 O 서방, OO 아범, OO 아비	
	지칭	**여자 조카의 남편을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OO 남편', 'OO네 사위' 등 관계를 활용하여 가리키기도 합니까?** <표준> 호칭 + 조카사위, 질서(姪壻), 생질서(甥姪壻), 이질서(姨姪婿), 처조카사위, 처질서(妻姪壻), 처이질서(妻姨姪婿)	

가족 관계 <11. 사촌 사이> <12. 사돈 사이>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11. 사촌 사이	호칭	**a. 남자 사촌을 어떻게 부릅니까?** **b. 여자 사촌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의>응답자와 상대방의 나이/ 다른 사람(부모님 또는 웃어른)과 함께 있는 경우 고려하여 답변	
	지칭	**a. 남자 사촌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b. 여자 사촌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12. 사돈 사이	호칭	**a. 사돈 중 남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b. 사돈 중 여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주의>'밭사돈', '바깥사돈', '안사돈' 등을 쓰는지 구분 없이 '사돈(어른)'을 쓰는지 답변 <주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부르는지 답변	
	지칭	**a. 사돈 중 남자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b. 사돈 중 여자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다른 사람이 누구인지(아들/딸 또는 사위/며느리, 지인, 모르는 사람 등) 다양하게 제시 <대상> 당사자, 자녀, 당사자의 자녀, 다른 사람	
※사촌 사이의 나이	**사촌 관계 중 나이가 동갑이지만 부모가 형 동생의 관계라면 자녀들도 형 동생으로 나눠 불러야 할까요?(한달이라도 빠르면 사촌 관계까지는 형 동생을 나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동갑이니 서로 이름을 불러도 될까요? 각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정하면 될까요?**		
※배우자의 집안	**'시댁'과 견주어 '처가'라고 부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시집-시가-시댁'과 같이 '처집-처가-처가댁' 등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주의>시댁: 남편 본가, 부모님댁, 남편 집, 시집 처가: 아내 본가, 부모님댁, 아내 집, 처댁		
※일부 어휘에 대한 태도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을 사용하는 것이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전통적인 말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현재 사용하지 않는 말이니 다른 말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관계 [직장] <13. 직장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13-1. [수직관계] 직급이 높은 상대	호칭	a. 직급이 높은 상대(남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00 형' 또는 '00 형님'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b. 직급이 높은 상대(여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0 여사(님)'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주의>공적인 회의와 사적인 식사시간 등 장면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지 고려하여 답변 <주의>나이가 어린 상사의 경우 어떻게 부르는지 고려하여 답변	
	지칭	a. 직급이 높은 상대(남자)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사의 나이가 나보다 어릴 경우,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가리키기도 합니까? <대상>상사, 동료 및 다른 직원 등 b. 직급이 높은 상대(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사의 나이가 나보다 어릴 경우,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가리키기도 합니까? <대상>상사, 동료 및 다른 직원 등	
13-2. [수직관계] 직급이 동일한 상대	호칭	a. 직급이 동일한 상대(남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00 씨', '0 과장(직함)', '선생(님)', 이름 등 무엇으로 부릅니까? '형(님)', '오빠'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b. 직급이 동일한 상대(여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00 씨', '0 과장(직함)', '선생(님)', 이름 등 무엇으로 부릅니까? '누나', '언니'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주의>공적인 회의와 사적인 식사시간 등 장면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지 고려하여 답변 <주의>나이가 많거나 적은 동료의 경우 어떻게 부르는지 고려하여 답변 <주의>친한 정도에 따라 부르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고려하여 답변 <주의>직함으로 '과장'이나 '부장' 외 '프로', '주무관', 담당 등을 사용하는지 답변	
	지칭	a. 직급이 동일한 상대(남자)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동료의 나이가 나보다 어릴 경우,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가리키기도 합니까? b. 직급이 동일한 상대(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동료의 나이가 나보다 어릴 경우,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가리키기도 합니까? <대상>상사, 동료 및 다른 직원 등	

사회관계 [직장] <13. 직장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13-3. [수직관계] 직급이 아래인 상대	호칭	**a. 직급이 아래인 상대(남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김철수 씨', '김철수 군', '김철수 과장', '김 과장', '철수(야)', '총각' 등으로 부릅니까?** **b. 직급이 아래인 상대(여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이영희 씨', '이영희 양', '이영희 과장', '이 과장', '영희(야)', '아가씨' 등으로 부릅니까?** <주의>직급은 낮지만 나이가 많은 경우 '여사', '선생' 등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는지 답변 <주의>공적인 회의와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차이가 있는지 고려하여 답변 <주의>'미스/미스터', 총각, 아가씨 등의 사용 여부 답변	
	지칭	**a. 직급이 아래인 상대(남자)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b. 직급이 아래인 상대(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상사, 동료 및 다른 직원 등 <주의>공적인 회의와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차이가 있는지 고려하여 답변	
13-4. [수직관계] 직급이 동일한 상대-직함 없음	호칭	**a. 직함이 없는 남자/여자 동료를 어떻게 부릅니까? '선생(님)'이나 '김철수 씨', '김 씨', '여기요'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주의>공적인 회의와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차이가 있는지 고려하여 답변 <주의>나이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지 답변 <주의>직함이 없는 경우 두루 부르는 호칭이나 지칭이 있는지 답변	
	지칭	**a. 직함이 없는 남자/여자 동료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나이나 친한 정도, 상대방 등에 따라 다르게 가리켜 말하기도 합니까? '그 직원', '김철수 씨', '걔' 등으로 가리켜 말하기도 합니까?** <주의>공적인 회의와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차이가 있는지 고려하여 답변	

【면담자 메모】

사회관계 [직장] <13. 직장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13-5. 남자-남자 직원 간	호칭	**나이에 따라 '00형', '00야'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상사는 '김형'으로 부를 수 없고 '선배님, 김선배님, 김철수 선배님' 등으로 호지칭 사용	
	지칭	**나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00형', '00야' 등으로 말하기도 합니까?** <표준>'형'은 가족관계에서는 윗사람을, 사회관계에서는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	
13-6. 여자-여자 직원 간	호칭	**나이에 따라 '00언니', '00야'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나이에 따라 '김여사, 김영희여사'로 호지칭, 단 '김언니, 미스김언니' 등은 부적절	
	지칭	**나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00언니', '00야' 등으로 말하기도 합니까?**	
13-7. 남자-여자 직원 간	호칭	**나이에 따라 '00오빠', '00누나', '00야'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지칭	**나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00오빠', '00누나', '00야' 등으로 말하기도 합니까?**	
13-8. 직급을 잘 모르거나 상하가 모호할 경우	호칭	**직급을 잘 모르거나 서로 잘 모르는 직원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지칭	**직급을 잘 모르거나 서로 잘 모르는 직원을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직장에서 직원들 간 호칭	**직장에서 직원들이 서로 어떻게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직장에 있는 시간이 많고 직장 동료와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좋다면 '형', '언니' 등 가족 관계 호칭을 써도 될까요? 아니면 공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격식을 갖춰(직함을 써서) 불러야 할까요?**		

【면담자 메모】

사회관계 [직장-직급이 높은 상대의 아내, 남편, 자녀] <13. 직장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13-9. 직급이 높은 상대의 아내	호칭	**직급이 높은 상대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여사님', '사모님'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사모님, 아주머님/아주머니, O과장님(아내가 직함이 있고 그것을 알 때), 여사님	
	지칭	**직급이 높은 상대의 아내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호칭어 +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 '과장님 부인', '과장님 사모님', '과장 부인', '과장 사모님' 등을 사용 <대상>당사자, 해당 상사, 다른 사람	
13-10. 직급이 높은 상대의 남편	호칭	**직급이 높은 상대의 남편을 어떻게 부릅니까? '사부님', '바깥어른', '바깥양반'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O 선생님, O 과장님(남편이 직함이 있고 그것을 알 때)	
	지칭	**직급이 높은 상대의 남편을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호칭어+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 '바깥어른', '과장님 바깥어른', '바깥양반' <주의>'바깥어른'이라는 지칭어를 사용하는지 확인 <대상>당사자, 해당 상사, 다른 사람	
13-11. 직급이 높은 상대의 자녀	호칭	**직급이 높은 상대의 자녀를 어떻게 부릅니까? 상대와 나의 친한 정도나 나이에 따라 다르게 부르기도 할까요?** <표준>OO(이름), OOO씨, 과장님(자녀가 직함이 있고 그것을 알 때), 선생님(동년배이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지칭	**직급이 높은 상대의 자녀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과장님 아드님'이라고 말합니까? 만일 상대의 나이가 나보다 적다면 어떻게 가리켜 말하면 좋을까요?** <표준>호칭+ 아드님, 따님, 자제분 <대상>당사자, 해당 상사, 다른 사람	

사회관계 [직장-직급이 같거나 아래인 상대의 아내, 남편, 자녀] <13. 직장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13-12. 직급이 같거나 아래인 상대의 아내	호칭	**직급이 같거나 아래인 상대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O 씨/OOO 씨, 아주머님/아주머니, O 선생님, OOO 선생님, O과장님(아내가 직함이 있고 그것을 알 때) <주의>가정주부에게 '선생님'이나 직함을 부르기 어려울 수 있음	
	지칭	**직급이 같거나 아래인 상대의 아내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상: 당사자, 해당 상사, 다른 사람 <표준>호칭어 +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 '과장님 부인', '과장 부인', 'OOO(해당 동료) 부인' 등을 사용하는지 답변	
13-13. 직급이 같거나 아래인 상대의 남편	호칭	**직급이 같거나 아래인 상대의 남편을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O 씨/OOO 씨, O 선생님, O 과장님(남편이 직함이 있고 그것을 알 때)	
	지칭	**직급이 같거나 아래인 상대의 남편을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호칭어+ 다른 사람에게 지칭할 때 '남편', '부군', '바깥양반' <대상> 당사자, 해당 상사, 다른 사람	
13-14. 직급이 같거나 아래인 상대의 자녀	호칭	**직급이 같거나 아래인 상대의 자녀를 어떻게 부릅니까? '김철수 씨 아드님', '김철수 씨 따님' 혹은 '아드님', '따님'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자녀가 성인인지 아닌지, 동료와 친한지 친하지 않은지 등에 따라 부르는 것이 달라지기도 합니까?** <표준>OO(이름), OOO씨, 과장님(자녀가 직함이 있고 그것을 알 때), 선생님(동년배이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주의>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어릴 때	
	지칭	**직급이 같거나 아래인 상대의 자녀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의 나이나 직급에 따라 '아드님'과 '아들' 중 선택하여 가리키기도 합니까?** <표준>호칭+ 아드님, 따님, 자제분, 아들, 딸 <대상>당사자, 해당 상사, 다른 사람	

사회관계 [지인] (응답자: 남자) <14. 지인에 대하여>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14-1. 친구(남자)의 아내	호칭	**친구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친한 친구의 아내일 경우 '제수씨'라고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아주머니, OO씨, OOO씨, OO 어머니/엄마, O 여사/여사님, O과장님(직함이 있고 그것을 알 경우), O 선생/선생님	
	지칭	**친구의 아내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친한 친구의 아내일 경우 '제수씨'라고 가리켜 말합니까?** <표준>OO(친구 이름)+부인/집사람/안사람/처 OO(친구) 씨 부인, OO(지역이름) 아주머니 <대상>해당 친구, 나의 아내, 다른 친구, 자녀	
14-2. 친구(여자)의 남편	호칭	**친구의 남편을 어떻게 부릅니까? 친할 경우 '제부'나 '형님'(나이가 많을 때), '동생'(나이가 적을 때) 등 가족처럼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OO씨, OOO씨, OO 아버지/아빠, O과장님(직함이 있고 그것을 알 경우), O 선생/선생님	
	지칭	**친구의 남편을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친할 경우 '제부'나 '형님'(나이가 많을 때), '동생'(나이가 적을 때) 등 가족처럼 가리키기도 합니까?** 대상-해당 친구, 나의 아내, 다른 친구, 자녀 <표준>OO(친구 이름)+남편, 바깥양반 OO(친구) 씨 남편, OO(지역이름) 아저씨	
14-3. 남편의 친구 14-4. 아내의 친구	호칭	**남편/아내의 여자 친구를 어떻게 부릅니까?** **남편/아내의 남자 친구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여자친구: OO씨, OOO씨, OO 어머니, O 선생/선생님, O과장님(직함이 있고 그것을 알 경우), O여사/여사님, 아주머니 <추가>남자친구: OO씨, OOO씨, OO 아버지, O과장님(직함이 있고 그것을 알 경우), O 선생님	
	지칭	**남편/아내의 여자 친구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남편/아내의 남자 친구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여자친구: 호칭 + OO(자녀) 어머니, OO(지역이름) 아주머니 <추가>남자친구: 호칭 + OO(자녀) 아버지, OO(지역이름) 아저씨 <대상>나의 아내/남편, 다른 친구, 자녀	
14-5. 아버지의 친구 14-6. 어머니의 친구	호칭	**아버지/어머니의 친구를 어떻게 부릅니까?** <표준> 아저씨, OO(지역) 아저씨, OO(친구이름) 아버지, 어르신, 선생님, 과장님(직함이 있고 그것을 알 때) <표준> 아주머니, OO(지역) 아주머니, OO(친구이름) 어머니, 어르신, 선생님, 과장님(직함이 있고 그것을 알 때	
	지칭	**아버지/어머니의 친구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표준> 호지칭 동일 <대상> 아버지/어머니, 다른 사람	

사회관계 [지인] (응답자: 남자) <14. 지인에 대하여>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14-7. 친구의 아버지	호칭	**친구의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 아저씨, OO(지역) 아저씨, OO(친구이름) 아버님/아버지, 어르신, OO(친구 자녀) 할아버지	
	지칭	**친구의 아버지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아버지', '철수네 아버지'로 가리키기도 합니까?** <표준>호칭 + 아버님, 아버지, 아빠, 어르신, 부친, 춘부장 <대상>해당 친구, 다른 사람	
14-8. 친구의 어머니	호칭	**친구의 어머니를 어떻게 부릅니까? '엄마/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 아주머니, 아줌마, OO(지역) 아주머니, OO(친구이름) 어머님/어머니/엄마, 어르신, OO(친구 자녀) 할머니	
	지칭	**친구의 어머니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어머니', '철수네 어머니'로 가리키기도 합니까?** <표준> 호칭 + 어머님, 어머니, 엄마, 어르신, 모친, 자당 <대상>해당 친구, 다른 사람	
14-9. 선생님의 아내	호칭	**남자 선생님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지인의 아내를 '사모님' 외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사모님, O 선생님, O 과장님(직함이 있고 그 직함을 알 때)	
	지칭	**남자 선생님의 아내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지인의 아내를 '사모님' 외 다르게 가리키기도 합니까?** <표준> 호지칭 동일 <대상>남자 선생님, 다른 사람	
14-10. 선생님의 남편	호칭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지인의 남편을 '사부님' 외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 사부(師夫)님, O 선생님, O 과장님(직함이 있고 그 직함을 알 때)	
	지칭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지인의 남편을 '사부님' 외 다르게 가리키기도 합니까?** <표준>호칭 + 바깥어른 <대상>여자 선생님, 다른 사람	

사회관계 [지인] (응답자: 남자) <14. 지인에 대하여>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14-11. 자녀가 나의 남자 친구 <추가>	호칭	자녀가 나의 남자 친구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저씨' 외 '삼촌'이나 '큰(작은)아버지' 등 친족 호칭을 사용합니까?	
	지칭	자녀가 나의 남자 친구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저씨'나 '삼촌'과 같이 가리켜 말합니까? <대상> 나, 나의 배우자, 다른 사람	
14-12. 자녀가 나의 여자 친구 <추가>	호칭	자녀가 나의 여자 친구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주머니/아줌마' 외 '이모', '고모', '큰(작은)엄마' 등 친족 호칭을 사용합니까?	
	지칭	자녀가 나의 여자 친구를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줌마'나 '이모'와 같이 가리켜 말합니까? <대상> 나, 나의 배우자, 다른 사람	

【면담자 메모】

사회관계 [손님⇒직원] <15. 직원과 손님 사이>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15-1. 식당, 상점 등 서비스 업종 15-2. 관공서 등 공적인 기관	호칭	**식당이나 상점의 직원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기요', '여보세요', '선생님'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표준>'아줌마', '언니', '이모'는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 단, 어린이는 '아줌마', '언니' 쓸 수 있음 <주의>직원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을 때 표현이 달라지는지 답변 <주의>식당, 백화점, 편의점, 옷가게, 카페, 등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지 답변	
	호칭	**회사나 구청 같은 관공서 직원을 어떻게 부릅니까? '00씨', '00과장(님)' 등으로 부릅니까? '여기요', '여보세요', '선생님'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까?** <주의>직원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을 때 표현이 달라지는지 답변	
	지칭	**직원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지칭을 쓸 경우가 있는지 주의	
15-3. 병원, 은행, 학교, 교통기관 등 <추가>	호칭	**의사나 간호사, 은행 직원, 학교 직원(교사 제외), 승무원 등을 어떻게 부릅니까?** **(교통기관-승무원: 지하철, 철도, 항공편, 배 등)** <주의>병원, 은행, 우체국, 학교 등 기관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지 답변 <주의> 경비나 주차요원 등의 호칭어 확인	
	지칭	**직원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지칭을 쓸 경우가 있는지 확인	
15-4. 식당, 상점 등 서비스 업종	호칭	**식당이나 상점에서 손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시> '손님', 'OOO님', '직함-님'으로 부르는 것이 표준 <주의>높임표현의 사용이 과한 경우를 당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답변 <예> 커피 나오셨습니다. <주의>손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을 때 표현이 달라지는지 답변	
	지칭	**손님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지칭어가 정해져있지 않은 관계	
15-5.관공서 등 공적인 기관	호칭	**구청이나 시청에서 손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손님: 민원인, 업무 관련 방문자)** <예시>'손님', 'OOO님', '직함-님'으로 부르는 것이 표준 <주의>손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을 때 표현이 달라지는지 답변	
	지칭	**손님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지칭어가 정해져 있지 않은 관계	

사회관계 [직원⇒손님] <15. 직원과 손님 사이>			
관계	면담자 질문		응답자 답변
15-6. 병원, 은행, 학교, 교통기관 등	호칭	**손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손님: 병원-환자, 은행-고객, 학교-학부모, 교통기관-승객 등)** <주의> '교통기관'의 '승객'을 제외하고 표준언어예절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	
	지칭	**손님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지칭어가 정해져있지 않은 관계	
※식당, 상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	**식당이나 상점에서 주로 '아저씨/아줌마', '언니/오빠', '아버님/어머님', '사장님/사모님', '선생님', '손님', '고객님' 등을 많이 사용합니까? 이 외에도 어떤 말을 사용해서 직원과 손님을 부를까요? 직원을 '총각', '아가씨' 등으로 부르면 좋을까요?** <주의>자신이 손님의 입장에서 직원이 자신을 어떻게 불렀는지 혹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불렀는지 들었던 내용을 응답 <주의>직원/손님을 부를 때 나이의 차이, 관계(수직, 수평)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지 고려하여 응답		
※관공서,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	**관공서에서 민원인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선생님', '손님', '어르신', '학생', '할아버님/할머님', '아버님/어머님' 등을 많이 사용합니까? 이 외에 어떤 말을 사용해서 민원인을 부르면 좋을까요?** <주의>자신이 손님의 입장에서 직원이 자신을 어떻게 불렀는지 혹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불렀는지 들었던 내용을 응답 <주의>직원/민원인을 부를 때 나이의 차이, 관계(수직, 수평)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지 고려하여 응답		

【면담자 메모】

C. 호칭어•지칭어 개선 방안의 제안

호칭어나 지칭어를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상대방과의 관계, 사용하는 장면, 나이나 직위 등

2. 호칭어나 지칭어의 '표준'을 다시 정한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가족 관계의 축소로 인한 간소화, 사회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호칭어나 지칭어 보완, 남녀의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된 호칭어나 지칭어의 수정 등
<주의> <표준언어예절>이 필요한지, 권장이나 예시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답변

3.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호칭어나 지칭어 중 추가, 삭제, 변경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추가: 남편을 '자기' 또는 '오빠'라고 부르는 것, 식당에서 종업원을 '이모'라고 부르는 것 등
삭제: '진외', '외외' 등 사용하지 않는 표현
변경: '시댁-처가'를 '시가-처가', '시댁-처댁' 등으로 변경

4. 상대방이 나를 불렀을 때 혹시 기분이 좋지 않았거나 잘못 불렀다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예시> 올케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나를 '아가씨'로 부르지 않고 '영희 씨'라고 불러서 당황했다.

5. 호칭어나 지칭어 중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지 몰라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예시>길에서 우연히 고모의 시부모님을 만났는데 뭐라 불러야 하는지 몰라 할머니라고 불렀다.
<예시>택시 기사님을 어떻게 부를지 몰라서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예시>카페에서 여직원을 '아가씨'라고 불렀더니 갑자기 불친절해졌다.

6. 호칭어나 지칭어 중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습관이 되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시>결혼 전부터 남편을 '오빠'라고 불러서 결혼 후에도 '오빠'라고 불러 시부모님께 야단을 들었지만 고쳐지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

7. 상대방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때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까?

<예시>선생님, 여기요, 저기요, 아저씨, 아줌마

8. 우리말의 호칭어나 지칭어가 복잡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예시>가족관계가 예전처럼 복잡하지 않으므로 너무 어려운 친족호칭어는 쉽게 바꾸면 좋겠다.

긴 시간 동안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은 본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문가 자문회의 질문지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 연구

– 《표준 언어 예절》의 호칭어·지칭어를 중심으로–

❑ 회의 일정 및 장소

○ 개최일시 2018년 8월 21일 오후 2:00~4:00

○ 개최장소 국립국어원

❑ 참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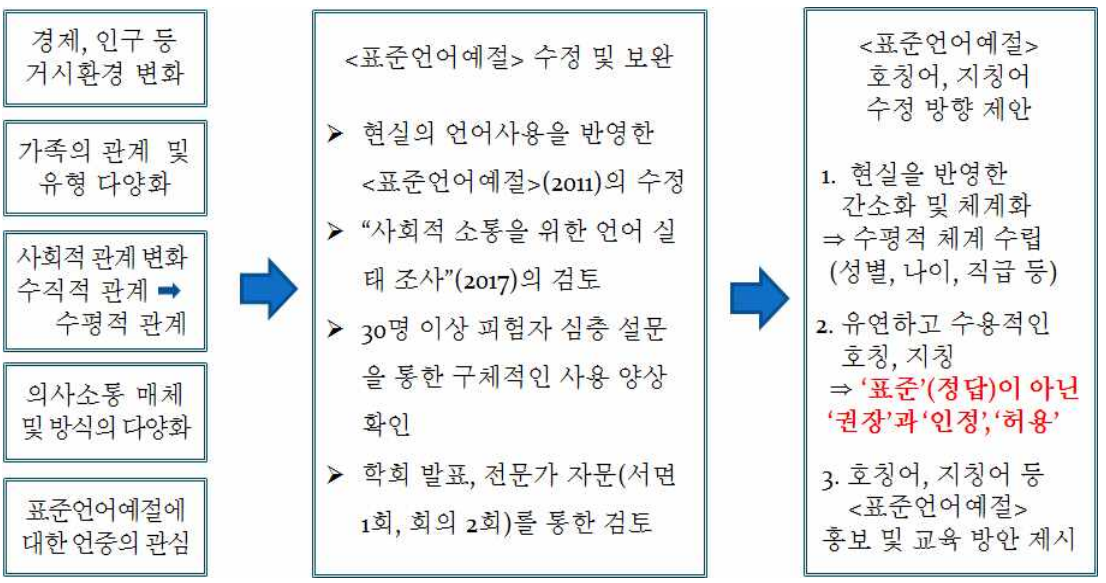
○ 자문위원 김하수 명예교수님(연세대학교)
이정복 교수님(대구대학교)
강희숙 교수님(조선대학교)
전은주 교수님(부산대학교)

○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철우 교수(안양대학교)
공동연구원 나은미 교수(한성대학교)
공동연구원 신호철 교수(청주대학교)
공동연구원 이현희 교수(안양대학교)
연구보조원 신희성 (고려대학교)

○ 국립국어원 김문오 공공언어과장
박미영 공공언어과 학예연구사

❑ 회의 개요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표준 언어 예절》(2011)의 전체 구성

Ⅰ.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1. 부모와 자녀 사이
2.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3. 처부모와 사위 사이
4. 남편에 대하여
5. 아내에 대하여
6.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7.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8.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9. 조부모와 손주 사이
10. 숙질 사이
11. 사촌에 대하여
12. 사돈 사이

Ⅱ.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

13. 직장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하여
14. 지인에 대하여
15. 직원과 손님 사이

○ 주요 논의 사항

1. “표준”을 유지하는 것의 타당성 검토

《표준 언어 예절》이 호칭과 지칭에 대한 정답처럼 되어 있어 변화하는 언어 사용 양상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표준’을 대신하여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호칭이나 지칭은 그대로 ‘전통’으로 두되 여기에 더해 ‘권장’이나 ‘허용’을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1>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을 ‘아버님’은 전통으로 ‘아버지’는 허용으로 처리

<예2> 식당 종업원에 대한 호칭을 ‘아주머니’를 권장으로 ‘이모(님)’은 허용으로 처리

※분량에 관계없이 의견을 적어 주시면 연구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과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의 분량 문제

《표준 언어 예절》의 110쪽 정도가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이고 38쪽 정도가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입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점점 더 확대되고 복잡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발굴이나 언중이 사용하고 있는 호칭어나 지칭어를 포함하기 위해 이 부분을 확대하면 어떨까요?

<예1> ‘15. 직원과 손님 사이’의 경우 ‘식당, 상점, 회사, 관공서’ 등이 같이 처리되어 있는데 이를 최소한 ‘식당, 상점’, ‘회사, 관공서’ 등으로 분리해야 함

<예2> ‘직장 사람들과 그 가족’, ‘지인’ 뿐 아니라 처음 만나는 사이, 정기적으로 만나지만 공식적인 사이, 공적인 관계에서 만났지만 사적인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 사이 등 새로운 관계 발굴

※분량에 관계없이 의견을 적어 주시면 연구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성별 간 비대칭적 표현의 정비[61)]

《표준 언어 예절》 중 상당 부분이 남성과 여성 간 호칭어와 지칭어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대칭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할까요?

<예1> 《표준 언어 예절》 전체에서 '시댁'과 '처가'로 쓰고 있고 여성의 부모의 집은 '친정'으로 부르는 반면 남성의 부모의 집은 해당하는 말이 없음

<예2> 남편에 대한 지칭은 '바깥양반', '바깥사람'인 반면 아내에 대한 지칭은 '안사람', '집사람' 등을 쓰도록 되어 있음

※분량에 관계없이 의견을 적어 주시면 연구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1) 이정복 선생님의 "가정 내 친·인척 간 언어 예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국어학회, 2018)을 참고하여 용어를 정하였습니다.

4. 현재의 실정과 맞지 않는 기술이나 호칭어 지칭어의 삭제

(1) 《표준 언어 예절》 중 일부 기술이 현재 우리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삭제하거나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1>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기술 중(《표준 언어 예절, 15-16쪽》)

가. 아들의 직장 사람들에게는 '○○○ 씨' 또는 성이나 성명에 직함을 붙여 '○ 과장', '○○○ 과장', '○ 과장님', '○○○ 과장님'으로 지칭하고 <하략>

나. 간혹 아들의 직함이나 학위인 '군수', '박사' 등으로 부르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조선조에도 공석에서 당상관 이상의 아들을 직함으로 호칭, 지칭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나이가 들고 사회적으로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오늘날도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자랑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상대방에 따라 적당히 가려 써야 한다.

다. 딸도 혼인하기 전에는 이름을 부르고 혼인한 뒤에는 외손주에 기대어 '어멈', '○○[외손주] 어멈', '어미', '○○[외손주] 어미'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손주가 곁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름]'이나 서열('첫째', '둘째', '막내' 등) 또는 직함으로 부른다.(지칭도 이와 동일하다.) 딸의 지칭도 아들의 경우와 같이 상황에 따라 '어멈', '○○[외손주] 어멈', '어미' '○○[외손주]어미'를 쓰고 사돈 쪽 손아래 동기들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말을 쓸 수도 있다.

<예2>

시부모에 대한 호칭 (《표준 언어 예절》 21쪽)

가. 실제로 시아버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버님'처럼 '-님'자를 붙여 부르면 거리감이 있으므로 '아버지'로 불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경칭인 '아버님'을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했고, 지금도 시아버지는 예의를 갖추어 불러야 할 대상이므로 '아버님'이 시아버지를 부르는 바른 호칭이다.

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아버지보다는 친근한 대상이다. 전통적으로 시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의 경칭인 '어머님'을 호칭으로 사용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머니'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이 배인 '어머니'라는 호칭이 예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분량에 관계없이 의견을 적어 주시면 연구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표준 언어 예절》 중 일부 호칭어·지칭어가 언중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언중의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1> '도련님'과 '서방님', '아가씨' 등은 며느리인 나의 입장에서 내가 시댁의 하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매우 불편하다.

<예2> 나에게 매장 직원이 '어머님'이라고 했다. 내 딸도 아닌데 듣기 거북했다. 그런데 시청에 가니 시청 직원조차 나에게 '어머님'이라고 하더라.

<예3> 요즘은 어딜 가나 다 '선생님'이다. '여사님'도 갑자기 많이 듣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 높여 불러야 하나?

<예4>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오더니 나에게 "아가씨, 여기 커피 줘."라고 했다. 아줌마인 내 입장에서 '아가씨'는 듣기 좋았다.

<예5> 친한 친구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딸에게 '이모야'라고 소개했다. 시집도 안 간 친구를 '아줌마야'라고 소개하기가 어색해서 그랬는데 친근감이 들고 좋았다.

※분량에 관계없이 의견을 적어 주시면 연구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 《표준 언어 예절》-호칭어와 지칭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

위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연구진이 꼭 고려해야 할 사항,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하고 성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분량에 관계없이 의견을 적어 주시면 연구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여성 단체 좌담회 질문지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 연구

- 《표준 언어 예절》의 성별 비대칭적 표현을 중심으로-

❑ 회의 일정 및 장소

○ 개최일시 2018년 8월 13일 오후 2:00~4:00

○ 개최장소 국립국어원

❑ 참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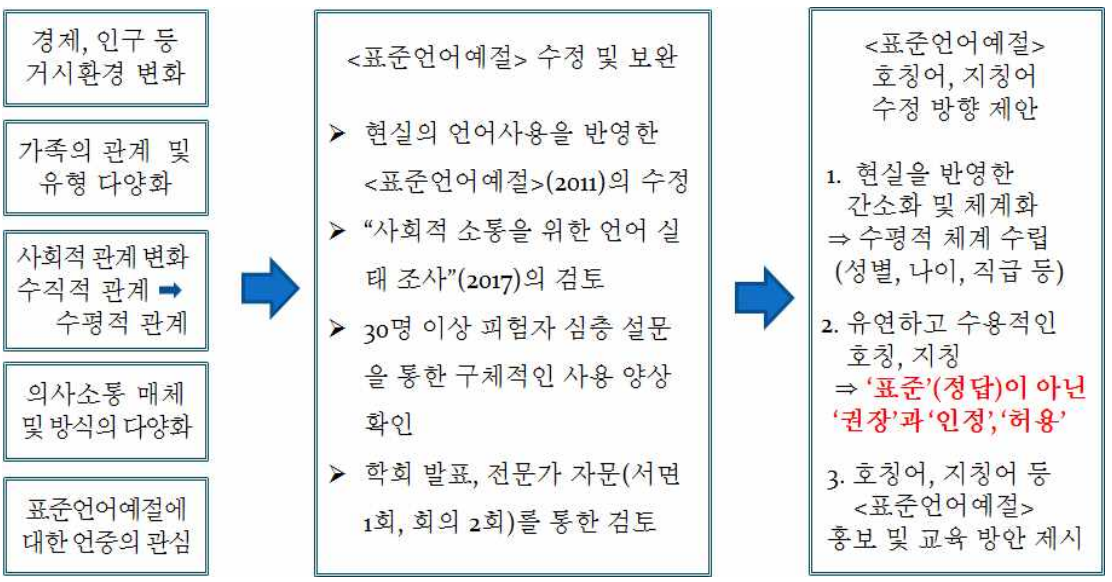
○ 자문위원 변인경 교수님(여성단체연합회 출판공보이사, 글로벌 융합학문연구소장)
고상숙 교수님(단국대 수학교육과, 16대 전국여교수연합회 회장)
이원아 님(모자익 대표, 성균관대 조경학과 겸임교수)
박영순 님((주)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사장, 한국여성건축사협회장)

○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철우 교수(안양대 국어국문학과)
공동연구원 나은미 교수(한성대 교양대학)
공동연구원 신호철 교수(청주대 국어교육과)
공동연구원 이현희 교수(안양대 국어국문학과)
연구보조원 신희성 (고려대)

○ 국립국어원 김문오 공공언어과 과장
박미영 공공언어과 학예연구사

❑ 회의 개요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표준 언어 예절》(2011)의 전체 구성

Ⅰ.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1. 부모와 자녀 사이
2.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3. 처부모와 사위 사이
4. 남편에 대하여
5. 아내에 대하여
6.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7.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8.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9. 조부모와 손주 사이
10. 숙질 사이
11. 사촌에 대하여
12. 사돈 사이

Ⅱ.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

13. 직장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하여
14. 지인에 대하여
15. 직원과 손님 사이

[질의 1] 최근 가족 관계에 나타난 큰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질의 2]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필요한 호칭과 지칭은 무엇이 있을까요?

○ 주요 논의 사항

1. 성별 간 비대칭적 표현의 사례

(1) 부모, 배우자의 집안에 대한 호칭이나 지칭

시부모에 대한 호칭 (《표준 언어 예절》 21쪽)

가. 실제로 시아버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버님'처럼 '-님'자를 붙여 부르면 거리감이 있으므로 '아버지'로 불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경칭인 '아버님'을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했고, 지금도 시아버지는 예의를 갖추어 불러야 할 대상이므로 '아버님'이 시아버지를 부르는 바른 호칭이다.

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아버지보다는 친근한 대상이다. 전통적으로 시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의 경칭인 '어머님'을 호칭으로 사용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머니'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이 배인 '어머니'라는 호칭이 예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표준》 원칙	허용하지 않음
배우자 부모를 부르는 호칭	시부모	아버님 어머님, 어머니	아버지 -
	처부모	장인어른, 아버님 장모님, 어머님	아버지 어머니
내 부모를 배우자에게 가리키는 지칭	(여자가) 남편에게	아버지 어머니/엄마	
	(남자가) 아내에게	아버지 어머니	- 엄마
배우자의 집안	남편의 집안	시댁, -	
	아내의 집안	처가, **친정(남자 쪽은 대응 어휘 없음)**	

[질의]

- 여성에 대해서는 '어머니', '엄마'를 쓰는 것에 허용적인 반면 남성에 대해서는 '아버님'을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시가와 처가의 부모를 '아버님/어머님' 외에 '아버지/어머니'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시어머니를 '엄마', 시누이나 올케를 '언니'라고 부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남편과 아내를 부르는 호칭과 지칭

남편에 대한 지칭		아내에 대한 지칭	
친구에게	남편 친구에게	친구에게	아내 친구에게
그이, 남편, 애아버지, 애 아빠, 철수 아버지, 철수 아빠	그이, 애아버지, 애 아빠, 철수 아버지, 철수 아빠, 바깥양반, 바깥사람	**집사람**, 안사람, 아내, 애어머니, 애 엄마, 철수 엄마	**집사람**, 안사람, 애어머니, 애 엄마, 철수 엄마, 철수 어머니

[질의]

- 전통적으로 남성은 '바깥', 여성은 '안'을 붙여서 구분하여 남편은 '바깥양반', '바깥사람', 아내는 '안사람', '안식구', '집사람'으로 부릅니다. '집사람'을 '표준'으로 제시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부부 간 호칭으로 '여보' 외에 '자기', '오빠' 등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부 간 호칭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남성에게 긍정적, 여성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표현의 사례

(1) 아들과 딸에 대한 호칭과 지칭

>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기술 중(《표준 언어 예절, 15-16쪽》)
>
> 가. 아들의 직장 사람들에게는 '○○○ 씨' 또는 성이나 성명에 직함을 붙여 '○ 과장', '○○○ 과장', '○ 과장님', '○○○ 과장님'으로 지칭하고 〈하략〉
>
> 나. 간혹 아들의 직함이나 학위인 '군수', '박사' 등으로 부르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조선조에도 공석에서 당상관 이상의 아들을 직함으로 호칭, 지칭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나이가 들고 사회적으로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오늘날도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자랑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상대방에 따라 적당히 가려 써야 한다.
>
> 다. 딸도 혼인하기 전에는 이름을 부르고 혼인한 뒤에는 외손주에 기대어 '어멈', '○○[외손주] 어멈', '어미', '○○[외손주] 어미'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손주가 곁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름]'이나 서열('첫째', '둘째', '막내' 등) 또는 직함으로 부른다.(지칭도 이와 동일하다.) 딸의 지칭도 아들의 경우와 같이 상황에 따라 '어멈', '○○[외손주] 어멈', '어미' '○○[외손주]어미'를 쓰고 사돈 쪽 손아래 동기들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말을 쓸 수도 있다.

[질의]

- 아들에 대해서는 박사나 군수 등의 직함으로 부르는 것을 언급한 반면 딸에 대해서는 결혼이나 자녀를 기준으로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삭제나 변경이 필요할까요?

(2) 사위와 며느리에 대한 호칭과 지칭

사위와 며느리에 대한 호칭(《표준 언어 예절, 22쪽, 29쪽》)

가. 시부모와 며느리가 친밀할 경우에 '너'라고 부르는 일도 있지만, '너'는 며느리를 가벼이 대하는 느낌이 있으므로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느리'는 남의 며느리를 지칭하는 느낌도 있고 어른 앞에서 며느리를 낮추는 것이 예의이기도 하므로 '며느리'보다는 '며늘애'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처부모가 사위를 부르는 말은 '김 서방, 영희 아범, 영희 아비, 여보게'이다.(호칭) 당사자에게는 '김 서방, 자네, 영희 아범, 영희 아비'로 가리킨다.(지칭)

[질의]

- 사위에 대해서는 '자네'를 쓰도록 한 반면 며느리에 대해서는 '며늘애', '아가', '새아가' 등을 쓰도록 하였습니다.'며느리'도 대접하여 부르는 호칭이나 지칭도 필요할까요?
- 사위나 며느리에 대해 아들이나 딸과 같이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본래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거나 의미가 변화한 표현의 사례

(1) 배우자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

	기준	관계	배우자의 동기	배우자 동기의 배우자
가	남편 (여자)	형-아내	아주버니(님)	형님
		남동생-아내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동서
		누나-남편	형님	아주버님
		여동생-남편	아가씨	서방님
나	아내 (남자)	오빠-아내	형님	아주머니
		남동생-아내	처남	처남(의)댁
		언니-남편	처형	형님
		여동생-남편	처제	동서

[질의]

- 남자의 경우 아내의 동기에 대해 '처'를 기준으로 '형', '제'로 나누어 부르는데 비해 여자의 경우 남편의 동기에 대해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하는 표현(부남, 부형, 부제) 등을 쓰는 것은 어떨까요?

※참고.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



도련-님 발음 듣기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1」 '도령01'의 높임말.

¶ 부잣집 **도련님처럼** 곱상하게 생긴 사람/전일에 보던 그 용맹스럽고 호탕한 기상은 조금도 없고 귀엽게 자라난 얌전하고 조심성 있는 글방 **도련님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김유정, 두포전≫

「2」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을 높여 이르거나 부르는 말.

¶ **도련님**! 사랑에서 형님이 찾으십니다./**도련님이** 빨리 장가를 들어 새살림이 나야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도령01 | [도 : -]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총각을 대접하여 이르는 말. 한자를 빌려 '道令'으로 적기도 한다.

¶ 앞에 가는 **도령은** 어디에 사는 뉘신가?/다시 걸음을 이어 고갯길을 넘었을 때 "전 **도령**." 하고 부르는 소리가 겹겹의 메아리로 울렸다.≪이병주, 지리산≫

서방-님 발음 듣기 (書房-)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1」 '남편01(男便)「1」'의 높임말.

¶ 여보 **서방님** 오늘 나하고 백년가약을 맺은 후에….≪이희승, 소경의 잠꼬대≫

「2」 결혼한 시동생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3」 손아래 시누이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4」 예전에, 평민이 벼슬 없는 젊은 선비를 부르던 말.

아가씨 발음 듣기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1」 시집갈 나이의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 뾰족구두를 신은 **아가씨가** 바쁘게 걸어왔다./예쁘게 차려입은 한 무리의 **아가씨들이** 잔디밭에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날씬한 몸매의 **아가씨가** 이쪽으로 등을 돌린 채 한낮의 거리 쪽을 우두커니 보고 있었다.≪홍성원, 육이오≫

「2」 손아래 시누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늑아기씨01「2」.

¶ 장래 **아가씨의** 시댁 어른을 만나신다며 시어머니는 일찍부터 준비를 서두르셨다./"**아가씨**, 오빠가 좀 오시랍니다." 올케 양순이가 눈치를 보며 말했다.≪박경리, 토지≫

「3」 예전에, 미혼의 양반집 딸을 높여 이르거나 부르던 말.

- 상대방보다 동기간 서열은 낮지만 나이가 많을 경우 '도련님', '서방님', '형님', '아가씨'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 심화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전통이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호칭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관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부남, 부형, 부제 등) 바꿔 부르는 것이 좋을까요?

(2) 사돈 가족에 대한 호칭과 지칭

	관계	표현	사전 뜻풀이	비고
가	자녀 배우자의 동기 및 그 배우자	사돈총각	사돈집의 미혼 남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사돈'으로 통칭하되 구분이 필요한 경우만 나누어 부르는 방향을 제안
		사돈도령	'사돈총각'을 높여 이르거나 부르는 말.	
		사돈처녀	사돈집의 미혼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사돈아가씨	'사돈처녀'를 높여 이르거나 부르는 말.	
나	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돈어른('바깥사돈'을 높여 이르는 말) 밭사돈(나이가 어리거나 친밀할 때 사용)		
		사부인('안사돈'의 높임말) 사돈(나이가 어리거나 친밀할 때 사용)		
다	부부간의 호칭	임자(아내에게)	장년이나 노년에 들어서 배우자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전통적인 용법을 제시하되 표준에서는 제외하는 방향을 제안
		영감(남편에게)		

[질의]

- 사돈과 관련하여 '도령', '총각', '아가씨', '처녀' 등 결혼 여부나 성별 등을 구분하여 부릅니다. '사돈'으로 통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만 나눠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사돈어른' 또는 '사돈'으로 통칭하고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만 나눠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부 간의 호칭 중 '임자'나 '영감'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표준'으로 제시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사회적 관계의 다양화, 직장 문화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표현이 필요한 사례

(1) 친족 관계의 어휘가 사회적 관계의 어휘로 쓰임이 확대된 경우

번호	표현	확대 또는 변형된 용법	비고
ㄱ	아저씨	-남남끼리에서 성인 남자/결혼한 여자를 예사롭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사전에 뜻풀이가 등재됨
ㄴ	아주머니		
ㄷ	어머님	-상점 등에서 나이 많은 손님을 친근하게 부를 때 -친구의 부모님을 부를 때	
ㄹ	아버님		
ㅁ	아가씨, 언니	-상점 등에서 젊은 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	
ㅂ	이모	-식당에서 종업원을 친근하게 부를 때 -어머니의 친구를 부를 때 cf. 남자의 경우 '삼촌'	

[질의]

- '아저씨', '아주머니' 등의 친족 호칭어가 친족이 아닌 경우에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오히려 친족에게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친구에게 '이모'나 '삼촌'으로 부르거나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이모', '어머니(님)' 등으로 부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친구의 배우자에게는 '제수씨', 나이가 많은 지인의 배우자에게 '형수'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친족 호칭어의 사회적 관계 호칭어로서의 확대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표준 언어 예절'에서 인정해야 할까요?
- 최근 고객에 대해 '손님'보다 '고객님', '사장님/사모님', '어머님/아버님' 등으로 부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손님을 높여 부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인정해야 할까요?
- 식당이나 상점에서 '아저씨/아줌마'로 호칭이나 지칭을 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체 표현으로 '고객님'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2) 직장에서의 호칭과 지칭의 사용

관계	표준적 사용안	부가	권장하지 않는 경우	비고/문제점
상사	김철수 과장님	▸선생님, 선배님, 여사님	▸미스, 미스터	▸'미스/미스터'가 쓰이는 것인지 확인 ▸'여사님'의 사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동일 직급 (직함 있음)	김철수 선배, 김철수 선생, 김철수 과장(님)	▸선생님, 선생, 선배님, 선배, 형, 언니, 여사		▸사적인 호칭이나 지칭의 제외 ▸'오빠', '누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동일 직급 (직함 없음)	김철수 씨	▸선생님, 선생, 선배님, 선배,	▸친한 경우 '철수야'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직함 없는 선배 또는 직급 같지만 나이 많은 동료 직원을 '김철수 씨'로 쓰기 어렵고 '선배님', '선생님'처럼 써야 함 ▸'김 형'하는 것은 곤란-사회에서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	
남자 직원 끼리	형, 철수형		▸여직원이 남자 직원을 '김형'으로 부르는 것은 부자연스러움	
여자 직원 끼리	언니, 영희 언니	▸나이가 지긋한 여자 직원: 이영희 여사	▸'김 언니', '미스 김 언니'로 부르고 가리키는 것은 좋지 않음	▸'언니'는 사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사용해도 되는지 검토 ▸'누나' 또는 '오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검토
아래 직원	김철수 씨, 김 과장, 김철수 과장	▸나이가 많은 경우: 김선생님, 김철수 선생님, 김선생 ▸동년배, 나이 차가 적은 경우: 철수형, 김철수 형 ▸기혼의 여자 직원: 이여사, 이영희여사(아랫사람이어도) ▸나이가 많이 어린 경우: 김철수 군, 이영희 양	▸아랫사람이 어리더라도 '철수야'(공적인 직장에서 쓰기 어려움), '김씨'로(과거 존칭이었지만 현재는 높이는 느낌이 거의 없으므로) 부르는 것은 좋지 않음.	▸'군', '양'을 사용하는 것이 괜찮은지 검토 ▸동일 직급끼리 직장이더라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철수야'를 쓴다고 하고 아래 직원에게 안 된다고 한 것인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

직장 동료 간 호칭과 지칭 (《표준 언어 예절》, 124쪽)

남자 직원이 동년배이거나 나이 차가 적은 동료 남자 직원을 '형', '○ 형', '○○ 형', '○○○ 형'으로 부르고 가리킬 수 있지만 여직원이 남자 직원을 '○ 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여직원이 여직원을 부르고 가리킬 경우에는 '언니'나 '○○ 언니'라고 할 수 있고 나이 지긋한 여자 직원에게 '○ 여사' 또는 '○○○ 여사'라고 부르고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 언니' 또는 '미스 ○ 언니'처럼 부르고 가리키는 것은 좋지 않다.

상사가 직함이 없는 아랫사람을 부르고 가리킬 때	'철수 씨', '김철수 씨'
아랫사람이라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김 선생님', '김철수 선생님', '김 선생', '김철수 선생'
동년배이거나 나이 차가 적은 남자 직원	'김 형', '철수 형', '김철수 형'
나이 든 기혼의 여자 직원	'이 여사', '이영희 여사'
'○○○씨' 하기가 어색할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직원	'이 군', '철수 군', '김철수 군' 또는 '이 양', '영희 양', '이영희 양'
※ '철수야', '김 씨' : 공적인 직장에서 '철수야' 하는 것이 어렵고, 또 '김 씨'의 '씨'가 과거에는 존칭이었지만 오늘날 이름을 넣지 않고 성(姓)만으로 '김 씨'하는 표현은 높이는 느낌이 거의 없으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질의]

- 다양한 직군에서 주로 직함을 중심으로 한 호칭과 지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직장 내 동료들 간의 관계에 따라 '형', '누나', '오빠', '언니' 등의 친족 관계 호칭어나 지칭어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용된다면 주로 어떤 상황에 사용될까요?
- 직장 내 이성 동료들 간(남성과 여성) 호칭이나 지칭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 '-씨'나 '-군', '-양', '-여사' 등이 직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적인 업무로 처음 만나는 사람과 호칭이나 지칭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 관공서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민원인(또는 시민)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관공서를 방문하였을 때 해당 직원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5. 한국어의 언어 예절에서 연구•제안되어야 할 부분

[질의]

- 이후 한국어의 언어 예절에 대한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책임자	박철우(안양대학교)	
공동연구원	나은미(한성대학교)	신호철(청주대학교)
	이현희(안양대학교)	박미영(국립국어원)
연구보조원	신희성(고려대학교)	
보조원	유슬기(안양대학교)	
담당연구원	박미영(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 연구: 언어 예절을 중심으로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18년 11월 2일

발행일: 2018년 11월 2일

인 쇄: 준디자인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정책 연구: 언어 예절을 중심으로' 사업의 결과물로 발간한 것입니다.